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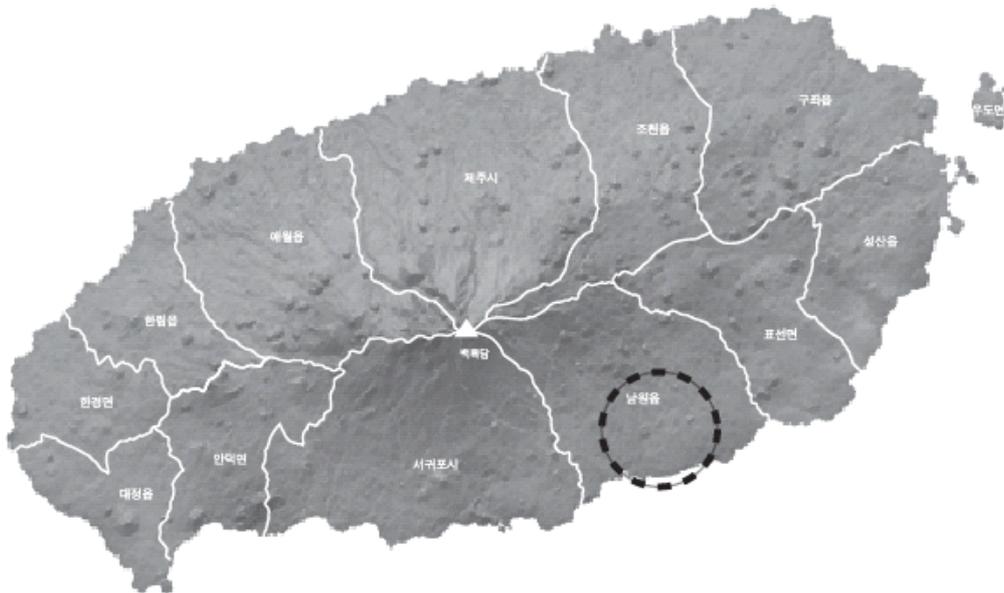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14-01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남원읍 남원리

구술: 고영주 정갑선
전사·표준어대역: 김보향

6



Jeju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7년 제주어구술자료집(1-1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6

-남원읍 남원리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5
2. 사업 기간	5
3. 사업 참여자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6
5. 사업 추진 과정	7
6. 표준어 대역	8
7. 주석	8

II.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9
2. 제보자 일생	17
3. 발일	56
4. 들일	98
5. 바다일	119
6. 의생활	139
7. 식생활	191
8. 주생활	283
9. 신앙	309
10. 세시풍속	317
11. 놀이	331
12. 통과의례	353
13. 민간요법	442

1.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른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친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이 표준어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7년 3월 ~ 2017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이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는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배당함으로써 표준어 대역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원만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소속과 전공, 연구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앗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과 구술 제보자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비고(담당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산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욱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량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5. 사업 추진 과정

‘2017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본래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사업 참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모아 통일하였다. 매달 모임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를 거치며 통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불능인 경우는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기로 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의 띄어쓰기를 같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ㅎ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하고, ‘허는구나, 헛구나’ 등 ‘ㄱ’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술자료의 @는 조사사, #은 구술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며, 첫 줄은 ‘들여쓰기’ 하기로 한다.

-장 구분을 할 때는 enter를 2회 치기로 한다.

한편 월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사된 모든 구술 자료는 표준어 대역을 한다.
- 조사된 내용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를 번갈아 가며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문맥에 맞게 의역한 경우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 ’로 표시하고, 주석으로 그 내용을 밝힌다.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인 경우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석을 간단하게 처리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이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II. 구술 자료

(@: 김보향, #1: 고영주, #2: 정갑선)

1. 조사 마을

101001 @ 사삼사건 전에도 사람.(사삼사건 전에도 사람.)

101001 #1 많이 살았지.(많이 살았지.)

101002 @ 많이 살아났수과? 여기는 한 사십팔 호 정도 있고예? 거기는 사람 많이 살고예. 계민 남원리에는 어떤 성씨가 많우과? 무슨 성씨가 많우과?(많이 살았었습니까? 여기는 한 사십팔 호 정도 있고요? 거기는 많이 살고요. 그럼 남원리는 어떤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1 이제는.(이제는.)

101002 #2 김씨가 많주.(김씨가 많지.)

101002 #1 김씨가 많을 거라.(김씨가 많을 거야.)

101002 @ 예전에는?(예전에는?)

101002 #1 예전에도 김씨가 많았주.(예전에도 김씨가 많았지.)

101001 @ 김씨가 많안. 혹시 여기 남원리 어떻 행 만들어져신지 마을 유래 같은 거 알쿠과?(김씨가 많았어. 혹시 여기 남원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마을 유래 같은 거 알겠습니까?)

101001 #1 잘 몰라.(잘 몰라.)

101001 @ 잘 몰라예?(잘 몰라요?)

101001 #1 으.(으.)

101002 @ 예전에 김씨가 많았던 거, 지금도 김씨가 많아?(예전에 김씨가 많았던 거, 지금도 김씨가 많아?)

101002 #2 김씨가 만허여.(김씨가 많아.)

101003 @ 김씨가 많아. 음, 남원리 사람들 옛날에 어떤 일?(김씨가 많아. 음, 남원리 사람들 옛날에 어떤 일?)

101003 #1 농사 지었주, 주로 농사.(농사 지었지, 주로 농사.)

101003 @ 주로 어떤 농사 남원리는, 지금이야 미짱이주만은?(주로 어떤 농사 남원리는, 지금이야 골이지만.)

101003 #1 옛날에 여기 보리.(옛날에 여기 보리.)

101003 #2 보리 같고 조 같고 감저 헛주.(보리 같고 조 같고 고구마 했지.)

101003 @ 으.(으.)

101003 #1 보리 같고 조 같고.(보리 같고 조 같고.)

101003 @ 음, 음.(음, 음.)

101003 #2 그자 그 멍물 거튼 거 콩 거튼 거는.(그저 그 메밀 같은 거 콩 같은 거는.)

101003 @ 으.(으.)

101003 #2 쪼금씩 허고.(쪼금씩 하고.)

101003 @ 으.(으.)

101003 #2 주로 먹영 살라면 보리, 조.(주로 먹고 살려면 보리, 조.)

101003 @ 보리, 조, 먹영 살라면. 케민 이건 자기네가 먹는 것도 하고 풀기도 하고?(보리, 조, 먹고 살려면. 그럼 이건 자기네가 먹는 것도 하고 팔기도 하고?)

101003 #1 풀기는.(팔기는.)

101003 #2 제국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저 지금.(제국시대에는, 옛날에는 저 지금.)

101003 #1 공출.(공출.)

101003 #2 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바쳤지.(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바쳤지.)

101003 @ 하하. 김일성 모양으로. 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바쳤어?(하하. 김일성 모양으로. 김일성 모양으로 공출 바쳤어?)

101003 #2 음.(음.)

101003 #1 그런데 보리 팔기 시작헌 거는.(그런데 보리 팔기 시작한 거는.)

101003 @ 으.(으.)

101003 #1 예, 나가 사에이치(4H) 자원지도자 헐 때부떠니까.(예, 내가 4H 자원지도자 할 때부떠니까.)

101003 @ 으.(으.)

101003 #1 육십 년 들어가서 맥주맥.(육십 년 들어가서 맥주보리.)

101003 @ 으.(으.)

101003 #1 그거 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여기는 대정더래는 보리가 잘 돼니까 허는데 여기는 잘 안 돼니까 자기 먹을 거만.(그거 팔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여기는 대정으로는 보리가 잘 되니까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되니까 자기 먹을 거만.)

101003 #2 감저 심어서.(고구마 심어서.)

101003 #1 고구마, 감저.(고구마, 고구마.)

101003 #2 공장에 풀양 전분허고 그 전에는.(공장에 팔아서 전분하고 그 전에는.)

101003 #1 감자가 아니라 여긴 감저.(‘감자’가 아니라 여기 ‘감저’.)

101003 @ 감저예?(감저요?)

101003 #1 으.(으.)

101003 #2 뺏테기 해서.(절간고구마 해서.)

101003 @ 으.(으.)

101003 #2 술 공장으로 나가고.(술 공장으로 나가고.)

101003 @ 뺏데기 헨 술 공장으로 가낫수과?(절간고구마 해서 술 공장으로 갔었습니까?)

101003 #2 그거 감저 뺏데기 헛주게.(그거 고구마 절간고구마 했지.)

101003 @ 감저 뺏데기 헨 그건 풀, 풀고예?(고구마 절간고구마 해서 그건 팔, 팔고요?)

101003 #2 으, 기자. 풀고 그자 우리 먹을 거는 땅 파서.(으, 그저. 팔고 그저 우리 먹을 거는 땅 파서.)

101003 @ 으.(으.)

101003 #2 속에 묻어서 먹곡.(속에 묻어서 먹고.)

101003 @ 하하하.(하하하.)

101003 #2 푸는 거는 뺏데기 허고.(파는 거는 절간고구마 하고.)

101003 @ 게민 미짱¹⁾ 농서지었던 거는, 언제서부터 미짱 농서를 지었수과?(그럼 굴 농사지었던 거는, 언제서부터 굴 농사를 지었습니까?)

101003 #1 육십 년대 후반부터.(육십 년대 후반부터.)

101003 @ 육십 년대 후반부터. 여기에 한창 미짱낭덜 싱글 때?(육십 년대 후반부터. 여기에 한창 굴나무들 심을 때?)

101003 #1 장려 시작허기가 육십구 년도부터니까.(장려 시작허기가 육십구 년도부터니까.)

101003 @ 으, 음. 그때서부터.(으, 음. 그때서부터.)

101003 #1 어.(어.)

101003 @ 게민 미짱 농서 시작허난 보리농서 잘 안 지언?(그럼 굴 농사 시작허니까 보리농사 잘 안 지었어?)

101003 #2 으.(으.)

101003 #1 밀감허면서도 한참은 보리농서 젓주게.(밀감허면서도 한참은 보리농사 지었지.)

101003 @ 음.(음.)

101003 #2 그냥 쪼끔 선발대로 헨 사람은 헤가명 또 그거 본보면서 또 쪼끔쪼끔 헤 간 것이 전부.(그냥 조금 선발대로 한 사람은 하면서 또 그거 본보면서 또 조금조금 헤 간 것이 전부.)

101003 @ 음, 경 헛었던 거라.(음, 그렇게 헛었던 거야.)

101003 #2 으.(으.)

101004 @ 여기에는 이 마을 남원리에는 어떤 굴이나 내창 같은 거나 이름 있는 것이 잇수과? 내창 이름이나 굴 이름이나 바위 이름?(여기에는 이 마을 남원리에는 어떤 굴이나 내 창 같은 거나 이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나 굴 이름이나 바위 이름?)

101004 #1 굴, 굴은 이 알동넨 엇고.(굴, 굴은 이 아랫동네는 없고.)

1) '미짱'은 일본어 'みかん'으로 귤을 말한다.

101004 @ 예, 웃동네에?(예, 윗동네에?)
 101004 #1 웃동네에, 그 굴이엔 해 가지고는 엇고.(윗동네에, 그 굴이라고 해 가지고는 없고.)
 101004 @ 오름은 잇수과, 남원리?(오름은 있습니까, 남원리?)
 101004 #1 오름이야 웃동네 가민 잇주게.(오름이야 윗동네 가면 있지.)
 101004 @ 오름 이름이 뭐과?(오름 이름이 뭍니까?)
 101004 #1 운주름².(‘운주름’.)
 101004 @ 은주름?(‘은주름’?)
 101004 #1 운주름 있고.(‘운주름’ 있고.)
 101004 @ 운주름?(‘운주름’?)
 101004 #1 으, 운주름, 운주름 허는데 거 이제는 오름이 길 나 부니까 오름 같지 않주만은.(으, 운주름, 운주름 하는데 거 이제는 오름이 길 나 버려서 오름 같지 않지만.)
 101004 @ 아, 하하.(아, 하하.)
 101004 #2 의귀리 오름은 녀시오름³.(의귀리 오름은 ‘녀시오름’.)
 101004 @ 으.
 101004 #1 의귀리는 있는데 여기는.(의귀리는 있는데 여기는.)
 101004 @ 남원리에 포함된 오름이 운주름밖에 엇어?(남원리에 포함된 오름이 운주름밖에 없어?)
 101004 #1 어, 남원이리에. 여기는 오름 없어.(어, 남원이리에. 여기는 오름 없어.)
 101004 @ 아, 남원일리는 엇고 남원이리에 운주름예?(아, 남원1리는 없고 남원2리에 ‘운주름’요?)
 101004 #1 으.(으.)
 101004 #2 남원읍에 포함된 오름은.(남원읍에 포함된 오름은.)
 101004 @ 으.(으.)
 101004 #2 저 녀시오름도 잇고.(저 ‘녀시오름’도 잇고.)
 101004 #1 아이, 남원읍에야 많주만은.(아이, 남원읍에야 많지만.)
 101004 @ 뭇 위쪽에는 많으니까, 한남리 쪽에도 잇고.(뭇 위쪽에는 많으니까, 한남리 쪽에도 잇고.)
 101004 #1 한남리도 잇고 허주만은 여긴.(한남리에도 잇고 하지만 여긴.)
 101004 @ 없고예.(없고요.)
 101004 #1 여긴.(여긴.)
 101004 #2 바다에.(바다에.)
 101004 @ 으.(으.)

2) ‘운주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오름이다.
 3) ‘녀시오름’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오름이다.

101004 #2 박물관 앞이 큰영⁴⁾ 하나 있어.(박물관 앞에 ‘큰영’ 하나 있어.)
 101004 @ 큰영은 뭐봐?(‘큰영’이 뭐니까?)
 101004 # 풀거치 막.(풀같이 마구.)
 101004 @ 큰영은 하나 있어예?(‘큰영’은 하나 있어요?)
 101004 #2 으.(으.)
 101004 @ 아, 저 신영박물관 앞이예?(아, 저 신영박물관 앞이에요?)
 101004 #1 어.(어.)
 101004 @ 예. 내창도 잇수과, 여기에?(예. 내도 있습니까, 여기에?)
 101004 #2 내가.(내가)
 101004 @ 엇어예?(없어요?)
 101004 #2 있기는 있는데 내가 저 다른 쪽.(있기는 있는데 내가 저 다른 쪽.)
 101004 #1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1004 #2 족아, 족아.(작아, 작아.)
 101004 #1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홍수 칠 적에 있던 내창인데.(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홍수 칠 적에 있던 내인데.)
 101004 @ 으.(으.)
 101004 #1 이체는 그러니까 만들었지, 인공적으로.(이체는 그러니까 만들었지, 인공적으로.)
 101004 @ 으.(으.)
 101004 #2 저 서쪽더레 거치 그런 큰 내창은.(저 서쪽으로 같이 그런 큰 내는.)
 101004 @ 그럼, 자연 내창은 없다예?(그럼 자연 내는 없네요?)
 101004 #1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1004 @ 그 신영박물관 앞이 있는 게 큰영?(그 신영박물관 앞에 있는 게 ‘큰영’?)
 101004 #1 그 앞이.(그 앞에.)
 101004 #2 바다에.(바다에.)
 101004 #1 바닷가에.(바닷가에.)
 101004 @ 바닷가에. 그거 바위?(바닷가에. 그거 바위?)
 101004 #1, #2 어.(어.)
 101004 @ 굴 같은 바위?(굴 같은 바위?)
 101004 #1 아이, 그거 저 왜냐허면 관광지로 해서 저기 간판 달려 잇주.(아이, 그거 저 왜냐하면 관광지로 해서 저기 간판 달려 있지.)
 101005 @ 으, 음. 그 여기는 마을, 남원리에 리사무소, 읍사무소가 있는 거지예?(으, 음. 그 여기는 마을, 남원리에 리사무소, 읍사무소가 있는 거지요?)
 101005 #2 잇주.(있지.)

4) ‘큰영’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앞바다에 있는 해안 절벽을 말한다. ‘영’은 낭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을 나타내는 제주말이다.

101005 @ 남원일리에 있는 거?(남원1리에 있는 거?)
101005 #2 으.(으.)
101005 @ 읍사무소예?(읍사무소요?)
101005 #1 어.(어.)
101005 @ 또 기관이 여기 중학교도 잇수과?(또 기관이 여기 중학교도 있습니까?)
101005 #1 중학교 있고.(중학교 있고.)
101005 @ 중학교 있고.(중학교 있고.)
101005 #1 국민학교, 중학교.(국민학교, 중학교.)
101005 @ 으.(으.)
101005 #1 읍사무서, 지서.(읍사무소, 지서.)
101005 @ 아, 지서도 있고?(아, 지서도 있고?)
101005 #1 어.(어.)
101005 @ 소방서도 있고?(소방서도 있고?)
101005 # 소방서 잇고.(소방서 잇고.)
101005 @ 기관들은 다 들어와 잇다, 여기에는예?(기관들은 다 들어와 왔다, 예기에는요?)
101005 #2 으.(으.)
101006 @ 혹시 여기 옛날에 마을계 같은 거 해놨수가?(혹시 여기 옛날에 마을계 같은 거 했었습니까?)
101006 # 계?(계?)
101006 @ 예, 남원리 마을계 같은 거?(예, 남원리 마을계 같은 거?)
101006 #1 엇어. 없었어.(없어. 없었어.)
101006 @ 크게 한 건 없고. 개인덜은 하나지 안헐예?(크게 한 건 없고. 개인들은 했었지 않아요?)
101006 # 어, 개인덜계.(어, 개인들.)
101006 @ 개인덜끼리.(개인들끼리.)
101006 #1 뭐 갑장훼여 뭐여 허면서덜 그런 거베끼 부락으론 없었어.(뭐 갑장회며 뭐며 하면서들 그런 거밖에 부락으론 없었어.)
101008 @ 예. 삼촌이 생각할 때 남원리 특산물은 뭐과, 특산물?(예. 삼촌이 생각할 때 남원리 특산물은 뭇니까, 특산물?)
101008 #1 특히 제주도에서 남원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내놓을 게 없어.(특히 제주도에서 남원리 특산물이라고 해서 내놓을 게 없어.)
101008 @ 어쨌든 여기도 그냥 다 굴?(어쨌든 여기도 그냥 다 굴?)
101008 #2 굴 하나베끼 남원리 아무 것도 엇어.(굴 하나밖에 남원리 아무 것도 없어.)
101008 #1 옛날에.(옛날에.)

101008 @ 예.(예.)

101008 #1 메역 할 적에는 안여⁵⁾ 메역이라고 하면은 육지 가서도 알아줬지.(미역 할 적에는 ‘안여’ 미역이라고 하면 육지 가서도 알아줬지.)

101008 @ 메역 할 때는.(미역 할 때는.)

101008 #2 미역이 맛있고 좋았어.(미역이 맛있고 좋았어.)

101008 @ 아.(아.)

101008 #1 미역 하면은 육지 가서도.(미역 하면 육지 가서도.)

101008 @ 으.(으.)

101008 #1 제주도 미역 갖고 가 가지고 안여 미역이라고 해 가지고 속여서 팔아 먹었주.(제주도 미역 갖고 가 가지고 ‘안여’ 미역이라고 해서 속여서 팔아먹었지.)

101008 @ 으.(으.)

101008 #1 그 물이 달고 허니까.(그 물이 달고 허니까.)

101008 @ 무슨 미역?(무슨 미역?)

101008 #1 메역.(미역.)

101008 @ 게니까 안여 메역?(그러니까 ‘안여’ 미역?)

101008 #1 어.(어.)

101008 #2 안여 메역. 바다 이름이 안여.(‘안여’ 미역. 바다 이름이 ‘안여’.)

101008 @ 안여?(‘안여’?)

101008 #2 으.(으.)

101008 @ 거 바다, 남원리에 포함된 바다 이름이?(거 바다, 남원리에 포함된 바다 이름이?)

101008 #1 바로 이 앞에.(바로 이 앞에.)

101008 @ 안, 안여.(안, ‘안여’.)

101008 #1 어.(어.)

101008 #2 안여.(‘안여’.)

101008 @ 안여. 거기서 난 메역을 안여 메역이라고 헐예?(‘안여’. 거기서 난 미역을 ‘안여’ 미역이라고 했어요?)

101008 #1, #2 어.(어.)

101008 #1 겐데 이제는 미역이 값도 안 주고 제주도 미역이 안 나가니까. 옛날에는 남원리는.(그런데 이제는 미역이 값도 안 주고 제주도 미역이 안 나가니까. 옛날에는 남원리는.)

101008 @ 으.(으.)

101008 #1 위미에서 여기 시집을 많이 온 원인이 그, 그 관계로 많이 왔다고.(위미에서 여기 시집을 많이 온 원인이 그, 그 관계로 많이 왔다고.)

5) ‘안여’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앞쪽 바다를 말한다.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말한다.

101008 @ 아, 메역 허레.(아, 미역 하러.)

101008 #1 어.(어.)

101008 @ 여자들?(여자들?)

101008 #1 아, 옛날에는 메역 해 가지고 밧도 사고.(아, 옛날에는 미역 해 가지고 밧도 사고.)

101008 #2 그것베끼.(그것밖에.)

101008 #1 집도 사고.(집도 사고.)

101008 #2 못 사니까, 살질 못 허니까.(못 사니까, 살질 못 하니까.)

101008 @ 예.(예.)

101008 #2 생활이 어려우니까.(생활이 어려우니까.)

101008 @ 아, 그럼 여기 남원리 분들도 여자 대부분은 거의 다 물질?(아, 그럼 여기 남원리 분들도 여자 대부분은 거의 다 물질?)

101008 #1 아이고.(아이고.)

101008 #2 다 긴데.(다 그런데.)

101008 #1 옛날에야.(옛날에야.)

101008 @ 으.(으.)

101008 #2 것도 기술이라.(것도 기술이야.)

101008 @ 으.(으.)

101008 #2 기술을 못 부리면 잘 허지 못 허여.(기술을 못 부리면 잘 하지 못 해.)

101008 @ 하하.(하하.)

101008 #2 기술이 좋아야.(기술이 좋아야.)

101008 @ 상군이 웨어야 돈 버는 거라.(기량이 뛰어난 해녀가 되어야 돈 버는 거야.)

101008 #2 어.(어.)

101008 @ 하하.(하하.)

101008 #2 상군⁶⁾이 웨어야.(기량이 뛰어난 해녀가 되어야.)

101008 #1 옛날 이 철 나면은, 봄 나면은.(옛날 이 철 되면, 봄 되면.)

101008 @ 으.(으.)

101008 #1 나 메역 헨 줄테니까 쌀 도라 해서 가져다 먹었다가 메역 해서 물고 헷주게.(내가 미역 해서 줄테니까 쌀 달라고 해서 가져다 먹었다가 미역 해서 물고 했지.)

101008 @ 아.(아.)

101008 #2 생활을 경허고.(생활을 그렇게.)

101008 @ 어.(어.)

101008 #2 잘허는 사람은 밧 값이 싸니까 밧도 사고.(잘하는 사람은 밧 값이 싸

6) '상군'은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니까 밭도 사고.)

101008 @ 아.(아.)

101008 #2 미역 값은 좋고.(미역 값도 좋고.)

101008 @ 미역 값은 좋고예?(미역 값은 좋고요?)

101008 #2 밭 값은 싸고.(밭 값은 싸고.)

101008 @ 으, 경 메역 해영.(으, 그렇게 미역 해서.)

101008 #1 부제 웬 사람도 셔.(부자 된 사람도 있어.)

101008 #2 막 만허여.(아주 많아.)

101008 @ 아, 계민 예전에는 여기 안여 미역.(아, 그럼 예전에는 여기 ‘안여’ 미역.)

101008 #1 어, 그거 없어서 버리니까 특산품이라고 헨 엇어(어, 그거 없어서 버리니까 특산품이라고 해서 없어.)

101008 @ 특산품이었던 거라예. 저기 남원리 여기 마을 자랑거리 혹시 잇수과, 이 마을 자랑거리?(특산품이었던 거지요. 저기 남원리 여기 마을 자랑거리 혹시 잇습니까, 이 마을 자랑거리?)

101009 #1 자랑거리가 엇어.(자랑거리가 없어.)

101008 #2 제일 이 마을이 자랑거리 없는 마을.(제일 이 마을이 자랑거리 없는 마을.)

101008 @ 하하.(하하.)

101008 #1 왜 엇느냐 허면은.(왜 없느냐 하면.)

101008 @ 예.(예.)

101008 #1 이제야 각 처에서 들어와서 모여살기 땀새.(이제야 각 처에서 들어와서 모여살기 때문에.)

101008 @ 무슨 말인지 알쿠다.(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1008 #1 어.(어.)

101008 @ 아, 토박이가.(아, 토박이가.)

101008 #1 토박이가 없거든.(토박이가 없거든.)

101008 @ 토박이가 엇어 부난. 토박이가 엇어부난.(토박이가 없어 버리니까. 토박이가 없어 버리니까.)

101008 #1 토박이가 엇어.(토박이가 없어.)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오늘에 어머니 살아난 얘기를 물어보쿠다. 살아난 얘기. 낳고 자란 과정. 낳고 자랐던 이야기.(오늘요 어머니 살았던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살았던 얘기. 낳고 자랐던 이야기.)

102001 #2 하이고, 그거 창피하게 곤지도 못 한다.(아이고, 그거 창피하게 말하지도 못 한다.)

102001 @ 그거 제죽말로 돌아주면 될 거. 계난.(그거 제죽말로 말해주면 될 거. 그러니까.)

102001 #2 난이.(난.)

102001 @ 으.(으.)

102001 #2 흔 열, 열 흔 처음 나니까 공부도 못 현 이유가.(난 한 열, 열 한 처음 나니까 공부도 못 한 이유가.)

102001 @ 으.(으.)

102001 #2 처음 나서 아, 그때는 국민학교 부뜨기가 지금보단도 어려완에 간에 칠판에 강 뒤 글을 썼는디 그 글을 읽지 못 허민 못 부뜨는 거여.(처음 나서 아, 그때는 국민학교 붙기가 지금보단도 어려워서 가서 칠판에 가서 뭐 글을 썼는지 그 글을 읽지 못 하면 못 붙는 거야.)

102001 @ 으.(으.)

102001 #2 못 부뜨민 또 내년. 계난 으답 설도 상관엇고 아홉 설도 상관엇고. 부트는 게 원이여. 계난 나가 간에, 처음 명칭하게 간에 그걸 몰란에 학교를 으답 설에 못 부뻐지. 못 부뻐 아홉 설 나서 학교를 부뻐는디, 아홉 설. 아홉 설 나서 학교는 부뜨고 학교를 부뻐서 이 년쯤 이시니까 스삼사건 그 육지, 그 일본 놈들이 이젠 막 이제 쫓아갈 때난, 하룬 학교 가시난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잇어도 선생님허고 배 탕 육지로 도망을 가야 할 거렌. 집이 오라서 어머니보고 아이고 학교 선생님은.(못 붙으면 또 내년. 그러니까 여덟 살도 상관없고 아홉 살도 상관없고. 붙는 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처음 명칭하게 가서 그걸 몰라서 학교를 여덟 살에 못 붙엇어. 못 붙어서 아홉 살 돼서 학교를 붙었는데, 아홉 살. 아홉 살 돼야 학교는 붙고 학교를 붙어서 이 년쯤 있으니까 사삼사건 그 육지, 그 일본 놈들이 이젠 마구 이제 쫓아갈 때니까, 하룬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잇어도 선생님허고 배 타서 육지로 도망을 가야 할 거라고. 집에 와서 어머니보고 아이고 학교 선생님은.)

102001 @ 으.(으.)

102001 #2 배 타근에 우리영 시꺼근에 어디 육지 나갈 거엔 험디다. 허난 아이고, 글 못 허건 말라. 죽어도 ㄴ치 앓앗단 죽주. 느만 어디 보내 똥 우린 어떻게 헤질티 우린. 계난 죽어도 ㄴ치 죽고 살아도 ㄴ치 살주. 글 못 허건 말라 허명.(배 타서 우리와 실어서 어디 육지 나갈 거라고 험디다. 하니까 아이고, 글 못 하건 말라. 죽어도 같이 앓아다가 죽지. 너만 어디 보내 두고 우린 어떻게 할지 우린.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지. 글 못 하건 말라 하면서.)

102001 @ 아, 학교 다녀났구나?(아, 학교 다녔었구나?)

102001 #2 쟁 학교를 이젠 못 간 거야. 계난 나가 ㅁ음이 그때 막. 흔 스물, 스물다섯.(그래서 학교를 이젠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그때 아주. 한 스물,

스물다섯.)

102001 @ 계란 사삼사건이 난한 경 현 거 아니예?(그러니까 4·3사건이 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요?)

102001 #2 으으, 일본 놈 시대에.(으으, 일본 놈 시대에.)

102001 @ 예.(예.)

102001 #2 줌줍해지난 다닐 건데 아, 선생님을 보민 절로 어디 갔다 오다 보민 선생님이 봐지민 곱아 불고.(잠잠해지니까 다닐 건데 아, 선생님을 보면 저쪽으로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선생님이 보이면 숨어 버리고.)

102001 @ 무사, 무사 곱아?(왜, 왜 숨어?)

102001 #2 학교 못, 아니 가버리니까. 아니 가기 시작해 부난. 안 가기 시작해 부난.(학교 못, 아니 가버리니까. 아니 가기 시작해 버리니까.)

102001 @ 아, 선생님 보민 무사 너 학교 안 왓시냐 허카 부텐?(아, 선생님 보면 왜 너 학교 안 오고 있니 할까 봐?)

102001 #2 어. 그거, 그거 이제만이만 으망져시민 선생님 뿡 웨 학교 아니 오냐 허민, 이제라도 가민 뵈니까 허민 뵈 건디. 아, 어디 가다 보민 선생님이 저만이 봐지민 오곶 곱아 불고. 그렇게 허단 보난 학포 2학년 헨 못 헛어.(어. 그거, 그거 이제만큼만 영리하고 똑 부러졌으면 선생님 보고 왜 학교 안 오고 있니 하면, 이제라도 가면 됩니까 하면 될 건데. 아, 어디 가다 보면 선생님이 저만큼 보이면 바로 숨어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학포 2학년 해서 못 헛어.)

102001 @ 계란 2년은 다녀진 거?(그러니까 2년은 다닐 수 있었던 거?)

102001 #2 어. 2년 헨 못 허난 그뻐 밤에 저 강습소라고 야학소, 옛날말로 야학소. 야학소를 강 줌 헐라고 허니까 나 생각에도 글은 배울 수 있는데 아, 무슨 심정사 신디 야학소 그 가르치는 사람이 원 나광 곳인 체를 그렇게 허여. 계란 예, 이제 것도 안 해도 기자 기억, 니은 본판만 아니까. 기자 가에도 아버지, 기억에도 아버지민 아, 무신 니은에도 아버지민 나 현 걸 알기를 시작허니까 켜 나가 공부를 헤시민 그때 막 잘헐 걸.(어. 2년 해서 못 하니까 그뻐 밤에 저 강습소라고 야학소, 옛날말로 야학소. 야학소를 가서 줌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도 글은 배울 수 있는데 아, 무슨 심정이야 있는지 야학소 그 가르치는 사람이 원 나와 곳은 책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 이제 것도 안 해도 그저 기억, 니은 본판만 아니까. 그저 가에도 아버지, 기억에도 아버지면 아, 무슨 니은에도 아버지면 내가 한 걸 알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그때 아주 잘할 걸.)

102001 @ 잘 헐 거라신디.(잘 할 거였는데.)

102001 #2 나 스스로가 이제 그 지금 한글을 알아서 그자 그 간판 써진 거나 전화번호나 통장번호나 그자 나 스스로 틀어⁷⁾ 가지고.(나 스스로가 이제 그 지금 한글 알아서 그저 그 간판 쓰인 거나 전화번호나 통장번호나 그저 나 스스로 터득

7) ‘틀다’는 ‘뜯다’이지만 여기서는 ‘터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해 가지고.)

102001 @ 나중예예, 천천히, 천천히?(나중예요, 천천히, 천천히?)

102001 #2 천천히 틀어 가지고 기자, 할망덜 말로 고지서 온 거나, 기자 어디나 전화번호나 하르방⁸⁾ 전화번호나 기자 아이덜 거나 나 스스로. 그처럼 헨 나가 살아왔는디 혼 열두 설은 나난 우리 아버지네가 살아가는 것이 일베긴 없어. 밧은 좋지도 안 허고 너르고. 어머니 그땐 나는 쥘 말이로 나부니까.(천천히 터득해 가지고 그저, 할머니들 말로 고지서 온 거나 그저 어디 내 전화번호나 할아버지 전화번호나 그저 아이들 거나 나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한 열두 살 나니까 우리 아버지네가 살아가는 것이 일밖에 없어. 밧은 좋지도 앓고 넓고. 어머니 그땐 나는 쥘 말이로 나니까.)

102001 @ 몇 형제 중에 맏이마씨? 형제가 어떻 웹수과?(몇 형제 중에 맏이요?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102001 #2 우리 저 우리.(우리 저 우리.)

102001 @ 맏이렌 허민 동생이?(맏이라고 하면 동생이?)

102001 #2 남동생 두 개, 여동생 하나, 네 사람.(남동생 두 개, 여동생 하나, 네 사람.)

102001 @ 아, 네 사람.(아, 네 사람.)

102001 #2 으, 내가 맏이로 나부니까. 어머니 애기도 나고 또 그 뭐냐, 요번에 길쌈이 선수니까 그 길쌈을 해서 풀아야 먹을 거니까 그것만 허고 할무니허고 아버지허고 나허고만 밧메레 가렌 허고.(으, 내가 맏이로 나니까. 어머니 아기도 나고 또 그 뭐냐, 요번에 길쌈이 선수니까 그 길쌈을 해서 팔아야 먹을 거니까 그것만 하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밧매러 가라고 하고.)

102001 @ 아, 어머니 집이서 길쌈허고?(아, 어머니 집에서 길쌈하고?)

102001 #2 으. 그러면 밧메는 것이, 늬덜 메다 오다가 어디서 목욕을 허느냐, 연못. 연못도이 매일 목욕 허고, 밧디 가 오민 목욕헤영 그 물에서 빨앙 가곡 목욕허곡 허난, 물이 팍팍하다 싶으면 푸리롱허영 스뭇 썩영. 그렇게 해도 밧디 강 오당 그 연못에 오면, 아이구, 우린 내일 가민 초불 다 뗏저. 모레 가민 초불 다 뗏저. 우리 그때야 시작이라. 집이 오라서 울민, 아이고, 어무니 누게넨 아무가엔 초불 다 뗏젠 험수다. 허난 내불라게, 허명. 그렇게 나 허는 건 나 인간 사는 것이. 느 거 알아지크냐? 소를 밧 갈자면 그 솟송아지를 세 설, 네 설 나면 이 밧을 그르쳐야 밧을 갈지.(으. 그러면 밧매는 것이, 남들 매다 오다가 어디서 목욕을 하느냐, 연못. 연못도 매일 목욕 하고, 밧에 갔다 오면 목욕해서 그 물에서 빨아서 가고 목욕 하고 하니까, 물이 팍팍하다 싶으면 푸르스름해서 사뭇 썩어서. 그렇게 해도 밧에 가서 오다가 그 연못에 오면, 아이구, 우린 내일 가면 초벌 다 뗏어. 모레 가면 초벌 다 뗏어. 우리 그때야 시작이야. 집에 와서 울면, 아이고, 어머니 누구 아무가는 초벌 다 뗏다고 해요. 하니까 내버려라, 하면서. 그렇게 나 하는 건 나 인간 사는 거.

8)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너 거 알겠어? 소를 밭 갈자면 그 수송아지를 세 살, 네 살 나면 이 밭을 가르쳐야 밭을 갈지.)

102001 @ 으, 으.(으, 으.)

102001 #2 계난 그걸 이꺼야 가르치지.(그러니까 그걸 이끌어야 가르치지.)

102001 @ 밭 가는 쉼을 뒤편 허는 것과?(밭 가는 소를 뒤편 하느 겁니까?)

102001 #2 큰 쉼은 밭갈와치⁹⁾. 작은 거, 가르치는 건 새 쉼. 새 쉼. 큰 건 밭갈 쉼¹⁰⁾. 남전 밭갈와치, 쉼은 밭갈쉼디, 조금 가르치는 건 새 쉼. 계난 아이구 우리 아버지 그 쉼만 이끄러 허곡. 어리어도 그 돛통 알지, 그 돛통에 거름을 헛다가 가을 들어가면 이 마당에 다 퍼다 놓 그디 씨 뿌리고 비료 뿌리멍 쉼, 아메도 혼 세 개쯤 모가지 영 메 가지고 혼 놈은 이끄곡 혼 놈은 몰고. 경허멍 불려. 그 놈을 또 실러 가는 멩텅이가 돛걸름착¹¹⁾, 그건 요만이 허여, 그 요만이 현 걸로 큰 쉼은 하 영 담고 작은 쉼은 죽영 담아. 그추록 허민 그걸, 이것이 소다 소, 질메다, 질메면 두 개를 시켜야 헐 거난 아버지가 허나 앓당 쉼질메 메노라 허민 무거왕 나가 죽아 부난 못허민 아버지 앓다 논 거 ** 밭양 이시라고. 털어져 불주게. 밭아 이시민 아버지가 또 한 착 앓다가 시경 밭데 갖당, 지금 말로 간격이지 방수¹²⁾, 방수에 그 놈을 평 놔두민 그날 처낙은 날이 춥기가. 뒷날은 보리 갈레 강 보민 그 요만이 현 멩텅이로 영 평, 건 평 아저 오라야 또 시켜 갈 거난. 것이 땅땅 열려불엇서. 장갑이 어디 시느니? 기자 손으로, 손으로 이추록 해서 뿌려 가지고 그 보리 같고. 그, 그렇게 해도 이놈의 손이 팔월에도 쉼 먹이 출 비레 가면은 역새이, 역새 반은 섞어진 거 장갑도 안 쟁. 무꺼도 손이 살이 이시난에. 지금은 장갑 두 개씩 경 일을 허여. 경해도 손이 아프텐 허는다.(큰 소는 ‘밭갈와치’. 작은 거, 가르치는 건 새 소. 새 소. 큰 건 ‘밭갈쉼’. 남전 ‘밭갈와치’, 소는 ‘밭갈쉼’인데, 조금 가르치는 건 새 소. 그러니까 아이구 우리 아버지 그 소만 이끌라고 하고. 어리어도 그 돼지우리 알지, 그 돼지우리에 거름을 헛다가 가을 들어가면 이 마당에 다 퍼다 놓고 거기 씨 뿌리고 비료 뿌리면서 소, 아마도 한 세 개쯤 모가지 이렇게 매 가지고 한 놈은 이끌고 한 놈은 몰고. 그렇게 밟아. 그 놈을 또 싣고 가는 망태기가 거름 담은 망태기. 그건 요만큼 해, 그 요만큼 한 걸로 큰 소는 많이 담고 작은 소는 조금 담아. 그렇게 하면 그걸, 이것이 소다, 소, 길마다, 길마면 두 개를 실어야 할 거니까 아버지가 하나 가져다가 소 길마에 매느라 하면 무거워서, 내가 작아 버리니까 못하면 아버지가 가져다 놓은 거 ** 밭아서 있으라고. 떨어져 버리지. 밭아 있으면 아버지가 또 한 쪽 가져다가 실어서 밭에 가져다가, 지금 말로 간격이지 ‘방수’, ‘방수’에 그 놈을 퍼다 놔두면 그날 저녁은 춥기가. 뒷날은 보리 갈러 가서 보면 그 요만한 망태기로 이렇게 퍼서, 그건 퍼서 가지고 와야 또 싣고 갈 거니까. 그것이 땅땅 열어버렸어. 장갑이 어디 있어? 그저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뿌려 가지고 그 보

9) ‘와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밭갈와치’는 ‘밭을 가는 사람’을 말한다.

10) ‘밭갈쉼’은 밭을 가는 힘센 부록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1) ‘돛걸름착’은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망태기를 말한다.

12) ‘방수’는 간격을 말한다.

리 같고 그, 그렇게 해도 이놈의 손이 팔월에도 소 먹이 꼴 비러 가면 억새, 억새 반은 섞인 거 장갑도 안 꺼서. 묶어도 손이 살이 있으니까. 지금은 장갑 두 개씩 꺼서 일을 해. 그렇게 해도 손이 아프다고 하는데.)

102001 @ 하하.(하하)

102001 #2 그렇게 해서 살단 보난 나 뽀새 엇고 못 풀아 먹카부덴 우리 아버지가 저 우리 말 잘하는 영감은 열여덟이.(그렇게 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불품 없고 못 팔까봐 우리 아버지가 저 우리 말 잘하는 영감은 열여덟.)

102001 @ 예.(예)

102001 #2 난 스물이. 나가 두 설 우이주. 경헨 시집을 보냈어이.(난 스물. 내가 두 살 위지. 그렇게 해서 시집을 보냈어.)

102001 @ 예.(예.)

102001 #2 아이구, 시어명이 보통 남원리 안에서 하나인 꼭꼭허는 시어명신덜 보냈어. 보낸디 나는 오란에 지금 말로 지금은 그만이 아프민 탁 산부인과에 가근에 검사헤영 딱 약 쓰주만은. 그 배만 그렇게, 그 옛날 말로 ‘핏배¹³⁾가 그렇게 아픈 것도 몰르고 그자 배만. 생리 올 때가 돼민, 생리도 옛날 말로는 ‘몸엿거’.(아이구 시어머니는 보통 남원리 안에서 하나인 시끄러운 시어머니에게 보냈어. 보냈는데 나는 와서 지금 말로, 지금은 그만큼 아프면 탁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해서 딱 약을 쓰지만. 그 배만 그렇게 그 옛날 말로 ‘핏배’가 그렇게 아픈 것도 몰르고 그저 배만. 생리 올 때가 되면, 생리도 옛날 말로는 ‘몸엿거’.)

102001 @ 으, 몸엿거.(예, 생리.)

102001 #2 생리 올 때가 돼민 삼사일을 죽어나는 거여.(생리 올 때가 되면 삼사일을 죽어나는 거야.)

102001 @ 음. 몸엿거 헐 때 돼민예?(음. 생리할 때 되면요?)

102001 #2 몸엿거 오민 그렇게 허민. 난 스물에 시집오라도 스물다섯⁷장 애기를 못 낳고.(생리 오면 그렇게 하면. 난 스물에 시집왔어도 스물다섯까지 아기도 못 낳고.)

102001 @ 아.(아.)

102001 #2 나 온 후제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를 세 개를 나더라고.(내가 온 후에 우리 시어머니가 애기를 세 명 낳더라고.)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2 나가 완 보난 우리 시어머니가 서른여덟이여. 서른여덟.(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서른여덟이야. 서른여덟.)

102001 @ 하하하.(하하하)

102001 #2 서른여덟인디 우리 집이, 우리 하르방네가 구 남매여, 구 남맨디 우리가 뜰이여.(서른여덟인데 우리 집이, 우리 할아버지가 구 남매야, 구 남매인데 우

13) ‘핏배’는 해산하고 나서 3일 동안 피가 고여 있는 산부의 배를 말한다. 여기서는 생리통을 가리킨다.

리가 받아야.)

102001 @ 묻어.(받아.)

102001 #2 계난 그 몸엿거 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난 배 아팠 못 살켜 허민, 뺨 무신 배. 겐 우리 어무닌 그거라 그거. 막 아프단 우리 작은 채에, 밧거리에이.(그러니까 그 생리 오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난 배 아파서 못 살겠어 하면, 뺨 무슨 배.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거야 그거. 마구 아프다가 우리 작은 채에, 바깥채에.)

102001 @ 예.(예.)

102001 #2 저 어떤 지금은 읍사무소여, 맨서기를 머쳐서 사니까. 맨서기가 출장을 가불면은 그 각시가 막습텐 지허고 같이 녹젠 헐. 겐 그 사름허고 같이 낫단. 아이구 난 배 아팠 못 살켜. 무사? 아이고, 몸엿거 올 때만 뒤민 배가 흔 사흘 아파. 아이구, 아이구 큰일 낫저. 도라지 헤단 먹으면 그렇게 것도 약도 뒤젠 허난이, 도라지 헤단 먹으면 도라지에 생청에 낡 딸렁 먹으면 단번에 좋나 헐. 지네, 이디 이젠 신호여, 하효주만은 그땐 쉼돈¹⁴⁾, 이 신레리도 예춘¹⁵⁾.(저 어떤 지금은 읍사무소야, 면서기를 머물게 해서 사니까. 면서기가 출장을 가버리면 그 각시는 무섭다고 자기하고 같이 눕자고 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누웠다가.아이구 난 배 아파서 못 살겠어. 왜? 아이고, 생리 올 때만 되면 배가 한 사흘 아파. 아이구, 큰일 낫어. 도라지를 헤다가 먹으면 그렇게 것도 약도 되려고 하니까, 도라지 헤다가 먹으면, 도라지에 생청에 놓고 달여서 먹으면 바로 좋다고 해서. 자기네, 여기 이젠 신호여, 하효지만 그땐 ‘쉼돈’ 이제 신레리도 ‘예춘’.)

102001 @ 아, 기짜. 신레리가 예춘?(아, 그래요. 신레리가 ‘예춘’?)

102001 #2 으, 신레리가 예춘. 계난 그 예춘 사름이난, 아이고 우리 마을에 삼년생, 스년생. 요디서 삼년생 같민, 요딘 스년생, 요딘 오년생 헐 거 나 사다 주켤 헐. 사다 도렌 허연. 이제 한 달이나 이 다음 넘어이 전에 그것이 대가 막 올라오라 가지고 열매 맺젠 헐 때 그 놈을 흔 뿌리 사왔어. 사오니 생청, 이제 벌꿀도 옛날엔 생청.(으, 신레리가 ‘예춘’. 그러니까 그 ‘예춘’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마을에 삼년생, 사년생. 요기서 삼년생 같면 여긴 사년생, 여긴 오년생 한 거. 나 사다 주겠다고 해서. 사다 주라고 했어. 이제 한 달이나 이 다음 넘어서 그것이 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열매 맺으려고 할 때 그 놈을 한 뿌리 사왔어. 사오니까 생청, 이제 벌꿀도 옛날엔 생청.)

102001 @ 음. 생청예?(음, 생청이요?)

102001 #2 생청. 생청도 어디 있어. 놈의 밧디 간에 풀 하루 쳐 쥘. 밧 갈아 논디, 풀 신 밧 잠대로 같민 풀이 푸릿푸릿 덤성덤성 허민 걸 앓아 치주게. 허난 풀 하루 쳐 주난에 이 홉짜리로 하나라이. 지금은 이만 원 주민 흔 뒤 사는디, 육만원 일당 허면은 석 뒤 사는디.(생청. 생청도 어디 있어. 남의 밧에 가서 풀 하루 쳐 주

14) ‘쉼돈’은 서귀포시 효돈동(신효리, 하효리)의 옛 이름이다.

15) ‘예춘’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레리의 옛 이름이다.

고, 밭 갈아 놓은 곳, 풀이 있는 밭 쟁기로 갈면 풀이 푸릇푸릇 듬성듬성 하면 걸
앉아서 치지. 그러니까 풀 하루 쳐 주니까 이 홉짜리로 하나야. 지금은 이만 원 주
면 한 되 사는데, 육만 원 일당 하면 석 되 사는데.)

102001 @ 아.(아.)

102001 #2 흐루 풀 치난 이 홉짜리 흐나. 게난 그것에 그 병이 돼니까¹⁶⁾ 나무
대고 섭이고 빨리고 다 썰어 놔서 그 청 비완 딸런 먹으니까 그자 배 소곱이 기자
우글 우글 우글, 과글¹⁷⁾ 과글 과글 허멍 기자 삭 설사가 홀터분디 원 그것이 약이
라.(하루 풀 치니까 이 홉짜리 하나. 그러니까 그것에 그 병에 걸리니까 나무 줄기
고 잎이고 뿌리고 다 썰어 넣고 그 청 비워서 다려 먹으니까 그저 배 속이 우글 우
글 우글, ‘과글, 과글, 과글’ 하면서 그저 삭 설사가 훑어버렸는데 원 그것이 약이
야.)

102001 @ 아, 낫안?(아, 나왔어요?)

102001 #2 어. 겨난 저 우리 말 잘허는 하르방¹⁸⁾은이 스건, 브름쟁이야, 브름쟁
이.(어. 그러니까 저 우리 말 잘하는 할아버지는 사건, 바람쟁이야, 바람쟁이.)

102001 @ 하하.(하하.)

102001 #2 군인, 열아홉에 군인 간. 군인 가켄 허민 군인 강 보냉 놔두민.(군인
열아홉에 군인 갔어. 군인 가겠다고 하면 군인 가서 보내 두면.)

102001 @ 게민, 결혼행 군인 간 거마씨?(그럼, 결혼해서 군인 간 거요?)

102001 #2 열여덟에 결혼헐, 열아홉에 군인 갖주게. 지원헐 해병대로.(열여덟에
결혼해서, 열아홉에 군인 갔지. 지원해서 해병대로.)

102001 @ 지원헐?(지원해서?)

102001 #2 보냉 놔두난 늬의 새각시광, 장계 안 가고렌 꼬션. 저 하르방이 허쥬
내우젠 허민이. 게난 들락날락. 군인도 즐바로 안 살앙 돌아만헐기곡.(보냉 두니까
다른 새색시와, 장가 안 갔다고 피었어. 저 할아버지 험담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들락날락. 군인도 제대로 안 살고 돌아다니고.)

102001 @ 예.(예)

102001 #2 게난 난 아들덜 군인 가난 겁났저. 아방 닥으카 부덴.(그러니까 난
아들들 군인 가니까 겁났어. 아버지 닥을까 봐.)

102001 @ 하하.(하하.)

102003 @부모님도 다 여기지예?(부모님도 다 여기지요?)

102003 #2 으.(으.)

102002 @ 게민 여기서 어렸을 때 부모님은 무슨 농사지어난마씨?(그럼 여기서
어렸을 때 부모님은 무슨 농사지었어요?)

102002 #2 그자 보리. 췌, 차음은 보리 갈고 조 갈고. 감저 놓고. 산디, 믈물.(그
저 보리. 췌, 차음은 보리 갈고 조 갈고. 고구마 놓고. 밧벼, 메밀.)

16) ‘돼다’는 ‘되다’이나 여기서는 ‘(병에) 걸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17) ‘과글’은 속이 좋지 않아 배속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 표현이다.

18)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102002 @ 아버지랑 할머니는 ㄱ치 밧디 다니고?(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이 밧에 다니고?)

102002 #2 으.(으.)

102002 @ 집이서 어무니는 이거 허고?(집에서 어머니는 이거 하고?)

102002 #2 으. 아이고, 히한허게 살았저. 경허멍 고생허는디 이디 오난 시어멍광 고생허건 저 도깨비 서방은 또.(으. 아이고, 희한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고생하는데 여기 와서 시어머니와 고생했고 저 도깨비 서방은 또.)

102002 @ 도깨비 하하.(도깨비 하하.)

102002 #2 나 도깨비엔 헐다.(나 도깨비라고 한다.)

102002 @ 게도 막 자상헐 거 같은디?(그래도 아주 자상할 거 같은데요?)

102002 #2 으, 무시거 허는 건 잘 허여. 오닐 아척이도 곱았저. 아야야, 못 살았지, 안 들안 살아줬지. 속숨헤라.(으, 무엇 하는 건 잘 해. 오늘 아침에도 말했어. 아야야, 못 살았지, 안 데리고 살아줬지. 조용하더라.)

102002 @ 열두 설부터 밧디 다니멍 일만 막 하영 헛잖아예?(열두 살부터 밧에 다니면서 일만 아주 많이 헛잖아요?)

102002 #2 으.(으.)

102004 @ 그 어렸을 때 놀았던 거 기억나시멘마씨? 뭐 허멍 놀아났수과, 동네 애들이랑?(그 어렸을 때 놀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하면서 놀았습니까, 동네 아이들이랑?)

102004 #2 그 옛날 스뭇 일본 시대부터 무신.(그 옛날 사뭇 일본 시대부터 무슨.)

102004 @ 일본 시대에.(일본 시대에)

102004 #2 그때도 가민 그뻐 경 헐 놀았어. 나 그거 잊어불지 안 허여. 이디 넷, 다섯, 저쪽에 넷 다섯 사민, 딱 손 이어근에 저레 가멍 무신 ‘사꾸라또 민또만또 하나이세 몸메’¹⁹⁾ 허멍 아이 흐나 강 딱 지키민 그 아이 흐나 심어오고 또 그쪽에서 오랑 그추룩 허곡. 경 허멍도 놀고. 그자 밤이 진또리.²⁰⁾(그때도 가면 그뻐 그렇게 해서 놀았어.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 여기 넷 다섯, 저쪽에 넷 다섯 서면, 딱 손 이어서 저쪽으로 가면서 무슨 ‘사꾸라또 만또민또 하나이세 몸메’ 하면서 아이 하나 가서 딱 지키면 그 아이 하나 잡아오고 또 그쪽에서 와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놀고. 그저 밤에 ‘진또리’.)

102004 @ 진또리.

102004 #2 그 돌아다니는 거. 진또리 그 여저난 자치기 거튼 건 별로 안 허고 진또리.(그 돌아다니는 거. ‘진또리’ 그 여자니까 자치기 같은 건 별로 안 하고 ‘진또리’)

102004 @ 예.(예.)

19) ‘사꾸라또 민또만또’는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 구절이다.

20) ‘진또리’는 놀이 이름의 하나다.

102004 #2 그자 그런 거 주로 하고. 새각시.(그저 그런 거 주로 하고. 새색시.)

102004 @ 으.(으.)

102004 #2 이 철 나민.(이 철 나면.)

102004 @ 소꿉놀이.(소꿉놀이.)

102004 #2 아니, 그거 말고. 풀에 막 머리 거치 줌진 풀이 있어, 새각시풀²¹⁾이라 이름이.(아니, 그거 말고. 풀에 아주 머리 같이 가늘고 자잘한 풀이 있어. ‘새각시풀’이야, 이름이.)

102004 @ 어.(어.)

102004 #2 게민 나무떼기 해근에 그 풀 이만이 진 거 해다근에 머리 해영 멘들 아근에 뒤터레 다왕 새각시풀 해영 새각시 멘들아.(그럼 나뭇조각 해서 그 풀 이만큼 긴 거 해서 머리 해서 만들어서 뒤로 땅아서 새각시풀 해서 새색시 만들어.)

102004 @ 아, 머리처럼 행 따와 가지고.(아, 머리처럼 해서 땅아 가지고)

102004 #2 으. 새각시풀이엔 현 풀이 있어. 새각시. 그거 하고 그자. 무시거 남저 허는 행세는 안 하고, 밤이 그자 그 들밤이 전기불 엇이난에게 흐쓸 지금 거트민 로타리라고 하지. 흐뎀 저 길 넓은 디게. 강 그런 디 강 그런 거나 하고. 무신 하시아다린²²⁾가 무시거, 그레 돌아갔다 돌아왔다 허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또 방치기²³⁾.(으, ‘새각시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 새색시. 그거 하고 그저. 무엇남자 하는 행세는 안 하고, 밤에 그저 그 달밤에 전기불 없으니까 조금 지금 같은 로터리라고 하지. 조금 저 길 넓은 데.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고. 무슨 ‘하시아다리’인가 무엇, 그리 돌아갔다 돌아왔다 하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또 ‘방치기’.)

102004 @ 방치기.(‘방치기’)

102004 #2 으, 방치기, 떡데. 나 떡텐 하영, 그자 떡데 요만인 현 거 돈드락현 거, 차기 좋은 거. 너미 큰 건 발 아프고.(으, ‘방치기’, 목대. 나 목대 많이, 그저 목대 요만큼 한 거 매끄러운 거, 차기 좋은 거. 너무 큰 건 발이 아프고.)

102004 @ 으.

102004 #2 너미 죽은 건 맥사리 엇고 요만이 현 거 허민 떡데라고 해연 이디게 문 선 굿어 뇌근에게 그 선더레 샷닥 그 선더레 샷닥 허명 방치기. 원 학교서도 운동장 옆이 그려 낡 방치기가 일이라. 원 아이덜이.(너무 작은 건 힘이 없고 요만큼 한 거 하면 목대라고 해서 여기에 모두 선 그어 놓고 이 선에 섰다가 그 선에 섰다가 하면서 ‘방치기’. 원 학교에서도 운동장 옆에 그려 놓고 ‘방치기’가 일이야. 원 아이덜이.)

102004 @ 방치기 허명 놀명예?(‘방치기’ 하면서 놀고요?)

102004 #2 고무줄은 막 옥은 후제.(고무줄은 아주 자란 후에.)

102004 @ 나중에예?(나중예요?)

21) ‘새각시풀’은 풀 이름의 하나다.

22) ‘하시아다리’는 일본어 ‘はしわたり’로 놀이의 하나다.

23) ‘방치기’는 놀이 종류의 하나다.

102004 #2 으, 그건 막 신식 난 후제 허고.(으, 그건 아주 신식 난 후에 하고.)

102003 @ 어무니랑 아버지는 같은 동네, 삼촌네 부모님 같은 동네, 이 동네, 남원리?(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동네, 삼촌 부모님 같은 동네, 이 동네, 남원리?)

102003 #2 우리 친정?(우리 친정?)

102003 @ 예, 친정.(예, 친정.)

102003 #2 친정 중학교 앞에서 이디 오란 그 노릇이주.(친정 중학교 앞에서 여기 와서 그 노릇이지.)

102003 @ 아, 여기 같은 동네?(아, 여기 같은 동네?)

102003 #2 으, 계남 중학교 앞에서 이 집이 오랏주게.(으, 그러니까 중학교 앞에서 이 집에 왔지.)

102005 @ 중학교 앞에서 이 집. 그 한 열 살 때까지, 어머니 35년생, 태어난 건 34년생예?(중학교 앞에서 이 집. 그 한 열 살 때까지, 어머니 35년생, 태어난 건 34년생요?)

102005 #2 으.(으.)

102005 @ 계남 일제 때 공출했던 거, 일본 시대 공출했던 거 기억납수과?(그러니까 일제 때 공출했던 거, 일본 시대 공출했던 거 기억납니까?)

102005 #2 아이구, 기억나주게.(아이고, 기억나지.)

102005 @ 어떤 거 공출헤난?(어떤 거 공출했었어?)

102005 #2 그땐 므스와근에, 저 김일성이난에게 저 일본 놈이.(그땐 무서워서, 저 김일성이니까 저 일본 놈이.)

102005 @ 음, 음.(음, 음.)

102005 #2 우리 보리를 갈면은 경 좋지 안헤근에 흔 일곱 가마니쯤 허민 공출을 으덱 가마니 나와.(우리 보리를 갈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일곱 가마니쯤 하면 공출을 여덟 가마니 나와.)

102005 @ 아이구, 일곱 가마니밖에 안 나와신디?(아이고, 일곱 가마니밖에 안 나왔는데?)

102005 #2 으. 흔 가마니 사야 돼여. 김일성이가 따로 잇어. 흔 가마니 산 으덱 가마니 공출 바쳐야지.(으. 한 가마니 사야 돼. 김일성이 따로 없어. 한 가마니 사서 여덟 가마니 공출 바쳐야지.)

102005 @ 바쳐야.(바쳐야.)

102005 #2 보리 공출 윈 보리 공출이라, 보리 공출.(보리 공출 윈 보리 공출이야, 보리 공출.)

102005 @ 보리 공출.(보리 공출)

102005 #2 응. 존 경 안 허고 보리 공출.(응. 조는 그렇게 안 하고 보리 공출.)

102005 @ 보리, 또 다른 건 뭐 공출 헤낫수과?(보리, 또 다른 건 뭐 공출 했었습니까?)

102005 #2 다른 건 공출 안 허고 보리 공출.(다른 건 공출 안 하고 보리 공출.)

102005 @ 아, 보리 공출.(아, 보리 공출)

102002 #2 계난 우린, 경 허민 사람 먹을 것이 엇이니까. 계난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길쌈을 해서 제주시가 이디서 말허민 모관²⁴이.(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하면 사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길쌈을 해서 제주시가 여기서 말하면 ‘모관’이.)

102002 @ 예, 모관.(예, ‘모관’)

102002 #2 모관 사름이 여기 오랑 살아. 살양 우리 안에 사는데, 그 모관 사름은 오라도 이리 거트민 저 읍사무소 근처에 관 중에 살고 우린 읍사무소 그 두어레 중학교 앞이 살고 현디, 그 사름네가 오니 우리 어머님네광 친글 해서 가까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길쌈을 잘해서 그 멩지를 너무 좋으니까 혼 필 가정 가서 모관 강 지네 친족안티 배우니까 아이고 이것만 사다 도라, 나랑 열 필 사다 도라 해연 우리 어머니가 그걸 허멍 모관 다 풀양 돈 혜영 양식, 우리가 끈이 이어갓주게.(‘모관’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아. 살아 우리 안에 사는데, 그 ‘모관’ 사람은 와도 2리 같으면 저 읍사무소 근처에 관 안에 살고 우린 읍사무소 그 뒤로 중학교 앞에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머님과 친글 해서 가까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길쌈을 잘해서 그 명주가 너무 좋으니까 한 필 가져가서 모관에 가서 자기 친족에게 보이니까 아이고, 이것만 사다 줘라, 나는 열 필 사다 줘라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하면서 ‘모관’에 다 팔아서 돈을 해서 양식, 우리가 끈이 이어갓지.)

102002 @ 계민 어무니 밧일 안 헛구나.(그럼 어머니 밧일 안 헛구나.)

102002 #2 아니, 원 안 허진 안 현디, 계난 어머니가 저걸 허젠 허민, 우리도 비 오면 멩지실을 감아사주. 계도 나도 멩지 많이 차나서. 비 오민 어디 놀레 가보젠 허민 아이고 큰년 오늘 멩지 차라, 오늘 멩지 차사켜. 계민 멩지 경 즘질아도이 우리 어머니 스무자를 하루 차는데 나는 스무자는 못 차고 혼 열일곱 자쯤 차져.(아니, 전혀 안 하지 안 헛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걸 하려고 하면, 우리도 비 오면 명주실을 감아야지. 그래도 나도 명주 많이 짚었어. 비 오면 어디 놀러 가보려고 하면 아이고 큰딸 오늘 명주 짜라, 오늘 명주 짜야겠어. 그럼 명주 그렇게 가늘아도 우리 어머니 스무자를 하루 짜는데 나는 스무자는 못 짜고 한 열일곱 자쯤 짚 수 있어.)

102002 @ 아이구, 그래도 거즘 어머니만큼 참신게.(아이고, 그래도 거의 어머니만큼 짜내요.)

102002 #2 으. 겐디 차 논 게 어무니 거 만이 좋지 안 허여.(으. 그런데 짜 놓은 게 어머니 거만큼 좋지 않아.)

102002 @ 아, 어머니 게 ㄱ늘고 실이 좋구나.(아, 어머니 게 가늘고 실이 좋구나.)

102002 #2 아니, 어머니 것이 세계 두드려신가 더 빼깝허게 좋고 나 거는 그만 이 어머니 거만이 안 좋아. 경해도 어무니가 너무 버치니까 차 도라, 차 도라 어머

24) ‘모관’은 행정 구역으로 제주목을 가리킨다.

니가. 비만 오면은 그걸 해야지.(아니, 어머니 것이 세계 두드렸는가 더 배게 좋고 내 거는 그만큼 어머니 거만큼 안 좋아.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짜 주라, 짜 주라 어머니가. 비만 오면 그걸 해야지.)

102002 @ 음.(음.)

102002 #2 계란 어디 가지도 못 하여. 겨난 이 바람이 자야 명주도 늘고 허는 따문, 이 봄 나면은 겨울이 멩지실 감았다가 멩지 늘앙 명주가 팔 월 나민 브름 나민 실이 꺾어정 못 차니까, 멩진 여름에만 차니까 멩질 널젠 허민 바다에 강 물질을 배와야 헐 건디 멩지만 널렌 허멍 물질을 심하게 못 배완는가 기술이 엇인가 물질 잘 못하여.(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 해. 그러니까 이 바람이 자야 명주도 날고 하는 따문, 이 봄 되면 겨울에 명주실 감았다가 명주를 날아서 명주가 팔 월 되면 바람 나민 실이 꺾여서 못 짜니까, 명준 여름에만 짜니까 명줄 널려고 하면 바다에 가서 물질을 배워야 할 건데 명주만 널라고 하면서 물질을 심하게 못 배웠는가 기술이 없는가 물질 잘 못 해.

102002 @ 하하하.(하하하.)

102002 #2 조금 허다가 잘 못 허난 신경질 나서 설러 불언.(조금 허다가 잘 못 하니까 신경질이 나서 치워 버렸어.)

102002 @ 하하, 설러 불언.(하하, 치워 버렸어.)

102002 #2 기자 그 미역 해서 먹영 살 때 미역이나 해당 먹고.(그저 그 미역 해서 먹고 살 때 미역이나 해당가 먹고.)

102005 @ 그럼 공출할 때 보리쌀만 공출허고 메역이라든지 바다에서 잡은 건 공출 안 헛수과?(그럼 공출할 때 보리쌀만 공출하고 미역이라든지 바다에서 잡은 건 공출 안 헛습니까?)

102005 #2 메역은 공출은 안 허고 그렇게 세월 좋게 풀아서. 그거, 그거는 해방 뵈 후에 메역 폰 거.(미역은 공출은 안 하고 그렇게 세월 좋게 팔았어. 그거, 그거는 해방된 후에, 미역 판 거.)

102005 @ 그럼 일제시대 때 공출 헛던 거 보리만 공출헛던 거? 다른 거 뭐 공출?(그럼 일제시대 때 공출 헛던 거 보리만 공출헛던 거? 다른 거 뭐 공출?)

102005 #2 으, 다른 거는 뭐 공출 안 해서. 보리. 보리허고 저 감제, 뻗테기를 그렇게 공출을 하영 헨에 그걸 아이구, 맥가마니엔 그 짝가마니. 그 짝가마니 해서 짝 가마니 네모나게 해근에 저 짝으로 헿 무꾼 거.(으, 다른 거는 뭐 공출 안 헛어. 보리, 보리허고 저 고구마, 절간고구마를 그렇게 공출 많이 해서 그걸 아이고, 떡서 리엔 그 짝 가마니 해서 짝 가마니 네모나게 해서 저 짝으로 해서 묶은 거.)

102005 @ 짝으로 무꾼 거.(짝으로 묶은 거.)

102005 # 짝으로 베 헿 무꾼 거. 그거를 쉰 가마니도 허곡. 아이구, 윈 멧 가마닌 줄 모르게. 경허영 그 놈을 저 그걸 공출 허면은 받는 디가 잇주게. 여기 같으면 선과장 님은 디. 저 옛날 말로 그 무시거, 감저 해난 디 일름이 ***인간디 그디서 농협 창고 같은 비스름헌 디서 받안에 침. 알기 쉽게 딱 저 산방산만이, 니랑 받으

민 그건 다른 디 포구로도 안 해가고 이 앞으로 포구, 웬 걸 시켜 가는데 말젠 산방산만이 헨에 다 놓난에, 해방 뉘난 것들은 화르르허게 달아나 부난에 그거 다 푸멍 해신디 감저 뺏테기 헛주, 감저 뺏테기.(짚으로 바 해서 묶은 거. 그거를 쓴 가마니도 하고. 아이고, 원 몇 가마니인 줄 모르게. 그렇게 해서 그 놈을 저 그걸 공출 하면 받는 데가 있지. 여기 같으면 선과장 같은 데. 저 옛날 말로 그 무엇, 고구마 했던 데 이름이 ***인가인데 거기서 농협 창고 같은 비슷한 데서 받아서 참. 알기 쉽게 딱 저 산방산만큼, 늘 받으면 그건 다른 데 포구로도 안 가고 이 앞으로 포구, 된 것을 신고 가는데 나중엔 산방산만큼 해서 다 놓으니까, 해방이 돼서 것들은 화르르허게 달아나 버리니까 그거 다 내리면서 했는데 절간고구마 했지, 절간고구마.)

102005 @ 경 전쟁 끝났 일본군덜 헿 전쟁 끝났 도망가난 좀 살기 편해전마씨?(그렇게 전쟁이 끝나서 일본군들 해서 전쟁 끝나서 도망가니까 좀 살기 편해졌습니까?)

102005 #2 편헛주게.(편했지.)

102005 @ 편해전.(편해졌어.)

102006 #2 으. 살기를 편해신디 아니 또 그거 살기 편허난에 또 이 놈덜이 사삼 나난에 산에, 일본 때보다 더 무서웠어.(으. 살기를 편했는데 아니 또 그거 살기 편하니까 또 이 놈들이 사삼 나니까 산에, 일본 때보다 더 무서웠어.)

102006 @ 음, 더 무서워서예?(음, 더 무서웠지예?)

102006 #2 저 산간 부락에 사름덜이, 멍청헌 건 죄 엇이 다 죽고 그디 올라간 능력 엇인 건. 쪼그만 으망진 건 다 올라가놓난.(저 산간 부락에 사름들이, 멍청한 건 죄 없이 다 죽고 거기 올라간 능력 없는 것은.)

102006 @ 음.(음.)

102006 #2 아, 밤이 오라노민 어떻헿 말이고 밤이. 밤이 자노렌 허민 오주게, 것덜이. 오랑 돌아가젠, 돌아가젠.(아, 밤에 오면 어떻게 할 말이고 밤에. 밤에 자고 있노라면 오지, 것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데려가려고.)

102006 @ 산에 데려가젠?(산에 데려가려고?)

102006 #2 돌아가젠. 경헌 오민 막 어떤 사름은 뺑신 지랄허는 사름 잇곡. 일름 오랑 막 들민 저 일름, 저 막 죽어 분 사름 일름도 막 곱앗어. 저 그추룩 헤근에 일름도 바짜 곱곡. 겨난 우리도 저 우리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낫주게. 웨삼춘이 산에 올라가고 작은아바진 순경이고. 겨난 우리 아바지가 산에 사름, 저 순경 오민 저 느네 웨삼춘네 산에 갓젠 죽여 불고. 산에 사름은 오민 순경 가족이엔 헨 죽여벤 우린 못 살켄 헨, 게도 죽진 안 해신디. 아이고, 그땐 더 무서와났어. 밤이 그추룩 오랑. 이 집이서 요 앞집이 만이 헌 디 우리 옆집이, 이젠 읍장이주만은 옛날말론 멘장, 멘장이 살아신디 멘장네 죽어질 걸로 야기덜은 다 우리 집이 오랑 밤이 우리 할마니 눅지주게. 눅진디 밤이 이 밤과 저 밤 새 완에 저, 아이구, 느 곱으민. 멘장을 칼로 확허게 박으민이 그 각신 살려드렌 칼을 팍 심으민이 확 등겨불고 허민이

손도 문짝 쫓라지고. 아이구, 그처럼 경헨 멘장네도 두 밧 흐루쳐낙 다 죽어. 옆집 이서 죽어간다 게민 겁낭 살아지크냐?(테러가려고. 그렇게 오면 마구 어떤 사람은 병신 지랄하는 사람 있고. 이름 와서 마구 달면 저 이름, 저 막 죽어 버린 사람 이름도 말했어. 저 그렇게 해서 이름도 바뀌서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우리 외삼촌이 산에 올라갔었어. 외삼촌이 산에 올라가고 작은아버진 순경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산에 사람, 저 순경 오면 저 너희 외삼촌네 산에 갔다고 죽여 버리고. 산에 사람은 오면 순경 가족이라고 해서 죽여 버려서 우린 못 살겠다고 해서, 그래도 죽진 않았는데. 아이고, 그땐 더 무서웠었어. 밤에 그렇게 와서. 이 집에서 요 앞집만큼 한 데 우리 옆집에, 이젠 읍장이지만 옛날 말로는 면장, 면장이 살았는데 면장네 죽을 걸로 아기들은 다 우리 집에 와서 밤에 우리 할머니가 눕히지. 눕혔는데 밤에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와서 저, 아이고, 너 말하면. 면장을 칼로 콕하게 박으면 그 각신 살려달라고 칼은 콕 잡으면 확 당겨버리고 하면 손도 모두 잘리고. 아이고, 그러럼 그렇게 해서 면장네도 두 부부 하룻저녁에 다 죽어. 옆집에서 죽어간 다 그럼 겁나서 살 수 있겠니?)

102006 @ 아기들은 어떻 안 허고마씨?(아기들은 어떻게 안 했습니까?)

102006 #2 아기덜은 우리 집이 왕 눅고게. 경헌디 저 경허단에 습격을 든 거라.(아기들은 우리 집에 와서 눅고. 그런데 저 그러다가 습격을 든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2 위미리허고 이디허고 두 마을을 흐루아척이 든 거라.(위미리하고 여기하고 두 마을을 하루아침에 든 거야.)

102006 @ 산 사름들이 습격 든 거 아니예?(산 사름들이 습격 든 거 아니요?)

102006 #2 으, 산 사름덜이. 아척이 조반 전이. 계난 요 가까운 남원이리 우리 친척덜은 우리 집이 오랑 다 머진 거주게. 그디도 므스우난 이딘 해벤이라고.(으, 산 사름들이. 아침에 조반 전에. 그러니까 요 가까운 남원2리 우리 친척들은 우리 집에 와서 다 묵은 거지.)

102006 @ 그니까, 그니까. 이리는 산이니까.(그러니까, 그러니까. 2리는 산이니까.)

102006 #2 으, 흐쭈. 오랑 머졌는디, 다 조반 헨에 밥헨에 낭푼이가 어딴어, 나무도고리에 밥헨에 다 푸노렌 허난에 요쪽으로 팍팍²⁵⁾. 아, 산에 사름 총소리 막 죽아. 팍팍, 팍팍 허는 소리가 나난 영 보난 저 집이 가제에 불이 부터더라고. 불이 부터시난 아이구, 큰일 낫저, 큰일 낫저 이제 물을, 아이구, 경허난 보난에 우리 집 가제에도 불어 부터가더라고. 기자 그 놈덜이 오랑 기자 그 헛불 봉홧불 허는 헛불 아정 강 화륙²⁶⁾ 돌아강 이 집 가제에 강 부쳐. 저 집 가제에 강 부척 허멍 불을 다 부치는 거라. 불을 다 부치명. 우리 그때 이젠 더 드릴 데 엇이난에 이젠 어디 담 구석에 간에, 겁재에 돌아나는 것이 영헌 이불 하나 가정 나간에, 우리 어머니는 우

25) ‘팍팍’은 총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26) ‘화륙’은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리 지금 저 여동생 하나 둘 웬 애기난 굵굵허난 꺾꺾27) 울언 우리영 이불 소꿉에 박아지지 못허고. 겨난 우 저 거시기 남동생 두 개 들안에 나가. 영 현, 똑 이추룩 현 방 구석에 강 영 웬 이불 더깁 시난에이, 어떤 놈덜이 통 통 통 통 이 담으로 들어왕 걸으라, 걸으라, 걸으라 허멍 그 이불 걸으난에, 그것이 칼이 아니고 창이라. 요만이 현 거 양편이 늘 내왕 코쟁이 내운 거. 켜헨 난 이디 현 번만 박아 불고. 우리 남동생은이 에이구, 이 **엠에 박아 베도 것이 저 어뎡 안 헨 살아지고. 박아도 이젠 죽여불젠 헤신디 또 하나가 어떤 놈이 샷단, 예헤 내불렌 예헤, 예헤 허난에 가난. 우리 어머니넨 저 우녜웬이 우리 친족덜이영 이젠 영현 디 소나무, 우리 울타리 신 거 탁 지우고 탁 지우난 그 소나무 텅구리 아래 공간 나난 우리 친구, 친족덜은 다 기어들고 우리 동생 너미 양작허난 우리 어머니 도에, 도에 앓아시난 기자 우리 어머니가 이추룩 현 디 우리 어머니가 막 슬지난 영현디 현 번 찢르민 저웬으로 또 고망 나고 두 밧이라.(으, 조금. 와서 묵었는데. 다 조반 해서 밥해서 양푼이 어뎡어, 나무함지박에 밥해서 다 뜬다고 하니까 요쪽에서 껍껍, 아, 산에 사람 총소리 아주 작아. 껍껍, 껍껍 하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집 처마에 불이 붙었더라고. 불이 붙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제 물을, 아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집 처마에도 불이 붙어가더라고. 그저 그 놈들이 와서 그저 그 헛불 봉핏불 하는 헛불 가지고 가서 ‘화륙’ 돌아가서 이 집 처마에 가서 붙이고. 저 집 처마에 가서 붙이고 하면서 불을 다 붙이는 거야. 불을 다 붙이면서. 우리 그때 이젠 더 데려갈 데 없으니까 이젠 어디 담 구석에 가서, 겁에 달아나는 것이 이러한 이불 하나 가지고 나가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지금 저 여동생 하나, 둘 된 아기니까 갑갑하니까 ‘꺾꺾’ 울어서 우리와 이불 속에 숨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 저 거시기 남동생 두 개 데리고 나가. 이런 꺾 이러한 방 구석에 가서 이러한 그 이불 걸으니까, 그것이 칼이 아니고 창이야. 이만큼 한 거 양편에 날을 내서 뽀쪽한 것을 낸 거. 그렇게 해서 난 여기 한 번만 박아버리고. 우리 남동생은 어이구, 이 ** 옆에 박아도 것이 저 어뎡하지 앓아서 살고. 박아도 이젠 죽여 버리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어떤 놈이 샷다가, 예헤, 내버려 예헤, 예헤 하니까 가니까. 우리 어머니네는 저 위쪽에 우리 친족들과 이제 이런 데 소나무, 우리 울타리 있는 거 탁 눅게 해서, 탁 눅게 해서 그 소나무 굵은 줄기 아래 공간이 나니까 우리 친구, 친족들은 다 기어들고 우리 동생 너무 소리 내서 우니까 우리 어머니 입구에, 입구에 앓아 있으니까 그저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살지니까 이런 데 한 번 찢르면 저편으로 또 구멍 나고 두 곳이야.)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2 겨난 기자, 우린이 그거 박아분 거 원 아프지 안헤라게. 그 현, 굵나난 아프지도 안 허고 난 현 번 박아주만은 우리 동생도 아프덴도 안 허고 기자.(그러니까 그저, 우린이 그거 박은 거 전혀 아프지 앓았어. 그 한, 겁나니까 아프지도 앓고 난 한 번 박았지만 우리 동생도 아프다고도 안 하고 그저.)

27) ‘꺾꺾’은 아기 우는 소리는 나타낸 말이다.

102006 @ 기마씨?(그래요?)

102006 #2 북북북북²⁸⁾ 털멍. 그거 아프느냐게.(‘북북북북’ 떨면서. 그거 아프느냐?)

102006 @ 겁난 것에.(겁난 것에.)

102006 #2 북북북북 털멍 앓아시난 우리 어무니가 애기 달래멍 이 애기 맡으라, 난 못 살켜. 겐 어머니 어디 터진 것도 모르고 애긴 나 맡으난 애기도 흥겹헨 그뻐 안 울더라고. 안 우는디 아이고, 영 앓아시민 어명으로 풍각²⁹⁾. 겐 기자 어멍 기자 바로 앞이 죽어 가민 아이고, 어멍아, 어멍아 허노렌 허민. 아이구, 살아지켜 물 흐 쓸 주민 살아지켜. 그때 우리가 므스왕, 물도 엇고, 수도가 시나게? 아니 안네난 살 앓주. 아이구, 나 물 먹으면 살아지켜 해도, 어디 강 물 거려 오느냐게. 게민 그자 흐쓸 시민 풍당 허는 건 피 느리는 소리를 몰란. 이 박아분 딜로.(‘북북북북’ 떨면서 앓아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기 달래면서 이 아기 맡아라, 난 못 살겠어. 그래서 어머니 어디 터진 것도 모르고 아기는 내가 맡으니까 아기도 너무 놀래서 그뻐 안 울더라고. 안 우는데 아이고, 이렇게 앓아 있으면 어머니에게서 ‘풍각’. 그래서 그제 어머니 그제 바로 앞에서 죽어 가면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하느라고 하면. 아이고, 살 거 같아, 물 조금 주면 살 거 같아. 그때 우리가 무서워서, 물도 없고, 수도가 있니? 아니 주니까 살았지. 아이고, 나 물 먹으면 살아질 것 같아 해도, 어디 가서 물을 떠서 오니? 그럼 그자 조금 있으면 풍당 하는 건 피 내리는 소리를 몰랐어. 이 박아버린 데로.)

102006 @ 아.(아.)

102006 #2 피가이 느리멍 요 고망으로 풍강. 게난 기자 어무니 앓아난 디 이디가 기자 신 소꿉이고 어디고 번번하고 헨 시난 저 이젠 저 서귀포서 다, 경찰에서 놀아와가난 그놈덜은 편쩍편쩍 돌아나 불고 경찰에서 오랑 다 더꺼지난 그뻐 죽은 아버지가 순경이난 우리 집일 우선 좇안왔주게. 좇안오란 반 그 모양 돼시난 그때 시절에도 참, 순경 백이 시난. 난 흔 밧디 허난 두루 헛젠 저 우리 할머니영 아부지영 내불고.(피가 내리면서 요 구멍으로 ‘풍강’. 그러니까 그제 어머니 앓았던 데 여기가 그제 신발 안이고 어디고 퍼져 있으니까 저 이젠 저 서귀포에서 다, 경찰에서 날아오니까 그놈들은 텅텅 비게 달아나 버리고 경찰에서 와서 다 덮어지니까 그뻐 죽은아버지가 순경이니까 우리 집엘 우선 찾아왔지. 찾아와서 보고 그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절에도 참, 순경 백이 있으니까. 난 한 군데 하니까 덜 했다고 저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와 내버리고.)

102006 @ 하, 병원 안 데려가고?(하, 병원에 안 데려가고?)

102006 #2 우리 어무니허고 애긴 젓 먹는 거난 데려갓주만은, 우리 동생허고 두 개만 데려가베틀주게.(우리 어머니하고 아기 젓 먹는 거니까 데려갓지만, 우리 동생하고 두 개만 데려갓지.)

28) ‘북북북북’은 무서워서 떠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29) ‘풍각’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2006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02006 #2 아이고, 그추록 헨 간에, 서귀포 간에, 어머니넌 병원에 가고 난 헨
밧디 헨 거난에 헨 밧디 그것들이 찢러 부난에 기자 고망만 요만이 나난에 난 이디
난 내부난에 기자.(아이고, 그렇게 해서 가서, 서귀포 가서 어머니네는 병원에 가고
난 한 군데 한 거니까 한 군데 그것들이 찢러 버리니까 그저 구멍만 이만큼 나니까
난 여기니까 내버리니까 그저.)

102006 @ 거 집에서 어떻 치료했수과, 그거?(거 집에서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102006 #2 치료가 무시거니게? 살았시난 좋았주게. 오래염시난. 그런 시상 살았
저게.(치료가 뭐야? 살아가니까 좋았지. 오래되니까. 그런 세상 살았어.)

102006 @ 아.(아.)

102006 #2 겨난 나 이제도 이거 헨 오륙십 년 돼도. 겨난 우린 경허고, 우리 아
바지허고 우리 할마니는 곱지 안헨에 이제 영헌 디로 소남으로 더꺼지난에 거 집이
쌀을 조금 내면 문 불 카던 거 문 내난이 노릿노릿 문 그 볍아진 좁쌀이민 코시롱
허게 들건디. 그 불 칸 좁쌀을 그 가을 내냥 먹으난 나 이 철 나가민 불 칸 좁쌀
내가 나, 하도 그걸 먹어 노난.(그러니까 나 이제도 이거 한 오륙십 년 되도. 그러
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할머니는 숨지 않고 이제 이런 데로 소나
무로 덮어지니까 거 집에 쌀을 조금 내면 모두 불에 타던 거 모두 내놓으니 노릿노
릿 모두 그 볍아진 좁쌀이민 구시하게 달텐데. 그 불에 탄 좁쌀을 그 가을 내내 먹
으니까 나 이 철 되면 불에 탄 좁쌀 내가 나, 너무 많이 그걸 먹으니까.)

102006 @ 아, 집안에 곡식을 놔 둔 걸 불태워 부난.(아, 집안에 곡식을 놔 둔
걸 불태워 버리니까.)

102006 #2 으, 그거 캉.(으, 그거 타서.)

102006 @ 그걸 먹으멍 지낸 거라?(그걸 먹으면서 지낸 거야?)

102006 #2 으, 그걸 먹엇주. 그걸 먹으멍 살고. 한바³⁰⁾엔 헨에.(으, 그걸 먹엇지.
그걸 먹으면서 살고. ‘한바’라고 해서.)

102006 @ 으, 한바집.(으, ‘한바집’.)

102006 #2 이.(이.)

102006 @ 도당집³¹⁾?(‘도당집’?)

102006 #2 아이고, 요 설룬애기³²⁾야. 이 남원리 이 리사무실 엠에 널딱헌, 곡식
갈아먹는 밧 헨나에.(아이고, 이 가여운 아기야. 이 남원리 이 리사무소 옆에 널따
란, 곡식 갈아먹는 밧 하나에.)

102006 @ 어.(어.)

102006 #2 법에서가 다 그 밧더레 오랜 허연.(법에서가 다 그 밧으로 오라고 해
서.)

30) ‘한바’는 일본어 ‘はんば’로 원 의미는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에 있는) 노무자들의 합숙소’를 말
한다. 여기서는 노무자들 합숙소 형태로 지어진 집을 가리킨다.

31) ‘도당’은 함석으로, ‘도당집’은 지붕이 함석으로 된 집을 말한다.

32) ‘설룬애기’는 서럽고 가여운 아기라는 의미다.

102006 @ 아.(아.)

102006 #2 저 이젯말로 허민 저 억새.(저 이젯말로 하면 저 억새.)

102006 @ 어, 억새.(어, 억새.)

102006 #2 억새영 기자 새영 서터진 놈. 산에 강 멧 단씩 비어 오렌 해연. 그거 비어다근에 저 소나무께기 요만씩 큰 거, 요만씩 현 거 해단에 이 방만씩 다 이녁 만씩 짓엇주게. 경허민 이 방만씩 짓으난.(억새와 그저 새와 섞인 놈. 산에 가서 몇 단씩 베어 오라고 해서. 그거 베어다가 저 소나무 가지 이만큼 큰 거, 이만큼 한 거 해다가 이 방만큼 다 자기대로 지엇지. 그렇게 하면 이 방만큼씩 지으니까.)

102006 @ 그럼, 여기 거의 다 불 탕수과?(그럼, 여기 거의 다 불에 탕습니까?)

102006 #2 불 아니 탄 집 혼 두세 개베끼 엇엇어.(불 안 탄 집이 한 두세 개박 에 없엇어.)

102006 @ 아.(아.)

102006 #2 게고 요기가 요기, 우체국 엠에가 지서니까, 그 지서 앞이 집만 불을 안 탕어. 지서 앞이만. 겨난 이 사름네 사는 디 쪽으로 영 해 노난에, 이 쪽 영 허 민 이 사름덜 사는 것도 봐레지고.(그리고 요기가 요기, 우체국 옆이 지서니까 그 지서 앞에 집만 불에 안 탕어. 지서 앞에만. 그러니까 이 사름들 사는 데 짚으로 이 령게 해 놓으니까 이 짚 이렇게 하면 이 사름들 사는 것도 보이고.)

102006 @ 보이고.(보이고.)

102006 #2 겐 밧 하나에 빙허게 돌아가명 허곡, 가운데도 허곡 또, 기자 또 그 에엽에 또 조금[쫂끔] 요만현 공간 시민 그디도 허고 경행 살단, 그디서 오래 살고. 그러난 웃드르³³⁾ 사름, 산간에 사름덜은 뭐 죽여불단 나머지, 늙은 사름이나 그런 사름은 가민 또 그런 밧 엇이난 또 바닷가에이.(그래서 밧 하나에 빙허게 돌아가면 서 하고, 가운데도 하고 또, 그저 또 그 옆에 또 조금 이만한 공간 있으면 거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러니까 ‘웃드르’ 사름, 산간에 사름들은 뭐 죽이다가 나머지, 늙은 사름이나 그런 사름은 가면 또 그런 밧 없으니까 또 바 닷가에.)

102006 @ 으.(으.)

102006 #2 그 바닷가에, 돌로 이젠 막 흙팡 일로 이 구들 반착만이 흙파근에 그 돌 소굽에 글로 다와 경혜영 살렌 허고.(그 바닷가에, 돌로 이젠 마구 흙파서 이쪽 으로 이 구들 반쪽만큼 흙파서 그 돌 속에 거기에서 쌓아 그렇게 해서 살라고 하 고.)

102006 @ 경헨 경 산 게 혼 얼마, 멧 들이나 경 살아났수과?(그렇게 해서 그런 게 산 것이 한 얼마, 몇 달이나 그렇게 살았습니까?)

102006 #2 나 열네 설에 십격은 드니까 그 혼 열네 설엔 다 그물언에 시월달에 드니까 열다섯 때까장은 그디 살아실 거여.(내가 열네 살에 습격은 드니까 그 한 열 네 살엔 다 그물어서 시월달에 드니까 열다섯 때까지는 거기 살았을 거야.)

33)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2006 @ 열다섯 살에.(열다섯 살요.)

102006 #2 경허단 집터에, 살아난, 불 카분 디 올라오란에 또 엄막이엔 현 거 느 알아지크냐?(그러다가 집터에, 살았던, 불에 타버린 데 올라와서 또 움막이라고 해서 거 너 알겠니?)

102006 @ 예, 움막.(예, 움막.)

102006 #2 엄막 댜에 살아가명 집 짓엇주.(엄막 매서 살아가면서 집 지엇지.)

102006 #2 나 얼굴이영 그디 상아리 다 나와신게. 아이구, 나 경허카 부텐.(나 얼굴과 거기 상판대기 다 나오고 있네. 아이고, 나 그럴까 봐.)

102006 @ 근디 어무니 막 곱수다. 젊었을 때 막 인기 많아실 거 님은디?(그런 데 어머니 아주 곱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인기 많았을 거 같은데?)

102006 #2 허이구.(아이고.)

102006 @ 아니마씨? 딸들 막 예쁘지예?(아닙니까? 딸들 아주 예쁘지요?)

102006 #2 제국, 제국 시대 만나, 사삼스건 만나 우리 시대엔이, 시집살이 헤여 이 요런 좋은 세상 난디, 아이구. 그뻘이 누구나 다 시집살이허져.(제국, 제국 시대 만나, 사삼사건 만나 우리 시대에는, 시집살이 해서, 이런 좋은 세상이 났는데. 아이고, 그뻘 누구나 다 시집살이하지.)

102013 @ 시집살이허고예.(시집살이하고요.)

102013 #2 요즘은 메누리안티 시집살이헬져, 나.(요즘은 며느리에게 시집살이하 고 있어, 나.)

102015 @ 하하하. 메누리안티 시집살이?(하하하.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102015 #2 메누리가 쌀쌀헌 메누리난 나 겁낭.(며느리가 쌀쌀한 며느리니까 내 가 겁나서.)

102015 @ 제주도, 제주도 메누리?(제주도, 제주도 며느리?)

102015 #2 요 위미런디.(요 위미리인데.)

102015 @ 아, 위미런디.(아, 위미리인데.)

102015 #2 막 간간헌 메누릴 헤노난에 나 겁난 껍도 안 헌다. 기자 기여, 기여. 기여, 기여, 기자.(아주 간간한 며느릴 하니까 내가 겁나서 껍도 안 한다. 그저 그 래, 그래, 그래, 그래, 그저.)

102006 @ 아까 물엇던 게, 경헬 모여 산 게 열네 살 때 습격당헬 몇 살까지? (아까 물엇던 게, 그렇게 해서 모여 산 것이 열네 살 때 습격당하고 몇 살까지?)

102006 #2 그 열다섯깃장 살았어.(그 열다섯까지 살았어.)

102006 @ 한 일 년 더?(한 일 년 더?)

102006 #2 아니, 일 년 던 안 살고, 그 일 년 살아가난.(아니, 일 년 더는 안 살 고. 그 일 년 살아가니까.)

102006 @ 예.(예.)

102006 #2 그 사름덜이 이젠 죽이, 심어당 죽일 건 다 죽여 불고. 또 시꺼갈 건 시꺼간 다 어디 강 다 죽여 불고, 게난 이제 그디서 아들이영 딸이영 죽어 분 사름

도 이제 폭도 가족 추급허멍 이디 오랑 살고 헨 산에 사름이 좀 엇일 거다 허난 이제 살아난 집터에, 다 움직여 간에, 또 그 나무떼기 요만씩 헨 거 헨 움막 메왕 살멍 집 짓으멍 헛주게.(그 사람들은 이젠 죽이, 잡아다가 죽일 건 다 죽여 버리고. 또 실어갈 건 실어가서 다 어디 가서 죽여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들과 딸과 죽여 버린 사람도 이제 폭도 가족 취급하면서 여기 와서 살고 해서 산에 사람이 좀 없을 거다 하니까 이제 살았던 집터에, 다 움직여 가서 또 그 나뭇가지 이만 큼씩 한 거 해서 움막 매서 살면서 집 지으면서 했지.)

102006 @ 움막 지영 살멍? 터는 자기 터로 돌아왕?(움막 지어서 살면서? 터는 자기 터로 돌아와서?)

102006 #2 어.(어.)

102006 @ 본 집은 못 짓고 그냥.(본 집은 못 짓고 그냥.)

102006 #2 본 집은 오명사라 못 짓주게.(본 집은 오면서 바로 못 짓지.)

102006 @ 못 짓고.(못 짓고.)

102006 #2 움막에 살멍도.(움막에 살면서도.)

102006 @ 어머니 병원 갖잖아예, 동생이랑예?(어머니 병원 갖잖아요. 동생과?)

102006 #2 으.(으.)

102006 @ 경헨 얼마나 잇엇낫수과?(그렇게 해서 얼마나 잇엇습니까?)

102006 #2 혼 들은 살양 와실 거라.(한 달은 살고 왔을 거야.)

102006 @ 아.(아.)

102006 #2 계난 이제 거치. 약도 안 좋고게. 병원도 경 지금 ㄱ치 으라 개냐? 그때 죽은 사름도, 우리 집 뒤에서도 사름이 기자 느랏느랏³⁴⁾ 다 죽고. 저 시월, 음력으론 시월 스무으드렛날인데, 그때 제서허는 사름이 남원리광 위미린 다 그때 제 사고. 이젠 그 그대에 불 카 부난, 기자 죄 잇고 없고 이 우리 쪽에서가 저디 사름을 하영 죽여부난 그 사름덜은 제서가 십일월달덜 내내라. 봉가지는³⁵⁾ 냥 죽여 부난. 봉가지는냥 죽여 부난. 십이월달이 잇주. 어떤, 어떤 사름은 죄 엇인 늙은이나 아이는 내부는디 죄 엇인, 저 재수 엇인 사름은 가족이 다 몰살헌 디도 잇어.(그러니까 이제 같이. 약도 안 좋고. 병원도 그렇게 지금 같이 여러 개니? 그때 죽은 사름도, 우리 집 뒤에서도 사람이 그저 ‘느랏느랏’ 다 죽고. 저 시월, 음력으론 시월 스무여드렛날인데, 그때 제사하는 사람이 남원리와 위미린 다 그때 제사고. 이젠 그 그대에 불에 타 버리니까, 그저 죄 잇고 없고 이 우리 쪽에서가 저기 사람을 많이 죽여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가 십일월들 내내야. 보이는 대로 죽여 버리니까. 보이는 대로 죽여 버리니까. 십이월에 잇지. 어떤, 어떤 사름은 죄 없는 늙은이나 아이는 내버리는데 죄 없는, 저 재수 없는 사름은 가족이 다 몰살한 데도 있어.)

102006 @ 으. 저의 할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섯수다. 우리 하르부지도. 저 한동인 디예, 하르부지영 동네 사름 혼 멧 사람 ㄱ찌 끌려강 월정초등학교, 거기서 죽여 부

34) ‘느랏느랏’은 힘이 빠져서 늘어진 모양을 나타낸다.

35) ‘봉그다’는 ‘줍다’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보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난 ㄱ튼 날 제사가 있어마씨.(으. 저희 할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저 한동인데요,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 한 몇 사람 같이 끌려가서 월정초등학교, 거기서 죽여 버리니까 같은 날 제사가 있어요.)

102006 #2 그때 눈으로, 학교 운동장에 혼 십 명 심어다 놔근에 눈 딱 막아놔근에, 저 우리 그디 물을 질레 갖추. 학교 영 옆이 통물이 시난 물 질레 가민, 저 눈 막아근에 과짜 세와 놔근에. 죽을 사름이 열 개민 총 가진 사름도 열 개라이. 딱 맞은편이로 사근에 그자 과박³⁶⁾ 해 불민 메기. 케민 기자 우린 물 질레 갖당 보민이 혼 번 똥굴영 죽는 사름, 두 번 똥굴영 죽는 사름 헤라. 기자 과짜 세와냥 죽을 사름 하나에 총 가진 사름 하나씩 맞은편 행 그자 과박 해 불민 기자 혼 번 똥굴어 죽는 사름 두 번 똥굴영 죽는 사름 경 헤난.(그때 눈으로, 학교 운동장에 한 십 명 잡아다 놓고 눈 딱 막고, 저 우리 거기 물을 길러 갔지. 학교 이렇게 옆에 우물이 있으니까 물 길러 가면, 저 눈 막고 똑바로 세워 놓고. 죽을 사름이 열 개면 총 가진 사름도 열 개야. 바로 맞은편에 서서 그저 ‘과박’ 해 버리면 끝. 그럼 그저 우린 물 길러 갔다가 보면 한 번 똥굴면서 죽는 사름, 두 번 똥굴면서 죽는 사름 있어. 그저 똑바로 세워놓고 죽을 사름 하나에 총 가진 사름 하나씩 맞은편에 해서 그저 ‘과박’ 해 버리면 그저 한 번 똥굴고 죽는 사름 두 번 똥굴고 죽는 사름 그렇게 했었어.)

102006 @ 안 겁난마씨? 경허영 집 밖에 물 질레 나가고?(안 겁났습니까? 그렇게 집 밖에 물 길러 나가고?)

102006 #2 아이구, 그뎨이 겁을 나도 첨.(아이고, 그뎨 겁이 나도 참.)

102006 @ 어쨌든 전쟁 때에도 먹고 살젠 농사들은 지었잖아예, 여기서예?(어쨌든 전쟁 때에도 먹고 살려고 농사는 지었잖아요, 여기서요?)

102006 #2 어.(어.)

102006 @ 가까운 디 강 농사들은 지으멍예?(가까운 데 가서 농사들은 지으면서요?)

102006 #2 그 일본, 저 왜정 시대엔 바당으로 그 배가 오라근에 무시거 해 부난 헨에. 이젠 우리가 산에만 올라야 될 거난, 그뎨 굴덜 파고이. 굴 막 우리 경 굴을 경 일허지 못 허난 일 잘헤지는 사름은 굴 막 산 하나 살림할 만이 굴 지프게덜 판에, 양식은 뭐냐? 보리만 게역 해서 보리 게역. 보리 게역은 기자 물만 타도 먹영 임시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거난. 보리 게역을 멧 말씩 헤영 산에도 가고 굴 소굽에, 저 굴 파진 사름은 굴 소굽에도 강 살곡. 굴 못 판 사름은 산에 올라근에 어디 강 산에, 느 알아지크냐? 저 만장굴 님은 퀘열³⁷⁾.(그 일본, 저 왜정 시대에는 바다로 그 배가 와서 무엇 해 버리니까 해서. 이젠 우리가 산에만 올라야 될 거니까. 그뎨 굴들 파고. 굴 마구 우리 그렇게 굴을 그렇게 일하지 못 하니까 일 잘하는 사름은 굴 마구 산 하나 살림할 만큼 굴 깊게들 파서, 양식은 뭐냐? 보리만 미숫가루

36) ‘과박’은 충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37) ‘퀘’는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을 말한다. 제보자는 이를 ‘퀘열’이라고 하였다.

해서 보리 미숫가루. 보리 미숫가루는 그저 물만 타도 먹고 임시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보리 미숫가루를 몇 말씩 해서 산에도 가고 굴 속에. 저 굴 판 사람은 굴 속에도 가서 살고. 굴 못 판 사람은 산에 올라서 어디 가서 산에, 너 알겠니? 저 만장굴 같은 ‘퀘열’.

102006 @ 으.(으.)

102006 #2 그 퀘열에 강 살고.(그 ‘퀘열’에 가서 살고.)

102006 @ 그건 일제시대에?(그건 일제시대에?)

102006 #2 으, 일제시대에 그렇게.(으, 일제시대에 그렇게.)

102006 @ 건 일본 경찰 피해 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마썸?(건 일본 경찰을 피해 가지고 숨어 있었던 거요?)

102006 #2 그때게 일제시대엔 그 일본 놈들 그처럼 헐 땀 산에 강 살져. 또 스삼사건은 산에 따문 바닷에 오져 경혜시네.(그때 일제시대엔 그 일본 놈들 그렇게 할 때 산에 가서 살았어. 또 사삼사건은 산에 (사람) 때문에 바다에 오고 그렇게 했었어.)

102007 @ 게문 결혼은 열, 스무 살에 한 거잖아예? 아버지 열여덟 살, 어머니 스무살?(그럼 결혼은 열, 스무 살에 한 거잖아요? 아버지 열여덟 살, 어머니 스무살?)

102007 #2 어.(어)

102007 @ 중매한 것과?(중매한 겁니까?)

102007 #2 중매주게.(중매지.)

102007 @ 동네에 이시난 얼굴은 다 알아난 거 아니? 동네난, ㄱ튼 동네난?(동네에 있으니까 얼굴은 다 알았던 거 아니?)

102007 #2 저 우리 영감이.(저 우리 영감이.)

102007 @ 으.(으.)

102006 #2 난 역질 안 허고, 또 어린 때부터 잘 역안. 열여섯 설에부터 중매행 돌아다니곡. 그때는이 경헨에 그 살아난 말 허져, 저 한바엔 강 살앙 먹지도 못 허고 굶주릴 때에, 우리가 저 집터에 강 못 살았어. 성을 다와야지, 성 안에만 살아야지 허난. 성을 닷젠 허민 옛날 푸지게³⁸, 역새말고 집 이는 새 해근에 등따리에 돌로 밀어 불지 안 허게 만들앙 영허영 친 들앙 영.(난 성숙하지 않고, 또 (남편은) 어린 때부터 성숙했어. 열여섯 살부터 중매해서 돌아다니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살았던 말 하지. 저 ‘한바’라고 가서 살면서 먹지도 못 하고 굶주릴 때에, 우리가 저 집터에 가서 못 살았어. 성을 쌓아야지, 성 안에만 살아야 하니까. 성을 쌓으려고 하면 옛날 ‘푸지게’, 역새말고 집 이는 새 해다가 등에 돌로 밀어 버리지 않게 만들어서 이렇게 끈 달고 이렇게.)

102006 @ 등에, 등에?(등에, 등에?)

102006 #2 어, 영혜영 여저덜 지게 잇지 안 허냐. 영 혜영 이레, 여전 허나고 돌

38) ‘푸지게’는 지게의 한 종류다.

은 이거민 돌리가 들렁.(어, 이렇게 해서 여자들 지게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리, 여잔 하나고 돌은 이거면 돌이 들어서.)

102006 @ 등 우에?(등 위에?)

102006 #2 이 푸지게 꾀쟁이에 노 꾀쟁이 들았어. 노 꾀쟁이 영 들앙 그추룩 헤 영 성을 얼마나 헤시니. 이디서 말로, 요 체육관 가는 요, 요 옆으로 헨에 저 남원 상동 알력 펜으로 저 읍사무실 헤난 옆이꺼정 둥글렁허게 헨에 성 안에 다 살았주 게, 성 안에.(이 ‘푸지게’ 끄트머리에 노 끄트머리 달았어. 노 끄트머리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해서 성을 얼마나 했니. 여기 말로 이 체육관 가는 요, 요 옆으로 해서 저 남원 상동 아래 편으로 저 읍사무소 했던 옆에까지 둥글게 해서 성 안에 다 살았지, 성 안에.)

102006 @ 음.(음.)

102006 #2 겨난 그 성은 허민 이제 문, 대문 냅주게.(그러니까 그 성은 하면 이제 문, 대문 냅지.)

102006 @ 음.(음.)

102006 #2 대문 내민, 보출 샷어. 나도 보초 사고, 보초 사근에 여저도 멧 설로 멧 설. 저 우리 집이 저 하르방네는 보초를 안 사고 총 메연 보초를 잘 삼냐, 못 삼냐 순찰.(대문 내면 보출 샷어. 나도 보초 서고, 보초 서서 여자도 멧 살로 멧 살. 저 우리 집의 할아버지는 보초를 안 서고 총 메서 보초를 잘 서고 있는지, 못 서고 있는지 순찰.)

102006 @ 음.(음.)

102006 #2 순찰 탱기곡 비바린가, 비바리주 옛날은 아가씨가 어딿어. 비바리덜은 보출 사고 허난. 아이구, 난 그때 즐아와근에이 나이 많은 어른광 사례 가민이 그 어른이 일어나라, 시간에게 멧 시로 멧 시꺼장은 누게.(순찰 다니고 ‘비바리’인가, ‘비바리’지, 옛날은 아가씨가 어딿어. 아가씨들은 보출 서고 하니까. 아이고, 난 그때 즐려서 나이 많은 어른과 서러 가면 그 어른이 일어나라, 시간이 멧 시로 멧 시까지는 누구.)

102006 @ 누구예.(누구요.)

102006 #2 우리 갈 시간 뵈저, 일어나라 헨 강 앓으면 꾸박 꾸박 즐아가민. 널랑 아썩 자불라. 경허멍 굴으멍 보초 사곡. 어휴, 굴앙 다 무시거 허여.(우리 갈 시간 뵈어. 일어나라 해서 가서 앓으면 꾸박 꾸박 즐고 있으면. 너는 아예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초 서고. 어휴, 말해서 다 무엇 해.)

102006 @ 음.(음.)

102006 #2 성 다우레, 원 기신 엇인 사름은 경, 신 사름은 헤도 큰 돌도 못 들르고 큰 돌 지도 못 허고 얼떡엇주. 경헨 성 안에만 살단에, 겨난 우리 하르방은 그때도 여간헨. 우리 보초 사도 보민, 순찰 도는 것도 구역이 다 딱로 있어. 누구네는 어느 문으로 어느 문, 누게네는 어느 문 허민 우리 신 문에 오지 안 허고 저쪽 문에 오랑 감젠. 그 말만 들엇는디 경헨 살아가단에 이 노릇이여.(성 쌓으러, 원 기운

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있는 사람은 해도 큰 돌도 못 들고 큰 돌 지지도 못하고 연결떡었지. 그렇게 해서 성 안에만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도 여간 했어. 우리 보초 서도 보면, 순찰 도는 것도 구역이 다 따로 있어. 누구네는 어느 문으로 어느 문, 누구네는 어느 문 하면 우리 있는 문에 오지 않고 저쪽 문에 왔다 간다고. 그 말만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노릇이야.)

102007 @ 누게가 중매 선 것과, 어쨌든 알고는 잊어나지 안 헨마씨, 중매 서기 전에.(누가 중매 선 것입니까, 어쨌든 알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중매 서기 전에.)

102007 #2 아니, 저 기자 우리 그디서 이딘 나가 두려불고 우리 아버지넨 기자, 이것이 옛날 지역 이름이 쉐르루³⁹.(아니, 저 그저 우리 거기서 여긴 내가 어리고 우리 아버지네는 그저, 이것이 옛날 지역 이름이 ‘쉐르루’.)

101010 @ 아, 여기 이름이.(아, 여기 이름이.)

101010 #2 쉐르루.(쉐르루.)

101010 @ 쉐르루?(쉐르루?)

101010 #2 어. 저 쉐르루 누게네, 쉐르루 누게네. 이것만 알아놔주게. 이것만 알앗단에 이 집이, 이 집이서가 우리 잘 아는 사름 빌영 구허레 갖주게.(어. 저 ‘쉐르루’ 누구네, ‘쉐르루’ 누구네. 이것만 알았었어. 이것만 알다가 이 집에, 이 집에서가 우리 잘 아는 사름 빌어서 구하러 갔지.)

101010 @ 음.(음.)

102007 #2 게난 우리 아버지가 날 ** 못 허카 부덴. 스무 설이라도이, 이제 영역고 컷주. 그때 옷 입어난 거 보민 아주 족곡, 쪼꼬락해서. 저 우리 집이 영감은이 두린 때도 쫓락 켌. 경허난 그추록 열다섯, 여섯에 중매헨 돌아댕기곡 헛주.(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 못 할까 봐. 스무 살이라도, 이제 이렇게 성숙하고 컷지. 그때 옷 입었던 거 보면 아주 작고 조그마했어. 저 우리 집의 영감은 어린 때도 훌쩍 컷어. 그러니까 그렇게 열다섯, 여섯에 중매해서 돌아다니고 했지.)

102007 @ 경헨 결혼헨 때 중매헤신디 사주도 봐 나신가예. 사주?(그렇게 해서 결혼할 때 중매했는데 사주도 봤었습니까, 사주?)

102007 #2 사주도 봤주게. 그때사게 중매허고 스주 아니 뵙 가느냐. 좋아사신디 곳어사신디 이 집이서가 좋덴 험젠 허멍. 게난 우리 아버지네가 어리석음이주. 이디서 좋덴 해도 우리 아버지도 좀 판 디라도 강 알아보는 게 셔사는디 기자, 기자 딸 난 날 난 시 곶아줘 부난에 기자 스주 뵙 좋덴 택일헤 가난 기자.(사주도 봤지. 그때야 중매하고 사주 아니 보고 가느냐. 좋았는지 곳었는지 이 집에서가 좋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네가 어리석음이지. 여기서 좋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도 좀 다른 데라도 가서 알아보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저, 그저 딸 난 날 난 시 말해줘 버리니까 그저 사주 보고 좋다고 택일해 가니까 그저.)

102009 @ 그냥 보내 불언, 하하하. 게난 결혼헨 때 혼수품 같은 건 헛수과?(그냥 보내 버렸어, 하하하. 그러니까 결혼할 때 혼수품 같은 건 했습니까?)

39) ‘쉐르루’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의 한 지역 이름이다.

102009 #2 아이구, 요 설룬 얘기야.(아이고, 요 가여운 아기야.)
 102009 @ 설룬 얘기야, 하하하.(불쌍한 아기, 하하하.)
 102009 #2 미녕 두 빌.(무명 두 필.)
 102009 @ 어, 두 빌?(아. 두 필?)
 102009 #2 어.(어.)
 102009 #2 두 빌이민 어느 정도?(두 필이면 어느 정도?)
 102009 #2 두 필. 사십 자씩 두 개.(두 필. 사십 자씩 두 개.)
 102009 @ 아, 사십 자씩 두 개예?(아, 사십 자씩 두 개요?)
 102009 #2 이거 딸 사 가노렌 허는 문세.(이거 딸 사 간다고 하는 문서.)
 102009 @ 으.(으.)
 102009 #2 여장.(여장.)
 102009 @ 흥세미녕⁴⁰ 해?('흥세미녕'이라고 해?)
 102009 #2 흥세에 그 문세에.(‘흥세’에 그 문서에.)
 102010 @ 혜신게 미녕, 혼수. 결혼식 안 헌 거고예?(했네요 무명, 혼수. 결혼식 안 한 거고요?)
 102010 #2 아이구, 이 설룬얘기야 결혼식.(아이고, 이 가여운 아기야 결혼식.)
 102010 @ 여기 이시난 물어봥수다.(여기 있으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102010 #2 저 그때 시절에는 딱, 나 끝나난에, 경허난 그때 시절에 머리가 할머니덜이 막 좋아근에 머리를 비영 풀아이. 비영, 요만이 허게 비영 풀민 그 머리를 막 잘 만들어. 드리, 머릿들뤼⁴¹.(저 그때 시절에는 딱 나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머리가 할머니들이 아주 좋아서 머리를 베어서 팔아. 베어서 이만큼 하게 베어서 팔면 그 머리를 아주 잘 만들어. 다리, ‘머릿들뤼’.)
 102010 @ 응, 머릿들뤼?(응, ‘머릿들뤼’?)
 102010 #2 들뤼라고 겐 그 놈을 이제 막 여라 개 헤근에 그 이 집이 새각시 시집갈 때 허곡. 뭘 머릿들뤼 헤근에 언마니냐 허느냐. 딱 요만이 다와. 얼마나 으라 개 이 만이 다와근에 저 가운데 들뤼를 영 마주 부치면은 떨어질 거난 검은 험벅 낱 이딘 딱 주영. 양쪽더레 다왕 이제 저디 걸민, 이보단 막 걸어, 이보단 건 거 허민 그걸로 돌림쟁이질 허주. 이 집이도 갖닥 저 집이도 갖닥. 저 장옷, 장옷 허나 허고. 장옷은 파란 장옷. 색시가 자기 집이서 헌 거 허난 입곡 새서방칩이서가 장옷을 갈 때 가정 가주.(‘들뤼’라고 그렇게 그 놈을 이제 아주 여러 개 해서 그 이 집에 새색시 시집갈 때 하고. 뭘 ‘머릿들뤼’ 해서 이만큼 허느냐. 딱 이만큼 땅아. 얼마나 여러 개 이만큼 땅아서 저 가운데 ‘들뤼’를 이렇게 마주 붙이면 떨어질 거니까 검은 형겅 놓고 여기는 딱 기워. 양쪽으로 땅아서 이제 저기 걸면 이보단 아주 길어, 이보단 긴 거 하면 그걸로 돌리지. 이 집에도 갔다가 저 집에도 갔다가. 저 장

40) ‘흥세’는 흥세함, ‘흥세미녕’은 흥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흥세함’이란 혼례를 치를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함을 말한다.

41) ‘들뤼’는 쪽을 짓는 머리 속에 넣는 다른 머리털을 말한다. ‘머릿들뤼’는 ‘들뤼’를 넣어서 만들어 올린 머리를 일컫는다.

옷, 장옷 하나 하고. 장옷은 파란 장옷. 색시가 자기 집에서 한 거 하나 입고 새서방 집에서 장옷을 갈 때 가지고 가지.)

102010 @ 으.(으.)

102010 #2 가정 장 그건 씌우고, 늪 못 바리게.(가지고 가서 그건 씌우고, 남 못 보게.)

102010 @ 으.(으.)

102010 #2 계난 그 머리 빌어다근에 건지⁴²⁾라. 건지 이디 웬짜더러 똑 건지 곱이 들어간 게 이만이, 이만이 해근에 건지 허고 치마, 저고리 입곡 그 장옷 입곡 장옷 쓰곡 허난 이제 신랑칩이가, 새서방칩이서 새각시칩이 간 때에 그 가마 멩글젠 허민 창나무 두 개 시끄곡 가마 쫄개쫄개⁴³⁾ 문 틀영 하꼬⁴⁴⁾에 문딱 헛다근에 이제 그거 새서방은 물 태왕 이끄곡 그 나무 문 시끄곡 행 새각시칩이 가민, 저 새서방은 그 뭐 쓴 거, 그 여장을 앓아 강 주민 그 여장을 봐서, 신부 집이서 새각시 집이서 봐서, 그 글자가, 그것이 뭇이 시끄럽냐 허민 자기 어명에 자기 아방에 난 딸은 막 좋는디 어명이 댓고 온 딸이나 어명.(그러니까 그 머리 빌려다가 ‘건지’야. ‘건지’ 여기 왼쪽으로 ‘건지’ 곱이 들어간 것이 이만큼, 이만큼 해서 ‘건지’ 하고 치마, 저고리 입고 그 장옷 입고 장옷 쓰고 하나까 이제 신랑집에서가, 새서방 집에서 새색시 집에 갈 때에 그 가마 만들려고 하면 ‘창나무’ 두 개 싣고 가마 조각조각 모두 틀어서 상자에 모두 헛다가 이제 그거 새서방은 말 태워서 이끌고 그 나무 모두 싣고 해서 새신부 집에 가면 저 새서방은 그 뭐 쓴 거, 그 여장을 가지고 가서 주면 그 여장을 봐서, 신부 집에서 새색시 집에서 봐서, 그 글자가, 그것이 무엇이 시끄럽냐고 하면 자기 어머니에 자기 아버지에 낳은 딸은 아주 좋은데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나 어머니.)

102010 @ 다심어명 딸.(의붓어머니 딸.)

102010 #2 으, 그런 건 글자가 틀리는 거라. 영 바근에 이거 글자가 하나 틀렸져, 두 개 틀렸져. 경해도 지금은 눈 감아 주는데 그땐 눈 감아 주지 안 허여. 고찌렌 허여. 켜허여 그걸 고치민 새서방은 오랑 딱 앓으면 새서방 대반도 있고. 이제 친구, 벗도 시민, 이제 친구영 허지만은 그때 벗이라고 해서 옆에 앓곡. 우리 하르방은 으망지다 보난에 우리 집이 강 딱 앓았는데 저 방에서는, 새서방 이디서 밥 먹고 새각신 저 방에서 출리주게.(으, 그런 건 글자가 틀린 거야. 이렇게 봐서 이거 글자가 하나 틀렸어, 두 개 틀렸어. 그래도 지금은 눈 감아 주는데 그땐 눈 감아 주지 앓아. 고치라고 해. 그래서 그걸 고치면 새서방은 와서 딱 앓으면 새서방 대반도 있고. 이제 친구, 벗도 있으면, 이제 친구라고 하지만 그때 벗이라고 해서 옆에 앓고. 우리 할아버지는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가서 딱 앓았는데 저 방에서는, 새서방 여기서 밥 먹고 새신부는 저 방에서 차리지.)

102010 @ 으.(으.)

42) ‘건지’는 여자가 주로 결혼할 때 꾸미기 위해 엮은 가발 머리를 말한다.

43) ‘쫄개쫄개’은 조각조각의 의미로 쓰였다.

44) ‘하꼬’는 일본어 ‘하こ’로 상자를 말한다.

102010 #2 게 옷, 옷도 다른 거 입곡게 그 머털 만들젠 허민게 이제 화장시키는 거나 다름없이. 것도 복 좋은 여자, 시집강 못 산 여저도 말고 남편이 죽어 분 사름도 말고. 거 건지 허는 거. 경 출리고 신량은 밥 먹는다, 우리 하르방인가 신량은 밥상 딱 허민, 그뻐 신량상에 뭐냐, 주로 도야지고기 그자 저 요멘씩 요멘씩 썬 거 갈리라고이.(그렇게 옷, 옷도 다른 거 입고 그 머털 만들려고 하면 이제 화장시키는 거나 다름없이. 것도 복 좋은 여자, 시집가서 못 산 여자도 말고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도 말고. 거 ‘건지’ 하는 거. 그렇게 차리고 신량은 밥 먹는데, 우리 할아버지인가 신량은 밥상 딱 하면, 그뻐 신량상에 뭐냐, 주로 돼지고기 그저 저 이만큼씩 이만큼씩 썬 거 갈비라고.)

102010 @ 으.(으.)

102010 #2 그거 지구자꾸로 걸치고.(그거 지그재그로 걸치고.)

102010 @ 갈리? 으, 으.(갈비? 으, 으.)

102010 #2 갈리라고 지구자꾸로 걸치고, 똑 이만이 넓게 현 거 지구자꾸로 걸치곡, 저 계랄 허곡이.(갈비라고 지그재그로 걸치고, 똑 이만큼 넓게 한 거 지그재그로 걸치고. 저 계란 하고.)

102010 @ 으.(으.)

102010 #2 저 득 허나 허곡이. 경헤근에 저 신량상에 올린다. 경허난 영 앓앙 밥 먹젠 현디 우리 하르방⁴⁵)은 이제 큰옷이 이거라이. 이만이 현 거 있지 안 허냐?(저 닭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신량상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큰옷이 이거야. 이만큼 한 거 있지 않니?)

102010 @ 으, 으.(으, 으.)

102010 #2 그 관복. 게난 이거 잘 행 밥 먹젠 영 봐레 보난에 그 벗덜은 어느 때 앓아 분 줄 몰르게 상에 아무 것도 잊어렌 다 앓아벤. 다 앓아 부난에, 열여덟 설에 장계 간 놈이 앓아 벗건 앓아 벗구나 헨 밥만 서너 숟가락 먹주만은 영 보난 아무 것도 잊어난 저 하인, 신량 득령 간 사름 일름이 태구라, 일름이.(그 관복.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벗들은 어느 때 가져 버린 줄 모르게 상에 아무 것도 없이 다 가져 버렸어. 다 가져 버리니까, 열여덟 설에 장가는 놈이 가져 버렸건 가져 버렸구나 해서 밥만 서너 숟가락 먹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저 하인, 신량이 데리고 간 사름 이름이 태구야, 이름이.)

102010 @ 예.(예.)

102010 #2 태구야 헨 불르난에. 어딴 멩령이니게.(태구야 해서 부르니까. 어디 멩령이야.)

102010 @ 양, 이제 ㄱ트민 예, 허주만은 양 허멍 이젠 가난. 이 사름덜 상 출려 다 주라. 배고팡 오랏저. 거 오죽 비유 좋냐.(예, 이제 같으면 예, 하지만 예, 하면서 이제 가니까. 이 사람들 상 차려다 줘라. 배고파서 왔어. 거 얼마나 비유가 좋니.)

45)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02010 @ 하하.(하하.)

102010 #2 열여덟 살에 간 놈이 차마 장가가근에 툭 앉안에 친구가 그거 앓아 베시민 엇인 양 먹주만은 태구 불르난 양 허멍 오난 이 사름덜 상 출려다 주라. 게 그 사름덜도 그거 무안행 먹어지느냐.(열여덟 살에 간 놈이 차마 장가가서 탁 앓아서 친구가 그거 가져 버렸으면 없는 대로 먹지만 태구 부르니까 예 하면서 오니까 이 사람들 상 차려다 줘라. 그럼 사람들도 그거 무안해서 먹을 수 있겠어.)

102010 @ 그니까.(그러니까.)

102010 #2 그런 사름이여. 경허난 그거 난.(그런 사름이야. 그러니까 그거 난.)

102010 @ 하르방 툭툭헌 하르방.(할아버지, 툭툭한 할아버지.)

102010 #2 이불은 저 무시거 닳은 거 두 췌 해 줘라, 두 췌 해 주난 그건 포에 쌍 허민 그 들레 간 사름 그 하인 각시가 그거 지곡이. 베로 지곡.(이불은 저 무엇 같은 거 두 췌 해 주더라. 두 췌 해 주니까 그건 보자기에 싸서 하면 그 데리러 간 사람 그 하인 각시가 그거 지고. 참바로 지고.)

102010 @ 으.(으.)

102010 #2 난게 가마게.(난 가마.)

102010 @ 으, 타고.(으, 타고.)

102010 #2 난 가마에 오민 물이 좋은 건 술술술술 오는 디 물이엔 현 거 그거 허지 말젠 부들랑⁴⁶⁾ 부들랑 부들랑 그것 영 두 개 해근에이 요레 가마 짓영 놘근에 물 우터레 그걸 올려노민 물이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아이고, 어떤 사름 시집갈 때 막 도깨 털어짐직 허여.(난 가마에 오면 말이 좋은 건 살살살살 오는 데 말이라고 한 거 그거 하지 말려고 ‘부들랑 부들랑 부들랑’ 그것 이렇게 두 개 해서 이쪽으로 가마 지어 놓고 말 위로 그걸 올려놓으면 말이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부들락’. 아이고, 어떤 사름 시집갈 때 아주 가마 떨어질 것 같아.)

102010 @ 하하하.(하하하.)

102010 #2 경헨 그거 그추룩 헨 나 시집을 왔저. 경헨 시집왔어. 아이구.(그래서 그거 것처럼 해서 나 시집을 왔어. 그렇게 해서 시집왔어. 아이고.)

102010 @ 하하하. 아니 그래도 결혼식도 다 하셔신게. 그 시대에.(하하하. 아니 그래도 결혼식도 다 하셨네요. 그 시대에)

102010 #2 으, 그 시대에 허는 식이주게.(으, 그 시대에 하는 식이지.)

102010 @ 사삼 끝나고 언제과, 오십오 년?(사삼 끝나고 언제입니까? 오십오 년?)

102010 #2 열네 살에게 끝난에 스물에 시집을 왔주. 으섯 해 살양.(열네 살에 끝나서 스물에 시집을 왔지.)

102010 @ 아, 스물에.(아, 스물에.)

102010 #2 아이구.(아이고.)

102010 @ 사진은 찍어져수과?(사진은 찍었습니까?)

46) ‘부들랑’은 말버둥치거나 꿈틀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2010 #2 사진이 어디 시니게. 아니 그때 조금 잇단에 흐쓸 잘허는 사름은 사진도 찍고.(사진이 어디 있어. 아니 그때 조금 잇다가 조금 잘하는 사름은 사진도 찍고.)

102010 @ 예.(예.)

102010 #2 차로도 가고 해신디.(차로도 가고 했는데.)

102010 @ 예. 놀러 왔수다.(예. 놀러 왔습니다.)

102010 #2 난 사진이랑 말앙, 어느 저를에 사진 심광. 계난 또 그 장옷 입곡 장 옷 쓰곡 저 가마 타고 오랏저. 가마 타고 시집오랏주.(난 사진은 커녕, 어느 겨를에 사진 있을까. 그러니까 또 그 장옷 입고 장옷 쓰고 저 가마 타고 왔어. 가마 타고 시집왔어.)

102010 @ 예구, 가마 타고.(예구, 가마 타고.)

102010 #2 하하하.(하하하.)

102011 @ 계민 신희살림은 어디 차려진 거마씨? 여기 이 터과?(그럼 신희살림은 어디 차렸습니까? 여기 이 터입니까?)

102011 #2 신희살림 츠리지 안 헛저, 신희살림을 저 열여덱에 장가가근에, 열아홉 나난 저 벵정 돌아나 부난에. 시집인 저 식구덜토 으라이고 저 살림 출리지 안 허영 이편더레, 춤 옛날말로 밧거리에. 옛날 새색신 경 헛저게, 요즘은 저.(신희살림 차리지 않았어. 신희살림을 저 열여덱에 장가가서 열아홉 나니까 저 벵정 달아나 버리니까. 시집인 저 식구들도 여럿이고 저 살림 차리지 않고 이편으로, 참 옛날말로 바깥채에. 옛날 새색신 그렇게 했어, 요즘은 저.)

102011 @ 아버지 한 잔 하셨구나.(아버지 한 잔 하셨구나.)

102011 #2 친정에. 친정에 가근에 혼 메틀 살당 또 시집이 오랑 혼 메틀 살곡.(친정에. 친정에 가서 한 며칠 사다가 또 시집에 와서 한 며칠 살고.)

102011 @ 예.(예.)

102011 #2 애기도 안 낳고 현 땡게.(애기도 안 낳고 한 땡.)

102011 @ 예.(예.)

102011 #2 친정에 강 하영 살고픈 사름은 친정에 강 하영 살곡 시집이 하영 살고픈 사름은 시집이 하영 살곡. 경허명 살단 늬의 집도 비는 사름이 싯주만은 쪼끔 무시거 허는 사름은 집을 짓어. 아들네 나시. 집을 짓어근에, 트로 내놓는디 우린 경 안 헨에, 집을 빌언. 빌언에 흐쓸 살고 어떻 어떻 허단에 저 사름 군인 가 분 때 우리 시아버지네가 이거 집을 짓어 줏주게.(친정에 가서 많이 살고 싶은 사름은 친정에 가서 많이 살고 시집에 많이 살고 싶은 사름은 시집에 많이 살고. 그러면서 살다가 남의 집도 빌리는 사름이 있지만 조금 뭐 한 사름은 집을 지어. 아들들 뭇. 집을 지어서, 따로 내놓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집을 빌렸어. 빌려서 조금 살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저 사름이 군인 가 버린 때 우리 시아버지가 이거 집을 지어 줏지.)

102011 @ 으.(으.)

102011 #2 집을 그때, 그때 시절엔이 에이구, 늬 초가집이 살단 누구네 집 폴암젠 영 허민 그 초가집을 사는 거라. 상 그거 나무 쓰젠 그 초가집을 그스쟁가 그 우의 검질 거프레기 다 걷어뵤 그 나무 뜯어당 집을 짓영. 이것도 어디 남원.(집을 그때, 그때 시절에는 에이구, 남의 초가집에 살다가 누구네 집 판다고 이렇게 하면 그 초가집을 사는 거야. 사서 그거 나무 쓰려고 그 초가집을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인가 그 위 짚, 지푸라기 다 걷어두고 그 나무 뜯어다가 집을 지어. 이것도 어디 남원.)

102011 @ 아.(아.)

102011 #2 남원이리 누게네 집 폰텐 허난 우리 시아버지가 산에, 그 나무 뜯어단 이제 짓어는디 살단 그것이 초가집이랴단 이 집이 우리가 멩글양 살암주.(남원2리 누구네 집 판다고 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사서, 그 나무 뜯어다가 이제 지었는데 살다가 그것이 초가집이었다가 이 집은 우리가 만들어서 살고 있지.)

102011 @ 아, 아, 그 초가 뜯영 그 나무를 가져 왕 이 집 짓을 때 쓴 거라?(아, 아, 그 초가를 뜯어서 그 나무를 가져 와서 이 집 지을 때 쓴 거야?)

102011 #2 어. 저 지프레기만 비어당 나무는 으.(어. 저 지푸라기만 베어다가 나무는 으.)

102012 @ 그믐 아이덜이 넷 낳수게예. 그믐 스무 살에 결혼행 땃 설에 낳수과?(그럼 아이들은 넷 낳는데요. 그럼 스무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2012 #2 스물다섯에 난 애기는 일러 불고.(스물다섯에 낳은 아기는 잃어 버리고.)

102012 @ 잃어 불고.(잃어 버리고)

102012 #2 우리 큰아덜이 스물일곱.(우리 큰아들이 스물일곱.)

102012 @ 스물일곱에 큰아덜.(스물일곱에 큰아들.)

102012 #2 큰딸은 스물아홉.(큰딸은 스물아홉.)

102012 @ 스물아홉에.(스물아홉에.)

102012 #2 또 저 작은아덜은 서른둘.(또 저 작은아들은 서른둘.)

102012 @ 으.(으.)

102012 #2 우리 작은딸 서른다섯에 애기도 마감했주.(우리 작은딸 서른다섯에 애기도 마감했지.)

102012 @ 막 늦영 나왔구나예?(아주 늦어서 나왔군요?)

102012 #2 으.(으.)

102013 @ 시집살이 헤난 거 기억나는 거 곶아줍서.(시집살이 했던 거 기억나는 거 말해주세요.)

102013 #2 시집살인 뭐 기억난 거 무시거라. 그땐게 친정에 강 흐쵸 살고 시집 오랑 흐쵸 살앙 그자 시부모네 일허레 가가민 따라가근에게 일 도와 행 오곡. 또 여기서 우리 시어명은 막 물질이 아주 상군⁴⁷⁾이랴어.(시집살인 뭐 기억나는 게 뭐

47) '상군'은 물질을 아주 잘 하는 해녀를 말한다.

야. 그땐 친정에 가서 조금 살고 시집에 와서 조금 살면서 그제 시부모네 일하러 가면 따라가서 일 돕고 해서 오고. 또 여기서 우리 시어머니는 아주 물질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

102013 @ 아.(아.)

102013 #2 겨난 아주 창피할 정도주. 시어명이영 가민 시어명은 멧 짐 허는디 난 혼 짐이나베끼 못 허고. 허허. 경해도 뭐 메역 못 험젠 꾸지렁이나 허진 안 해도.(그러니까 아주 창피할 정도야. 시어머니와 가면 시어머니는 멧 짐 하는데 난 혼 짐이나밖에 못 하고. 허허. 그래도 뭐 미역 못 한다고 꾸지람이나 하진 않아도.)

102013 @ 으.(으.)

102013 #2 원 그 정도로 험 살았주게. 겐 그거 말리어근에 풀 땐 시어머니 풀 땐 시아버지가 잘 ㅁ치 풀아 주곡.(원 그 정도로 해서 살았지. 그래서 그거 말려서 팔 땐 시어머니 팔 때 시아버지가 잘 같이 팔아 주고.)

102013 @ 아, 어머니 것도 ㅁ치 해 가지고.(아, 어머니 것도 같이 해 가지고.)

102013 #2 으, 시아버지가 잘 해주주게.(으, 시아버지가 잘 해주지.)

102013 @ 그럼, 그런 메역 해 온 건 그때는 다 개인으로 험 풀아놨수과?(그럼, 그런 미역 해 온 건 그때는 다 개인으로 해서 팔았었습니까?)

102013 #2 으. 메역만이 딱 부찌근에 육지 메역 거치, 육지 저 다시마 거치 넓게 허영 부찌근에. 또 그 놈을 부찐 것을 저 그대로 혼 낭, 혼 낭 안 해근에 영 조근조근 예쁘게시리 해근에 기력신 이만이 허고 너버긴 이만이 해근에. 혼 단 헤여, 겐 단으로 헤영 무경 놈두민, 저 그 메역 야가지, 저 귀 있는 디는 짝가마니 배로 딱 무경 놈두민 풀 땐 거 짝가마니에 저울도 영 들르는 저울.(으. 미역만 딱 붙여서 육지 미역 같이, 육지 저 다시마 같이 넓게 해서 붙여서. 또 그 놈을 붙인 것을 저 그대로 하나, 하나 안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예쁘게 해서 길이는 이만큼 하고 너빈 이만큼 해서. 한 단 해, 그래서 단으로 해서 묶어서 놈두면, 저 그 미역 목, 저 귀 있는 데는 짝 가마니 바로 딱 묶어서 놈두면 팔 땐 거 짝 가마니에 저울도 이렇게 드는 저울.)

102013 @ 추 험?(추 해서?)

102013 #2 으, 추 저울. 그것 험 기자 그것에 걸렁 카들락 들렁 멧 근, 멧 근 허명. 경허명 풀주. 막 세월이 좋아나서. 나 시집살이 험 때는.(으, 추 저울. 그것 해서 그제 그것에 걸려서 ‘카들락’ 들어서 멧 근, 멧 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팔지. 아주 세월이 좋았었어. 나 시집살이 할 때는.)

102013 @ 그럼 시어머니가 물질 잘 해나니까 막 바닷일도 많이 험구나, 여기 와가지고는 그래도? 어무니 바닷일만 험?(그럼 시어머니가 물질 잘 험었으니까 아주 바닷일도 많이 험군요, 여기 와가지고는 그래도?)

102013 #2 아니, 여기 오란은 그, 우리 친정에 산 때보단은 여기는 우리 시부모 네가 일을 수월하게 허더라고.(아니, 여기 와서는 그, 우리 친정에 살 때보다 여기는 시부모가 일을 수월하게 하더라고.)

102013 @ 아.(아.)

102013 #2 밧디 가도 친정아버지보단 시아버지네가 좀 일찍 오고. 일찍 오라서 저녁도 일찌거니 행 먹어 불고.(밭에 가도 친정아버지보다 시아버지가 좀 일찍 오고. 일찍 와서 저녁도 일찌거니 해서 먹어 버리고.)

102013 @ 으.(으.)

102013 #2 우리 친정아버지는 밤새도록 경. 아버지 읍서. 집이 가게, 집이 가게 허민. 흔저 흔저 허라, 흔저 흔저 허라. 이거 헤베사 갈 거여 허명. 경허민 일을 애 씨우는게, 우리 시아버지네는 이만쯤 돼민 어느 때 집이 오라근에 뭐 물도 길어 오라야 할 거난, 식구는 만허고 물은 저 이디 밀납공장 앞이 바닷가에 강 물때가 맞아야지, 바닷물이난. 물 엇이민 소방소 앞이 연못에. 흔 쪽은 쉼 먹고 흔 쪽은 사름 먹는 물인데 쉼 먹는 통 안에 사름 먹는 통을 요렇게 만드니까.(우리 친정아버지는 밤새도록 그렇게. 아버지 오세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하면. 어서 어서 해라, 어서 어서 해라 이거 해야 갈 거야 하면서. 그러면 일을 애쓰게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이만쯤 되면 어느 때 집에 와서 뭐 물도 길어 와야 할 거니까, 식구는 많고 물은 저 여기 밀납공장 앞에 바닷가에 가서 물때가 맞아야지, 바닷물이니까. 물 없으면 소방서 앞에 연못에. 한 쪽은 소 먹고 한 쪽은 사름 먹는 물인데 소 먹는 통 안에 사름 먹는 통을 이렇게 만드니까.)

102013 @ 아.(아.)

102013 #2 그 밑으로.(그 밑으로.)

102013 @ 들어와.(들어와.)

102013 #2 쉼 먹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막, 한창 오월 장마 때, 번번헌 댜 쉼 안코. 물이 다 브따갈 때는 쉼 오줌내가 나.(소 먹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아주, 한창 오월 장마 때, 번번헌 댜 괜찮고. 물이 다 받아갈 때는 소 오줌내가 나.)

102013 @ 아.(아.)

102013 #2 그렇게도 그 물을 없어 못 질어.(그렇게도 그 물을 없어서 못 길어.)

102013 @ 아.(아.)

102013 #2 그 물을.(그 물을.)

102013 @ 그럼 갯것이나 강 물때 맞을 때.(그럼 바닷가나 가서 물때 맞을 때.)

102013 #2 물때 맞은 댜 밧디나 갯다 오랑 못 맞으면 이 물 질어오고. 경 안 허민 그 물 질고. 경헌, 식구가 막 하 노난에게.(물때 맞은 댜 밧에나 갯다 와서 못 맞으면 이 물 길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물 길고. 그랬어, 식구가 아주 많으니까.)

102013 @ 으.(으.)

102013 #2 감저도이 흔 솟 쳇다근에 뭐 점심에 떡곡 쪼금 낫당 아이덜 먹고.(고구마도 한 솔 쳇다가 뭐 점심에 먹고 조금 두었다가 아이들 먹고.)

102013 @ 게민 하루에 물, 멧 번을 물허벅⁴⁸에 정 와야 돼?(그럼 하루에 물, 멧 번을 물둥이에 지고 와야 돼?)

48) '물허벅'을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말한다.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다.

102013 #2 물허벅에 웬 잇어게? 물허벅에 하루 네 번 짚어 오는 날도 있고.(물
둥이에 한 있니? 물둥이 하루 네 번 짚어 오는 날도 있고.)

102013 @ 으.(으.)

102013 #2 그걸로 그릇 씻고 이제 거트민 모욕, 모욕은.(그걸로 그릇 씻고 이제
같으면 목욕, 목욕은.)

102013 @ 못 허고.(못 하고.)

102013 #2 모욕은, 혼 들에 혼 번인가 헤신가 말아신가. 나도 모욕헤진 기억이
안 나.(목욕은, 한 달에 한 번인가 했는가 말았는가. 나도 목욕했던 기억이 안 나.)

102013 @ 밧디 갔다 와도예?(밭에 갔다 와도요?)

102013 #2 으.(으.)

102013 @ 하하하.(하하하.)

102013 #2 나 오죽 해야 우리 애기 날 때에 젓도 안 좋아도 이디 젓 게우살 잇
는디 떼닥떼닥헌 양 우리 친정에 가시난 우리 올케는 나보단 밀이고.(나 오죽 해야
우리 아기 날 때에 젓도 안 좋아도 여기 젓 게운 거 있는데 다닥다닥한 양 우리 친
정에 갔으니까 우리 올케는 나보다 밀이고.)

102013 @ 으.(으.)

102013 #2 그럭찰허게 살주게. 우리 아버지네 또 그때 나 신 때는 경허단 츠츠
살아가난 좀 부제난에 살기가 경.(괜찮게 살지. 우리 아버지네 또 그때 나 있을 때
는 그렇다가 차차 살아가니까 좀 부자이니까 살기가 그렇게.)

102013 @ 예.(예.)

102013 #2 성님 그 옷 흐찰 빨앙 입읍서게. 그런 정도로 난 살앗주게. 이디가
떼닥떼닥 허난.(형님 그 옷 조금 빨아서 입으세요. 그런 정도로 날 살았어. 여기가
다닥다닥 하니까.)

102013 @ 하하하.(하하하.)

102013 #2 우리 올케넌 경 아니 살고. 아이구.(우리 올케네는 그렇게 안 살고.
아이고.)

102014 @ 자식덜은 넷 나난 츠레츠레 결혼덜은 잘 헤지고마씨?(자식들은 넷 낳
으니까 차례차례 결혼들은 잘 했나요?)

102014 #2 결혼은 마.(결혼은.)

102014 @ 우에가 아들.(위가 아들.)

102014 #2 에이구, 흐나 거꾸로.(에이구, 하나 거꾸로.)

102014 @ 아, 거꾸로.(아, 거꾸로.)

102014 #2 겨난 저 기자 처음부터 늦 바꾸명 딸 나난 아덜 낭곡. 그 다음 딸 나
난 아덜 낭곡. 그자 저 늦 바꾸명 애긴 나신디 우로 큰아덜도 중매헨에 잔칠허고
헤신디, 딸덜이 중매헨 새가 엇이 새서방을 봉가 와라.(그러니까 저 그저 처음부터
늦 바꾸면서 딸 낳고 아들 낳고. 그 다음 딸 낳니까 아들 낳고. 그저 저 늦 바꾸면
서 아기 낳았는데 위로 큰아들도 중매해서 잔치하고 했는데 딸들이 중매할 새가 없

이 새서방을 주워 오더라.)

102014 @ 아, 어렸을 때.(아, 어렸을 때.)

102014 #2 우리 큰딸도 아니 곱텐 허는 사름 엇고, 지레 죽아, 지렌 췌글락헤도 현디.(우리 큰딸도 안 곱다고 하는 사람 없고, 키 작아, 키는 작아도 그런데.)

102014 @ 어무니 닻양 예뻐주.(어머니 닻아서 예뻐지.)

102014 #2 제주시 여상 간 학풀 헤신디, 주인네 딸 두 개도 여상 학생, 우리 딸도 여상 학생 현디, 쉬험 빵 통지표 받아 온 걸 보민 주인네 딸보단 우리 딸이 공부 잘 허여. 아버지 도장을 받아 오렌 허민 멀어 부난 주인네 도장을 써신디, 주인신디 걸 아저가민 촌에서 온 아이만도 못 현텐 막 그딧 아이덜이 욱 들멍 허단.(제주시 여상 가서 학풀 했는데, 주인네 딸 두 개도 여상 학생, 우리 딸도 여상 학생 했는데, 시험 봐서 통지표 받아 온 걸 보면 주인네 딸보다 우리 딸이 공부 잘해. 아버지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면 멀어 버리니까 주인네 도장을 썼는데, 주인에게 그 걸 가져가면 촌에서 온 아이만큼도 못 한다고 마구 거기 아이들이 욱 들으면서 하다가.)

102014 @ 아, 하하.(아, 하하.)

102014 #2 아, 그추룩 헤도 그 저, 사원 덕수 아인디 아이, 덕수 아이 서에서 고등혹풀 허던 아이가 그 아일 알앙 미침 시작허난에 경 잘허던 공부가 웬걸. 남저에 미쳐 노난.(아, 그렇게 헤도 그 저, 사원 덕수 아인데 아이, 덕수 아이 서에서 고등학교를 하던 아이가 그 아일 알고 미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하던 공부가 웬걸. 남자에 미치니까.)

102014 @ 아.(아.)

102014 #2 경허난 예비고살 봐져사 대학에 가느네. 보긴 보는 시늬를 했는디 게난 그 남저에 미천에 그것도 경허고. 원 죽은아덜도 막 연애헨 새각신⁴⁹⁾ 하영 돌아오라도 큰는 말 잘 들언. 아, 우리 죽은딸이 죽은 오라방보다 먼저 가켄 죽저 살저. 어멍 나 인생 살아줄 거과 허여. 난 죽은아덜 못 프난 달랫주. 경허지 말앙 죽은오빠 풀아 낱 사위²라도 느, 딸 다른 데 안 주켜.(그러니까 예비고사를 봐야 대학에 가지. 보긴 보는 시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에 미쳐서 그것도 그렇고. 원 작은아들도 연애해서 새색신 많이 데리고 와도 하는 말 잘 안 들었어. 아, 우리 작은딸이 작은 오라버니보다 먼저 가겠다고 죽기 살기. 어머니가 내 인생 살아줄 겁니까 하면서. 난 작은아들 못 파니까 달랫지. 그러지 말고 작은오빠 팔아 놓고 사위에게도 너, 딸 다른 데 안 주겠어.)

102014 @ 으.(으.)

102014 #2 쪼금 서로 연락이나 허멍 살암시민. 나 죽은아덜 풀아 낱.(조금 서로 연락이나 하면서 살고 있으면. 나 작은아들 팔아 놓고.)

102014 @ 으.(으.)

102014 #2 느신디 딸 주마. 헤 봐도 말 아니 들언. 게난 죽은아덜 내베던 가이

49) '새각시'는 '새색시'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여자친구'를 가리킨다.

풀아신디 그 다음 작은아덜 풀아도, 작은아덜네 아 지금 막 사이 좋게 애기도 아덜
흐나 딸 두 개 낳고, 제주시서 집을 먼저 사 부난 좋지 안 허다게. 요즘 아파트 아
니난.(너에게 딸 주마. 해 보도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작은아들 내버려 두고 그
아이 팔았는데 그 다음 작은아들 팔아도, 작은아들네 아 지금 아주 사이 좋게 아
기도 아들 하나 딸 두 개 낳고, 제주시서 집을 먼저 사 버리니까 좋지 않아. 요즘 아
파트 아니니까.)

102014 @ 아, 옛날 집.(아, 옛날 집.)

102014 #2 옛날 아파트라도. 아이고, 요새 비싼 집이 기자 이녁 집이엔 헨 살고,
사는데 그 늬 가젠 허는 디 빼영간 년이 잘 못 살았어.(옛날 아파트라도. 아이고,
요새 비싼 집에 그저 자기 집이라고 해서 살고, 사는데 그 남 가려고 하는 데 도망
간 년이 잘 못 살고 있어.)

102014 @ 누가?(누가?)

102014 #2 작은딸.(작은딸.)

102014 @ 작은딸, 음.(작은딸, 음.)

102014 #2 아이구, 말 아니 들었.(아이고, 말 안 들어서.)

102014 @ 아까 마흔아홉 뻘뎨 헨 작은딸예?(아까 마흔아홉 뻘다고 한 작은딸
요?)

102014 #2 으.(으.)

102015 @ 계난 메뉴리는 위미리 메뉴리였고예?(그러니까 며느리는 위미리 며느
리였고요?)

102015 #2 큰 메뉴린 위미리.(큰 며느린 위미리.)

102015 @ 작은 메뉴리는?(작은 며느리는?)

102015 #2 모실포.(모슬포.)

102015 @ 모실포.(모슬포.)

102015 #2 보성, 보성.(보성, 보성.)

102015 @ 보성. 메뉴린 어떻게, 좋아마씨?(보성. 며느리 어때요, 좋아요?)

102015 #2 막 착하고 좋아.(아주 착하고 좋아.)

102015 @ 착하고 좋아.(착하고 좋아.)

102015 #2 우리 메뉴린 가이드디 계난 우리 작은아덜도 암만 달래여 봐도 나가
긋게 안 곱아도 나가 긋게 곱민 반발적으로 나올 건디 하도 달래난 어무니 날ㄱ라
공부허렌 허지 맙서. 난 성만이 아이큐가 엇이난 나 공부 못 험니다. 아, 경허난 내
부난 공부, 대학 못 헤 부난, 경해도 그나마 암만 관광대주만은 대학 헨 메뉴리가
오라쥬. 메뉴리가 가이드라이. 가이드라도 막 서트랑허게 안 헤영 막 잘 허여. 막
고참이고 막 잘허고. 아덜도 웬 연애헨 때 시켜사신디 그 사진 기사 허단에 사진
기사 치와 텡 관광찰 험주게. 겐 두 가시가 가이드 허고 관광차 허고.(우리 며느린
가이드인데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들도 아무리 달래어 봐도 내가 긋게 안 말해도 내
가 긋게 말하면 반발적으로 나올 건디 너무 달래니까 어머니 나에게 공부하라고 하

지 마세요. 난 형만큼 아이큐가 없으니까 나 공부 못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 버리니까 공부, 대학 못 해 버리니까, 그래도 그나마 아무리 관광대지만 대학 한 며느리가 와줬어. 며느리가 가이드야. 가이드라도 아주 서툴게 안 하고 아주 잘 해. 아주 고참이고 아주 잘하고. 아들도 원 연애할 때 시켰는지 그 사진 기사 하다가 사진 기사 치워 두고 관광차를 하고 있어. 그렇게 두 부부가 가이드 하고 관광차 하고.)

102015 @ 걱정 엇인게. 경헨 둘이 ㄴ치 벌민.(걱정 없네요. 그렇게 둘이 같이 벌면.)

102015 #2 겨난 아덜은 큰큰헌 차 행 가도 돈 혼엇이 못 벌어도 메누리가 돈을 잘 벌언 살암서. 메누리가 착헌다.(그러니까 아들은 크디큰 차 해서 가도 돈 한없이 못 벌어도 며느리가 돈을 잘 벌고 살고 있어. 며느리가 착해.)

102015 @ 음.(음.)

102015 #2 계난 메누리 빵 나 시에 가살건디, 하도 막 나뎡겨 부난 아이덜 밥 줄바로 못 먹엄젠 스못 그냥. 쉬는 새 엇이 두 가시가 막.(그러니까 며느리 봐서 내가 제주시에 가야할 건데, 너무 아주 나다녀 버리니까 아이들 밥 제대로 못 먹는다 고 사못 그냥. 쉬는 새 없이 두 부부가 아주.)

102015 @ 지금 바쁠 때라 부난예?(지금 바쁠 때여 버리니까요?)

102015 #2 으.(으.)

102015 @ 계난 손지들, 손지들 밥 츠려 주레.(그러니까 손자들, 손자들 밥 차려 주러.)

102015 #2 으, 계난 고등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중학교 2학년이주게. (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중학교 2학년이지.)

102015 @ 으 으. 사위는?(으 으. 사위는?)

102015 #2 으?(으?)

102015 @ 사위는 어떻게마씨?(사위는 어떻습니까?)

102015 #2 사위는. 경 연애, 계난 나 말을 안 들엉, 연애행 간 큰사위도 죽어 불 엇어이. 작년에 이제 쉼들에 암 걸련에 죽어베신디. 저 아덜을 두 개⁵⁰⁾ 나신디 그 아덜덜이 원 어떻허난산디 그 집이 식구덜도 머리는 넉넉지 않은 거 닳은디 머리가 막 좋안에 큰아덜이 저 서울대 해서이. 서울대 해도.(사위는. 경 연애, 그러니까 나 말을 안 듣고, 연애해서 간 큰사위도 죽어 버렸어. 작년에 이제 쉼들에 암 걸려서 죽었는데. 저 아덜을 두 개 낳았는데 그 아덜들이 원 어떠해서인지 그 집이 식구들도 머리는 넉넉지 않은 거 닳은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큰아들이 저 서울대 했어. 서울대 해도.)

102015 @ 완전 똑똑했구나.(완전 똑똑했구나.)

102015 #2 아주 장학생으로만 했는데, 또 그것만도 아니고 이젠 의학원을 해서 의사 허젠이.(아주 장학생으로만 했는데, 또 그것만도 아니고 이젠 의학원을 해서 의사 하려고.)

50) 여기서 ‘개’는 사람을 세는 단위명사로 쓰였다.

102015 @ 예.(예.)

102015 #2 의학원을 해도 그것도 일, 이 등에 들었어. 일, 이 등에 드니까.(의학원을 해도 그것도 1, 2등에 들었어. 1, 2등에 드니까.)

102015 @ 아이구, 완전 똑똑했구나.(아이고, 완전 똑똑했구나.)

102015 #2 계난 이젠 학원 이 년 해시냐, 헨에 학원은 졸업 안 헌디 학원에서가 지금 병원에 보냈젠 해라.(그러니까 이젠 학원 이 년 했는가, 해서 학원은 졸업 안 했는데 학원에서가 지금 병원에 보냈다고 하더라.)

102015 @ 어, 실습허고.(어, 실습하고.)

102015 #2 어, 병원에 보냈젠 해라, 허고 죽은아덜도 지금 대학 허단에 군인 가 신디 여자도 있고, 큰아덜도 여자도 딱 잇고 아이덜이 얌전허고 헌디.(어, 병원에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작은아들도 지금 대학 하다가 군인 갔는데 여자도 있고 큰아들도 여자도 딱 잇고 아이들이 얌전하고 한대.)

102015 @ 걱정 옛인게, 사위 죽곡 딸 혼자 잇어도 완전 잘 키워신게.(걱정 없네요, 사위 죽고 딸 혼자 잇어도 완전 잘 키워냈네요.)

102015 #2 으, 그렇게 뭐 헌디, 저 죽은 사원 아이고, 그걸 경 좋아할 건 무시거 니. 날ㄴ라 오란 추구리건데 무시거 허는 사람이넌 허난 포크레인 허는 사름이 돈 담넌.(으, 그렇게 뭐 했는데, 저 작은 사원 아이고, 그걸 그렇게 좋아할 건 뭐니. 나에게 와서 추기던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니까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돈을 담는다고.)

102015 @ 으.(으.)

102015 #2 계난 돈 담으카부덴 헛주게. 너 오누이 중에 돈 담으카부덴 허단 보 난, 너 오누이 중에 밥을 굶엄서.(그러니까 돈 담겠지 했지. 네 오누이 중에 돈 담 을까 했는데 네 오누이 중에 밥을 굶고 있어.)

102015 @ 잘 안 됐구나.(잘 안 됐구나.)

102015 #2 계난 그 포크레인이 사름할 거 아니라라. 이 적산이 안 뉘젠 허민이. 허단 보민 그 회사가 부도난 돈 못 받고 빼떡허민 그 차가 고장나민, 쥬 그 차 안에서 혈헨 부속이 삼십만 원이라이.(그러니까 그 포크레인이 사름할 거 아니야. 이 적산이 안 되려고 하면. 하다가 보면 그 회사가 부도나서 돈 못 받고 빼떡하면 그 차가 고장나면. 쥬 그 차 안에서 썬 부속이 삼십만 원이야.)

102015 @ 으.(으.)

102015 #2 혈헨 부속이 삼십만 원. 고장 잘 나고 경허명, 경헤가난 므음대로 안 뉘가난 신경질 나고 사름이 병나다시피 허고 경허명. 아이덜도 큰딸네 아이만이 머 리도 안 좋고. 군인 갖저만은.(썬 부속이 삼십만 원. 고장 잘 나고 그러면서, 그래 가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사름이 병나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도 큰딸네 아이만큼 머리로 안 좋고. 군인 갖지만.)

102015 @ 음.(음.)

102015 #2 원 그거주게 아이덜은.(원 그거지 아이들은.)

102015 @ 공부 잘하는 손지덜도 있고.(공부 잘하는 손자들도 있고.)

102016 @그 아까 사삼 때에 창 맞양 죽을 뻔한 일 말고 그 밖에 뭐 죽을 뻔한 일도 있어났수과, 살명? 사삼 때 말고?(그 아까 사삼 때에 창 맞고 죽을 뻔한 일 말고 그 밖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까, 살면서? 사삼 때 말고?)

102016 #2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2016 @ 도깨비, 영 어렸을 때라도 지나가당 도깨비 만나졌다?(도깨비, 이렇게 어렸을 때여도 지나가다가 도깨비 만났다?)

102016 #2 그런 건 엇어.(그런 건 없어.)

102016 @ 영 일허당 늬의 밧디 강 뿔 친구들이랑 꺾기 감저 파먹어 불고 헌 재미난 얘기덜은 엇수과?(이렇게 일하다가 남의 밧에 가서 뿔 친구들과 같이 고구마 파먹어 버리고 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102016 #2 감저, 나 경헌 것도 안 해 보고 그.(고구마, 나 그런 것도 안 해 보고 그.)

102016 @ 옥수수 따 먹어 불고?(옥수수 따 먹어 버리고?)

102016 #2 그런 건 안헌디 그, 나가 지금이라도 경 약허질 안 허영 헌귀라. 늬은 이제라도 어린 때 말아도 무신 허뿔 봐져라 무시거 봐져라 해도 난 그런 거 못 봐.(그런 것은 안 했는데 그, 내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약하지 안 해. 남은 이제라도 어린 때 말아도 무슨 도깨비불 봤어 해도 난 그런 거 못 봐.)

102016 @ 아, 기 약헌 사름덜이 그런 거예?(아, 기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요?)

102016 #2 으, 그런 건 못 봐. 꿈자리도 무신 언치낙 꿈이 어떻 허난 오늘 어떻 헤라 해도, 꿈도 기자 헛꿈 보민 아무것도 아니.(으, 그런 건 못 봐. 꿈자리도 무슨 어제 저녁 꿈이 어떠하니까 오늘 어떻게 헤라 해도 꿈도 그저 헛꿈 보민 아무것도 아니.)

102016 @ 뭐 들어난 재미난 얘긴 엇고, 어렸을 때 들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고, 어렸을 때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102016 #2 무시거 그런 거 재미있는 것도 엇고 무시거 그거 튼내지크냐 그거.(뭐 그런 거 재미있는 것도 없고 뭐 그거 기억하겠어, 그거.)

102016 @ 여기 남원리가 어떤 행 생겨난 마을인지 얘기 들어난 거 잇수과? 어떻헨 남원리가 생겨나고 그런 거?(여기 남원리가 어떻게 생겨난 마을인지 이야기 들었던 거 있습니까? 어떻게 생겨나고 그런 거?)

102016 #2 뭐 옛날에 이디 뭐 멧 호 안 살아나신디 뭐, 어떻 어떻헨 이거 마을이 뿔신디.(뭐 옛날에 이디 뭐 멧 호 안 살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거 마을이 뿔신디.)

102016 @ 멧 호 안 살당 사삼사건 나명 많이 옮겨온 거?(멧 호 안 살다가 사삼 사건 나면서 많이 옮겨온 거?)

102016 #2 아니, 그 스삼사건 막 전이가 멧 호 안 살았주.(아니, 그 사삼사건 아주 전에 멧 호 안 살았지.)

102016 @ 그니까, 그니까 그때 몇 호 안 살당 언제서부터 많이 살게 됐어, 여기 에?(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몇 호 안 살다가 언제서부터 많이 살게 됐어요, 여기 에?)

102016 #2 우리 하르방이 알주. 양, 하르방.(우리 할아버지가 알지, 예, 할아버 지.)

102016 @ 거 들어놔수다. 하르부지안테. 그민예.(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럼요.)

3. 밭일

103001 @ 어떤 농사지어놔수과, 이 동네에서는?(어떤 농사지었습니까, 이 동네 에서는?)

103001 #1 옛날사 조 불리고.(옛날에야 조 밟고.)

103001 @ 조 불리고?(조 밟고?)

103001 #1 감저 놓고.(고구마 놓고.)

103001 @ 으.(으)

103001 #1 보리 갈고.(보리 갈고.)

103001 @ 보리 갈고예. 이 동네 거의 조, 감저?(보리 갈고요. 이 동네 거의 조, 고구마?)

103001 #1 아이, 주, 주로가.(아니 주, 주로가.)

103001 @ 주로가 그럼?(주로가 그럼?)

103001 #1 거. 간혹 산디도 불리고⁵¹⁾.(거. 간혹 밟벼도 밟고.)

보리 농사

103002 @ 보리농사 지은 거부터 먼저 물어보쿠다. 보리농사 지으려면 무슨 준 비를 해 뒤야 됩니까? 농사짓기 전에?(보리농사 짓는 거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보리농사 지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 뒤야 됩니까? 농사짓기 전에?)

103002 #1 보리씨.(보리씨)

103002 @ 으, 씨 준비허고.(으, 씨 준비하고.)

103002 #1 그 다음에 돛걸름.(그 다음에 돼지거름.)

103002 @ 돛걸름 음.(돼지거름 음.)

103002 #1 그 근래 와선 비료주만은 옛날에 비료가 없으면 돛걸름.(그 근래 와 선 비료지만 옛날에 비료가 없으면 돼지거름.)

103002 @ 돛걸름예.(돼지거름요.)

103002 #1 겐 그러면은 돛통에서 걸름을 내어, 내쳐. 소 가지고는 씨 뿌리면서

51) '불리다'는 '조 등을 파종한 밭을 밟다'의 의미다. 여기서는 '갈다'의 의미로 쓰였다.

밧아.(그래서 그러면 돼지우리에서 거름을 내어, 내쳐. 소 가지고 씨 뿌리면서 밧아.)

103002 #2 게, 그 씨에 걸름에.(그래, 그 씨에 거름에.)

103002 #1 거 서터지게끔.(거 섞이게끔.)

103002 @ 순서대로 할게예.(순서대로 할게요.)

103002 #1 으.(으.)

103003 @ 돛걸름을 할려면, 보리 걸름을 할려면 돛걸름을 미리?(돼지거름을 할려면, 보리 거름을 할려면 돼지거름을 미리?)

103003 #1 돛통에 검질 집어넣고 게민 돼야지 똥도 싸꼭 허민 그게 걸름이 웬다고.(돼지우리에 검불 집어넣고 그럼 돼지 똥도 싸고 하면 그게 거름이 된다고.)

103003 @ 으음.(으음.)

103003 #1 그러면 소 걸름.(그러면 소 거름.)

103003 @ 으.(으.)

103003 #1 소 걸름도 봄 나 가민 돛통에 퍼 놔.(소 거름도 봄 돼 가면 돼지우리 에 퍼 놔.)

103003 @ 음. 아, 기마씨.(음. 아, 그렇습니까.)

103003 #2 도야지가 매날 다녀노난에 그게 걸름이 돼주게.(돼지가 만날 다니니까 그게 거름이 되지.)

103003 #1 그러면은 돛걸름이 돼여.(그러면 돼지거름이 돼.)

103003 @ 음.(음.)

103003 #1 쉼걸름은 보리씨를 서트질 못 허니까.(쇠두엄은 보리씨를 섞질 못 하니까.)

103003 #2 으음. 그러면 돛걸름은 거의 흙이나 다름없이 돼 불주게. 그러면은 그걸 꺼내 가지고는 소로 밧아. 씨를 뿌리면서.(으음. 그러면 돼지거름은 거의 흙이나 다름없이 돼 버리지. 그러면 그걸 꺼내 가지고는 소로 밧아. 씨를 뿌리면서.)

103003 @ 아니, 그냥 그럼 그, 거름을 냅수다예.? (아니, 그냥 그럼 그, 거름을 냅어요?)

103003 #1 거름을 퍼낸다 말이야.(거름을 퍼낸다 말이야.)

103003 @ 퍼낸 다음에.(퍼낸 다음에.)

103003 #1 마당에.(마당에.)

103003 @ 마당에예. 그럼 퍼낸 거름을 밧아 소가?(마당에요. 그럼 퍼낸 거름을 밧아 소가?)

103003 #1 어, 소가.(어, 소가.)

103003 @ 아.(아.)

103005 #1 사람이 이제 끓어 텅기명 소 두 마리 세 마리나 한 마리나 헤 가지고는 밧으면서 씨를 보리씨를 자꾸 뿌려.(사람이 이제 끓어 다니면서 소 두 마리 세 마리나 한 마리나 헤 가지고는 밧으면서 씨를 보리씨를 자꾸 뿌려.)

103005 @ 그 걸름에 보리씨?(그 거름에 보리씨?)

103005 #1 어. 걸름 우에다. 그리고 또시 걸름을 뒤집어.(어. 거름 위에다. 그리고 또 거름을 뒤집어.)

103005 @ 음.(음.)

103005 #1 또 그렇게 해여.(또 그렇게 해.)

103005 @ 또 보리씨 뿌리멍 거기에.(또 보리씨 뿌리면서 거기에)

103005 #1 어. 그러면 완전히 서터진다고.(어. 그러면 완전히 섞인다고.)

103005 @ 으.(으.)

103005 #1 그러면 밧디 실러다가.(그러면 밧에 실어다가.)

103005 @ 예.(예.)

103005 #1 퍼 놔.(퍼 놔.)

103005 @ 예.(예.)

103005 #1 그래서 여저덜이 수제비만씩 쪼개면서 걸름을 놓는 거라.(그래서 여자들이 수제비만씩 쪼개면서 거름을 놓는 거야.)

103005 @ 밧 갈기 전이.(밭 갈기 전에.)

103005 #1 어, 갈기 전에.(어, 갈기 전에.)

103005 @ 아, 예 예.(아, 예 예.)

103005 #1 그러면 밧 전체 뿌려질 거 아니?(그러면 밧 전체 뿌려질 거 아니?)

103005 @ 예, 예.(예, 예.)

103005 #1 그러면 밧을 갈아 불민 곳이라.(그러면 밧을 갈아 버리면 끝이야.)

103007 @ 아. 그민 그거는 꼬슬퀴 같은 거 안 하고?(아, 그럼 그거는 콩계 같은 거는 안 하고?)

103007 #1 어?(어?)

103007 @ 꼬슬퀴 같은 건 안 하고?(콩계 같은 건 안 하고?)

103007 #1 안 허여. 꼬슬퀴 안 허여.(안 해. 콩계 안 해.)

103007 @ 자.(자.)

103007 #1 단지 허게 뒤면은 봄 나서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아가면은 보리 뿌리가 약해지거든.(단지 하게 되면 봄 돼서 이제 땅이 얼었다가 녹아가면 보리 뿌리가 약해지거든.)

103007 @ 음.(음.)

103007 #1 경 험 밟으는 거라.(그렇게 해서 밟는 거야.)

103007 @ 음.(음.)

103007 #1 뿌리는 단단허게 허기 위해서.(뿌리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103007 @ 보리 낭?(보리가 나서?)

103007 #1 여기는 화산토기 따시.(여기는 화산토이기 때문에.)

103007 @ 예.(예.)

103007 #1 흙이 약허거든.(흙이 약하거든.)

103007 @ 계민 보리 볏기를 허는 건?(그럼 보리 밍기를 하는 건?)
103007 #1 어.(어.)
103007 @ 보리 난 후제사예?(보리 난 후에야?)
103007 #1 어. 나서 막 좀 자란 후제.(어. 나서 아주 좀 자란 후에.)
103004 @ 자란 후제. 그럼 보리는 언제 가는 거과?(자란 후에. 그럼 보리는 언제 가는 겁니까?)
103004 #1 동지 전에.(동지 전에.)
103003 @ 동지 전에. 그민 동지 전에 거름덜을 다 내뒀야겠다?(동지 전에. 그럼 동지 전에 거름들은 다 내뒀야겠다?)
103003 #1 아니, 오늘 내민 오늘 볏아야 돼.(아니, 오늘 내면 오늘 밍아야 돼.)
103003 @ 아, 오늘 내민 오늘 볏아야 돼.(아, 오늘 내면 오늘 밍아야 돼.)
103003 #1 흔 이삼일 돼민 달라서 안 돼여.(한 이삼일 되면 달라서 안 돼.)
103003 @ 음. 그민 거 볏양 바로 밍디 시켜 가?(음. 그럼 거 밍아서 바로 밍에 싣고 가?)
103003 #1 어.(어.)
103003 @ 예.(예.)
103003 #1 겐디 그 후에는 구루마가 나오니까. 날라 가기가 쉬웠고 또 그 후에는 경운기가 나오니까 더 쉬웠지.(그런데 그 후에는 수레가 나오니까. 날라 가기가 쉬웠고 또 그 후에는 경운기가 나오니까 더 쉬웠지.)
103003 @ 으.(으.)
103003 #1 그 전에는 멩텅이에 거름을 담야.(그 전에는 망태기에 거름을 담야.)
103003 @ 멩텅이.(망태기.)
103003 #1 어.(어.)
103003 @ 으으. 거름 담양?(으으. 거름 담아서?)
103003 #1 계민 걸 보고 걸름착이라고 헤여, 걸름착. 멩텅이도 좀 작게 만들주게.(그럼 걸 보고 거름착이라고 해. 거름착. 망태기도 좀 작게 만들지.)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1 무거우니까.(무거우니까.)
103003 @ 으.(으.)
103003 #1 겐 그것에 저 거름을 담야 가지고 밍디 다 퍼 놓는 거라. 그래서 수제비만씩 접아 놔 가지고는.(그래서 그것에 저 거름을 담야 가지고 밍에 다 퍼 놓는 거야. 그래서 수제비만큼씩 접어 놓아 가지고는.)
103003 @ 으.(으.)
103003 #1 그래서 밍을 갈아 불면은. 이제 저 밍 밍을 수 이신 사름은 밍고 그렇지 않은 사름은 밍지 않고.(그래서 밍을 갈면. 이제 저 밍 밍을 수 있는 사름은 밍고 그렇지 않은 사름은 밍지 않고.)
103005 @ 계민 보리씨 뿌리는 거는 영 뿌리는 게 아니고 영 줍아 놓는 거?(그

럼 보리씨 뿌리는 거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어 놓는 거?)

103005 #1 어, 아니. 불릴 적에, 걸름에 불릴 적에는 뿌리고.(어, 아니. 밭을 적에, 거름에 밭을 적에는 뿌리고.)

103005 @ 아, 걸름에 불릴 적에는 뿌리고?(아, 거름에 밭을 적에는 뿌리고?)

103005 #1 으.(으.)

103005 @ 밭디 강?(밭에 가서?)

103005 #1 밭디 강 허는 건 집아 논다.(밭에 가서 하는 건 집어 놓는다.)

103005 @ 아, 집아 논다 해. 어느 정도?(아, 집어 놓는다고 해. 어느 정도?)

103005 #1 또 걸름 논덴도 허고.(또 거름 놓는다고도 하고.)

103005 @ 아, 보리씨 논덴 안 허고 걸름 논덴.(아, 보리씨 놓는다고 안 하고 거름 놓는다고.)

103005 #1 으, 걸름 논다.(으, 거름 놓는다.)

103005 @ 그럼 어느 정도 간격씩 영?(그럼 어느 정도 간격씩 이렇게?)

103005 #1 흔히 엇어 그건.(한이 없어 그건.)

103005 @ 흔히 엇어예. 저베기처럼.(한이 없어요. 수제비처럼.)

103005 #1 왜냐면 또 코짱허질 안허니까.(왜냐하면 또 가지런하질 않으니까.)

103005 @ 으음.(으음.)

103005 #1 그래서 어 오일육이 나서 골 파라 하라고 그랬거든.(그래서 어 오일육이 나서 골을 파라 하라고 그랬거든.)

103005 @ 음.(음.)

103005 #1 그래야 수확이 많고, 잘된다.(그래야 수확이 많고 잘된다.)

103005 @ 음.(음.)

103005 #1 그때는 흙을 친 거라. 그래서 걸음을 거기다만 놓거든. 거름을 놔 놓고 거기에 보리씨를 뿌려.(그때는 흙을 친 거야. 그래서 거름을 거기다만 놓거든. 거름을 놔 놓고 거기에 보리씨를 뿌려.)

103005 @ 음.(음.)

103005 #1 게서 흙을 더퍼놔주. 그거는 여기도 허는 사람 별로 없었어.(그래서 흙을 덮었었지. 그거는 여기도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

103005 @ 아.(아.)

103005 #1 나도 그거.(나도 그거.)

103005 @ 그 후제사.(그 후에야.)

103005 #1 나도 그거 지도자 헨 탕기니까 모범적으로 허런 헨 해 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여기는 안 되는. 왜냐하면 화산토이기 맘시 보리가 씨러져서 안 돼여.(나도 그거 지도자 해서 다니니까 모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해 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고 여기는 안 되는. 왜냐하면 화산토이기 때문에 보리가 쓰러져서 안 돼.)

103006 @ 음. 저기 그럼 보리 종류에는 뭐, 뭐가 잇수과? 보리 종류?(음. 저기 그럼 보리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보리 종류?)

103006 #1 두줄보리허고 쌀보리.(두줄보리하고 쌀보리.)

103006 @ 두줄보리허고 쌀보리? 두줄보리 쌀보리.(두줄보리하고 쌀보리? 두줄보리 쌀보리.)

103006 #1 두줄보리는 맥주맥.(두줄보리는 ‘맥주맥’.)

103008 @ 아, 맥주맥. 보리밭디 검질은 몇 번 메낫수과?(아, 맥주맥. 보리밭에 검은 몇 번 땀습니까?)

103008 #1 검질도 비료 나기 전인 안 멧어.(검도 비료가 나오기 전엔 안 땀어.)

103008 @ 아, 기짜?(아, 그렇습니까?)

103008 #1 검질이 안 나니까. 땅이.(검이 안 나니까.)

103008 @ 으.(으.)

103008 #1 약허니까 안 난다고. 게 비료 나오기 시작해서 검질을 멧주.(약하니까 안 난다고. 그래서 비료 나오기 시작해서 검을 땀지.)

103008 @ 그럼 보리, 비료 하기 시작행 검질 메난 검질은 몇 번이나 땀니까?(그럼 보리, 비료 하기 시작해서 검을 땀던, 검은 몇 번이나 땀니까?)

103008 #1 흔 번, 흔 번.(한 번, 한 번.)

103009 @ 흔 번. 게민 보리밭디 나는 검질들은 어떤 검질들이과?(한 번. 그럼 보리밭에 나는 검들은 어떤 검들입니까?)

103009 #1 여끼. 주로 여끼.(여뀌. 주로 여뀌.)

103009 @ 여끼? 검질 이름이 여끼.(여뀌? 검 이름이 여뀌.)

103009 #1 어.(어.)

103009 @ 여끼.(여뀌.)

103009 #1 겨고 주로 잡풀덜 나도 그리 많이 나진 안 헛어.(그리고 주로 잡풀들 나도 그리 많이 나진 안 헛어.)

103009 @ 어무니 보리밭디 무신 검질 납니까? 안 들렘서.(어머니 보리밭에 무슨 검 납니까? 안 들려.)

103009 #1 보리밭디 검질?(보리밭에 검?)

103009 @ 보리밭디 무슨 검질 납니까?(보리밭에 무슨 검 납니까?)

103009 #1 여끼허고 또.(여뀌하고 또.)

103009 #2 여끼.(여뀌.)

103009 @ 예. 여끼허고.(예. 여뀌하고.)

103009 #2 원 주로 여끼주. 주로 여끼디게 물룻, 물룻도 나고.(원 주로 여끼지. 주로 여뀌인데 물룻, 물룻도 나고.)

103009 @ 물룻.(물룻.)

103009 #2 음.(음.)

103009 #1 벨로 보리밭디 검질이 그땐 많이 나지 안 허여.(벨로 보리밭엔 검이 그땐 많이 나지 안 해.)

103009 #2 물룻. 대우리.(물룻. 귀리.)

103009 @ 대우리, 으.(귀리, 으.)
 103009 #2 대우리, 대우리.(귀리, 귀리.)
 103009 @ 대우리.(귀리.)
 103009 #2 대우리, 여끼, 무신, 무시겨 곱아지크라. 시에메압퀘⁵²⁾엔 현 거 시에미압퀘.(귀리, 여끼, 무슨, 무엇 말할 수 있겠어. ‘시에메압퀘’라고 한 거 ‘시에메압퀘’.)
 103009 @ 시에미압퀘.(‘시에미압퀘’.)
 103009 #2 으, 그거라. 여름 검질은 제완지 나주만은 그건.(으, 그거야. 여름 김은 바랭이 나지만 그건.)
 103009 #1 건 보리밭던 안 나.(건 보리밭에 안 나)
 103009 @ 콩밭디 나는 거잖아예?(콩밭에 나는 거잖아요?)
 103009 #2 으.(으.)
 103009 #1 조밭디.(조밭에.)
 103009 @ 조밭디. 저기 나, 나 오늘은 아니여도 다음날 오면은 요 밭디 강 검질 이름덜 곱아 주면 거 나 사진 찍영 갈 거마써. 낭 이름, 검질 이름.(조밭에. 저기 나, 나 오늘은 아니여도 다음날 오면 요 밭에 가서 김 이름들 말해 주면 그거 내가 사진 찍어서 갈 것입니다. 나무 이름, 김 이름.)
 103009 #1 그걸랑 이 동네서 잇건 해불어.(그것은 이 동네에서 있거든 해버려.)
 103009 #2 이 동네 어디 잇어?(이 동네 어디 있어?)
 103009 #1 과수원이라 부난 검질 엇어.(과수원이여 버리니까 김 없어.)
 103009 @ 아, 검질 엇어. 하하하.(아, 김 없어. 하하하.)
 103009 #2 검질 잇나?(김 있을까?)
 103009 @ 게도 뭐 저 물룻도 있을 거고.(그래도 뭐 저 무룻도 있을 거고.)
 103009 #1 실지 물룻 보기는.(실지 무룻 보기는.)
 103009 @ 으.(으.)
 103009 #1 이제 힘들어 불엇어. 그렇게 많았던 거.(이제 힘들어 버렸어. 그렇게 많았던 거.)
 103009 #2 물룻?(무룻?)
 103009 @ 으.(으.)
 103009 #2 물룻.(무룻.)
 103009 #1 아, 이 알녁 밭디 멧 개 봐레져라.(아, 이 아랫녁 밭에 멧 개 보여라.)
 103009 #2 이제 제초제 해 부난.(이제 제초제 해 버리니까.)
 103009 @ 어무니 언제 념의 밭디 검질메레 갈 것과?(어머니 언제 다른 사람 밭에 김매러 갈 겁니까?)
 103009 #2 널?(널?)

52) ‘시에메압퀘’는 김 이름의 하나다.

103009 @ 아니, 아무 때나?(아니, 아무 때나?)

103009 #2 무사?(왜?)

103009 @ 검질메레 갈 때 나 같이 가젠마씨.(김매러 갈 때 나 같이 가려고요.)

103009 #2 에이구.(어이구.)

103009 @ 하하하.(하하하.)

103009 #1 이 근처엔 검질멜 디가 없어.(이 근처엔 김멜 데가 없어.)

103009 @ 아, 검질멜 데 엇어마씨? 그럼 밧데 무슨 일 허레 다닙니까?(아, 김멜 데가 없습니까? 그럼 밧에 무슨 일 하러 다닙니까?)

103009 #1 요샌 무수 밧디.(요샌 무 밧에.)

103009 @ 아, 무수 메레. 무수 메레 다념구나.(아, 무 매러. 무 매러 다니고 있구나.)

103009 #1 여기는 과수원이 돼 버리니까 풀이 우리도 몰라, 수입.(여기는 과수원이 돼 버리니까 풀이 우리도 몰라, 수입.)

103009 @ 하하, 수입, 예.(하하, 수입, 예.)

103009 #1 아니 왜냐허면 거 사료허고 비료 원료 같이 온 거.(아니, 왜냐하면 거 사료하고 비료 원료 같이 온 거.)

103009 @ 예, 예.(예, 예.)

103009 #1 제초제 해도 잘 안 죽어. 세상 우리 얼굴 안 봤던 거.(제초제 해도 잘 안 죽어. 세상 우리 얼굴 안 봤던 거.)

103010 @ 보리는, 보리는 아까 동지 전이 보리 간덴 헛잖아예. 수확하는 건 언제제과?(보리, 보리는 아까 동지 전에 보리 간다고 했잖아요. 수확하는 건 언제입니까?)

103010 #1 봄에.(봄에.)

103010 @ 봄에.(봄에.)

103010 #1 지금, 지금. 지금 일렛주게.(지금, 지금. 지금 이르지.)

103010 @ 보리 베는, 수확하는 거 얘기해 줘서.(보리 베는, 수확하는 거 얘기해주세요.)

103010 #1 하지 전에.(하지 전에.)

103010 @ 하지 전에예?(하지 전에요?)

103010 #1 늦으면 하지에도 헤여.(늦으면 하지에도 해.)

103010 @ 보리 베는 거부터 묶는 거, 단장하는 거?(보리 베는 거부터 묶는 거, 단장하는 거?)

103010 #1 저 보리 익으면.(저 보리 익으면.)

103010 @ 익으면.(익으면.)

103010 #1 비여.(베어.)

103010 @ 비여.(베어.)

103010 #1 널영 들류왕.(널어서 말려.)

103010 @ 그냥 그 자리에서 몰려?(그냥 그 자리에서 말려?)

103011 #1 어. 그 자리에서. 비여만 놓민 뒤난에. 겐 무꺼 가지고 집이 실거당
홀타.(어 그 자리에서. 베어만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묶어 가지고 집에 실어다가
훑아.)

103011 @ 으.(으.)

103011 #1 그 보리클, 보리클 허주게. 그거 이걸 홀튼덴 헤여. 홀타 가지고 마당
질헤여. 도리깨질.(그 보리그네, 보리그네 하지. 그거 이걸 훑은다고 해. 훑아 가지
고 마당질해. 도리깨질.)

103011 @ 음.(음.)

103011 #1 여긴 도리깨마라 도께, 도께.(여기 도리깨보고 ‘도께’, ‘도께’.)

103011 @ 도께질.(도리깨질.)

103011 #1 도께질헤여근에 겐 불려. 물류와근에 들여놓민 수확은 끄나는 거주.
(도리깨질해서 그래서 불려. 말려서 들여놓으면 수확은 끝나는 거지.)

103010 @ 그냥 비여 놓민 언제 무끄는 거라, 바로 무꺼?(그냥 베어 놓으면 언
제 묶는 거야, 바로 묶어?)

103010 #2 아이고, 날씨에 따라.(아이고, 날씨에 따라.)

103010 #1 날씨에 따라. 비 왁 직허다 허민 무꺼 불고 경 안 허민 이삼일 몰려.
그래야 집이 와서 장만헤영 몰리기가 쉬우니까.(날씨에 따라. 비 음 직허다 하면 묶
어 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이삼일 말려. 그래야 집에 와서 장만해서 말리기가 쉬우
니까.)

103010 @ 게민 영 무끄잖아예?(그럼 이렇게 묶잖아요?)

103010 #1 어.(어.)

103010 @ 무끝 때 무끄는 건 뭐로?(묶을 때 묶는 건 뭐로?)

103010 #1 보리로.(보리로.)

103010 @ 보리쪽으로 그냥?(보릿짚으로 그냥?)

103010 #1 어, 어.(어, 어.)

103010 @ 거기 거 그냥 해 가지고?(거기 거 그냥 해 가지고?)

103010 #1 거기 걸로.(거기 걸로.)

103010 @ 거기 걸로예.(거기 거로요.)

103010 @ 얼마씩 무릅니까, 이만큼씩?(얼마씩 묶습니까, 이만큼씩?)

103010 #1 건 혼이 엇어.(건 한이 없어.)

103010 @ 혼이 엇어. 그럼 그거 무끈 거 하나를 뭐렌 불려?(한이 없어. 그럼 그
거 묶은 거 하나를 뭐라고 불려?)

103010 #1 단. 혼 단.(단. 한 단.)

103010 @ 무끈 거 혼 단예.(묶은 거 한 단요.)

103010 #1 혼 단, 두 단.(한 단, 두 단.)

103011 @ 타작은 그냥 아까 홀튼 다음에 도리깨질헤영 끄나는 거?(타작은 그냥

아까 훑은 다음에 도리깨질해서 끝나는 거?)

103011 #1 어.(어.)

103012 @ 어머니 보리쌀 장만 어떻 험니까, 장만?(어머니 보리쌀 장만 어떻게 합니까, 장만?)

103012 #1 그것도 옛날에는 들방에에 가서.(그것도 옛날에는 연자방앗간에 가서.)

103012 @ 예.(예.)

103012 #1 들방에에 가 가지고는 물에, 물에 담가둬수루 곱아.(연자방앗간에 가 가지고는 물에, 물에 담가두면서 곱아.)

103012 @ 으.(으.)

103012 #1 곱아 가지고는 담양 집이 왕 물리왕. 채 빼 뒹 그냥 두 불 곱아오나 거피나.(곱아 가지고는 담아서 집에 와서 말려. 겨 빼 두고 그냥 두 번 곱아오거나 거피하거나.)

103012 @ 거피예. 경 집이 오민 정ㄱ레에서.(거피해요. 그렇게 집에 오면 풀맷돌에서.)

103012 #1 게, 거피는 건 정ㄱ레에서.(그래, 거피하는 건 풀맷돌에서.)

103013 @ 보리쌀로는 아까 밥해 먹고 또 뭐 해 먹습니까?(보리쌀로는 아까 밥해 먹고 또 뭐 해 먹습니까?)

103013 #1 밥해 먹음베끼 뭐.(밥해 먹기밖에 뭐.)

103013 @ 미숫가루?(미숫가루?)

103013 #1 아이, 건 저 보리로.(아니, 건 저 보리로.)

103013 @ 보리로.(보리로.)

103013 #1 으. 건 여긴 개역.(으. 건 여긴 ‘개역’)

103013 @ 개역, 개역. 보리쌀로가 아니고 보리로.(미숫가루, 미숫가루. 보리쌀로가 아니고 보리로.)

103013 #1 보리로.(보리로.)

103013 @ 게민.(그럼.)

103013 #1 보리로 볶아 가지고 가루로, 정ㄱ레에서 ㄱ레로 곱아. 방앗간 나니까 방앗간 갖지만은.(보리로 볶아 가지고 가루로, 풀맷돌에서 맷돌로 곱아. 방앗간 나니까 방앗간에 갖지만.)

103013 @ 으음.(으음.)

103013 #1 정ㄱ레로 곱양 치여 가지고 아래 놔. 게민 채는 위에 트주게. 게민 아래 신 것이 개역.(풀맷돌로 곱아서 치여 가지고 아래 놔. 그럼 겨는 위에 뜨지. 그럼 아래 있는 것이 미숫가루.)

103014 @ 그럼 그거 저 보리겨나 보리짚, 보리 까끄레기 같은 건 뒤에 씹니까? 보리 장만해나면.(그럼 그거 저 보리겨나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같은 건 뒤에 씹니까?)

103014 #1 보리 ㄹ스락.(보리 까끄라기.)

103014 @ ㄹ스락, 음.(까끄라기, 음.)

103014 #1 보리 ㄹ스락은 불태와 불주게. 건 걸름도 안 웨여.(보리 까끄라기는 불태워 버리지. 그건 거름도 안 돼.)

103014 @ 째은?(짚은?)

103014 #1 째은 걸름게.(짚은 거름.)

103014 @ 걸름으로, 통시도 깔고 쉼막에도 깔고?(거름으로, 돼지우리에도 깔고 외양간에도 깔고?)

103014 #1 또 마당에도 깔고.(또 마당에도 깔고.)

103014 @ 마당에도 깔고예. 보리 ㄹ시락.(마당에도 깔고요. 보리 까끄라기.)

조 농사

103016 @ 조농사 물어보쿠다. 조농사예. 아까 보리농사허젠 허민 걸음을 미리 준비했잖아예?(조농사 물어보겠습니다. 조농사요. 아까 보리농사하려고 하면 거름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103016 #1 건디 조는 걸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그런데 조는 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103016 @ 으.(으.)

103016 #1 밧을 갈아, 밧을 갈아.(밭을 갈아, 밧을 갈아.)

103016 @ 갈아.(갈아.)

103017 #1 밧 간 다음에 씨를 뿌려.(밭 간 다음에 씨를 뿌려.)

103017 @ 음.(음.)

103020 #1 겐 소나 말을 가지고 밧아. 여기는 불린다고 허여.(그래서 소나 말을 가지고 밧아. 여기는 ‘불린다’고 해.)

103020 @ 불린다.(밧는다.)

103020 #1 조 불린덴 허주게.(조 밧는다고 하지.)

103020 @ 예.(예.)

103020 #1 게민 그 씨가 묻어질 거 아니?(그럼 그 씨 묻힐 거 아니?)

103020 @ 예.(예.)

103021 #1 그러면 그게 나면은 우리 여기 말로 좇주게. 배여.(그러면 그게 나면 우리 여기 말로 좇지. 배어.)

103021 @ 으.(으.)

103021 #1 좇으면은 초벌 검질멜 적에 걸 소까. 제 방⁵³이 있게끔. 겐 초벌 검질메고 두벌 검질 메면은 게민 익어근에 비여 들어근에.(좇으면 초벌 김 맬 적에 걸 슈아. 제 ‘방’이 있게끔. 그래서 초벌 김매고 두벌 김매면 그러면 익어서 배어 들어서.)

53) ‘방’은 파종할 때 씨앗이 들어가는 자리를 말한다.

103024 @ 음.(음.)

103024 #1 조는 툫아. 홀트는 게, 고고리라고 해 가지고.(조는 뜯어. 훑은 게, 이삭이라고 해 가지고.)

103024 @ 음.(음.)

103024 #1 호미 이렇게 낄앙 앓앙.(낫을 이렇게 깔고 앓아서.)

103024 @ 음.(음.)

103024 #1 요만씩 잡으멍 그 문딱 고고리 툫앙, 툫아 놔근에 도리깨질.(요만씩 잡으면서 그 모두 이삭 뜯어. 뜯어 놓고 도리깨질.)

103024 @ 아. 보리는 홀텅 도리깨질허는 거고.(아. 보리는 훑어서 도리깨질하는 거고.)

103024 #1 어.(어.)

103017 @ 조는 툫앙 도리깨질허는 거라. 게민 아까 조 갈 때는 거름을 안 허는 거마씨?(조는 뜯어서 도리깨질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조 갈 때는 거름을 안 하는 겁니까?)

103017 #1 어. 겐디 비료가 난 후에는.(어. 그런데 비료가 난 후에는.)

103017 @ 예.(예.)

103017 #1 글로 후에 초불 검질멘 다음에 비료를 헤여.(그 후에 초벌 김만 다음에 비료를 해.)

103018 @ 으, 게문 어쨌든 보리, 보리 갈 때는 걸름을 먼저 허고 밧 갈았는데, 조는?(으, 그러면 어쨌든 보리, 보리 갈 때는 거름을 먼저 하고 밧 갈았는데, 조는?)

103018 #1 그대로.(그대로.)

103019 @ 밧 갈아난 다음 뿌리는 거?(밧 간 다음 뿌리는 거?)

103019 #1 으, 밧 갈아난 다음에 뿌리는 거.(으, 밧 간 다음에 뿌리는 거.)

103020 @ 뿌리는 거예. 불르기도 허고예?(뿌리는 거요. 밟기도 하고요?)

103020 #1 으, 건 불르지 안 허민, 저 대정더레 곳음만 해도 돼는데, 여기는 화산 토질이니까 안 돼는데, 비료가 난 후에는 그 저 곳음만 해도 됐어.(으, 건 밟지 안 하면, 저 대정에는 곳기만 해도 되는데, 여기는 화산 토질이니까 안 되는데. 비료가 난 후에는 그 저 곳기만 해도 돼.)

103018 @ 조는 갑니까, 그럼? 언제 씨 뿌렁 언제 가는 것과?(조는 갑니까, 그럼? 언제 씨 뿌려서 언제 가는 겁니까?)

103018 #1 하지 기준해서, 하지 기준해서.(하지 기준해서, 하지 기준해서.)

103018 @ 하지, 그 왔다 갔다 그 마리에 씨 뿌리는 거예?(하지, 그 왔다 갔다 그 고비에 씨 뿌리는 거요?)

103018 #1 어, 어.(어, 어.)

103018 @ 거뒤들이는 건?(거뒤들이는 건?)

103018 #2 나쁜 밧은 하지에 허고 저 좋은 밧은 소서 거자 돼야.(나쁜 밧은 하지에 허고 저 좋은 밧은 소서 거의 돼야.)

103018 @ 소서 거자 뉘사.(소서 거의 돼야.)

103018 #1 그 저 모종 그르 같은 데.(그 저 모종 났던 자리 같은 데.)

103018 @ 모종 그르 같은 데.(모종 났던 자리 같은 데.)

103018 #1 건 걸른 디 뉘니까.(건 건 데 되니까.)

103019 @ 음. 좁씨는 어떻 뿌리는 거마씨?(음, 좁씨는 어떻게 뿌리는 겁니까?)

103019 #1 손으로 짹 짹.(손으로 짹 짹.)

103019 @ 계민 여자가 뿌립니까, 남자가 뿌립니까?(그럼 여자가 뿌립니까, 남자가 뿌립니까?)

103019 #1 남자가.(남자가.)

103019 @ 아, 남자가.(아, 남자가.)

103019 #2 아, 여저도 잘 뿌리는 사람은 뿌려.(아, 여저도 잘 뿌리는 사람은 뿌려.)

103019 @ 뿌려? 계민 남자가?(뿌려? 그럼 남자가?)

103019 #1 주로 남저가 허여.(주로 남자가 해.)

103019 @ 계민 밧 다 갈아 낱 씨 뿌리는 거?(그럼 밧 다 갈아 놓고 씨 뿌리는 거?)

103019 #1 거 밧이, 예를 들어 천 평이면은 이, 삼백 평 갈아지면은 좁씨 빼여 근에 불리렌 허주게.(거 밧이, 예를 들어 천 평이면 이, 삼백 평 갈아지면 좁씨 뿌려서 밧으라고 하지.)

103019 @ 여자안테예?(여자한테요?)

103019 #1 아이덜이나 원 놉을 빌던지 여저안티 허던지 영 불려 가명 밧 갈아 가명 씨 빼여 가명.(아이들이나 원 놉을 빌던지 여자한테 하던지 이렇게 밧아 가면서 밧을 갈면서 씨 뿌려 가면서.)

103019 @ 그럼.(그럼.)

103019 #1 그때는 주로 장마거든 제주도는, 여기는. 그니까 장마 뉘근에 허면 팡팡 그 안개비 해 가면은 빨리 해야 뉘니까.(그때는 주로 장마거든 제주도는, 여기는. 그러니까 장마 돼서 하면 팡팡 그 안개비 해 가면 빨리 해야 뉘니까.)

103020 @ 계민 조팏 밧을 때는 뉘 남태나 돌태나 헉니까?(그럼 조팏 밧을 때는 뉘 남태나 돌번지나 헉니까?)

103020 #1 남태는 근래에 나온 거. 옛날에는 소나 말.(남태는 근래에 나온 거. 옛날에는 소나 말.)

103020 #2 소에, 소를 언저 메근에 큰 소 허나러레 족은 소 다 돌아메근에.(소에 소를 엮어 매서 큰 소 하나에 작은 소 달아매서.)

103020 #1 거 연 맨다고 해서.(거 연 맨다고 해서.)

103020 #2 어, 돌아메영.(어, 달아매서.)

103020 @ 음.(음.)

103020 #2 저 소 흔 멧 개허고, 물은 그 큰 물 허나만 이끄면 몽아지덜이 즐즐

줄줄 큰 물 조름에 따라.(저 소 한 몇 개하고 말은 그 큰 말 하나만 이끌면 망아지들이 줄줄 줄줄 큰 말 꿈무늬에 따라.)

103020 @ 경허난.(그러니까.)

103020 #2 계민 앞에 흐는 사름이 잇고 숫자가 많으민 돌이가 몰고.(그럼 앞에 하는 사람이 있고 숫자가 많으면 돌이 몰고.)

103020 @ 음.(음.)

103020 #2 숫자가 족으민 흐 사름만 몰고. 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숫자가 적으면 한 사람만 몰고. 소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103020 #1 그러다가 소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그러다가 소 말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103020 @ 음.(음.)

103020 #1 남태라고 해서 나무에다 그 말 못 박아 가지고는, 그 거는 나온 지가 얼마 오래지가 안 해서.(남태라고 해서 나무에다 그 말 못 박아 가지고는, 그 거는 나온 지가 얼마 오래지가 안 했어.)

103020 @ 그러면 돌태는 안 쓰고?(그러면 돌번지 안 쓰고?)

103020 #1 돌태는?(돌번지는?)

103020 @ 돌로 만든 거마씨.(돌로 만든 거예요.)

103020 #1 아니.(아니.)

103020 @ 그런 건 안 쓰고. 꿈게는?(그런 건 안 쓰고. 꿈게는?)

103020 #1 어?(어?)

103020 @ 꿈게?(꿈게?)

103020 #1 꿈게?(꿈게?)

103020 @ 어쨌든 남태나, 남태를 썼던 거?(어쨌든 남태나, 남태를 썼던 거?)

103020 #1 여기서 ㅍ슬커라고 해서.(여기서 꿈게라고 해서.)

103020 @ 으.(으.)

103020 #1 메틸이나 거 갈 적에.(메틸이나 거 갈 적에.)

103020 #2 건 ㅍ슬퀴주, ㅍ슬퀴.(건 꿈게지, 꿈게.)

103020 @ ㅍ슬퀴.(꿈게.)

103020 #1 끌 것, 끌 것 헤여.(끌 것, 끌 것 해.)

103021 @ 조팠디 검질은 몇 번 맵니까?(조밭에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21 #1 두벌.(두벌.)

103021 @ 두벌. 조팠디 어떤 검질 нама씨?(두벌. 조밭에 어떤 김이 납니까?)

103021 #2 막 저 잘 매는 사름은 벌레기돌름⁵⁴이라고 해서 막 씨 죽은 때 흐불 멧당 두벌 매는디 보통 두벌.(아주 저 잘 매는 사름은 ‘벌레기돌름’이라고 해서 아주 씨 작을 때 초벌 땀다가 두벌 매는데 보통 두벌.)

103022 @ 두벌예. 조팠디 검질에는 뭐 잇어?(두벌요. 조밭에 김에는 뭐 잇어?)

54) ‘벌레기돌름’은 무성하게 자란 풀포기를 대충 뽑아 매는 것을 말한다.

103022 #2 뭐 그거주게 그건.(뭐 그거지 그건.)

103022 #1 제완지, ㄹ루조.(바랭이, 가라지.)

103022 #2 득쿨 뭐.(여우구슬 뭐.)

103022 #1 득쿨, 해바라기⁵⁵⁾. 그거 혼이 었어.(여우구슬, ‘해바라기’. 그거 한이 없어.)

103022 @ 으음. 그럼 이제 그런 검질덜 못 봐?(으음. 그럼 이제 그런 김들 못 봐?)

103022 #1 이디 하우스허고 이런 과수원에.(여기 하우스하고 이런 과수원에.)

103022 #2 아니, 나긴 나는데 밧마다가 었어. 잇긴 잇어.(아니, 나긴 나는데 밧마다 없어. 잇긴 잇어.)

103022 #1 과수원 생겨 버리니까.(과수원 생겨 버리니까.)

103022 #2 으.(으.)

103022 #1 제초제허고 자주 메 버리니까 이제 씨가 몰라 버렸다 말이주. 여긴 물룣도 누웠 텡굴어도 옷 안 버무릴 정도로 잇어났다고 물룣도.(제초제하고 자주 배 버리니까 이제 씨가 말라 버렸다 말이지. 여긴 무룣도 누워서 텡굴어도 옷 안 더러울 정도로 있었다고 무룣도.)

103022 @ 음.(음.)

103022 #1 겐디 이제 비료 헤 가고 허니까 자연 소멸이 돼 불고. 이제는 수입 풀. 이름도 성도 모른 거. 그게 문제라.(그런데 이제 비료 하고 허니까 자연 소멸이 돼 버리고. 이제는 수입 풀. 이름도 성도 모른 거. 그게 문제야.)

103023 @ 자 이젠 조 수확할 때. 수확은 언제 한다고? 하지썸에 씨 뿌리고?(자 이제 조 수확할 때. 수확은 언제 한다고? 하지썸에 씨 뿌리고?)

103023 #2 아니.(아니.)

103023 #1 보통은 팔월.(보통은 팔월)

103023 @ 팔월.(팔월.)

103023 #2 팔월, 구월 달에 음력.(팔월, 구월 달에 음력.)

103023 #2 구월, 음력 구월.(구월, 음력 구월.)

103023 #1 음력 구월.(음력 구월.)

103023 @ 음력 구월예. 그민 베여 들영, 밧디서 무쟁?(음력 구월요. 그럼 베어 들여서, 밧에서 묶어서?)

103024 #1 무꺼근에 실러 들여.(묶어서 실어 들여.)

103024 @ 실러 들영?(실어 들여서?)

103024 #1 툷양.(뜯어서.)

103024 @ 여기서 툷는 거예?(여기서 뜯는 거요?)

103024 #1 으.(으.)

103024 @ 툷은 다음예?(뜯은 다음예?)

55) ‘해바라기’는 여름에 나는 김 종류의 하나다.

103024 #1 저 마당에서.(저 마당에서.)
 103024 #2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주.(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지.)
 103024 #1 도깨질허영.(도리깨질해서.)
 103012 @ 도깨질예. 자 아까 보리쌀은 어무니 뭇 ㄱ레에 강 먼저 곶아 왕?(도리깨질요. 자 아까 보리쌀은 어머니 연자방앗간에 가서 먼저 곶아 와서?)
 103012 #1 뭇 ㄱ레가 먼저주.(연자방앗간이 먼저지.)
 103012 @ 집에 왕 정 ㄱ레로 헛수다예?(집에 와서 풀뭇돌로 했지요?)
 103012 #2 어.(어.)
 103025 @ 좁쌀은 어떻 장만합니까?(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25 #2 좁쌀은 그 조코고리 날 좋은 날 막 몰르민 도깨도 침 두드려근에.(좁쌀은 그 조이삭 날 좋은 날 아주 잘 마르면 도리깨로 침 두드려서.)
 103025 @ 음.(음.)
 103025 #2 이제 그놈은 두드려 놓민 줄아 부난에 그 두드린 장소에서.(이제 그놈은 두드려 놓으면 잘아 버리니까 그 두드린 장소에서.)
 103025 @ 조 장만허는 거?(조 장만하는 거?)
 103025 #2 조, 그 고고리를 영 골라서 도리깨로 두드리면.(조, 그 이삭을 영 골라서 도리깨로 두드리면.)
 103025 @ 음.(음.)
 103025 #1 툃아근에 두드려.(뜯어서 두드려.)
 103025 #2 게 툃아근에 그 고고리를 두드리면 얼멩이 있어, 얼멩이.(그럼 뜯어근에 그 이삭을 두드리면 어레미가 있어, 어레미.)
 103025 @ 으, 얼멩이.(으, 어레미.)
 103025 #2 알아?(알아?)
 103025 @ 예, 얼멩이.(예, 어레미.)
 103025 #1 알주게. 얼멩인 제주도 다 통일이라.(알지. 어레민 제주도 다 통일이야.)
 103025 #2 게난 너무 훗영 얼멩이로, 급허면은 초불 쳐, 초불 치는디.(그러니까 너무 곱어서 어레미로, 급하면 초벌 쳐, 초벌 치는데.)
 103025 @ 으.(으.)
 103025 #2 대체로 쳐, 대체로.(대체로 쳐, 대체로.)
 103025 @ 으.(으.)
 103025 #2 대체로 걸 치민 대체 아래 건 멩탱이에 담아 놓고 또 안 두드려진 건 각메기⁵⁶⁾라고 해서 또 두드리멍 쟁 문딱 헤영 대체 아래 거 나면은 그놈은 쉼브름에 못 불려.(대체로 걸 치면 대체 아래 건 망태기에 담아 놓고 또 안 두드려진 건 각지라고 해서 또 두드리면서 그렇게 모두 해서 대체 아래 거 나면 그놈은 쉼

56) ‘각메기’는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각지 따위를 말한다. 표준어 ‘각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바람에 못 불려.)

103025 @ 음.(음.)

103025 #2 아주 아침에 살살 현 그 느릿⁵⁷⁾에. 그 바람은 부는 중 몰르고 살살 허게 나오는 바람에 그놈을 불려 가지고.(아주 아침에 살살 하는 그 기운에. 그 바람은 부는 줄 몰르고 살살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놈을 불려 가지고.)

103025 #1 가을 돼니까 그런 바람이 잘 불주게.(가을 돼니까 그런 바람이 잘 불지.)

103025 #2 그추룩 허난 아침에 새벽에.(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103025 @ 으.(으.)

103025 #2 경 헤 낱 그 채는 돼지 주곡 그 조는 이제 불리민 보리 거치. 보리는 불린 후젠 못 물리민 곰팡이 피고.(그렇게 해 놓고 그 겨는 돼지 주고 그 조는 이제 불리면 보리 같이. 보리는 불린 후에 못 말리면 곰팡이 피고.)

103025 @ 으.(으.)

103025 #2 암만 잘. 조는 관찮여. 게민 다 담아뒤서 골레 갈 때만 잘 이틀은 말려야 돼여. 물류왕.(암만 잘. 조는 괜찮아. 그럼 다 담아뒤서 연자매 갈 때만 잘 이틀은 말려야 돼. 말려서.)

103025 #1 것도 들방에에 강?(것도 연자방앗간에 가서?)

103025 @ 으.(으.)

103025 #2 그놈 들방에에 강 그걸 막 이 들루노렌 허민 걱죽 벗어지주게.(그놈 연자방앗간에 가서 그걸 막 두르면 걱죽 벗겨지지.)

103025 @ 아까 도리깨질 헤영 안 털어진 걸 뭐렌 헛수과?(아까 도리깨질 해서 안 떨어진 걸 뭐라고 했습니까?)

103025 #1 각메기.(각지.)

103025 #2 조 각메기.(조 각지)

103025 @ 조 각메기, 각메기.(조 각지, 각지.)

103025 #2 으.(으.)

103025 @ 아, 그민 안 떨어진 거?(아, 그럼 안 떨어진 거?)

103025 #1 두루 떨어진 거게.(덜 떨어진 거.)

103025 #2 두루 떨어졌당 또 두드리젠 허민 아이고 조 각메기 두드려 베사켜.(덜 떨어졌다가 또 두드리려고 하면 아이고 조 각지 두드려 버려야겠어.)

103025 @ 아, 각메기.(아, 각지.)

103025 #2 보리도 마찬가지로.(보리도 마찬가지로.)

103025 @ 으음.(으음.)

103025 #2 보리도 경허난 아이고, 보리 각메기 저디 담아 낱에 못 두드려 안 웨켜.(보리도 그러니까 아이고, 보리 각지 저기 담아 놓고 못 두드려서 안 되겠어.)

57) '느릿'은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몹시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운을 말한다.

103025 @ 음.(음.)

103025 #1 한꺼번에 떨어지지 안허니까.(한꺼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103025 @ 예, 예.(예, 예.)

103025 #1 그 가운데 좀 덜 마른 게 있으면 두루 떨어지주게.(그 가운데 좀 덜 마른 게 있으면 덜 떨어지지.)

103025 #2 으, 계난 각메기.(으, 그러니까 각지.)

103026 @ 좁쌀로는 뭐 만들엉 먹읍니까?(좁쌀로는 뭐 만들어서 먹읍니까?)

103026 #2 무시거니게 떡허고 밥베긴 죽허고.(무엇이야 떡하고 밥밖엔 죽하고.)

103026 #1 무사 조 폼벅도 잇엇주.(왜 조 범벅도 잇엇지.)

103026 #2 에이, 조 폼벅 이제 범벅이. 기자.(에이, 조 범벅 이제 범벅이. 그저)

103026 @ 으.(으.)

103026 #1 주로 밥, 죽.(주로 밥, 죽)

103026 #1 주로 밥, 죽이주게.(주로 밥, 죽이지.)

103026 @ 밥, 죽.(밥, 죽.)

103026 #2 떡.(떡.)

103026 @ 술은?(술은?)

103026 #2 어?(어?)

103026 @ 술?(술?)

103026 #1 아, 여기 잘사는 사름베끼.(아, 여기 잘사는 사람밖에.)

103026 #2 술은이 차조라사 술 헤여, 차조.(술은 차조라야 술 해, 차조.)

103026 @ 응, 차조.(응, 차조.)

103026 #2 차조로 술 허주. 이제 그런 모인조⁵⁸로는. 흐린조⁵⁹라이 차조가 아니고.(차조로 술 하지. 이제 그런 ‘모인조’로는. ‘흐린조’야 차조가 아니고.)

103026 #1 찰조지.(찰조지.)

103026 @ 조 종류가 뭐, 뭐 이신디?(조 종류가 뭐, 뭐 있는데?)

103026 #2 아이고, 조 종류는.(아이고, 조 종류는.)

103026 #1 여기 말로 흐린조, 모인조.(여기 말로 ‘흐린조’, ‘모인조’.)

103026 @ 흐린조, 모인조. 그리고 그 차조라는 게 흐린조?(‘흐린조’, ‘모인조’. 그리고 그 차조라는 게 ‘흐린조’?)

103026 #2 흐린조.(‘흐린조’)

103026 #1 차, 차, 차조는 모인 거고 찰조는 흐린조고. 차조가 모인조라.(차, 차, 차조는 모인 거고 찰조는 ‘흐린조’고. 차조가 ‘모인조’야.)

103026 #2 흐린조, 모인조 해 불민 뉘주게.(‘흐린조’, ‘모인조’ 해 버리면 되지.)

103026 @ 예, 흐린조, 모인조예. 게민 술은?(예, 차조, 메조요. 그럼 술은?)

103026 #1 계난 흐린조로 헤여.(그러니까 차조로 해.)

58) ‘모인조’는 조의 한 종류로, ‘메조’를 말한다.

59) ‘흐린조’는 조의 한 종류로, ‘차조’를 말한다.

103026 @ 술은 흐린조?(술은 차조?)

103026 #2 흐린조로.(차조로.)

103026 @ 그럼, 여기 농사짓는 건 흐린조 아니?(그럼, 여기 농사짓는 건 차조 아니?)

103026 #1 무사.(왜.)

103026 @ 흐린조예?(차조요?)

103026 #1 두 가지라.(두 가지야.)

103026 #2 여기 두 가진데, 흐린조.(여기 두 가진데, 차조.)

103026 #1 또 모인조 안에도 여러 가진데.(또 메조 안에도 여러 가진데.)

103026 #2 흐린조 아무 밭이나 못 허는 따문, 경 다 모인조고.(차조 아무 밭이나 못 하는 따문. 그렇게 다 메조고.)

103026 #1 흐린조는 아주 건, 땅이 좋은 데.(차조는 아주 건, 땅이 좋은 데.)

103026 @ 아, 기파?(아, 그래요?)

103026 #1 계난 고구마 묘종 키와난 데나.(그러니까 고구마 묘종 키웠던 데이거나.)

103026 @ 으.(으.)

103026 #1 거름헌 데.(거름한 데.)

103026 #2 흐린조 아무 데나 안 돼여.(차조 아무 데나 안 돼.)

103026 #1 또 우잣디나.(또 울안이나.)

103026 @ 으.(으.)

103026 @ 음. 계난 조로 술도 담그는 거 아니. 흐린조?(음. 그럼 조로 술도 담그는 거 아니. 차조?)

103026 #2 으, 흐린조론 술 담가.(으, 차조론 술 담가.)

103027 @ 술 담그는 거예?(술 담그는 거요?)

103027 #2 으.(으.)

103027 @ 그민 조침은 뭐에 씹니까, 조침?(그럼 조짚은 뭐에 씹니까?)

103027 #2 소 멕여.(소 먹여.)

103027 @ 소 멕여예?(소 먹여요?)

103027 #2 으, 아주 좋은 먹이라 그건. 조침은 흐나 떨어지우지 안 행 늘어. 경겨울에 조침 흔 번.(으, 아주 좋은 먹이야 그건. 조짚은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가려. 그렇게 겨울에 조짚 한 번.)

103027 #1 사름 가트민 쌀밥.(사람 같으면 쌀밥.)

103027 #2 조침 흔 번 주고. 또 산에 강 비여 온 건 일름이 새풀이라, 새풀.(조짚 한 번 주고. 또 산에 가서 베어 온 건 이름이 띠야, 띠.)

103027 @ 으.(으.)

103027 #2 새풀 흔 번 주고 새풀 주라 이번이랑.(띠 한 번 주고 띠 주라 이번이랑.)

103027 @ 아.(아.)
 103027 #1 출 종류는 새꿀, 제완지.(꿀 종류는 띠, 바랭이.)
 103027 #2 으, 경헌디.(으, 그런데.)
 103027 #1 여기서는.(여기서는.)
 103027 #2 제완지 출.(바랭이 꿀.)
 103027 @ 그 출, 출이렌 안 하고 새꿀이렌 해?(그 꿀, 풀이라고 안 하고 ‘새꿀’이라고 해?)
 103027 #2 새꿀.(띠.)
 103027 #1 아이 그 출 안에.(아니 그 꿀 안에.)
 103027 #2 쉼 출 주라, 쉼 출 주라.(소 풀 주라, 소 풀 주라.)
 103027 #1 분석 했을 적에 나눌 때.(분석 했을 적에 나눌 때.)
 103027 #2 쉼 출 주라.(소 풀 주라.)
 103027 @ 아.(아.)
 103027 #2 쉼 출 주라, 쉼 출 주라. 헛다근에 쉼 출 주레 가가민 이번이랑 조칩 주지 말앙 새꿀로 주라이. 영 허고.(소 풀 주라, 소 풀 주라. 헛다가 소 풀 주러 가면 이번이랑 조짚 주지 말고 ‘새꿀’로 주라. 이렇게 하고.)
 103027 @ 아.(아.)
 103027 #2 조칩 주라이 영 허고.(조짚 주라 이렇게 하고.)
 103027 @ 음, 조칩 주라이 허고예.(음, 조짚 주라 하고요.)

콩 농사

103029 @ 예, 콩 허쿠다, 콩. 콩 농사에. 콩밭 거름도 준비 됩니까?(예, 콩 하겠 습니다, 콩. 콩 농사요. 콩 밭 거름도 준비 됩니까?)
 103029 #2 콩밭 거름 안 허여. 콩 갈아 나민 밧 막 건다고 해서 보리만 갈아. (콩밭 거름 안 해. 콩 갈고 나면 밧 아주 건다고 해서 보리만 갈아.)
 103029 @ 아.(아.)
 103029 #2 그 콩썩 떨어진 것이 걸름이라고.(그 콩잎 떨어진 것이 거름이라고.)
 103029 @ 으.(으.)
 103029 #1 콩썩보다도 콩 뿌리에 그 궤가 생깁니다. 그 거름 궤, 거름이 생겨. (콩잎보다도 콩 뿌리에 그 ‘궤’가 생깁니다. 그 거름 ‘궤’, 거름이 생겨.)
 103029 #2 줍쌀만씩 현 거.(줍쌀만큼씩 한 거.)
 103029 @ 그럼 콩 농서지으려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그럼 콩 농사지으려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103029 #2 막 건 쉬워.(아주 건 쉬워.)
 103029 #1 아무 것도 아니.(아무 것도 아니.)
 103029 @ 아무 것도 아니?(아무 것도 아니?)
 103030 #1 것도 조 모양으로 콩씨 뿌령 같민 돼.(것도 조 모양으로 콩씨 뿌려서

갈면 돼.)

103030 #2 건 조 불리거나 한다. 이건 기자.(건 조 밟거나 한다. 이건 그저.)

103030 #1 그 콩은 불리지도 안 하여.(그 콩은 밟지도 안 해.)

103032 #2 아무스렁 안 헨 디 기자 밧 아니 간 때 콩씨 자루에 담양 메여듬서 작작 뿌려 놓고.(아무렁지 안 한 데 그저 밧 안 갈 때 콩씨 자루에 담아 메고서 작작 뿌려 놓고.)

103032 @ 으.(으.)

103030 #1 경 밧 갈아 불민 웨여.(그렇게 밧을 갈아버리면 돼.)

103030 #2 밧 갈아서 여잔 이제 또 풀 치지.(밧 갈아서 여잔 이제 또 풀 치지.)

103030 @ 으.(으.)

103030 #2 풀 쳐.(풀 쳐.)

103030 @ 예, 검질.(예, 김.)

103030 #1 옛날엔 속이 만허니까.(옛날엔 속이 많으니까.)

103030 @ 아.(아.)

103030 #2 검질메질 안 허고 갈아난 밧디 풀 털어.(김매질 안 하고 갈았던 밧에 풀 털어.)

103030 @ 아, 풀 봉가 부는 거.(아, 풀 주워 버리는 거.)

103030 #2 어, 털어, 털어. 그 놈이 치는 거라고. 아이고, 콩 갈레 가민 풀 치레 가살 걸 경 허고. 그 밧에 풀에 많지 안 헨 밧은 아니 못 견디는디 콩 갈레 간 밧은 막 진물. 가슬이라고 그.(어, 털어, 털어. 그 놈이 치는 거라고. 아이고, 콩 갈러 가면 풀 치러 가야할 걸 그렇게 하고. 그 밧에 풀에 많지 안 한 밧은 아니 못 견디는데 콩 갈러 간 밧은 아주 진물. 가슬이라고 그.)

103030 #1 가슬왓, 가슬왓 허주게.(가을밭, 가을밭 하지.)

103030 #2 가슬왓디라고 풀이 막 허주게.(가을밭이라고 풀이 아주 많지.)

103030 #1 겨울 농사 안 지어난 디.(겨울 농사 안 지었던 데.)

103030 @ 으.(으.)

103030 #2 풀이 한 디 강 콩씨 빼영 남전 밧만 갈민 풀 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낫어. 쟁 풀 청 나두민 콩은 메칠날 강, 헨 삼사일 웨민 콩은 나주게.(풀이 많이 데 가서 콩씨를 뿌려서 남잔 밧만 갈면 풀 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서 풀을 치고 놔두면 콩은 며칠날 가서, 한 삼사일 되면 콩은 나지.)

103030 @ 으.(으.)

103033 #2 나민 그놈을 여름 나민 잘 허는 사람은 두 번 메도 혼 번 주로 메여. 콩밭 검질이라고 조팏 초벌 메 두고.(나면 그놈을 여름 되면 잘 하는 사람은 두 번 메도 한 번 주로 매. 콩밭 김이라고 조밭 초벌 매 두고.)

103033 @ 으.(으.)

103033 #2 두벌 메는 그 중간 간격에.(두 벌 매는 그 중간 간격에.)

103033 @ 으.(으.)

103033 #2 검질 혼 번 멩 내 불민 가을 들민 비어 오는 거주게.(김 한 번 매서 내 버리면 가을 들면 비어 오는 거지.)

103033 @ 아, 검질 혼 번만 메민 돼.(아, 김 한 번만 매면 돼.)

103033 #1 것도 돌름 검질이엔 행 콩밭 검질메는 건 그자 먹기로.(것도 ‘돌름 검질’이라고 해서 콩밭 김매는 건 그저 먹기로.)

103033 @ 아, 기파?(아, 그렇습니까?)

103033 #1 돌름 검질, 돌림 검질 허주게.(‘돌름 검질’, ‘돌름 검질’ 하지.)

103033 #2 아, 기자 막.(아, 그저 마구.)

103034 @ 콩밭디 나는 검질덜은 뭐 이신디?(콩밭에 나는 김들은 뭐 있는데?)

103034 #2 그게 그거라, 제환지.(그게 그거야, 바랭이.)

103034 #1 아, 이 주로 조팍이나.(아, 이 주로 조밭이나.)

103034 #2 제환지주.(바랭이지.)

103034 @ 췌비눔 같은 건 여기 안 나랏수과?(쇠비름 같은 건 여기 안 났었습니까?)

103034 #1 췌비눔은 아주 건 밧데나. 아주 좋은 밧디.(쇠비름은 아주 건 밧에나. 아주 좋은 밧에.)

103034 #2 그때는 막 좋은 밧디만 췌비눔 나는데. 아, 지금은 좋은 밧 곳인 밧혈 거 엇이 췌비눔이 나. 그때 시절엔 그 막 좋은 밧.(그때는 아주 좋은 밧에만 쇠비름 나는데. 아, 지금은 좋은 밧 곳은 밧 할 거 없어 쇠비름이 나. 그때 시절엔 그 아주 좋은 밧.)

103034 #1 췌비눔 나는 밧은 좋은 밧이야.(쇠비름 나는 밧은 좋은 밧이야.)

103034 @ 저희 한동⁶⁰⁾은 당근 가는 데라예, 겐디 췌비눔이 막 하영 메난 거 생각나예.(저희 한동은 당근 가는 데예요, 그런데 쇠비름이 아주 많이 났던 거 생각나요.)

103034 #1 게메 이디도 막.(그러게 여기도 아주.)

103034 #2 여기도 이제는 농서짓는데 걸음율이 사용허니까 그게 나는데, 아메도 그게, 안 존 밧디는 안 난다고.(여기도 이제는 농사짓는데 거름을 사용하니까 그게 나는데, 아무래도 그게 안 좋은 밧에는 안 난다고.)

103035 @ 콩 수확은 어떻 헤마씨?(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35 #2 게민 콩 그거 그놈은 이젠 내 부는 거라. 다른 거 저르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지고 내불민 콩썩이 하나도 엇이 털어지고 콩 여물만 따그락허게 이시민 그놈을 옛날에 콩 비도 안 허여, 꺼끈다고 헛어. 꺼끔은 호미로 가정 영 허민 딱 뿌러지주게. 나무가 들랑. 뿌러지고 또 어떤 땐 손으로도 영 꺼끄곡 행. 콩 비여사크란 안 허여, 콩 꺼꺼사켄. 콩 꺼꺼사켜 꺼꺼사켜. 경 꺼경 콩은 막 괄고 잘 헤지는 사름은 그날도 무끄고.(그럼 콩 그거 그놈은 이젠 내 버리는 거야. 다른 거 바쁘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 버리면 콩잎이 하나도 없이 떨어지고 콩 여물만 덩그렇게

60) ‘한동’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중 하나다.

있으면 그놈을 옛날에 콩 베도 안 해, 꺾는다고 했어. 꺾기는 낫으로 가져서 이렇게 하면 딱 부러지지. 나무가 말라서. 부러지고 또 어떤 땐 손으로도 이렇게 꺾고 해서. 콩 베어야겠어 안 해, 콩 꺾어야겠어. 콩 꺾어야겠어, 콩 꺾어야겠어. 그렇게 꺾어서 콩은 아주 바삭 마르고 하는 사람은 그날도 묵고.)

103035 @ 으.(으.)

103035 #2 못 무끄는 사름은 뒷날도 무꺼근에 허당 보민 시꺼 오라 가민 막 빠직빠직⁶¹⁾ 발발발⁶²⁾ 털어지곡. 허곡 시꺼당 못 허민 놀고 어땡 데뻐다가 날 좋으면.(못 묶는 사름은 뒷날도 묶어서 하다 보면 실어 오다 보면 아주 빠직빠직, ‘발발발’ 떨어지고. 하고 실어다가 못 하면 가리고 어떻게 재었다가 날이 좋으면.)

103035 #1 도래께로, 것도 도께로.(도리께로, 것도 도리께로.)

103035 #2 풀영 영 콩을 세우지?(풀어서 이렇게 콩 세우지?)

103035 @ 으.(으.)

103035 #2 괄렌. 영 놈난 처레로. 영 세왕 놈두민 괄민 콩 두드림은 쉬워. 두드리믈.(바삭 마르라고. 이렇게 놔던 대로. 이렇게 세워서 놈두면 바삭 마르면 콩 두드리기도 쉬워. 두드리면.)

103035 @ 으.(으.)

103035 #2 콩찍은 처 베똥 그자 알맹인.(콩짚은 처 버려두고 그저 알맹인.)

103035 @ 그 마당에 막 넣어놔 그디서 두드리는 거?(그 마당에 막 넣어놓고 거기서 두드리는 거?)

103035 #1 으.(으.)

103035 @ 얹게 넣어놔.(얹게 넣어놓고.)

103035 #2 으.(으.)

103035 @ 두드려지민 걸어 불고.(두드려지면 걸어 버리고.)

103035 #1 계난에 옛날 농사짓는 집은 전부 마당으로. 게서 검질을 깔지 안허민 땅이 솟아버리니까.(그러니까 옛날 농사짓는 집은 전부 마당으로. 그래서 검불을 깔지 않으면 땅이 솟아버리니까.)

103035 #2 도리께질혈 둘레만 내베 덩 주위에 돌아가명 다 세우지.(도리께질 할 둘레만 내버려 두고 주위에 돌아가면서 다 세우지.)

103035 @ 세워 놔 두드려 덩 그거 가져 똥 다시 눅져 놔?(세워 놓고 두드려두고 그거 가져 두고 다시 눅혀 놓고?)

103035 #1 아니, 아니. 흔 사름이 콩 놓는 사름이 잇주게.(아니, 아니. 한 사름이 콩 놓는 사름이 있지.)

103035 @ 으.(으.)

103035 #2 두드리민 여물 까지민 또 앓아 놓고.(두드리면 여물 까지면 또 가져 놓고.)

61) ‘빠직빠직’은 잘 마른 콩이 떨어지는 소리는 나타낸 말이다.

62) ‘발발발’은 잘 마른 콩이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3035 @ 으.(으.)

103035 #2 계민 이디가 이만이 높아 가민 도리깨질 설러 덩 이제 짚을 탈탈탈 털어딩.(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높아 가면 도리깨질 그만 두고 이제 짚을 탈탈탈 털어두고.)

103035 @ 아, 얇게 놔 가지고 도리깨질헤영 치워 덩 다시 놓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속?(아, 얇게 놓아 가지고 도리깨질해서 치워 두고 다시 놓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계속?)

103035 #2 으, 낫닥 낫닥 허당 너무 높아가민 이 도리깨질이 힘이 없어.(으, 낫다가 낫다가 하다가 너무 높아지면 이 도리깨질 힘이 없어.)

103035 @ 으.(으.)

103035 #2 힘이 없어 가민 이제 그 콩 짚을 청.(힘이 없어 가면 이제 그 콩 짚을 쳐서.)

103035 @ 으.(으.)

103037 #2 옛날 땀감이 그거랏어, 콩 짚.(옛날 땀감이 그거였어, 콩 짚.)

103037 @ 콩 짚예. 불 숨을 때, 물 데피고.(콩 짚요. 불 지필 때, 물 데우고.)

103037 #2 그자 가슬, ㄹ슬 자리 구워 먹고.(그저 가을, 가을 자리뚝 구워 먹고.)

103037 @ ㄹ슬 자리, 맞수다. ㄹ슬 자리 구워 먹고 거기에.(가을 자리, 맞습니다. 가을 자리 구워 먹고 거기에.)

103037 #2 으, 땀감이 그거랏어.(으, 땀감이 그거였어.)

103030 @ 아니, 그럼 콩은 언제 씨를 뿌령 언제 거두어들이는 것과?(아니, 그럼 콩은 언제 씨를 뿌려서 언제 거두어들이는 겁니까?)

103030 #2 아, 거 조나 마찬가지지.(아, 거 조나 마찬가지지.)

103030 @ 시기적으로는 같은 때에?(시기적으로는 같은 때에?)

103030 #2 으. 소서는 전이.(으, 소서는 전에.)

103030 @ 으.(으.)

103030 #2 하지 넘고.(하지 넘고.)

103030 #1 소서는 여기선 유월절⁶³⁾, 유월절 허는디 그 전에.(소서는 여기선 ‘유월절’, ‘유월절’ 하는데 그 전에.)

103030 @ 으.(으.)

103030 #2 소서는 전이, 하진 넘곡 허민 그 콩 시기는 가을인데 못 허는 사람은.(소서는 전에, 하진 넘고 하면 그 콩 시기는 가을인데 못 하는 사람은.)

103030 #1 조 행 들어 텡.(조 해서 들어 두고.)

103030 #2 막 오래 내베 텡도 꺼끄곡, 헤지는 사람은 시기에 딱, 곧 익으면 꺼끄곡.(아주 오래 내버려 둬도 꺾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기에 딱, 곧 익으면 꺾고.)

103030 @ 으, 막 익으면 막 콩 바랭 떨어져 불거나 안 허여?(으, 아주 익으면

63)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마구 콩이 바래어서 떨어져 버리거나 안 해?)

103030 #1 아, 글썸 켜텐 허는다.(아, 글썸 튼다고 하는데.)

103038 #2 케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트는 것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103038 #1 무슨 일이 생기민 켜텐 헤여.(무슨 일이 생기면 튼다고 해.)

103038 @ 아.(아.)

103038 #2 이런, 머리 큰 사름이 죽을 때가 웨나.(이런 머리 큰 사름이 죽을 때가 되거나.)

103038 @ 예.(예.)

103038 #2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에.(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에.)

103038 #1 콩 켜젠 허주.(콩 텃다고 하지.)

103038 #2 혼날 혼시에 기자 오독뚝⁶⁴ 헤 불엇어. 비어 논 거고 안 빈 거고.(한 날한시에 그저 오도독 해 버렸어. 배어 놓은 거고 안 벤 거고.)

103038 @ 으.(으.)

103038 #2 그자 혼 시간에 그자.(그저 한 시간에 그저.)

103038 @ 정말 경 헤낫수과?(정말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38 #2 어, 죽는 시간에.(어, 죽는 시간에.)

103038 @ 어.(어.)

103038 #2 그러니 나라에.(그러니 나라에.)

103038 #1 게난 옛날 어른덜토 걸 생각허면서 현 말이주.(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걸 생각하면서 한 말이지.)

103038 #2 저 이 전장이 난이거든.(저 이 전쟁이 난이거든.)

103038 @ 으.(으.)

103038 #2 아이구, 난 일젠 험시고라 콩 켜져. 아, 경허연 그 콩을이 혼 시간에 우독뚝 다 안 익허도 콩 켜 때가 잇주. 허민 아이고 난 일젠 험시고라 콩 케염져. (아이고, 난 일려고 하는지 콩이 트고 있어. 아, 그래서 그 콩을 한 시간에 오도독 다 안 익어도 콩이 틀 때가 잇지. 그러면 아이고 난 일려고 하는지 콩이 트고 있어.)

103038 @ 음.(음.)

103038 #2 그 난이 전쟁이거든.(그 난이 전쟁이거든.)

103036 @ 음. 그민 콩 한 걸로는 뭐 행 먹읍니까, 콩으로는?(음. 그럼 콩 한 걸로는 뭐 해서 먹읍니까, 콩으로는?)

103036 #2 게 그거주게. 옛날엔 콩늬물도 사먹지 안 허영 콩늬물도 놔도 옛날엔 잘 웨는다 이젠 콩늬물 놔 안 웨서. 콩늬물 옛날엔 영 현 낭푼에나 무신 장태에 콩 낱 나누민, 우리 떡 치는 시루에.(그래 그거지. 옛날엔 콩나물도 사먹지 안 해서 콩

64) '오독뚝'은 작고 단단한 물체가 꺾이며 부러지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오도독'에 해당한다.

나물도 놔도 옛날엔 잘 되는데 이젠 콩나물 놔서 안 되고 있어. 콩나물 옛날엔 이렇게 한 양푼이나 무슨 장태에 콩 놓고 놔두면, 우리 떡 찌는 시리에.)

103036 #1 시루.(시리.)

103036 @ 으.(으.)

103036 #2 밀에 뭐 빠지지 안허게 저 뭐 망사 닮은 거 아무 거라도 요 깔아근에 그 콩을 슬째기 비왕 막 차갑지만 안허게 요 행주나 툇 더경 놔두민 그놈이 나서 시루 안에서 과아짜 올라오민.(밀에 뭐 빠지지 았게 저 뭐 망사 닮은 거 아무 거라도 요 깔아서 그 콩을 살짝 비워서 아주 차갑지만 았게 요 행주나 툇 덮어서 놔두면 그놈이 나서 시리 안에서 곧게 올라오면.)

103036 #1 매일 물 줘야.(매일 물 줘야.)

103036 #2 물은 경허난 시리에 햄주. 물을 주민 그 시리 고망으로 다 내리고.(물은 그러니까 시리에 하지. 물은 주면 그 시리 구멍으로 다 내리고.)

103036 @ 음.(음.)

103036 #2 경 헨 헤신디 이제는 원 이디서 콩나물을 놔도 안 돼고. 그자 콩은 무시거 메주 허고.(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원 여기서 콩나물을 놔도 안 되고. 그저 콩은 무엇 메주 하고.)

103036 @메주 허고?(메주 하고?)

103036 #2 죽 끌려 먹고. 콩그루 행.(죽 끓여서 먹고. 콩가루 해서.)

103036 @ 두부 허고?(두부 하고?)

103036 #2 두부 허고.(두부 하고.)

103036 @ 콩찹은 불 때는 거예?(콩짚은 불 때는 거요?)

103036 #2 으.(으.)

103036 @ 콩 농서지으멍 뭐 재미난 일 잇어난 거 엇수과?(콩 농사지으면서 뭐 재미난 일 잇었던 거 없습니까?)

103036 #2 무시거 허멍?(무엇 하면서?)

103038 @ 콩 농사지으멍 재미난 일 잇어난 거?(콩 농사지으면서 재미난 일 잇었던 거?)

103038 #1 농서지으멍 재미질 수가 엇어서.(농사지으면서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

103038 @ 아, 예.(아, 예.)

103038 #2 일이 힘들어 가지고.(일이 힘들어 가지고.)

103038 @ 예.(예.)

밭벼 농사

103039 @ 산디, 산디는 뭇 준비해야 험니까, 산디 갈젠 허민?(밭벼, 밭벼는 뭇 준비해야 험니까, 밭벼 갈려고 하면?)

103039 #2 산디도 좋아.(밭벼도 좋아.)

103039 #1 조 불리는 식으로.(조 밟는 식으로.)
 103039 #2 산디도 불러.(밭벼도 밟아.)
 103039 @ 불러예.(밟아요.)
 103039 #2 산디도 조팍만이 딱딱하게만 안 불리지.(밭벼도 조밭만큼 딱딱하게만 안 밟지.)
 103039 @ 예.(예.)
 103020 #2 조팍은 딱딱하게 불리고. 조팍은 어떤 영감 하르방덜은 목뎡이 아정 강 영.(조밭은 딱딱하게 밟고. 조밭은 어떤 영감, 할아버지들은 몽둥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103020 #1 지팽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가게끔 여기, 여기 화산토니까.(지팡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들어가게끔 여기, 여기 화산토니까.)
 103020 #2 걸 안 들어가면 웬 거고 걸 들어가면 안 불러졌젠 허는다. 산디는 대수롭게 경 안 해도 돼여.(걸 안 들어가면 된 거고 걸 들어가면 안 밟혔다고 하는데. 밟벼는 대수롭게 그렇게 안 해도 돼.)
 103020 @ 줍쌀 가벼웁 바람에 불러 가불카 부덴?(줍쌀 가벼워서 바람에 불러 가벼릴까 해서?)
 103020 #1 아니, 아니. 조 나무가 크니까.(아니, 아니. 조 나무가 크니까.)
 103020 @ 으.(으.)
 103020 #1 바람 불민 쓰러져 불어.(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려.)
 103020 #2 드러논덴. 조코고리 버청.(드러눕는다고. 조고고리 무거워서.)
 103020 @ 아, 조코고리 버청 쓰러져 분덴.(아, 조고고리 부쳐서 쓰러져 버린다고.)
 103020 #1 이디 화산토이기 땀시.(여기 화산토이기 때문에.)
 103020 @ 예, 예.(예, 예.)
 103040 #2 산디, 산디는 그보단 쉽게 불러.(밭벼, 밟벼는 그보단 쉽게 밟아.)
 103040 @ 산디는 언제 갈양 언제 수확하는 거과?(밭벼는 언제 갈아서 언제 수확하는 겁니까?)
 103040 #1 조팍 끝에.(조밭 끝에.)
 103040 @ 조팍 끝?(조밭 끝?)
 103040 #1 불린 조팍 끝에.(밟은 조밭 끝에.)
 103040 #2 산디 불리는 거?(밭벼 밟는 거?)
 103040 #1 어.(어.)
 103040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40 #2 뭇이라게?(뭇이야?)
 103040 @ 가는 거, 가는 거.(가는 거, 가는 거.)
 103040 #2 산디 이제 흐쉴 시민 불리주게.(밭벼 이제 조금 있으면 밟지.)
 103040 #1 가슬왓디는 하지 전에 허고.(가을밭에는 하지 전에 하고.)

103040 #2 아니, 산디 늦은 산디라사 슬오리 그르에 불르주.(아니, 밭벼 늦은 밭벼라야 쌀보리 그루에 밍지.)

103040 #1 게메게.(그래.)

103040 @ 으.(으.)

103040 #2 게난 망중 전에 저 산디는 불려. 산디는 제일 일찍, 곡식 중에 일찍 불려.(그러니까 망중 전에 저 밭벼는 밍아. 밭벼는 제일 일찍, 곡식 중에 일찍 밍아.)

103040 #1 겐데 요즘은 저, 그 고향더레나 성산읍 쪽으로는 벼, 벼씨를 허주게.(그런데 요즘은 저, 고향으로나 성산읍 쪽으로는 벼, 벼씨를 하지.)

103040 @ 한동⁶⁵)은 안 허고예, 종달⁶⁶) 쪽에는 벼씨 헤낫수다.(한동은 안 허고요, 종달 쪽에는 벼씨 했었습니다.)

103040 #1 게메.(그래.)

103040 @ 종달 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종달 쪽에 그 바닷가 쪽으로.)

103040 #2 농서 중에는 산디를 제일 일찍 헤여.(농사 중에는 밭벼를 제일 일찍 헤.)

103040 @ 산디를 일찍 허여.(밭벼를 일찍 헤.)

103040 #1 겐디 산디라는 건 옛날 밭벼라고 헤서, 옛날.(그런데 밭벼라는 건 옛날 밭벼라고 했어, 옛날.)

103040 @ 밭벼마씨.(밭벼요.)

103040 #1 옛날 거주게.(옛날 거지.)

103041 @ 산디 거름 험니까?(밭벼 거름 험니까?)

103041 #2 아니.(아니.)

103041 @ 안 헤여.(안 헤.)

103041 #1 비료 난 다음엔 비료 헛주.(비료 난 다음엔 비료 헛지.)

103042 @ 그 산디씨는 어떻 뿌려?(그 밭벼 씨는 어떻게 뿌려?)

103042 #1 조씨 뿌리 듯.(조씨 뿌리 듯.)

103042 @ 마찬가지로?(만찬가지요?)

103042 #1 으.(으.)

103042 @ 콩씨나 조씨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로?(콩씨나 조씨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42 #2 어.(어.)

103043 @ 게민 산디는 검질 몇 번 맵니까?(그럼 밭벼는 검 몇 번 맵니까?)

103043 #2 산디는 세 번 맵여. 너무 인척 같아 부난.(밭벼는 세 번 맵. 너무 일찍 같아 버리니까.)

103043 @ 아고게.(아이고.)

65) '한동'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66) '종달'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03043 #2 너무 인척 같아 부난.(너무 일찍 같아 버리니까.)

103043 #1 스끄지만 안 허주.(숙지만 안 하지.)

103043 @ 아. 조는?(아. 조는?)

103043 #2 스끄고.(숙고.)

103043 @ 스끄는 거라예.(숙는 거지요.)

103043 #2 산디 검질은 세불 메여.(밭벼 김은 세벌 매.)

103043 @ 세불 메여. 산디 밧디 나는 검질도 마찬가지로?(세벌 매. 밧벼 밧에 나는 김도 마찬가지로?)

103043 #2 으.(으.)

103043 #1 으, 마찬가지로.(으, 마찬가지로.)

103045 @ 그럼, 산디 수확 어떻, 어떻 거뒀들일 것과?(그럼, 밧벼 수확 어떻게, 어떻게 거뒀들일 겁니까?)

103045 #2 산디, 산디도 수명이 땅에서 곱아서 수확하는 시기가 진 거라. 쥬 인척 산디 농서는 헤신디 빌 때는 ㄱ트게 비여.(밭벼, 밧벼도 수명이 땅에서 곱아서 수확하는 시기가 긴 거야. 쥬 일찍 밧벼 농사는 했는데 벨 때는 같게 베어.)

103045 @ ㄱ트게 비여.(같게 베어.)

103045 #2 응.(응.)

103045 #1 거뒀다근에 보리 홀트듯 홀타.(거뒀다가 보리 훑듯이 훑아.)

103045 #2 것도 홀타.(것도 훑아.)

103045 @ 홀타예. 비여 오는 거나 무끄는 거나 다 보리식으로?(훑아요. 베어 오는 거나 묶는 거나 묶는 거나 다 보리식으로?)

103045 #1 으, 보리식으로.(으, 보리식으로.)

103045 @ 무끌 때 산디쪽으로?(묶을 때 밧벧짚으로?)

103045 #1 으, 산디쪽으로.(으, 밧벧짚으로.)

103045 @ 산디쪽으로예. 홀탕 도리깨질행.(밧벧짚으로요. 훑아서 도리깨질해서.)

103045 #2 홀탕 그거는 보리거치 까스락이 많지 안허니까 두드림이 쉬워, 도리깨질힘이. 홀타만 노민 경 꺼럭지도 안 허고. 보리는 지금 말만 곱아가도 지긋지긋해.(훑아서 그거는 보리같이 까끄라기가 많지 않으니까 두드기가 쉬워. 도리깨질하기가. 훑아만 놓으면 그렇게 까끌하지도 않고. 보리는 지금 말만 해도 지긋지긋해.)

103015 @ 막 간지러워?(아주 간지러워?)

103015 #2 옛날에 그것에 너무 얼먹어 농난.(옛날에 그것에 너무 얼먹어 놓으니까.)

103015 @ 막 몸 간지럽지예?(아주 몸이 간지럽지요?)

103015 #1 아이고.(아이고.)

103015 @ 까실까실해 가지고예?(까슬까슬해 가지고요?)

103015 #2 것도 제 시기에 헤지면은 두루 얼먹는데.(것도 제 시기에 할 수 있으면 덜 얼먹는데도.)

103015 @ 으.(으.)

103015 #2 제 시기에 못 현 사람은 놔뒀당 허민.(제 시기에 못 한 사람은 놔뒀다가 하면.)

103046 @ 경현 산디로는 뭐 해 먹을 거?(그러한 발벼로는 뭐 해서 먹을 거?)

103046 #2 무시거.(무엇.)

103046 @ 산디로는 뭐 해 먹을 거?(발벼로는 뭐 해서 먹을 거?)

103046 #1 곤밥게.(쌀밥.)

103046 @ 곤밥 해 먹고?(쌀밥 해 먹고?)

103046 #2 죽광 밥광 떡.(죽과 밥과 떡.)

103047 @ 음, 죽광 밥광 떡예. 집으로는 짝으로는 뭐 했수과?(음, 죽과 밥과 떡요. 짝으로는, 짝으로는 뭐 했습니까?)

103047 #2 짝으로는 옛날 좋은 산디게 맥도 접곡게.(짝으로는 옛날 좋은 발벼는 망태기도 접고.)

103047 #1 명석도 접고.(명석도 접고.)

103047 #2 명석도 접고.(명석도 접고.)

103047 #1 방식도 접곡 다.(방식도 접고 다.)

103047 @ 산디직으로 접는 거?(발벼짚으로 접는 거?)

103047 #2 응.(응.)

103047 #1 여긴 나룩찍이, 벗찍이 없으니까게.(여긴 벗짚, 벗짚이 없으니까.)

103047 @ 아니 그 새로 안 하고, 집 짓을 때 새?(아니 그 새로 안 하고, 집 지을 때 새?)

103047 #2 집 짓을 땐 새로 허고.(집 지을 땐 새로 하고.)

103047 @ 새로 허고.(새로 하고.)

103047 #2 멩텅이 헐 때.(망태기 할 때.)

103047 #1 아, 여기 멩텅이.(아, 여기 망태기.)

103047 @ 응, 멩텅이.(응, 망태기.)

103047 #1 새 익기 전에 퍼렁헐 때 해다가.(새 익기 전에 파랄 때 해다가.)

103047 #2 건 사치, 사치로.(건 사치, 사치로.)

103047 @ 아.(아.)

103047 #1 사치로 허는 거지 건 그건.(사치로 하는 거지 그건.)

103047 @ 산디직으로 허는 거라예, 예.(발벼짚으로 하는 거지요, 예.)

고구마 농사

103049 @ 저기 감저 농서짓게예. 감저 농서짓젠 허민 뭐, 뭐 준비해야 돼?(저기 고구마 농사지어요. 고구마 농사지으려고 하면 뭐, 뭐 준비해야 돼?)

103049 #2 모중, 모중 고구마. 지금 낱 남주게.(모중, 모중 고구마. 지금 놓아서 나고 있지.)

103050 @ 아, 지금 모종 놓는 시기?(아, 지금 모종 놓는 시기?)

103050 #2 놓양 낫주.(놓아서 낫지.)

103050 @ 아, 난 거예. 모종, 모종 미리 준비행.(아, 난 거요. 모종, 모종 미리 준비해서.)

103050 #2 그 꼴을 막 정성 들영 키워야주게.(그 덩굴을 아주 정성 들여서 키워야지.)

103050 @ 음.(음.)

103050 #2 키우노렌 허민 이제.(키운다고 하면 이제.)

103050 #1 밧 초불 같고.(밭 초벌 같고.)

103050 #2 밧 초불 갈아근에 혼 십오 일 잇다근에. 감저 놀 시기 한 십오 일 전이 초불 갈앗당 감저 놀 시기가, 옛날은 소설이 다 근당해사 났어.(밭 초벌 갈아서 한 십오 일 잇다가. 고구만 놓을 시기 한 십오 일 전에 초벌 갈았다가 고구마 놓을 시기가, 옛날은 소설에 다 가까워야 났어.)

103050 @ 음.(음.)

103050 #2 요즘은 하지에 놓는다.(요즘은 하지에 놓는데.)

103050 #1 건데 소설 넘으면은.(그런데 소서를 넘으면.)

103050 #2 죽어 불어.(죽어 버려.)

103050 #1 죽, 이 더위가 심허니까 죽넨 해근에 소서날 오전 오후가 틀린덴 헛어.(죽, 이 더위가 심하니까 죽는다고 해서 소서날 오전 오후가 틀리다고 했어.)

103050 @ 아.(아.)

103050 #2 겐 소서 전이.(그래서 소서 전에.)

103050 #1 여기서 유월절⁶⁷⁾, 유월절 허메.(여기서 ‘유월절’, ‘유월절’ 해.)

103050 #2 그 꼴 그창 시꺼갈 수 엇인 사름은.(그 덩굴 끊어서 실어갈 수 없는 사름은.)

103050 #1 등짐으로 지엿주.(등짐으로 지엿지.)

103050 #2 다 배로 지어당.(다 바로 지어다가.)

103050 @ 묘종은 얼마나 키웁니까? 언제 심경 언제? 지금 따는 거?(모종은 얼마나 키웁니까? 언제 심어서 언제? 지금 따는 거?)

103050 #1 놀 때 돼야.(놓을 때 돼야.)

103050 @ 빌 거니까?(벨 거니까?)

103050 #1 으.(으.)

103050 #2 그때 돼민.(그때 되면.)

103050 @ 키우는 시기가 언제인 거?(키우는 시기가 언제인 거?)

103050 #2 키우는 시기가 게메.(키우는 시기가 그러게.)

103050 #1 지금부터게.(지금부터.)

103050 @ 지금부터 소서까지?(지금부터 소서까지?)

67)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103050 #1 으.(으.)

103050 #2 게민 그 빛이 뜰린가 이만이 건 사름도 잇고 요만이 현 사름도 잇고.(그럼 그 빛이 틀려서인가 이만큼 건 사람도 있고 요만큼 한 사람도 있고.)

103050 @ 하하.(하하.)

103050 #2 꼴이 구구 각색이라.(덩굴이 구구 각색이야.)

103050 #1 옛날 웨감저엔 현 건 요만이베끼 안 헛고 흰감저엔 현 건 이만이 현 것도 있고.(옛날 ‘웨감저’라고 한 건 요만큼밖에 안 했고 흰고구마라고 한 건 이만큼 한 것도 있고.)

103050 @ 아.(아.)

103050 #2 게난 그거 끈어다가 그 때 그자 심으면 웨는 거난.(그러니까 그거 끊어다가 그때 그저 심으면 되는 거니까.)

103050 @ 아.(아.)

103050 #2 밧 두불 갈앙.(밭 두벌 갈아서.)

103050 @ 밧 두불 갈앙예.(밭 두벌 갈아서요.)

103050 #1 두불 갈 디, 초불 갈앙 이 듬복이엔 현 거.(두벌 갈 데, 초불 갈아서 이 듬복이라고 한 거.)

103050 @ 으.(으.)

103050 #1 요즘 말썽 피우는 거.(요즘 말썽 피우는 거.)

103050 @ 으.(으.)

103050 #1 저거 들렛당, 저 그레, 서촌⁶⁸⁾더레 가민 요 높은 데가 고랑이엔 허는 디 여긴 야픈 디가 고랑이엔 허주게.(저거 말렸다가 저 맷돌, ‘서촌’으로 가면 요 높은 데가 ‘고랑’이라고 하는 데 여긴 얇은 데가 ‘고랑’이라고 하지.)

103050 @ 어, 야픈 데가 고랑? 그럼 노픈 데는?(어, 얇은 데가 ‘고랑’? 그럼 높은 데는?)

103050 #1, 2 판이.(두둑.)

103050 @ 여기 고랑 우에는 판이?(여기 고랑 위에는 두둑.)

103050 #1, 2 으.(으.)

103050 @ 판이에.(두둑요.)

103050 #2 고지도 여기 사름은 고지엔 안 헤여.(이랑도 여기 사름은 이랑이라고 안 해.)

103050 #1 여기 사름은 고지엔 안 헤여.(여기 사름은 이랑이라고 안 해.)

103050 @ 그럼?(그럼?)

103050 #2 저 서쪽 사름이나 동쪽 사름은 고지엔 허는디.(저 서쪽 사름이나 동쪽 사름은 이랑이라고 하는데.)

103050 @ 음, 여긴 뉘렌 곶아?(음, 여긴 뉘라고 말해?)

103050 #2 판이.(‘판이’.)

68) ‘서촌’은 서쪽 지역을 가리킨다.

103050 #1 고랑허고 판이.(‘고랑’하고 ‘판이’.)
103050 @ 판이에.(두둑요.)
103050 #2 뜰러 말 곤는 거.(뜰러 말 하는 거.)
103051 @ 말 곤는 거 뜰러, 트나마씨? 그민 거름은 아까?(말 하는 거 뜰러, 뜰
립니까? 그럼 거름은 아까?)
103051 #1 저 들망게.(저 모자반.)
103051 @ 들망 해 놔 가지고예.(모자반 해 놓아 가지고요.)
103051 #1 보리찍 이신 사름은 보리찍도 허고.(보릿짚 있는 사름은 보릿짚도 하
고.)
103051 @ 계민, 초불 갈양 거름을 하는 거?(그럼, 초벌 갈고 거름을 하는 거?)
103051 #2 으.(으.)
103051 #1 이 고랑에 쪽 놔.(이 고랑에 쪽 놔.)
103051 @ 으.(으.)
103051 #1 겐 두불 갈민 거 묻어지는 거.(그래서 두벌 갈면 거 묻히는 거.)
103051 #2 고랑이 또 판이 웨는 거주게.(고랑이 또 두둑 되는 거지.)
103051 @ 아.(아.)
103051 #1 고랑이 판이 텔 거난.(고랑이 두둑이 될 거니까.)
103051 #2 소 많이 질랑 한 사름은 통시에 퍼 놓다도 남양 또.(소 많이 길러서
많은 사름은 돼지우리에 퍼 놓다가도 남아서 또.)
103051 #1 쉼결름이나 보리찍이나 듬복이나.(쇠두엄이나 보릿짚이나 듬복이나.)
103051 @ 음.(음.)
103051 #2 보리찍은 주로 안 농곡 감저 죽어 분텐 허멍.(보릿짚은 주로 안 놓고
고구마 죽어 버린다고 하면서.)
103051 @ 음, 산디찍 놓고?(음, 밭벗짚 놓고?)
103051 #1 산디찍이 아니라 들망.(밭벗짚이 아니라 모자반.)
103051 #2 쉼결름, 쉼결름.(쇠두엄, 쇠두엄.)
103052 @ 갖다 놓면예.(갖다 놓으면요.)
103052 #2 으.(으.)
103052 @ 계민 고구마 심을 때, 감저 심을 때는 그거 해당 간격 놔 가지고 영
영?(그럼 고구마 심을 때, 고구마 심을 때는 그거 해다가 간격 놔 가지고 이렇게 이
렇게?)
103052 #1 으.(으.)
103052 #2 요만씩 잘랑게 잘랑 그자.(요만큼씩 잘라서 그저.)
103052 @ 손으로?(손으로?)
103052 # 으.(으.)
103052 #2 놔 갈 겨주.(놔 갈 거지.)
103050 @ 두불 가는 거는 그거 싱그는 날 가는 거?(두벌 가는 거는 그거 심는

날 가는 거?)

103050 #1 2 으.(으.)

103050 #2 싱그는 날. 가는 날 싱거 불지 안 허민 아차 허당 비나 와 불민 굳어져 불어.(심는 날. 가는 날 심어 버리지 않으면 아차 하다가 비나 와 버리면 굳어져 버려.)

103052 @ 굳어져 불어예. 가는 날 폭폭 손으로 집어넣는 거?(굳어져 버려요. 가는 날 폭폭 손으로 집어넣는 거?)

103052 #2 으. 세상 엇어도.(으. 세상 없어도.)

103052 #1 양손으로 그것도.(양손으로 그것도.)

103050 #2 것도 속상헌 일이라. 자기 소가 엇인 사름은 놉 빌었다근에, 밧 가는 사름이영 소영 빌엇당 그날 허당 밧은 조금 남았는데 비가 오랑 못 허민 갈양 내불민 뒷날은 놓젠 허민 딱 절여 뵙.(것도 속상한 일이야. 자기 소가 없는 사름은 놉 빌었다가, 밧 가는 사름과 소와 빌었다가 그날 하다가 밧은 조금 남았는데 비가 와서 못 하면 갈아서 내버리면 뒷날은 놓으려고 하면 딱 절여 버려서.)

103050 @ 못 허여예.(못 하지요.)

103050 #2 이녁대로 헤지는 사름은 딱 맞추앙 설렀다가 따시 허는다.(자기대로 할 수 있는 사름은 딱 맞춰서 끝냈다가 다시 하는데.)

103053 @ 아이구, 아이구 엇이민예. 감저 밧디도 검질뵙니까?(아이고, 아이고 없으면요. 고구마 밧에도 김뵙니까?)

103053 #2 메주게.(매지.)

103053 @ 몇 번이나?(몇 번이나?)

103053 #2 혼 번.(한 번.)

103053 @ 혼 번. 그 감저 싱근 거 소끄거나는 안 하잖아예.(한 번. 그 고구만 심은 거 슈거나 안 하잖아요.)

103053 #2 안 허여.(안 해.)

103053 @ 막 줄 뵙으렌 허는 거난.(막 줄 뵙으라고 하는 거니까.)

103053 #2 으게. 줄 그레 찢러 부난.(으. 줄 그리 찢러 버리니까.)

103054 @ 찢러 부난예. 감저 밧디 검질 특별헌 거 잇수과?(찢러 버리니까요. 고구마 밧에 김 특별한 거 있습니까?)

103054 #2 엇어, 특별헌 거 엇이 그자 제환지 같은 거.(없어, 특별헌 거 없이 그저 바랭이 같은 거.)

103053 #1 옛날에는 건데 요 근래에 와서는 수돗 둔다고 해서 그 고랑을 갈았어.(옛날에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북을 올린다고 해서 그 고랑을 갈았어.)

103053 @ 음.(음.)

103053 #1 갈아 불민 검질뵙이 쉽주.(갈아 버리면 김매기가 쉽지.)

103053 #2 계난 감저왓디 제환지 아니민 해바라기⁶⁹, 득쿨 거 주로 그거.(그러

69) '해바라기'는 김 이름의 하나다.

니까 고구마밭에 바랭이 아니면 ‘해바라기’, 여우구슬 거 주로 그거.)

103055 @ 음. 계민 수확할 때 줄을 먼저 걷어마씨?(음, 그럼 수확할 때 줄을 먼저 걷습니까?)

103055 #2 음.(음.)

103055 #1 줄 걷어야지, 줄도 안 걷엉.(줄 걷어야지, 줄도 안 걷고.)

103055 @ 수확하는 거 곱아 줘서. 수확 어떻게.(수확하는 거 말해 주세요. 수확 어떻게.)

103055 #2 줄 걷주게, 줄 걷엉 파는 거주게.(줄 걷지. 줄 걷어서 파는 거지.)

103055 @ 걷어 덩 그날 ㄴ치 파.(걷어 두고 그날 같이 파.)

103055 #2 으.(으.)

103055 #1 그날이든 뒷날이든.(그날이든 뒷날이든.)

103055 #2 뒷날이든 건 상관없이.(뒷날이든 건 상관없이.)

103055 @ 파는 건 골갱이로 그냥 앓앙?(파는 건 호미로 그냥 앓아서.)

103055 #1 으.(으.)

103056 @ 계민 감저 보관은 어떻 할 거과?(그럼 고구마 보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3056 #2 그뎨 그러난 집이, 지금은 돌 우이도 집 짓어도이 그뎨이 땅 소굽에 벌레 앓는 디 사람이 살아야 돼여. 이 우жат 울타리에 감저가 얼마 죽은 창고만이 구덩일 파야 돼여.(그뎨 그러니까 집에, 지금은 돌 위에도 집 지어도 그뎨 땅 속에 너럭바위에 앓는 데 사람이 살아야 돼. 이 울안 울타리에 고구마가 얼마 작은 창고만큼 구덩이를 파야 돼.)

103056 @ 으.(으.)

103056 #2 겨울 내내 먹영 살젠 허민.(겨울 내내 먹고 살려고 하면.)

103056 @ 으.(으.)

103056 #2 구덩일 파근에 둥그렇게 팡, 나 들어사면 이디가 무쪽무쪽하게 팡 그 조칩이 그렇게 아까와도 조칩으로 딱 땅에 돌아가명 파짝 세왕 구들 거치 만들 앙 밑에 깔고.(구덩일 파서 둥그렇게 파서, 내가 들어서면 여기가 ‘무쪽무쪽’하게 파서 그 조짚이 그렇게 아까워도 조짚으로 딱 땅에 돌아가면서 곧게 세워서 구들 같이 만들어서 밑에 깔고.)

103056 @ 아.(아.)

103056 #2 경혜영 그레 막 실러다 놓주게.(그렇게 그리 마구 실어다 놓지.)

103056 @ 아.(아.)

103056 #2 막 텔 수 시민 걱죽 안 벗어지게 조심하게 해도 막 벗어져. 쟁 막 실어다 놔근에 이제 땅에 우터레도 조칩 허명 이만이 해근에 죽은 놀 거치 이만이 헤영 느람쥐 알아, 느람쥐.(마구 텔 수 있으면 걱죽 안 벗겨지게 조심해서 해도 마구 벗겨져. 그래서 마구 실어다 놓고서 이제 땅에 위로도 조짚 하면서 이만큼 해서 작은 가리 같이 이만큼 해서 이영 알아, 이영.)

103056 @ 으.(으.)

103056 #1 흑을 올려.(흑을 올려.)

103056 @ 느람쥐?(이영?)

103056 #2 흑 올리명.(흑 올리면서.)

103056 #1 흑 올려냥 그 우티 느람쥐 더꺼.(흑 올려놓고 그 위에 이영 덮어.)

103057 #2 갱 겨울 내냥 그거 먹고 또.(그렇게 해서 겨울 내내 그거 먹고 또.)

103057 #1 씨 허고.(씨 하고.)

103057 #2 뺏데기 해연에 이제 막 그거 배로 가명 풀다가 그 조금 시대가 지나 난 공장이 생겨 노니까.(절간고구마 해서 이제 막 그거 배로 가면서 팔다가 그 조금 시대가 지나니까 공장이 생기니까.)

103057 @ 음.(음.)

103057 #2 전분 공장 생기기 전에는 그 왜정 시대에.(전분 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 왜정 시대에.)

103057 #1 자기 먹을 만치씩만 해.(자기 먹을 만큼씩만 해.)

103057 #2 왜정 시대는 감저 뺏데기를 해서 나갔어.(왜정 시대는 고구마 절간고구마를 해서 나갔어.)

103057 @ 으.(으.)

103057 #2 어디 원, 나 두려 부난 저 육지사 감신지 일본사 감신지 그뻐.(어디 원, 내가 어려 버리니까 저 육지에 가는지 일본에 가는지 그뻐.)

103057 #1 알콜 공장으로.(알코올 공장으로.)

103057 #2 일본 놈광 그뻐 우리가 일본 놈광 쨍쨍 살 때난.(일본 놈과 그뻐 우리가 일본 놈과 쨍쨍 살 때니까.)

103057 @ 으.(으.)

103057 #2 경 험 우리 남원리 이 집 높이 두 개만씩 허게 두 눌 헛단에 해방 뤄난 그 사름덜 탈탈 털어 된 돌아나 부난에 것도 다 썩으멍 헛주만은 그거 지나니까 전분 공장이 생기더라고.(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리 이 집 높이 두 개만큼씩 하계 두 가리 했다가 해방 되니까 그 사람들 탈탈 털어 두고 달아나 버리니까 것도 다 썩으면서 했지만 그거 지나니까 전분 공장이 생기더라고.)

103057 @ 음.(음.)

103057 #2 전분 공장에 그자 풀고.(전분 공장에 그저 팔고.)

103056 @ 음. 저 감저 늘 늘어 가지고 홍파 불민 감저 썩어 불지 안해?(음. 저 고구마 가리를 가려 가지고 홍파 버리면 고구마 썩어 버리지 않아?)

103056 #1 아니, 우이로 파명 먹는 거주.(아니, 위로 파면서 먹는 거지.)

103056 @ 위로 파명 먹는 거.(위로 파면서 먹는 거.)

103056 #1 여긴 감저 구뎡이엔 해여. 감저 구뎡이.(여긴 고구마 구뎡이라고 해. 고구마 구뎡이.)

103056 #2 우를 요만 현 우로.(위를 요만큼 한 위로.)

103056 @ 구멍 넣어.(구멍 넣어.)

103056 #2 영 헨, 이추록 헨 내허주게, 내허민.(이렇게 해서 이처럼 해서 내지, 내면.)

103056 #1 걸로 숨통.(걸로 숨통.)

103056 #2 주지가 잇주게. 주지.(주저리가 있지.)

103056 @ 예, 예.(예, 예.)

103056 #2 주지 톱 더젓다근에 이제 그 거시기 감저 거튼 거 도수를 맞출라면 감저 파젠 강 주지를 열민 더운 김이 속으로 푹 나는 것이 있어.(주저리 톱 덮었다가 이제 그 거시기 고구마 같은 거 도수를 맞추려면 고구마 파려고 가서 주저리를 열면 김이 속으로 푹 나는 것이 있어.)

103056 @ 으.(으.)

103056 #2 그렇게 허당은 텃앙 썩어 불고이.(그렇게 하다가 따뜻해서 썩어 버리고.)

103056 @ 음.(음.)

103056 #2 또 흙을 덜 올리거나 어떻게 허민, 도술 못 맞추민 또 썩어불 고이 그추록 허난 그디.(또 흙을 덜 올리거나 어떻게 하면, 도술 못 맞추면 또 썩어 버리고 것처럼 하나까 거기.)

103056 @ 도수를 못 맞추면?(도수를 못 맞추면?)

103056 #2 그디 구덩이에 감저 놔근에 지금도록 꼬작 잇나 허는 것은 막 기술이다 싶은 도수라.(거기 구덩이에 감저 놔서 지금까지 끈게 잇나 하는 것은 아주 기술이다 싶은 도수야.)

103056 @ 아.(아.)

103056 #2 흔 반 저슬만 나민 아이구 우린 감저 텃안 문 썩어 불었저. 아이고 우린 얼어신고라 문 썩엄저. 경허민 봄 나도록 먹어, 양식할 거 먹얼저? 썩어 불영.(한 반 가을만 나면 아이고 우린 고구마 따뜻해서 모두 썩어 버렸어. 아이고 우리 추웠는지 모두 썩고 있어. 그러면 봄 되도록 먹어. 양식할 거 먹을 수 있어? 썩어 버려서.)

103056 @ 아.(아.)

103056 #2 못 먹어.(못 먹어.)

기타 농사

103060 @ 저기 수박 농서지어났수과?(저기 수박 농사지었습니까?)

103060 #2 아니.(아니.)

103060 #1 이디 그런 것덜은 안 허여.(여기 그런 것들은 안 해.)

103061 @ 참웨?(참외?)

103061 #1 참웨도 이레덜은.(참외도 이리들은.)

103062 @ 고추?(고추?)

103062 #1 고추는 자기 먹을 거주.(고치는 자기 먹을 거지.)

103062 #2 먹을 거.(먹을 거.)

103062 @ 자기 먹을 거예. 고추. 고추 농산 어떻게 짓는 거? 씨 뿌립니까, 묘종을 심습니까?(자기 먹을 거요. 고추, 고추 농산 어떻게 짓는 거? 씨 뿌립니까, 묘종을 심습니까?)

103062 #1 그 전인 씨 뿌려서 했는데 이제는 모종으로 사당 해여.(그 전엔 씨 뿌려서 했는데 이제는 모종으로 사다가 해.)

103062 #2 사당도 허고 모종 낱도 허고.(사다가도 하고 모종 놓고도 하고.)

103062 @ 모종 낱당?(모종 낱다가?)

103062 #2 으. 저처럼 푸는 거 7친 안 해도 바라⁷⁰)로 낱 놔두면 심을 만치 웨여.(으. 저처럼 푸는 거 같이는 안 해도 낱개로 놓고 놔두면 심을 만큼 돼.)

103062 @ 으, 집에서 먹을 건예?(으, 집에서 먹을 건요?)

103062 #2 으.(으.)

103063 @ 배추는?(배추는?)

103063 #1 배추는 나 인척이 말했주만은 배추는 여기서 개량 배추 나온 지가 얼마 안 웨여.(배추는 나 아까 말했지만 배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103063 @ 음.(음.)

103063 #1 개량 배추는 육십년도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어.(개량 배추는 육십년도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어.)

103063 @ 으.(으.)

103063 #1 결구배추는. 그 전에는 여기도 좀 사는 사람덜은 함덕 배추 왓수다, 함덕 배추 왓수다 허민 그걸 사서.(결구배추는. 그 전에는 여기도 좀 사는 사람들은 함덕 배추 왓습니다, 함덕 배추 왓습니다 하면 그걸 사서.)

103063 @ 사다 먹었구나.(사다 먹었구나.)

103063 #1 김치 헛주게.(김치 했지.)

103063 @ 무우 농사는?(무 농사는?)

103063 #1 무수도 요 근방엔 안 돼 가지고 남원읍에서는 주로 수망리⁷¹)나 신례리⁷²) 가서 사다 먹었지.(무도 요 근방엔 안 돼 가지고 남원읍에서는 주로 수망리나 신례리 가서 사다 먹었지.)

103063 #2 지금은 잘만 돼는디.(지금은 잘만 되는데.)

103063 @ 지금은 잘만 돼는디예.(지금은 잘만 되는데요.)

103063 #1 거 이 돛걸름 밧이엔 해근에 보리 갈아 텡 소에나 말에다가 멩텅이 시경 강 여기서 상 시경.(거 이 돼지거름 밧이라고 해서 보리 갈아 두고 소에나 말에다가 망태기 싣고 가서 여기서 서서 실어.)

103065 @ 지슬 같은 거, 지슬 농사는?(감자 같은 거, 감자 농사는?)

70) '바라'는 일본어 'ばら'에서 온 말로 '낱개'의 의미다.

71) '수망리'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72) '신례리'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03065 #2 거 이녁 먹을 거나베끼 안 한다.(거 자기 먹을 거나밖에 안 한다.)

103065 #1 여기는 이제도 장사로 허는 사름 엇어. 이녁 먹을 거만.(여기는 이제 도 장사로 하는 사람 없어. 자기 먹을 거만.)

103065 @ 지슬 먹을 거 허젠 허민 어떻 해야 돼, 거 모중은?(감자 먹을 거 하 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 모중은?)

103065 #2 지슬 놓는 건 수월해여.(감자 놓는 건 수월해.)

103065 #1 옛날에는 여기 가을 농서는 안 했는데, 봄 나면은 쪼개 가지고 눈 보 명 쟁 심어 가지고.(옛날에는 여기 가을 농사는 안 했는데, 봄 되면 쪼개 가지고 눈 보면서 그렇게 심어 가지고.)

103065 @ 으, 감저, 지슬 눈 나는 거 보멍?(으, 고구마, 감자 눈 나는 거 보면 서?)

103065 #1 어.(어.)

103065 #2 봄에는 눈을 하나씩만 부청 뽀개도 좋는데 이제 여름 지슬은 놀 때 뽀개면은 썩어 불영 잘잘한 거로 통차 놔야 돼여.(봄에는 눈을 하나씩만 붙여서 깨 도 좋는데 이제 여름 감자는 놓을 때 깨면 썩어 버려서 자잘한 거 통채 놔야 돼.)

103065 @ 아.(아.)

103065 #2 땅이 더우니까.(땅이 더우니까.)

103065 @ 더우니까예?(더우니까요?)

103065 #2 으.(으.)

103066 @ 저기 피 농사 헛수과?(저기 피 농사 했습니까?)

103066 #1 아니, 이레 안 해.(아니, 이리 안 해.)

103067 @ 믰물, 믰물, 믰물은 헛잖아예?(메밀, 메밀, 메밀은 헛잖아요?)

103067 #2 으, 믰물은.(으, 메밀은.)

103067 @ 믰물 농서는 어떻 지읍니까?(메밀 농사는 어떻게 짓습니까?)

103067 #1 여기는 믰물 농사 양력으로 팔월 십오일 기준, 전후 사일.(여기는 메 밀 농사 양력으로 팔월 십오일 기준, 전후 사일.)

103067 #2 그렇게 해서 가을이 돼니까 음식 만들기도 곧 노민 익어 불어.(그렇 게 해서 가을이 되니까 음식 만들기도 곧 놓으면 익어 버리고.)

103067 @ 아.(아.)

103067 #1 그러면은 밧을 흙을 쳐.(그러면 밧을 흙을 쳐.)

103067 @ 믰물 죽도 곧 돼 불고.(메밀 죽도 곧 돼 버리고.)

103067 #2 고랑을 내면은 불치에.(고랑을 내면 재에.)

103067 @ 불치에.(재에.)

103067 #2 믰물 씨 서터 가지고 여저덜이 툃툃 집아 놔.(메밀 씨 섞어 가지고 여자들이 툃툃 집어 놔.)

103067 @ 아.(아.)

103067 #1 수제비 집아 놓듯이.(수제비 집어 놓듯이.)

103067 #2 이제는 다 씨 뿌린 험서.(이제는 다 씨 뿌려서 하고 있어.)
 103067 @ 아, 불치 씨 이거는.(아, 재 씨 이거는.)
 103067 #1 불치에 서터 가지고.(재에 섞어 가지고.)
 103067 @ 예.(예.)
 103067 #2 믰물 씨 씨 서꺼살 거, 믰물 씨 씨 서꺼살 거.(메밀 씨 씨 섞어야 할 거, 메밀 씨 섞어야 할 거.)
 103067 #1 겐디 이제는 비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그런데 이제는 비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103067 @ 예.(예.)
 103067 #1 거름을 안 해도 돼니까 뿌려 가지고 해도 된다 이거지.(거름은 안 해도 되니까 뿌려 가지고 해도 된다 이거지.)
 103067 @ 음.(음.)
 103067 #1 옛날에야 다 불치로 했지.(옛날에야 다 재로 했지.)
 103067 @ 그러면 믰물 갈 때 밧 갈앙.(그러면 메밀 갈 때 밧 갈아서.)
 103067 #1 이렇게 흙을 쳐.(이렇게 흙을 쳐.)
 103067 @ 흙을 쳐.(흙을 쳐.)
 103067 #2 두 번, 두 번 갈앙 세 번차 즐즐하게 흙을 쳐야 돼여.(두 번, 두 번 갈아서 세 번째 자잘하게 흙을 쳐야 돼.)
 103067 @ 음.(음.)
 103067 #1 초불 갈고 두불 갈고.(초벌 갈고 두벌 갈고.)
 103067 #2 세 번째.(세 번째.)
 103067 #1 세 번째는 흙만 쳐.(세 번째는 흙만 쳐.)
 103067 @ 음.(음.)
 103067 #1 겨민 더우면은 초불 갈 적에는, 초불, 두불 갈 때는 들밤에.(그러면 더우면 초벌 갈 적에는, 초벌, 두벌 갈 때는 달밤에.)
 103067 @ 들밤이.(달밤에.)
 103067 #1 밧 갈아.(밭 갈아.)
 103067 @ 밧 갈아.(밭 갈아.)
 103067 #2 낮에 더우니까. 소가 세 내왕 못 가주, 소가 세만 헬레레⁷³⁾ 허멍.(낮에 더우니까. 소가 혀 내밀어서 못 가지. 소가 혀만 ‘헬레레’ 하면서.)
 103067 @ 아, 더웁. 하하.(아, 더워서. 하하.)
 103067 #2 막 더웁 쉼 곳으민 니치름만 찰찰 허멍 소가 경.(아주 더워서 소 끌면 침만 찰찰 하면서 소가 그렇게.)
 103067 @ 하하.(하하.)
 103067 #1 그렇지 안허민 아침 새벽이 허고 저녁 때만 밧 갈고.(그렇지 않으면 아침 새벽에 하고 저녁 때만 밧 갈고.)

73) ‘헬레레’는 더위에 소가 혀를 내밀어 늘어뜨린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3067 #2 으.(으.)

103068 @ 더워 부난. 저기 담배도 해낫수과?(더워 버니니까. 저기 담배도 했었 습니까?)

103068 #1 아니, 우리 담배 안 허여.(아니, 우리 담배 안 해.)

103067 @ 게민 므물 아까 갈앗잖아예. 므물 들일 때는 어떻게?(그럼 메밀 아까 갈앗잖아요. 메밀 들일 때는 어떻게?)

103067 #2 므물은 갈면은 그거 소끄지도, 좇으나 드무난 안 허는 거난 내벳당. (메밀은 갈면 그거 슈지도, 촘촘하거나 드물거나 안 하는 거니까 내버렸다가.)

103067 @ 검질메여?(김매?)

103067 #2 검질도 안 매고.(김도 안 매고.)

103067 #1 검질 안 매여.(김 안 매.)

103067 #2 멜 시기가 엇어서. 팔월 십오일에 갈민 무시거 그거 잠깐 시간에 열 앙 거 익으면은.(멜 시기가 없어서. 팔월 십오일에 갈면 무엇 그거 잠깐 시간에 열 어서 거 익으면.)

103067 #1 시월 초순 돼민 거뒤.(시월 초순 되면 거뒤.)

103067 #2 시월 초순 돼면은 막 쎌 브름 불면은 잘 안 허민 털어져 부는 수도 싯고.(시월 초순 되면 아주 쎌 바람이 불면 잘 안 하면 떨어져 버리는 수도 있고.)

103067 @ 예.(예.)

103067 #2 하영 브름 불민 털어져. 므물이 부뜬 것도 약해 놔서. 그 므물 방울 에 부뜬 것이 실밥 거치 덩글덩글⁷⁴) 해노난 므물도 비어다근에, 므물은 밧디서 주 로 허는 사름도 싯고 그렇지 았으면 아저당 영 도리께질헐 도리만 내베당, 이것이 마당이라면 이렇게 꼬작 세와.(많이 바람 불면 떨어져. 메밀이 붙은 것도 약해서. 그 메밀 방울에 붙은 것이 실밥 같이 ‘덩글덩글’ 하니까 메밀도 비어다가, 메밀은 밧에서 주로 하는 사름도 있고 그렇지 았으면 가져다가 이렇게 도리께질할 부분만 내버려두고, 이것이 마당이라면 이렇게 곧게 세워서.)

103067 #1 콩 허는 거나 마찬가지로.(콩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67 #2 세와서 그걸 도리께를.(세워서 그걸 도리께를.)

103067 #1 두드려 가민 혼 사름 또 잡아 논텐 해근에.(두드려 가면 한 사름 또 잡아 놓는다고 해서.)

103067 #2 집어 노명 그걸 두드렁.(집어 놓으면서 그걸 두드려서.)

103067 @ 으.(으.)

103067 #2 털영 그.(털면서.)

103067 @ 장만은?(장만은?)

103067 #2 게 그거 도리께로 두드리민 장만이 웨는 거주게.(그렇게 그거 도리께 로 두드리면 장만이 되는 거지.)

103067 @ 꺾질 벳기는 거는?(꺾질 벳기는 거는?)

74) ‘덩글덩글’은 메밀 방울이 덩어리져 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3067 #1 그건 방앗간에 안 가. 이 저 밀방에엔 안 가.(그건 방앗간에 안 가. 이 연자방앗간엔 안 가.)

103067 @ 아, 그럼 여기서, 정마레에서 마는 거?(아, 그럼 여기서, 풀맷돌에서 가는 거?)

103067 #2 어.(어.)

103067 #1 으. 정마레에서 거퍼. 거핀텐 허는 건 쓸 내는 거.(으. 풀맷돌에서 거퍼해. 거피한다고 하는 건 쓸 내는 거.)

103067 @ 쓸 내는 거예.(쓸 내는 거요.)

103067 #1 또 마레로 끌고프민 것도.(또 맷돌로 갈고 싶으면 것도.)

103067 #2 막 거평 쓸 내우고. 막 먹을 사름은 급허면 믰물만 물렁 믰물로 겁덕차 그대로 갈아이.(아주 거피해서 쓸 내고. 막 먹을 사름은 급하면 메밀만 말려서 메밀로 껌데기째 그대로 갈아.)

103067 #1 보차⁷⁵⁾ 곤텐 허영.(껌질째 간다고 해서.)

103067 #@ 겁덕차 곁면은 마루가 그 믰물마루가 겁덕 부서진 것이 가물가물 현 것이 섞여져도 보찰 믰물마루.(껌데기째 갈면 가루가 그 메밀가루가 껌데기 부서진 것이 가물가물한 것이 섞여도 ‘보찰’ 메밀가루.)

103067 @ 그것도 경 헨도 먹읍니까?(그것도 그렇게 해서도 먹읍니까?)

103067 #2 먹주게. 범벅.(먹지. 범벅.)

103067 @ 하하.(하하.)

103067 #2 주로 그런 건 범벅 헤영.(주로 그런 건 범벅 해서.)

103067 #1 엇영 못 먹어. 아니 요즘 사름도 그거 행 주민 잘 먹어.(없어서 못 먹어. 아니 요즘 사람도 그거 해서 주면 잘 먹어.)

103067 @ 하하하.(하하하.)

103067 #2 감저 놓고 범벅 허영. 옛날엔 그 감저는 많이 놓고 그 마루 흐쓸만 놔근에 감저에 문대여 노민 거 오죽 맛좋아.(고구마 넣고 범벅 해서. 옛날엔 그 감저는 많이 놓고 그 가루 조금만 놔서 고구만 문대여 놓으면 거 아주 맛있어.)

103067 @ 아, 겁덕차 해 가지고.(아, 껌데기째 해 가지고.)

103067 #2 보찰 믰물마루. 거퍼서 헐.(‘보찰’ 메밀가루. 거피해서 할.)

103067 @ 다시 한 번 보, 뭐?(다시 한 번 보, 뭐?)

103067 #2 보찰, 보차.(‘보찰’, ‘보차’)

103067 @ 아, 보차.(아, ‘보차’.)

103067 #1 껌질이엔 현 말해주게.(껌질이라고 하는 말이지.)

103067 @ 아, 보찰 믰물마루.(아, ‘보찰’ 메밀가루.)

103067 #1 보따리라고 쓰는.(보따리라고 쓰는.)

103067 @ 아.(아.)

103067 #2 으, 거평헌 거는 거핀 마루는 진마루이.(으, 거피해서 거는 거피한 가

75) ‘보차’는 메밀 ‘껌질째’의 의미로, ‘보차 곤다’는 메밀을 껌질째 가루로 간다는 의미다.

루는 진가루.)

103067 @ 음.(음.)

103067 #2 거평 쌀로 곤 거는 진가루. 멥쌀로만 곤 건 보챗가루.(거피해서 쌀로 곤 거는 진가루. 메밀로만 곤 건 보챗가루.)

103067 @ 보챗가루, 으.(‘보챗’ 가루, 으.)

103067 #2 응.(응.)

103067 @ 알아지쿠다.(알겠습니다.)

103067 #2 이젠 다 끝하시냐?(이젠 다 말했나?)

103067 @ 오늘은 다 끝안마씨.(오늘은 다 말했습니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 길러났수과?(소 길렀었습니까?)

104001 #1 췌 길러났주게.(소 길렀었지.)

104002 @ 췌 질러난 거 그거 여쭙볼게마씨. 췌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다르과?(소 질렀던 거 그거 여쭙보겠습니다. 소 종류에 따라 이름이 다른니까?)

104002 #1 암췌.(암소.)

104002 @ 으, 암췌.(으, 암소.)

104002 #1 송애기.(송아지)

104002 @ 송애기.(송아지.)

104002 #1 부랭이.(부록소.)

104002 @ 부랭이.(부록소.)

104002 #1 부랭이 죽은 건 송애기고.(부록소 작은 건 송아지고.)

104002 @ 으, 으.(으, 으.)

104002 #1 밧 가는 건 밧갈췌⁷⁶⁾.(밭 가는 건 ‘밧갈췌’.)

104002 @ 밧 가는 건 밧갈췌예?(밭 가는 건 ‘밧갈췌’요?)

104002 #1 어.(어.)

104002 @ 혹시 그럼 저기 색깔에 따라 이름은 어떻게마씨? 색깔에 따라, 털 색깔에 따라?(혹시 그럼 저기 색깔에 따라 이름은 어떻게습니까? 색깔에 따라, 털 색깔에 따라?)

104002 #1 여기서 그다지 그걸 잘.(여기서 그다지 그걸 잘.)

104002 #2 검은췌.(검은 소.)

104002 @ 으, 검은췌. 또?(으, 검은 소. 또?)

76) ‘밧갈췌’는 밧을 가는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104002 #2 붉으면 황.(붉으면 황.)

104002 #1 노린쇄, 검은쇄 경헛주, 무신.(누렁소, 검은 소 그렇게 했지, 무슨.)

104002 #2 게고, 또 얼룩진 건 얼룩쇄.(그리고, 또 얼룩진 건 얼룩소.)

104002 @ 으, 노린쇄, 검은쇄, 얼룩쇄.(으, 누렁소, 검은 소, 얼룩소.)

104002 #1 건디 보통 목장에 강, 쇠 좇으레 갈 때나 우리 얼룩쇄 봐져냐, 우리 쇠 봐져냐 허주 그렇게 저 댜 쇠, 식쇄⁷⁷⁾여 허진 안 헛주게.(그런데 보통 목장에 가서, 소 좇으러 갈 때나 우리 얼룩소 뵈니, 우리 소 뵈니 하지 그렇게 저 댜 소, ‘식쇄’여 하진 않았지.)

104002 @ 음. 청축매, 노랑뿔?(음. 총이말, 노랑 말?)

104002 #1 그건 뿔.(그건 말.)

104002 @ 뿔 헛 땀 때 그거였고예. 뿔은 이땅 물어볼 거고.(말 할 때 그거였고요. 말은 이따가 물어볼 거고.)

104002 #1 뿔 우리 안 질뿔 부난 잘 몰라.(말 우리 안 길러 버리니까 잘 몰라.)

104002 @ 뿔 모양에 따라, 뿔 모양에 따라도 이름이 달라났수과?(뿔 모양에 따라, 뿔 모양에 따라도 이름이 달랐었습니까?)

10400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4002 @ 그런 건 아니고예. 어쨌든 털 색깔에 따라.(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털 색깔에 따라.)

104002 #1 으, 으.(으, 으.)

104001 @ 예. 쇠는 어떻게 질뿔마씨?(예.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여기서는 겨울에는 집에 데려와서 헛고 여름에는 목장에 방목헛고.(여기서는 겨울에는 집에 데려와서 하고 여름에는 목장에 방목하고.)

104001 @ 목장에 방목헛고?(목장에 방목하고?)

104001 #1 어. 가을철 뿔뿔 출 헛뵈 해근예, 출 헛뵈 해 가지고는 자기 출왔이 있으면 자기 뵈디 가고, 없으면 남의 뵈디 출을 사 가지고는 비주게.(어. 가을철 되면 뿔 한다고 해서, 뿔 한다고 해 가지고는 자기 뿔뵈이 있으면 자기 뵈에 가고, 없으면 남의 뵈에 뿔을 사 가지고는 베지.)

104001 @ 으.(으.)

104001 #1 이 저 동촌⁷⁸⁾ 가뵈 낫⁷⁹⁾이엔 헛 것이 많은데 이뵈 낫은 막 내중에야 들어왔는데 긴 거 해 가지고 허는 거. 걸로 헛고 또 줌호미⁸⁰⁾라고 이 앓아서 비는 줌호미라고 해서.(이 저 ‘동촌’ 가뵈 ‘낫’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긴 ‘낫’은 아주 나중에야 들어왔는데 긴 거 해 가지고 하는 거. 걸로 하고 또 ‘줌호미’라고 이 앓아서 베는 ‘줌호미’라고 해서.)

77) ‘식쇄’는 털뵈이 흑황색으로 얼룩덜룩한 소를 말한다.

78) ‘동촌’은 동쪽 지역의 위치한 마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산읍, 구좌읍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79) ‘낫’을 뿔을 뵈 때 사용하는 도구로, 곡식이나 뿔을 뵈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낫’보다 날이 크고 손잡이가 아주 길다. 보통 서서 뿔이나 뿔을 뵈 때 사용한다.

80) ‘줌호미’는 낫의 한 종류다.

104001 @ 음, 앉아서 비는 건 줌호미예.(음, 앉아서 베는 건 ‘줌호미’요.)

104001 #1 으. 게서 그건 무꺼다가 집이 왕 놀영 놔뒀당 겨울에 소 들여놓면은 집이 매면은 그거 하나씩 뽑으면서 주고.(으. 그래서 그건 묶어다가 집에 와서 가려 놔뒀다가 겨울에 소 들여놓으면 집에 매면 그거 하나씩 뽑으면서 주고.)

104001 @ 으.(으.)

104001 #1 옛날에 사료 거튼 거 여기는 없었어.(옛날에 사료 같은 거 여기는 없었어.)

104001 #2 지금 딱 지금 산에 올라갈 때. 겨울에 뗏다가.(지금 딱 산에 올라갈 때. 겨울에 뗏다가.)

104001 @ 겨울에 뗏다가.(겨울에 뗏다가.)

104001 #2 으.(으.)

104001 @ 아, 지금쯤 산에 올라갈 때예?(아, 지금쯤 산에 올라갈 때요?)

104001 #2 으.(으.)

104001 @ 지금예. 그럼 데령 오는 건 언제쯤 데령 옵니까?(지금요. 그럼 데리고 오는 건 언제쯤 데려서 옵니까?)

104001 #1 ㄹ슬 들영.(가을 들어서.)

104001 @ 으, ㄹ슬 들영. 농서 다 끝난 다음?(으, 가을 들어서. 농사 다 끝난 다음?)

104001 #1 아, 저 설달 들영 해변에서 자란 놈덜은 ㄹ슬 들어 가면은, 추워 가민 막 내려오젠 허주게. 목장 가에 와서.(아, 저 설달 들어서 해변에서 자란 놈들은 가을 들어 가면, 추워 가면 마구 내려오려고 하지. 목장 가에 와서.)

104001 @ 으.(으.)

104001 #1 경허고 그자 농서짓는 게 밧갈쉐는, 밧 갈 때 허는 쉼은 출 혈 때도 앓아당 출도 실러 오고.(그러고 그저 농사짓는 게 ‘밧갈쉐’는, 밧 갈 때 하는 소는 풀 할 때도 가져다가 풀도 실어 오고.)

104001 @ 아.(아.)

104001 #1 여긴 시꺼 온덴 허주게, 시꺼 온덴.(여긴 실어 온다고 하지, 실어 온다고.)

104001 @ 으, 시꺼 오고예.(실어 오고요.)

104001 #1 으.(으.)

104003 @ 경 혈 때도 쓰는 거예. 그럼 소는 아까 이용하는 게, 소를 이용하는 게 밧 가는 거, 우선은 밧 가는 거.(그렇게 할 때도 쓰는 거요. 그럼 소는 아까 이용하는 게, 소를 이용하는 게 밧 가는 거, 우선은 밧 가는 거.)

104003 #1 구루마.(수레.)

104003 @ 구루마.(수레.)

104003 #1 구루마 끌고 또 밧 갈고 그거뿐이주. 또 또 또 질메 헤 가지고는 질메도 짐 시끄고.(수레 끌고 또 밧 갈고 그거뿐이지. 또 또 또 길마 헤 가지고는 길

마도 짐 싣고.)

104003 @ 아, 질메에 짐 시끄고. 또 저기 음, 밧 같고, 구루마 끌고.(아, 길마에 짐 싣고. 또 저기 음, 밧 같고 수레 끌고.)

104003 #1 또 짐 시끄고.(또 짐 싣고.)

104003 @ 짐 시끄고.(짐 싣고.)

104003 #1 거 세 가지주게.(거 세 가지지.)

104004 @ 소 막 길들이는 방법이 뭐 잇수과?(소 아주 길들이는 방법이 뭐 잇습니까?)

104004 #1 아, 밧 갈젠 허면은 이 저 뿔, 글로 후제는 다이야⁸¹⁾가 나오난 다이야 허는 사름도 이신디 나무, 설피⁸²⁾ 해 가지고는 무꺼 쟁 쉼명에 메와근에 처음엔 가벼운 걸로 허단 내중엔 돌을 놓나 사람 올랑 끄주게 멩에톡⁸³⁾ 내운덴 해근에.(아, 밧 갈려고 허면은 이 저 뿔, 그 뒤에는 타이어가 나오니까 타이어 하는 사름도 있는데 나무, 끄게 해 가지고는 묶어서 그래서 소멍에 메워서 처음엔 가벼운 걸로 하다가 나중엔 돌을 놓거나 사람 올라서 끌지. 멩에택 낸다고 해서.)

104004 @ 멩에톡 내운데 해 가지고. 그렇게 메영 끄영.(멩에택 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메어서 끌어.)

104004 #1 아니, 막 끄영 탕기주게. 끄실퀴 해영.(아니, 막 끌어서 다니지. 끄게 해서.)

104004 @ 음.(음.)

104004 #1 경 해영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민 밧데 가서 혼 사름 이끄꼭 뒤에서 갈고 해영 밧을 갈주.(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밧에 가서 한 사름 이끌고 뒤에서 갈고 해서 밧을 갈지.)

104004 @ 아, 바로 밧갈췌가 되는 게 아니구나예.(아, 바로 ‘밧갈췌’가 되는 게 아니구나.)

104004 #1 아니주게.(아니지.)

104004 @ 크실퀴 해영 연습해영.(끄게 해서 연습해서.)

104004 #1 어. 짐도, 질메 행 짐도 시끄민 똥덴 해근에, 벗젠 허주게. 게민 그거 뚜드르멍 든든이 무경 얼른 풀어지지 안 할 거 시꺼 가지고는 길을 들인 다음에야 제라헌 거 시끄주게.(어. 짐도, 길마 해서 짐도 실으면 똥다고 해서, 벗으려고 하지. 그럼 그거 뚜드리면서 단단히 묶어서 얼른 풀리지 안 할 거 실어 가지고는 길을 들인 다음에야 온전한 거 신지.)

104004 @ 아.(아.)

104004 #1 그게 사름 모양으로 힘들어도 ㄱ만이 허는 게 아니난게.(그게 사름

81) ‘다이야’는 ‘타이어’를 일본어(タイヤ)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82) ‘설피’는 나뭇가지를 넓고 납작하게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표준어 ‘끄게’에 대응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섬피, 섬비, 끄슬퀴, 끄슬피라고도 한다.

83) ‘멩에톡’은 소의 목에 멩에가 잘 얹히도록 길들여진 턱을 말한다.

모양으로 힘들어도 가만히 하는 게 아니니까.)

104004 @ 아, 자가 하기 싫으면 ㄱ만이 있지 안 허영?(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

104004 #1 어. 여기서 똥뎀 허주게.(어. 여기서 똥뎀이라고 하지.)

104004 @ 똥뎀 해마씨 그런 걸. 그럼 털어져도 걱정 없을 걸 실렁 훈련시킨 다음에?(똥뎀이라고 해요, 그런 걸. 그럼 떨어져도 걱정 없을 걸 실어서 훈련시킨 다음에?)

104004 #1 어. 건데 질매 든든이 무끄민 잘 풀어지지 안 허여.(어. 그런데 길마 단단히 묶으면 잘 풀어지지 않아.)

104005 @ 췌, 췌 나이?(소, 소 나이?)

104005 #1 여기서 옛날은 출만, 요즘 사료를 주니까 빨리 크는데 옛날에는 출만 주니까 잘 빨리 못 크주게.(여기서 옛날은 풀만, 요즘 사료를 주니까 빨리 크는데 옛날에는 풀만 주니까 잘 빨리 못 크지.)

104005 @ 그니까.(그러니까.)

104005 #1 게니까 세 살, 사릅이렌 허주게.(게니까 세 살, 사릅이라고 하지.)

104005 @ 한 살은 뭐렌 험니까?(한 살은 뭐라고 험니까?)

104005 #1 금승.(하릅.)

104005 @ 금승, 그 다음 두 살은?(하릅, 그 다음 두 살은?)

104005 #1 다간.(다간)

104005 @ 금승, 다간.(하릅, 다간.)

104005 #1 사릅.(사릅.)

104005 @ 사릅.(사릅.)

104005 #1 그 다음은 나릅, 다습 영 헨 나가주.(그 다음은 나릅, 다습 이렇게 해서 나가지.)

104005 @ 나릅.(나릅.)

104005 #1 다습 헨 그대로.(다습 했어 그대로.)

104005 @ 여습, 여습험니까?(여습, 여습 험니까?)

104005 #1 으, 여습. 일곱부터 습을 안 써. 그대로 일곱, 여덟 해 붙어.(으, 여습. 일곱부터 습을 안 써. 그대로 일곱, 여덟 해 버려.)

104005 @ 아, 여습까지만 쓰고. 일곱부터는 그대로예.(아, 여습까지만 쓰고. 일곱부터는 그대로요.)

104005 #1 게면은 잘 돼면은 사릅에 일을 시키꼭, 경 안 허면은 나릅 돼야 일을 시키주.(그러면 잘 되면 사릅에 일을 시키고, 그렇게 안 하면 나릅 돼야 일을 시키지.)

104005 @ 음.(음.)

104005 #1 잘 크지 못 허니까. 겐 잘 먹어야 크지.(잘 크지 못 하니까. 그래서 잘 먹어야 크지.)

104006 @ 음, 음. 쟁기 이름은 지난번에 물어봤고예?(음, 음. 쟁기 이름은 지난번에 물어봤고요?)

104006 @ 으.(으.)

104009 #1 목장을 누가 관리하는 거과?(목장을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104009 #1 건 접이니까.(건 계니까.)

104009 @ 예.(예.)

104009 #1 접으로 허난에 해방돼사 내중엔 목장 조합장이엔 헛는디 옛날엔 초지라고 헛주, 초지.(계로 하니까 해방돼야 나중엔 목장 조합장이라고 헛는데 옛날엔 ‘초지’라고 헛지, ‘초지’.)

104009 @ 아, 그 목장 관리하는 사람이 초지?(아, 그 목장 관리하는 사람이 ‘초지’?)

104009 #1 으. 게서 내중에 조합이 생기면서 조합장, 조합장 헛는데 그 전인 초지.(으. 그래서 내중에 조합이 생기면서 조합장, 조합장 헛는데 그 전엔 ‘초지’.)

104006 @ 으. 초지이. 이거, 이게 쟁기우다만은 이름 한 번씩만 다시 한 번 글아 줘서.(으. ‘초지’. 이거, 이게 쟁기입니다만 이름 한 번씩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4006 #1 이거 성에.(이거 성에.)

104006 @ 어디, 어디가?(어디, 어디가?)

104006 #1 이거. 이게 몽쿨.(이거. 이게 쟁깃술.)

104006 @ 이 부분 자체가?(이 부분 자체가?)

104006 #1 이꺼지 성에, 쟁기 성에.(이까지 성에, 쟁기 성에.)

104006 @ 성에.(성에.)

104006 #1 요건 몽쿨.(요건 쟁깃술.)

104006 @ 으, 쟁기 성에.(으, 쟁기 성에.)

104006 #1 이건 설치.(이건 한마루.)

104006 @ 으.(으.)

104006 #1 이건 양젯머리, 이건 들뱅이뿔⁸⁴.(이건 양지머리, 이건 ‘들뱅이뿔’.)

104006 @ 이게 뭐, 설치?(이게 뭐, 한마루?)

104006 #1 어.(어.)

104006 @ 이게 성에?(이게 성에?)

104006 #1 어.(어.)

104006 @ 들뱅이뿔 맞고예. 이거 양젯머리렌 헛니까?(‘들뱅이뿔’ 맞고요. 이거 양지머리라고 헛니까?)

104006 #1 으. 요건 몽쿨.(으. 요건 쟁깃술.)

104006 @ 이디가 몽쿨?(여기가 쟁깃술?)

104006 #1 어.(어.)

84) ‘들뱅이뿔’은 붓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너 모양의 나무를 말한다.

104006 @ 이거 보섭?(이거 보섭?)
104006 #1 보섭, 뱃.(보섭, 뱃.)
104006 @ 어느 게 뱃?(어느 게 뱃?)
104006 #1 이거게 이거.(이거 이거.)
104006 @ 이거 뱃예?(이거 뱃요?)
104006 #1 으, 넘기는 거. 이견 뱃자리.(으, 넘기는 거. 이견 뱃자리.)
104006 @ 어느 거?(어느 거?)
104006 #1 이거 이 뒤에.(이거 이 뒤에.)
104006 @ 요거예?(요거요?)
104006 #1 으, 작대 영 꺾는 거 잇주게.(으, 작대 이렇게 꺾는 거 있지.)
104006 @ 이거가?(이거가?)
104006 #1 여기는 뱃자리, 뱃자리 허여.(여기는 뱃자리, 뱃자리 해.)
104006 @ 뱃자리. 으, 뱃자리. 그 저기 이거 쟁기렌 허잖아. 길마 어떤 것과, 질
마?(뱃자리. 으, 뱃자리. 그 저기 이거 쟁기라고 하잖아. 길마 어떤 겁니까, 길마?)
104007 #1 질마렌 현 거 멩에주, 저 저 여기 질메주게.(길라라고 현 거 멩에지,
저 저 ‘질메’지.)
104007 @ 질메, 질메.(길마, 길마.)
104007 #1 으. 질메를 어디를 질메렌 허는 것과? 뭐 허는 거 질메?(으. 길마를
어디를 길마라고 하는 것과? 뭐 하는 거 길마?)
104007 #1 나무를 질메 가지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거를.(나무를 길마 가지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거를.)
104007 @ 으.(으.)
104007 #1 뒤에 건 흐썰 넓고 앞에 건 작은 걸 해서 나무를 산에 가서 좇었다
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무를 연결해서 만들어. 요걸 질메 가지라고 허주게.(뒤에 건
조금 넓고 앞에 건 작은 걸 해서 나무를 산에 가서 주워다가, 없으면 이렇게 나무
를 연결해서 만들어. 요걸 길마 가지라고 하지.)
104007 @ 으, 질메 가지예?(으, 길마 가지요?)
104007 #1 어, 그래 가지고는.(어, 그래 가지고는.)
104007 #2 안 아프게.(안 아프게.)
104007 @ 뭐가 안 아프게. 아, 아 소가.(뭐가 안 아프게.)
104007 #1 나무 그대로 허민 아프니까게.(나무 그대로 하면 아프니까.)
104007 @ 아, 예 예.(아, 예 예.)
104007 #1 도금⁸⁵⁾이라 해서 보리적으로 만들든 산디적으로 만들든.(‘도금’이라
해서 보릿짚으로 만들든 밭뻬짚으로 만들든.)
104007 @ 어.(어.)

85) ‘도금’은 소나 말에 멩에를 메울 때 몸체에 바로 나뭇가지가 닿아 힘을 가하여 아프기 때문에 나
뭇가지에 짚을 감는 것을 말한다.

104007 #1 허단 내중에는 마다리가 나오니까 마다리로 싸서 만들었어.(하다가 나중에는 자루가 나오니까 자루로 싸서 만들었어.)

104007 @ 으.(으.)

104007 #1 그레 영 방석 모양으로.(그리 이렇게 방석 모양으로.)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무끄주게. 경 해 가지고는 소 우이 올려놓게.(이렇게 만들어서 양쪽에 묶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소 위에 올려놓게.)

104007 @ 아, 경 헨 소 우이 올려놓게. 제가 어디 사진을 가져온 거 같은데 이걸로 이름을 알아질 건가?(아, 그렇게 해서 소 위에 올려놓게. 제가 어디 사진을 가져온 거 같은데 이걸로 이름을 알 수 있을 건가?)

104007 #1 췌 질메가 엇인 거 닻다.(소 길마가 없는 거 닻다.)

104007 @ 엇다, 엇다. 췌막은 이신디 췌 질메 엇다.(없다, 없다. 외양간은 있는데 소 길마 없다.)

104007 #1 옛날엔 구루마 엇이니까 주로 췌 질메로 헛주게.(옛날엔 수레 없으니까 주로 소 길마로 했지.)

104007 @ 췌 질메예?(소 길마요?)

104007 #1 여긴 췌질메, 췌질메 허여.(여긴 ‘췌질메’, ‘췌질메’ 해.)

104007 @ 예.(예.)

104007 #1 들도 들질메.(말도 말 길마.)

104007 @ 으.(으.)

104007 #1 들에 허민 들질메, 췌에 허민 췌질메.(말에 하면 ‘들질메’, 소에 하면 ‘췌질메’.)

104007 @ 예, 췌 질메예?(예, 소 길마요?)

104007 #1 꼭거튼 거.(똑같은 거.)

104008 @ 예. 멩에는 이 부분만을 멩에렌 헛니까?(예. 멩에는 이 부분만을 멩에라고 합니까?)

104008 #1 으 으, 요거게, 이거 멩에.(으 으, 요거, 이거 멩에.)

104008 @ 이거 멩에.(이거 멩에.)

104008 #1 으. 이건 접게⁸⁶.(으. 이건 ‘접게’.)

104008 @ 아, 이거 접게?(아, 이거 ‘접게’?)

104008 #1 으. 요 요 긴 건 줄대⁸⁷.(으. 요 요 긴 건 ‘줄대’.)

104008 @ 이거 줄대, 예.(이거 ‘줄대’, 예.)

104008 #1 또 뒤에.(또 뒤에.)

104008 @ 예.(예.)

104008 #1 뒤에 이렇게 요거.(뒤에 이렇게 요거.)

86) ‘접게’는 멩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말한다.

87) ‘줄대’는 말이나 소의 고삐에 연결하는 줄이다.

104008 @ 으.(으.)

104008 #1 요건 오리목⁸⁸.(요건 ‘오리목’.)

104008 @ 아, 이거 오리목.(아, 이거 ‘오리목’)

104008 #1 아, 아이 이거게. 요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오게.(아, 아이 이거. 요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오게.)

104008 @ 이거 전체가 오리목.(이거 전체가 ‘오리목’.)

104008 #1 어.(어.)

104008 @ 오리목. 또 다른 거 명칭 잇수과?(‘오리목’. 또 다른 거 명칭 잇습니까?)

104008 #1 엇주게.(없지.)

104008 @ 엇어. 요거 요거는 뭐렌 불르는 거?(없어. 요거 요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

104008 #1 접게.(‘접게’.)

104008 @ 아, 이게 접게예요?(아, 이게 ‘접게’예요?)

104008 #1 으.(으.)

104008 @ 아, 이건 떨어진 거고 이건 붙어진 거구나.(아, 이건 떨어진 거고 이건 붙은 거구나.)

104008 #1 으. 그렇주게. 이걸 모가지에 이걸 해야만 이걸 붙어 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거난.(으. 그렇지. 이걸 모가지에 이걸 해야만 이걸 붙어 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거니까.)

104008 @ 으.(으.)

104008 #1 저, 저 그자 접는 거난 접게주.(저, 저 그저 접는 거니까 ‘접게’지.)

104008 @ 접는 거예.(접는 거요.)

104008 #1 이건 윤누리낭 아주 잘 안 부러지는 나물 해야 돼.(이건 윤노리나무 아주 잘 안 부러지는 나물 해야 돼.)

104008 @ 아.(아.)

104008 #1 거 아무 남이나 헛당 부러져 불영 못 써.(거 아무 나무나 했다가 부러져 버려서 못 써.)

104008 @ 아, 그럼 잘 휘여지는 낭?(아, 그럼 잘 휘여지는 나무?)

104008 #1 아이, 휘여져도 잘 안 부러지는 낭.(아이, 휘여져도 잘 안 부러지는 나무.)

104008 @ 잘 안 부러지는 낭예?(잘 안 부러지는 나무요?)

104008 #1 으.(으.)

104008 @ 예 예.(예 예.)

104008 #1 아주 윤진 낭.(아주 윤진 나무.)

104008 @ 윤진 낭.(윤진 나무.)

88)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매는 줄을 말한다.

104008 #1 으.(으.)

104008 @ 사용하는 건, 윤진 낭을 쓰는 거라예.(사용하는 건 윤진 나무를 쓰는 거지요.)

104008 #1 말라도 잘 안 부러지는 나무.(말라도 잘 안 부러지는 나무.)

104008 @ 윤진 낭을 써야.(윤진 나무를 써야.)

104008 #1 게난 옛날에는 이것도 드레, 드레. 드레나 뭐 뿌리 헤다가 못아.(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다래, 다래, 다래나 뭐 뿌리 헤다가 마아.)

104008 @ 음.(음.)

104008 #1 겐 채 가지고는 저 베를 만들어서 헛는데.(그래서 쟈 가지고는 저 바를 만들어서 헛는데.)

104008 @ 으.(으.)

104008 #1 이제 또 이제 멍⁸⁹⁾이엔 현 게 있어, 멍.(이제 또 이제 ‘멍’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어, ‘멍’.)

104008 @ 으.(으.)

104008 #1 그거 명굴 헤다가도 또 세 겹으로 들영도 허꼭 허다가 나이론 나니까 또 나이론으로도 헛주.(그거 멀꿀 헤다가도 또 세 겹으로 드러서도 하고 하다가 나일론 나니까 또 나일론으로도 헛지.)

104008 @ 음.(음.)

말 기르기

104011 @ 게든 저기, 저기 들은 안 길러났덴 헛잖아예?(그럼 저기, 저기 말은 안 길렀다고 헛잖아요?)

104011 #1 어.(어.)

104012 @ 경해도 들 터럭에 따라 아까?(그래도 말 터럭에 따라 아까?)

104012 #1 뭐 청축매여 무시거여 허는디 난 잘 몰라 그건.(뭐 청총이며 무엇이 며 하는데 난 잘 몰라 그건.)

104013 @ 들은 어뎡 헛 때 쓰는 것과? 뭐 헛 때 쓰는 것과?(말은 어떻게 할 때 쓰는 겁니까?)

104013 #1 여기서 우리 어리거나 뭐 헛 적에 쉼로만 밧을 갈았는데.(여기서 우리 어리거나 뭐 할 적에 소로만 밧을 갈았는데.)

104013 @ 으.(으.)

104013 #1 요 근래, 혼 삼, 사십 년 전부터는 들로 밧을 갈았어.(요 근래, 한 삼, 사십 년 전부터는 말로 밧을 갈았어.)

104013 @ 들로예?(말로요?)

104013 #1 으.(으.)

104014@ 들, 아까 쉼 나이 헤신디 들 나이 세는 것도 잇수과?(말, 아까 소 나이

89) ‘멍’은 ‘멀꿀’의 열매로 ‘명굴’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말 나이 세는 것도 있습니까?)

104014 #1 물도 어린 거는 금승.(말도 어린 거는 하릅.)

104014 @ 그 다음. 똑같애?(그 다음. 똑같아?)

104014 #1 금승, 이수, 삼수로 나가.(하릅, 이듬, 삼쉬로 나가.)

104014 @ 불러 봅서. 금승.(불러 보십시오. 하릅.)

104014 #1 금승 다음엔 이수, 삼수.(하릅 다음에 이듬, 삼쉬.)

104014 @ 이수, 삼수, 그리고?(이듬, 삼쉬, 그리고?)

104014 #1 들은 저 열 설 나는 말인데, 여덟 설꺼진 팔수라고 허여.(말은 저 열 설 나는 말인데, 여덟 살까진 팔수라고 해.)

104014 @ 팔수. 그 다음 아홉은?(팔수. 그 다음 아홉은?)

104014 #1 아홉부터 계산을 안 해 불어.(아홉부터 계산을 안 해 버려.)

104014 @ 아, 여덟 설까지만 세는구나. 그럼 아홉 설부터 늙은 거?(아, 여덟 살까지만 세는구나. 그럼 아홉 살부터 늙은 거?)

104014 #1 늙은 거로 허는데 말이 혼 스십 년까지 산다고 허는데.(늙은 거로 하는데 말이 한 사십 년까지 산다고 하는데.)

104014@ 아.(아.)

104014#1 옛날에 잘 못 먹으니까게 오래 살지를 못 헛주게.(옛날에 잘 못 먹으니까 오래 살지를 못 했지.)

떡이

104016 @ 그럼, 믰쉬, 물이랑 쉼랑 떡이 같은 건 어떻 헛수과?(그럼, 마소, 말이랑 소랑 떡이 같은 건 어떻게 헛습니까?)

104016 #1 출.(꿀.)

104016 @ 출. 저 물도 출?(꿀. 저 말도 꿀?)

104016 #1 으, 출.(으, 꿀.)

104016 @ 출밭데 강 비여 오는 거잖아예?(꿀밭에 가서 베어 오는 거잖아요?)

104016 #1 그렇주게.(그렇지.)

104016 @ 그거 말고 출 외에 다른 것들도?(그거 말고 꿀 외에 다른 것들도?)

104016 #1 예, 없어.(예, 없어.)

104016 @ 왜?(왜?)

104016 #1 아, 조칩.(아, 조짚.)

104016 @ 조칩, 으.(조짚, 으.)

104016 #1 여긴 보리짚은 안 맥여 봤고, 조칩 산디짚.(여긴 보릿짚은 안 맥여 봤고, 조짚 밭벚짚.)

104016 @ 산디짚.(밭벚짚.)

104016 #1 그거주게.(그거지.)

104016 @ 콩찍은?(콩짚은?)

104016 #2 보리찍은 요 근래에 나사.(보릿짚은 요 근래에 나야.)
 104016 #1 으, 보리찍은 근래 낭 허고.(으, 보릿짚은 근래 나서 하고.)
 104016 @ 으.(으.)
 104016 #1 콩쩍도 억생 안 먹어.(콩짚도 억세서 안 먹어.)
 104016 @ 안 먹어?(안 먹어?)
 104016 #1 어. 근래 오니까 그걸 부취 가지고 끌려 먹이니까 먹는 것이지.(어. 근래 오니까 그걸 부취 가지고 끓여 먹이니까 먹는 것이지.)
 104016 @ 으.(으.)
 104016 #1 빠닥정⁹⁰ 먹질 못 허여.(뻗뻗해서 먹질 못 해.)
 104017 @ 아. 그럼 출 어떻 준비허는지 출 어떻 험니까?(아. 그럼 풀 어떻게 준비하는지 풀 어떻게 합니까?)
 104017 #1 가을 들면은 산에 가서 비영.(가을 들면 산에 가서 베어서.)
 104017 @ 으.(으.)
 104017 #1 말려 가지고 무꺼서 실러 가지고 집이 와서 놀어 두는 거라.(말려 가지고 묶어서 실어 가지고 집에 와서 가려 두는 거야.)
 104017 @ 아까 출왓 이신 사람들은 자기.(아까 풀밭 있는 사람들은 자기.)
 104017 #1 이녁 걸로 허는 거고 옛이민 늬의 출왓디 강 사근에.(이녁 걸로 하는 거고 없으면 남의 풀밭에 가서 사서.)
 104017 @ 밧차로 출을 사는 것과, 늬의 출을?(밭째로 풀을 사는 겁니까, 남의 풀을?)
 104017 #1 게, 저 풀만게.(그래, 저 풀만.)
 104017 @ 풀만 사는 거예?(풀만 사는 거요?)
 104017 #1 어.(어.)
 104018 @ 그민 그거, 그거 해 가지고 출 비민.(그럼 그거, 그거 해 가지고 풀 베면.)
 104018 #1 비영 물류왕.(베어 말려서.)
 104018 @ 한 며칠 정도 물리웁니까?(한 며칠 정도 말릅니까?)
 104018 #1 한 브름 조, 브름 좋으면, 하늬브름이 잘 불민 오늘 비영 널 무끄주게.(한 바람 조, 바람 좋으면 하늬바람이 잘 불면 오늘 베어서 널 묶지.)
 104018 @ 아.(아.)
 104018 #1 또 막 늦으면은.(또 아주 늦으면.)
 104018 @ 으.(으.)
 104018 #1 오전 비영 오후에도 무끌 수가 있고.(오전 베어서 오후에도 묶을 수가 있고.)
 104019 @ 으 으 으. 그민, 그민 거기서 무경 뒤에 실령 와?(으 으 으. 그럼, 그럼 거기서 묶어서 실어서 와?)

90) ‘빠닥지다’는 물체가 아주 딱딱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뻗뻗하다는 의미로 썼다.

104019 #1 구루마나.(수레나.)

104019 @ 구루마나.(수레나.)

104019 #1 아니민 쉼나 몰이나.(아니면 소나 말이나.)

104019 @ 쉼나 몰이나. 실렁 왕 여기에 쌓는 거라예?(소나 말이나. 실어서 와서 여기에 쌓는 거지요?)

104019 #1 게 놀영. 여기선 눈덴 허주. 놀 눈 것7라 놀이엔 허주게.(그래 가려서. 여기선 가린다고 하지. 가리 가린 것보고 가리라고 하지.)

104019 @ 출놀 놀영.(꿀가리 가려서.)

104019 #1 어.(어.)

104019 @ 음. 출놀 놀영 허는 거예.(음. 꿀가리 가려서 하는 거요.)

멜감

104022 @ 이제는 멜감 해난 거 물어보쿠다. 멜감?(이제는 멜감 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멜감?)

104022 #1 어, 지들커.(어, 멜감.)

104022 @ 예, 지들커. 지들커 물어보쿠다예. 지들커 종류에는 뭐 뭐 뭐 잇엇수과?(예, 멜감. 멜감 물어보겠습니다. 멜감 종류에는 뭐 뭐 뭐 잇엇습니까?)

104022 #1 아, 여기선 쉼나 몰이나 먹다가 남은 걸 뒤치⁹¹⁾엔 헤여, 뒤치.(아, 여기선 소나 말이나 먹다가 남은 걸 ‘뒤치’라고 해, ‘뒤치’.)

104022 @ 으.(으.)

104022 #1 먹다 남은 거.(먹다 남은 거.)

104022 @ 으.(으.)

104022 #1 그것도 거 가져다근에 때고.(그것도 거 가져다가 때고.)

104022 @ 으.(으.)

104022 #1 옛날에는 여기 소나무가 있다, 거 가지 치다가 걸리민 순경안티 걸리민 큰일 나거든.(옛날에는 여기 소나무가 있다, 거 가지 치다가 걸리면 순경한테 걸리면 큰일 나거든.)

104022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4022 #1 아이 큰일 나. 잘못허민 심어 가고 벌금 물고 헌 때문에, 도둑질로.(아이 큰일 나. 잘못하면 잡아 가고 벌금 물고 헌 때문에, 도둑질로.)

104022 @ 아, 소나무 같은 거 함부로 허민.(아, 소나무 같은 거 함부로 하면.)

104022 #1 어. 계난 풀 비여당 눌엇다가 걸 지들커 헨다던지.(어. 그러니까 베어다가 가렸다가 걸 멜감 한다던지.)

104022 @ 으.(으.)

104022 #1 계난 이 산이 잇어도 잔치나 대소상이나 뭐, 이제 우리 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말이야.(그러니까 이 산이 잇어도 잔치

91) ‘뒤치’는 마소가 먹다 남은 풀의 찌꺼기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데치’라고도 한다.

나 대소상이니 뭐, 이제 우리 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말이야.)

104022 @ 으.(으.)

104022 #1 그러면 돼지 잡양 고기 삶은 물.(그러면 돼지 잡아서 고기 삶은 물.)

104022 @ 으.(으.)

104022 #1 떡 거튼 거 혈 지들께 잇어야 돼여.(떡 같은 거 할 뽕감 잇어야 돼.)

104022 @ 으.(으.)

104022 #1 그러면 산에 가근에 도둑질로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갱 해다가 깨근에 화목이엔 헨 놀영 놔두주게.(그러면 산에 가서 도둑질로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다가 깨서 화목이라고 해서 가려서 놔두지.)

104022 @ 으, 화눅?(으, 화눅?)

104022 #1 화목.(화목.)

104022 @ 화목.(화목.)

104022 #1 어.(어.)

104022 @ 케민 아까 뽕감 종류 뒤치도 잇고?(그럼 아까 뽕감 종류 ‘뒤치’도 잇고?)

104022 #1 검질.(검불.)

104023 @ 검질 잇고 그 다음 뭐 뽕덜도 좇어 왔던 거?(검불 잇고 그 다음 뽕들도 주워 왔던 거?)

104023 #1 에이.(에이.)

104023 @ 굴묵⁹²⁾ 진젠 허민?(‘굴묵’ 때려고 하면?)

104023 #1 굴묵 진젠 해도 이 해변이난 힘들었어.(‘굴묵’ 때려고 해도 이 해변이니까 힘들었어.)

104023 @ 아.(아.)

104023 #1 계난 마당에 검질 깎앗당 문지락 생기민 그걸로 주로 허고.(그러니까 마당에 검불 깔았다가 ‘문지락’ 생기면 그걸로 주로 하고.)

104023 @ 쉼똥 똥 안 좇어 왔수과?(소똥 말똥 안 주워 왔습니까?)

104023 #1 아이, 여기서 목장 가젠 허민 여기가 어딘 디. 거 강 정 와야 될 건디.(아이, 여기서 목장 가려고 하면 여기가 어딘 데. 거 가서 저서 와야 될 건데.)

104024 @ 하하하. 그것도 허고 솔입 걸으레도 안 갓수과?(하하하. 그것도 하고 솔입 그러모으러도 안 갓습니까?)

104024 #1 솔입 글썸 솔입 걸당 걸리민.(솔입 글썸 솔입 그러모으다가 걸리면.)

104024 @ 어.(어.)

104024 #1 큰일 나니까 도둑질로 걸어당 뺏주.(큰일 나니까 도둑질로 그러모아다가 뺏지.)

104024 @ 솔입 걷는 것도, 낭?(솔입 그러모으는 것도, 나무?)

92)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4024 #1 그렇주게.(그렇지.)

104024 @ 아, 낭 가지 끈는 거 말고 술입 걷는 것도?(아, 나무 가지 끊는 거 말고 술입 그러모으는 것도?)

104024 #1 거 낭 밧디 걸름 웬덴 해근에게. 겨고 여기는 해변이니까 소낭 밧이 많지가 안 헛주게.(거 나무 밧에 걸름 된다고 해서. 그리고 여기는 해변이니까 소나무 밧이 많지가 안 했지.)

104024 @ 음.(음.)

104024 #1 겨난 이 바닷가에 까끄레기 낭이엔 잇곡 허민 그런 것도 허단 걸리민 큰일 나니까.(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까끄라기 나무라고 있고 하면 그런 것도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104024 @ 음.(음.)

104024 #1 도둑질로 딱 순경 왓시냐 안 왓시냐 보고, 맨서기 왓시냐 안 왓시냐 보멍 도둑질을 해다근에 우жат 오민 곱정 놀어 놔뵈다가 때곡 경 헛주.(도둑질도 딱 순경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맨서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서 도둑질을 하다가 울안 오면 숨겨서 가려 놔뵈다가 때고 그렇게 했지.)

104024 @ 음.(음.)

104024 #1 계난 침 살기가 힘들엇주게.(그러니까 침 살기가 힘들엇지.)

104024 @ 으.(으.)

104024 #1 지들커 험이, 아 여자덜 물 저 오지 밧디 강 와근에 겨울 들곡 허민 지들커 도둑질 허레 텡김이 얼마나 못 전더게.(빨감 하기가, 아 여자들 물 저 오지 밧에 가서 와서 겨울 들고 하면 빨감 도둑질 하러 다니기가 얼마나 못 견디.)

104024 @ 어무니 술입 걸어낫지예?(어머니 술입 그러모았었지요?)

104024 #1 걸어낫주게.(그러모았었지.)

104024 #2 걸엇주게. 낭도 도둑질 하영 허고.(그러모았었지. 나무도 도둑질 많이 하고.)

104024 @ 계난 어무니 술입 걷영 어떻 짐 싸고 헛는지 왕 곶아 줍서.(그러니까 어머니 술입 그러모아서 어떻게 짐 싸고 헛는지 와서 말해 주십시오.)

104024 #2 어떻?(어떻게?)

104024 #1 어떻 짐을 싸게.(어떻게 짐을 싸게.)

104024 @ 그 술입 걷영 영 영 뭉젠 허면.(그 술입 그러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뭉으려고 하면.)

104024 #2 거 짐 무끄는 거 막 요령으로 헤사.(거 짐 묶는 거 아주 요령으로 해야.)

104024 @ 그니까 그니까 그냥 무경 안 될 거잖아예.(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묶어서 안 될 거잖아요.)

104024 #2 어.(어.)

104024 @ 짐 무끄젠 허민?(짐 묶으려고 하면?)

104024 #2 베도 막 많이 가정 가사.(바도 아주 많이 가지고 가야.)
 104024 @ 예, 예. 뭘 막 많이 가정 가사?(예, 예. 뭘 아주 많이 가지고 가야.)
 104024 #2 베, 베.(바, 바.)
 104024 @ 으, 베.(으, 바.)
 104024 #2 베 많이 가정 강.(바 많이 가지고 가서.)
 104024 @ 예.(예.)
 104024 #2 베로 처음 두 개 요렇게 놓고.(바로 처음 두 개 요렇게 놓고.)
 104024 2 으.(으.)
 104024 #2 그 다음은 이딘 설피⁹³를 해서 요만치, 요만치 솔잎 안 떨어질 만치.(그 다음은 여긴 ‘설피’를 해서 요만치, 요만치 솔잎 안 떨어질 만치.)
 104024 @ 으.(으.)
 104024 #2 요만치 놔 가지고.(요만치 놔 가지고.)
 104024 @ 그 설피는 무슨 낭으로? 아무 낭이나 상관엇어?(그 ‘설피’는 무슨 나무로? 아무 나무나 상관없어?)
 104024 #1 소낭게.(소나무.)
 104024 #2 그 소나무 가지 거 그차서. 케민 혼자 가민 이런 짐을 못 져. 친구 행 가사주. 그러민 놔 가지고 이렇게 낱, 저 솔잎을 걷어 놔서 글쟁이 잇주게.(그 소나무 가지 거 끊어서. 그럼 혼자 가면 이런 짐을 못 져. 친구 해서 가야지. 그러면 놔 가지고 이렇게 놓고, 저 솔잎을 그러모아 놓고 갈퀴 있지.)
 104024 @ 으.(으.)
 104024 #2 글쟁이로 요만이씩 낱 툭 툭. 그 솔잎은 툭 툭 쳐 가민 그 솔잎과 솔잎 사이에 기어들어 가지고 막 툭툭허여.(갈퀴로 요만큼씩 놓고 툭 툭. 그 솔잎은 툭 툭 쳐 가면 그 솔잎과 솔잎 사이에 기어들어 가지고 아주 탄탄해.)
 104024 @ 으.(으.)
 104024 #2 그렇게 안아다가 요레 툭 놓고 흔 바둑⁹⁴이렌 허여. 또 흔 번 해당 툭 놓게 경헨 흔 다섯 개쯤 해다 놓으면 그 다음 또 해당 우터레 놓곡 또 해당 우터레 놓곡 해영 이제 흔 세 도리⁹⁵쯤 놓면 이제 둘리가 친구광 이 베허고 빙허게 몰아 가지고 그놈을 이 벤 이 베에 즐라메고 이건 이거에 즐라메영 또 글쟁이로 막 가쟁이로 나오지 못 허게 툭 툭 해영 앓져 놔근에 또 다음은 베 놔 가지고 툭 해다 놓민 이 닻아. 이 닻으민 요렇게.(그렇게 안아다가 요리 툭 놓고 한 ‘바둑’이라고 해. 또 한 번 해다가 툭 놓고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개쯤 해다 놓으면 그 다음 또 해다가 위에 놓고 또 해다가 위에 놓고 해서 이제 한 세 ‘도리’쯤 놓으면 이제 둘이 친구와 이 바하고 빙하고 말아 가지고 그놈을 이 반 이 바에 즐라매고 이건 이거에 즐라매서 또 갈퀴로 아주 가장이로 나오지 못 하게 툭툭 해서 앓혀 놔서 또 다음은 바 놔 가지고 툭 해다 놓으면 이 같아. 이 같으면 요렇게.)

93) 여기서 ‘설피’는 땀감으로 쓰는 잔 나뭇가지를 말한다.

94) 여기서 ‘바둑’은 그러모은 솔잎을 한 데 모아 묶어 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로 쓰였다.

95) ‘도리’는 둘레를 둘게 겹을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104024 @ 으.(으.)

104024 #2 요렇게 요 동그란 거 흐쓸 그치고 영 행 이거 정 왓주.(요렇게 요 동그란 거 조금 끊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저 왓지.)

104024 @ 으, 으.(으, 으.)

104024 #2 그렇게 이걸 바둑 짐이라고 했어. 계난 막 많이도 헤지고.(그렇게 이걸 ‘바둑’ 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주 많이도 할 수 있고.)

104024 @ 바둑 짐예?(‘바둑’ 짐요?)

104024 #2 바, 바, 솔입 흔 바둑, 두 바둑, 거 흔 번 두드렁 안아 놓는 것이 흔 바둑이라고 해서.(바, 바, 솔입 한 ‘바둑’, 두 ‘바둑’, 거 한 번 두드려서 안아 놓는 것이 한 ‘바둑’이라고 해서.)

104024 @ 흔 바둑?(한 ‘바둑’?)

104024 #1 바둑.(‘바둑’.)

104024 @ 아, 바둑.(아, ‘바둑’.)

104024 #2 으.(으.)

104024 @ 흔 바둑, 두 바둑 행 가져오는 거예?(한 ‘바둑’, 두 ‘바둑’ 해서 가져오는 거요?)

104024 #2 어. 아이고 난 바둑이 즌난에 짐이 족다. 아이구 난 바둑이 훑으난 짐이 크다 이런 정도로.(어. 아이고 난 ‘바둑’이 자니까 짐이 작다. 아이고 난 ‘바둑’이 굵으니까 짐이 크다 이런 정도로.)

104024 @ 아. 하하하, 예. 바둑예.(아. 하하하. 예. ‘바둑’요.)

104024 #2 으.(으.)

104023 @ 말뚱, 소뚱도 좇어낫수과?(말뚱, 소뚱 주웠었습니까?)

104023 #2 좇어낫주게.(주웠었지.)

104023 #1 줍는디 많이 줍질 못 허여.(줍는데 많이 줍질 못 해.)

104023 @ 많이 줍질 못 허여. 그것도 정 와난마씨?(많이 줍질 못 해. 그것도 지고 왔었습니까?)

104023 #1 정 와야지, 멍멍이로.(지고 와야지, 망태기로.)

104023 #2 질 것이 경 하? 구덕에 메엇지.(질 것이 그렇게 많아? 구덕에 뻗지.)

104023 #1 여기서 뿔 추력⁹⁶이라고 해. 뿔 추력.(여기서 ‘뿔 추력’이라고 해. ‘뿔 추력’.)

104023 @ 아.(아.)

104023 #2 뚱 좇는 구덕이 따로 잇어.(뚱 줍는 구덕이 따로 잇어.)

104023 #1 그걸 보고 뿔추력이라고 해.(그걸 보고 ‘뿔추력’이라고 해.)

104023 #2 그래서 뚱을 좇어서.(그래서 뚱을 주워서.)

104023 @ 어.(어.)

104023 #2 이렇게 뚜러멩 왓지. 뚱을 경 많이 이시민 많이 좇주만은 뚱이 잇

96) ‘뿔추력’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구덕을 가리킨다.

어?(이렇게 둘러메고 왔지. 똥을 그렇게 많이 있으면 많지 좁지만 똥이 있어?)

104023 @ 목장에서 좃영 오민 안 돼?(목장에서 주워 오면 안 돼?)

104023 #2 목장까지는 가져오기가 똥 허고 그.(목장까지는 가져오기가 똥 하고 그.)

104023 @ 멀어 부난.(멀어 버리니까.)

104023 #1 그 걸름허는 사람덜은 그렇게 다 옛날말로 똥통.(그 거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옛날말로 ‘똥통’.)

104023 @ 음.(음.)

104023 #2 똥통에 놔 가지고 걸름을 만들어야. 가을 돼 가지고.(돼지우리에 놔 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야. 가을 돼 가지고.)

104023 #1 목장 지대에 가서 쉼똥, 말똥을 좃어 가지고는 여기 와 가지고는 바당에 패라는 것이 있어, 패.(목장 지대에 가서 소똥, 말똥을 주워 가지고는 여기 와 가지고는 바다에 패라는 것이 있어, 패.)

104023 @ 으.(으.)

104023 #1 그거허고 서터 가지고 헛당 놔똥당 보리 갈 때 허주.(그거하고 섞어 가지고 했다가 놔똥다가 보리 갈 때 하지.)

104023 #2 걸름을 해야 보리 갈 거주. 가을 들민.(거름을 해야 보리 갈 거지. 가을 들면.)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경헌디 보리 갈, 굴묵 진쟁은 좃으렌 안 가고.(그런데 보리 갈, ‘굴묵’ 때려고는 주우려 안 가고.)

104023 @ 음.(음.)

104023 #1 걸름허젠.(거름하려고.)

104023 @ 아, 걸름허젠예. 예 예.(아, 거름하려고요. 예 예.)

104023 #1 아, 그 때 비료도 엇고 허니까게.(아, 그 때 비료도 없고 하니까.)

104023 @ 으.(으.)

104023 #1 걸름베끼.(거름밖에.)

104025 @ 그민 낭은 어떻 해낫수과, 낭, 똥 낭?(그럼 나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나무, 똥 나무?)

104025 #1 계난 도둑질.(그러니까 도둑질.)

104025 @ 도둑질이라예.(도둑질이지요.)

104025 #1 설피 도둑질.(‘설피’ 도둑질.)

104025 @ 설피. 몰르게 가 가지고.(‘설피’ 몰르게 가 가지고.)

104025 #1 으.(으.)

104025 @ 걸리민 안 웰 거난.(걸리면 안 웰 거니까.)

104025 #1 순경이나 멘서기안티 걸리민 큰일 나.(순경이나 멘서기에게 걸리면 큰일 나.)

104026 @ 아버지 집에서 솥 구워놔수과?(아버지 집에서 솥 구웠었습니까?)

104026 #1 아니.(아니.)

104026 @ 안 해연?(안 했어?)

104026 #1 이 해변 사람들 안 해.(이 해변 사람들 안 해.)

104026 #2 아니, 저 솥은 굽는데.(아니, 저 솥은 굽는데.)

104026 @ 예.(예.)

104026 #2 우리 개인으로 안 굽고 굽는 사람이 있어.(우리 개인으로 안 굽고 굽는 사람이 있어.)

104026 @ 계민 거디 강 사당 쓰는 거?(그럼 거기 가서 사다가 쓰는 거?)

104026 #2 굽는, 어. 산에 가서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영 단속허지 안 허니까.
(굽는, 어. 산에 가서 그때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단속하지 않으니까.)

104026 @ 으.(으.)

104026 #2 촌남이라 현 것이 그 여기 말로 도토리묵 허는 나무.(참나무라 한 것이 여기 말로 도토리묵 하는 나무.)

104026 @ 으.(으.)

104026 #2 그런 남을 거 촌남이라고 여긴 허여. 그거 끈어서 솥을 만들젠 허면 저 육지 사람들 옛날에 옹기 굽는, 대정 사람 옹기 굽는 모양으로.(그런 나무를 거 ‘촌남’이라고 여긴 해. 그거 끊어서 솥을 만들려고 하면 저 육지 사람들 옛날에 옹기 굽는, 대정 사람 옹기 굽는 모양으로.)

104026 #1 게고 또 초기 밧디.(그리고 또 버섯 밧에.)

104026 @ 으.(으.)

104026 #2 으. 그렇게 해서 솥을 구으민 좀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솥 푸는 디가 따로 잇는 모양이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구운 솥을 훔칠 샅주. 개인으로 솥을 굽지 못허여.(으. 그렇게 해서 솥을 구우면 좀 사고 싶은 사람은 그 솥 파는 데가 따로 잇는 모양이야. 사고 싶은 사람은 그 구운 솥을 조금 샅지. 개인으로 솥을 굽지 못해.)

104026 @ 굽지 못해. 어머니 상 써신디, 솥 어떻 구워나져신디 알아지쿠과?(굽지 못해. 어머니 사서 썼는데, 솥 어떻게 구웠었는지 알겠습니까?)

104026 #2 향?(향?)

104026 @ 계난 솥을 어떻 구워신디 알아지쿠과?(그러니까 솥을 어떻게 구웠는지 알겠습니까?)

104026 #2 아, 그거는 그 나가 들은 말로 보지는 안 현디.(아, 그거는 그 내가 들은 말로, 보지는 않았는데.)

104026 @ 예, 들은 말로.(예, 들은 말로.)

104026 #2 나무를 막 쌓여 놓고.(나무를 막 쌓아 놓고.)

104026 @ 으.(으.)

104026 #2 쪼금만 연통에 그 나무에 불을 붙음 시작허민 그 나무에 바켓더레

그 불꽃이 안 나가게 그거 거.(조그만 연통에 그 나무에 불을 붙기 시작하면 그 나무에 밖으로 그 불꽃이 안 나가게 그거 거.)

104026 #1 우이로 흑 더퍼.(위에 흠 덮어.)

104026 #2 흑 더퍼 가지고 나무를 막 쌓여 놔서.(흠 덮어 가지고 나무를 막 쌓아 놓고.)

104026 @ 으.(으.)

104026 #2 이제 그 흑을 어떻, 그것도 나가 안 본디 나 들은 말인디.(이제 그 흑을 어떻게, 그것도 내가 안 봤는데 나 들은 말인디.)

104026 @ 으.(으.)

104026 #2 나무더레 흑을 듬뿍 더퍼도 거디 뭐 나무 탁 지들라져 불지 안 허게 어떻게 헨 거지. 그렇게 해서 소굽에서 불을 부르면 베겏덜로 연기만 나서 불꽃 안 나가 헤영. 말젠 헤쌍 보민 솟이.(나무에 흠을 듬뿍 덮어도 거기 뭐 나무 탁 지질러 버리지 않게 어떻게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속에서 불을 붙으면 밖으로 연기만 나서 불꽃 안 나가 해서. 나중엔 헤쳐서 보면 솟이.)

104026 #1 게 구멍을 막주게.(구멍을 막지.)

104026 #2 엉강허게 솟이 좋주게.(‘엉강’하게 솟이 좋지.)

104026 @ 으.(으.)

104026 #1 겐디 저 **아방도 초기 밧디서 허는 거 보면은 양 옆이 돌을 싸.(그런데 저 ** 아버지도 버섯 밧에서 하는 거 보면 양 옆에 돌을 쌓아.)

104026 @ 으.(으.)

104026 #1 쌓 그 우이 흑을 막 싸 놓주게.(쌓아서 그 위에 흠을 막 쌓아 놓지.)

104026 @ 으.(으.)

104026 #1 겐 장작 낭 그디 낱, 겐 우이 흑 더경.(그래서 장작 나무 거기 놓고, 그리고 위엔 흠 덮어서.)

104026 @ 으.(으.)

104026 #1 양쪽으로 고톡을 내와.(양쪽으로 구멍을 나가 해.)

104026 @ 으.(으.)

104026 #1 겐 이쪽으로 불을 부찌면은 겐 저쪽으로 불 바레지면은 양쪽 다 막아 부는 거라.(그래서 이쪽으로 불을 붙이면 그래서 저쪽으로 불 보이면 양쪽 다 막아 버리는 거야.)

104026 @ 으.(으.)

104026 #1 그러면 숨 못 쉬면은 끄는 거주게.(그러면 숨 못 쉬면 끄는 거지.)

104026 @ 으.(으.)

104026 #1 겐 한 며칠 잇다가 나도 건 직접은 안 봤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은 재기 파 불민 속에 불이 난다 이거라.(그래서 한 며칠 잇다가 나도 건 직접은 안 봤는데 들은 말에 의하면 재기 파 버리면 속에 불이 난다 이거야.)

104026 @ 으 으.(으 으.)

104026 #1 그러면 실패.(그러면 실패.)

104026 @ 아, 재기 파 불민.(아, 재계 파 버리면.)

104026 #1 경허고 또 아니. 또 흑 더퍼 불영 연기가 나민 연기 안 나게 해 불어 야지. 연기 나민 다 타 불영 재 돼 불어.(그리고 또 아니. 또 흙 덮어 버려서 연기가 나면 연기 안 나게 해 버려야지. 연기 나면 다 타 버려서 재 돼 버려.)

104026 @ 으.(으.)

사냥

104028 @ 네. 저기 아부지 사냥 해낫수과?(네. 저기 아버지 사냥 했었습니까?)

104028 #1 아니.(아니.)

104028 @ 여기는 해안이라 부난 잇수과?(여기는 해안이여 버리니까 없습니까?)

104028 #1 아니, 허는 사름 멧 사름 잇었는데.(아니, 하는 사람 멧 사람 있었는데.)

104028 @ 으, 으.(으, 으.)

104028 #1 여긴 해변이난 사냥 경 안 해.(여긴 해변이니까 사냥 그렇게 안 해.)

104029 @ 뭐 해난, 사름덜 꿩, 노루, 지다리 그런 것들, 그런 것들?(뭐 했었어, 사람들 꿩, 노루, 오소리 그런 것들, 그런 것들?)

104029 #1 으.(으.)

104032 @ 족제비도?(족제비도?)

104032 #2 아니 그런 건.(아니 그런 건.)

104032 #1 족제빈 그 저 옛장시덜 와근에 받아가고 돈 잘 준덴 해근에 허는 사람이 잇주만은 잘 못 잡아.(족제빈 그 저 옛장수들 와서 받아가고 돈 잘 준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잘 못 잡아.)

104029 @ 못 잡아. 아부지 꿩도 안 잡아낫수과?(못 잡아. 아버지 꿩도 안 잡았었습니까?)

104029 #1 예이, 아예.(예이, 아예.)

104029 #2 그 꿩을 잡을라면.(그 꿩을 잡으려면.)

104029 @ 예.(예.)

104029 #2 사냥개를 질뤄야지, ㄹ르칭.(사냥개를 길러야지, 가르쳐서.)

104029 @ 아니 꿩코⁹⁷⁾ 놔 가지고.(아니 꿩올가미 놔 가지고.)

104029 #1 우리 두린 때 꿩코도 놓고 생이코도 놔낫는디 여기 그때는 꿩이 그렇게. 힘들어 여기는. 생이.(우리 어린 때 꿩올가미도 놓고 새올가미도 낫었는데 여기 그 때는 꿩이 그렇게. 힘들어 여기는. 새.)

104029 @ 예. 생이예.(예. 생이요.)

104029 #1 아이, 건 조 해근에가 아이덜마다.(아이, 건 조 해서 아이들마다.)

104029 @ 으.(으.)

97) '꿩코'는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말한다.

104029 #1 여저, 남저 아이덜마다. 이제 생이 잡으렌 허민 아이덜 거 먹을 거넨 허주만은 그 뎨 먹을 게 없으니까.(여자, 남자 아이들마다. 이제 새 잡으라고 하면 아이들 거 먹을 거냐고 하지만 그 뎨 먹을 게 없으니까.)

104029 @ 그지예. 예, 일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무니안티 물어볼 건디 이제. (그렇지요. 예, 일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머니한테 물어볼 건데 이제.)

104029 #2 아이구 나.(아이고 나.)

5. 바다일

105001 @ 저기 아까 바닷일 나오난 바닷일에 했던 것덜 쫘 여쭙보쿠다. 그 여기서 바다에서 하는 일들, 아까 메역 얘기 했고.(저기 아까 바닷일 나오니까 바닷일에 했던 것들 쫘 여쭙보겠습니다. 그 여기서 바다에서 하는 일들, 아까 미역 얘기 했고.)

105001 #2 으.(으.)

105001 @ 또 뭐, 바다 강 뭐 잡으니까?(또 뭐, 바다 가서 뭐 잡으니까?)

105001 #2 구쟁이게.(소라.)

105001 @ 구쟁이.(소라.)

105001 #2 지금도 구쟁긴 막 일본으로 나가니까 막 한창 잘 잡아.(지금도 소라는 일본으로 나가니까 아주 한창 잘 잡아.)

105001 @ 계민 남원리 해녀 많으쿠다예?(그럼 남원리 해녀 많겠네요?)

105001 #2 흔 육칠십 명 된다고 해.(한 육칠십 명 된다고 해.)

105001 @ 아이구.(아이구.)

105001 #1 겐디 젊은 사름이 엇어.(그런데 젊은 사름이 없어.)

105001 @ 젊은 사름들?(젊은 사름들?)

105001 #1 없어, 없어.(없어, 없어.)

105001 @ 없지예.(없지요.)

105001 #1 거 뭐 전체 사정이니까.(거 뭐 전체 사정이니까.)

105001 @ 아, 젊은 사름덜 엇어. 예, 계민 메역 허고 바다에서 잡는 거 구쟁기 허고.(아, 젊은 사름들 없어. 예, 그럼 미역 하고 바다에서 잡는 거 소라하고.)

105001 #2 어.(어.)

105001 @ 또?(또?)

105001 #2 뭐 잡는 거야.(뭐 잡는 거야.)

105001 #1 옛날엔 오분자기 보고 여긴 조개라고 했는데.(옛날엔 ‘오분자기’ 보고 여기 조개라고 했는데.)

105001 @ 예.(예.)

105001 #1 그것도 오염 관계로 없어져 불엇어.(그것도 오염 관계로 없어져 버렸

어.)

105001 @ 오분자기를 조개렌 햇수과?('오분자기'를 조개라고 했습니까?)

105001 #1 여기선 조개.(여기선 조개.)

105001 @ 으, 조개. 또?(으, 조개. 또?)

105001 #2 문어.(문어.)

105001 @ 문어.(문어.)

105001 #2 해삼.(해삼.)

105001 @ 해삼.(해삼.)

105001 #2 그거 잡주게.(그거 잡지.)

105001 @ 그거 잡고예.(그거 잡고요.)

105001 #1 문어도 여기선 멍게라고 해.(문어도 여기선 '멍게'라고 해.)

105001 @ 멍게예. 멍게 잡고예. 저기 툏도 해낫수과?(문어요. 문어 잡고요. 저기 툏도 했었습니까?)

105001 #1 어.(어.)

105001 #2 툏 전엔 해낫는데 지금은 오염돼서.(툏 전엔 했었는데 지금은 오염돼서.)

105001 @ 그니까 옛날에 했던 거, 툏 해낫고.(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툏 했었고.)

105001 #2 어.(어.)

105001 @ 지금은 엇고예?(지금은 없고요?)

105001 #2 으.(으.)

105001 @ 우미는?(우뭇가사리는?)

105001 #2 우뭇가사리.(우뭇가사리.)

105001 @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엔 험니까, 우미엔 험니까?(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엔 험니까, '우미'라고 험니까?)

105001 #2 우미엔 우미.('우미'라고 '우미'.)

105001 #1 여긴 우미.(여긴 '우미'.)

105001 @ 우미지예?('우미'지요?)

105001 #2 저 할망덜이 우미, 우미.(저 할머니들이 '우미', '우미'.)

105001 @ 여긔말로 곶아 줍서, 우미렌.(여긔말로 말해 주세요, '우미'라고.)

105001 #2 우미.(우뭇가사리.)

105001 @ 우미도 해나고예, 바닷일에서.(우뭇가사리도 했었고요. 바닷일에서)

105001 #2 툏도 해낫고.(툏도 했었고.)

105001 @ 으.(으.)

105001 #2 다 해낫어.(다 했었어.)

105001 @ 게민 툏 같은 거 작업할 때 툏이나 듬북 같은 거 감태 같은 거?(그럼 툏 같은 거 작업할 때 툏이나 듬북 같은 거 감태 같은 거?)

105001 #1 등록 해놔주게.(등록 했었지.)

105001 #2 감태도 허고.(감태도 하고.)

105001 @ 감태도 허고. 등록은 그냥 등록이렌 험니까?(감태도 하고. 등록은 그냥 등록이라고 합니까?)

105001 #1 어, 여기선 등록.(어, 여기선 등록.)

105001 @ 감태는 그냥 감태렌 허고.(감태는 그냥 감태라고 하고.)

105001 #1 어.(어.)

105002 @ 그 큰 등록이랑 감태할 때 마을 사름덜이 공동으로 험니까, 아니면 개인?(그럼 등록이랑 감태할 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

105002 #1 아, 여기는 등록은.(아, 여기는 등록은.)

105002 @ 으.(으.)

105002 #1 바당이라고 해서.(바다라고 해서.)

105002 @ 으.(으.)

105002 #1 풀아낫어 부락에서. 바당을 경매를 부청 풀면은.(팔았었어 부락에서. 바다를 경매에 부쳐서 팔면.)

105002 @ 으.(으.)

105002 #1 그 돈을 가지고 부락 운영도 허고 포제도 지내고.(그 돈을 가지고 부락 운영도 하고 포제도 지내고.)

105002 @ 아니, 그럼 바당을 풀면은.(아니, 그럼 바다를 팔면.)

105002 #1 그러면 산 사름덜이.(그러면 산 사름들이.)

105002 @ 으.(으.)

105002 #1 이제 또 멧 사름 동아리로 해 가지고는.(이제 또 멧 사름 동아리로 해 가지고는.)

105002 @ 으.(으.)

105002 #1 해서 그걸 해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름으로 썬주.(해서 그걸 해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름으로 썬지.)

105002 @ 그럼 바다를 판다는 건 여기?(그럼 바다를 판다는 건 여기?)

105002 #1 그 등록 올라오는 것만. 등록만.(그 등록 올라오는 것만. 등록만.)

105002 @ 아, 등록만?(아, 등록만?)

105002 #1, #2 으.(으.)

105002 @ 게민 등록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헨 돈 받았던 거?(그럼 등록 이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해서 돈 받았던 거?)

105002 #1 으.(으.)

105002 #2 일 년 동안만.(일 년 동안만.)

105002 @ 일 년 동안만.(일 년 동안만.)

105002 #2 또 내년.(또 내년.)

105002 #1 딱 등록이 올르면은.(딱 등록이 올르면.)

105002 @ 으.(으.)

105002 #1 그니까 계라고 그러는데.(그러니까 계라고 그러는데.)

105002 @ 으.(으.)

105002 #1 듬복계를 사면은 그 산 사람이 이제는, 나가 사면 예를 들어 나가 사면은.(듬복계를 사면 그 산 사람이 이제는, 내가 사면 예를 들어 내가 사면.)

105002 @ 으.(으.)

105002 #1 다른 사람덜을 부찌는, 헐 사람덜 부찌는 거라.(다른 사람들을 붙이는, 할 사람들 붙이는 거야.)

105002 @ 음.(음.)

105002 #1 그래서 나가 돈을 줬으니까 따시 돈을 수금해 가지고는.(그래서 내가 돈을 줬으니까 다시 돈을 수금해 가지고는.)

105002 @ 으.(으.)

105002 #2 뭐가 되는 거지. 책임자가 되는 거지.(뭐가 되는 거지. 책임자가 되는 거지.)

105002 @ 아, 삼촌 혜나신계, 마을계. 듬복계 혜나신계예?(아, 삼촌 했었네요, 마을계. 듬복계 했었네요?)

105002 #1 듬복계 그거는 일 년씩 허는 거니까.(듬복계 그거는 일 년씩 하는 거니까.)

105002 #2 접, 듬복접.(계, 듬복계.)

105002 @ 예, 접. 듬복접이렌 볼를 거예?(예, 계. 듬복계라고 부를 거요?)

105002 #1 아이, 접이 계난애.(아니, '접'이 계니까.)

105002 @ 그니까, 그니까.(그러니까, 그러니까.)

105002 #1 접이 겐디.(‘접’이 계인데.)

105002 @ 으.(으.)

105002 #1 그런, 그런 거는 계라고 헐 수 없지게. 왜냐하면 일 년이면 끝나 부는 거니까.(그런, 그런 거는 계라고 할 수 없지. 왜냐하면 일 년이면 끝나 버리는 거니까.)

105002 @ 그니까 그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민 어쨌든 계로 해 가지고 채취를 했었던 거.(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그럼 어쨌든 계로 해 가지고 채취를 했었던 거.)

105002 #2 어.(어.)

105002 @ 채취헐 자기들 그거 듬복 가져당 자기 밧디?(채취해서 자기들 그거 듬복 가져다가 자기 밧에?)

105002 #1 계민 그거 개인이 똑같이 갈라.(그럼 그거 개인이 똑같이 나뉘.)

105002 @ 으.(으.)

105002 #1 찌지 값 좀 더 주고.(차지 값 좀 더 주고.)

105002 @ 아.(아.)

105002 #2 흔 사람 짝 더 주지. 자기 그 책임진 사람이.(한 사람 깃 더 주지. 자기 그 책임진 사람이.)

105002 #1 지키니까. 누게 놔 못 가져가게.(지키니까. 누가 남 못 가져가도록.)

105002 @ 그럼, 자기가 돈 내 가지고 그 계에 들었으면 자기가 한 만큼 그런 거?(그럼, 자기가 돈 내 가지고 그 계에 들었으면 자기가 한 만큼 그런 거?)

105002 #1 아니, 아니, 똑가트게.(아니, 아니, 똑갈게.)

105002 @ 똑같이 행 똑같이 나누는 거?(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누는 거?)

105002 #1 분배.(분배.)

105002 @ 겐 계장만, 계주만 한 몫, 한 사람 몫 더 갖는 거예?(그래서 계장만, 계주만 한 몫, 한 사람 몫 더 갖는 거요?)

105002 #1, #2 으.(으.)

105004 @ 아, 으. 여기 고등은 뭐렌 골옵니까, 고등? 보말?(아, 으. 여기 고등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등? ‘보말’?)

105004 #1 아이, 고등? 구쟁기⁹⁸라 고동이엔 해 여긴.(아니, 고등? ‘구쟁기’보고 고등이라고 해 여긴.)

105004 @ 구쟁기를?(‘구쟁기’를?)

105004 #1 고등.(고등.)

105004 @ 고등은 표준어이고, 게니까 고등이 여기서 구쟁기?(고등은 표준어이고, 게니까 고등이 여기서 ‘구쟁기’?)

105004 #2 ⁹⁸메기⁹⁸.(‘⁹⁸메기’.)

105004 @ ⁹⁸메기.(‘⁹⁸메기’.)

105004 #1 여긴 ⁹⁸메기, ⁹⁸메기엔 허는디.(여긴 ‘⁹⁸메기’, ‘⁹⁸메기’라고 하는데.)

105004 #2 두 가지.(두 가지.)

105004 @ 두 가지, 으.(두 가지, 으.)

105004 #1 보말이나.(고등이나.)

105004 #2 수두리.(두드럭고등.)

105004 #1 춤⁹⁸메기엔 헌 게 있고. 수두리허고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는 여기선 ⁹⁸메기엔.(춤⁹⁸메기’라고 한 게 있고. 두드럭고등하고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는 여기선 ‘⁹⁸메기’라고.)

105004 #2 그자 무조건 ⁹⁸메기.(그저 무조건 ‘⁹⁸메기’.)

105004 @ 다시 한 번 ⁹⁸메기를 어떻게 나눈다고? 뭐 뭐라고 한다고 ⁹⁸메기를?(다시 한 번 ‘⁹⁸메기’를 어떻게 나눈다고? 뭐 뭐라고 한다고 ‘⁹⁸메기’를?)

105004 #1 떡보말.(밤고등.)

105004 @ ⁹⁸메기 종류에 떡보말?(‘⁹⁸메기’ 종류에 밤고등?)

105004 #1 으, 수두리.(으, 두드럭고등.)

98) ‘⁹⁸메기’는 고등 종류의 하나다.

105004 @ 떡보말이 잇고.(밤고둥이 잇고.)
105004 #1, #2 수두리.(두드럭고둥.)
105004 @ 수두리가 잇고 또?(두드럭고둥이 잇고 또?)
105004 #1 춤ㄴ메기.(‘춤ㄴ메기’.)
105004 @ 춤ㄴ메기?(‘춤ㄴ메기’?)
105004 #2 어.(어.)
105004 @ 그렇게 세 종류가 잇어예?(그렇게 세 종류가 잇어요?)
105004 #1 어.(어.)
105004 #2 아니, 존존헌 거, 어지렁헌 건 하서.(아니, 잔잔한 거, 어지러운 건 많
아.)
105004 #1 안 먹는 거. 뭐 생이ㄴ메기여.(안 먹는 거. 뭐 ‘생이ㄴ메기’며.)
105004 @ 그런, 그런 이름.(그런, 그런 이름.)
105004 #1 생이ㄴ메기여.(‘생이ㄴ메기’며.)
105004 @ 생이ㄴ메기.(‘생이ㄴ메기’.)
105004 #2 문다다기.(눈알고둥.)
105004 #1 문두닥지여.(눈알고둥이며.)
105004 @ 잠깐만예. 생이ㄴ메기, 그 다음?(잠깐만요. ‘생이ㄴ메기’, 그 다음?)
105004 #1 문두닥지.(눈알고둥.)
105004 @ 문두닥지 또?(눈알고둥 또?)
105004 #2 것베끼. 메웅새.(거밖에. ‘메웅새’.)
105004 @ 예, 뭐?(예, 뭐?)
105004 #2 메웅새.(‘메웅새’.)
105004 @ 메웅새.(‘메웅새’.)
105004 #1 또 마타슬.(또 ‘마타슬’.)
105004 @ 마타슬.(‘마타슬’.)
105004 #1 거 마 칠 적에만 올라와.(거 장마 칠 적에만 올라와.)
105004 @ 뭐?(뭐?)
105004 #2 장, 장마 칠 적에만.(장, 장만 칠 적에만.)
105004 #1 저 장마 칠 적에만 그계 다 모아진다고.(저 장마 칠 적에만 그거 다
모인다고.)
105004 @ 아, 마타슬은?(아, ‘마타슬’은?)
105004 #1 으.(으.)
105004 #2 게난 거 마타슬이엔.(그러니까 거 ‘마타슬’이라고.)
105004 @ 아.(아.)
105004 #1 거 장마 안 칠 때는 못 봐. 어디 갔다 없어서 부는지.(거 장마 안 칠
때는 못 봐. 어디 갔다 없어서 버리는지.)
105004 @ 으.(으.)

105004 #1 장마 칠 적에는 혼 군데, 혼 두어 뿔박씩도 모여.(장마 칠 적에는 한 군데, 한 두어 뿔박씩도 모여.)

105004 @장마 칠 때만 모이는 거예?(장마 칠 때만 모이는 거요?)

105004 #1 어.(어.)

105005 @ 그민 게는, 게?(그럼 게는, 게?)

105005 #1 쟁이?(게?)

105005 #2 갱이. 쟁이, 쟁이.(게. 게, 게.)

105005 @ 여기는 쟁이예?(여기는 ‘쟁이’요?)

105005 #1 쟁이.(‘쟁이’.)

105003 @ 쟁이. 쟁이는 어떻 잡습니까?(게.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1 돌 일렁도 잡고. 옛날에는 돌 일렁도 잡고, 니껍 헤영 영 모당도 잡고.(돌 일으켜서도 잡고. 옛날에는 돌 일으켜서도 잡고, 미끼 해서 이렇게 모아서도 잡고.)

105003 #2 아니, 돌 일르민 팍 도망가벤 언마 잡지 못 허여.(아니, 돌 일으키면 팍 도망가버려서 얼마 잡지 못 해.)

105003 @ 쟁이도 니껍 헤영 잡습니까?(게도 미끼 해서 잡습니까?)

105003 #1 니껍도 헤근에 영 놓민 막 모이주게.(미끼도 해서 이렇게 놓으면 아주 모이지.)

105003 @ 아, ㄹ메기 어떻 잡아마씨?(아, ‘ㄹ메기’ 어떻게 잡아요?)

105003 #2 그자 돌 일렁.(그저 돌 일으켜서.)

105003 #1 돌 일렁.(돌 일으켜서.)

105003 @ 돌 일렁예. 바닷가에서 돌 일렁예. 쟁이도 니껍 헹 잡기도 허고 돌 일렁 잡기도 허고예?(돌 일으켜서요. 바닷가에서 돌 일으켜서요. 게도 미끼 해서 잡기도 하고 돌 일으켜서 잡기도 하고요?)

105003 #2 어.(어.)

105004 @ 고동 종류 아까 했고. 고동을 ㄹ메기렌?(고동 종류 아까 했고. 고동을 ‘ㄹ메기’라고?)

105004 #1 여기, 아니 여기는.(여기, 아니 여기는.)

105004 @ 으.(으.)

105004 #1 구쟁기 ㄹ라 ㄹ메기엔 허여.(소라보고 ‘ㄹ메기’라고 해.)

105004 @ 구쟁기.(소라.)

105004 #1 구쟁기엔도 허고 고동이엔도 허고. 켜 줌수덜 고동 잡으레 가게, 영 헤여.(소라라고도 하고 고동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잠수들 고동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

105005 @ 아, 줌수덜 고동 잡으레 가게. 갱이 종류, 쟁이 종류에는 어떤 거 있수과?(아, 잠수들 고동 잡으러 가자. 게 종류, 게 종류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5005 #2 아니, 여기는 다른 디 쟁이가 엇어. 여기서 잡아먹는 토종 쟁이 혼

가지베끼.(아니, 여기는 다른 데 게가 없어. 여기서 잡아먹는 토종 게 한 가지밖에.)

105005 @ 흔 가지. 그냥 그것만 쟁이렌 부르고.(한 가지. 그냥 그것만 게라고 부르고.)

105005 #2 으.(으.)

105005 @ 다른 이름덜은 엇어?(다른 이름들은 없어?)

105005 #2 으, 엇어 엇어.(으, 없어 없어.)

105006 @ 엇고예. 그 우리 불 쌍 뭔가 잡기도 험니까, 밤이 강?(없고요. 그 우리 불 켜서 뭔가 잡기도 험니까, 밤에 가서?)

105006 #1 아, 여기 밤 ㄹ메기 잡아낫주.(아, 여기 밤 ‘ㄹ메기’ 잡았었지.)

105006 @ 아, 밤 ㄹ메기?(아, 밤 ‘ㄹ메기’?)

105006 #1 으.(으.)

105006 @ 아, 밤에 강 ㄹ메기를.(아, 밤에 가서 ‘ㄹ메기’를.)

105006 #1 건 춤 ㄹ메기허고 보말.(건 ‘춤 ㄹ메기’하고 고등.)

105006 #2 불 쌍 잡는 거는.(불 켜서 잡는 거는.)

105006 #1 밤이 물 쌀 때.(밤에 물 썰 때.)

105006 #2 뭉게가 아니고 낙지.(문어가 아니고 낙지.)

105006 #1 낙지도 잡아낫주만은, 안여⁹⁹⁾ 가근에.(낙지도 잡았지만, ‘안여’ 가서.)

105006 @ 밤 ㄹ메기 뭐, 뭐 잡아낫다고?(밤 ‘ㄹ메기’ 뭐, 뭐 잡았었다고?)

105006 #2 밤 ㄹ메긴 주로, 다른 건 아니고 주로 보말허고 수두리.(밤 ‘ㄹ메긴’ 주로, 다른 건 아니고 주로 고등하고 두드럭고등.)

105006 @ 보말하고 수두리예?(고등하고 두드럭고등.)

105006 #2 으.(으.)

105006 @ 보말하고 수두리 밤 ㄹ메기로 잡아나고.(고등하고 두드럭고등 밤 ‘ㄹ메기’로 잡았었고.)

105006 #2 그때는 햇불로 햇주, 햇불로.(그때는 햇불로 했지, 햇불로.)

105006 @ 으, 햇불, 햇불.(으, 햇불, 햇불.)

105006 #2 으.(으.)

105006 @ 경험 햇불로 잡는 거 뭉게는 아니고 낙지를 잡았다고?(그렇게 햇불로 잡는 거 문어는 아니고 낙지를 잡았다고?)

105006 #2 어, 밤이 거 ㄹ메기 잡으레 갓당 심는 건 낙지.(어, 밤에 거 ‘ㄹ메기’ 잡으러 갔다가 잡는 건 낙지.)

105006 @ 아, 낙지.(아, 낙지.)

105006 #2 으, 밤에 나는 건 낙지.(으, 밤에 나는 건 낙지.)

105006 @ 또 햇불 켜 잡아난 거, 물고긴 엇어난?(또 햇불 켜서 잡았던 거, 물고긴 없었어?)

99) ‘안여’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앞쪽 바다를 말한다.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말한다.

105006 #1 아니, 여기는.(아니, 여기는.)

105006 @ 물고긴 벗어나고.(물고긴 없었었고.)

105007 #1 아, 옛날 원¹⁰⁰ 다왕 뿔은 거러낫주만은.(아, 옛날 ‘원’ 쌓아서 멸치는 잡았었지만.)

105007 #2 아이, 이 어둡은디 오랑 어떻게 가곡 허젠 와서게. 이제 다 어둡어신디?(아이, 이 어두웠는데 와서 어떡해서 가고 하려고 왔어. 이제 다 어두웠는데.)

105007 @ 다 어둡어신게마씨. 나 오늘 조금만 더 물어보쿠다. 바다에 관련된 거 조금만 더 물어보고 내일 오쿠다.(다 어두웠네요. 나 오늘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에 관련된 거 조금만 더 물어보고 내일 오겠습니다.)

105007 #2 넬 집이 잇어게?(넬 집에 있어?)

105007 @ 집이 이십서.(집에 계세요.)

105007 #1 내일 노인정에 가야 만나.(내일 노인정에 가야 만나.)

105007 @ 아니, 시간 약속 잡앙.(아니, 시간 약속 잡아서.)

105007 #2 이 하르방신디나 오라.(이 할아버지에게나 와.)

105007 #1 넬 할망 노인정에 가야 돼고.(넬 할머니 노인정에 가야 되고.)

105007 @ 계민 내일은 하르부지 만나고 따로따로 만나젠.(그럼 내일은 할아버지 만나고 따로따로 만나려고.)

105007 #2 예, 나신디랑.(예, 나에게는.)

105007 @ 어쨌든 이땅 얘기허고예, 이 물었던 거 질문 몇 개 더 허쿠다. 원이 뭐과, 원?(어쨌든 있다가 얘기하고요, 이 물었던 거 질문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원’이 뭇니까, ‘원’?)

105007 #1 아, 바당에 쌓는 원은.(아, 바다에 쌓는 ‘원’은.)

105007 @ 으.(으.)

105007 #1 이 저, 어데 구좌나 김녕더레 가면 만헌데.(이 저, 어디 구좌나 김녕으로 가면 많은데.)

105007 @ 으.(으.)

105007 #1 바다에, 바다에 이렇게 돌 쌓잖아게.(바다에, 바다에 이렇게 돌 쌓잖아.)

105007 @ 돌 싸 논 거.(돌 쌓아 놓은 거.)

105007 #1 으, 그걸 보고 여기서 원이라고 허여.(으, 그걸 보고 여기서 ‘원’이라고 해.)

105007 @ 그 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 잡읍니까, 여기는 원 안 됩니까?(그 ‘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읍니까, 여기는 ‘원’ 안 됩니까?)

105007 #1 옛날에는 해났는데.(옛날에는 했었는데.)

105007 #2 없어전.(없어졌어.)

100) ‘원’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105007 #1 지금은 없어.(지금은 없어.)
 105007 #2 멜, 멜 거릴라고.(멸치, 멸치 잡으려고.)
 105007 #1 멜.(멸치.)
 105007 @ 그니까. 옛날에 했던 거?(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
 105007 #2 멜, 멜 거릴라고.(멸치, 멸치 잡으려고.)
 105009 @ 아, 원 쌓는 이유가 멜 거리젠 쌓는 거?(아, ‘원’ 쌓는 이유가 멸치 잡으려고 쌓는 거?)
 105009 #2 원에 멜이 들어오면.(‘원’에 멸치가 들어오면.)
 105009 @ 음.(음.)
 105009 #2 물이 찰 때는 물이 빠져볼면 멜이 나가지 못허지.(물이 썰 때는 물이 빠져버리면 멸치가 나가지 못하지.)
 105009 #1 간혹 고기 들어올 때도 잇주만은 건 힘들고.(간혹 고기 들어올 때도 있지만 건 힘들고.)
 105009 #2 멜, 멜.(멸치, 멸치.)
 105009 @ 음, 멜 거리젠 원을 쌓는 거라예?(음, 멸치 잡으려고 ‘원’을 쌓는 거지요?)
 105009 #1, #2 으.(으.)
 105009 @ 계민 멜 들어온 거는, 멜 들어온 거는 원에 건 영 굽어내기만 허면은 멜이 거려져?(그럼 멸치 들어온 거는, 멸치 들어온 거는 ‘원’에 건 이렇게 굽어내기만 하면 멸치 잡을 수 있어?)
 105009 #2 뭐가 잇어.(뭐가 있어.)
 105009 @ 뭐.(뭐.)
 105009 #1 사들.(사들.)
 105009 #2 나무, 나무로 이만이 허게.(나무, 나무로 이만큼 하게.)
 105009 #1 사들이라고 허여.(사들이라고 해.)
 105009 #2 구물로.(그물로.)
 105009 @ 으.(으.)
 105009 #2 주어서 거 거리는 게 잇어.(기워서 거 잡는 게 잇어.)
 105009 #1 쪽바데.(‘쪽바데’.)
 105009 @ 쪽바데?(‘쪽바데’?)
 105009 #1 어. 여기서는 사들이라고 허지.(어. 여기서는 사들이라고 하지.)
 105008 @ 으. 그럼 그 원 보수는 어떻게 험니까?(으. 그럼 그 ‘원’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105008 #1 보수라는 게 이서?(보수라는 게 잇어?)
 105008 @ 아, 엇어?(아, 없어?)
 105008 #1 동네에서 모아들어 가지고 담 쌓다가.(동네에서 모여 가지고 담 쌓다가.)

105008 #2 어, 원 다우레 가게 행. 멜 들 때가 돼 가민 우리 원 답게 헨, 거 담 다운 사름덜이 권리가 있지, 멜이 들면.(어, ‘원’ 쌓으러 가자 해서. 멸치 들 때가 돼 가면 우리 원 쌓자 해서, 거 담 쌓은 사람들이 권리가 있지, 멸치가 들면.)

105008 @ 아, 거기 참가 안 헌 사름덜은 멜 못 거려?(아, 거기 참가 안 한 사름 들은 멸치 못 잡아?)

105008 #1 참가 안 헌 사름은 가긴 가도.(참가 안 한 사름은 가긴 가도.)

105008 @ 으.(으.)

105008 #2 어디 옆으로 흐쓸 헌 디나 허주, 다운 사름덜이 권리가 있어?(어디 옆으로 조금 한 데나 하지, 쌓은 사람들이 권리가 있어?)

105008 @ 아, 권리가 있는 거라예?(아, 권리가 있는 거지요?)

105008 #2 아, 거 뻔헌 사실인디.(아, 거 뻔한 사실인디.)

105010 @ 경헨 아까 거기 멜 든 걸, 멜을 잡았던 거라예?(그래서 아까 거기 멸 치 든 걸, 멸치를 잡았던 거지요?)

105010 #2 으.(으.)

105010 @ 그 멜 말고 다른 고기 잡을 때는 어떻 헤낫수과?(그 멸치 말고 다른 고기 잡을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5010 #1 낚시질 감베끼 뭐.(낚시질 가기밖에 뭐.)

105010 @ 계난 낚시질로 잡았던 거?(그러니까 낚시질로 잡았던 거?)

105010 #2 낚시질로 가고 배나 가고.(낚시질로 가고 배나 가고.)

105010 @ 으.(으.)

105010 #2 어, 영.(어, 이렇게.)

105011 @ 계민 여기 낚시질 허젠 허민 낚시대, 뽕돌 같은 건 어떻 구헤난마 씨?(그럼 여기 낚시질 하려고 하면 낚시대, 뽕돌 같은 건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105011 #1 아, 연철 헤 가지고 옛날에, 아주 옛날엔 자기대로 만들엇주.(아, 연 철 헤 가지고 옛날에, 아주 옛날엔 자기대로 만들엇지.)

105011 @ 만들엇지예?(만들엇지요?)

105011 #1 으.(으.)

105011 #2 불에 구웁 두드려근에.(불에 구워서 두드려서.)

105011 #1 녹여서도 멘들고.(녹여서도 만들고.)

105012 @ 예. 작살로도 고기 잡고?(예. 작살로도 고기 잡고?)

105012 #1 어, 여기 작살로도 잡아낫주덜.(어, 여기 작살로도 잡았었지.)

105012 @ 잡아낫고예. 작살로 잡젠 허민 물에 들영 잡았던 거?(잡았었고요. 작 살로 잡으려고 하면 물에 들어서 잡았던 거?)

105012 #1 그렇지게. 물에 들영 안경 써 가지고.(그렇지. 물에 들어서 안경 써 가지고.)

105012 #2 소살. 소살이주 소살, 작살이 아니고.(‘소살’. ‘소살’이지 ‘소살’, 작살 이 아니고.)

105012 @ 으, 그럼 잡녀들이 강 잡는 거.(으, 그럼 잡녀들이 가서 잡는 거.)

105012 #2 잡녀들이.(잡녀들이.)

105012 #1 아니, 남저도 잡아낚주.(아니, 남자도 잡았었지.)

105012 #2 남저도 잡아.(남자도 잡아.)

105012 @ 물에 들어강?(물에 들어가서?)

105012 #2 남저도 헤엄질만 잘하는 사람은 험디. 남전 사람마다 헤엄질을 못 허니까.(남자도 헤엄질만 잘하는 사람은 하는데. 남잔 사람마다 헤엄질을 못 하니까.)

105012 @ 으.(으.)

105012 #2 사람마다 못 잡아.(사람마다 못 잡아.)

105012 #1 또 그거를 옛날엔 고기가 혼전허니까.(또 그거를 옛날엔 고기가 혼전 하니까.)

105012 @ 으.(으.)

105012 #1 걸 꼭 잡아서 먹을라고 남저들이 가질 안허지.(걸 꼭 잡아서 먹으려고 남자들이 가질 않지.)

105012 #2 헤엄질 허는 사람은 혼 동네서도 멧 안 웨어.(헤엄질 하는 사람은 한 동네에서도 멧 안 돼.)

105012 @ 음, 헤엄질 잘허는 사람이?(음, 헤엄질 잘하는 사람이?)

105012 #2 으.(으.)

105012 @ 바닷가 동넨데도?(바닷가 동넨데도?)

105012 #2 바닷가 동네라도.(바닷가 동네라도.)

105012 #1 아니, 옛날에는.(아니, 옛날에는.)

105012 @ 어.(어.)

105012 #1 밭에 가고.(밭에 가고.)

105012 @ 어.(어.)

105012 #1 거 시간이 벨로 엇어.(거 시간이 벨로 없어.)

105012 #2 해녀들은 두렁박 짚어서 한 바당에 나가지만은 남저들은 무조건 손발 힘으로만 휘여서 한 바당에 그 고기 쏜 험 돌아댕기니까.(해녀들은 테왁 짚어서 먼 바다에 나가지만 남저들은 무조건 손발 힘으로만 헤엄쳐서 먼 바다에 그 고기 쏜려고 하면 돌아다니까.)

105012 @ 아.(아.)

105012 #2 뭐 사지 못허는 디라 부난.(뭐 서지 못하는 데여 버려서.)

105012 @ 기구나예?(그렇군요?)

105012 #2 으.(으.)

105012 @ 케민 작살로 들젠 허민 어쨌든 남저들도 물에 들어 가지고 작살, 물안경 쓰고.(그럼 작살로 들려고 하면 어쨌든 남저들도 물에 들어 가지고 작살, 물안경 쓰고.)

105012 #1 그렇주게.(그렇지.)

105012 @ 씨 가지고.(씨 가지고.)

105012 #2 으, 물안경 씨.(으, 물안경 씨.)

105012 @ 들어강 찍었던 거라예?(들어가서 찍었던 거지요?)

105012 #2 으.(으.)

105013 @ 고깃배 있잖아예? 배, 배 탕 가젠 허민 고깃배도 뭐 종류덜이 잇어낫 수과?(고깃배 있잖아요? 배, 배 타서 가려고 하면 고깃배도 뭐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5013 #1 어.(어.)

105013 @ 예를 들면?(예를 들면?)

105013 #1 옛날에야 다 풍선이주게.(옛날에야 다 풍선이지.)

105013 @ 아, 풍선. 그 자리 잡는 거는?(아, 풍선. 그 자리 잡는 거는?)

105013 #1 여기 테위.(여기 '테위'.)

105013 @ 테위렌 해?('테위'라고 해?)

105013 #1 어, 여긴 테위.(어, 여긴 '테위'.)

105013 @ 아, 여긴 테위.(아, 여긴 '테위'.)

105013 #1 떼배보고 테위.(떼배보고 '테위'.)

105013 @ 테위렌 해예?('테위'라고 해?)

105013 #1 으.(으.)

105013 @ 테우렌 안 허고예?('테우'라고 안 하고?)

105013 #1 어.(어.)

105015 @ 아, 아까 잠녀는 해산물 잡는 거 얘기했고. 물질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아, 아까 잠녀는 해산물 잡는 거 얘기했고. 물질할 때 어떤 도구가 필요합니까?)

105015 #2 어떤 도구?(어떤 도구?)

105015 @ 어, 도구. 예를 들면 저기.(어, 도구. 예를 들면 저기.)

105015 #2 두렁박.(테왁.)

105015 @ 두렁박.(테왁.)

105015 #1 테왁.(테왁.)

105015 @ 두렁박.(테왁.)

105015 #2 테왁이주, 테왁.(테왁이지, 테왁)

105015 #1 테왁.(테왁.)

105015 @ 두렁박이 테왁예?('두렁박'이 테왁요?)

105015 #1, #2 으.(으.)

105015 @ 테왁이 옛날말이과, 두렁박이 옛날말이과?(테왁이 옛날말입니까, '두렁박'이 옛날말입니까?)

105015 #1 테왁이엔 현 게 옛날말.(테왁이라고 한 게 옛날말.)

105015 #2 그 꼭 있지, 꼭?(그 박 있지, 박?)

105015 #1 박, 박.(박, 박.)
105015 @ 으, 박예.(으, 박요.)
105015 #2 박으로.(박으로.)
105015 #1 겐디 여기선 쿡이엔 허여. 것도.(그런데 여기선 박이라고 해, 것도.)
105015 @ 쿡이렌 헤예?(박이라고 해?)
105015 #1 으.(으.)
105015 @ 그리고 또 물질허젠 허민 뭐 필요헤?(그리고 또 물질하려고 하면 뭐 필요헤?)
105015 #2 옷게.(옷.)
105015 #1 망사리.(망사리.)
105015 @ 옷. 옷 무슨 옷 잇수과? 우에 입는 건?(옷. 옷 무슨 옷 잇습니까?)
105015 #2 물적삼이라고.(‘물적삼’이라고.)
105015 #1 물적삼.(‘물적삼’.)
105015 @ 물적삼.(‘물적삼’.)
105015 #2 하양헌 천으로 짚막허게 적삼 헛주게.(하얀 천으로 짚막하게 적삼 헛지.)
105015 @ 으, 밑에 거는 뭐렌 헨?(으, 밑에 거는 뭐라고 해?)
105015 #2 속곳.(속곳.)
105015 @ 속곳이렌 헨? 소중기렌 안 헤영?(속곳이라고 해? ‘소중기’라고 안 해?)
105015 #2 소중의, 소중의.(‘소중의’, ‘소중의’.)
105015 @ 소중의렌도 허고 속곳이렌도 허고예?(‘소중의’라고도 하고 속곳이라고도 하고요?)
105015 #2 으, 할망덜은 소중의.(으, 할머니들은 ‘소중의’.)
105015 @ 아.(아.)
105015 #2 쪼끔 젊은 사름덜은 속곳. 것도 표준말 부쩍 거라, 속곳이, 소중의.
(조금 젊은 사람들은 속곳. 것도 표준말 붙인 거야, 속곳이, ‘소중의’.)
105015 @ 아, 소중의가 더 오래된 말?(아, ‘소중의’가 더 오래된 말?)
105015 #2 으.(으.)
105015 @ 예, 알앗수다.(예, 알겠습니다.)
105015 #1 게난 굴중의엔 현 거는.(그러니까 ‘굴중의’라는 한 거는.)
105015 @ 으.(으.)
105015 # 굴중의엔 현 거는 평상시에 입는 거고, 여저들이. 소중의엔 현 거는 바당에 물에 들 때만 입는 거주.(‘굴중의’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입는 거고, 여자들이. ‘소중의’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물에 들 때만 입는 거지.)
105015 @ 물에 들 때만 입는 거예. 또예 옷 물적삼, 소중의 있고, 테왁 필요허고 그 다음 또 뭐 필요헤?(물에 들 때만 입는 거요. 또요 옷 ‘물적삼’, ‘소중의’ 있

고, 테왁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 필요해?)

105015 #1 망사리.(망사리.)

105015 @ 망사리 필요허고예?(망사리 필요하고요?)

105015 #2 으.(으.)

105015 @ 그 뭐 따젠 허민 뭘로 따?(그 뭐 따려고 하면 뭘로 따?)

105015 #1 지팡.(지팡.)

105015 #2 아니, 저.(아니, 저.)

105015 #1 빗창¹⁰¹.(‘빗창’.)

105015 @ 빗창.(‘빗창’.)

105015 #2 미역혈 땀 호미고. 전복 잡으레 갈 땀 빗창.(미역할 땀 낫이고. 전복 잡으러 갈 땀 ‘빗창’.)

105015 @ 으.(으.)

105015 #1 저 호미도 여기선 중계호미¹⁰²엔 허여.(저 낫도 여기선 ‘중계호미’라고 해.)

105015 @ 다시 한 번.(다시 한 번.)

105015 #1 중계호미.(‘중계호미’.)

105015 @ 중계호미.(‘중계호미’.)

105015 #1 중계.(‘중계’.)

105015 @ 중계.(‘중계’.)

105015 #1 호미.(낫.)

105015 @ 중계호미.(‘중계호미’)

105015 #1 낫 보고 호미라고 허니까 이디선.(낫 보고 ‘호미’라고 하니까 여기선.)

105015 @ 으. 웨호미렌 허는 게 저기 뭐 비러 갈 때 맞디.(으, 왜낫이라고 하는 게 저기 뭐 베러 갈 때 밭에.)

105015 #1 메역혈 때만.(미역할 때만.)

105015 #1 아니, 맞아, 호미라는 건.(아니, 맞아. 낫이라는 건.)

105015 @ 으.(으.)

105015 #1 대중 말로는 풀 베는 걸 호미라고 허는데.(대중 말로는 풀 베는 걸 낫이라고 하는데.)

105015 @ 으, 으.(으, 으.)

105015 #1 여기서는 풀 비는 걸 보고 호미라고 한다 말야.(여기서는 풀 베는 걸 보고 낫이라고 한다 말이야.)

105015 @ 그니까 맞디 강 풀 비는 것도 호미고.(그러니까 밭에 가서 풀 베는 것도 낫이고.)

101) ‘빗창’은 해녀가 바다 속에서 전복 같은 것을 켤 때 쓰는 쇠로 만든 비스듬하고 길쭉한 연장을 말한다.

102) ‘중계호미’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미역·툇 등의 해초를 베어 낼 때 쓰는 호미다.

105015 #1 거 그렇지.(거 그렇지.)
105015 @ 바닷가 강 메역허는 것도.(바닷가 가서 미역하는 것도.)
105015 #1 어, 계란.(어, 그러니까.)
105015 @ 호미?(낫?)
105015 #2 건 중계호미.(건 ‘중계호미’.)
105015 #1 바닷가에 가는 건 중계호미.(바다에 가는 건 ‘중계호미’.)
105015 @ 예, 중계호미예? 바다에 가는 건 중계호미.(예, ‘중계호미’요? 바다에 가는 건 ‘중계호미’.)
105015 #1 어.(어.)
105015 @ 그냥 밧디 쓰는 건 그냥 호미.(그냥 밧에 쓰는 건 그냥 낫.)
105015 #1, #2 호미.(낫.)
105015 @ 호미예. 으, 또 빗창도.(낫요. 으, 또 ‘빗창’도.)
105015 #1 이추룩 생각해 가사 나오는 거.(이렇게 생각해 가야 나오는 거.)
105015 @ 그니까 영 말 끝아 가민 나옵니다. 생각납니다.(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가면 나옵니다. 생각납니다.)
105015 #2 으.(으.)
105015 @ 말 끝아 가민.(말해 가면.)
105015 #2 빗창도 해야주, 빗창도.(‘빗창’도 해야지, ‘빗창’도.)
105015 @ 빗창도 해야 되는 거예?(‘빗창’도 해야 되는 거요?)
105015 #2 으.(으.)
105015 @ 요즘도 물질덜 하잖아예, 할무니덜예?(요즘도 물질들 하잖아요, 할머니들요?)
105015 #2 으.(으.)
105016 @ 그민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허민 뭐가 달르과? 어떻 달르과? 예전이랑 지금이랑.(그러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105016 #2 게 옷 달른 거나 허고.(그래 옷 다른 거나 하고.)
105016 @ 으, 옷 달른 거.(으, 옷 다른 거.)
105016 #2 고무나 허고. 옛날엔 콧으로 해서 두렁박을 멘들앗는디 지금은 스펀지 버국이 해서 그거 허고.(고무나 하고. 옛날에는 박으로 해서 테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펀지 ‘버국’ 해서 그거 하고.)
105016 @ 옛날은 콧으로 만들어신디?(옛날은 박으로 만들었는데?)
105016 #2 으.(으.)
105016 #1 어, 옛날엔 박 키워 가지고.(어, 옛날엔 박 키워 가지고.)
105016 @ 으, 그민 콧으로 만든 것도 테왁이렌 했어?(으, 그러면 박으로 만든 것도 테왁이라고 했어?)
105016 #2 으.(으.)

105016 #1 그걸 보고 테왁이라고 했주.(그걸 보고 테왁이라고 했지.)

105016 @ 그걸 테왁이렌 불러나난. 이제 스폰지로 만든 것도 테왁이렌 허는 거라예?(그걸 테왁이라고 불렀었어. 이제 스폰지로 만든 것도 테왁이라고 하는 거지요?)

105016 #1, 2 으.(으.)

105018 @ 아, 꼭으로 만들었던 거덜도. 음, 툇은 어떻 채취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아, 박으로 만들었던 거들도. 음, 툇은 어떻게 채취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105018 #2 툇은 어촌계에서 알아 가지고 이 어촌계 해녀덜이 그 놈을 채취해영 끈어다가 물러왕.(툇은 어촌계에서 알아 가지고 이 어촌계 해녀들이 그 놈을 채취해서 끊어다가 말려서.)

105018 @ 으.(으.)

105018 #2 받아 갖추게.(받아 갔지.)

105018 #1 아주 옛날에는.(아주 옛날에는.)

105018 @ 으, 아주 옛날에는.(으, 아주 옛날에는.)

105018 #2 해단 먹어신디.(해다가 먹었는데.)

105018 #1 아주 옛날에는 자기 먹을라만 했지 풀라고 허질 안했으니까.(아주 옛날에는 자기 먹으려고만 했지 팔려고 하질 안 했으니까.)

105018 @ 으, 으.(으, 으.)

105018 #1 조금씩 가서 해다가 물려서.(조금씩 가서 해다가 말려서.)

105018 @ 그럼 어촌계가 생긴 건 언제쯤이라?(그럼 어촌계가 생긴 건 언제쯤이야?)

105018 #2 몰라.(몰라.)

105018 #1 어촌계는 일정시대부터 생긴 거지.(어촌계는 일정시대부터 생긴 거지.)

105018 @ 아, 일제시대부터 생긴 거?(아, 일제시대부터 생긴 거?)

105018 #1 어.(어.)

105018 @ 계민 어촌계에서 공동으로.(그럼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105018 #1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운용헌 거는 요 근래고.(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운용하는 거는 요 근래이고.)

105018 @ 으.(으.)

105018 #2 그거 해다가 돈을 다 풀면 훼손들안티 돈을 다 갈랏주게.(그거 해다가 돈을 다 팔면 회원들에게 돈을 다 나줬지.)

105018 @ 계민.(그럼.)

105018 #2 공동만 돼는 거.(공동만 되는 거.)

105019 @ 툇은 공동으로 헛잖아예, 우뭇가사리, 우미도 공동으로 헛수과?(툇은 공동으로 헛잖아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헛습니까?)

105019 #1 어, 그렇지.(어, 그렇지.)

105019 #2 우미도 공동으로.(우뭇가사리도 공동으로.)

105019 #1 중간엔 다, 옛날에는.(중간엔 다, 옛날에는.)

105019 @ 으.(으.)

105019 #1 우미도 헛다가 자기가 먹을라고 했는데.(우뭇가사리도 헛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105019 @ 으.(으.)

105019 #1 게도 쫘 남으면 풀기도 허고.(그래도 쫘 남으면 팔기도 하고.)

105019 @ 전 한동예, 구좌읍 한동리인디 어무니가 물질해낫수다. 국민학교 때 학교 가면 어머니 물질 갔을 때 거 잡아 주렌 가난예.(전 한동요, 구좌읍 한동리인데 어머니가 물질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학교 가면 어머니 물질 갔을 때 잡아 주라고 갔었어요.)

105019 #2 으.(으.)

105019 @ 케민, 떨어진 거 막 봉가 비닐에.(그럼, 떨어진 거 마구 주워서 비닐에.)

105019 #1 게메.(그러게.)

105019 @ 바구니에 봉강 왕 그거 나가 봉가 온 건 나 뭇으로 행 돌런.(바구니에 주워 와서 그거 내가 주워 온 건 내 뭇으로 해서 말렸어.)

105019 #1 하하.(하하.)

105019 #2 어.(어.)

105019 @ 우리 한동은 그거 개인이 헛거든마씨.(우리 한동은 그거 개인이 했었어요.)

105019 #1 아, 게메, 여기도 옛날에는 개인이라신디.(아, 그러게요, 여기도 옛날에는 개인이었는데.)

105019 #2 물건 나는 것이 한동허고 여기허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한동이 잘 나지.(물건 나는 것이 한동하고 여기하고 하늘과 땅 차이야. 한동이 잘 나지.)

105019 @ 아, 우민 한동이 잘 나는 것과?(아, 우뭇가사린 한동이 잘 나는 겁니까?)

105019 #2 어.(어.)

105019 #1 옛날에는 여긴 툄이나.(옛날에는 여긴 툄이나.)

105019 @ 어.(어.)

105019 #1 여긴 툄이 아니라 툄이라.(여긴 툄이 아니라 ‘툄’이야.)

105019 #2 우뭇가사리가 한동 거는 이만씩 더박더박¹⁰³⁾ 먹을 만허고. 여기 거는 삐작삐작.(우뭇가사리가 한동 거는 이만큼씩 ‘더박더박’ 먹을 만하고. 여기 거는 ‘삐작삐작’.)

105019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3) ‘더박더박’은 물건이 크고 굵은 것을 나타낸 말이다.

105019 #2 으.(으.)

105019 #1 계난 여기는 가인 먹을라고 허다가.(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먹으려고 하다가.)

105019 @ 으, 으.(으, 으.)

105019 #1 좀 남으면은 거 사례 다니는 사름덜 있어, 개인별로.(좀 남으면 거 사례 다니는 사름덜 있어, 개인별로.)

105019 @ 으.(으.)

105019 #1 그 사름덜신디 좀 팔고.(그 사름덜에게 좀 팔고.)

105019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5019 #2 김녕, 한동더레 말은.(김녕, 한동에 말은.)

105019 #1 요 근래에 와서.(요 근래에 와서.)

105019 @ 으.(으.)

105019 #1 수협이 저 단체가 뉘기 시작허면서 이제 자기네가 딱 잡아 붙어 가지고 일반 사름덜 못 허게 헤가지고는 자기네가 해서 공동 판매를 했주.(수협이 저 단체가 되기 시작허면서 이제 자기네가 딱 잡아 버려 가지고 일반 사름덜 못 하게 해서는 자기네가 해서 공동 판매를 했지.)

105019 @ 으.(으.)

105019 #2 그만 들영 가.(그만 듣고 가.)

105020 @ 아니, 몇 개 더. 전복, 소라는 개인이 헛수과, 공동으로 헛수과?(아니, 몇 개 더. 전복, 소라는 개인이 헛수과, 공동으로 헛수과?)

105020 #1 아주 옛날에야 개인이 헛지.(아주 옛날에야 개인으로 헛지.)

105020 #2 개인이 헛지.(개인이 헛지.)

105020 @ 개인이. 지금은 공동?(개인이. 지금은 공동?)

105020 #1 어.(어.)

105020 #2 지금은 양식장을 헤 가지고.(지금은 양식장을 헤 가지고.)

105020 @ 으.(으.)

105020 #2 그 양식장에 가입된 사름은 공동으로 해서 팔고.(그 양식장에 가입된 사름은 공동으로 해서 팔고.)

105020 @ 으.(으.)

105020 #2 가입 안 된 사름은 그디 얼씬도 못 거리고.(가입 안 된 사름은 거기 얼씬도 못 거리고.)

105020 #1 옛날에는 전복이고 해삼이고 전부 가인.(옛날에는 전복이고 해삼이고 전부 개인.)

105021 @ 예. 전복에 종류가 잇수과?(예. 전복에 종류가 잇수과?)

105021 #2 전복은 종류 엇어.(전복은 종류 엇어.)

105021 @ 암.(암.)

105021 #1 암놈, 수놈이야 있겠주만은.(암놈, 수놈이야 있겠지만.)

105021 @ 케니까 암놈, 수놈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그러니까 암놈, 수놈 부르는 명칭이 따로 없어?)

105021 #2 없어.(없어.)

105021 #1 없어.(없어.)

105021 @ 없어. 큰 거, 작은 거 부르는 명칭도 따로 있고?(없어. 큰 거, 작은 거 부르는 명칭도 따로 없고?)

105021 #2 어. 큰 거, 작은 거베끼. 요건 전복, 전복 죽은 건 거 존 거엔 현 거 베끼.(어. 큰 거, 작은 거밖에. 요건 전복, 전복 죽은 건 거 잔 거라고 한 거밖에.)

105021 @ 아, 큰 이건 크다, 이건 죽다.(아, 큰 이건 크다, 이건 작다.)

105021 #1 아니, 죽은 것이라 설폐역¹⁰⁴.(아니, 작은 것보고 ‘설폐역’.)

105021 @ 잠깐만 전복 죽은 거 설폐역.(잠깐만 전복 작은 거 ‘설폐역’.)

105021 #1 어, 설폐역.(어, ‘설폐역’.)

105021 #2 설폐역.(‘설폐역’.)

105021 @ 아, 설폐역예?(아, ‘설폐역’요?)

105021 #1, #2 으.(으.)

105021 @ 그민 이거 전복이잖아예?(그럼 이거 전복이잖아요?)

105021 #2 으. 이런 부분 명칭, 고망을 뭐렌 근다 그런 건 잊고?(으. 이런 부분 명칭, 구멍을 뭐라고 말하는 그런 건 없고?)

105021 #1 여기선 그런 건 없어.(여기선 그런 건 없어.)

105022 @ 없어요. 없고예, 명칭. 거 테위, 테위는 어떻게 만들었수과?(없어요, 없고요, 명칭. 거 테우, 테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5022 #1 숙, 숙대나무, 요즘 숙대낭이엔 현 거 그거 해당가 말리워서 만들었지.(삼, 삼나무, 요즘 ‘숙대낭’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해당가 말려서 만들었지.)

105022 @ 말려 가지고 그냥 자기대로 만들어가지고.(말려 가지고 그냥 자기대로 만들어서.)

105022 #1, #2 어.(어.)

105022 @ 배 띄왕 자리 거러난?(배 띄워서 자리 잡았었어?)

105022 #1 어, 그렇주게. 자기대로.(어, 그렇지. 자기대로.)

105022 #2 자리 거리는 사람들끼리 막 그런 걸 만들주.(자리 잡았던 사람들끼리 마구 그런 걸 만들지.)

105022 @ 케민 자기 꺼만 허는 게 아니라 멧 사람이 ㄴ치 허여?(그럼 자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멧 사람이 같이 해?)

105022 #2 어, 수닐명. 그레 누구네 테위 짓엄져, 누구네 테위 짓엄져 허민.(어, 품앗이하면서. 그리 누구네 테우 짓는다고, 누구네 테우 짓는다고 하면.)

105022 @ 누구네 테위 짓엄져 허명.(누구네 테우 짓는다고 하면서.)

105022 #2 경 헤 도렌 허고 허레 가고.(그렇게 해 주라고 하고 하러 가고.)

104) ‘설폐역’은 작은 전복을 말한다. 섬피역, 설피역이라고도 한다.

105023 @ 그럼 테위 말고 아까, 요거는, 아까 이런 배는?(그럼 테우 말고 아까, 요거는, 아까 이런 배는?)

105023 #1 이건 풍선.(이건 풍선.)

105023 @ 풍선이렌 헛잖아예?(풍선이라고 헛잖아요?)

105023 #1 어.(어.)

105024 @ 삼촌 이 풍선 명칭덜 알아지쿠과? 이 앞에 부분은 뭐레 하더라?(삼촌 이 풍선 명칭들 알겠습니까? 이 앞에 부분은 뭐라고 하더라?)

105024 #1 글썸, 다 알아지커라? 뒤에는 고물이렌 허는디.(글썸, 다 알 수 있겠어? 뒤에는 고물이라고 하는데.)

105024 @ 으, 뒤에는 고물. 앞에 이물이렌 헛니까?(으, 뒤에는 고물. 앞에 이물이라고 합니까?)

105024 #1 거, 이물. 난 배에 대해서는 안 해 보니까 잘.(거, 이물. 난 배에 대해서는 안 해 보니까 잘.)

105024 @ 케민 나중에 이거 생각나면 좀 한 번 물어보쿠다.(그럼 나중에 이거 생각나면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05024 #2 으.(으.)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쿠다예. 옷 종류예?(옷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옷 종류요?)

106001 #2 으, 이거 든 사진 찍으멍 부찌고 어디 강? 하하하.(으, 이거 모두 사진 찍으면서 붙이고 어디 가서? 하하하.)

106001 @ 이런 거 해 두민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은.(이런 거 해 두면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106001 #2 이걸 아무나 못 만들어 가지고.(이걸 아무나 못 만들어 가지고.)

106019 @ 이걸 뭐렌 곶아낫수과, 이걸?(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106019 #2 그거, 물레.(그거, 씨아.)

106019 @ 물레렌 곶아난예. 물레로 뭐 허는 거라?(씨아라고 말했었어요. 씨아로 뭐 하는 거야?)

106019 #2 목화, 멘네.(목화, 면화.)

106019 @ 멘네.(면화.)

106019 #1 씨 불르는 거주.(씨 바르는 거지.)

106019 #2 멘네를 막 벳디 널영 들류왕, 이거 영헌 거 닥아도 여기가 틈 낭 이

거 쌀이 두 개라 이거.(목화를 마구 벌에 널어서 말려서, 이거 이런 거 같아도 여기가 틈이 나서 이거 쌀이 두 개야 이거.)

106019 @ 예.(예.)

106019 #2 요 사이더레 맥이면서 저 앞으로, 요거 끝앙 앓앙.(요 사이에 먹이면서 저 앞으로, 요거 깔아 앉아서.)

106019 @ 으.(으.)

106019 #2 요 노단착 손으론 들르고 웬착 손으론 맥이멍 둘러 가민 씨는 앞더레 돌돌 털어지고 목화만 뒤터레 나가지.(요 오른쪽 손으론 두르고 왼쪽 손으론 먹이면서 둘러 가면 씨는 앞으로 돌돌 떨어지고 목화만 뒤로 나가지.)

106019 #1 씨 블루는 거주게.(씨 바르는 거지.)

106019 @ 게민 실을 여기만 하나씩 넣는 거?(그럼 실을 여기만 하나씩 넣는 거?)

106019 #2 털어지지.(떨어지지.)

106019 @ 아, 털어지는 거.(아, 떨어지는 거.)

106019 #1 목화는 멘네렌 헨에.(목화는 '멘네'라고 해서.)

106019 #2 요거 끝앙 앓앙.(요거 깔고 앉아서.)

106019 @ 예.(예.)

106019 #2 이건 노단착으로 들루고 요거 요 사이 배롱헌더레.(이건 오른쪽으로 두르고 요거 요 사이 자그마한 틈에.)

106019 @ 예.(예.)

106019 #2 멘네를 영 맥이멍 헤가민 씨는 밋터레 떨어지곡 목화는 뒤터레 찰찰 나가고.(목화를 이렇게 먹이면서 하면 씨는 밑으로 떨어지고 목화는 뒤로 찰찰 나가고.)

106019 @ 나가고.(나가고.)

106019 #2 그러면 또.(그러면 또.)

106019 @ 으.(으.)

106019 #2 많이 해서 이제 멧 근 해 가지고 또 태우는 기계가 있어.(많이 해 가지고 이제 멧 근 해서 또 태우는 기계가 있어.)

106019 @ 으.(으.)

106019 #2 그 집이 가서 태와 오랏어.(그 집에 가서 태워 왔어.)

106020 @ 이런 건 안 하고?(이런 건 안 하고?)

106020 #2 이건 무시거라?(이건 무엇이야?)

106020 @ 이건 실 뽑을 때는 이거, 이건 실 막 돌릴 때.(이건 실 뽑을 때는 이거, 이건 실 마구 돌릴 때.)

106020 #2 게난 그걸 태와 오라야 이걸 허지.(그러니까 그걸 태워 와야 이걸 하지.)

106020 @ 아, 태우는 건 어디 강 태와?(아, 태우는 건 어디 가서 태워?)

106020 #1 그때는 기계가 따로 잇었주.(그때는 기계가 따로 있었지.)

106020 #2 그 태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 들랑 들랑¹⁰⁵⁾ 불라 가민 그 숨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움상허게¹⁰⁶⁾ 퍼지면은.(그 태우는 기계가 있어. 발로 ‘들랑 들랑 들랑’ 밟아 가면 그 숨이 지글지글 지글지글 퍼져 가지고 ‘움상’하게 퍼지면.)

106020 @ 으.(으.)

106020 #2 이만씩 뜯어놔서 싹싹 또 김밥보단 조금 길고 ㄱ늘게.(이만큼씩 뜯어놔서 싹싹 또 김밥보단 조금 길고 가늘게.)

106020 @ 으.(으.)

106020 #2 말아다가.(말다가.)

106020 #1 걸 보고 정¹⁰⁷⁾이라고 해, 정.(걸 보고 ‘정’이라고 해, ‘정’.)

106020 #2 정.(‘정’.)

106020 @ 그 태와 온 걸 정이렌?(그 태워 온 걸 ‘정’이라고?)

106020 #2 그 말아 논 거.(그 말아 놓은 거.)

106020 #1 몰아 논 거.(말아 놓은 거.)

106020 #2 멘네 정.(목화 ‘정’.)

106020 @ 아, 멘네 실, 멘네를 뽑아 놓은 거를 넘적허게 헨 그걸 돌돌 만다고 요?(아, 목화 실, 목화를 뽑아 놓은 거를 납작하게 해서 그걸 돌돌 만다고요?)

106020 #2 으, 솜틀에 저 가서 이걸, 이걸로 혼 다음에.(으, 솜틀에 저 가서 이걸, 이걸로 한 다음에.)

106020 @ 으.(으.)

106020 #2 그래서 이 장보다는 요만이 허게 해근에 부각허게¹⁰⁸⁾ 해 놔근에 기술적으로 할머니들이 짝 ㄱ는디, 김밥보다는 ㄱ늘고 길고 허게 멧 보달¹⁰⁹⁾을 허다가 딱 여기 제겨 놔둬서 이걸로. 이던 뭐가 있어, 이던.(그래서 이 장보다는 요만큼 하게 해서 ‘부각’하게 해 놓고 기술적으로 할머니들이 짝 마는데, 김밥보다는 가늘고 길고 해서 멧 ‘보달’을 하다가 딱 여기에 재여 놔두면서 이걸로. 여긴 뭐가 있어, 여긴.)

106020 #1 이디 가레기.(여기 가락.)

106020 #2 가레기.(가락.)

106020 @ 아, 이게 여기가 가레기?(아, 이게 여기가 가락?)

106020 #2 실 감아지는 거.(실 감기는 거.)

106020 @ 어.(어.)

106020 #2 이거 둘러 가민 이 형태로 뵈거라이. 영 헨 이제 가레기더레 영 둘루

105) ‘들랑 들랑 들랑’은 목화 태우는 기계를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6) ‘움상허다’는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 ‘정’은 물레에서 뽑아낸 솜을 가늘게 말아서 실을 뽑기 좋게 만든 것을 말한다. ‘멘넛정’이라고도 한다.

108)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9) ‘보달’은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명.(이거 둘러 가면 이 형태로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락에 이렇게 두르면서.)

106020 @ 요거랑 비슷했수과, 요거랑 비슷했수과?(요거랑 비슷했습니까, 요거랑 비슷했습니까?)

106020 #1 이거주, 이거.(이거지. 이거.)

106020 #2 으.(으.)

106020 #1 저거는 살이 많고. 여기 사름덜은 이거.(저거는 살이 많고. 여기 사람들은 이거.)

106020 @ 아.(아.)

106020 #2 이거 계난 그냥 가레기를 요레 언쳐 낡.(이거 그러니까 그냥 가락을 요리 얹어 놓고.)

106020 @ 요게 가레기예?(요게 가락요?)

106020 #2 으.(으.)

106020 @ 그럼 여기에 실들이 감아지는 거?(그럼 여기에 실들이 감기는 거?)

106020 #2 으, 가레기러래 실 말아지는 거.(으, 가락에 실 말리는 거.)

106020 #1 여기는 억새, 여기 우리말로 어웁.(여기는 억새, 여기 우리말로 ‘어웁’.)

106020 @ 어웁.(억새.)

106020 #1 그, 저 그 겹테기 그걸 해당 여길 뽑아.(그 저 그 겹테기 그걸 해당 여길 뽑아.)

106020 @ 으. 어웁 낡 요만한 걸 여기 뽑으면.(으. 억새 나무 요만한 걸 여기 뽑으면.)

106020 #2 췌주게. 어디 가레기가게.(쇠지. 어디 가락이.)

106020 #1 가레기 뽑는 건.(가락 뽑는 건.)

106020 #2 가레기 뽑는 거 빈둑, 저 사람 데옥¹¹⁰게.(가락 뽑는 거 ‘빈둑’, 저 사람 ‘데옥’.)

106020 #1 데옥 말양 실 감는 거 말이주게. 실 감을 적에 가레기에.(‘데옥’ 말양 실 감는 거 말이.)

106020 #2 꼬리 말이라?(실뚫 말이야?)

106020 #1 꼬리 말양, 가레기에 저 어웁 그 저 뺑이 헤다근에 췌랑 궤근에 실 그것에 감양 궤지 안헤서게.(실뚫 말양, 가락에 저 억새 그 저 뺑기 헤다가 잘라서 궤어서 실 그것에 감아서 궤지 않았어.)

106020 @ 아하, 계난 가레기에 췌가 이신디?(아하, 그러니까 가락 쇠가 있는 데?)

106020 #1 췌 우이 뽑아.(쇠 위에 꽃아.)

106020 @ 췌 우이 가게기를.(쇠 위에 가락을.)

110) ‘데옥’은 물렛가락의 윗몸에 끼워 고정시킨 두 개의 구슬 같은 물건을 말한다. ‘도옥’이라고도 한다.

106020 #2 이거 이거 다 헛구만은.(이거 이거 다 헛구만.)

106020 @ 겐 여기에 실?(그래서 여기에 실?)

106020 #1 감아지민 뽑아지지 그렇지 안 허민 췌 못 뽑아.(감기면 뽑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쇠 못 뽑아.)

106020 #2 이거 이것이 다 잇구만. 줄을 이거 이디 오랑 언쳐사 이거 둘러 가민 실이 이만이 뽑아 논 걸 또 수룩허게 감고. 감아 텡 또 영 영, 풀 진 사름은 이만치 졸른 사름은 이만치 허영 다 헤지민 또 영 영 헤가민 또 주룩허게 감아지고. 이 줄 이 이거 이거라 이거.(이거 이것이 다 잇구나. 줄을 이거 여기 와서 얹어야 이거 둘러 가면 실이 이만큼 뽑아 놓은 걸 또 길쭉하게 감고. 감아 두고 또 이렇게 이렇게, 팔 긴 사름은 이만큼 짧은 사름은 이만큼 해서 다 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주르르하게 감기고. 이 줄이 이거 이거야 이거.)

106020 @ 감아지는 거.(감기는 거.)

106020 #2 가레기. 이거 잘 헤신게.(가락. 이거 잘 했는데.)

106020 @ 음. 경행 이거 명주실을 뽑았던 거?(음. 그렇게 해서 이거 명주실을 뽑았던 거?)

106020 #2 미녕.(무명.)

106020 @ 미녕 뽑았던 거?(무명 뽑았던 거?)

106020 #2 명주실은 이렇게 안 뽑아.(명주실은 이렇게 안 뽑아.)

106020 @ 으.(으.)

명주

106005 @ 아아, 명주실은 어떻 뽑읍니까?(아아, 명주실은 어떻게 뽑습니까?)

106005 #2 명주실은 누에를 질러 가지고 메칠이 뉘면 딱 것도 기한이 뉘면 여기 말로, 옛날말로 올르젠 헉젠 허여. 올르젠 허면 뉘.(명주실은 누에를 길러 가지고 며칠이 되면 딱 것도 기한이 되면 여기 말로, 옛날말로 오르려고 한다고 해. 오르려고 하면 뉘.)

106005 @ 미녕 올림져. 아니, 저.(무명 오르고 있어. 아니, 저.)

106005 #1 누에.(누에.)

106005 #2 아니, 저 누에 올림져 해근에 뉘, 뉘을 만들주게 이런 거에.(아니, 저 누에 오른다고 해서 뉘, 뉘을 만들지. 이런 거에.)

106005 @ 으.(으.)

106005 #2 새깍¹¹¹⁾으로 해 가지고 너질너질 문들아서 이레 앓다 낡 그 올르젠 허민 밥도 안 먹고 누에가 알랑 알랑 알랑 허멍 입으로 명주실이 막 잘잘 나오라 가.(‘새깍’으로 해 가지고 ‘너질너질’ 만들아서 이리 가져다 놓고 그 오르려고 하면 밥도 안 먹고 누에가 ‘알랑 알랑 알랑’ 하면서 입으로 명주실이 막 잘잘 나와 가.)

106005 @ 하.(하.)

111) ‘새깍’은 새 줄기나 줄기의 날개를 일컫는 말이다.

106005 #2 잘잘 나오라 가명 알랑 알랑 이추룩 허멍 막 허민, 그런 걸로만 골라다가 그 여길 올령 ㄱ만이 봐 두민 그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실이 요만씩 고추를 만드는 거주.(잘잘 나와 가면서 ‘알랑 알랑’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 그런 걸로만 골라다가 그 여길 올려서 가만이 봐 두면 그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실이 요만큼씩 고추를 만드는 거지.)

106005 @ 으.(으.)

106005 #2 게민 그 고추를 이제 막 굳으면은, 메칠이 돼민 굳주게. 것도 날짜가, 난 날짜를 몰라. 날짜가 돼면 굳으면 그 놈을 따서 밖에 거를 다 너질너질 현 것을 베껴 두고 속에 깨끗한 것만.(그럼 그 고추를 이제 아주 굳으면, 며칠이 되면 굳지. 것도 날짜가, 난 날짜를 몰라. 날짜가 되면 굳으면 그 놈을 따서 밖에 거를 다 ‘너질너질’ 한 것을 벗겨 두고 속에 깨끗한 것만.)

106005 @ 으.(으.)

106005 #2 또 솟디 봐서 그놈을 삶으면서 또 이 식으로.(또 술에 봐서 그놈을 삶으면서 또 이 식으로.)

106005 @ 누에를 삶는 거, 아니면 나온 거를?(누에를 삶는 거, 아니면 나온 거를?)

106005 #2 고치를.(고치를)

106005 #1 고치.(고치)

106005 @ 고치 나온 거예.(고치 나온 거요.)

106005 #2 고치를 삶으면은 삶아서, 영 삶는 솟디서 하시¹¹²⁾ 거락으로 이렇게 허다 보면 그 줄이 다 이레 엉켜져.(고치를 삶으면 삶아서, 이렇게 삶는 술에서 첫가락 가락으로 이렇게 허다 보면 그 줄이 다 이렇게 엉켜.)

106005 @ 으.(으.)

106005 #2 엉켜지민 그걸 영 이레 등기면 가만히 솟디서 보면 그 누에가 영영 허멍 그 고치를 만들었던 올이.(엉키면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면 가만히 술에서 보면 누에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 고치를 만들었던 올이.)

106005 @ 응.(응.)

106005 #2 또 고추가 오글오글허멍 그 줄이 다 풀어져 가이.(또 고치가 오글오글하면서 그 줄이 다 풀어져 가.)

106005 @ 으.(으.)

106005 #2 풀어져 가민 그 줄을 또 이제 요런 것에 감는 거야.(풀어져 가면 그 줄을 또 이제 요런 것에 감는 거야.)

106005 @ 으.(으.)

106005 #2 이런 것에 감으멍 솟디서 삶으면 하시로 떨어질까 봐 들쭉들쭉¹¹³⁾허멍 이걸로 감아. 막 멧 번 감는 것이. 멩주허고 미녕허는 것이 손 가는 것이 츠레츠

112) ‘하시’는 일본어 ‘はし’로 첫가락을 말한다.

113) ‘들쭉들쭉’은 느린 동작으로 만지작만지작하거나, 무엇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지는 꼴을 말한다.

레로 몇 번인지 몰라.(이런 것에 감으면서 솔에서 삶으면 젓가락으로 떨어질까 봐 ‘들쭉들쭉’하면서 이걸로 감아. 아주 몇 번을 감는 것이. 명주 하고 무명 하는 것이 손 가는 것이 차례차례로 몇 번인지 몰라.)

106005 @ 아, 기민 뭐 기계 안 해영 손에 뭐?(아, 그럼 뭐 기계 안 하고 손에 뭐?)

106005 #2 아니 기계. 아까 이런 것덜에 감아.(아니 기계. 아까 이런 것들에 감아.)

106005 @ 아.(아.)

106005 #2 솟디 실을.(솔에 실을.)

106005 @ 솟디 실을.(솔에 실을.)

106005 #2 으. 솟디 실을 흔 착 손으로는, 그때는 또 방향이 이제 바꾸지. 이거 처음 목화를 젓을 때는 노단착 손으로 이거 들르면서 이렇게 손으로 빼 가고.(으. 솔에 실을 한 쪽 손으로는, 그때는 또 방향이 이제 바꾸지. 이거 처음 목화를 젓을 때는 오른쪽 손으로 이거 들면서 이렇게 손으로 빼 가고.)

106005 @ 으.(으.)

106005 #2 멥주를 헐 때는 이착 손으로 들르면서 이착 손으로 솟디 그 고치가 떨어져. 실이 떨어질까봐 이레 엇저 부치는 거라. 엇저 부쳐근에 이레 이거 이렇게 타수를. 이거 부쳐 노면 이제 베끼면 실거치 타수가 될 거 아냐?(멥주를 할 때는 이쪽 손으로 들면서 이쪽 손으로 솔에 그 고치가 떨어져. 실이 떨어질까 봐 이리 엇저 붙어서 이리 이거 이렇게 타수를. 이거 붙어 놓으면 이제 벗기면 실같이 타수가 될 거 아냐?)

106005 @ 으.(으.)

106005 #2 타수를 또 동그랑헌 거를 그 타수에 맞은 것을 만들어서 끼워 놓고 이제는 감지. 멥주는.(타수를 또 동그란 거를 그 타수에 맞은 것을 만들어서 끼워 놓고 이제는 감지. 멥주는.)

106005 @ 으.(으.)

106005 #2 여기 지금 저 간쯔메¹¹⁴⁾ 깡통.(여기 지금 저 통조림 깡통)

106005 @ 으.(으.)

106005 #2 그런 것에 감아, 멥주는.(그런 것에 감아, 멥주는.)

106005 @ 아, 간쯔메 깡통.(아, 통조림 깡통.)

106005 #2 으.(으.)

106005 @ 간쯔메 깡통.(통조림 깡통.)

106005 #2 그것에 이제 그 멥지를 멘들라면, 놀라고 허면 숫자가 다 잇주게.(그것에 이제 그 멥주를 만들려면, 날려고 하면 숫자가 다 있지.)

106005 @ 으.(으.)

106005 #2 열두 개.(열두 개.)

114) ‘간쯔메’는 일본어 ‘かんづめ(缶詰)’로 통조림을 말한다.

106005 @ 으.(으.)
 106005 #2 열두 개를 감아 놔야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놀아.(열두 개를 감아 놔야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날아.)
 106005 @ 으.(으.)
 106005 #2 누는 것이 뭐.(나는 것이 뭐.)
 106005 @ 누다는 게 뭐과? 누는 게?(난다는 것이 뭐입니까?)
 106005 #1 왜냐면은 이쪽에 말뚝 박고 요기해서 이 길이, 왔다 갔다 허는 걸 보고 누다 했어.(왜냐하면 이쪽에 말뚝 박고 요기해서 이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난다 했어.)
 106005 #2 왔다 갔다 멍지 필.(왔다 갔다 명주 필.)
 106005 #1 그 길이에 이제.(그 길이에 이제.)
 106005 #2 필 자수를 만들어야지.(필 자수를 만들어야지.)
 106005 @ 예, 예.(예, 예.)
 106005 #2 그렇게 놀아서 이제 어떡 허냐 허면은 다 그, 다 그거. 나는 이제 그거 머리에 안 드니까.(그렇게 날아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그, 다 그거. 나는 이제 그거 머리에 안 드니까.)
 106005 @ 으.(으.)
 106005 #2 이제 그걸 놀아 가지고 또 다 이제 그걸 그 허터지까 봐 이렇게 이렇게 막 허터지지 안 허게 옛날말로 잘해서 놔뒀다가 또 매여. 매는 것이 있어. 매는 거는.(이제 그걸 날아 가지고 또 다 이제 그걸 그 흠어질까 봐 이렇게 이렇게 아주 흠어지지 않게 옛날말로 잘 해서 놔뒀다가 또 매. 매는 것이 있어. 매는 거는.)
 106005 @ 으.(으.)
 106021 #2 또 이거 짜는 건 이디 안 나왔네.(또 이거 짜는 건 여기 안 나왔네.)
 106021 @ 아, 베틀?(아, 베틀?)
 106021 #2 으.(으.)
 106021 @ 베틀, 이거예?(베틀, 이거요?)
 106021 #2 으.(으.)
 106021 #2 거는 미녕이나 멍주나 ㄴ똥 거라.(거는 무명이나 명주나 같은 거야.)
 106021 #2 땀 때는, 땀 때는 그 베틀에 도꼬마리¹¹⁵⁾라고 그 일름이 도꼬마리. 일본말인가 윈. 도꼬마리라고 이만이 현 걸 해서.(땀 때는, 땀 때는 그 베틀에 도투마리라고 그 이름이 도투마리. 일본 말인가 윈. 도투마리라고 이만큼 한 거 해서.)
 106021 #1 실 감는 거.(실 감는 거.)
 106021 @ 감는 거.(감는 거.)
 106021 #2 으, 매어 놔서 그땐 베틀에 놔서 짜지.(으, 매어 놔서 그땐 베틀에 놔서 짜지.)

115) '도꼬마리'는 무명을 짤 때, 베틀의 뒤쪽에 놓여서 '버영대'와 실을 감아 두는 크고 넓적한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의 '도투마리'에 대응한다.

106021 @ 아.(아.)

106021 #2 계란.(그러니까.)

106021 #1 난다는 말은.(난다는 말은.)

106021 @ 으.(으.)

106021 #1 저 거 무시거 바다, 바다라고 해서 **로 짜진 거.(저 거 무시거 바다, 바다라고 해서 **로 짜진 거.)

106021 @ 으.(으.)

106021 #1 바다 고망에 전부.(바다 구멍에 전부.)

명주

106003 @ 그럼 그렇게 멍지를, 명주를 짜면 명주에 종류가 잇수과? 어떻게 잘 짜진 건 뭐렌 부르코, 뭐렌 부르코. 예를 들면 생명주, 수아주렌 그런?(그럼 그렇게 명주를, 명주를 짜면 명주에 종류가 잇습니까? 어떻게 잘 짜진 건 뭐라고 부르코, 뭐라고 부르코. 예를 들면 생명주, 수아주라고 하는 그런?)

106003 #2 아니. 생멩주는 솟디 놔서 솟지 안헌 거난 생멩주고 생 거난.(아니. 생멩주는 솟에 놔서 솟지 않은 거니까 생멩주이고, 생 거니까.)

106003 @ 아, 생 거난.(아, 생 거니까.)

106003 #2 으, 생 거난 생멩주.(으, 생 거니까 생멩주.)

106003 @ 으, 생멩주.(으, 생멩주.)

106003 #2 멩주에 대해서는 생멩주는 그 여기서 옷 헐라면 옷 종류에 딸라서 생멩주로 허는 옷이 잇고.(멩주에 대해서는 생멩주는 그 여기서 옷 하려면 옷 종류에 따라서 생멩주로 하는 옷이 잇고.)

106003 @ 으.(으.)

106003 #2 남저 옷을 아주 제 할 때 입는 아주 컷다는 그 관복이라는 그런 거는 솟양 메영 다듬어사 만들고.(남자 옷을 아주 제 할 때 입는 아주 컷다는 그 관복이라는 그런 거는 삶아 매여서 다듬어야 만들고.)

106003 @ 으.(으.)

106003 #2 또 간단히 입는 창옷이라고.(또 간단히 입는 창옷이라고.)

106003 @ 으.(으.)

106003 #2 그거는 생멩주로 허고 이거는 그런 차이만 잇고.(그거는 생멩주로 하고 이거는 그런 차이만 잇고.)

106003 @ 아.(아.)

106003 #2 저 그런 멩주 종류는 실이 잘못 허다 서틀고 잘못 허민, 실 빠는 것이 재주가 엇이민 막 흠어불어이.(저 그런 멩주 종류는 실이 잘못 하다가 서틀고 잘못 하면, 실 빠는 것이 재주가 없으면 아주 굵어.)

106003 @ 으.(으.)

106003 #2 흠어 불면 그런 좋은 멩지를 못 헤 가지고.(굵어 버리면 그런 좋은

명주를 못 해 가지고.)

106003 @ 아, 하하하. 기술이 좀 모자라면 굶어버리니까.(아, 하하하. 기술이 좀 모자라면 굶어버리니까.)

106003 #2 왕실이라고 해서.(‘왕실’이라고 해서.)

106003 @ 으.(으.)

106003 #2 그거는 따로 짜서 왕꼬¹¹⁶⁾는 따로 짜서 훑은 디 사용허는, 뭘 수수헌 옷게.(그거는 따로 짜서 굶은 실은 따로 짜서 굶은 데 사용하는, 뭘 수수한 옷.)

106003 @ 으, 집에서 입을 수 있게?(으, 집에서 입을 수 있게?)

106003 #2 으, 막 그런 비단으로 안 입고 수수헌 옷 허는 거 그런, 그런 종류베 낀.(으, 마구 그런 비단으로 안 입고 수수한 옷 하는 거 그런, 그런 종류밖엔.)

106004 @ 그민 명주실은 종류가 나눠 가지고 이름이 따로 불리는 건?(그럼 명주실은 종류가 나눠 가지고 이름이 따로 부르는 건?)

106004 #2 엇어.(없어.)

106004 @ 그럼 어쨌든 안 좋은 것은?(그럼 어쨌든 안 좋은 것은?)

106004 #2 으.(으.)

106004 #1 이쪽에서는.(이쪽에서는.)

106004 @ 굶은 건 안 좋은 거고예?(굶은 건 안 좋은 거고요?)

106004 #2 으.(으.)

106005 @ 그럼 명주로는 어떤 옷 해 입었수과?(그럼 명주로는 어떤 옷을 해 입었습니까?)

106005 #2 명주로는 보통게 남저덜 큰옷이라고 제사할 때 입고 죽영 갈 때 입곡 허는 이만이 든 멩지로, 그거허고.(명주로는 보통 남자들 큰옷이라고 제사할 때 입고 죽어서 갈 때 입는 이만큼 든 명주로. 그거하고.)

106005 @ 으.(으.)

106005 #1 창옷.(창옷.)

106005 #2 창옷허고. 바지, 저고리. 멩지로는 다 허지. 바지, 저고리도 허고.(창옷하고. 바지, 저고리. 명주로는 다 하지. 바지, 저고리도 하고.)

106005 @ 바지, 저고리도 허고.(바지, 저고리도 하고.)

106005 #2 우리 또 여저들도 시집갈 때 창옷 허고.(우리 또 여자들은 시집갈 때 창옷 하고.)

106005 @ 으.(으.)

106005 #2 치마 저고리도 허고.(치마 저고리도 하고.)

106005 @ 으.(으.)

106005 #2 그러다 보난 지금 시대 나서 저 수에옷으로도 돌아가지 멩주가.(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 나서 저 수의로도 돌아가지 명주가.)

106005 @ 음.(음.)

116) ‘왕꼬’는 굶은 실을 말한다. ‘왕실’이라고도 하였다.

106005 #2 으, 수에로 감주게.(으, 수의로 가지.)

106006 @ 맹주실로 만들었던 거예.(맹주실로 만들었던 거요.)

106006 #2 으.(으.)

106006 @ 그럼 명주 허젠 허민 누에를 칠 거 아니과?(그럼 명주 하려고 하면 누에를 칠 거 아닙니까?)

106006 #2 으.(으.)

106006 @ 누에 치젠 허민 어떻 헤낫수과? 누에 쳐난 거 곶아 줘서.(누에 치려고 하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누에 쳤던 거 말해 주세요.)

106006 #2 아이고, 누에 치젠 허민, 누에는 침 누에씨 왓젠 누에씨 사 가렌 여기 거트면 이젯말로 조합이라이.(아이고, 누에 치려고 하면, 누에는 처음 누에씨 왓다고 누에씨 사 가라고 여기 같으면 이젯말로 조합이라고.)

106006 @ 예.(예.)

106006 #2 그런 디 강. 나는 어무니가 허는 걸 따라서 보는다. 똑 요만이 현 걸 가져와. 그것이 이름이 현 바둑¹¹⁷이라. 현 바둑. 이걸 허민.(그런 데 가서. 나는 어머니가 하는 걸 따라서 보는데. 똑 요만큼 한 걸 가져와. 그것이 이름이 한 ‘바둑’이야. 한 ‘바둑’. 이걸 하면.)

106006 @ 뭐가?(뭐가?)

106006 #2 게민 또.(그럼 또.)

106006 @ 이만이 현 거에 누에 여기 담겨져 있어?(이만큼 한 거에 누에 여기 담겨 있어?)

106006 #1 종자.(종자.)

106006 @ 아, 종자.(아, 종자.)

106006 #1 알게 알.(알 알.)

106006 @ 알.(알.)

106006 #2 알이 뗏보다 좁쌀보다 훨씬 즐지.(알이 뗏보다 좁쌀보다 훨씬 잘지.)

106006 @ 아, 기과? 누에 알이?(아, 그렇습니까? 누에 알이?)

106006 #2 그것이 이제 딱 틈 엇이 박아진 거.(그것이 이제 딱 틈 없이 박힌 거.)

106006 @ 으, 으.(으, 으.)

106006 #2 거 부쩍 거지.(거 붙인 거지.)

106006 @ 으.(으.)

106006 #2 또 현 바둑을 버칭 방도 엇고. 이거 방 아니민 못 허지.(또 한 ‘바둑’을 부쳐서 방도 없고. 이거 방 아니면 못 하지.)

106006 @ 그민 누에 알이 한 요 정도 현 걸 현 바둑이렌 헤마씨?(그럼 누에 알이 한 요 정도 한 걸 한 ‘바둑’이라고 해요?)

106006 #2 어. 게민 또.(어. 그럼 또.)

117) 여기서 ‘바둑’은 누에알이 들어 있는 일정 크기의 판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

106006 #1 거기 수 천 개 들어 있지.(거기 수 천 개 들어 있지.)

106006 #2 조그마니 허고픈 사름은 또 갈라서 반 바둑.(자그마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갈라서 반 ‘바둑’.)

106006 @ 그민 이 혼 바둑 허젠 허민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그럼 이 한 ‘바둑’ 하려고 하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해?)

106006 #2 이 질루는 공간?(이 키우는 공간?)

106006 @ 예, 질루는 공간.(예, 키우는 공간.)

106006 #2 이 방만이 현 것을 다 이제, 요 이젯말로 앵글인디 그때 말로 도들¹¹⁸⁾이라.(이 방만큼 한 것을 다 이제, 요 이젯말로 앵글인데 그때 말로 ‘도들’이야.)

106006 @ 도들. 공간을 도들?('도들'. 공간을 '도들'?)

106006 #2 아니, 앵글을 만드는 거.(아니, 앵글을 만드는 거.)

106006 #1 이렇게 게 층층 만든 거.(이렇게 층층 만든 거.)

106006 #2 방을 다 돌아가면서.(방을 다 돌아가면서.)

106006 @ 앵글을 만든 거?(앵글을 만든 거?)

106006 #2 혼 네 칸. 이젯말로 앵글인디 그때 말로 도들이라, 도들.(한 네 칸. 이젯말로 앵글인데 그때 말로 ‘도들’이야, ‘도들’.)

106006 @ 아, 도들.(아, ‘도들’.)

106006 #2 도들을 메서 이만씩 현 걸 너븐, 이추록 허게 너븐 차룽을 다 만들앙 이디 숨빠 놔야지. 줌박이라고 줌박.(‘도들’ 메서 이만큼씩 한 걸 넓은, 이렇게 하게 넓은 채룽을 다 만들아서 여기 가득차게 놔야지. 잠박이라고 잠박.)

106006 @ 으.(으.)

106006 #2 경허민 이걸 앓다가 메칠을 가만이 차룽착에나 알팍헌 옷 끌고 알팍헌 옷 더꺼근에 그놈을 놔두면, 혼 일주일 놔두면 누에 깨왓저 깨왓저.(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며칠을 가만히 채룽에나 알팍한 옷 깔고 알팍한 옷 덮어서 그놈을 놔두면, 한 일주일 놔두면 누에 깨웠어 깨웠어.)

106006 @ 아니, 요만큼 가져왔잖아예, 누에알을?(아니, 요만큼 가져왔잖아요, 누에알을?)

106006 #2 으.(으.)

106006 @ 그럼 줌박에.(그럼 잠박에.)

106006 #2 아니, 처음은 줌박이 필요 엇고.(아니, 처음은 잠박이 필요 없고.)

106006 @ 아. 가져오는 날은, 요만이 현 차룽착에 알팍헌 옷 더끄곡 끌곡 놔두면은 혼 일주일 시민. 그때도 기술이지 옛날, 누에 깨왓저, 누에 깨왓저. 보면 똑 지금 알기로 이 죽은 개미.(아. 가져오는 날은, 요만큼 한 채룽에 알팍한 옷 덮고 깔고 놔두면 한 일주일 있으면. 그때도 기술이지 옛날, 누에 깨웠지, 누에 깨웠지. 보면 꼭 지금 알기로 이 작은 개미.)

118) ‘도들’은 나무를 엮어서 채룽 등을 엮을 수 있게 만든 선반을 말한다.

106006 @ 으.(으.)

106006 #2 젤 작은 개미.(젤 작은 개미.)

106006 @ 으, 눈에도 잘 안 보이는.(으, 눈에는 잘 안 보이는.)

106006 #2 젤 작은 개미만씩 현 걸 그, 이 종이 우이 복삭이 다 나왔어.(젤 작은 개미만큼씩 한 걸 그, 이 종이 위에 뽁뽁하게 다 나왔어.)

106006 @ 으.(으.)

106006 #2 복삭이 다 나와. 것이 움직거리는 거 아니 움직거리는 것도 몰르고. (뽁뽁하게 다 나와서. 것이 움직거리는 거 아니 움직거리는 것도 모르고.)

106006 @ 으.(으.)

106006 #2 그러면 처음은 혼 차롱에, 그 저 지금, 지금 말로 뭐여, 그 옛날 말로 차롱이엔 허여 우리 그 떡 놓는 거.(그러면 처음은 한 채롱에, 그 저 지금, 지금 말로 뭐여, 그 옛날 말로 채롱이라고 해서 우리 그 떡 놓는 거.)

106006 @ 떡 놓는 차롱에.(떡 놓는 채롱요.)

106006 #2 혼 차롱에 그놈을. 이젠 그렇게 흔해도 종이 끌고이 그것을 그 놈근에, 뽕입을 어떻게 써느냐. 기술 엇인 사람은 못 썰어. 막 줌질이. 막 줌질이 섞엉 그레 솔솔 솔솔 쥘 놈두민.(한 채롱에 그놈을. 이젠 그렇게 흔해도 종이 깔고 그것을 그 놓아서, 뽕잇을 어떻게 써느냐. 기술 없는 사람은 못 썰어. 아주 잘게. 아주 잘게 섞어서 그리 살살 살살 쥐서 놈두면.)

106006 @ 가루처럼.(가루처럼.)

106006 #2 아이, 뭇이 짐승인지 아닌지도 몰르게 존 것이 것을 먹으난 살앙 경 컴지.(아이, 뭇이 짐승인지 아닌지도 몰르게 잔 것이 것을 먹으니까 살아서 그렇게 크지.)

106006 @ 아.(아.)

106006 #2 혼 사흘이 시민 우리가 보기에도 이젠 누엔 줄 알아지게 돼 가.(한 사흘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젠 누엔 줄 알게 돼 가.)

106006 @ 하하.(하하.)

106006 #2 경 혜영 일주일을 질루면은 즘을 세 번 자사 올라.(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키우면 잠을 세 번 자야 올라.)

106006 @ 으.(으.)

106006 #2 일주일을 질루민 누에 즘 잘 때 뵈저. 경 행 즘을 자민 야가지가, 거 애기 뵈 잘 못 바레. 커사 바레지. 야가지가 깎닥도 안 혜영 영 행 그자 밥도 안 주고, 사흘을 자지.(일주일을 키우면 누에 잠 잘 때 뵈어. 그렇게 해서 잠을 자면 모가지가, 거 애기 뵈 잘 못 보여. 커야 보이지. 모가지가 까딱도 안 해서 이렇게 해서 그저 밥도 안 주고, 사흘을 자지.)

106006 @ 으.(으.)

106006 #2 경 자민 이것이 깨나 가민 영 영 영 영 움직움직헤여 가민 누에 깨 엇저.(그렇게 자면 이것이 깨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움직해 가면

누에 깬어.)

106006 @ 으.(으.)

106006 #2 경 험 이제 그 다음 혼 번 즈 지나면 또 훑게 썰지.(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한 번 잠을 자고나면 또 굵게 썰지.)

106006 @ 으.(으.)

106006 #2 커 가는 것에 따라.(커 가는 것에 따라.)

106006 @ 으음.(으음.)

106006 #2 훑게 썰영 이제 쥘 놔두면 이제 그거 먹으면 두 번차 즈자근에 이제 깨면 그때는 요만씩 해 가지게. 요만씩 해 가면 더 훑게 썰지.(굵게 썰어서 이제 쥐서 놔두면 이제 그거 먹으면 두 번째 잠자서 이제 깨면 그때는 이만큼씩 해 가지. 이만큼씩 해 가면 더 굵게 썰지.)

106006 @ 음.(음.)

106006 #2 훑게 썰영 낫당 세 번 즈자나근에 올릴 때 돼민 안 썰어.(굵게 썰어서 놔두었다가 세 번 잠자고서 오를 때 되면 안 썰어.)

106006 @ 그냥.(그냥.)

106006 #2 그자 빵입, 그자 쥐도 저 방에서 먹는 소리가 이디서 알아져. 송강송강¹¹⁹⁾ 송강송강 허는디 것도 얼마나 약헌 짐승인지 누에 길틀 땀 누에 일 년에 두 차례 질르지 봄, 가을. 질르민 이 이 가을엔 해도 봄인 비가 많이 오니까 빵입이 젖으면 일일이 안팎을 닦아야 주지. 물기 있는 거 주면 당장 설사 낭 죽어 불주게.(그냥 빵입, 그냥 쥐도 저 방에서 먹는 소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 ‘송강송강’ ‘송강송강’ 하는데 것도 얼마나 약한 짐승인지 누에 키울 땀 누에 일 년에 두 차례 키우지 봄, 가을. 키우면 이 가을엔 해도 봄엔 비가 많이 오니까 빵입이 젖으면 일일이 안팎을 닦아야 주지. 물기 있는 거 주면 당장 설사 나서 죽어 버리지.)

106006 @ 설사 나민 누에 죽어 봅니까?(설사 나면 누에 죽어 버립니까?)

106006 #2 죽지게.(죽지.)

106006 #1 죽주게.(죽지.)

106006 @ 으.(으.)

106006 #2 게난 빵입 다꿈이 일이라.(그러니까 빵입 닦는 것이 일이야.)

106006 #1 게니까 이쪽으로는 봄에는 잘 안 칠라고 허지. 장마가 심하게 허니까.(게니까 이쪽으로는 봄에는 잘 안 치려고 하지. 장마가 심하게 하니까.)

106006 @ 아하.(아하.)

106006 #2 게난 그렇게 허난 또 막 부족해가민 빵입이 어떻게 귀헌지. 게난 지금 후지빵이란 말이 어딜로 난 말이라.(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아주 부족하면 빵입이 어떻게 귀한지. 그러니까 지금 꾸지빵이란 말이 어디로 난 말이야.)

106006 @ 으.(으.)

106006 #2 후지빵도 저 막 나무 좋은 것엔 썩이 좀 굵어.(꾸지빵도 저 아주 나

119) ‘송강송강’은 누에가 빵입을 먹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무 좋은 것에 있어 좀 굵어.)

106006 @ 으.(으.)

106006 #2 경 나무도 막 늙은 나무디 영 올라강 헤쓰면은 후지뽕도 어떤 사람은 헤다 주곡.(그렇게 나무도 아주 늙은 나무인데 이렇게 올라가서 헤치면 꾸지뽕도 어떤 사람은 헤다 주고.)

106006 @ 음.(음.)

106006 #2 그렇게 해서 그 누에를 세 번 줌자 낭 아주 클 때 요만이 헤 요만이.(그렇게 해서 그 누에를 세 번 잠자고 나서 아주 클 때 요만큼 헤 요만큼.)

106006 @ 음.(음.)

106006 #2 홀로 밀에만이 허민.(여기로 밀에 만큼 하면.)

106006 @ 음.(음.)

106006 #2 영 계난 이제 커 가민 혼 번 줌자 나민 두 차롱, 세 차롱에 놔뵤당.(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커 가면 한 번 잠자고 나면 두 채롱, 세 채롱에 놔두었다가.)

106006 @ 음.(음.)

106006 #2 두 번 줌자 나민 이제 줌박에 쪼금 놓는 거여. 두 번만 줌자 나민 깨어 가민 세 번 줌잘 때 돼 가민 이제 막 나뉘 놓지 막 갈라 놔.(두 번 잠자고 나면 이제 '줍박'에 쪼금 놓는 거야. 두 번만 잠자고 나면, 깨어 가면 세 번 잠잘 때 돼 가면 이제 마구 나뉘 놓지 막 갈라 놔.)

106006 @ 그니까 알, 요 판데기에 알 사와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새끼가 된 거라예?(그러니까 알, 요 판때기에 알 사와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새끼가 된 거요?)

106006 #2 으.(으.)

106006 @ 그민 이 가루 뿌리고 나서 한 번 잠잘 때까지 며칠?(그럼 이 가루 뿌리고 나서 한 번 잠잘 때까지 며칠?)

106006 #2 일주일 있다가.(일주일 있다가.)

106006 @ 일주일. 한 번 잠잔다는 게 거의 일주일 단위 개념인 거마씨?(일주일. 한 번 잠잔다는 게 거의 일주일 단위 개념인 거요?)

106006 #2 으, 계난 그 한 번 줌잘 스이 일주일 허고 줌자명 삼일 허고 보통 누에 혼 둘이라 혼 둘.(으, 그러니까 그 한 번 잠잘 사이 일주일 하고 잠자면서 삼일 하고 보통 누에 한 달이야, 한 달.)

106006 @ 기다예.(그렇네요.)

106006 #2 키우는 수가 혼 둘.(키우는 수가 한 달.)

106006 @ 혼 달이다예.(한 달이네요.)

106006 #1 세 번 줌자는 거난.(세 번 잠자는 거니까.)

106006 @ 그렇다예 세 번 줌자는 거니까.(그렇네요. 세 번 잠자는 거니까.)

106006 #2 그추룩허곡 누에 올려서 고추 딸 때꺼정은 기간을 몰르크라. 건 그자

경 해난 생각을.(그렇고 누에 올려서 고치 딸 때까지는 기간을 모르겠어. 그건 그저 그렇게 했던 생각을.)

106006 @ 음.(음.)

106006 #2 건 기자. 아이고, 게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고추 딸 때 뻘져, 고추 딸 때 뻘져.(그건 기자. 아이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고치 딸 때 뻘어, 고치 딸 때 뻘어.)

106006 @ 으.(으.)

106006 #2 경험 이제 타는 거니까, 경험 글후젠 나도 어머니 허는 것에 따라 나도 혼 두 번은 해 봤는데, 나 여러 번은 안 허고, 한두 번 해 봤는데 그거 그자 영문직아 보민 딸 때 뉘민 쟁쟁¹²⁰). 처음은 그 보이도 못 허는 줄로 동그라미 만들앙 뱅뱅 돌멍 만든 것이 쟁쟁해근에 말랑지지 안 허도록 그것이 만들어져.(그래서 이제 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후엔 나도 어머니 하는 것에 따라 나도 한 두 번은 해 봤는데, 나 여러 번은 안 하고 한두 번은 해 봤는데 그거 그저 이렇게 만져 보면 딸 때 되면 팡팡. 처음은 그 보이지도 못 하는 줄로 동그라미 만들어서 뱅뱅 돌면서 만든 것이 팡팡해서 말랑하지 안 하도록 그것이 만들어져.)

106006 #1 켜 여기는.(그래서 여기는.)

106006 @ 쟁쟁허다는 것이 뭐마씨?('쟁쟁'하다는 것이 뭡니까?)

106006 #2 딱딱한 거.(단단한 거.)

106006 @ 아.(아.)

106006 #1 여기서나 다 누에고추 허여, 누에고추.(여기서나 다 누에고치 해. 누에고치.)

106006 @ 예, 누에고추. 으, 으.(예, 누에고치. 으, 으.)

106006 #1 여기서나 어디서나.(여기서나 어디서나.)

106006 #2 게난 그 번데기 먹기도 험게. 번데기 먹기도 험게.(그러니까 그 번데기 먹기도 했어. 번데기 먹기도 했어.)

106006 @ 예, 번데기 먹기도 헤마씨.(예, 번데기 먹기도 해요.)

106006 #2 번데기.(번데기.)

106006 @ 간식으로.(간식으로.)

106006 #2 우린 그 누에고추 타는 날은 번데기가 큰 다라¹²¹)로 흥나도 녀멍 두 다라도 세 다라 나와.(우린 그 누에고치 따는 날은 번데기가 큰 대야로 하나도 녀어서 두 대야도 세 대야 나와.)

106006 @ 아.(아.)

106006 #2 종일 어무니가 헤 가민 그 솟디 낱 삶으멍 문 풀어지민 번데기 나와 다라에 건져 놓곡.(종일 어머니가 헤 가면 그 솥에 놔서 삶으면서 모두 풀어지면 번데기 나와서 대야에 건져 놓고.)

120) '쟁쟁'은 아주 단단하게 굳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팡팡'에 해당하는 말이다.

121) '다라'는 일본어 'たらい'에서 온 말로 대야를 말한다.

106006 @ 으.(으.)

106006 #2 또 들이치곡 번데기 나오건 건져 놓고 허민 하루 종일 허민 아이덜이 먹어 부난 거주. 막 하. 겨고 누에가 잘 돼면은 번데기가 노랗게 얼마나 곱다고 요만큼 흰 것이.(또 들어뜨리고 번데기 나오건 건져 놓고 하면 하루 종일 하면 아이들이 먹어 버리니까 거지. 아주 많아. 그리고 누에가 잘 되면 번데기가 노랗게 얼마나 곱다고 요만큼 한 것이.)

106006 @ 음.(음.)

106006 #2 잘 돼면은.(잘 되면.)

106006 @ 잘 돼면?(잘 되면?)

106006 #2 으. 안 돼면은 그것이 영 동그라미 안에서 허다가.(으, 안 되면 그것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서 하다가.)

106006 @ 으.(으.)

106006 #2 지 목숨을 번데기 안 돼 가지고 누에 차 죽기도 허곡 경 딱딱허지도 안 허고.(자기 목숨을 번데기 안 돼 가지고 누에 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딱딱허지도 않고.)

106006 @ 아.(아.)

106006 #2 누에만 잘 돼면. 게난 멩진 그 정도주게. 경헨 옷은 경. 여저도 입곡 남저도 입곡.(누에만 잘 되면. 그러니까 명주는 그 정도지. 그래서 옷은 그렇게. 여자도 입고 남자도 입고.)

106006 @ 으.(으.)

106006 #2 주로 그 노동할 때 입는 건, 노동할 때는 멩, 미녕.(주로 그 노동할 때 입는 건, 노동할 때는 멩, 무멍.)

106006 @ 미녕.(무멍.)

106006 #2 으, 미녕. 또 베는 저 입다가나 헐어사 노동할 때 입주. 베도 신사복이여.(으, 무멍. 또 베는 저 입다가 낚아야 노동할 때 입지. 베도 신사복이야.)

106006 @ 으.(으.)

106006 #2 베도 신사복. 더울 때.(베도 신사복. 더울 때.)

106006 @ 그지예, 여름에 신사복.(그쵸, 여름에 신사복.)

106006 #2 더울 때만 간간이 신사복으로 입는 거.(더울 때만 간간이 신사복으로 입는 거.)

106006 @ 어.(어.)

106006 #2 거 입다가 헐어 가민 헐 수 엇이 막 입어 부는 거.(거 입다가 낚아가면 할 수 없이 막 입어 버리는 거.)

106001 @ 막 입어 부는 거예. 게민 옷감 종류가 아까 저기 명주 있고 무멍 있고 또 베 있고, 또 뭐가 잇수과?(막 입어 버리는 거요. 그럼 옷감 종류가 아까 저기 명주 있고 무멍 있고 또 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106001 #2 게민 우린 저.(그럼 우린 저.)

106001 #1 모시.(모시.)

106001 @ 모시.(모시.)

106001 #2 저 육지러래 아니민 우린 모신 안 해 보난. 육진 모시허주게.(저 육지로 아니면 우린 모신 안 해 보니까.)

106001 @ 으, 게민 여긴 세 개만 했던 거?(으, 그럼 여긴 세 개만 했던 거?)

106001 #1 으.(으.)

106001 #2 우리는 세 개베끼 안 만들어 봤어.(우리는 세 개밖에 안 만들어 봤어.)

무명

106007 @ 세 개밖에예. 예, 예. 게민 무명예, 아까는 명주 물어 봐신디 무명 물어보쿠다예.(세 개밖에요. 예, 예. 그럼 무명요, 아까는 명주 물어 봤는데 무명 물어 보겠습니다.)

106007 #2 으.(으.)

106007 @ 무명 종류는 뭐 뭐 잇수과? 무명 종류를 뭐?(무명 종류는 뭐 뭐 잇습니까?)

106007 #2 아니, 무명은 종류가 따로 잇어.(아니, 무명은 종류가 따로 없어.)

106007 @ 왜 광목, 생목 영 나뉘지지 안 험니까?(왜 광목, 생목 이렇게 나뉘지지 안 합니까?)

106007 #1 광목은 여기서 안 나오니까.(광목은 여기서 안 나오니까.)

106007 @ 여기 광목 안 나옵니까?(여기 광목 안 나옵니까?)

106007 #1 아니.(아니.)

106007 @ 안 해. 그럼 여기 나오는 건 뭐라? 다 통틀영 무명이렌 해?(안 해. 그럼 여기 나오는 건 뭐야?)

106007 #1 어.(어.)

106007 #2 어.(어.)

106007 #1 여긴 기자 무명도 아니고 미녕.(여긴 그저 무명도 아니고 '미녕'.)

106007 #2 무명도 아녀고 미녕.(무명도 아녀고 '미녕'.)

106007 @ 미녕?('미녕'?)

106007 #2 으.(으.)

106007 @ 아.(아.)

106007 #2 그래도 광목이 못 허니까.(그래도 광목이 못 하니까.)

106007 @ 으.(으.)

106007 #1 전부 미녕.(전부 무명.)

106007 #2 미녕도 좀 사치스럽게 입을라면 그때 새에도 좀 흐쌀 좀 실을 해 가지고 물들여서 색색일 놔서도 좀 험 입어 보고 그런 거베긴 다른 건 안 허여.(무명도 좀 사치스럽게 입으려면 그때 새에도 좀 조금 좀 실을 해 가지고 물들여서 색색

이 놔서도 좀 해서 입어 보고 그런 거밖에 다른 건 안 해.)

106007 @ 아, 기파? 광목이랑 미녕이랑 어떻 틀립니까?(아, 그렇습니까? 광목이랑 무명이랑 어떻게 틀립니까?)

106007 #2 광목은.(광목은.)

106007 #1 광목은 미녕실을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거주.(광목은 무명실을 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거지.)

106007 #2 폭도 널르고.(폭도 넓고.)

106007 @ 아.(아.)

106007 #1 공장에서 나오주.(공장에서 나오지.)

106007 #2 즘질아근에 공장으로 나온 거고. 여기 미녕은 베틀로다가 우리가 짜.(가늘어서 공장으로 나온 거고. 여기 무명은 베틀로 우리가 짜.)

106007 #1 실은 미녕실인데 우리 군대 간 후젠 대구 강, 놀레 영 강 보니까.(실은 무녕실인데 우리 군대 간 후에 대구 가서, 놀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106007 @ 으.(으.)

106007 #1 것도 미녕실이더라고.(것도 무명실이더라고.)

106007 @ 으.(으.)

106007 #2 우리 멘들아지는 건 미녕, 멩주, 베베깁.(우리 만들 수 있는 건 무명, 명주, 베밖에.)

106007 @ 그니까 저기 미녕이면.(그러니까 저기 무명이면.)

106007 #2 으.(으.)

106007 @ 닳새미녕¹²², 옛새미녕 그런 건 있지 안허과?(‘닳새미녕’, ‘옛새미녕’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106007 #2 으, 잇어.(으, 잇어.)

106007 @ 닳새미녕은 뭐고 옛새미녕¹²³은 뭐과?(‘닳새미녕’은 뭐고 ‘옛새미녕’은 무엇입니까?)

106007 #2 일곱 새¹²⁴는 막 좋은 미녕, 즘질고.(일곱 새는 막 좋은 무명, 가늘고.)

106007 @ 즘질고.(가늘고.)

106007 #2 저 그거 닳새미녕은 막 얼덜덜¹²⁵ 이만이 막 훑고 옷 새는 보통.(저 그거 ‘닳새미녕’은 아주 ‘얼덜덜’ 이만큼 아주 굵고 옛 새는 보통.)

106007 @ 음. 아, 그럼 그렇게 세 종류?(음. 아, 그럼 그렇게 세 종류?)

106007 #2 으.(으.)

106007 @ 닳 새 옛 새, 일곱 새?(닳 새, 옛 새, 일곱 새?)

122) ‘닳새미녕’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닳새미녕’은 울이 가장 굵은 무명을 말한다.

123) ‘옛새미녕’은 ‘옛새무명’을 말한다. 백스무 울의 날실로 짠 무명으로 거칠고 품질이 좋지 못하다. ‘닳새미녕’은 품질이 더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울이 고운 무명이다.

124) 여기서 ‘일곱 새’는 ‘일곱새무명’을 가리킨다.

125) ‘얼덜덜’은 울이 굵어서 성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6007 #2 으. 일곱 새.(으. 일곱 새.)

106007 @ 일곱 새.(일곱 새)

106007 #2 훗쓸 허민 아이구 일곱 새 미녕이여. 또 못헌 건 아이구 닷 새 미녕이여.(조금 하면 아이고, 일곱 새 무명이여. 또 못 헌 건 아이고 닷 새 무명이여.)

106007 @ 아.(아.)

106007 #2 으.(으.)

106007 @ 잘 만들어진 건 일곱 새이고.(잘 만들어진 건 일곱 새이고.)

106007 #2 어.(어.)

106007 @ 굽영 뭐 한 건 일곱 새, 아 저기 닷새미녕?(굽어서 뭐 한 건 일곱 새, 아 저기 닷새무명?)

106007 #2 어.(어.)

106007 @ 아, 아. 여덟 새도 있고?(아, 아. 여덟 새도 있고?)

106007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07 @ 새 종류예?(새 종류요?)

106007 #2 으, 멩주는 열두 새.(으, 멩주는 열두 새.)

106007 @ 멩주는?(멩주는?)

106007 #2 열두 새.(열두 새)

106007 @ 어떻 불릅니까?(어떻게 부릅니까?)

106007 #2 열두 새 멩주. 경허고.(열두 새 멩주. 그리고.)

106007 @ 으.(으.)

106007 #2 베는 보통 훗으니까 베는 닷 새라.(베는 보통 굽으니까 베는 닷 새 야.)

106007 @ 아.(아.)

106007 #2 미녕은 즘질고 베는 훗으니까. 베는 그자 보통 할망덜이 닷새베.(무명은 가늘고 베는 굽으니까. 베는 그저 보통 할머니들이 닷새베.)

106007 #1 실 굽기를 말허는 모양인게.(실 굽기를 말하는 모양이네.)

106007 @ 예, 그런게예.(예, 그렇네요.)

106007 #2 닷새베.(닷새베.)

106007 @ 실 굽기예.(실 굽기요.)

106007 #2 으, 닷새베, 닷세베.(으, 닷새베, 닷새베.)

106007 @ 아, 실 굽긴게. 멩주가 아주 가늘게 하니까.(아, 실 굽기네. 멩주가 아주 가늘게 하니까.)

106007 #1 그렇주.(그렇지.)

106007 @ 닷새멩주인 거고예.(닷새멩주인 거네요.)

106007 #2 으.(으.)

106008 @ 그른 미녕으로는 어떤 옷 만듭니까, 미녕으로는?(그럼 무명으로는 어떤 옷을 만듭니까, 무명으로는?)

106008 #2 갈정뱅이.(감물 들인 잠방이.)
 106008 @ 갈정뱅이. 또?(감물 들인 잠방이. 또?)
 106008 #2 갈적삼.(감물 들인 적삼.)
 106008 @ 갈적삼 음.(감물 들인 적삼, 음.)
 106008 #2 옛날말로 갈중이.(옛날말로 감물 들인 중의.)
 106008 @ 갈중이.(감물 들인 중의.)
 106008 #2 그거주게.(그거지.)
 106008 @ 그런 거예. 요즘 우리 광목천에 물들이는 것 같은 게 광목이 었이난.
 (그런 거요. 요즘 우리 광목천에 물들이는 것 같은 게 광목이 없으니까.)
 106008 #2 겨난 그걸로 감을 들여 가지고.(그러니까 그걸로 감을 들여 가지고.)
 106008 @ 감 들이는 거예.(감 들이는 거요.)
 106008 #2 감물 들여서 갈정뱅이, 갈적삼.(감물 들여서 감물 들인 잠방이, 감물
 들인 적삼.)
 106008 @ 으.(으.)
 106008 #2 우리가 입는 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몸빠¹²⁶⁾를 헐 중 몰라 가지고
 이만이 널른 거 중의라 중의. 갈중이.(우리가 입는 건 그 옛날에 그 시절에 일 바지
 를 할 줄 몰라 가지고 이만큼 넓은 거 중의라고 중의. 감물 들인 중의.)
 106008 @ 갈중이.(감물 들인 중의.)
 106008 #2 경 헨 옛날에 할망덜 요렇게 요렇게 헤영 이디 딱 무꺼근에 요렇게.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할머니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딱 묶어서 요렇게.)
 106008 @ 내리면 돼는 거.(내리면 되는 거.)
 106008 #2 고무줄 헐 중도 모르고 천도 이제보단 곱 들었지.(고무줄 할 줄도 모
 르고 천도 이제보단 곱 들었지.)
 106008 @ 으.(으.)
 106008 #2 이디가 이만이 폭 널르게 헨 이디 오랑 요렇게 요렇게 영 딱 무경
 영.(여기가 이만큼 폭 넓게 해서 여기 와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딱 묶어서 이러
 게.)
 106008 @ 아.(아.)
 106008 #2 계난 거 갈중이.(그러니까 거 감물 들인 중의.)
 106008 @ 갈중이.(감물 들인 중의.)
 106008 #2 또 이만씩 갈적삼.(또 이만큼씩 감물 들인 적삼.)
 106008 @ 아.(아.)
 106008 #2 그거 원 일름이 거라.(그거 원 이름이 거야.)
 106009 @ 토목이이라고 허는 건 었어났수과, 토목이렌 허는 거?(토목이라고 하
 는 건 없었습니까, 토목이라고 하는 거?)
 106009 #1 건 광목 종류.(건 광목 종류.)

126) '몸빠'는 일본어 'もんぺ'로 '일 바지'를 말한다.

106009 @ 광목 종류과, 토목은?(광목 종류입니까, 토목은?)
 106009 #2 으.(으.)
 106011 @ 그믐 홍세미녕¹²⁷은?(그럼 ‘홍세미녕’은?)
 106011 #2 으?(으?)
 106011 @ 홍세미녕이런 현 거 뭐과?(‘홍세미녕’이라고 한 거 뭐니까?)
 106011 #2 그건 미녕을 홍세 놓는 거.(그건 무명을 혼서 함에 놓는 거.)
 106011 #1 시집갈 적에. 장가, 장가드는 사람이.(시집갈 적에 장가, 장가드는 사람이.)
 106011 @ 으.(으.)
 106011 #1 새각시 칩이.(새색시 집에.)
 106011 @ 으.(으.)
 106011 #1 거 예단이지, 예물이지, 옛날.(거 예단이지, 예물이지, 옛날.)
 106011 @ 그니까 홍세, 홍세, 함에 넣었던 거예?(그러니까 혼서, 혼서, 함에 넣었던 거요?)
 106011 #1, 2 으.(으.)
 106011 @ 예.(예.)
 106011 #2 그거.(그거.)
 106011 @ 미녕 넣으니까 홍세미녕이라고 불렀구나예?(무명 넣으니까 ‘홍세미녕’이라고 불렀군요?)
 106011 #1 어.(어.)
 106011 @ 홍세미녕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 넣습니까?(‘홍세미녕’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 넣습니까?)
 106011 #1 거 혼이 었어.(거 한이 없어.)
 106011 @ 혼이 었어.(한이 없어.)
 106011 #2 아니.(아니.)
 106011 @ 으.(으.)
 106011 #2 저 거세기 사십 자라. 미녕 보통 혼 필이.(저 거세기 사십 자야. 무명 보통 한 필이.)
 106011 @ 미녕 혼 필이 사십 자?(무명 한 필이 사십 자?)
 106011 #2 어. 혼 필이 사십 잔데.(어. 한 필이 사십 잔데.)
 106011 @ 어.(어.)
 106011 #2 저 잘사는 사람은 세 필을 놓고.(저 잘사는 사람은 세 필을 놓고.)
 106011 @ 으, 으.(으, 으.)
 106011 #2 못사는 사람은 두 필을 놔.(못사는 사람은 두 필을 놔.)
 106011 @ 으.(으.)

127)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 함 속에 넣는 무명을 말한다.

106011 #2 그것도 엇영 못사는 사람은. 그러다가 차차 좋은 세상이 나니까 이젠 저 광목 한 통 해당 놓는 사람은 막 잘살아. 아이고, 누계네 집인 광목 한 통 흥세 왔젠. 영 허고. 또 후젠 그 세상 그나마 좋으난 멩주를. 또 그 다 여산해 가지고 시마지¹²⁸⁾ 한 통 사오고 멩줄 한 통 놔서. 그 사람 결혼허민 애기 나면 시마진 기저귀 허고.(그것도 없어서 못사는 사람은. 그러다가 차차 좋은 세상이 나니까 이젠 저 광목 한 통 해다가 놓는 사람은 아주 잘살아. 아이고, 누구 집엔 광목 한 통 ‘흥세’ 왔다고. 이렇게 하고. 또 이후에 그 세상 그나마 좋으니까 멩주를. 또 그 다 예산해 가지고 ‘시마지’ 한 통 사오고 멩줄 한 통 놔서. 그 사람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시마지’는 기저귀 하고.)

106011 @ 시마지가 뭐봐?(‘시마지’가 뭘니까?)

106011 #2 시마지 잇주게.(시마지 있지.)

106011 #1 건 기계에서 나온 건데.(건 기계에서 나온 건데.)

106011 @ 아.(아.)

106011 #2 으.(으.)

106011 @ 기저귀 하는 거?(기저귀 하는 거?)

106011 #2 어.(어.)

106011 @ 기저귀감?(기저귀감?)

106011 #2 어. 기저귀감. 그거 한 통허고 멩주 마흔 자를 놓면은 결혼해 나민, 허민 애기 나민 그 시마지는 기저귀 허고 그 멩주는 그 장계간 사람 옷 행 입는 사람도 있고 놔두민 잇당 애기 옷 해 주는 디도 있고 그렇게 했어. 거 흥세미녕 원 그거주.(어. 기저귀감. 그거 한 통하고 멩주 마흔 자를 놓으면 결혼해 나민, 하면 아기 낳으면 그 ‘시마지’는 기저귀 하고 그 멩주는 그 장가간 사람 옷 해서 입는 사람도 있고 놔두면 잇다가 아기 옷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했어. 거 ‘흥세미녕’ 원 그거지.)

106011 @ 음. 그면 원래는 어쨌든 시집갈 때는 미녕을 해줬던 거라예?(음. 그러면 원래는 어쨌든 시집갈 때는 무명을 해 줬던 거지요?)

106011 #2 으, 옛날은 미녕.(으, 옛날은 무명.)

106011 @ 좀 지나명 잘살아지민 멩주까지 갔었던 거지요?(좀 지나면서 잘살아지면 멩주까지 갔었던 거지요?)

106011 #1 그렇주게.(그렇지.)

106011 #2 으.(예.)

106011 @ 그민 광목 해 주는 사람도 돈 잇었던 거, 사당 넣었던 거니까예?(그럼 광목 해 주는 사람도 돈 잇었던 거, 사다가 넣었던 거니까요?)

106011 #2 으, 그때 막 여기 광목이 어려와.(으, 그때 아주 여기 광목이 어려워.)

106011 @ 어려와예?(어려워요?)

128) ‘시마지’는 천의 한 종류로 기저귀 감으로 쓰는 천을 가리킨다.

106011 #2 육지서가 잘 들어오지 안 허영.(육지에서가 잘 들어오지 않아.)

106012 @ 아. 그민 목화 농사는 어떻 지었수과, 목화 농사?(아. 그럼 목화 농사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목화 농사?)

106012 #2 목화 농사는 목화씨가 저 콩 방울, 죽은 콩 방울만씩 헤여이.(목화 농사는 목화씨가 저 콩 방울, 작은 콩 방울만큼씩 해.)

106012 @ 으.(으.)

106012 #2 그거 했다가 목화 갈 때는 불치에다가 그놈을 사악 버물어 놓고 밧을 쟁기로 해서 요만석 사이 나게 밧을 남저가 갈면은 그거 버무린 거 대바구니에. 그걸 출구덕¹²⁹이라고.(그거 했다가 목화 갈 때는 재에다가 그놈을 삭 버물어 놓고 밧을 쟁기로 해서 요만큼씩 사이 나게 밧을 남자가 갈면 그거 버무린 거 대바구니에. 그걸 ‘출구덕’이라고.)

106012 @ 출구덕.(대바구니.)

106012 #2 출구덕이라고 해서 끈 든 거 툯 메 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대바구니라고 해서 끈 단 거 툯 메 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106012 @ 으.(으.)

106012 # 두 방울씩 들게 잡아 낫당 것도 막 잘 몰라서주. 내중은 매어 불고 검질 멜 땀 흐 방울, 하나.(두 방울씩 들게 잡아 낫다가 것도 아주 잘 말라서지. 나중은 매어 버리고 검질 멜 땀 한 방울, 하나.)

106012 @ 아.(아.)

106012 #2 게난 것도 다 완고할지 안 할 지 몰라 가지고 그자 두 개도 놓고 세 개도 놓고. 씨는 자기 집에서 불릴 때 행 뵈던 거난.(그러니까 것도 다 완고할지 안 할지 몰라 가지고 그자 두 개도 놓고 세 개도 놓고. 씨는 자기 집에서 바를 때 해 뵈던 거니까.)

106012 @ 으.(으.)

106012 #2 딱 검질 멜 때는 뽕직한 것만 놔두근에 다 메영 놔두민 그놈이 커 가민.(딱 검질 멜 때는 뽕직한 것만 놔두고 다 매어 놔두면 그놈이 커 가면.)

106012 @ 씨를 언제, 몇 월에 뿌리는 거라?(씨를 언제, 몇 월에 뿌리는 거야?)

106012 #2 씨는 봄에 뿌려서.(씨는 봄에 뿌려서.)

106012 #1 봄에.(봄에.)

106012 @ 봄에.(봄에.)

106012 #2 팔월에.(팔월에.)

106012 @ 거뒤들여?(거뒤들여?)

106012 #2 거뒤들, 이거 어디가 거뒤들여?(거뒤들, 이거 어디가 거뒤들여?)

106012 #1 그게 왜냐하면 드레라고 허는데.(그게 왜냐하면 다래라고 하는데.)

106012 @ 으.(으.)

129) ‘출구덕’은 대바구니의 하나로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06012 #1 열매 보고 거 익기 전엔 참 맛있어.(열매 보고 거 익기 전엔 참 맛있어.)

106012 #2 여름 나 가민 꽃이 피 가지고.(여름 돼 가면 꽃이 피 가지고.)

106012 @ 예.(예.)

106012 #2 팔월 나 가면 드레가 생기는데.(팔월 돼 가면 다래가 생기는데.)

106012 #1 익으면 이렇게 벌어져.(익으면 이렇게 벌어져.)

106012 #2 생기는데 그놈이 생겨서 소곱에서 그 목화가 돼 가지고 그놈이 삼각형으로 탁 그놈의 드레가 벌어지면은.(생기는데 그놈이 생겨서 속에서 그 목화가 돼 가지고 그놈이 삼각형으로 탁 그놈의 다래가 벌어지면.)

106012 @ 음.(음.)

106012 #2 그 드레 소곱으로 부각¹³⁰헌 숨이 있어.(그 다래 속으로 ‘부각’한 숨이 있어.)

106012 @ 음.(음.)

106012 #2 게민 그것이 쪼그만이 헤싸질 땐 타젠 허민 힘들고 탁 자자지면은 이제는 그걸 다.(그럼 그것이 조그마하게 헤벌어질 땐 따려고 하면 힘들고 탁 짓혀지면 이제는 그걸 다.)

106012 #1 흥나 흥나 손으로.(하나 하나 손으로.)

106012 #2 일일이 타야지.(일일이 따야지.)

106012 #1 해 가지고는 바구, 바구니에 아저당.(해 가지고는 바구, 바구니에 가져다가.)

106012 @ 아, 그럼 그거 타는 게 언제, 몇 월?(아, 그럼 그거 따는 게 언제, 몇 월?)

106012 #1 주로 팔월달이주게.(주로 팔월이지.)

106012 @ 팔월.(팔월.)

106012 #1 팔구월에.(팔구월에.)

106012 #2 팔월에 탈 때는 초창기에 초물을 타고.(팔월에 딸 때는 초창기에 초벌을 따고.)

106012 @ 으.(으.)

106012 #2 구월에는 못 된 거 물 짠 거 막물 타고.(구월에는 못 된 거 물 짠 거 막물 따고.)

106012 @ 그럼 아까 열매 맛있다고 한 거는 그거 벌어지기 전에?(그럼 아까 열매 맛있다고 한 거는 그거 벌어지기 전에?)

106012 #1 어.(어.)

106012 #2 어, 그 맛있던 게 목화가 되는 거야.(어, 그 맛있던 게 목화가 되는 거야.)

106012 @ 아.(아.)

130) ‘부각’은 숨이 부풀어 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6012 #1 참 그것 아이덜 도둑질해 먹었다근에.(참 그거 아이들 도둑질해서 먹었다가.)

106012 #2 드레 타 먹으레 들엇당 혼나주.(다래 따 먹으려고 들엇다가 혼나지.)

106012 @ 그거 먹어 불민 안 될 거 아니?(그거 먹어 버리면 안 될 거 아니?)

106012 #1 으, 거 맛이 좋거든.(으, 거 맛이 좋거든.)

106012 @ 하하하.(하하하.)

106012 #1 거 옛날에 먹을 게 엇엇거든.(거 옛날에 먹을 게 없엇거든.)

106012 #2 계난 옛날에,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그거를. 요만씩 봉우리 현 거를 몇 짐 타다가 그 농사일 하면서 저르 신 때 아무 날이나 널지도 못 혀.(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그거를. 요만큼씩 봉우리 한 거를 몇 짐 따다가 그 농사일 하면서 겨를 있을 때 아무 날이나 널지도 못 해.)

106012 @ 어.(어.)

106012 #2 문지락은 다 숨에만 들라부들라고 허지이.(먼지는 다 숨에만 달라붙으려고 하지.)

106012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6012 #2 그 요즘 ㄴ치 이렇게 세멘¹³¹⁾ 허곡 영 깨끗해서민 허주만은 옛날에는 순 질레도 포장 하나 안 허영 다 흑히고 잔디.(그 요즘 같이 이렇게 시멘트 하고 이렇게 깨끗했으면 하지만 옛날에는 순 길도 포장 하나 안 해서 다 흑하고 잔디.)

106012 @ 으.(으.)

106012 #2 집에도 이 마당에 다 검질 깔앗주게.(집에도 이 마당에 다 검불 깔앗지.)

106012 @ 으, 으.(으, 으.)

106012 #2 집도 검질.(집도 검불.)

106012 @ 으.(으.)

106012 #2 원 우리 세상 검질 아닌 것이 엇주게. 집도 검질 초가집이고.(원 우리 세상 검불 아닌 것이 없지. 집도 검불 초가집이고.)

106012 @ 으.(으.)

106002 #2 앞마당에도 검질로 깔고 허난 티는 다 숨에만 붙을라고 허니 멩심헤 영. 옛날에 그런 거 저런 거 널 거 시민 요런 이불 헛다가 할머니들 이불 뜯어 가지고. 명석에도 그 이불 안에 널영. 설명헐라고 허면, 또 그 이런 날은 그놈을 그 티를 다 다듬어야 돼여.(앞마당에도 검불로 깔고 하니까 티는 다 숨에만 붙으려고 하니 멩심해서. 옛날에 그런 거 저런 거 널 거 있으면 요런 이불 헛다가 할머니들 이불 뜯어 가지고. 명석에도 그 이불 안에 널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또 그 이런 날은 그놈을 그 티를 다 다듬어야 돼.)

106002 @ 으.(으.)

106002 #2 암만 멩심해도 그 티가 어떻게 부트는지 그 털 다듬양 요건 다듬은

131) '세멘'은 일본어 'セメン'으로 시멘트를 말한다.

거 요건 안 다듬은 거 놔뒀당.(아무리 명심해도 그 티가 어떻게 붙는지 그 털 다듬어서 요건 다듬은 거 요건 안 다듬은 거 놔뒀다가.)

106002 @ 하하하.(하하하.)

106002 #2 또 날씨가 막 존 날은 이놈을 또 팔라야 그 아까 무르레로 불라. 그 추지민 절대 씨 안 떨어져 물영.(또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은 이놈을 또 바삭 말려야 그 아까 물레로 발라. 그 추지면 절대 씨 안 떨어져 물러서.)

106002 @ 어.(어.)

106002 #2 팔민 영 불르명 들으민 수앙 수앙 수앙¹³²). 그것이 씨가 돌라지는 소리가 나명 씨가 툄 툄 툄 털어지명 저레 나고. 허다 허다 버치면 저 이디 불도 살라근에 어떻 흐썰 덩게 행도 팔르는 수도 있고, 팔지 안 허민 절대 불루지도 못 허여. 불루는 거라고 영 허는 거.(바삭 마르면 이렇게 발라내면서 들으면 ‘수앙 수앙 수앙’. 그것이 씨가 도려내는 소리가 나면서 씨가 툄 툄 툄 떨어지면서 저리 나고. 하다 하다 부치면 저 여기 불도 살라서 어떻게 조금 덩게 해서도 바삭 말리는 수도 있고, 바삭 마르지 않으면 절대 바르지도 못 해. 바르는 거라도 이렇게 하는 거.)

106002 @ 어, 어.(어, 어.)

106002 #2 경 헨 거 불라, 멘네 갈아, 이제 검질메여, 그놈 타, 팔라, 불라, 불룬 후제 또 다듬어. 왜 또 다듬느냐 불룰 때가 여물진 씨는 떨어지곡 죽은 씨는 까지명 저레 넘어가 불어.(그렇게 해서 거 발라. 목화 갈아, 이제 김매, 그놈 따, 바삭 말려, 발라, 바른 후에 또 다듬어. 왜 또 다듬느냐 바를 때가 여물진 씨는 떨어지고 죽은 씨는 까지면서 저리로 넘어가 버려.)

106002 @ 아.(아.)

106002 #2 게민 이제 불룬 후제 또 다듬어. 또 다음은 거 또 갈라야 또 틀에 가.(그럼 이제 바른 후에 또 다듬어. 또 다음은 거 또 갈라야 또 틀에 가.)

106002 @ 어.(어.)

106002 #2 틀에 가민, 그 틀에 가 오민 집이 오랑 좇아.(틀에 가면, 그 틀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자아.)

106002 @ 으.(으.)

106002 #2 좇으민.(좇으면.)

106002 #1 좇음이엔 허는 건 실 빼는 거.(좇는다는 건 실 뽑는 거.)

106002 @ 불루다는 건 어떤 거과?(바른다는 건 어떤 겁니까?)

106002 #2 씨 빼는 거.(씨 빼는 거.)

106002 @ 아, 아까 여기 씨 빼는 거?(아, 아까 여기 씨 빼는 거?)

106002 #2 좇는다는 건 실 빼는 거.(좇는다는 건 실 뽑는 거.)

106002 @ 실 빼는 거.(실 뽑는 거.)

106002 #2 그추룩 허면 실만 빼면 돼여. 또 감아.(그렇게 하면 실만 뽑으면 돼.)

132) ‘수앙 수앙 수앙’은 물레로 목화씨를 발라 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또 감아.)

106002 @ 으.(으.)

106002 #2 모당이로 동그렇게. 감고, 두 가지로 감아. 꼬리 늘허니까 늘 헐 거
요렇게 감아서 늘고.(몽당이로 동그렇게. 감고, 두 가지로 감아. 싯뚝 나니까 날 할
거 요렇게 감아서 날고.)

106002 @ 어.(어.)

106002 #2 꼬리 헐 거는 영 영 감아서 짤 때 허고. 갱 늘고 꼬리 감고 메여 놔
서 베틀에 짜민 미녕이라. 혼 멧 번 수 없어.(싯뚝 할 거는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짤 때 하고. 그래서 날고 싯뚝 감고 매 놔서 베틀에 짜면 무명이야. 한 멧 번 수 없
어.)

106002 @ 아, 아.(아, 아.)

106002 #2 지겨워, 지겨워.(지겨워, 지겨워.)

106012 @ 그럼 그거 팔월에 따면 그 장만을, 장만허는 거를 그때 험니까?(그럼
그거 팔월에 따면 그 장만을, 장만하는 거를 그때 험니까?)

106012 #1 겨울 내내.(겨울 내내)

106012 #2 겨울 내내 걸어 놓고.(겨울 내내 걸어 놓고.)

106012 @ 아.(아.)

106012 #2 봄 내내. 가을에 따면.(봄 내내. 가을에 따면.)

106012 @ 으.(으.)

106012 #2 이제 여기 말로 조 비고.(이제 여기 말로 조 베고.)

106012 @ 그지 농사지을 때잖아예?(그렇지 농사지을 때잖아요?)

106012 #2 조 비고 감저 파고 해 불민, 보리 같지.(조 베고 고구마 파고 해 버
리면, 보리 같지.)

106012 @ 으, 으.(으, 으.)

106012 #2 이제 보리 갈아 뒤근에 겨울 들민 그계 일이지이.(이제 보리 갈아 두
고 겨울 들면 그계 일이지.)

106012 @ 음.(음.)

106012 #2 봄 나 가민 또 이제 늘지.(봄 돼 가면 또 이제 날지.)

106012 @ 으.(으.)

106002 #2 그 눈 올 때는 그것만, 것만. 다듬고 블루고 케와 오고 실 좇고 감곡
해 낱 날만 조금 누그러지면 이제는 늘기 시작허민 놀아다 멧다 허민. 주로 짜는
거는 오월 장마가 브디질이 좋아.(그 눈 올 때는 그것만, 것만. 다듬고 바르고 태워
오고 실 좇고 감고 해 놓고 날만 조금 누그러지면 이제는 날기 시작하면 날다가 매
다 하면. 주로 짜는 거는 오월 장마가 바디질이 좋아.)

106002 @ 그니까 불룬다는 거는 씨 불룬다는 거고?(그러니까 바른다는 거는 씨
바른다는 거고?)

106002 #1 으, 씨 불룬다 글자 그대로.(으, 씨 바른다 글자 그대로.)

106002 @ 테운다는 건 집에서 못 허는 거라예.(테운다는 건 집에서 못 하는 거지요?)

106002 #1, 2 으.(으.)

106002 @ 그럼 어디 기계 있는 디 강?(그럼 어디 기계 있는 데 가서?)

106002 #1, 2 으.(으.)

106002 @ 테와 왕 짜. 베틀에 낱 짜.(태워 와서 짜. 베틀에 놓고 짜.)

106002 #2 아니, 좇아 좇아.(아니, 자아 자아.)

106002 @ 아, 좇아.(아, 자아.)

106002 #2 좇아.(자아.)

106002 @ 으.(으.)

106002 #2 그 다음 모딩이라고 해여, 모딩이.(그 다음 몽당이라고 해, 몽당이.)

106002 @ 예.(예.)

106002 #2 모딩이 감아.(몽당이 감아.)

106002 @ 으.(으.)

106002 #2 놀아.(날아.)

106002 @ 으, 누는 건 뭐과, 누는 건?(으, 나는 건 뭇니까, 나는 건?)

106002 #2 베틀에 그대로 가져게?(베틀에 그대로 갈 수 있어?)

106002 #1 짜는, 짜게끔 만드는 거.(짜는, 짜게끔 만드는 거.)

106002 #2 자 수를 다.(자 수를 다.)

106002 @ 아.(아.)

106002 #2 자 수를 해 놔사.(자 수를 해 놔야.)

106002 #1 그니까 나 인척에 말한 거 논다는 거는 마흔 자 할 거민 마흔 자 길이 해 가지고는 왔다 갔다 허는 걸 보고.(그러니까 나 아까 말한 거 난다는 거는 마흔 자 할 거면 마흔 자 길이 해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106002 @ 아, 논다.(아, 난다.)

106002 #2 경헨 놀아 낱, 메여근에 그 베틀에.(그래서 날아 놓고 매서 그 베틀에.)

106002 #1 멘다는 건 뭇냐 허면 바테에.(맨다는 건 뭇냐 하면 바디에.)

106002 @ 으.(으.)

106002 #2 풀칠해 가지고.(풀칠해 가지고.)

106002 #1 바테에 고망 전부 썬는 거.(바디에 구멍 전부 썬는 거.)

106002 @ 으.(으.)

106002 #2 도꼬마리¹³³⁾라고 풀칠해 가지고 메영 감아야 베틀에 가지.(도투마리라고 풀칠해 가지고 메여서 감아야 베틀에 가지.)

106002 #1 도꼬마리라는 건.(도투마리라는 건.)

133) '도꼬마리'는 무명을 짤 때, 베틀의 뒤쪽에 놓여서 '버영대'와 실을 감아 두는 크고 넓적한 도구를 말한다. 표준어의 '도투마리'에 대응한다.

106002 #2 감는 거.(감는 거.)
 106002 #1 저 간단히 알기 쉽게 헐라면은.(저 간단히 알기 쉽게 하려면.)
 106002 #2 연출 감는 거.(연출 감는 거.)
 106002 #1 실 감아 가지고 놔두는 거.(실 감아 가지고 놔두는 거.)
 106002 #2 연출 감는 거 식으로.(연출 감는 거 식으로.)
 106002 @ 연출 감는 식으로?(연출 감는 식으로?)
 106002 #2 어. 연출 감는 식으로 이따만이 진 거 해 가지고.(어. 연출 감는 식으로 이만큼 긴 거 해 가지고.)
 106002 @ 으, 으.(으, 으.)
 106002 #2 이거는 질어도 이거는 미닝 너비가 이거라면 이것베긴 아니 되고게.(이거는 길어도 이거는 무명 너비가 이거라면 이것밖엔 안 되고.)
 106002 @ 예, 예.(예, 예.)
 106021 #2 그처럼 허난 이만이 해도 이것을 그 베틀에 놀라고 허민 질어야 돼. 그 베틀이, 베틀 안 봐 봤지.(그처럼 하니까 이만큼 해도 이것을 그 베틀에 놓으려고 하면 길어야 돼. 그 베틀이, 베틀 안 봐 봤지.)
 106021 @ 예, 사진으로만 봤수다. 다음에 사진에 베틀도 뽑앙 오쿠다. 하하하.(예,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다음에 사진에 베틀도 뽑아서 오겠습니다. 하하하.)
 106021 #2 베틀이 울로 요만인 헐 거라.(베틀이 울로 요만큼은 할 거야.)
 106021 @ 음.(음.)
 106021 #1 베틀 길이 거보다 길주.(베틀 길이 거보다 길지.)
 106021 #2 아니, 너비게.(아니, 너비.)
 106021 #1 아, 너빈 그만이.(아, 너빈 그만큼.)
 106021 #2 너비 요만이 허민은 도꼬마리도 이만이 허여.(너비 요만큼 하면 도투마리도 이만큼 해.)
 106021 #1 사람이 앓으면, 사람 앓으면 요만인 허난에.(사람이 앓으면, 사람 앓으면 요만큼 하니까.)
 106021 @ 어, 어.(어, 어.)
 106021 #2 사람 앓아도 남주게 이디.(사람 앓아도 남지 여기.)
 106021 @ 어.(어.)
 106021 #2 비도 놓고. 비도 놓곡게 그디. 겨난 헤난 거 지겨워 다 설명헐라고 해도.(비도 놓고. 비도 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했던 거 지겨워 다 설명하려고 해도.)

모시

106015 @ 그민 모시는 안헤난 거라. 전혀.(그럼 모시는 안 했었던 거야. 전혀)
 106015 #1 어. 이쪽은.(어, 이쪽은.)
 106015 #2 모시는 안 허여.(모시는 안 해.)
 106015 @ 모시는 안 해.(모시는 안 해.)

106015 #1 욱지더래.(육지에.)
 106015 @ 하는 건 알아지쿠과? 어떻 헤난 건지?(하는 건 알겠습니까? 어떻게 했던 건지?)
 106015 #1 삼, 삼베나 마찬가지로.(삼, 삼베나 마찬가지로.)
 106015 #2 모시는 삼베는 여기 삼베는.(모시는 삼베는 여기 삼베는.)
 106015 @ 으.(으.)
 106015 #1 삼베 허는 것도 어떻산디, 삼을.(삼베 하는 것도 어떻게 했는지, 삼을.)
 106015 @ 계민 모시는 욱지만 하는 거?(그럼 모시는 욱지만 하는 거?)
 106015 #2 어.(어.)
 106015 @ 제주도 자체가 모시를 안 험니까?(제주도 자체는 모시를 안 합니까?)
 106015 #2 어. 아니, 아니.(어. 아니, 아니.)
 106015 #1 몰라, 저 서쪽으로는 어떻 헤신디.(몰라, 저 서쪽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106015 #2 아니우다. 저 한산 모시여 뭐여 다 욱지레 난 거.(아닙니다. 저 한산 모시여 뭐여 다 욱지에 난 거.)

삼

106018 @ 삼은 어떻헤낫수과, 삼?(삼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삼?)
 106018 #2 삼은 여기 같았지.(삼은 여기 같았지.)
 106018 @ 삼을 갈앙?(삼을 갈아서?)
 106018 #2 갈아서 그놈을.(갈아서 그놈을.)
 106018 @ 삼이 베예?(삼이 베요?)
 106018 #1 으게, 아마.(으, 아마.)
 106018 @ 아마.(아마.)
 106016 #2 으. 걸 갈아서 잘허는 사람은 길쪽헤여. 삼나무가 길쪽허민 그놈을 이제 비여.(으. 걸 갈아서 잘하는 사람은 길쪽해. 삼나무가 길쪽하면 그놈을 이제 베어.)
 106016 @ 으.(으.)
 106016 #1 갱 전부 꺾죽 베껴 가지고.(그래서 전부 거죽 벗겨 가지고.)
 106016 #2 비면 그놈을 꺾죽을 베껴.(베면 그놈을 거죽을 벗겨.)
 106016 @ 음.(음.)
 106016 #2 베경 이제 그걸 다 숲아.(벗겨서 이제 그걸 다 삶아.)
 106016 @ 으.(으.)
 106016 #2 숲으면은 밖에 이런 건 벗어지고 씨 닳은 것만 헤영케 남지이.(삶으면 밖에 이런 건 벗겨지고 씨 닳은 것만 하얗게 남지.)
 106016 @ 그러니까 꺾질 벗긴다는 건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벗겨낸다는 말?(그

러니까 껍질 벗긴다는 건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다 벗겨낸다는 말?)

106016 #2 으.(으.)

106016 @ 껍 안에 하얗힌 거?(그래서 안에 하얀 거?)

106016 #2 어.(어.)

106016 #1 건 내 불고.(건 내 버리고.)

106016 @ 내 불영 그걸 하얗힌 걸 삶는다는 얘기?(내 버려서 그걸 하얀 걸 삶는다는 얘기?)

106016 #2 으.(으.)

106016 #1 아니, 하얀 거, 속에 거는 말고 껍질게.(아니, 하얀 거, 속에 거는 말고 껍질.)

106016 @ 껍질?(껍질?)

106016 #2 으. 나무 대는 빼 불어덩.(으. 나무 대는 빼 버리고.)

106016 @ 나무 대는 빼 불어덩.(나무 대는 빼 버리고.)

106016 #2 껍질 중에 밖에 거는 베껴 불고 안에 속만.(껍질 중에 밖에 거는 벗겨 버리고 안에 속만.)

106016 @ 예, 예.(예, 예.)

106016 #@ 그걸 이제 집에서 못 삶아. 경헨 그거 옛날말로 어른들이 저 내창이라 뭐엔 헐 거니. 저 계곡 그런 디 가서.(그걸 이제 집에서 못 삶아. 그래서 그거 옛날말로 어른들이 저 내보고 뭐라고 할 거니. 저 계곡 그런 디 가서.)

106016 @ 내창.(내.)

106016 #2 내창에 저 솟 아정 가근에.(내에 저 솥 가지고 가서.)

106016 @ 아. 그거 삶는 것도 그대로 물에 삶으면 안 돼.(아. 그거 삶는 것도 그대로 물에 삶으면 안 돼.)

106016 #1 잿물.(잿물)

106016 #2 화리에 재.(화로에 재.)

106016 @ 으.(으.)

106016 #1 불치.(재.)

106016 @ 불치.(재.)

106016 #2 재 놔근에 삶아근에 이제 그걸 집이 앓다근에, 이제 달달 그걸 삶아도 빨앙 그걸 **** 안허게 잘 헛당 집이서 해 둬서 맨날, 며칠을 며쩍 빠다가 실만씩 다 벌르지.(재 놓고 삶아서 이제 그걸 집에 가져다가, 이제 달달 그걸 삶아도 빨아서 그걸 **** 앓게 잘 해다가 집에서 해 두고 맨날, 며칠을 몇 겹 뽑아다가 실만큼 다 쪼개지.)

106016 @ 으.(으.)

106016 #2 나무 하나 쉼 거, 베긴 것을 들러근에 멧 가닥 실만씩 해근에. 할머니들 이 옷 다 걸어근에 이 솥에서 그거 다 잇는 거여, 잇영.(나무 하나 쉼 거, 벗긴 것을 들고 멧 가닥 실만큼 해서. 할머니들 이 옷 다 걸어서 이 솥에서 그거 다

잇는 거야.)

106016 @ 하하하.(하하하.)

106016 #2 어.(어.)

106016 @ 다리에서?(다리에서?)

106016 #2 이 다리에서 이 실 마주 부찌근에 슾룩¹³⁴허게 꼬앙 또 차반지¹³⁵더 레 영 해 놓고 또 이 끓 잇지.(이 다리에서 이 실 마주 붙여서 삭 꼬아서 또 채롱에 이렇게 해 놓고 또 이 끝을 잇지.)

106016 @ 예.(예.)

106016 #2 끓 잇이민 또 끓 앓당 요레 부짱 어떻 헨 슾룩허게 행 요레 해 놓곡 행 이 차반지로 이만이 그거 해 놓곡 또 이만이 해 놓곡 허민 이제 그것이 열두 고 망 혈 거민 열두 차반지를 해야 혈 거야. 열두 차반지를 해야 그 노는 메다¹³⁶를 맞추아근에 늘아서 또 메여서 짜사 베지.(끝 이으면 또 끝 가져다 이리 붙여서 어떻게 해서 삭 해서 이리 해 놓고 해서 이 채롱에 이만큼 그거 해 놓고 또 이만큼 해 놓고 하면 이제 그것이 열두 구멍 할 거면 열두 채롱을 해야 할 거야. 열두 채롱을 해야 그 나는 길이를 맞춰서 날아서 또 매서 짜야 베지.)

106016 @ 아.(아.)

106016 #2 게난 옛날 어른들 해난 거 듣기만 해도 지겨워.(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했던 거 듣기만 해도 지겨워.)

106017 @ 하하하. 그럼, 베로는 무슨 옷 만들어놨수과?(하하하. 그럼, 베로는 무슨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17 #2 그 베로는 그, 멩주는 아주 비단으로 해 가지고 옛날 아주 과거엔 멩주를 못 해 가지고 옛날 어른덜은.(그 베로는 그, 멩주는 아주 비단으로 해 가지고 옛날 아주 과거엔 멩주를 못 해 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106017 @ 음.(음.)

106017 #2 나가 킨 보난 베로만 이런 관복을 헛더라고.(내가 커서 보니까 베로만 이런 관복을 헛더라고.)

106017 @ 음.(음.)

106017 #2 남저덜. 베로만 헛다가 우리가 안 후에야, 것도 개발이 뉘연에 그 누에씨가 연고가 돼 가지고 멩주를 만들어서 멩주로 헛주. 다 역언 보난 베를, 베를 두 가지, 옷새베는 막 좋은 거고, 닷 새여, 녁 새 허멍 막 훤은 베도 잇주게.(남자들. 베로만 헛다가 우리가 안 후에야, 것도 개발이 돼서 그 누에씨가 연고가 돼 가지고 멩주를 만들어서 멩주로 헛지. 다 엮어서 보니까 베를, 베를 두 가지, 옛새베는 아주 좋은 거고, 닷 새여, 녁 새 하면서 아주 굵은 베도 잇지.)

106017 @ 음.(음.)

106017 #2 이 그것이 삼 삼는 거라고 헤여. 베 허는 천 일름이 삼이니까.(이 그

134) ‘스룩’은 알맹이나 액체 따위가 가볍게 빠져나가거나 들어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35) ‘차반지’는 채롱의 한 종류다.

136) ‘메다’는 길이의 단위인 미터를 일본어 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것이 삼 삼는 거라고 해. 베 하는 천 이름이 삼이니까.)

106017 @ 으.(으.)

106017 #2 이거 꼬는 것이 삼는 거, 삼 삼는 거.(이거 꼬는 것이 삼는 거, 삼 삼는 거.)

106017 @ 아, 삼 삼는다.(아, 삼 삼는다.)

106017 #2 이 기술도 모지레민 실이 훑어 가지고.(이 기술도 모자라면 실이 굵어 가지고.)

106017 @ 으.(으.)

106017 #2 이 기술도 좋으면 꺾고 삭삭해서 종곡.(이 기술도 좋으면 가늘고 시원해서 좋고.)

106017 @ 으.(으.)

106017 #2 이 기술이 나오라근에 그처럼 헤영. 훑은 건 그자 수수하게 여름에 정뱅이 적삼 꺾는 거나 하르방덜영 할망들이영 헤영 입고.(이 기술이 나와서 것처럼 해서. 굵은 건 그저 수수하게 여름에 잠방이 적삼 같은 거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해서 입고.)

106017 @ 음.(음.)

106017 #2 나 큰 후제.(내가 큰 후에.)

106017 #1 것도 이신 사름이라사.(것도 있는 사람이라야.)

106017 #2 베가 막.(베가 아주.)

106017 @ 귀허여.(귀해.)

106017 #2 요즘 육지서 베 온 거 비교허민 베가 베 아니라. 훑어 부난.(요즘 육지에서 베 온 거 비교하면 베가 베 아니야. 굵어 버리니까.)

106017 @ 아, 하하.(아, 하하.)

106017 #2 색깔도 안 좋고.(색깔도 안 좋고.)

106017 @ 요즘에야 기계로 짜니까.(요즘에야 기계로 짜니까.)

106017 #2 으, 색깔도 안 좋고 베가 베 아니라. 그때 베를 생각허고 요즘 베 생각허민.(으, 색깔도 안 좋고 베가 베 아니야. 그때 베를 생각하고 요즘 베 생각하면.)

106017 @ 음.(음.)

106017 #1 것도 그때도 우리 보면은 저디 베옷 입영 가민 쳐다봤어.(것도 그때도 우리 보면 저기 베옷 입고 가면 쳐다봤어.)

106017 #2 것이 귀해서.(것이 귀해서.)

106017 #1 잘사는 사름이나 입주. 경 아니민 미녕.(잘사는 사름이나 입지. 그렇지 않으면 무명.)

106017 #2 여름에도.(여름에도.)

106017 @으.(으.)

106017 #2 어디 소상이나 지금 닳지 안헤영 소상이나 대상이나 헐 때도 잘사는

남자 어른은 베 중의 적삼 착하게 입었 나가고 못사는 사람은 못 입어.(어디 소상이나 지금 같지 않아서 소상이나 대상이나 할 때도 잘사는 남자 어른은 베 중의 적삼 착하게 입고 나가고 못사는 사람은 못 입어.)

106017 @ 으.(으.)

106017 #2 베 허기가 힘들었게.(베 하기가 힘들어서.)

106018 @ 그럼 어쨌든 멩주보다 농사하기가 힘들었던 것과, 베가?(그럼 어쨌든 멩주보다 농사하기가 힘들었던 겁니까, 베가?)

106018 #2 아니.(아니.)

106018 @ 그건 아니고.(그건 아니고.)

106018 #2 멩주가 젤 힘드는데.(멩주가 젤 힘드는데.)

106018 @ 그지예, 미녕보다 힘들었던 거지예?(그쵸. 무명보다 힘들었던 거죠?)

106018 #2 으, 미녕은 요렇게 해서.(으, 무명은 요렇게 해서.)

106018 #1 아니, 미녕은 숨 따다가.(아니, 무명은 숨 따다가.)

106018 @ 으.(으.)

106018 #1 씨 빼 두고 태운덴 허는데 태와다가 실 뽑양 허민 간단헌 거주게.(씨 빼 두고 태운다고 하는데 태워다가 실 뽑아서 하면 간단한 거지.)

106018 @ 음.(음.)

106018 #2 그 베는 삼나무가 혼 발이다 허민 혼 발에다가 그거 실만씩 꿰영 다 이어근에 그걸 만들젠 허민.(그 베는 삼나무가 한 발이다 하면 한 발에다가 그거 실만큼씩 꿰서 다 이어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

106018 @ 일일이 그걸 다 허젠 허민.(일일이 그걸 다 하려고 하면.)

106018 #2 으.(으.)

106018 @ 게민 삼농사는, 아까 저기 목화는 봄에 씨 뿌령.(그럼 삼 농사는, 아까 저기 목화는 봄에 씨 뿌려서.)

106018 #1 삼도 봄에.(삼도 봄에.)

106018 @ 아, 삼도 봄에. 삼 농사는 어떻, 어떻 씨 뿌려놨수과?(아, 삼도 봄에. 삼 농사는 어떻게, 어떻게 씨 뿌렸었습니까?)

106018 #2 삼 농사는 삼은, 어떤 집일 봐도 저 집마다도 안 허고 허는 집이 있는데.(삼 농사는 삼은, 어떤 집일 봐도 저 집마다도 안 하고 하는 집이 있는데.)

106018 @ 으.(으.)

106018 #2 저 울타리에 조그만이 삼은 갈아. 목화는 막 밧에 강 하영 같고.(저 울타리에 조그마하게 삼은 갈아. 목화는 마구 밧에 가서 많이 같고.)

106018 #1 조그만이 갈아도 이게 막 저 제주도 말로 좇아사.(조그마하게 갈아도 이게 아주 저 제주도 말로 좇아야.)

106018 @ 으.(으.)

106018 #1 좇아사.(좇아야.)

106018 #1 이게 길고.(이게 길고.)

106018 @ 어.(어.)

106018 #1 매끈허지.(매끈하지.)

106018 @ 어.(어.)

106018 #1 두물민 거러버리거든. 가지가 나 불어.(드물면 나뭇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려져 나 버려. 가지가 나 버려.)

106018 #2 거러 불민 안 돼여. 게난.(나뭇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면 안 돼. 그러니까.)

106018 @ 아.(아.)

106018 #1 가지가 나 불민 못 쓰는 거야.(가지가 나 버리면 못 쓰는 거야.)

106018 #2 보통 말로 ㄴ는 삼 나뭇. ㄴ늘아야.(보통 말로 가는 삼 나뭇.)

106018 @ 아, 길죽길죽허게.(아, 길쭉길쭉하게.)

106018 #2 어. 흐쭈 허민 뭐.(어. 조금 하면 뭐.)

106018 #1 안 그러면 가지가 나 부니까.(안 그러면 가지가 나 버리니까.)

106018 #2 조팍디 밧메레 가도 좇으민 할망들 곤는 말이, 아이고 ㄴ는 삼 나뭇 좇양 안 돼켜.(조밭에 밧매러 가도 좇으면 할머니들 하는 말이, 아이고 가는 삼 나뭇 좇아서 안 되겠어.)

106018 @ 아.(아.)

106018 #2 탁 붙은 디 붙영 나난 울타리에.(탁 붙은 데 붙어서 나니까 울타리에.)

106018 #1 그렇지 앓으민 삼을 못 쓰주.(그렇지 앓으면 삼을 못 쓰지.)

106018 #2 쫓폼만 해.(조그만 해.)

106018 @ 어쨌든 삼은 ㄴ지게 싱거야.(어쨌든 삼은 ㄴ게 싱어야.)

106018 #2 으.(으.)

106018 @ 쫓금만허게 울타리에 허는 거고.(조그마하게 울타리에 하는 거고.)

106018 #2 어.(어.)

106012 @ 목화는?(목화는?)

106012 #2 목화는 밧디 막.(목화는 밧에 막.)

106012 #1 널리.(넓게.)

106012 @ 널리 심어야 되는 거라예?(넓게 심어야 되는 거지요?)

106012 #2 으, 으.(으, 으.)

106012 @ 목화 간격은 얼마씩, 한 이 정도?(목화 간격은 얼마씩, 한 이 정도?)

106012 #1 건 혼이 엇어.(건 한이 없어.)

106012 #2 아이고, 막 이만씩 허여. 그 정도 안 허영.(아이고, 막 이만큼씩 해. 그 정도 안 해.)

106012 @ 아.(아.)

106012 #2 겨난 건.(그러니까 건.)

106012 #1 겨는 가지가 많이 거러야만이 많이 나오니까.(겨는 가지가 많이 여러

가지로 뺀어 나아만 많이 나오니까.)

106012 #2 많이 허는 사름은 목화도 좋은 밧디 싱경 다박다박¹³⁷⁾ 나민 훑으면
드레가 잘 열영 목화도 하고.(많이 하는 사람은 목화도 좋은 밧에 심어서 주렁주렁
나면 굵으면 다래가 잘 열어서 목화도 많고.)

106012 @ 으.(으.)

106012 #2 굵인 밧디 싱근 사름은 남도 즈그만허민 드레도 얼마 나지 못허고.
(굵은 밧에 심은 사람은 나무도 자그마하면 다래도 얼마 나지 못하고.)

106012 @ 으.(으.)

106012 #2 다 것도 곡식과 거쁜 거라.(다 것도 곡식과 같은 거야.)

106012 @ 아, 기구나예.(아, 그렇구나.)

도구

106020 @ 음, 그 아까 도구, 도구예.(음, 그 아까 도구, 도구요.)

106020 #2 으.(으.)

106020 @ 제가 베틀 사진은 못 가정 와신디. 이견 이것도.(제가 베틀 사진은 못
가지고 왔는데. 이견 이것도.)

106020 #1 겐디 이견 우리 이쪽에선 안 썬난 거라.(그런데 이견 우리 이쪽에서
는 안 썬던 거야.)

106020 @ 그럼, 아까 사진.(그럼, 아까 사진.)

106020 #1 음.(음.)

106020 @ 아까 요 거예?(아까 요 거요?)

106020 #1 이걸 썬주.(이걸 썬지.)

106020 @ 요런 형태예?(요런 형태요?)

106020 #2 으, 이거.(으, 이거.)

106019 @ 이런 형태. 그럼 이거를 물레렌 곶아?(이런 형태. 그럼 이거를 물레라
고 말해?)

106019 #2 으, 물레.(으, 물레.)

106019 #1 물레.(물레.)

106019 @ 그럼 이것도 물레?(그럼 이것도 물레?)

106019 #1 으, ㄴ치 물레, 물레.(으, 같이 물레, 물레.)

106019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19 @ 으?(으?)

106019 #2 저건 멘네 불르는 물레, 이견 미녕 좇는 물레. 무르레.(저건 목화 바
르는 물레, 이견 무명 좇는 물레. 물레.)

106019 #1 겐디 물레, 이것 ㄴ라 다 물레렌 곶아서.(그런데 물레, 이것보고 다 물
레라고 말했어.)

137) '다박다박'은 열매 따위가 많이 열린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표준어의 '주렁주렁'에 해당한다.

106019 @ 물레, 무르레?(물레, '무르레'?)
106019 #2 으.(으.)
106019 #1 물레.(물레.)
106019 @ 물레?(물레?)
106019 #1 다 물레렌 글아서.(다 물레라고 말했어.)
106019 #2 으.(으.)
106019 @ 이것도 물레, 이것도 물레.(이것도 물레, 이것도 물레.)
106019 #1 요것ㄴ란 요디 나오는 귀.(요것보고 여기 나오는 귀.)
106019 @ 귀.(귀)
106019 #2 으.(으.)
106019 @ 하나씩 물어볼 거우다. 그거예, 잠깐만예.(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그
거요, 잠깐만요.)
106019 #2 잘했저, 이거.(잘했어, 이거.)
106019 @ 잘했어.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것덜 사진 다 찍영 놔줍니께.(잘했어.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것들 사진 다 찍어서 놔둡니다.)
106019 #1 찍어 놔두지 않으민 없어지니까.(찍영 놔두지 않으면 없어지니까.)
106019 @ 모르니까, 모르니까. 찍어 놔두지 안 허민 안 텔 거난예.(모르니까, 모
르니까 찍어 놔두지 않으면 안 될 거니까요.)
106019 #2 잘해신께.(잘했네.)
106019 @ 그럼.(그럼.)
106019 #2 요걸 만들지 못 허난 헛주께. 요 턱더레 이거 가난예.(요걸 만들지
못 하나까 했지. 요 턱으로 이거 가니까.)
106019 @ 이걸 뭐렌 글아?(이걸 뭐라고 말해?)
106019 #1, 2 귀.(귀.)
106019 @ 이걸 귀. 그 다음.(이걸 귀. 그 다음.)
106019 #1 이건 쌀.(이건 살.)
106019 @ 여기를?(여기를?)
106019 #2 아니, 요 두 개.(아니, 요 두 개.)
106019 @ 아, 이거 두 개를?(아, 이거 두 개를.)
106019 #1 쌀.(살.)
106019 @ 쌀. 또?(살. 또?)
106019 #2 무시거라 이건 즈룩.(뭐야 이거 자루.)
106019 @ 이건 즈룩.(이건 자루.)
106019 #2 이건 낱알 앓는 판데기.(이건 깔아서 앓는 판때기.)
106019 @ 판데기. 기냥 판데기렌 헤난?(판때기. 그냥 판때기라고 했었어?)
106019 #2 으.(으.)
106019 #1 겐데 이거는, 이거는 뭐 자체 이름은 없었어.(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뭐 자체 이름이 없었어.)

106019 @ 아, 요 판을 뭐렌 허는 건 없고?(아, 요 판을 뭐라고 하는 건 없고?)

106019 #2 아니, 그건 엇고.(아니, 그건 없고.)

106019 #1 으.(으.)

106019 @ 요기 요, 이 기둥도 이름 따로 없고?(요기 요, 이 기둥도 이름 따로 없고?)

106019 #2 엇어, 엇어. 그자 물레 쌀.(없어, 없어. 그저 물레 살.)

106019 #1 왜냐면은 요것이 여기 벌어질까 봐서 여기 저 나무 해서 박아놔주. (왜냐면 요것이 여기 벌어질까 봐서 여기 저 나무를 해서 박았었지.)

106019 #2 물레 쌀, 물레 귀, 그자 물레 즈룩.(물레 살, 물레 귀, 그저 물레 자루.)

106020 @ 으. 물레 쌀, 물레 귀, 물레 즈룩. 전부 물레렌 헛던 거.(으. 물레 살, 물레 귀, 물레 자루. 전부 물레라고 헛던 거.)

106020 #2 으.(으.)

106020 @ 그럼 여기 왕 이거 명칭은마씨? 이거 명칭, 뭐렌 불러난 것과?(그럼 여기 와서 이거 명칭은요? 이거 명칭,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106020 #2 이걸 이디 가레기가 잇는다.(이걸 여기 가락이 잇는데.)

106020 @ 영헨 가레기가 잇었주.(이런 가락이 잇었지.)

106020 #2 요거 저 요거 톡 나신게, 요거.(요거 저 요거 톡 닐네, 요거.)

106020 @ 으.(으.)

106020 #2 그 톡더레 이레 이만이 헨 가레기가 잇었주게.(그 톡으로 이쪽으로 이만큼 한 가락이 잇었지.)

106020 @ 여기 가레기예?(여기 가락요?)

106020 #2 어.(어.)

106020 @ 여기 뭐가 잇어예?(여기 뭐가 잇어요?)

106020 #1 음.(음.)

106020 #2 으. 실 감아지는 거.(으. 실 감기는 거.)

106020 @ 이거, 이거?(이거, 이거?)

106020 #1 맞아.(맞아.)

106020 @ 여기 돌 돌 돌 허민 실 감아지는 거예?(여기 돌 돌 돌 하면 실 감기는 거요?)

106020 #2 어. 이거 실 감아진 건데 하양혜 부난.(어. 이거 실 감긴 건데 하애 버리니까.)

106020 #1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6020 @ 이걸 가레기?(이걸 가락?)

106020 #2 으.(으.)

106020 @ 가레기, 예.(가락, 예.)

106020 #2 이거, 이거 감아진 거.(이거, 이거 감긴 거.)

106020 @ 가래기. 그럼 다른 거는? 이름 잇는 거 엇어?(가락. 그럼 다른 거는? 이름 잇는 거 없어?)

106020 #2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6020 #1 이건 글자 그대로 손잡이고게.(이건 글자 그대로 손잡이고.)

106020 @ 이건 그냥 손잡이예?(이건 그냥 손잡이요?)

106020 #2 으.(으)

106020 @ 손잡이.(손잡이.)

106020 #1 견디 여기서는.(그런데 여기서는.)

106020 #2 이것도 쌀이렌 해서, 이거.(이것도 살이라고 했어, 이거.)

106020 #1 그 물레 쌀 허면은 이거 영, 물레 쌀 영 해근에 따로따로 곤주 안 헛주게.(그 물레 살 하면 이거 이렇게 물레 살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말하지 않았지.)

106020 @ 아, 요런 거를 물레 쌀이렌 헛던 거예?(아, 요런 거를 물레 살이라고 헛던 거요?)

106020 #1, 2. 으.(으.)

106020 @ 요런 거를 물레 쌀. 물레 쌀이렌 헛던 거고. 뭐 물레 바퀴렌 그런 것도 안 허고?(요런 거를 물레 살. 물레 살이라고 헛던 거고. 뭐 물레 바퀴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106020 #1, 2 안 허여.(안 해.)

106020 #1 여기서 그런 말 엇엇어.(여기서 그런 말 없엇어.)

106020 @ 안 하고.(안 하고.)

106020 @ 퀘머리 같은 단어도 없지예?(괴머리 같은 단어도 없지요?)

106020 #1 여기서 그런 말덜을 곤지 안허여.(여기서 그런 말들 하지 않아.)

106020 @ 여기를 퀘머리렌 그런 것도 엇고?(여기를 괴머리라고 그런 것도 없고?)

106020 #1 어. 여기서 그런 말이 엇엇어.(어. 여기서 그런 말은 없엇어.)

106020 @ 가락장 나무, 퀘머리, 퀘머리 기둥?(가락장 나무, 괴머리, 괴머리 기둥?)

106020 #1 게메 이디선 그런 말을 곤질 안 헛어.(그러게 여기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106020 @ 으, 딱 물레 살?(으, 딱 물레 살?)

106020 #1 으. 그자 가래기 해근에.(으. 그자 가락 해서.)

106020 @ 으. 가래기, 물레 살, 그렇게만 곶아난 거예. 예, 예, 알았수다.(으. 가락, 물레 살, 그렇게만 말헛던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6020 #2 다 곶아서이, 이제랑.(다 말헛어, 이제는.)

106020 @ 아니, 아니 아직 멀엇수다.(아니, 아니 아직 멀엇습니다.)

106020 #2 아이고, 나 두 개만 곶으켄 헛 거 아이고, 더가라 아판에.(아이고, 나

두 개만 말하겠다고 한 거 아이고, 머리 아파서.)

106020 @ 어머니 멀언 아직. 아직 멀었수다.(어머니 멀었어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106020 #2 아이고.(아이고.)

바느질

106022 @ 저기 저기에, 저기 바느질할 때, 바느질할 때 도구 뭐 뭐 잇수과? 바느질할 때?(저기 저기요, 저기 바느질할 때 바느질할 때 도구 뭐 뭐 있습니까? 바느질할 때?)

106022 #2 게메 도구 무시거렌 바농베긴게.(그러게 도구 무엇 바늘밖엔.)

106022 @ 바농베끼 엿수과? 바농질할 때 썬 거?(바늘밖에 없습니까? 바느질할 때 썬 거?)

106022 #2 ㄹ세허고 바농베긴.(가위하고 바늘밖엔.)

106022 @ 아, 두 개만 이시민 뉘?(아, 두 개만 있으면 돼?)

106022 #2 으.(으.)

106022 @ 히히히.(히히히.)

106022 #1 여기, 여기선 손에 꼽는 골무 거튼 건 옛날에 잘 안 쓰니까.(여기, 여기선 손에 꼽는 골무 같은 건 옛날에 잘 안 쓰니까.)

106023 @ 안 썬 거예?(안 썬 거요?)

106023 #1 안 썬주게. 그럼 바농질할 때 방법이 있잖아예. 막 듬성듬성 허는 바농질도 있고, 막 줌질게 허는 바농질도 있고.(안 썬었지. 그럼 바느질할 때 방법이 있잖아요. 아주 듬성듬성 하는 바느질도 있고 아주 자잘하게 하는 바느질도 있고.)

106023 #2 잇주게. 호허는 건 듬성듬성.(있지. 호는 건 듬성듬성.)

106023 @ 그 듬성듬성한 바농질을 뭐렌 곶아마썸?(그 듬성듬성한 바느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106023 #2 호는 거.(호는 거.)

106023 @ 호는 거.(호는 거.)

106023 #2 어.(어.)

106023 @ 또?(또?)

106023 #2 또 제깍허는 건 땡침허는 거.(또 빈틈이 없이 하는 건 박음질하는 거.)

106023 @ 어.(어.)

106023 #2 것베긴 무시거?(것밖엔 뭐?)

106023 @ 땡침허는 거렌 험니까? 시침질 아니면 뭐 그런 바느질 이름은 없고?(박음질하는 거라고 합니까? 시침질 아니면 뭐 그런 바느질 이름은 없고?)

106023 #2 으, 땡침. 막 줌질게 허민, 아이고 땡침험구나 허고 호는, 그자 막 듬

성돔성 허민 호완 내베신게. 영 혜영.(으, 박음질. 막 자잘하게 하면, 아이고 박음질 하고 있구나 하고 호는, 그저 아주 듣성듣성 하면 호아서 내 버렸네. 이렇게 해서.)

106023 @ 아, 호완 내붙어신게.(아, 호아서 내버렸네.)

106023 #2 으.(으.)

106023 @ 호완 내붙어신게, 애기헐 거예.(호아서 내버렸네, 애기할 거요.)

106023 #2 으.(으.)

옷 종류

106024 @ 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잇수과? 남자 옷, 남자 옷에는?(그 남자 옷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 옷, 남자 옷에는?)

106024 #2 이런 저 이런, 이런 바지덜은 말앙?(이런 저 이런, 이런 바지들은 말고?)

106024 @ 응. 그니까 남자 옷 불렀던 이름들, 옛날에. 남자 옷에?(응. 그러니까 남자 옷 불렀던 이름들, 옛날에. 남자 옷에?)

106024 #2 도포.(도포.)

106024 @ 도포.(도포.)

106024 #2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 두루막.(두루마기.)

106024 #1 후루메¹³⁸.(‘후루메’.)

106025 @ 으. 여자 옷은마씨?(으. 여자 옷은요?)

106025 #2 여저 옷은게 창옷허고게.(여자 옷은 창옷하고.)

106025@ 으.(으.)

106025#2 장옷, 장옷.(장옷, 장옷.)

106025@ 으.(으.)

106025#2 창옷이 아니고 장옷이라. 여저 옷은.(창옷이 아니고 장옷이야. 여자 옷은.)

106025@ 장옷, 으.(장옷, 으.)

106025 #1 그 시집갈 때, 옛날 여저덜 영 쓰는 거게.(그 시집갈 때, 옛날 여자들 이렇게 쓰는 거.)

106025 @ 뒤집어 쓰는 거예?(뒤집어 쓰는 거요?)

106025#1 으.(으.)

106025 #2 겨고게, 치마, 저고리, 바지베끼게.(그리고, 치마, 저고리, 바지밖엔.)

106025 @ 치마, 저고리, 바지예?(치마, 저고리, 바지요?)

106025 #2 으.(으.)

106026 @ 아기 옷은? 애기?(아기 옷은? 아기?)

106026 #2 옛날 애기는 애기 옷 허민 지금 거트민 우에 우아래 큰 옷 입어 그

138) ‘후루메’는 남자들이 겨울에 입는 겹옷을 말한다. 두루마기보다 짧으며 소매가 짧다.

옷으로 노봉옷¹³⁹)이렌 애기들 헨 입져나신디.(옛날 아기는 아기 옷 하면 지금 같은 위에, 위아래 큰 옷 입어. 그 옷으로 ‘노봉옷’이라고 아기들 해서 입혔었는데.)

106026 @ 노봉옷?(‘노봉옷’?)

106026 #2 으.(으.)

106026 @ 노봉옷이 어떤 거?(‘노봉옷’이 어떤 거?)

106026 #1 누빈 거.(누빈 거.)

106026 #2 으, 그 애길 누빈에 그거를.(으, 그 아길 (옷을) 누벼서 그거를.)

106026 @ 아, 누빈 옷?(아, 누빈 옷?)

106026 #2 으.(으.)

106026 @ 누빈 옷을 아까 소리를, 어떻게 냈수과? 노빈 옷?(누빈 옷을 아까 소리를, 어떻게 냈습니까? ‘노빈 옷’?)

106026 #2 노봉옷.(‘노봉옷’)

106026 @ 아, 노봉옷이렌 불런, 누빈 옷을?(아, ‘노봉옷’이라고 불렀어, 누빈 옷을?)

106026 #2 으.(으.)

106027 @ 으, 애기털 입져난예?(으, 아기들 입혔었어요?)

106027 #2 으.(으.)

106027 @ 붓뒤옷¹⁴⁰)도 잇어났고예?(‘붓뒤옷’도 입었었고요?)

106027 #2 으.(으.)

106027 @ 게민 옷 만들젠 허민 어떻 헨 만들어났수과, 옷? 이제 실을 다 뽑아 나시난 미녕실을 뽑앙 미녕천을 만들앗수다.(그럼 옷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옷? 이제 실을 다 뽑았으니까 무명실을 뽑아서 무명천을 만들었습니까.)

106027 #2 게난에 실을 만들앙 췌주게.(그러니까 실을 만들어서 췌지.)

106027 @ 예, 만들앗지예?(예, 만들었죠?)

106027 #2 으, 옛날엔 만들앙 췌주게. (으, 옛날엔 만들어서 췌지.)

106027 @ 옷을 만들젠 허난 옷 다 집이서 만들어진 거 아니?(옷을 만들려고 하니까 옷 다 집에서 만들었던 거 아니?)

106027 #2 옛날사 만들앗주게.(옛날에야 만들었지.)

106027 @ 게난 옷 만들젠 옷 만들었던 애기 좀 해 줘서.(그러니까 옷 만들려고 하면 옷 만들었던 애기 좀 해 주세요.)

106027 #2 어떻 만들어?(어떻게 만들어?)

106027 @ 어떻 만들어?(어떻게 만들어?)

106027 #2 어떻 허여, 옷은 게 어떻게, 그자 췌 입엇주게.(어떻게 해, 옷은 어떻게, 그저 기워 입었지.)

139) ‘노봉옷’은 어린아이들이 입는 방한복으로 누비어 만든 두루마기를 말한다.

140) ‘붓뒤옷’은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삼베로 간편하게 지은 옷을 말한다. ‘붓땃옷’, ‘붓땃창옷’이라고도 한다.

106027 @ 히히히. 뭐 ㄴ세로 잘라 낡?(히히히. 뭐 가위로 잘라 놓고?)

106027 #2 천게 몰랑.(천 말라서.)

106027 @ 몰랑.(말라서)

106027 #2 거 몰름이엔 헤여.(거 마름이라고 해.)

106027 @ 으.(으.)

106027 #2 ㄴ세로 줄르는 게.(가위로 자르는 게.)

106027 @ 음.(음.)

106027 #2 몰랑 헛주게.(말라서 했지.)

106027 @ 게민 돌르젠 허민 대충 눈짐작으로 헝 몰랐수과?(그럼 마르려고 하면 대충 눈짐작으로 해서 말랐습니까?)

106027 #2 자.(자.)

106027 @ 자.(자.)

106027 #2 으, 자 잊주게, 자로 해서.(으, 자 있지. 자로 해서.)

106027 @ 음, 자로 해서. 재어 가지고.(음, 자로 해서. 재어 가지고.)

106027 #2 으, 자 안 허민 못 허여. 옛날에 할망들도 암만 어둑어둑해도 갱 헝 막 익숙하면 발로도 영 석 자썸 짐작해근에 영 허는디 보통 자로 헛주게. 자로.(으, 자 안 하면 못 해. 옛날에 할머니들도 아무리 어둑어둑해도 그렇게 해서 아주 익숙하면 발로도 이렇게 석 자썸 짐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자로 했지, 자로.)

106027 @ 아, 자로 헝. 만약에 그 자로 헝, 가위로 몰랑 그냥 바느질 허면, 헤 불면 옷 만들어지는 거?(아, 자로 해서. 만약에 그 자로 해서, 가위로 말라서 그냥 바느질 하면, 헤 버리면 옷 만들어지는 거?)

106027 #2 으.(으.)

106027 @ 아.(아.)

106027 #2 겨고 저 거시기 이제 나일론 잊주만은 윤디, 다리웨.(그리고 저 거시기 이제 나일론 있지만 인두, 다리미.)

106027 @ 으.(으.)

106027 #2 그걸로 멩지웃은 윤디허고 다리웨 가져사 허고.(그걸로 멩주웃은 인두하고 다리미 가져야 하고.)

106027 @ 으.(으.)

106027 #2 미녕웃광 베웃은 손으로 삭삭 곱¹⁴¹이 나고.(무명웃과 베웃은 손으로 삭삭 곱이 나고.)

106027 @ 으음.(으음.)

106027 #2 멩지웃은 윤디허고 다리미 가져사. 다리웨주 옛날.(멩주웃은 인두하고 다리미를 가져야. ‘다리웨’지 옛날.)

106027 @ 다리웨 잇어사 그거.(다리민 잇어야 그거.)

106027 #2 몰려나민 다리웨로 다리곡 헝 땀 윤디로 실밥 누리떠사 멩지웃은 허

141) ‘곱’은 줄 따위를 접은 곱을 말한다.

주.(마르면 다리미로 다리고 할 땐 인두로 실밥을 눌러야 명주옷은 하지.)

106027 @ 아, 실밥 누리떠사예?(아, 실밥을 눌러야.)

106027 #2 으. 멩지옷은 실밥 누리떠사 허고.(으, 명주옷은 실밥 눌러야 하고.)

106027 @ 만약 그 바지면 바지에 이름들이 잇수과? 예를 들면 여기면 이 허리 띠 부분 뒤편 끈고 이 밑에는 뒤편 끈고 허는 이름이 잇수과?(만약 그 바지면 바지에 이름들이 잇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 허리띠 부분 뒤편이라고 말하고 이 밑에는 뒤편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름이 잇습니까?)

106027 #2 바지사 무시거 그런 게 잇어게? 무신 그디 찢룬 거 무신 저.(바지야 뒤편 그런 게 잇어? 무슨 거기 찢룬 거 무슨 저.)

106027 @ 남자 바지, 남자 한복 바지에 보면?(남자 바지, 남자 한복 바지에 보면?)

106027 #2 으.(으.)

106027 @ 한복 바지에 보면 여기 무끄는 부분은 뒤편 끈는 거 잇어?(한복 바지에 보면 여기 묶는 부분은 뒤편이라고 말하는 거 잇어?)

106027 #1 대님?(대님?)

106027 #2 행경베긴 행경은.(행전밖엔 행전은.)

106027 @ 행경.(행전.)

106027 #2 제사할 때 허는 행경.(제사할 때 하는 행전.)

106027 #1 행경은 여기다 무꺼근에.(행전은 여기 묶어서.)

106027 @ 여기 무끄는 거 행경, 밑에 부분?(여기 묶는 거 행전, 밑에 부분?)

106027 #2 으.(으.)

106028 @ 치마에 보면, 아니 우리 저고리 입었을 때 보면 여기 부분은 뒤편 헐니까, 저고리 입으면?(치마에 보면, 아니 우리 저고리 입었을 때 보면 여기 부분은 뒤편이라고 합니까, 저고리 입으면?)

106028 #1 동전 드는 디.(동정 다는 데.)

106028 @ 동전 드는 디?(동정 다는 데.)

106028 #2 이 모가지에 거?(이 모가지에 거?)

106028 @ 모가지에.(모가지에.)

106028 #2 건 동전이주게, 짓허고 동전.(건 동정이지. 짓하고 동정.)

106028 @ 아, 짓.(아, 짓.)

106028 #2 으.(으.)

106028 @ 짓예?(짓요?)

106028 #2 으.(으.)

106028 @ 짓 위에 동전을 다는 거예?(짓 위에 동정 다는 거요?)

106028 #2 으, 짓 위에 동전 들주게.(으, 짓 위에 동정을 달지.)

106028 @ 여기 무끄는 거는?(여기 묶는 거는?)

106028 #2 곱.(고름.)

106028 @ 곶예. 소매 부분은 뭐렌 불르는 거 엇어난?(고름요. 소매 부분은 뭐라고 불렀던 거 있었어?)

106028 #2 아니, 소매는 거세기, 색동 논 거는 끝동 낫젠 허는데.(아니, 소매는 거시기, 색동 놓은 거는 끝동 낫다고 하는데.)

106028 @ 으.(으.)

106028 #2 그 옛날엔 요만이 색동이 아니고 똑 요만이 되나서. 걸 끝동 낫젠 허는데 그건 옛날에 그거 저 아주 호사로 색동 논 저고리 입은 사람이 몇 개 엇었주. (그 옛날엔 요만큼 색동이 아니고 꼭 이만큼 낫았어. 걸 끝동 낫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그거 저 아주 호사로 색동 놓은 저고리 입은 사람이 몇 개 없었지.)

106028 @ 하하. 보선 신언예?(하하. 버선 신었죠?)

106028 #2 으.(으.)

106028 @ 보선, 한복 입을 때 보선 신잖아예. 보선 신으면 이 부분을 뭐렌 허는 거 잇수과? 명칭이?(버선, 한복 입을 때 버선 신잖아요. 버선 신으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106028 #1 코.(코.)

106028 @ 코.(코.)

106028 #2 보선 앞코지.(버선 앞코.)

106028 @ 앞코지?(앞코?)

106028 #2 으.(으.)

106028 @ 그 다음 여긴?(그 다음 여긴?)

106028 #2 무시거 그건 뭐.(뭐 그건 뭐.)

106028 @ 엇어? 앞코지만 명칭 잇고?(없어? 앞코만 명칭 잇고?)

106028 #1 으. 이 부분도 명칭 엇고.(으. 이 부분도 명칭 없고.)

106028 #2 으, 보선 신영 고우민 아이고, 보선 앞코지도 곱다. 그자 경.(으, 버선 신고 고우면 아이고, 버선 앞코도 곱다. 그저 그렇게.)

106028 @ 옛날에 단추 잇어났수과, 요런 거?(옛날에 단추 있었습니까? 이런 거?)

106029 #2 단추 잇었어. 곶 메주.(단추 있었어. 곶 메지.)

106029 @ 곶 메다 헤마씨?(곶 메다 합니까?)

106029 #2 으.(으.)

106029 @ 곶 메.(곶 매.)

106029 #2 보통 곶으로 들앗주, 곶.(보통 곶으로 달았지, 곶.)

106029 @ 곶예. 거 막작 메다도 합니까?(고름요. 매듭단추 매다도 합니까?)

106029 #2 막작도.(매듭단추도.)

106029 #1 건 속곳.(건 속곳.)

106029 @ 속곳에 모작?(속곳에 매듭단추?)

106029 #2 으, 들메기.(으, 별매듭.)

106029 @ 아, 들메기.(아, 벌매듭.)
 106029 #2 으.(으.)
 106029 @ 믱작단추렌도 허고.(‘믹작단추’라고도 하고.)
 106029 #2 으. 들메기렌도 허고.(으. ‘들메기’라고도 하고.)
 106029 @ 들메기엔도 하고?(‘들메기’라고도 하고?)
 106029 #2 으.(으.)
 106029 @ 그럼 이거는 속곳?(그럼 이거는 속곳?)
 106029 #2 으.(으.)
 106029 @ 속곳에는 달았던 거고.(속곳에는 달았던 거고.)
 106029 #2 으.(으.)
 106029 @ 보통 우리 옷에는 곶?(보통 우리 옷에는 곶?)
 106029 #2 어, 곶.(어, 곶.)
 106029 #1 곶 들고. 이쪽에는.(곶 달고. 이쪽에는.)
 106029 @ 음. 곶 달았던 했던 거예.(음. 곶 달았다고 했던 거요.)

재단과 염색

106031 @ 혹시 그 우리 감옷 만들젠 허민 물들이잖아예?(혹시 그 우리 갈옷 만
 들려고 하면 물들이잖아요?)
 106031 #2 감물 들염주.(감물 들고 있지.)
 106031 @ 감물 들일 땐 어떻 험니까?(감물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106031 #2 감 뿔앙게.(감 뿔아서.)
 106031 @ 감 뿔앙, 으.(감 뿔아서, 으.)
 106031 #2 감 뿔앙 물 나오면.(감 뿔아서 물 나오면.)
 106031 @ 으.(으.)
 106031 #2 혈랑혈랑허게 얌드룩게 들이젠 현 사름은 물 서터서 들고.(‘혈랑혈
 랑’하게 알브스름하게 들이려고 한 사름은 물 섞어서 들고.)
 106031 @ 음.(음.)
 106031 #2 세계 뻗뻗허게 허젠 현 사름은 그대로 감물로만 들이곡.(세계 뻗뻗하
 게 하려고 하는 사름은 그대로 감물로만 들고.)
 106031 @ 음.(음.)
 106031 #2 그거, 그거베끼.(그거, 그거밖에.)
 106031 @ 아, 알루롱허게 허면 물 짱 그디 물 이신디?(아, 알브스름하게 하면
 물을 짜서 거기 물 있는데?)
 106031 #1 아니, 물 짜지 안 허영 감에 믱치 낱 막 문대기주.(아니, 물을 짜지
 않고 감에 같이 놓고 마구 문대지.)
 106031 #2 아니, 물 짱 이젠 뭐.(아니, 물 짜서 이젠 뭐.)
 106031 #1 물 짜, 이젠 물 짱 허주만은.(물을 짜, 이젠 물을 짜서 하지만.)

106031 #2 이제사 물 짜, 이젠 글암주만은.(이제야 물을 짜, 이젠 깔고 있지만.)
106031 @ 음.(음.)

신발

106032 @ 경 했었던 거예. 신발 종류에는 어떤 거 있어났수과? 옛날에 신발 종류?
(그렇게 했었던 거요. 신발 종류에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옛날에 신발 종류?)

106032 #2 옛날에 신 만들양 신엇주게.(옛날에 신 만들어서 신었지.)

106032 #1 옛날에 집신게.(옛날에 짚신.)

106032 @ 집신. 나막신도 있어났수과?(짚신. 나막신도 있었습니까?)

106032 #2 있어났주게.(있었지.)

106032 #1 나막신도 잇주게.(나막신도 있었지.)

106032 @ 으.(으.)

106032 #2 나막신은 아무나 못 신어서. 아주 건.(나막신은 아무나 못 신었어. 아주 건.)

106032 @ 으.(으.)

106034 #2 거 나막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영 아무나 경.(거 나막신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아무나 그렇게.)

106034 @ 나막신 만들젠 허민 막 파야 돼여?(나막신 만들려고 하면 마구 파야 돼.)

106034 #2 게, 그거 팡 거 저 요새 구두 거치 신 형상 만들젠 허민, 그거 아무나. 나막신 말만 듣고 잇인디 거 아무나 못 신어.(그럼, 그거 파서 거 저 요새 구두 같이 신 형상 만들려고 하면, 그거 아무나. 나막신 말만 듣고 잇는데 거 아무나 못 신어.)

106034 @ 못 신어예, 게민 보통 집신 신어나서예?(못 신어요. 그럼 보통 짚신 신었던거요?)

106034 #2 어.(어.)

106036 @ 게민 집신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잇수과? 아니면 혼 가지?(그럼 짚신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106036 #1 아, 짚으로 만든 것 있고, 삼으로도 만들고.(아, 짚으로 만든 것 있고, 삼으로도 만들고.)

106036 #2 막 고양현 사름도 잇고, 현디 종류가 으라 개카? 그건 몰라.(아주 고양현 사름도 잇고, 그런데 종류가 여러 개인가? 그건 몰라.)

106036 #1 여기 저 짚신, 짚신 헨. 집신이 아닌 짚신.(여기 저 짚신, 짚신 했어. 짚신이 아닌 '짚신'.)

106036 @ 짚신. 짚신이렌 불러난예.(‘짚신’. ‘짚신’이라고도 불렀던 거.)

106036 #1 짚신.(‘짚신’.)

106036 @ 이름 뭐 다른 이름은 잇어나고?(이름 뭐 다른 이름은 없었고?)

106036 #1 어.(어.)

106036 @ 저기 삼으로도 찌신 만들어나고?(저기 삼으로도 찌신 만들었고요?)

106036 #1 어. 걸 깍¹⁴²⁾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올라오는 걸 깍이라고 하는데 거 치레하는 사람들은 삼으로 깍을 만들어.(걸 ‘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걸 ‘깍’이라고 하는데 거 치레하는 사람들은 삼으로 ‘깍’을 만들어.)

106036 @ 아.(아.)

106036 #2 그런.(그런.)

106036 #1 거 보기가 조니까.(거 보기가 좋으니까.)

106036 #2 삼, 그 찌신 깍하는 삼은 베 허는 삼보다 굵어도 뉘고게.(삼, 그 찌신 ‘깍’하는 삼은 베 하는 삼보다 굵어도 되고.)

106036 @ 어.(어.)

106036 #2 그건 허난에.(그건 하나까.)

106033 @ 가족신은 못, 안 헤낫지예?(가족신은 못, 안 했었지요?)

106033 #1 아이고.(아이고.)

106033 #2 가족신은게.(가족신은.)

106033 @ 신은 사람.(신은 사람.)

106033 #1 가족신은 결혼식 날.(가족신은 결혼식 날.)

106033 #2 거 신은 사람이 그런 때나 허주.(거 신은 사람은 그런 때나 하지.)

106033 @ 결혼식 날은 자기 거 헤신가, 빌령 신어신가?(결혼식 날은 자기 거 했나요, 빌려서 신었나요?)

106033 #2 아이고.(아이고.)

106033 #1 저, 접으로 만들앙.(저, 계로 만들어서.)

106033 #2 관복에 부뻏주게.(관복에 붙었지.)

106033 #1 접으로 헤 가지고.(계로 헤 가지고.)

106033 @ 으, 으.(으, 으.)

106033 #1 거 관복이영 딱 만들앙 놔뉘당 누게네 결혼식 험저 허민 거 가져당.
(거 관복과 딱 만들어서 놔뉘다가 누구네 결혼식 한다고 하면 거 가져다가.)

106033 @ 빌려당예?(빌려다가요?)

106033 #2 저 사모관대라고 그 신랑 쓰는 것에 그런 관복에 다 부튼 거주.(저 사모관대라고 그 신랑 쓰는 것에 그런 관복에 다 붙은 거지.)

106033 @ 붙어 있는 거예.(붙어 있는 거요.)

106033 #2 으.(으.)

106033 @ 게난 개인 걸로 뭐 했던 건 아니다예?(그러니까 개인 걸로 뭐 했던 건 아니네요?)

106033 #2 으.(으.)

142) ‘깍’은 찌신이나 미투리를 삼을 때 발의 앞쪽을 가리도록 두 편으로 둘러 박은 낱알의 율을 말한다.

106033 #1 아, 잇엇저, 찼.(아, 잇엇어, 찼.)
 106033 @ 뭐?(뭐?)
 106033 #1 가죽신 잇어서. 개 가죽신. 이 저 사농허는 사름덜.(가죽신 잇엇어. 개 가죽신. 이 저 사냥하는 사름들.)
 106033 @ 아, 사농허는 사름들.(아, 사냥하는 사름들.)
 106033 #2 으.(으.)
 106033 #1 노리, 노리 가죽이나.(노루, 노루 가죽이나.)
 106033 @ 으.(으.)
 106033 #1 개 가죽 가지고 멘들앙, 신는 이만이 오게 헤근예. 겐디 보통 사름덜 은 안 신고.(개 가죽 가지고 만들어서, 신는 이만큼 오게 해서. 그런데 보통 사름들은 안 신고.)
 106033 @ 어.(어.)
 106033 #1 거 사농 갈 적에 추우니까.(거 사냥 갈 적에 추우니까.)
 106033 @ 추우니까?(추우니까?)
 106033 #1 어.(어.)
 106033 @ 집신 신영 눈 위에 못 걸어가니까?(짚신 신고 눈 위에 못 걸어가니까?)
 106033 #1 어.(어.)
 106033 #2 이제랑 하르방¹⁴³신디 들으라, 이제랑.(이제는 할아버지에게 들으라, 이제는.)
 106033 @ 저디 하르부지신디 듣고, 하나만 더예.(저기 할아버지에게 듣고, 하나만 더요.)

모자 등

106037 @ 저기 모자 종류에는 어떤 거 잇수과? 모자 종류?(저기 모자 종류에는 어떤 거 잇습니까? 모자 종류?)
 106037 #2 하르방이 곱읍서.(할아버지가 말하세요.)
 106037 @ 모자?(모자?)
 106037 #1 옛날에.(옛날에.)
 106037 @ 옛날에 썼던 모자?(옛날에 썼던 모자?)
 106037 #1 옛날엔 모자가 없엇어.(옛날엔 모자가 없엇어.)
 106037 @ 왜 밧디 강 일허젠 허민 모자 안 써낫수과?(왜 밧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모자 안 썼습니까?)
 106037 #1 페랭이.(패랭이.)
 106037 @ 예, 페랭이. 또?(예, 패랭이. 또?)
 106037 #1 가죽 모자.(가죽 모자.)

143)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06037 @ 가죽 모자.(가죽 모자.)
106037 #1 것도 사농허는 사름덜 가죽 모자.(것도 사냥하는 사람들 가죽 모자.)
106037 @ 그지예. 보통 쓰는 거는 패랭이 썼던 거예?(그렇지요. 보통 쓰는 거는 패랭이 썼던 거요?)
106037 #1 어. 모자 만들 게 없었으니까.(어. 모자 만들 게 없었으니까.)
106037 @ 으. 비 올 때 영 써난 건?(으. 비 올 때 이렇게 썼던 건?)
106037 #2 저 하르방덜은.(저 할아버지들은.)
106037 @ 으.(으.)
106037 #2 휘양이라고 해 가지고 천으로.(휘양이라고 해 가지고 천으로.)
106037 @ 휘양?(휘양?)
106037 #1 휘양.(휘양.)
106037 @ 으.(으.)
106037 #2 천으로 이렇게 둥글게 헤영 하르방덜은 쓰곡.(천으로 이렇게 둥글게 해서 할아버지들은 쓰고.)
106037 @ 으.(으.)
106037 #2 모자가 엇엇주.(모자가 없었지.)
106037 #1 것도 잘 사는 사름덜.(것도 잘 사는 사람들.)
106040 @ 음. 양태는?(음. 양태는?)
106040 #1 여기 양태 없었어.(여기 양태 없었어.)
106042 @ 엇어난예. 양태 없었던 거. 총모자 같은 것도 안 하고?(없었어요. 양태 없었던 거. 총모자 같은 것도 안 하고?)
106040 #1 어.(어.)
106042 @ 탕건도 안 헤낫수과?(탕건도 안 했었습니까?)
106042 #2 탕건 잇주.(탕건 있지.)
106042 #1 탕건 옛날게, 옛날 하르방덜.(탕건 옛날, 옛날 할아버지들.)
106042 @ 게니까 옛날 하르방덜.(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106042 #2 탕건 잇주.(탕건 있지.)
106042 @ 탕건예.(탕건요.)
106042 #2 하르방 아주 저 부자칩 하르방, 잘사는 하르방 영 보민 탕건 썩 앓양.(할아버지 아주 저 부갓집 할아버지, 잘사는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 탕건 써서 앓아서.)
106042 @ 으. 그민 탕건 상 왔던 거, 여기서 탕건을 만들었던 거?(으, 그면 탕건 사 왔던 거, 여기서 탕건을 만들었던 거?)
106042 #1 이건 탕건 속에 쓰는 거주.(이건 탕건 속에 쓰는 거지.)
106042 #2 하르방덜 이거 썩 앓아, 보민.(할아버지들 이거 써서 앓아, 보민.)
106042 @ 이거예?(이거요?)
106042 #1 겐디 이거 위이 이거 쓰는 거주게.(그런데 이거 위에 이거 쓰는 거

지.)

106042 @ 이거 우이 이거.(이거 위에 이거.)

106042 #2 이거 쓰는 건데 이거 쓰는 하르방은 아주 혼 마을에 두세 개.(이거 쓰는 건데 이거 쓰는 할아버지는 아주 한 마을에 두세 개.)

106042 @ 음.(음.)

106042 #1 우리, 우리 난 후엔 별로 없었어. 일본 시대니까.(우리, 우리 난 후엔 별로 없었어. 일본 시대니까.)

106042 #2 어디 영 땡기고.(어디 이렇게 다니고.)

106040 @ 그럼 이걸로 양태 만들고 이 동네서 헤낫수과?(그럼 이걸로 양태 만들고 이 동네에서 했었습니까?)

106040 #1 아니 안 해연. 물총덜 왕 사 갖주게. 서이 사름덜 왕.(아니 안 했어. 말총들 와서 사 갖지. 서쪽 사람들이 와서.)

106040 @ 으.(으.)

106040 #1 물 여기 물을 키우니까. 물을 키우니까 거 쫘지 헤영 놔둬. 건 그거 산 강.(말 여기 말을 키우니까. 말을 키우니까 거 쫘지 해서 놔둬. 건 그거 사 가서.)

106040 #2 요거 쓴 하르부지덜이 멧 개 봐지는데 요거 쓴 하르부지는 불 동 말 동.(요거 쓴 할아버지들이 멧 개 보이는데 요거 쓴 할아버지는 보일 듯 말 듯.)

106040 @ 으.(으.)

106040 #1 서촌¹⁴⁴에서 멘든덴, 여기 사름덜은 저 대정이나 한림 쪽을 서촌, 서촌 허는데.(‘서촌’에서 만든다고, 여기 사람들은 저 대정이나 한림 쪽을 ‘서촌’, ‘서촌’ 하는데.)

106040 @ 으.(으.)

106040 #1 거기 사름덜이 왕 사 간다고.(거기 사람들이 와서 사 간다고.)

106043 @ 망건은? 망건은 어떻 헨. 망건은 여기만 하는 거?(망건은? 망건은 어떻게 했어? 망건은 여기만 하는 거?)

106043 #1 아니 아니, 우이.(아니 아니, 위에.)

106044 @ 우이 허는 거. 도롱이 엿어낫수과 도롱이?(위에 하는 거. 도롱이 있었습니까, 도롱이?)

106044 #1 으?(으?)

106044 @ 비 올 때 도롱이 안 헤낫수과?(비 올 때 도롱이 안 했었습니까?)

10604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44 #2 우리 도롱이 말은 안 들어반.(우리 도롱이 말은 안 들어봤어.)

106044 @ 안 들어 반마씨. 비 올 때 쓰는 거?(안 들어 봤어요. 비 올 때 쓰는 거?)

106044 #1 우장.(우장.)

144) ‘서촌’은 서쪽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106044 @ 우장이엔 헤낫수과?(우장이라고 했었습니까?)
 106044 #2 우장.(우장.)
 106044 #1 새로 만든 거.(새로 만든 거.)
 106044 @ 예, 새로 만든 거.(예, 새로 만든 거.)
 106044 #1 으.(으.)
 106044 @ 새로 만든 건디 우장 거 여기 걸치는 거 우장이잖아예. 우에도, 머리에도 뭐 쓰지 안허여?(새로 만든 건데 우장 거 여기 걸치는 거 우장이잖아요. 위에도, 머리에도 뭐 쓰지 않아?)
 106044 #1 안 써. 페랭이.(안 써. 패랭이.)
 106044 #2 우장은.(우장은.)
 106044 @ 아, 페랭이 써.(아, 패랭이 써.)
 106044 #1 여기는 이견 없었어.(여기는 이견 없었어.)
 106044 @ 아, 이견 없고.(아, 이견 없고.)
 106044 #1 이거 우장.(이거 우장.)
 106044 @ 이거 우장 험 이렇게 페랭이 썼던 거예?(이거 우장 해서 이렇게 패랭이 썼던 거요?)
 106044 #1 어.(어.)
 106044 @ 사진에 있던 것처럼 영 했었던 거구나.(사진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했었던 거구나.)
 106044 #2 으. 우장은 또 아무나 만들어져?(으. 우장은 또 아무나 만들 수 있어?)
 106044 @ 새만 여끄민 웨는 거 아니?(새만 엮으면 되는 거 아니?)
 106044 #2 예예.(예예.)
 106044 @ 하하하.(하하하.)
 106044 #2 저거 헤젠 허민 새도 빼딱이¹⁴⁵⁾ 다 쳐 뒤근예.(저거 하려고 하면 새도 ‘빼딱이’ 다 쳐 두고.)
 106044 @ 음.(음.)
 106044 #2 침, 저거 어떻게 멘드카 부덴.(침, 저거 어떻게 만들까 봐.)
 106044 @ 음. 기라, 기라.(음. 그래, 그래.)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가 뭐 잇수과? 밥 무슨 밥, 무슨 밥? 보리밥, 쌀밥.(밥 종류가 뭐 있습니까? 밥 무슨 밥, 무슨 밥? 보리밥, 쌀밥.)

145) 여기서 ‘빼딱이’는 가지런하지 못한 것, 빠져나온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107001 #1 곤밥.(쌀밥.)

107001 @ 아, 곤밥.(아, 쌀밥.)

107001 #2 옛날에게 보리 철 나민 보리밥.(옛날에 보리 철 되면 보리밥.)

107001 @ 음.(음.)

107001 #2 경헌디 아주 켈케묵은 옛날은 육지는 모른디 제주돈 못사니까 피밥, ㄱ랑조팍¹⁴⁶⁾, 그대로 조팍. 그거 먹을 땐 그거 허고. 보리 철 나민 보리밥, 밀팍.(그런데 아주 켈케묵은 옛날은 육지는 모르는데 제주돈 못사니까 피밥, ‘ㄱ랑조’밥, 그대로 조팍. 그거 먹을 땐 그거 하고. 보리 철 되면 보리밥, 밀팍.)

107001 @ 보리밥, 밀팍예?(보리밥, 밀밥요?)

107001 #2 으.(으.)

107002 @ 게민 밥허젠 허민, 아까 밥허젠 허민, 밀팍 허젠 허민 밀이 필요허고?(그럼 밥하려고 하면, 아까 밥하려고 하면 밀밥 하려고 하면 밀이 필요허고?)

107002 #2 어.(어.)

107002 @ 밥을 만들어 먹었던 쌀이 종류가, 쌀 종류가 뭐 뭐 잇수과?(밥을 만들어 먹었던 쌀이 종류가, 쌀 종류가 뭐 뭐 잇습니까?)

107002 #2 밀팍은 알기 쉽게 말허민 벨미라이. 밀팍 허는 사람이 밀이 그렇게 보리거치 많지 안 허고 허난 보리밥보다 맛은 좋는데.(밀팍은 알기 쉽게 말하면 벨미야. 밀밥 하는 사람이 밀이 그렇게 보리같이 많지 앓고 하니까 보리밥보다 맛은 좋은데.)

107002 #2 으.(으.)

107002 @ 밀팍은 벨미로 행 먹고.(밀팍은 벨미로 해서 먹고.)

107002 # 밀쌀은 곤쌀에 여깃말로 요즘거치 나룩쌀이민 허주만은이 옛날 촌에 산디 불렛던 거 방앗간에 강도 안 곶양 이 방에에도 지고. 옛날 어른들은 보통 방앗간도 내중사 낫주게.(밀쌀은 흰쌀에 여깃말로 요즘같이 나룩쌀이면 하지만 옛날 촌에 밭벼 밟았던 거 방앗간에 가서도 안 같고 이 방아에도 지고. 옛날 어른들은 보통 방앗간도 나중에야 낫지.)

107002 @ 음.(음.)

107002 #2 그 도꼬방¹⁴⁷⁾에만 저 노니까. 거 요새 현미쌀 모양으로.(그 절구에만 지니까. 거 요새 현미쌀 모양으로.)

107002 @ 음.(음.)

107002 #2 거 현미 껍죽은 거 푼리롱이나 현다. 그 옛날에는 산디도 걱죽이 발강헤여. 거 우에 걱죽채 벳겨 불민 그 중간에 것이.(거 현미 껍질은 거 퍼렁기나 한다. 그 옛날에는 밭벼도 껍질이 발개. 거 위에 껍질째 벳겨 버리면 그 중간에 것이.)

107002 @ 으.(으.)

146) ‘ㄱ랑조’는 좁쌀의 한 종류로, 구술에 의하면 보통 조보다 털이 많은 좁쌀이라고 한다. ‘ㄱ랑조팍’은 ‘ㄱ랑조’로 지은 밥이다.

147) ‘도꼬방’은 ‘도구방’에 절구를 말한다. 제보자는 ‘도꼬방’, ‘도꾸방’으로 말하였다.

107002 #2 발강해놓니까 밥, 찜 뿐세가 엇어도 원 원 시대가 그런 시대난 그거 그렇게 해연. 조 철 나민 경, ㄹ랑조라는 건.(발가니까 밥, 찜 본새가 없어도 원 원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거 그렇게 했어. 조 철 되면 그렇게, ‘ㄹ랑조’라는 건.)

107002 #1 조에 털이 많은 거.(조에 털이 많은 거.)

107002 #2 원 너무 밋이 굿이니까 조가 안 돼여. 안 되면 그 ㄹ랑조를 불리면은 좀 돼니까 그 ㄹ랑조팍.(원 너무 밋이 굿으니까 조가 안 돼. 안 되면 그 ‘ㄹ랑조’를 밍으면 좀 되니까 그 ‘ㄹ랑조’밭.)

107002 #1 ㄹ랑조는 여기 지금.(‘ㄹ랑조’는 여기 지금.)

107002 @ 예.(예.)

107002 #1 풀 종류는 나오는 거덜이주.(풀 종류는 나오는 거들이지.)

107002 @ 아.(아.)

107002 #2 게고.(그리고)

107002 #1 그게 돼화웁 것이 지금 풀이 돼 불었어.(그게 퇴화된 것이 지금 풀이 돼 버렸어.)

107008 #2 그 피밥은이 그 피가 아주 아무 디나 안 돼는가, 피밥은 어떻게 어렵 느냐. 막 맛은 좋는데 피쌀 씻어난 물은 국 끌려도 요즘 웬장국, 옛날 어른은 장을 혼 콩 닷 말씩 담으니까 주로 아무 반찬도 엇고 물장, 웬장으로 일 년을 사난.(그 피밥은 그 피가 아주 아무 테나 안 되는가, 피밥은 어떻게 어려우냐. 아주 맛은 좋은데 피쌀 씻었던 물은 국 끓여도 요즘 된장국, 옛날 어른은 장을 한 콩 다섯 말씩 담그니까 주로 아무 반찬도 없고 간장, 된장으로 일 년을 사니까.)

107008 @ 음.(음)

107008 #2 피쌀 씻어난 물은 던져 불지도 안허여. 국 끌려도 돌아. 헌디 피 겁더기 아홉 불이 난다, 아홉 불.(피쌀 씻었던 물은 던져 버리지도 않아. 국 끓여도 달아. 그런데 피 겁데기 아홉 벌이 난다, 아홉 벌.)

107008 @ 으.(으.)

107008 #2 게난 쌀 보기가 얼마나 힘들 거니.(그러니까 쌀 보기가 얼마나 힘들 거니.)

107008 @ 아, 겁데기가 아홉 불. 하하.(아, 겁데기가 아홉 벌. 하하.)

107008 #2 피는 장만허면은 방울도 훑어. 헌디 겁더기 아홉 불 벗기당 보민 피쌀도 준준허고. 찜 옛날 할망덜 애떡엇주. 게민 밥을 허는디 맛은 좋아도 그렇게 피밥이 경 어려와났저.(피는 장만하면 방울도 굵어. 그런데 겁데기 아홉 벌 벗기다가 보면 피쌀도 자잘하고. 찜 옛날 할머니들 애떡엇지. 그럼 밥을 하는데 맛은 좋아도 그렇게 피밥이 그렇게 어려웠었어.)

107008 @ 맛은 좋아마씨, 피밥이?(맛은 좋아요, 피밥이?)

107008 #2 으, 맛은 좋아도.(으, 맛은 좋아도.)

107003 @ 보리밥은 어떻허과?(보리밥은 어떻습니까?)

107003 #2 보리밥은 두 가지.(보리밥은 두 가지.)

107003 #1 보리썰이주.(보리쌀이지.)

103012 @ 으, 보리썰. 보리썰 장만하는 거부터?(으, 보리쌀. 보리쌀 장만하는 거부터?)

103012 #2 보리 장만힘은, 옛날에는 저 빙빙 도는 그레 굴 때는 보리를, 보리를 비어다가, 비어서 무끄지 못하여 젖엉.(보리 장만하기는, 옛날에는 저 빙빙 도는 멧돌 갈 때는 보리를, 보리를 베어다가, 베어서 묽지 못해 젖어서.)

103012 @ 으.(으.)

103012 #2 그대로 밧데서 가만히 낱나두민.(그대로 밧에서 가만히 놓아두면.)

103012 @ 물려.(말려.)

103012 #2 물르면 무경 실거당, 홀테¹⁴⁸⁾ 잇지 홀테 쌀 돋은 거 보리클 그것이 보리클이라.(마르면 묶어서 실어다, 그네 잇지 그네 살 돋은 거 보리그네 그것이 '보리클'이야.)

103012 @ 보리클.(보리그네.)

103012 #2 보리클로 흔 놉은, 이렇게 메왓주. 이렇게 메운 거, 흔 놉은 사서 홀트고 흔 놉은 흔 줍씩 잡아주주게 홀트라고.(보리그네로 한 놉은, 이렇게 메웠지. 이렇게 메운 거, 한 놉은 서서 훑고 한 놉은 한 줍씩 집어주지 훑으라고.)

103012 @ 아.(아.)

103012 #2 접아주민 그거 접양 홀타 논 거 막 벧 나민 들류왕 도리깨로 어야홍¹⁴⁹⁾.(집어주면 그거 집어서 훑어 놓은 거 막 별 나면 말려서 도리깨로 '어야홍'.)

103012 @ 어야홍. 하하하.('어야홍'. 하하하.)

103012 #2 어, 어야홍 헤여 그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 꺼럭 그거 두드려서. 우리 집 그튼 딘 좋아. 영 길이 가까우니까 허주만은. 옛날에는 올레 골목이 막 들어가주게. 게도 산태 알아, 산태?(어, '어야홍' 해서 그걸 두드려 가지고. 아이고, 그 꺼럭 두드려서. 우리 집 같은 덴 좋아. 이렇게 길이 가까우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올레 골목이 아주 들어가지. 그래도 삼태기 알아, 삼태기?)

103012 @ 예, 산태.(예, 삼태기.)

103012 #2 일일구에 들르는 거 모양으로.(일일구에 드는 거 모양으로.)

103012 @ 예.(예.)

103012 #2 그건 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흔 놉, 뒤에 흔 놉. 멧태기엔 허민 알아? 멧태기 째으로 영.(그건 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한 놉, 뒤에 한 놉. 망태기라고 하면 알아? 망태기 째으로 이렇게.)

103012 #1 멧태기 알주게.(망태기 알지.)

103012 @ 예.(예.)

103012 #2 멧태기엔 담양 들러당 그거 솔박¹⁵⁰⁾으로 불려.(망태기엔 담아서 들어

148) '홀테'는 보리를 훑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표준어의 '그네'에 해당한다.

149) '어야홍'은 도리깨질하면서 내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50) '솔박'은 '한 퇴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뜯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좁박, 쯤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다가 그거 ‘솔박’으로 불러.)

103012 #1 멍텅이 제주도 거의 다 멍텅이엔 헤여.(망태기 제주도 거의 다 ‘멍텅이’라고 해.)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2 솔박으로 불러서 그 보리가. 집이 갓당 낮당 그 보리 장만할 철 돼민 날이 좋지 안 허여, 허민.(‘솔박’으로 불러서 그 보리가. 집에 가져다 났다가 그 보리 장만할 철 되면 날이 좋지 았아, 그러면.)

103012 @ 으.(으.)

103012 #1 주로 장마철이주게.(주로 장마철이지.)

103012 #2 그거 널영 물류왕 그 방에 아정 가민 이제 물 컷당 건정 그것에 낱막 도노렌 허민 겁덕이 벗어져. 해도 잘 벗어지멍 말멍, 아정 오랑 또. 곶아도 다 이해가 안 된다. 널영 채 갈름이라니 바싹 물류진 못 허고 쪼금 보슬보슬허민 채 갈름이라고 또 이제 브름 발른 코에 꿇어당 이제 불령 채 갈랑.(그거 널어서 말려서 그 방앗간에 가지고 가면 이제 물에 잠갔다가 건져서 그것에 놔서 마구 돌리느라고 하면 꺾질이 벗겨져. 해도 잘 벗겨지면서 말면서, 가지고 와서 또. 말해도 다 이해가 안 된다. 널어서 겨 가름이라니 바싹 말리진 못 하고 쪼금 보슬보슬하면 겨 가름이라고 또 이제 바람 잘 드는 길목에 끌어다가 이제 불러서 겨 갈라서.)

103012 @ 예.(예.)

103012 #2 그 채는 돼지 주곡.(그 겨는 돼지 주고.)

103012 @ 예.(예.)

103012 #2 그 쌀을 또 널영.(그 쌀을 또 널어서.)

103012 @ 음.(음.)

103012 #2 줌 여기서 살 만헌 사람은 또 거기 가서 또 방앗간에 가서 또 그것을 저.(줌 여기서 살 만헌 사람은 또 거기 가서 또 방앗간에 가서 또 그것을 저.)

103012 #1 물방에라고 해, 여기는 물방에.(연자방앗간이라고 해, 여기는 연자방앗간.)

103012 @ 물방에예?(연자방앗간요?)

103012 #2 으, 물방에라고 그디 가서 그대로 이제 믋른 차 그대로, 믋른 차 허면은 줌 깨끗허는디 우리 거치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곶아.(으, 연자방앗간이라고 거기 가서 그대로 이제 마른 채 그대로, 마른 채 하면 줌 깨끗한데 우리 같이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이제 그대로 같아.)

103012 @ 아.(아.)

103012 #1 정ㄱ레엔 헤근에.(풀맷돌이라고 해서.)

103012 #2 갈면.(갈면.)

103012 #1 쌀을 두 개씩 벌러.(쌀을 두 개씩 쪼개.)

103012 @ 으, 집이서 ㄱ는 거예?(으, 집에서 가는 거요?)

103012 #1 어.(어.)

103012 #2 두 개도 벌러지고.(두 개도 쪼개지고.)
 103012 #1 거핀다고 해, 걸 보고.(거피한다고 해, 걸 보고.)
 103012 #2 보리쌀 거피.(보리쌀 거피해.)
 103012 @ 거핀다.(거피한다.)
 103012 #1 으.(으.)
 103012 #2 두 개에도 벌러지고 세 개에도 벌러지고.(두 개에도 쪼개지고 세 개에도 쪼개지고.)
 103012 @ 그 집이서 정ㄴ레에 ㄴ는 걸 거핀다라고 해마씨?(그 집에서 풀맷들에 가는 거 거피한다고 해요?)
 103012 #2 어. 보리쌀 거피사켜. 보리쌀 거피사켜.(어. 보리쌀 거피해야겠어. 보리쌀 거피해야겠어.)
 103012 @ 아, 보리쌀 거피사켜.(아, 보리쌀 거피해야겠어.)
 103012 #2 경허영 그걸.(그래서 그걸.)
 107003 #1 그래야 밥 빨리 되고.(그래야 밥 빨리 되고.)
 107003 #2 어멍네쭙은 모진 어멍넌 일허레 가멍 저 보리쌀 거평 밥허라.(어머니네쭙은 모진 어머니는 일하러 가면서 저 보리쌀 거피해서 밥해라.)
 107003 @ 으.(으.)
 107003 #2 경 헤 텡 가불민 성제쭙.(그렇게 해 두고 가면 형제쭙.)
 107003 #1 열일곱 설쭙에 밥해서.(열일곱 설쭙에 밥했어.)
 107003 #2 성제쭙 신 사람은 ㄴ레 글젠 허민 싸우멍덜이.(형제쭙 있는 사람은 맷돌 갈려고 하면 싸우면서들.)
 107003 @ 으, 으. 몇 살부터 밥했수다, 저.(으, 으. 몇 살부터 밥했습니다.)
 107003 #1 열일곱 설부터 애기 돌멍 저 보리쌀 숲앙, 궤왕 놔두라 허민.(열일곱 살부터 아기 돌보면서 저 보리쌀 삶아서, 끓여 놔둬라 하면.)
 107003 @ 으.(으.)
 107003 #1 시간 돼 가민 물 낭 궤왕 나뉜.(시간 돼 가면 물 놓고 끓여서 놔뉜.)
 107003 @ 아, 보리쌀, 보리밥은 보리쌀 삶아난 다음에 밥허는 거?(아, 보리쌀, 보리밥은 보리쌀 삶은 다음에 밥하는 거?)
 107003 #2 아니, 숲으질 안 혀고 보리쌀 거평 쌀을 만들지. 치는 것이 있어.(아니, 삶지 않고 보리쌀 거피해서 쌀을 만들지. 치는 것이 있어.)
 107003 @ 아.(아.)
 107003 #2 게민 처근에.(그럼 처서.)
 107003 #1 체.(체.)
 107003 #2 대체, 거름체¹⁵¹.(대체, ‘거름체’)
 107003 @ 으.(으.)

151) ‘거름체’는 체의 한 종류다. 체의 종류에는 크기에 따라 ‘대체, 대거름체, 거름체, ㄴ는체’ 등이 있다.

107003 #2 경 혜영 그 대체는 아래, 거름체는 우이 꼭 그런 중간에 걸로 하지. 아니 거퍼진 건 거름체 우이 거, 신 건 또 거퍼야 되고.(그렇게 해서 그 대체는 아래, '거름체'는 위 꼭 그런 중간에 걸로 하지. 아니 거퍼해진 건 '거름체' 위에 거, 있는 건 또 거퍼해야 되고.)

107003 @ 으.(으.)

107003 #2 또 너무 거퍼진 건 이제 스테기 돼 불고, 보리쌀 스테기.(또 너무 거퍼해진 건 이제 싸라기 돼 버리고. 보리쌀 싸라기.)

107003 @ 음.(음.)

107003 #2 경허난 그걸이 씻엉 솟디 놔 가지고 불을 습노렌 허민 부꺼이.(그러니까 그걸 씻어서 솥에 놔 가지고 불을 때느라고 하면 끊어.)

107003 @ 음.(음.)

107003 #2 부갈부갈 부끄민 틈 재운다고 이제 습당.(부글부글 끓으면 뜸 들인다고 이제 불을 때다가.)

107003 #1 불을 켜 놔두주.(불을 꺼서 놔두지.)

107003 #2 두껍 더껍 놔두민.(뚜껍 덮어서 놔두면.)

107003 @ 음.(음.)

107003 #2 얼마나 그 놈이 자연적으로 피어나서 그. 계난 물을 맞춰야지.(얼마나 그 놈이 자연적으로 피어나서 그. 그러니까 물을 맞춰야지.)

107003 @ 으, 으.(으, 으.)

107003 #2 밥이 웬디, 얼마나 배고파산디 솟뚜껍 열민 막 맛 존 냄새가 나.(밥이 됐는데, 얼마나 배고팠는지 솥뚜껍을 열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107003 @ 하하하.(하하하.)

107003 #2 막 맛 존 냄새가 나.(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

107003 #1 먹을 게 없으니까계.(먹을 게 없으니까.)

107003 #2 어떤 사람은 물은 잘 맞춰도 빨리 급혜영.(어떤 사람은 물은 잘 맞춰도 빨리 급해서.)

107003 @ 음.(음.)

107003 #2 틈 자지 않을 때 푸면 밥으로 물이 나.(뜸 들이지 않을 때 뜨면 밥으로 물이 나.)

107003 @ 하하.(하하.)

107003 #2 흔 짝으로 먹어 가민 흔 짝더레 물이 가. 쌀은 겹덕은 잇지 그거 틈 자지 않을 때 빨리 먹을라고 밧디, 아침이 조반 줌 인척 일어남 여저가 허민 허고, 줌 늦게 허민 시간 돼민 밧디 가야니까.(한 쪽으로 먹어 가면 한 쪽으로 물이 가. 쌀은 겹질은 잇지 그거 뜸 들이지 않을 때 빨리 먹으려고 밧에, 아침에 조반 줌 일찍 일어나서 여자가 하면 하고, 줌 늦게 하면 시간 되면 밧에 가야니까.)

107003 @ 아.(아.)

107003 #2 밥 두루 틈 자도 퍼내렌 막 남저가 야단허주게.(밥 덜 뜸 들여도 퍼

내라고 아주 남자가 야단하지.)

107003 @ 으.(으.)

107003 #2 밥 출려 내라 밥 출려 내라.(밥 차려 내라, 밥 차려 내라.)

107003 @ 하하하.(하하하.)

107003 #2 옛날 우리 친정아버지는이 부엌 무똥에 가서 그자 안 돼시냐 출려 노라, 출려 노라 허민.(옛날 우리 친정아버지는 부엌 문 앞에 가서 아직 안 되었냐, 차려 놔라, 차려 놔라 하면.)

107003 @ 하하하.(하하하.)

107003 #2 막 다올려 가민 밥이 점점 안 돼여.(막 재촉해 가면 밥이 점점 안 돼.)

107003 @ 뜸 들어야 되는 게 밥인데.(뜸 들어야 되는 게 밥인데.)

107003 #2 으. 그런 정도로 먹영 살았저. 그러다가 이젠 까끄는 기계가 나니까.(으. 그런 정도로 먹고 살았어. 그러다가 이젠 깎는 기계가 나니까.)

107003 @ 음.(음.)

107003 #2 그때는.(그때는.)

107005 #1 그때는 진짜 쌀밥이라.(그때는 진짜 쌀밥이야.)

107005 #2 진짜 쌀밥으로 먹었주, 쌀밥.(진짜 쌀밥으로 먹었지, 쌀밥.)

107003 #1 그땐 쌀밥이라.(그땐 쌀밥이야.)

107003 #2 우리대로 들그레가 강 끌고 정그레에 거피고. 우리 친정에서는 너무 일만 허니까, 낮이 난 경 어무니 밧디 가민 보리쌀 거평 밥을 못 허주게. 난 뉘 형 아시도 엇고 나 혼자고. 경허민 우리 어머니가 헤알 거난 아이고 자고 싶영 자당 보민 무신 소리가 막 나이.(우리대로 연자방앗간 가서 갈고 풀맷돌에 거피해서. 우리 친정에서는 너무 일만 하니까, 낮에 난 그렇게 어머니 밧에 가면 보리쌀 거피해서 밥을 못 하지. 난 뉘 형 아우도 없고 나 혼자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해야 할 거니까 아이고 자고 싶어서 자다가 보면 무슨 소리가 마구 나.)

107003 @ 으.(으.)

107003 #2 소리가 나민 뉘 소린고 허민 그런 소리허는 힘으로.(소리가 나면 뉘 소리인가 하면 그런 소리하는 힘으로.)

107003 @ 아.(아.)

107003 #2 그 우리 어머니 한 지금 막 공부허는 학생이라. 공부 막 공부허는 학생 흐루쳐냐, 참 우리 웨손지도 흐루쳐냐 딱 세 시간은 닛젠 헌디 세 시간, 네 시간 자는 학생 모양으로.(그 우리 어머니 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야. 공부 아주 공부하는 학생 하룻저녁, 참 우리 외손자도 하룻저녁 딱 세 시간은 누웠다고 하는데 세 시간, 네 시간 자는 학생 모양으로.)

107003 @ 아.(아.)

107003 #1 잠자질 못 헌덴 허난.(잠자질 못 한다고 하니까.)

107003 #2 일허레 강 오랑이.(일하러 갔다 와서.)

107003 @ 아.(아.)

107003 #2 그거 저녁 어둑은 후제 저녁 행 먹고 그거 뒤치다거리 허당 보민 혼 열 시 돼민, 두서너 시간 자면 그 보리쌀 거퍼 뒤야 또 밧디 갈 거난 무신 소리가 막 낭 보민, 소리를 허멍 그 소리 힘으로.(그거 저녁 어두운 후에 저녁 해서 먹고 그거 뒤치다꺼리 하다가 보면 한 열 시 되면, 두서너 시간 자면 그 보리쌀 거퍼해 뒤야 또 밧에 갈 거니까 무슨 소리가 마구 나서 보면, 소리를 하면서 그 소리 힘으로.)

107003 @ 아.(아.)

107003 #1 즐리니까.(즐리니까.)

107003 #2 막 소리 힘으로 허고 또 방아 질 때는 웅덩딩¹⁵²⁾ 허멍 우리 어머니는 친정 어무니는 소리가 좋으니까. 막 요즘은 그 가시리¹⁵³⁾서 그 전설이로 뭐.(아주 소리 힘으로 하고 또 방아 찧을 때는 ‘웅덩딩’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소리가 좋으니까. 아주 요즘은 그 ‘가시리’에서 그 전설로 뭐.)

107003 @ 예, 예.(예, 예.)

107003 #2 가시오름¹⁵⁴⁾ 강당장¹⁵⁵⁾ 집이 세콜방에¹⁵⁶⁾ 새 걸려 온다.(‘가시오름’ ‘강당장’ 집에 ‘세콜방에’ 새 걸려 온다.)

107003 @ 예, 예.(예, 예.)

107003 #2 전승 곳인 우리 성질 들어사난 세 콜도 맞고 네 콜도 맞다 허는 전설이 모양으로. 막 우리 어무니가 소리를 허는디 뭐 첨 알 수도 엇게 소리허멍 그 방에를 지어사주게. 우리 어머니는 흐쓸 잘 먹젠 허민 저 물그레에 아니 가도 방에에 보리쌀을.(전승 곳은 우리 성질 들어서니까 ‘세 콜’도 맞고 ‘네 콜’도 맞다 하는 전설 모양으로. 마구 우리 어머니가 소리를 하는데 뭐 참 알 수도 없게 소리하면서 그 방아를 찧어야지. 우리 어머니는 조금 잘 먹으려고 하면 저 연자방앗간에 아니 가도 방아에 보리쌀을.)

107003 @ 음.(음.)

107003 #2 거 보리쌀을 실름¹⁵⁷⁾이라고 허여.(거 보리쌀을 바숨이라고 해.)

107003 @ 으, 음.(으, 음.)

107003 #2 초불 헤영 온 거 방에에 낱 실르민 흐쓸 보리쌀이 문작헤지주게.(초벌 해서 온 거 방아에 놓고 바수면 조금 보리쌀이 부드러워져.)

107003 @ 으.(으.)

107003 #2 문작헤지민 거평 밥을 허민 우리 어무닌 그렇게 헐 줄이, 쓸도 헤영

152) ‘웅덩딩’은 방아를 찧으면서 내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53)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행정 마을의 하나다.

154) ‘가시오름’은 가시리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55) ‘강당장’은 가시리 마을의 부자로 ‘당장’이라는 벼슬을 지낸 강 씨를 가리킨다.

156) ‘세 콜 방에’에서 ‘콜 방에’는 방아를 찧는 사람의 수에 따라 붙는 말로 ‘세 콜 방에’는 세 사람이 찧는 방아를 말한다.

157) ‘실름’은 ‘실르다’의 명사형으로, ‘실르다’는 표준어의 ‘바수다(여러 조각이 나게 두드려 잘게 깨뜨리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어디 나가고 허는 따문 경 힘들게. 우리 어머니 ㄹ래 곶고 방에 ㄹ는 걸 잘허난. 난 보고 듣고 힘 뿐이주 경 막 잘허진 못 헤여.(부드러워지면 거피해서 밥을 하면 어머니 그렇게 할 줄이, 쌀도 해서 어디 나가고 허는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우리 어머니 멧돌 같고 방아 찧는 걸 잘하니까. 난 보고 듣고 했을 뿐이지 그렇게 아주 잘하진 못해.)

107003 @ 어무니 소리 잘허실 거 같은디?(어머니 소리 잘하실 거 같은데?)

107003 #2 아니, 형도 엇고 아무 아주망도 엇고 허니까 나 허나를 그렇게 허렌 혈 수가 엇주게. 밧디는 꺾어가도. 췌 ㄹ꾸래¹⁵⁸). 췌 ㄹ짜야지.(아니, 형도 없고 아무 아주머니도 없고 하니까 나 하나를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없지. 밧에는 끌어가도. 소 먹이러. 소 먹여야지.)

107003 @ 으.(으.)

104001 #2 췌 농서허젠, 조 불리젠 췌를 내려와 오면 내일도 불리젠 허민 비 오라 불민 못 불리고.(소 농사하려고 조 밧으려고 소를 내려와 오면 내일도 밧으려고 하면 비 와 버리면 못 밧고.)

104001 @ 음.(음.)

104001 #2 그민 ㄹ꾸래.(그럼 먹이러.)

104001 #1 췌 ㄹ꾸래 가야지.(소 먹이러 가야지.)

104001 @ 췌 ㄹ꾸래 간다는 게?(소 먹이러 간다는 것이?)

104001 #2 췌를.(소를.)

104001 #1 맥이래.(먹이러.)

104001 @ 맥이러 간다는 거.(먹이러 간다는 거.)

104001 #1, 2 으.(으.)

104001 @ 물 맥이러 가고 출 맥이러 가고?(물 먹이러 가고 풀 먹이러 가고?)

104001 #2 아니 췌막에, 췌막에 췌를 밤에는 멧다가.(아니 외양간에, 외양간에 소를 밤에는 멧다가.)

104001 @ 으.(으.)

104001 #1 아척이 붉으면 그 췌를 몰양 들에 나가서.(아침에 밧으면 그 소를 몰고 들에 나가서.)

104001 @ 으.(으.)

104001 #1 풀을 뜯기는 거, 풀을 뜯기는 거.(풀을 뜯기는 거, 풀을 뜯기는 거.)

104001 #2 놈, 놈, 요즘은 그디 저디 해서 막 뭘 짓엇주만은 출왓 말고 내 분 밧도 잇주게.(놈, 놈, 요즘은 거기 저기 해서 마구 뭘 지엇지만 풀밭 말고 내 버린 밧도 있지.)

104001 @ 으, 으.(으, 으.)

104001 #2 그런 내 분 밧디 가근에 그걸 저물양 소를 맥여사지게.(그런 내 버린 밧에 가서 그걸 저물도록 소를 먹여야지.)

158) ‘ㄹ꾸다’는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는 것을 말한다.

104001 #1 도망가지 못하게 막양.(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
 104001 @ 으.(으.)
 104001 #2 도망가지 못하게. 심술긋엉 도망 잘 가는 소나 만나면은 똥 싸주게, 울멍.(도망가지 못하게. 심술긋어서 도망 잘 가는 소나 만나면 똥 싸지, 울면서.)
 104001 @ 하하하.(하하하.)
 104001 #2 울멍. 달아나 불민.(울면서. 달아나 버리면.)
 104001 @ 그거 좇으레 다니젠.(그거 찾으러 다니려고.)
 104001 #2 게고이.(그리고.)
 104001 #1 막으레.(막으러.)
 104001 @ 막으레 다니젠.(막으러 다니려고.)
 104001 #2 게고이 소가 저 그 요즘은 탁 수정으로 허는디이 옛날은 새끼를 베젠 허민이 암내를 허면은 아이고 수놈이.(그리고 소가 저 그 요즘은 탁 수정으로 하는데 옛날은 새끼를 배려고 하면 암내를 하면 아이고 수놈이.)
 104001 @ 으.(으.)
 104001 #2 그 암소만 좇으멍 지랄을 허고.(그 암소만 좇으면서 지랄을 하고.)
 104001 @ 으.(으.)
 104001 #2 그렇게 돼면은.(그렇게 되면.)
 104001 @ 아, 그 뭐 할 때 되면은 암내 난다고 하고.(아, 그 뭐 할 때 되면 암내 난다고 하고.)
 104001 #1 어.(어.)
 104001 #2 으. 그렇게 우리 그런 세상 살았어.(으. 그렇게 우리 그런 세상 살았어.)
 107003 @ 저 먹을 거 엇어서 보리 다 익기도 전어 비어 왕.(저 먹을 거 없어서 보리 다 익기도 전에 베어 와서.)
 107003 #1 그렇주게.(그렇지.)
 107003 @ 밥도 해낫수과?(밥도 했었습니까?)
 107003 #2 그거는 우리는.(그거는 우리는.)
 107003 #1 그런 집털이 잇었어.(그런 집들이 있었어.)
 107003 #2 우리는 허지 안 허고 우리 쪼금 전에.(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 쪼금 전에.)
 107003 @ 으, 으.(으, 으.)
 107003 #2 너무 굶을 지경이 돼니까 보리가 여물은 들고 익지 아녀니까.(너무 굶을 지경이 되니까 보리가 여물은 들고 익지 않으니까.)
 107003 @ 으, 으.(으, 으.)
 107003 #2 그 놈을 비어다가 고고리를, 고고리를 모가지로 툫아서 방에에 뺏으면.(그 놈을 베어다가 이삭을, 이삭을 모가지로 뜯어서 방에에 뺏으면.)
 107003 @ 으.(으.)

107003 #2 그 쌀물이 나온다 허여. 나오민 그 물을 접지라서 솟디 낱 딸리면 청
목¹⁵⁹ 거튼 거 나오지.(그 쌀물이 나온다 해. 나오면 그 물을 짜서 솥에 넣고 달이
면 ‘청목’ 같은 거 나오지.)

107003 @ 아.(아.)

107003 #2 그 보리쌀 언저 논 청목 거튼 거.(그 보리쌀 엮어 놓은 ‘청목’ 같은
거.)

107003 #1 오죽 먹을 거 없으면.(오죽 먹을 거 없으면.)

107003 #2 계난 우리는 딱 그 세계는 지나고.(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세계는 지
나고.)

107003 @ 으.(으.)

107003 #2 그 세계는 지나서 저 그렇게 해 가난 우리 세계 돼 가난 육지서 밀
체도 오고.(그 세계는 지나서 저 그렇게 해 가니까 우리 세계 돼 가니까 육지에서
밀기울도 오고.)

107003 @ 으.(으.)

107003 #2 밀체도 사 먹었지. 줌진 건 값 더 주고.(밀기울도 사 먹었지. 자잘한
건 값 더 주고.)

107003 @ 음.(음.)

107003 #2 훤은 건 덜 주고.(굵은 건 덜 주고.)

107003 @ 음.(음.)

107003 #2 겐디 옛날 어른은 그만헌 것도 엇이니까 보리 고고리를 뺏아서 물
해서 썬 먹고.(그런데 옛날 어른은 그만한 것도 없으니까 보리 이삭을 뺏아서 물 해
서 썬 먹고.)

107003 @ 으.(으.)

107003 #2 그거를 쭈다가 보면. 난 들은 말인데 청목으로 안 먹으니까 쭈다가
보면 누물 거튼 거, 누물도이 옛날 드룻누물 하영 먹었지. 갯누물.(그거 쭈다가 보
면. 난 들은 말인데 ‘청목’으로 안 먹으니까 쭈다가 보면 나물 같은 거, 나물도 옛날
들나물 많이 먹었어. 갓.)

107003 @ 그지예, 갯누물.(그지요, 갓.)

107003 #2 드르에 난 거.(들에 난 거.)

107003 #1 갯누물이 아니주.(갓이 아니지.)

107003 #2 으, 드룻누물.(으, 들나물.)

107003 #1 갯누물을 독해 가지고.(갓은 독해 가지고.)

107003 #2 으, 드룻누물이라고 것도 쓰.(으, 들나물이라고 것도 쓰.)

107003 @ 아, 갯누물이랑 드룻누물이랑 달라?(아, 갓이랑 들나물이랑 달라?)

107003 #1 어.(어.)

107003 #2 맵지 안 해도 것도 써.(맵지 않아도 것도 써.)

159) ‘청목’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쏜 목을 말한다.

107003 @ 으.(으.)

107003 #2 겐디 그 녹물을 주로 먹었어.(그런데 그 나물을 주로 먹었어.)

107003 #1 무수 이파리 닳은 게 잇주.(무 잎 같은 게 있지.)

107003 #2 그거 해다가.(그거 해다가.)

107003 #1 배추는 근래 나온 거고.(배추는 근래 나온 거고.)

107003 #2 그런 수세 많이 놓고, 또 이제 돈 안 주니까 옛날 어른덜 풍부하게
헝 먹은 건 고사리.(그런 수세 많이 놓고, 또 이제 돈 안 주니까 옛날 어른들 풍부
하게 해서 먹은 건 고사리.)

107003 @ 으.(으.)

107003 #2 고사리는 자기 먹을 거베끼 안 해 오니까 혼 짐씩.(고사리는 자기 먹
을 거밖에 안 해 오니까 한 짐씩.)

107003 @ 으.(으.)

107003 #2 나도 우리 어머니랑 나 두린 때 ㄹ찌 날 들양 가민 잠깐 시간에 우
리 어머니가 나 질 거 우리 어머니 질 거 허드라고. 그런 거.(나도 우리 어머니랑
나 어린 때 같이 날 데리고 가면 잠깐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질 거 우리 어머
니 질 거 하더라고. 그런 거.)

107003 @ 하하.(하하.)

107003 #1 그때는 개간 안 헝 밧이 만허니까게.(그때는 개간 안 한 밧이 많으
니까.)

107003 #2 그 고사리 해다가 삶양 요즘은 막 그 늘고사리를 그걸 유행으로 먹
어도 그때는 그거 늘고사릴 먹을 건 아니고 삶양 들류왕 따시 삶양이 썰어서 지저
냥. 그것 솟디 놓고 가루 흐썰 카 놓민 육개장식인디. 거 막 꿩주게.(그 고사리 해
다가 삶아서 요즘은 막 그 늘고사리를 그걸 유행으로 먹어도 그때는 그거 늘고사릴
먹을 건 아니고 삶아서 말려서 다시 삶아서 썰어서 지저 놓고. 그것 솥에 놓고 가
루 조금 타 넣으면 육개장인데. 거 아주 되지.

107003 @ 음.(음.)

107003 #2 엔간허민 밥 안 먹어도 살만큼.(엔간하면 밥 안 먹어도 살만큼.)

107003 @ 음.(음.)

107003 #2 그런 거 허영 주로 먹고 벨 거.(그런 거 해서 먹고 벨 거.)

107003 @ 으.(으.)

107003 #2 뺏다귀¹⁶⁰.(절간고구마.)

107003 @ 음.(음.)

107003 #1 감저, 고구마.(고구마, 고구마.)

107003 @ 뺏떼기. 말린 거, 말린 거예?(절간고구마. 말린 거, 말린 거요?)

107003 #2 뺏따귀 말린 거를.(절간고구마를 말린 거를.)

107003 #1 방에 썬 가지고.(방아 썰어 가지고.)

160) 제보자는 '절간고구마'의 방언형인 '뺏떼기'를 '뺏따귀'라고 하였다.

107003 @ 어무니 뺏따귀?(어머니 ‘뺏따귀’?)

107003 #2 으. 감저 뺏떼기.(으, 고구마 ‘뺏떼기’.)

107003 @ 뺏떼기, 뺏따귀?(‘뺏떼기’, ‘뺏따귀’?)

107003 #2 뺏떼기.(‘뺏떼기’)

107003 #1 여긴 뺏떼기.(여긴 ‘뺏떼기’.)

107003 @ 뺏떼기예.(‘뺏떼기’요?)

107003 #2 감저 뺏떼기를 막 들류와서 들그레에 가서 막 굴면은 그것이 그루가 나민 청 안 곱아진 건 또 그레 놓민 그는 사름은 따로 잇고 치는 사름 따로 잇어. 그레 거려다 놓민 청 안 곱아진 건 또 놓고 행 그걸 헤다가 그 뺏떼기 그루로 범벅도 허고.(고구마 절간고구마를 잘 말려서 연자방앗간에 가서 잘 갈면 그것이 가루가 나면 쳐서 안 갈린 건 또 그리 놓으면 가는 사름은 따로 잇고 치는 사름 따로 잇어. 그리 떠서 놓으면 쳐서 안 갈린 건 또 놓고 해서 그걸 헤다가 그 절간고구마 가루로 범벅도 하고.)

107003 #1 속.(쑥.)

107003 #2 저베기도 허고.(수제비도 하고.)

107003 #1 속도 허고.(쑥도 하고.)

107003 #2 속 놔근에.(쑥 넣고.)

107034 #1 속 범벅도 허고.(쑥 범벅도 하고.)

107034 #2 범벅.(범벅.)

107034 #1 우린 떡보다 범벅.(우린 떡보다 범벅.)

107034 @ 음.(음.)

107034 #2 범벅, 범벅.(범벅, 범벅.)

107034 @ 범벅.(범벅.)

107034 #2 감저 그루 해서 속 범벅. 그러고 그 곱다, 곱다 보면 콩 방울만씩 낚시 안 곱아진 건 무게기라고 해서 물에 킷다가 보리쌀에 서팅 밥.(고구마 가루 해서 쑥 범벅. 그리고 그 갈다, 갈다 보면 콩 방울만큼 도저히 안 갈린 거 무거리라고 해서 물에 담갔다가 보리쌀에 섞어서 밥.)

107034 #1 밥할 때 같이 낱.(밥할 때 같이 넣어서.)

107034 #2 밥을 허민 침 들기가 그보다 더 든 밥이 엇어나서.(밥을 하면 참 달기가 그보다 더 단 밥이 없었어.)

107004 @ 으. 어무니 반지기밥¹⁶¹⁾ 알아지쿠과, 반지기밥?(으. 어머니 ‘반지기밥’ 알겠어요, ‘반지기밥’?)

107004 #2 어게.(그래.)

107004 @ 어떤 걸 반지기밥이라고?(어떤 걸 ‘반지기밥’이라고?)

107004 #2 보리쌀에 곤쌀에 섞은 거.(보리쌀에 흰쌀에 섞은 거.)

161)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으로, 보통 다른 두 종류의 쌀을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107004 @ 어.(어.)

107004 #2 계란 반착씩 써끄니까 반지기밥.(그러니까 반쪽씩 섞으니까 ‘반지기밥’.)

107004 @ 아, 반착씩 써끄니까. 반지기밥.(아, 반쪽씩 섞으니까. ‘반지기밥’.)

107004 #2 으.(으.)

107004 @ 막 써끄는 거, 아예 금을 갈랑?(마구 섞는 거, 아예 금을 갈라서?)

10700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04 #2 아니, 어른이나 질루고¹⁶²⁾ 현 어른들은 밥허는 게 공상처럼 보리쌀밥 반은 뒤편은, 브리쌀 삶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반 뒤편 후제사 곤쌀을 씻어 영 혼펜더레 보리쌀을 밀러 뒤편 그 곤쌀을 놓면.(아니, 어른이나 키우고 하는 어른들은 밥하는 게 공상처럼 보리쌀 밥 반은 되면, 보리쌀 삶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반 뒤편 후에야 흰쌀을 씻어서 이렇게 한편으로 보리쌀을 밀러 두고 그 흰쌀을 놓으면.)

107004 @ 으.(으.)

107004 #2 밥 혼 사발은 그대로 막 젓어 불지 안하면 거렁 어른 나시 놓고 또 혼쌀 어질어질¹⁶³⁾현 건 보리쌀에 서꺼 불고. 경 그것이 그추룩도 행 먹고 또 그대로 팍 그자 보리쌀에 서경 반지기로도 허고.(밥 한 사발은 그대로 막 저어 버리지 않으면 떠서 어른 몫 놓고 또 조금 ‘어질어질’한 건 보리쌀에 섞어 버리고. 그렇게 그것이 그처럼도 해서 먹고 또 그대로 팍 그자 보리쌀에 섞어서 반지기로도 하고.)

107004 @ 그민 저거 서경 헐 때 말고 영 나뉘 헐 때는 보리밥을 먼저 허당 나중에 쌀을 놓는 거.(그럼 저거 섞어서 할 때 말고 이렇게 나뉘서 할 때는 보리밥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쌀을 놓는 거.)

107004 #1 으, 보리쌀이 잘 안 익으니까.(으, 보리쌀이 잘 안 익으니까.)

107004 #2 으. 보리쌀은 익기가 힘드니까. 절반 현 후에.(으. 보리쌀은 익기가 힘드니까. 절반 현 후에.)

107004 @ 아, 반 정도 끓인 후에.(아, 반 정도 끓인 후에.)

107004 #2 으.(으.)

107004 @ 그 위에 곤쌀 낱 허는구나예?(그 위에 흰쌀 넣어서 하는군요?)

107004 #2 그러고 경허난 잔치 때에도 보리쌀을 먼저 삶아서 딱 퍼 냐다가 따시 곤쌀 씻어 놓고 그 보리쌀에 서경 밥을 허는 거주.(그러고 그러니까 잔치 때에도 보리쌀을 먼저 삶아서 딱 떠 냐다가 다시 흰쌀 씻어 넣고 그 보리쌀에 섞어서 밥을 하는 거지.)

107004 @ 음.(음.)

107004 #2 보리쌀이 익기가 힘들어.(보리쌀이 익기가 힘들어.)

107005 @ 곤밥은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먹어졌수과?(흰쌀은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먹을 수 있었습니까?)

162) ‘질루다’는 표준어의 ‘키우다’에 해당하나 여기서는 ‘(어른을) 모시다’의 의미로 쓰였다.

163) ‘어질어질’은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서 드문드문 보이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107005 #1 제사 때.(제사 때.)

107005 @ 제사 때예.(제사 때요.)

107005 #2 제사 때 허난에 밀밥이 맞춘 것이, 잘 살지 못하고 종손이나 돼면은 제 먹으려 얻어먹젠 막 하영 가면 곤밥으로만 다 먹을 수도 있어. 잘 살지 못하는 종손집인.(제사 때 하니까 밀밥이 맛있는 것이, 잘 살지 못하고 종손이나 되면 제 먹으려 얻어먹으려고 아주 많이 가면 흰밥으로만 다 먹을 수도 없어. 잘 살지 못하는 종손집에는.)

107005 @ 아.(아.)

107005 #2 밀밥해서 받은 밀밥으로 거리고 우터레 곤밥 낱 곤밥추룩.(밀밥해서 받은 밀밥으로 뜨고 위로 흰밥 넣어서 흰밥처럼.)

107005 @ 하하.(하하.)

107005 #2 경도 혜영도 먹고.(그렇게도 해서도 먹고.)

107005 @ 으.(으.)

107005 #2 또 어른덜 나시 곤밥으로 주고.(또 어른들 뭇 흰밥으로 주고.)

107005 @ 주고예?(주고요?)

107005 #2 어.(어.)

107006 @ 조팍은 아까 ㄹ랑조¹⁶⁴로 헛던 거예?(조팍은 아까 ‘ㄹ랑조’로 헛던 거요?)

107006 #2 어.(어.)

107006 #1 그냥 조.(그냥 조.)

107006 @ 그냥 조.(그냥 조.)

107006 #2 감저 옛날도 놓니까.(고구마 옛날도 놓으니까.)

107006 #1 겐데 우리 막 역은 후제는 개량이 돼서.(그런데 우리 아주 자란 후에는 개량이 돼서.)

107006 #2 조팍을 안 허고. 우리 역은 후젠.(조팍을 안 하고. 우리 자란 후에는.)

107006 @ 으.(으.)

107006 #2 부루 조팍에 감절 낱 헛어.(일부러 조팍에 고구마를 넣어서 헛어.)

107006 @ 으.(으.)

107006 감저. 감저, 깍두기보단 좀 훑게 썰어 가지고 씻어서 막 혜영게 뱃경 둥박둣박¹⁶⁵ 수제비보다 흐썰 좀 크게 혜영 그 감저를 놔서 팍 와썩 궤면은 쫄썰을 낱 젓영 밥을 허면 밥 다 허민 감저가 익영 먹기 좋아.(고구마. 고구마 깍두기보단 좀 굵게 썰어 가지고 씻어서 아주 하얗게 벗겨서 ‘둥박둣박’ 수제비보다 조금 좀 크게 해서 그 고구마를 넣고 팍 와썩 끓으면 쫄썰을 넣고 저어서 밥을 하면 밥 다 하면 고구마가 익어서 먹기 좋아.)

164) ‘ㄹ랑조’는 쫄썰의 한 종류로, 구술에 의하면 보통 조보다 털이 많은 쫄썰이라고 한다.

165) ‘둥박둣박’은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크고 굵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06 @ 감자를 먼저 낱?(고구마를 먼저 넣고?)
107006 #2 으.(으.)
107006 #1 기주께.(그렇지.)
107006 @ 감자 낱 나중에 좁쌀 놓는 거라?(고구마 넣고 나중에 좁쌀 놓는 거야?)
107006 #2 으.(으.)
107006 #1 좁쌀은, 조밥은 금방 돼니까.(좁쌀은, 조밥은 금방 되니까.)
107006 #2 제일 곡식 중에 멥쌀이 빨리 물에만 놓면 익고. 멥쌀은 나서 자라서 추수하는 시기가 졸른가, 멥쌀은 쨌만 허민 음식이 돼고 그 다음은 좁쌀.(제일 곡식 중에 메밀이 빨리 물에만 넣으면 익고. 메밀은 나서 자라서 추수하는 시기가 짧은가, 메밀은 끓기만 하면 음식이 되고 그 다음은 좁쌀.)
107006 @ 아.(아.)
107006 #2 피쌀, 좁쌀, 겉다.(피쌀, 좁쌀, 그런데.)
107006 #1 조밥만 헐 땀 물 낱.(조밥만 할 때 물 넣고.)
107006 @ 으.(으.)
107006 #1 물이 막 쨌면는 그 때 좁쌀 놓는 거지.(물이 마구 끓으면 그 때 좁쌀 놓는 거지.)
107006 #2 으. 쨌사 좁쌀 넣지.(으. 끓어야 좁쌀 넣지.)
107006 @ 아, 조밥 만들 때 경 험니까?(아, 조밥 만들 때 그렇게 합니까?)
107006 #2 으.(으.)
107006 @ 아, 조밥 만들 때 경 험니까? 물 끓을 때 좁쌀을 넣는 거?(아, 조밥 만들 때 그렇게 합니까? 물 끓을 때 좁쌀을 넣는 거?)
107006 #2 어. 찬물, 찬물에 안 놔.(어. 찬물, 찬물에 안 넣어.)
107006 @ 아, 찬물에 안 놔.(아, 찬물에 안 넣어.)
107006 #2 으.(으.)
107006 @ 하하하.(하하하.)
107006 #2 물 쨌여사.(물 끓어야.)
107007 @ 팍밥은마씨?(팍밥은요?)
107007 #2 어?(어?)
107007 @ 팍밥?(팍밥?)
107007 #1 것사 팍 솥양.(거야 팍 삶아서.)
107007 #2 팍을 솥양다가.(팍을 삶았다가.)
107007 @ 솥양다가.(삶았다가.)
107007 #1 주로 잔치 때.(주로 잔치 때.)
107007 #2 잔치 때나 원 아무 때나 원 팍밥을 헐 때는 팍을 솥양 물삭허지 않음 뿐허게 솥양 딱 놔뒀다가 밥헐 때는 그치 쨌에 허민 밥이 되는 거.(잔치 때나 원 아무 때나 원 팍밥을 할 때는 팍을 삶아서 물렁하지 않게 삶아서 딱 놔뒀다가 밥할

때는 같이 쌀에 하면 밥이 되는 거.)

107007 @ 음.(음.)

107007 #1 우리 두린 때 영 보민 잔치 때나 아니면은 영장 때 주로 밥 출렁 간 덴 허주. 그거 잘 허는 걸로. 팟밥은 잘 허는 걸로.(우리 어린 때 이렇게 보면 잔치 때나 아니면 영장 때 주로 밥 차려서 간다고 하지. 그거 잘 하는 거로. 팔밥은 잘 하는 걸로.)

107007 @ 아, 팟밥은 잘 허는 거라예?(아, 팔밥은 잘 하는 거예요?)

107007 #1 으.(으.)

107008 @ 그민 아까 피밥이 막 맛 좋은 거렌 헛잖아예.(그럼 아까 피밥이 아주 맛 좋은 거라고 헛잖아요.)

107008 #2 맛 좋아도 그건 아주 췌췌묵은 때에 우리보단 앞 시대에이.(맛 좋아도 그건 아주 췌췌묵은 때에 우리보단 앞 시대에.)

107008 @ 으.(으.)

107008 #1 우리도 뭐 헌 후제도.(우리도 뭐 한 후에도.)

107008 @ 예.(예.)

107008 #1 이 저 송당¹⁶⁶.(이 저 송당.)

107008 @ 예.(예.)

107008 #1 그런 데는 피밥을 해 먹었지. 저 옷드르¹⁶⁷는.(그런 데는 피밥을 해 먹었지. 저 ‘옷드르’는.)

107008 #2 으, 그런 데는. 그.(으, 그런 데는. 그.)

107008 #1 여기도 수망리¹⁶⁸나.(여기도 ‘수망리’나.)

107008 #2 그 피허고 ㄱ랑조베끼 안 돼니까.(그 피하고 ‘ㄱ랑조’밖에 안 되니까.)

107008 @ 아, 농사가?(아, 농사가?)

107008 #2 으, 안 돼니까 할 수 없이.(으,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107008 #1 그거는 목산¹⁶⁹이라고 허거든 목산.(그거는 ‘목산’이라고 하거든 ‘목산’.)

107008 @ 으.(으.)

107008 #1 굿은 산디허고 메밀베끼 잘 안 돼니까. 조가 잘 안 돼니까 저 피를 허는 거야.(굿은 밭벼하고 메밀밖에 잘 안 되니까. 조가 잘 안 되니까 저 피를 하는 거야.)

107008 #2 피를 갈면 그렇게 힘들어도.(피를 갈면 그렇게 힘들어도.)

107008 #1 겐디 그거 우리 거, 사람 먹을 거 해 두고 나머지는 소나 말 멕이고.(그런데 그거 우리 거, 사람 먹을 거 해 두고 나머지는 소나 말 멕이고.)

166) ‘송당’은 제주시 구좌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67)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68) ‘수망리’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69) ‘목산’은 야산 지대의 밭으로, 주로 메밀이나 밭벼 농사가 가능한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008 @ 계민 피밥 손이 많이 가도 맛있는 거렌 허지 안헛수과?(그럼 피밥 손이 많이 가도 맛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7008 #2 어.(어.)

107008 @ 거난 그 후에도 맛있으면 해 먹었을 거 같은데, 하영.(그러니까 그 후에도 맛있으니까 해 먹었을 거 같은데, 많이.)

103066 #1 수확이 잘 안 나고.(수확이 잘 안 나고.)

103066 #2 계난 이레.(그러니까 이쪽에.)

103066 #1 힘이 드니까.(힘이 드니까.)

103066 #2 이레이 이 해각더레는, 저 아까 말헌 그런 송당더레이.(이리 이 해안 지역으로는, 저 아까 말한 그런 송당으로.)

103066 #1 요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103066 @ 예.(예.)

103066 #1 목초용으로 피 재배를 했어.(목초용으로 피 재배를 했어.)

103066 #2 드리¹⁷⁰⁾, 드리 송당, 드리 송당.(교래, 교래 송당, 교래 송당.)

103066 @ 예.(예.)

103066 #1 그런 더레만 그런 건 주로 했어.(그런 쪽으로만 그런 건 주로 했어.)

107009 @ 어무니 감저밥은마씨?(어머니 고구마밥은요?)

107009 #2 계메 감저밥 아까 감저를 수제비만씩, 요만씩 벌러 가지고 감저를 헤영케 씻영 벌러 가지고, 또 벌룬 후에도 혼 번 씻영 요만씩 헌 거 헤영 솟디 놉근에 팔팔 끓이면 그 다음은 좁쌀을 노면 감저밥 되는 거.(그러게 고구마밥 아까 고구마를 수제비만큼씩, 요만큼씩 쪄개 가지고 고구마를 하얗게 씻어서 쪄개 가지고, 또 쪄개 후에도 한 번 씻어서 요만큼씩 한 거 해서 솥에 넣고 팔팔 끓이면 그 다음은 좁쌀을 넣으면 고구마밥 되는 거.)

107009 #1 것도 늘려 먹을라고.(것도 늘여서 먹으려고.)

107009 @ 아, 아.(아, 아.)

107009 #1 먹을 게 없으니까.(먹을 게 없으니까.)

107009 @ 감저에 좁쌀 놉근에.(고구마에 좁쌀 넣어서.)

107009 #2 잘사는 사람은 그거 벨미로나 혼 번씩 허지, 안 헤영 쓸로만 행 먹곡.(잘사는 사람은 그거 벨미로나 한 번씩 하지, 안 하고 쌀로만 해서 먹고.)

107009 @으.(으.)

107009 #2 못사는 사람은 감저에 좁쌀 쪄그만 놉근에 밥 퍼 낱 보면은 사발에 거자 감자라. 사람 사는 것에 따라.(못사는 사람은 고구마에 좁쌀 조금만 넣어서 밥 떠 보면 사발에 거의 고구마야. 사람 사는 것에 따라.)

107010 @ 무밥, 무밥?(무밥, 무밥?)

107010 #2 무밥은 아무나 안 허는디, 무는 밥을 헤 보니까, 건 우리도 밥을 헤 봐신디. 것도 무우채가, 무는 채 썰어야 밥을 헤이.(무밥은 아무나 안 하는데, 무는

170) '드리'는 교래리의 옛 이름이다.

밥을 해 보니까, 건 우리도 밥을 해 봤는데. 것도 무채가, 무는 채 썰어야 밥을 해.)

107010 @ 채 썰어 가지고?(채 썰어 가지고.)

107010 #2 으. 무우채가 절반 익어서 이제, 조밥에 잘 안 돼더라고. 보리쌀에.
(으. 무채가 절반 익어서 이제, 조밥에 잘 안 돼더라고. 보리쌀에.)

107010 @ 으.(으.)

107010 #2 보리쌀에 거 맞춰서 낱 허민 무밥은 허민 암만 물을 맞게 해도 물이
있어이.(보리쌀에 거 맞춰서 넣어서 하면 무밥은 하면 암만 물을 맞게 해도 물이 있
어.)

107010 @ 물이 많아, 무에 물.(물이 많아, 무에 물.)

107010 #2 으. 밥에 물기가 있어이. 맛은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면 어떻게 할지 배고프니까 먹어도 봤는데 맛은 있는데
배고프니까 먹어도 봤는데 맛은 있는데 물기가 있더라고.(으. 밥에 물기가 있어. 맛
은 배고프니까, 이제 먹으면 어떻게 할지 배고프니까 먹어도 봤는데 맛은 있는데
물기가 있더라고.)

107010 @ 음.(음.)

107010 #1 겐디 이쪽으로는 옛날엔 무가 잘 안 됐거든.(그런데 이쪽으로는 옛날
엔 무가 잘 되었거든.)

107010 @ 아.(아.)

107010 #1 이 지금은 허는데 여기서 무우 할라면 저 수망리나.(이 지금은 하
는데 여기서 무 하려면 저 수망리나.)

107010 @ 으.(으.)

107010 #1 저 신례리¹⁷¹⁾ 가서 사 와서 그러니까 무우가 힘들었주.(저 신례리 가
서 사 와서 그러니까 무가 힘들었지.)

107010 #2 아주 못 살 때는 우리는 안 해 봐도 우리보단 조금 전이는 톨, 톨밥
은 해냈다고 해.(아주 못 살 때는 우리는 안 해 봐도 우리보단 조금 전이는 톨, 톨
밥은 했었다고 해.)

107011 @ 톨밥, 톨밥. 톨밥 얘기해 줘서.(톨밥, 톨밥. 톨밥 얘기해 주세요.)

107011 #2 으.(으.)

107011 @ 톨밥?(톨밥?)

107011 #2 으, 톨. 거 톨이라, 톨. 톨이난 톨은 아주 밥허젠 허민 깨끗이 헤사.
그걸 비어다가 파란게 돼민 파란 게 곱지. 게민 물에 한참 담으면 찢던 게 다 우려
냥 그건 기자 먹을 때도 다 우려나야 먹는다 우려나면 솟디 놔서 쓸에는 안 돼여.
조끔 흐쓸 것도 인척 낱 좀 익여야.(으, 톨. 거 톨이야, 톨. 톨이니까 톨은 아주 밥
하려고 하면 깨끗이 해야. 그걸 베어다가 파랑게 되면 파란 게 곱지. 그럼 물에 한
참 담으면 찢던 게 다 우려나야 그건 그냥 먹을 때도 다 우려나야 먹는데 우려나면
술에 넣어서 쓸에는 안 돼. 조금 조금 것도 일찍 놔서 좀 익여야.)

107011 @ 으.(으.)

171) '신례리'는 서귀포시 남원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107011 #2 툄도이 바당에 뜰라서 요 바당, 저 바당. 막 부드럽는 바당이 있고 아이고 썰영 못 먹는 바당이 이서. 우리도 요 앞이 건 막 썰고 이디 안여¹⁷²⁾라 허는 디 건 입에 놓민 수왕 수왕 수왕¹⁷³⁾ 그렇게 허고. 툄에 딸라서 것도 밥도 맞추앙 경 허는 거.(툄도 바다에 따라서 요 바다, 저 바다. 아주 부드러운 바다가 있고 아이고 세서 못 먹는 바다가 있어. 우리도 요 앞에 건 아주 세고 여기 ‘안여’라고 하는 데 건 입에 넣으면 ‘수왕 수왕 수왕’ 그렇게 하고. 툄에 따라서 것도 밥도 맞추서 그렇게 하는 거.)

107011 @ 게민 툄 먼저 익히당.(그럼 툄 먼저 익히다가.)

107011 #2 으.(으.)

107011 @ 쟁 무슨 썰 낱 험니까?(그래서 무슨 썰 넣고 합니까?)

107011 #2 으?(으?)

107011 @ 무슨 썰 놔?(무슨 썰 놔?)

107011 #2 줍쌀.(줍쌀.)

107011 @ 아, 줍쌀.(아, 줍쌀.)

107011 #2 보리쌀도 놓고. 툄 철이 지금 보리 철광 툄 철이 맞아.(보리쌀도 넣고. 툄 철이 지금 보리 철과 툄 철이 맞아.)

107011 @ 아.(아.)

107011 #2 툄도 이제 비는 거.(툄도 이제 베는 거.)

107011 @ 예.(예.)

107011 #2 보리는 이제 쪼끔 시민 장만허는 거.(보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만하는 거.)

107011 @ 예, 예.(예, 예.)

107011 #2 겨난 그 시기가 그러난 보리썰에도 허고 줍썰에도 허고 경. 나가 어른덜 행 먹어난 말만 들엇주, 나 손으론 툄밥은 안 해 봐서.(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러니까 보리썰에도 하고 줍썰에도 하고 그렇게. 내가 어른들 해서 먹엇던 말만 들엇지, 내 손으로 툄밥은 안 해 봤어.)

107012 @ 그럼 이 동네 패밥도 해낫수과, 패밥?(그럼 이 동네 패밥도 했었습니까, 패 밥?)

107012 #1 패?(패?)

107012 @ 밥에 패 논 거?(밥에 패 넣은 거?)

107012 #2 아니.(아니.)

107012 @ 아니.(아니.)

107012 #2 패는 우리도 하영 해 봤는데 메여다가 믰물궤루에 국 끌려 먹는 것이 그렇게 맛 좋아.(패는 우리도 많이 해 봤는데 매다가 메밀가루에 국 끓여 먹는 것이 그렇게 맛 좋아.)

172) ‘안여’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앞쪽 바다를 말한다. ‘여’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를 말한다.

173) ‘수왕 수왕 수왕’은 오이나 무 따위가 싱싱하여 잘 잘리거나 잘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107012 @ 아.(아.)

107012 #2 저 올케 패는 저.(저 도리어 패는 저.)

107012 #1 여기에서 패밥이엔 현 거 엇어.(여기에서 패밥이라고 하는 거 없어.)

107012 @ 엇어예?(없어요?)

107012 #2 으.(으.)

107012 @ 어무니 이제 국 종류 좀 말씀해 줘서. 국 종류에 뭐, 뭐 잇수과?(어머니 이제 국 종류 좀 말씀해 주세요. 국 종류에 뭐, 뭐 있습니까?)

107013 #2 국 무시거라게, 웬장국이주게.(국 무엇이야, 된장국이지.)

107013 @ 웬장국.(된장국.)

107013 #2 고기국, 소고기국.(고깃국, 소고기국.)

107013 @ 소고기국.(소고기국.)

107013 #2 돼지고기국.(돼지고기국.)

107013 @ 돼지고기국.(돼지고기국.)

107013 #2 바다고기국.(바닷고기국.)

107013 @ 또.(또.)

107013 #2 겨허고.(그리고.)

107013 @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3 #2 어.(어.)

107013 #1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3 @ 그리고.(그리고.)

107013 #2 호박국도 잇고게.(호박국도 있고.)

107013 @ 호박국도 잇고.(호박국도 있고.)

107013 #2 무수국.(뭇국)

107013 @ 음, 무수국.(뭇국)

107013 #2 으.(으.)

107013 @ 한게.(땡네.)

107013 #2 배추국.(배춧국.)

107013 @ 배추국.(배춧국.)

107013 #1 그거주게 무신.(그거지 무슨.)

107014 @ 그럼 어, 누물국은 어떻 끓이는지?(그럼 어, 나물국은 어떻게 끓이는지?)

107014 #2 누물국은게 웬장에 허젠 허민 웬장 풀어 놔근에 팔팔 끓리민 누물 씻엇던 거 낵 익으면 웬장국.(나물국은 된장에 하려고 하면 된장 풀어 넣고 팔팔 끓으면 나물 씻엇던 거 낵 익으면 된장국.)

107014 @ 물 끓이당 웬장 풀어 놓는 거?(물 끓이다가 된장 풀어 놓는 거?)

107014 #2 아니, 웬장 풀어 낵.(아니, 된장 풀어 넣고.)

107014 @ 음.(음.)

107014 #2 물 팔팔 끓이민 누물 낱 익으면 것이 누물국.(물 팔팔 끓으면 나물 넣고 익으면 것이 나물국.)

107014 @ 누물국예?(나물국요?)

107014 #2 으.(으.)

107015 @ 게민 콩누물국 끓여 주십서.(그럼 콩나물국 끓여 주세요.)

107015 #2 콩누물은 웬장만 맞추면 물 언 때 놔도 좋곡 끓여 놔도 좋곡.(콩나물은 된장만 맞추면 물 차가울 때 넣어도 좋고 끓여서 놔도 좋고.)

107015 @ 음. 아, 웬장만 맞추민?(음. 아, 된장만 맞추면?)

107016 #2 어. 무우도 그렇게. 무우도 웬장만 근만 돼면 풀어 놔도, 저 꿩도 놔도 좋고 언 물에 놔도 좋고.(어. 무도 그렇게 무도 된장만 간만 되면 풀어 넣어도, 저 끓여서 넣어도 좋고 차가운 물에 넣어도 좋고.)

107016 @ 게민 무우 논 거는 무우국이렌 험니까?(그럼 무 넣은 거는 못국이라고 합니까?)

107016 #2 누물국. 늪뻘국.(나물국. 못국.)

107016 @ 늪뻘국.(못국.)

107016 #2 늪뻘국. 이디 원 보통 이제사 무우여 무시거여. 늪뻘주게.(못국. 이디 원 보통 이제야 ‘무우’여 무엇이여. ‘늪뻘’지.)

107016 @ 예, 늪뻘국예. 콩국은마씨?(예, 못국요. 콩국은요?)

107016 #2 으?(으?)

107017 @ 콩국?(콩국?)

107017 #2 콩국은 콩국 험라면 저 콩가루를 막 물에 카서 물을 이젠 낱 꿩여 가민 그 콩가루 칸 걸 낱 근 허진 말앙 막 이제 오래 익을 만이 짓엉.(콩국은 콩국 하려면 저 콩가루를 막 물에 타서 물을 이젠 넣고 끓여 가면 그 콩가루 탄 걸 넣고 간 하지 말고 아주 오래 익을 만큼 저어서.)

107017 @ 음.(음.)

107017 #2 거자 콩가루가 익은가 싶으면 근을 허는 거라. 소금을 허면 듬발듬발¹⁷⁴ 그놈의 것이.(거의 콩가루가 익었는가 싶으면 간을 하는 거야. 소금을 하면 ‘듬발듬발’ 그놈의 것이.)

107017 #1 두부.(두부.)

107017 #2 헛당 두부 거치 듬발듬발. 그 근을 허면 콩가루가 모여져.(헛다가 두부 같이 ‘듬발듬발’. 그 간을 하면 콩가루가 모여.)

107017 @ 음.(음.)

107017 #2 모여지민 슬째기 그자 무우를 놓던 배추를 놓던 그자 놓앙 그거 익으면 콩국.(모이면 살짝 그저 무를 놓든 배추를 놓든 그저 넣어서 그거 익으면 콩국.)

174) ‘듬발듬발’은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17 @ 근을 한다 헌 게 아까 무슨 말이과?(간을 한다 하는 게 아까 무슨 말
입니까?)

107017 #2 어?(어?)

107017 #2 근을 허다?(간을 하다?)

107017 #1 간 맞춘다.(간 맞춘다.)

107017 @ 아, 간을, 간을 맞추다.(아, 간을, 간을 맞추다.)

107017 #2 으.(으.)

107018 @ 호박입국?(호박입국?)

107018 #2 호박입국도 저 물 케면 호박입 씻어근에 썰영 낱 호박입이 익은가
싶으면 호박입국은 ㄱ루를 캥 넣어야지.(호박입국도 저 물 끓으면 호박입 씻어서 썰
어 넣고 호박입이 익었는가 싶으면, 호박입국은 가루를 타서 넣어야지.)

107018 @ 호박입국은 간을 뭐로 험니까?(호박입국은 간을 뭐로 합니까?)

107018 #2 장으로, 우린 장으로.(간장으로, 우린 간장으로.)

107018 @ 아, 장으로?(아, 장으로?)

107018 #2 으.(으.)

107018 @ 아까 콩국은 소금으로?(아까 콩국은 소금으로?)

107018 #2 으. 콩국은 소금으로.(으. 콩국은 소금으로.)

107019 @ 소금으로 간 하고예. 어, 저기 몹국¹⁷⁵⁾마씨, 몹국. 몹국이과 툄망국이
과?(소금으로 간 하고요. 어, 저기 모자반국요, 모자반국. ‘몹국’입니까, ‘툄망국’입니
까?)

107019 #2 툄망국.(‘툄망국’.)

107019 @ 툄망국.(‘툄망국’.)

107019 #2 툄망국은 기자 물을 찬 때고 케영이고 낱 툄망만 익어사.(모자반국은
그저 물을 차가운 때고 끓어서고 넣어서 모자반만 익어야.)

107019 @ 으.(으.)

107019 #2 것도이 툄망이 좋은 툄망은 빨리 익고.(것도 모자반이 좋은 모자반은
빨리 익고.)

107019 @ 으.(으.)

107019 #2 경 아니헌 툄망은 툄망만 익으면 그 고기 국물에 낯던, 툄망국은 부
루 여깃사름은. 고기 삶아난 물 아니민 아니 웬다.(그렇지 않은 모자반은 모자반만
익으면 그 고기 국물에 넣었던, 모자반국은 많이 여기 사름은. 고기 삶았던 물 아니
면 아니 된다.)

107019 #1 주로 잔치 때나.(주로 잔치 때나.)

107019 @ 아.(아.)

107019 #1 영장 때나 대소상 때.(영장 때나 대소상 때.)

175) ‘몹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툄망국’, ‘툄망국’이라고
도 한다.

107019 @ 으.(으.)

107019 #1 소, 돼지 잡아 가지고는 고기를 많이 삶는다 이거지. 그것에.(소, 돼지 잡아 가지고는 고기를 많이 삶는다 이거지. 그것에.)

107019 @ 으.(으.)

107019 #2 그 물에나베긴. 그것에 헤영, 저 하영 그것에 안 허영 살짝 믹물꺾루.(그 물에나밖에. 그것에 해서, 저 많이 그것에 안 해서 살짝 메밀가루.)

107019 @ 으.(으.)

107019 #2 아저 덩기민 폴폴허¹⁷⁶주게. 경헌 건 뭇망국.(가져 다니면 ‘폴폴’하지. 그런 건 모자반국.)

107019 @ 뭇망국예. 기민 생선국은 어떻 끓입니까, 생선국?(모자반국요. 그럼 생선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생선국?)

107020 #2 생선국은 저 물 언 때 놔 불민 카진텐 물 국 끓일 만이 양을 놔근에 물 팔팔 끓이민 생선 논 다음에 들썩 들썩¹⁷⁷허지 말양 불 느리와근에 생선이 거자 익지 않을 때라도 근을 허는 거라.(생선국은 저 물 차가울 때 넣으면 (생선이) 으스러진다고 물 국 끓일 만큼 양을 넣고 물 팔팔 끓으면 생선 넣은 다음에 ‘들썩 들썩’하지 말고 불 내려서 생선이 거의 익지 않을 때에도 간을 하는 거야.)

107020 @ 뭇로 근은?(뭇로 간은?)

107020 #2 우린 장으로 한다만은 요즘은 장 반, 소금 반 허고. 옛날에는 장으로만 행 소금 경 먹을 걸로 알지 안 헤라.(우린 간장으로 한다만 요즘은 간장 반, 소금 반 하고. 옛날에는 간장으로만 해서 소금 그렇게 먹을 걸로 알지 않았어.)

107020 @ 아.(아.)

107020 #2 장으로 해근에 고기가 거자 익은 성 싶으면 메역을 놓던 무우를 놓던 이제 국거리 자기 놓고픈 거 놓는 거난. 메역, 메역 좋아라허는 사름은 메역.(간장으로 해서 고기가 거의 익은 것 같으면 미역을 넣든 무를 넣든 이제 국거리 자기 넣고 싶은 거 놓는 거니까. 미역, 미역 좋아하는 사름은 미역.)

107020 @ 으.(으.)

107020 #2 늣뻘 좋아라허는 사름은 늣뻘 경 헨 낵 허주.(무 좋아하는 사름은 무 그렇게 해서 넣어서 하지.)

107020 @ 음.(음.)

107020 #1 이거 바싹 달라 불어신게.(이거 바싹 말라 버렸네.)

107021 @ 메역국?(미역국?)

107021 #2 메역국은 저 물 퀘나 안 퀘나 그자 놓아근에 장 근 맞추고 헤 놓민 메역국이고.(미역국은 저 물 끓으나 안 끓으나 그저 넣어서 간장 간 맞추고 헤 놓으면 미역국이고.)

107022 @ 음. 저기 냉국?(음. 저기 냉국?)

176) ‘폴폴하다’는 국이나 죽 따위가 되어서 차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177) ‘들썩 들썩’은 덮개 따위가 가볍게 위 아래로 되풀이해서 흔들리며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22 #2 냉국은 누물 삶은 거던 메역이던 그자 혜영 장만 놓아근에 그자 삶지 안혜영 근만 맞추면 되는 거난.(냉국은 나물 삶은 거든 미역이든 그저 해서 된장만 넣어서 그저 삶지 않고 간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107022 @ 하하.(하하.)

107022 #1 그주께 그자 휘 비스름헌 거난께.(그렇지 그저 회 비스름한 거니까.)

107022 @ 냉국에 뭐 뭐 썰어 놔마씨?(냉국에 뭐 뭐 썰어 넣어요?)

107022 #1 아이구, 여기 사람은이 옛날 말로 기자 새우리.(아이고, 여기 사람은 옛날 말로 그저 부추.)

107022 @ 으.(으.)

107022 #2 새우리 웬장에 놔근에.(부추 된장에 넣어서.)

107022 @ 새우리 웬장에 낱.(부추 된장에 넣어서.)

107022 #2 새우리 웬장에 놔근에게 웬장 풀어 놔근에게 저 메역이라도 장에 혜영 문작문작¹⁷⁸⁾ 혜근에.(부추 된장에 넣어서 된장 풀어 넣어서 저 미역이라도 된장에 해서 ‘문작문작’ 해서.)

107022 @ 으.(으.)

107022 #2 물 놔근에 영 짜민 물 더 넣고 혜영 싱겨우민 장 더 놔근에 그자 그거 근 맞추면 냉국이주께.(물 넣고 이렇게 짜면 물 더 넣고 해서 싱겨우면 된장 더 넣어서 그저 그거 간 맞추면 냉국이지.)

107023 @ 음. 저기 성계국은 어떻 험니까?(음. 저기 성계국은 어떻게 합니까?)

107023 #2 성계국은 저, 요새 성계국 말도 그거 들어. 귀국¹⁷⁹⁾ 이라 귀국.(성계국은 저, 요새 성계국 말도 그거 들어. ‘귀국’이야 ‘귀국’.

107023 @ 아, 다시 한 번 어무니. 귀국?(아, 다시 한 번 어머니. ‘귀국’?)

107023 #2 으.(으.)

107023 @ 성계 귀렌 험니까, 귀?(성계 ‘귀’라고 합니까, ‘귀’?)

107023 #2 귀, 귀.(‘귀’, ‘귀’.)

107023 @ 아, 귀국.(아, ‘귀국’.)

107023 #2 으. 그건 뭐, 건 익을 일도 엇일 거 그자 퀘민 말거난께.(으. 그건 뭐, 건 익을 일도 없을 거. 그저 끓으면 말거니까.)

107023 @ 게민 물 끓이멍?(그럼 물 끓이면서?)

107023 #2 물 끓이멍 경 파락파락¹⁸⁰⁾허지 말양 솔허게 성계 놔근에 퀘면은 메역 놔근에 근 허민 되는 거.(물 끓이면서 그렇게 ‘파락파락’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성계 넣고 끓으면 미역 넣어서 간 하면 되는 거.)

107023 @ 메역보다 성계 먼저 놔?(미역보다 성계 먼저 넣어?)

107023 #2 어?(어?)

107023 @ 성계를 먼저 놔?(성계를 먼저 넣어?)

178) ‘문작문작’은 진흙이나 반죽 따위를 주무를 때 끈적끈적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79) ‘귀국’은 ‘귀’를 넣어 끓인 국으로, ‘귀’는 ‘성계’를 말한다. ‘퀴’라고도 한다.

180) ‘파락파락’은 이리저리 심하게 휘젓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23 #2 어. 성계를 먼저 놔.(어. 성계를 먼저 넣어.)
 107023 @ 그거 낱 케민?(그거 넣고 끓으면?)
 107023 #2 성계 낱 그자 케저든에, 성계 딸리는 사람은 딸리는데 성계 너무 딸려도 국 맛있고.(성계 넣고 그저 끓거든, 성계 달이는 사람은 달이는데 성계 너무 달여도 국 맛있고.)
 107023 @ 으.(으.)
 107023 #2 그자 케민 메역 놔근에 그자 근허민 웨는 거.(그저 끓으면 미역 넣어서 그저 간하면 되는 거.)
 107023 @ 으. 보말국¹⁸¹?(으. 고등국?)
 107023 #2 보말국은 그 보말을 저 물에 놔 가지고 문작문작 해근에 그 보말 더가리는 건져이.(고등국은 그 고등을 저 물에 넣어 가지고 ‘문작문작’ 해서 그 고등대가리는 건져.)
 107023 @ 으, 건져.(으, 건져.)
 107023 #2 건져 베 뒤근에 그 더가리나 깍이나 꺾 놔근에 막 삶아 불민 더가리가 쟈다고 해 가지고.(건져 버려 두고 그 더가리나 ‘깍’이나 같이 넣고 마구 삶아 버리면 대가리가 쟈다고 해 가지고.)
 107023 @ 으.(으.)
 107023 #2 질긴다고 해 가지고.(질긴다고 해 가지고.)
 107023 #1 성계도 여기선 귀엔 해여, 귀.(성계도 여기선 ‘귀’라고 해, ‘귀’.)
 107023 #2 귀, 귀주게.(‘귀’, ‘귀’지.)
 107023 @ 몰란, 몰란.(몰랐어, 몰랐어.)
 107023 #1 여기선 귀엔 해여.(여기선 ‘귀’라고 해.)
 107023 #2 게난 그걸.(그러니까 그걸.)
 107023 #1 성계 보고 귀.(성계 보고 ‘귀’.)
 107023 #2 그 문두대긴 물을 놔근에.(그 문댄 물을 넣어서.)
 107023 #1 그 말뚱성계는 여기선 숨이라고 허고.(그 말뚱성계는 여기선 ‘숨’이라고 하고.)
 107023 @ 음.(음.)
 107023 #2 문두대긴 걸 낱 근 맞추고 막 국 웨다 싶으면 미역도 넣고 그 보말 더가리도 넣고 해근에 그자 허는 거주게.(문댄 걸 넣고 간 맞추고 아주 국이 되다 싶으면 미역도 넣고 그 고등 대가리도 넣고 해서 그저 하는 거지.)
 107023 @ 아까 패국 끓인덴 헛잖아예. 패는 국 끓여 먹는덴 헛잖아예?(아까 패국 끓인다고 했잖아요. 패는 국 끓여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107023 #2 넙패.(넙패.)
 107023 @ 넙패. 으. 넙패 국 끓여 먹는 거예?(넙패. 으. 넙패 국 끓여 먹는 거요?)

181) ‘보말국’은 고등을 넣어 끓인 국이다.

107023 #1 여기서 꽤ㄴ란 넓패렌 헤여.(여기서 꽤보고 넓패라고 해.)

107023 #2 넓패는 메엿다가 그대로도 안 돼고 바, 바다에서 쪼그만헌 돌, 돌로 복작 그놈을 두드렁 못앙 물에 씻엉 오랑, 뿔앙 씻엉 오랑.(넓패는 땀다가 그대로도 안 되고 바, 바다에서 쪼그마한 돌, 돌로 '복작' 그놈을 두드려서 무수어서 물에 씻어 와서, 무수어서 씻어 와서.)

107023 @ 아.(아.)

107023 #2 집이 오라근에 오늘 헤 오라시민 이 제낙 솟디 놔서 오래 안 숲아도 보글보글 물 하영 안 낱.(집에 와서 오늘 헤 오면 이 저녁 솔에 놔서 오래 안 삶아도 보글보글 물 많이 안 낱고.)

107023 @ 으.(으.)

107023 #2 저 그거 그자 조금 무시거 헐 만이 국으로 안 허는 거니까.(저 그거 그자 조금 무엇 할 만큼 국으로 안 하는 거니까.)

107023 @ 으.(으.)

107023 #1 저기 전기 안 뽑아?(저기 전기 안 꽃아?)

107023 @ 이거 뽑안마씨.(이거 꽃았어요.)

107023 #1 저, 저기 전기 뽑아야주.(저, 저기 전기 꽃아야지.)

107023 @ 아, 이거 뽑아졌수다.(아, 이거 꽃았습니다.)

107023 #1 아니.(아니.)

107023 @ 안 뽑아진 거?(안 꽃힌 거?)

107023 #1 전기가 안 오는디.(전기가 안 오는데.)

107023 @ 아.(아.)

107023 #2 게민 말 곶아도 헛인게.(그럼 말해도 헛(일)이네.)

107023 @ 아니, 아니. 켜전, 켜전. 조금밖에 안 남으난 뽑은 거.(아니, 아니. 켜졌어, 켜졌어.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꽃은 거.)

107023 #1 여, 나가 헤 주주.(여, 내가 해 주지.)

107023 @ 아, 이거 안 뽑아진 거였구나.(아, 이거 안 꽃힌 거였구나.)

107023 #2 게민 말 곶아도 헛이 아냐?(그럼 말해도 헛(일)이 아니냐?)

107023 @ 아니, 아니. 녹음 뒤편마씨. 헛이 아니우다. 하하하.(아니, 아니. 녹음 되고 있어요. 헛(일)이 아닙니다.)

107023 #1 아니 우린 고씨라. 허씨 아니고.(아니 우린 고씨야. 허씨 아니고.)

107023 @ 하하하.(하하하.)

107023 #2 겐 그놈을 열추 하영 허지 말앙 흥졸 숲당 두께 폭 단아근에 이 제낙 밤새 내 불어.(그래서 그놈을 열추 많이 하지 말고 조금 삶다가 뚜껑 폭 단아서 이 저녁 밤새 내 버려.)

107023 @ 음.(음.)

107023 #1 넬 아칙인 일어낭 보민 문닥허게 익엇주게. 익어시민.(내일 아침엔 일어나서 보면 문적하게 익엇지. 익엇으면.)

107023 @ 아.(아.)

107023 #2 그거 농곡 장 농곡 물 농곡 해영 근만 뒤면.(그거 넣고 장 넣고 물 넣고 해서 간만 되면.)

107023 @ 아.(아.)

107023 #2 믱물꺾루 흐쫂 카 농면 어찌 맛이 좋은디 고기국이영 안 바꾸게 맛이 좋아.(메밀가루 조금 타 넣으면 어찌 맛이 좋은지 고깃국과 안 바꾸게 맛이 좋아.)

107023 @ 아하. 넓패국이 맛이.(아하. 넓패국이 맛이.)

107023 #2 넓패국 좋아라 안 허는 사람이 었어. 넓패국.(넓패국 좋아 안 하는 사람이 었어. 넓패국.)

107023 #1 겐디 그쪽으로 먹는디 여기 안 먹는 게 있어. 가시리엔 현 게 있는디.(그런데 그쪽으로 먹는데 여기 안 먹는 게 있어. 풀가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7023 @ 그 다음 물어볼 게 그거여신디. 하하.(그 다음 물어볼 게 그거였는데. 하하.)

107023 #1 가시린 여기선 안 먹어.(풀가사린 여기선 안 먹어.)

107023 #2 안 먹어.(안 먹어.)

107023 #1 여기선 풀만.(여기선 풀만.)

107023 @ 아.(아.)

107023 #1 방 브르는 데나 문 브르는 데 풀만 허지. 여기선 거 먹지 안 해.(방 바르는 데나 문 바르는 데 풀만 하지. 여기선 거 먹지 않아.)

107023 #2 그 가시리는 멩주 맬 때, 미녕 맬 때, 방 톨를 때.(그 풀가사리는 멩주 맬 때, 무멍 맬 때, 방 바를 때.)

107023 @ 으.(으.)

107023 #2 가시리 풀. 여기선 가시리 풀베긴 안 헤여.(풀가사리 풀. 여기선 풀가사리 풀밖엔 안 해.)

107023 @ 그민 아까 넓패가 막 쟂 것파?(그럼 아까 넓패는 아주 쟂 것입니까?)

107023 #1 빠닥빠닥.(빠닥빠닥.)

107023 @ 빠닥빠닥헌 거난 돌로 못이고 한 거?(빠닥빠닥한 거니까 돌로 무수고 한 거?)

107023 #1 으. 빠닥빠닥.(으. 빠닥빠닥.)

107023 @ 숲고 하는 거?(삶고 하는 거?)

107023 #2 으. 경 세지도 안 헤도 그 윈 어른덜이 그거 허는 방법이 그거란게.(으. 그렇게 세지도 앓고 그 윈 어른들이 그거 하는 방법이 그거였어.)

107023 @ 음. 가시리국은 안 먹고예.(음. 가사리국은 안 먹고요.)

107023 #1 여기선 가시린 먹을 걸로 안 허여.(여기선 풀가사린 먹을 거로 안 해.)

107023 @ 아. 프레국도 끓여 먹습니까? 프레.(아. 파래국도 끓여 먹습니까? 파

래.)

107023 #1 프레?(파래?)

107023 @ 으.(으.)

107023 #1 여긴 프레 없어.(여긴 파래 없어.)

107023 #2 프레가 엇어.(파래가 없어.)

107023 @ 아, 프레 엇어예. 이제 물훼 어떻 만듭니까?(아, 파래 없어요. 이제 물
훼 어떻게 만듭니까?)

107023 #2 으?(으?)

107023 @ 물훼. 훼, 훼.(물회. 회, 회.)

107023 #2 물훼?(물회?)

107023 @ 자리 물훼 험니까?(자리돔 물회 합니까?)

107023 #1 어, 여기 자리 물훼나 어랭이 물훼나.(어, 여기 자리돔 물회나 황놀래
기 물회나.)

107023 @ 어랭이 물훼나. 물훼는 어떻 험니까?(황놀래기 물회나. 물회는 어떻게
합니까?)

107023 #2 물훼 어떻 헤게. 그거 훼 혈 정도로 알팍허게 가시 엇게 잘 썰어 놓
면.(물회 어떻게 해. 그거 회 할 정도로 알팍하게 가시 없게 잘 썰어 놓으면.)

107023 @ 으.(으.)

107023 #1 자리 헤다가.(자리돔 헤다가.)

107023 #2 양념.(양념.)

107023 #1 비닐 거시리고.(비닐 벗기고.)

107023 @ 으.(으.)

107023 #1 양쪽 가시 전부 떼 뒤근에.(양쪽 가시 전부 떼어 두고.)

107023 @ 으.(으.)

107023 #1 즈질게 썰어. 거 썰어 놓고 이제 오이나 뭐 놓고 싶으면 놓고 보통
여기는 잘 안 놓는데.(가늘게 썰어. 거 썰어 놓고 이제 오이나 뭐 넣고 싶으면 넣고
보통 여기는 잘 안 넣는데.)

107023 @ 으.(으.)

107023 #1 새우리.(부추.)

107023 @ 새우리.(부추.)

107023 #1 으. 허고 재피¹⁸²⁾.(으. 그리고 ‘재피’.)

107023 @ 재피.(‘재피’)

107023 #1 허고 웬장.(하고 된장.)

107023 #2 자리 웬 원 그거주게.(자리돔 회는 원 그거지.)

107023 #1 식초.(식초.)

107023 @ 음.(음.)

182) ‘재피’는 초피나무나 그 잎을 가리킨다.

107023 #1 식초.(식초.)

107023 #2 경헌 막 먹을려면 침지름덜 놓면서 먹엄주게.(그렇게 막 먹으려면 참 기름들 넣으면서 먹고 있지.)

107023 @ 음, 물취예.(음, 물회요.)

죽류

107024 @ 어머니 이제는 죽 종류우다예, 죽 종류예. 죽 종류에는?(어머니 이제는 죽 종류예요, 죽 종류요. 죽 종류에는?)

107024 #2 아이고, 죽은 못 쭈는 것이 엇이 죽 하도 하 부난 죽은 무시거, 무시 거렌 곶을 거니. 죽 못 쭈는 게 시냐?(아이고, 죽은 못 쭈는 것이 없이 죽 너무 많아 버리니까 죽은 무엇, 무엇이라고 말할 거니. 죽 못 쭈는 게 있니?)

107024 @ 다 죽 끓영 먹어. 그민 그민 처음서부터 물어보쿠다예. 흰죽은 어떻 끓영수과?(다 죽 끓여서 먹어. 그러면 그러면 처음서부터 물겠습시다. 흰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5 #2 흰죽은 간 안 헌 것이 흰죽이주게.(흰죽은 간 안 한 것이 흰죽이지.)

107025 @ 쌀은?(쌀은?)

107025 #1 곤쌀게.(흰쌀.)

107025 @ 곤쌀로 해 가지고예.(흰쌀로 해 가지고요.)

107025 #1 아이, 좁쌀도 죽은 쭈고 곤쌀로도 쭈는데. 흰죽이라는 거는 기자 물에 곤쌀만 낱 풀여정 알맞다 허민 기자. 곤 안 허는 거난.(아이, 좁쌀도 죽은 쭈고 흰쌀로도 쭈는데. 흰죽이라는 거는 그저 물에 흰쌀만 넣고 풀여져서 알맞다 하면 그냥. 간 안 하는 거니까.)

107025 @ 곤 안 허는 거난예?(간 안 하는 거니까요?)

107025 #2 으.(으.)

107026 @ 조죽?(조죽?)

107026 # 좁쌀로.(좁쌀로.)

107026 #2 조죽은, 흰죽 허민 아픈 사름이나 먹주. 좁쌀은 죽을 쭈라면 옛날에 국죽이라고 침 거릴 놔근에 곤을 해야 돼. 좁쌀은.(조죽은, 흰죽 하면 아픈 사름이나 먹지. 좁쌀은 죽을 쭈려면 옛날에 ‘국죽’이라고 침 거릴 놔서 간을 해야 돼. 좁쌀은.)

107026 @ 으.(으.)

107026 #2 아픈 사름은 그대로 미음 비슴치기 조 미음이라고 그대로 먹는데.(아픈 사름은 그대로 미음 비슷하게 조 미음이라고 그대로 먹는데.)

107026 @ 어머니 조죽, 조죽?(어머니 조죽, 조죽?)

107026 #2 조죽.(조죽.)

107026 @ 게민 물 막 꿩는디 좁쌀 조금만 헤영 막 끓여?(그럼 물 마구 끓는데 좁쌀 조그만 해서 마구 끓여?)

107026 #2 원 꿩영 놔도 좋고. 밥은 꿩영 놓는다 죽은 꿩영 놔도 좋곡 기자 놔도 좋고 죽만 돼민 말 거난.(원 꿩어서 넣어도 좋고. 밥은 꿩어서 넣는데 죽은 꿩어서 놔도 좋고 그냥 놔도 좋고 죽만 되면 말 거니까.)

107026 @ 음.(음.)

107026 #2 경헌디 그건.(그런데 그건.)

107026 #1 여기서는 녹물을 놔.(여기서는 나물을 넣어.)

107026 #2 녹물을 낱 국죽으로 해야주 조죽은. 흰죽은 미음 돼 붙어. 아픈 사람이.(나물을 넣어서 '국죽'으로 해야지 조죽은. 흰죽은 미음 되 버려. 아픈 사람이.)

107026 # 좁쌀죽은 여기선 국죽.(좁쌀죽은 여기선 '국죽'.)

107026 @ 국죽이렌도 곱아?('국죽'이라고도 말해?)

107026 #1 그 저 녹물 노난에 국죽.(그 저 나물 넣으니까 '국죽')

107026 @ 아, 녹물 노난에.(아, 나물 넣으니까.)

107026 #2 녹물을 국에 놓는 거니까 거기 노난 국죽.(나물을 국에 넣는 거니까 거기 넣으니까 '국죽')

107026 @ 아, 국죽이렌 해. 조 좀 끓이다.(아, '국죽'이라고 해. 조 좀 끓이다가.)

107026 #2 어.(어.)

107026 @ 좁쌀 낱 좀 끓이다.(좁쌀 넣고 좀 끓이다가.)

107026 #1 으.(으.)

107026 @ 꿩여 가민.(끓여 가면.)

107026 #1 옛날 늘평 먹어난 거주.(옛날 늘려서 먹었던 거지.)

107026 @ 아, 늘평 먹을려고예?(아, 늘려서 먹으려고요?)

107026 #2 으. 밥허는 것보단 이 죽 쑤는 것이 좁쌀이 적게 들거든.(으. 밥하는 것보단 이 죽 쑤는 것이 좁쌀이 적게 들거든.)

107026 @ 게니까예. 거기에 녹물 놔근에예?(그러니까요. 거기에 나물 넣어서요?)

107026 #1 게 녹물 집어 낱게.(그래 나물 집어 넣어서.)

107027 @ 예. 이제는 팻죽.(예. 이제는 팔죽.)

107027 #2 팻죽은 팻을 삶아서 이제 그 두 가지라. 껍데기를 싹 해서 이제 물만 해서 쑤는 사람 있고. 껍데기가 하나씩 그 동팻이 하나씩 아니 카진 것이 잇어서 단텐 허는 사람이 잇는다 그거 물만 허는 사람은 막 문두대기당 물만 해영 그놈을 물에 놔근에 끓이다근에 흐쌀 꿩민 쌀을 씻어 놔근에 이젠 죽만 돼민 말 거. 근만 맞추앙 양만 돼지도 알롭지도 안허게 그거 맞춤이 어렵주. 그거 맞춤이.(팔죽은 팔을 삶아서 이제 그 두 가지야. 껍데기를 싹 해서 이제 물만 해서 쑤는 사람이 있고. 껍데기가 하나씩 그 통팔이 하나씩 아니 으깨진 것이 있어야 달다고 하는 사람이 잇는데 그거 물만 하는 사람은 막 문대다가 물만 해서 그놈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조금 끓으면 쌀을 씻어서 넣고 이젠 죽만 되면 말 거. 간만 맞추어서 양만 되지도 앓지도 않게 그거 맞춤이 어렵지. 그거 맞춤이.)

107027 @ 음.(음.)

107027 #2 계란 어떤 사름덜은 저 돼카, 돼민 찬물 농민 자르륵 헌데 허멍 죽 쭈멍 옆이 물을 끓여. 끓이다근에 뽕 직허민 그 끓여 논 물 거러 노멍 죽은 그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될까, 되면 찬물 넣으면 자르륵 한다고 하면서 죽 쭈면서 옆에 물을 끓여. 끓이다가 됴 직하면 그 끓여 놓은 물을 떠 넣으면서 죽은 그거.)

107028 @ 콩죽?(콩죽?)

107028 #2 콩죽은 콩가루 강 곶아당 마른 차 곶아다근에 그놈을 그거 물에 조금. 경 안 허영 쌀에 콩가루 서끄는 사름도 있고이.(콩죽은 콩가루를 가서 곶아다가 마른 차 곶아다가 그놈을 그거 물에 조금. 그렇게 안 하고 쌀에 콩가루를 섞는 사름도 있고.)

107028 @ 음.(음.)

107028 #1 그렇지 안허민 물에 줌 카서 쓸허고 기자 그 콩가루허고 뇌근에 그자 놀카 부텐 것음만 험시민 영 먹어 보민 콩죽 맛이 나주게 익으면.(그렇지 않으면 물에 줌 타서 쌀하고 그저 그 콩가루하고 뇌서 그저 놀까 봐 짓기만 하면 이렇게 먹어 보면 콩죽 맛이 나지 익으면.)

107028 @ 아.(아.)

107028 #2 경허민 근만 허는 거.(그러면 간만 하는 거.)

107028 @ 아, 경허민 콩가루 곶아당 허는 거과?(아, 그러면 콩가루 곶아다가 하는 겁니까?)

107028 #2 으.(으.)

107028 @ 풋죽처럼 콩 삶앙 허는 게 아니고?(팔죽처럼 콩 삶아서 하는 게 아니고?)

107028 #2 아니, 아니. 무울, 무우 농주 보통 콩죽엔. 콩죽엔 무우 뇌.(아니, 아니. 무를, 무 뇌지 보통 콩죽엔. 콩죽엔 무 뇌어.)

107028 @ 아, 무우 뇌. 쌀 놓기도 하고 아까?(아, 무 뇌고. 쌀 놓기도 하고 아까?)

107028 #2 어. 쌀 놓고.(어. 쌀 뇌고.)

107028 @ 쌀은 꼭 들어가는 거, 쌀은?(쌀은 꼭 들어가는 거, 쌀은?)

107028 #1 쌀을 뇌야 죽이 되는 거주. 콩가루론 그거.(쌀을 뇌야 죽이 되는 거지. 콩가루론 그거.)

107029 @ 으. 믰물죽?(으. 메밀죽?)

107029 #2 믰물죽은 두 사발 쭈고장 허민 두 사발 쌀 만이 물 뇌근에 삭삭 꿰민 믰물쌀 스투르 허게 농민 꿰민 벌써 죽 돼베서.(메밀죽은 두 사발 쭈고 싶으면 두 사발 쌀 만큼 물 뇌어서 삭삭 끓으면 메밀쌀 사르르 하게 뇌으면 끓으면 벌써 죽이 됐어.)

107029 @ 죽 돼베서. 하하. 믰물죽은 저도 하영 끌러낫수다.(죽 됐어. 하하. 메

밑 죽은 저도 많이 끓였었습니다.)

107029 #2 으. 죽 돼베서 맛물축은. 맛물축 끓이기 쉬와.(으. 죽 돼버렸어. 메밀 죽은. 메밀 죽 끓이기 쉬워.)

107030 @ 녹뒤죽?(녹두죽?)

107030 #2 녹뒤죽도 팯죽이나 마찬가지로 녹두 삶아 가지고 또 이제 문질러서 쏘에 그치 이제 쭈민 되는 거.(녹두죽도 팥죽이나 마찬가지로 녹두 삶아 가지고 또 이제 문질러서 쌀에 같이 이제 쭈면 되는 거.)

107030 @ 문질러예?(문질러서요?)

107030 #2 으.(으.)

107031 @ 득죽?(닭죽?)

107031 #2 득죽은 득 삶아난 물에 쌀 놔서 죽 끓이다가 이제 그 고기 흐썰 지져 놔근에 허민 그것이 득죽이주 무시거라.(닭죽은 닭 삶았던 물에 쌀 넣어서 죽 끓이다가 이제 그 고기 조금 찢어 넣고 하면 그것이 닭죽이지 무엇이야.)

107031 @ 쌀은 그냥 곤쌀 놓니까?(쌀은 그냥 흰쌀 넣습니까?)

107031 #2 곤쌀게.(흰쌀.)

107031 @ 곤쌀 놓고예?(흰쌀 넣고요?)

107031 #2 으.(으.)

107032 @ 쟁이죽?(계죽?)

107032 #1 쟁이는 잡아다가.(계는 잡아다가.)

107032 @ 으.(으.)

107032 #1 그 저 오줌 췌운덴 허는디 경 안 허면 늘릿내가 많이 나니까 물에다 바닷물에 흐 멧 시간 담가 뒤.(그 저 오줌 누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물에다 바닷물에 한 멧 시간 담가 뒤.)

107032 @ 아, 담가 뒤?(아, 담가 뒤?)

107032 #1 으, 그 쟁이를.(으, 그 계를.)

107032 @ 으.(으.)

107032 #1 그러면은 그 아주 노란 물을 싸 불어. 그러면은 방에에 찌여근에 쟁이를.(그러면 그 아주 노란 물을 싸 버려. 그러면 방에에 찢어서 계를.)

107032 @ 으.(으.)

107032 #1 그래서 그 물을 걸러 가지고 물만, 껍질은 내불어 땡 물만 걸러내 가지고는.(그래서 그 물을 걸러 가지고 물만, 껍질은 내버려 두고 물만 걸러내 가지고.)

107032 @ 으.(으.)

107032 #1 것에 국을 끌리던지 죽을 쭈든지 쌀을 놔서 쭈면 되는 거주.(것에 국을 끓이든지 죽을 쭈든지 쌀을 넣고 쭈면 되는 거지.)

107033 @ 음. 이거 말고, 아까 곶앗던 거 말고 자꾸 헤 먹어난 죽 잇수과? 이거 외에?(음. 이거 말고, 아까 말했던 거 말고 자꾸 헤 먹었던 죽 있습니까? 이거 외

에?)

107033 #1 엇어.(없어.)

107033 @ 뭐 꿩 죽 같은 거나. 어머니 곶은 거 말앙, 지금 곶은 거 말앙 꿩영 먹어난 죽이 다른 거 잇수과?(뭐 꿩 죽 같은 거나. 어머니가 말한 거 말고. 지금 말한 거 말고 꿩영서 먹었던 죽이 다른 거 잇습니까?)

107033 #2 생각 못 한다.(생각 못 한다.)

107033 #1 벨 죽이 없었어.(벨 죽이 없었어.)

107033 @ 음.(음.)

107033 #1 죽 쌀 쌀이 잇어사 쭈주게.(죽 쌀 쌀이 잇어야 쭈지.)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저기 범벅 종류는 뭐 잇수과?(저기 범벅 종류는 뭐 잇습니까?)

107034 #1 감저 범벅.(고구마 범벅.)

107034 @ 감저 범벅.(고구마 범벅.)

107034 #1 속 범벅.(쭈 범벅.)

107034 @ 감저 범벅, 속 범벅.(고구마 범벅, 속 범벅.)

107034 #1 그건 거주, 뭐 별 다른 거 셔?(그건 거주, 뭐 별 다른 거 잇어?)

107034 @ 감저 범벅 해 먹고 속 범벅 해 먹고예.(감저 범벅 해 먹고 속 범벅 해 먹고요?)

107034 #2 으.(으.)

107034 @ 범벅할 때는 믰물ㄱ루 놓는 거?(범벅할 때는 메밀가루 놓는 거?)

107034 #2 으, 감저 놓고.(으, 고구마 놓고.)

107034 #2 옛날에는 감저 ㄱ루 낱 헛주게. 경헌디.(옛날에는 고구마 가루 넣고 했지. 그런데.)

107034 @ 아, 감저 ㄱ루.(아, 고구마 가루.)

107034 #1 감저 ㄱ루에 현 것이. 거는 뺏대기. 그거 가루 행.(고구마 가루에 한 것이. 거는 절간고구마. 그거 가루 해서.)

107034 @ 예.(예.)

107034 #2 믰물ㄱ루도 허고.(메밀가루도 하고.)

107034 @ 떡도 해 먹고.(떡도 해 먹고.)

107034 #1 친떡도 해 먹고.(시루떡도 해 먹고.)

107034 #2 감저 흥나 먹으라.(고구마 하나 먹어라.)

107034 @ 예.(예.)

107035 @ 수제비 종류?(수제비 종류?)

107035 #1 제베기.(수제비)

107035 #2 제베기주, 수제비라?('저베기'지, 수제비야?)

107035 #1 여기선 제베기. 수제비가 아니라.(여기선 '저베기'. 수제비가 아니라.)

107035 @ 여기선 저베기예?(여기선 ‘저베기’요?)
 107035 #2 믫물저베기, 밀쳐베기.(메밀수제비, 밀수제비)
 107035 @ 아, 믫물저베기, 밀쳐베기. 아까 밀체가 밀체는 여기서 농서짓는 게 아니라 사 오는 거?(아, 메밀수제비, 밀수제비. 아까 밀기울이, 밀기울은 여기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 사 오는 거?)
 107035 #2 밀체는 여기 굶엄젠 허난에.(밀기울은 여기 굶고 있다고 하나까.)
 107035 @ 으.(으.)
 107035 #2 육지서 오주게.(육지에서 오지.)
 107035 @ 아, 저베기. 밀쳐베기.(아, 수제비. 밀수제비.)
 107035 #2 으, 믫물저베기.(으, 메밀수제비.)
 107035 #2 여기선 밀 같긴 가는데 경 하영 못 허여.(여기선 밀 같긴 가는데 그렇게 많이 못 해.)
 107035 @ 으, 으.(으, 으.)
 107035 #2 저딧 밀보단 즐고. 방울이.(저기 밀보단 잘고 방울이.)
 107035 @ 음. 저베기. 거 줍아 놓는 건 저베기예.(음. 수제비. 거 집어 넣는 건 수제비요.)
 107035 #1 아, 조범벅도, 조꺾루, 좁쌀 꺾루로도 조 범벅도 해 먹엇주.(아, 조 범벅도, 조 가루, 좁쌀 가루로도 조 범벅도 해서 먹엇지.)
 107035 #2 손으로 톨아 놓주, 손으로.(손으로 뜯어 넣지. 손으로.)
 107035 @ 손으로 톨아 놓는 건 저베기라예. 칼로 썰어 놓는 건?(손으로 뜯어 넣는 건 수제비요. 칼로 썰어 넣는 건?)
 107036 #1 칼저베기.(칼수제비.)
 107036 #2 칼저베기.(칼수제비.)
 107036 @ 아, 그거 칼국수엔 안 해?(아, 그거 칼국수라고 안 해?)
 107036 #1 아니, 여긴 칼저베기.(아니, 여긴 ‘칼저베기’.)
 107036 @ 칼저베기?(칼 수제비?)
 107036 #2 으.(으.)
 107036 @ 예. 칼저베기.(칼수제비.)

김치

107037 @ 이제는 저기 저기 죽 끓이고 밥해서난 김치 만들게마씨, 김치? 하하하.(이제는 저기 저기 죽 끓이고 밥했으니까 김치 만들어요, 김치? 하하하.)
 107037 #2 김치 무시거 안 골아냐, 어제도 안 골아냐게. 김치를 어떻게 해 그걸.(김치 뭐 안 말했니, 어제도 안 말했니. 김치를 어떻게 해 그걸.)
 107037 @ 김치 종류가 많아예?(김치 종류가 많아요?)
 107037 #1 옛날에 여기서 짐치¹⁸³⁾엔 해서, 김치 아니라.(옛날에 여기서 ‘짐치’라

183) ‘짐치’는 표준어로 ‘김치’로, ‘징끼’라고도 한다.

고 했어, 김치 아니라.)

107037 #2 짐치. 또 아주 옛날 할망은 징뀌.(‘짐치’. 또 아주 옛날 할머니는 ‘징뀌’.)

107037 @ 아, 징뀌. 맞아마씨.(아, ‘징뀌’. 맞아요.)

107037 #2 우리 시대 나난 짐치지. 할망덜 징뀌엔.(우리 시대 나니까 ‘짐치’지. 할머니들은 ‘징뀌’라고.)

107037 @ 김치, 짐치 종류 어무니 생각나는 거 뭐 잇수과?(김치, 김치 종류 어머니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107037 #2 무시게라게 메께라¹⁸⁴ 짐치엔 허민 느물로베끼 더 허는 거라?(무엇이야 김치라고 하면 나물로밖에 더 하는 거야?)

107037 @ 느물.(나물.)

107037 #1 이딘 늬삐짐치허고 배추짐치.(여긴 무김치하고 배추김치.)

107038 @ 어, 배추김치예. 그럼 물어보쿠다. 배추김치는 어떻 만들엇수과? 어제 곶아신디 한 번만 더.(어, 배추김치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배추김치는 어떻게 만들엇습니까? 어제 말했었는데 한 번만 더.)

107038 #2 거 어떻 헤게. 느물 퍼더기¹⁸⁵ 님은 거, 함덕 강 안 사오민 느물도 속 안 찬 거 헤영 저 우린 바다 브디난 바당에 가근에 물 질어당 큰큰헌 향아리에 소금 조금 헤영 돌 짝 지들랑 혼 메칠 놘두민.(거 어떻게 해. 나물 ‘퍼더기’ 같은 거, 함덕 가서 안 사오면 나물도 속 안 찬 거 해서 저 우린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다에 가서 물 길어다가 크디큰 향아리에 소금 조금 해서 돌 짝 지질러서 한 며칠 놘두면.)

107038 #1 거 꺾질 이레 놘블라.(거 꺾질 이리 놘라.)

107038 #2 죽어시민 거 건져당 대바구니에 지영 가근에 바다에 강 짬물에 씻어당 놘두민 물 빠지민 고춧가루 헨, 거 흐뎡 놓고 멜쳐 흐뎡 놓곡 마늘 흐쌀 놓고. 생강이 어디 셔? 여기 생강 엇어.(죽었으면 거 건져다가 대바구니에 저 가서 바다에 가서 짬물에 씻어다가 놘두면 물 빠지면 고춧가루 해서, 거 조금 넣고 멀치젓 조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 생강이 어디 있어? 여기 생강 없어.)

107038 @ 음.(음.)

107038 #2 장도 그추룩 엇고.(장도 그렇게 없고.)

107038 @ 어쨌든 배추 시쳐 놓고 양념 따로 헨 거 아니예?(어쨌든 배추 씻어 놓고 양념 따로 한 거 아니예요?)

107038 #1 따로 허주게.(따로 하지.)

107038 #2 따로 흐쌀 곳이나 종나 만들엇당 넣기는 채 헛주게.(따로 조금 곳이나 좋으나 만들었다가 문지르는 척 했지.)

107039 @ 넣기는 채. 하하. 열무김치는 안헛수과?(문지르는 척. 하하. 열무김치

184) ‘메께라’는 남의 말이나 행동에 놀라거나 기가 막힐 때 내는 소리다.

185) ‘퍼더기’는 주로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나는 나물로 속이 여물지 않고 넓게 퍼진 나물을 말한다. ‘퍼데기’, ‘퍼데기느물’이라고도 한다.

는 안 했습니까?

107039 #2 열무 이제사 낫주게.(열무 이제야 낫지.)

107039 @ 이제 어떻 만듭니까?(이제 어떻게 만듭니까?)

107039 #1 열무 난 지는 요 근래.(열무가 난 지는 요 근래.)

107039 @ 열무김치는 어무니 만들어놨잖아예, 어떻 만들엇수과?(열무김치는 어머니 만들엇었지요, 어떻게 만들엇습니까?)

107039 #2 늬은 어떻 만들엄신지 몰르고 난 그자 우리대로, 우리가 열무 갈앗당 허민 그자.(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고 난 그저 우리대로, 우리가 열무 갈앗다가 하면 그저.)

107039 @ 아, 집이서 갈앙 해 먹엇구나.(아, 집에서 갈아서 해 먹엇구나.)

107039 #2 우린 갈앙.(우린 갈아서.)

107039 @ 음.(음.)

107039 #2 저 집이서 간 거난.(저 집에서 간 거니까.)

107039 @ 맛있겠다.(맛있겠다.)

107039 #2 저 소금 절엿당 저 주로 젓갈 놓고 해근에.(저 소금 절엿다가 저 주로 젓갈 넣고 해서.)

107039 @ 으.(으.)

107039 #2 어떻 문죽거렁.(어떻게 문질러서.)

107039 @ 고춧가루에?(고춧가루에?)

107039 #2 으, 마늘에.(으, 마늘에.)

107039 @ 마늘. 고춧가루에 물 딸릴 거 아니? 멸치 물 딸렁.(마늘. 고춧가루에 물 달일 거 아니? 멸치 물 달여서.)

107039 #2 물 좀 딸렸당.(물 좀 달였다가.)

107039 @ 뭐, 뭐 낱 물 딸렘수과? 멸치에?(뭐, 뭐 넣고 물 달입니까? 멸치에?)

107039 #2 멸치에 무시거 물 딸릴 거 잇어, 잘 허고자민 다시다나 흐썰 낱 딸리고 경 안허민 거 딸렸당 멸젓허고 마늘허고 그거 허고 흐썰 문경 놔두민.(멸치에 뭐 물 달일 거 잇어. 잘 하려고 하면 다시다나 조금 넣고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 달이다가 멸치젓하고 마늘하고 그거하고 조금 문질러서 놔두면.)

107039 @ 음.(음.)

107039 #2 우린 무신. 경 나 헐 중도 모르고.(우린 무슨. 그렇게 나 할 줄도 모르고.)

107039 #1 열무나 알타리는 요 근래 나온 거고.(열무나 알타리무는 요 근래 나온 거고.)

107039 @ 그지예?(그지요?)

107039 #1 나가 그걸 해 봐서 아는데.(내가 그걸 해 봐서 아는데.)

107039 @ 으.(으.)

107039 #1 처음에는 여기 결구배추 허니까 못 풀앗다고.(처음에는 여기 결구배

추 하나까 못 팔았다고.)

107039 @ 으.(으.)

107039 #1 간낭 종류라고 해서.(양배추 종류라고 해서.)

107039 @ 음.(음.)

107039 #1 게민 여기 함덕 배추, 함덕 배추 해서 오는데 반결구배추.(그럼 여기 함덕 배추, 함덕 배추 해서 오는데 반결구배추.)

107039 @ 반결구배추?(반결구배추?)

107039 #1 어. 원래 그게 시조니까.(어. 원래 그게 시조니까.)

107039 @ 음.(음.)

107039 #1 결구배추가 중국에서 온 거주게.(결구배추가 중국에서 온 거지.)

107039 @ 음.(음.)

107039 #1 이 일본서도 우리 한국 건너가 가지고 일본서 개량해서 결구배추가 들어온 건데.(이 일본서도 우리 한국 건너가 가지고 일본서 개량해서 결구배추가 들어온 건데.)

107039 @ 으음.(으음.)

107039 #1 뭐 지브렌¹⁸⁶이다 포드렌¹⁸⁷이다 허는 거는, 청방¹⁸⁸이다 허는 게 전부 중국서 왔주게.(뭐 ‘지브렌’이다 ‘포드렌’이다 허는 거는, ‘청방’이다 하는 게 전부 중국에서 왔지.)

107039 @ 음.(음.)

107039 #1 게서 여디서 이제 개량해서 결구배추가 나 원예 힘 시작헌 후에 제라허게 나왔지.(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량해서 결구배추가 내가 원예 하기 시작한 후에 제대로 나왔지.)

107039 @ 으.(으.)

107039 #1 그런 게 옛날 함덕 배추, 함덕 배추우다 허면, 것도 돈 있는 사람덜이 사 먹고.(그런 게 옛날 함덕 배추, 함덕 배추입니다 하면,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 사 먹고.)

107039 @ 음.(음.)

107039 #1 그렇지 않으면 이 무수 종류.(그렇지 않으면 이 무 종류.)

107039 @ 으.(으.)

107039 #1 드룻늬물이렌 해 가지고는 보리밭에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날 철이라고.(들나물이라고 해 가지고는 보리밭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날 철이라고.)

107039 @ 으, 으.(으, 으.)

107038 #1 게민 여기도 배추, 배추 아니고 배치.(그럼 여기도 배추, 배추 아니고 ‘배치’.)

107038 #2 배치.(‘배치’.)

186) ‘지브렌’은 제보자가 결구배추의 한 종류를 말한 것으로, ‘지부배추’를 말한다.

187) ‘포드렌’은 제보자가 결구배추의 한 종류를 말한 것으로 ‘포두런배추’를 말한다.

188) ‘청방’은 결구배추의 한 종류다.

107038 #1 배치엔 해 가지고는.(‘배치엔 해 가지고는.)
 107038 @ 배치김치 그럼?(배추김치 그럼?)
 107038 #2 어, 배치김치.(어, 배추김치.)
 107038 @ 배치김치예?(배추김치요?)
 107038 #2 배치김치. 배치김치가 어디 셔.(‘배치김치’, ‘배치김치’가 어디 있어.)
 107038 @ 맞아, 배치김치.(맞아, ‘배치김치’.)
 107038 #2 배치김치.(‘배치김치’.)
 107038 @ 으, 배치김치예. 게민 물김치는 안 해났수과?(으, 배추김치요. 그럼 물김치는 안 했습니까?)
 107038 #1 무사 안 해계. 무수 나니까 다 해 먹주게.(왜 아 해. 무 나니까 다 해서 먹었지.)
 107040 @ 어무니 물김치.(어머니 물김치.)
 107040 #2 물김친 무신 다른 거라계. 무수 그냥 알파콰하게 썰어근에 띠물 쪼금 허고 근만 해근에 생강이나 마늘이나 쪼금 농곡 놔두민 쪼 시부롱허민 물김치엔 허 멩 먹엇주 뉘.(물김친 무슨 다른 거야. 무 그냥 알파콰하게 썰어서 띠물 쪼금 하고 간만 해서 생강이나 마늘이나 쪼금 넣고 놔두면 쪼 시뿌여면 물김치라고 하면서 먹엇지 뉘.)
 107040 @ 띠물, 평물?(‘띠물’, ‘평물’?)
 107040 #2 띠물. 쌀 씻어난 물.(‘띠물’. 쌀 씻엇던 물.)
 107040 @ 아, 띠물. 쌀 씻어난 물. 쌀 씻어난 띠물예?(아, ‘띠물’. 쌀 씻엇던 물. 쌀 씻엇던 띠물요?)
 107040 #2 초벌 거 말앙 두벌 거 해근에. 쪼 농민 뿌이롱허민.(초벌 거 말고 두벌 거 해서. 쪼 넣으면 뿌야면.)
 107040 @ 초벌 건 데껴 불고?(초벌 건 던져 버리고?)
 107040 #2 어.(어.)
 107041 @ 으. 동지김치도 잇어났수과?(으. 장다리김치도 잇엇습니까?)
 107041 #2 동지김치 잇주게.(장다리김치 있지.)
 107041 @ 동지김치는?(장다리김치는?)
 107041 #1 배추 동 사민.(배추 장다리가 서면.)
 107041 #2 누물이 이만이 동 사면.(나물이 이만큼 장다리가 서면.)
 107041 @ 으.(으.)
 107041 #2 그 동 잘라다가.(그 장다리를 잘라다가.)
 107041 @ 음.(음.)
 107041 #2 대 몽클락허민¹⁸⁹⁾ 칼로 거 대 흐쉴 오려근에 소금 헛다근에 양념허민 그계 동 김치주.(대 ‘몽클락’하면 칼로 거 대 쪼금 오려서 소금 헛다가 양념허민 그계 장다리김치지.)

189) ‘몽클락허다’는 둥글고 통통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 107041 @ 으. 무김, 무김치?(으. 무김, 무김치?)
- 107041 #2 으.(으.)
- 107042 #1 거, 늪빠김치.(거, 무김치.)
- 107042 @ 늪빠김치예. 무김치가. 파김치도 만들어 봅서.(‘늪빠’김치요. 무김치가. 파김치도 만들어 보세요.)
- 107043 #1 파김치 요 근래에사 허기 시작했주. 건 우리 마나님께서 잘해여.(파김치 요 근래야 하기 시작했지. 건 우리 마나님께서 잘해.)
- 107043 #2 파김치는 파는 그것은 마늘 종내기라.(파김치는 파는 그것은 마늘 종내기야.)
- 107043 #1 여기선 마농, 마농 해여.(여기선 ‘마농’, ‘마농’ 해.)
- 107043 @ 예, 예.(예, 예.)
- 107043 #2 마늘을 안 놔, 안 노난 파김치 허긴 쉬워. 파 씻어근에 고추ㄴ루 허고 다시다나 흐썰 놓고자 허민 놔 저 대사니 무시거 안 노난 주로 멜젓이 위주라. 파김치는.(마늘은 안 넣어. 안 넣으니까 파김치 하긴 쉬워. 파 씻어서 고춧가루하고 다시다나 조금 넣고 싶으면 넣어서 저 마늘 무엇 안 넣으니까 주로 멀치젓이 위주야. 파김치는.)
- 107043 @ 아, 아.(아, 아.)
- 107043 #2 파김치는.(파김치는.)
- 107043 @ 멜젓이 위주라.(멀치젓이 위주야.)
- 107043 #2 으.(으.)
- 107043 @ 어쨌든 파김치 만들 때도 고추ㄴ루.(어쨌든 파김치 만들 때도 고춧가루.)
- 107043 #1 고춧가루 들어가주.(고춧가루 들어가지.)
- 107043 @ 고추ㄴ루 양념은 다 들어가지예?(고춧가루 양념은 다 들어가지요?)
- 107043 #2 으.(으.)
- 107043 @ 별도로 행예?(별로로 해서?)
- 107043 #2 으, 벨도로 험주.(으, 별도로 하지.)
- 107043 @ 멀치 물 끓영 벨도로?(멀치 물 끓여서 별도로?)
- 107043 #2 으.(으.)
- 107044 @ 달래?(달래?)
- 107044 #1 드룻마농.(달래.)
- 107044 @ 드룻마농.(달래.)
- 107044 #1 여긴 드룻마농¹⁹⁰.(여긴 ‘드룻마농’.)
- 107044 #2 허는 사름은 해도 난 안 해여.(하는 사름은 해도 난 안 해.)
- 107044 #1 거 쨍마농이엔도 해여.(거 ‘쨍마농’이라고도 해.)
- 107044 #2 쨍마농은 달래가 훤은 것이 쨍만농이주.(‘쨍마농’은 달래가 굵은 것이

190) ‘드룻마농’은 표준어의 ‘달래’를 말한다. ‘들마농’, ‘쨍마농’이라고도 한다.

‘뽕마농’이지.)

107044 @ 드룻마농김치.(달래김치.)

107044 #2 것도 막 행 먹는 사람은 행 먹어. 드룻마농도 난 안 행 먹어도 그자 그것도 거 해다 놔근에 양념 무치면 그자 거 되는 거주.(것도 마구 해 먹는 사람은 해 먹어. 달래도 난 안 해서 먹어도 그냥 그것도 해다 놔줬다가 양념 무치면 그냥 거 되는 거지.)

107044 @ 양념은 똑같이 무치는 거예?(양념은 똑같이 무치는 거요?)

107044 #2 으.(으.)

107045 @ 저기 갓김치도 해놔수과?(저기 갓김치도 했었습니까?)

107045 #1 아니, 여긴 갓이 엇어.(아니 여긴 갓이 없어.)

107045 #2 아니, 늬은 허는 사람은 허는디 난 아니 해.(아니, 다른 사람은 하는 사람은 하는데 난 안 해.)

107046 @ 안 해예. 저기 새우리김치?(안 해요. 저기 부추김치?)

107046 #2 새우리도 거 달래나 비슷, 같은 거 양념.(부추도 거 달래나 비슷, 같은 거 양념.)

107046 @ 양념이?(양념이?)

107046 #2 어, 그 쪽파허고 새우리허고 달랜 주로 멜것도 아저 텡겨사고 그자 마늘만 안 허는 거.(어. 그 쪽파하고 부추하고 달랜 주로 멀치것도 가져 다녀야 하고 그저 마늘만 안 하는 거.)

107046 @ 아, 다른 거랑 양념할 때보다 차이점이 있다면?(아, 다른 거랑 양념할 때보다 차이점이 있다면?)

107046 #2 마늘.(마늘.)

107046 @ 마늘 안 넣고.(마늘 안 넣고.)

107046 #2 마늘 종류난 마늘 안 허는 거.(마늘 종류니까 마늘 안 하는 거.)

107046 @ 마늘 안 넣고 멜것 더 놓는 거?(마늘 안 넣고 멀치것 더 놓는 거?)

107046 #2 으.(으.)

107046 @ 으 음.(으 음.)

107046 #2 몰라, 늬은 어명사 허는디 난 그추록 헨 해신디.(몰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난 그렇게 해서 했는데.)

107046 @ 계난, 저기 김치허젠 멜켓 하영 담가 뒤사쿠다예?(그러니까, 저기 김치 하려고 멀치것 많이 담가 뒤야겠네요?)

107046 #2 담그는 사람은 담그는디 담그지 않은 사람은 사 왁주게.(담그는 사람은 담그는데 담그지 않는 사람은 사 오지.)

107046 #1 난 먹지 말젠.(난 먹지 않으려고.)

107046 @ 하하하.(하하하.)

첫갈

107048 @ 어무니 어쨌든 담가나지 안 험예. 짓갈 종류는 뭐, 뭐 담가놔수과?(어머니 어쨌든 담그지 않았어요. 짓갈 종류는 뭐, 뭐 담갔었습니까?)

107048 #2 주로 멜젓, 자리젓베끼 난 뭐.(주로 멀치젓, 자리젓밖에 난 뭐.)

107048 @ 멜젓, 자리젓예. 아감젓은 안 담가놔수과?(멀치젓, 자리젓요. 아감젓은 안 담갔었습니까?)

107048 #1 에이구, 여기 아가미 엇주게.(어이구, 여기 아가미 없지.)

107048 @ 엇어. 게젓 아감젓?(없어. 게젓 아감젓?)

107048 #2 아니.(아니.)

107048 #1 게젓도 안 허고.(게젓도 안 하고.)

107049 @ 아, 게젓도 안 허고예. 그럼 자리젓은 어떻 담궈수과?(아, 게젓도 안 하고요. 그럼 자리젓은 어떻게 담갔습니까?)

107049 #2 자리젓은 담가도 난 곳엉 먹지도 못해도. 그자 요즘 허는 사름사 사대일로 소금 허고이.(자리젓은 담가도 난 곳어서 먹지도 못해도. 그자 요즘 하는 사름이야 사대일로 소금 하고.)

107049 @ 뭐가?(뭐가?)

107049 #1 사 키로에 소금 일 키로.(사 키로에 소금 일 키로.)

107049 @ 아, 뭐 자리 사 키로에.(아, 뭐 자리돔 사 키로에.)

107049 #2 으.(으.)

107049 @ 자리젓 담그젠 허민 어떤 자리가 좋은 거라?(자리젓 담그려고 하면 어떤 자리돔이 좋은 거야?)

107049 #2 가운데 거. 너무 크도 안 허고 너무 죽도 안 허고.(가운데 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107049 @ 으.(으.)

107049 #2 큰 거 너무 크고 죽은 건 젓 허당 보민 먼 저 녹아 불고 졸아지고. 가운데 거.(큰 거 너무 크고 작은 건 젓 하다가 보면 모두 저 녹아 버리고 졸아지고. 가운데 거.)

107049 @ 아. 가운데 거예?(아. 가운데 거요?)

107049 #2 으.(으.)

107049 @ 이제 담가 봅서. 자리 상 왕. 가운데 거 상 왓수다, 자리.(이제 담가 보세요. 자리돔 사 와서. 가운데 거 사서 왔습니다, 자리돔.)

107049 #2 ㅎㅎ.(ㅎㅎ.)

107049 @ 담가 봅서.(담가 보세요.)

107049 #2 건디 난 손맛이 엇어 가지고 자리젓 맛엇어.(그런데 난 손맛이 없어 가지고 자리젓 맛없어.)

107049 @ 하하.(하하.)

107049 #2 해 보단 안 햐서.(해 보다가 안 하고 있어.)

107049 @ 게난 어쨌든 맛 잇든 없든 담가 봅서.(그러니까 어쨌든 맛있든 없든

답가 보세요.)

107050 #2 멜컷은 자리젓보단 소금을 많이 해야 하고.(멜치젓은 자리젓보단 소금을 많이 해야 하고.)

107050 @ 음, 그것은 멧 대 멧 그거는?(음. 그것은 멧 대 멧 그거는?)

107050 #2 멧 대 멧은 아니고. 그것은 해 보지 안 하고 멜에 다 소금인 거 닦아 사 돼여.(멧 대 멧은 아니고. 그것은 해 보지 안 하고 멜치에 다 소금인 거 같아야 돼.)

@ 아.(아.)

#2 멜젓은.(멜치젓은.)

107050 @ 소금 허영허게 험신게.(소금 하얗게 하네요.)

107050 #2 으, 경허난 멜도 다 녹곡 경 해도.(으, 그러니까 멜치도 다 녹고 그렇게 해도.)

107050 @ 음. 게난 답가 봅서게. 이제 자리젓이랑 멜컷이랑. 어떻 답글 것과?(음. 그러니까 답가 보세요. 이제 자리젓이랑 멜치젓이랑. 어떻게 답글 겁니까?)

107050 #2 어떻 답가게 어디 셔게?(어떻게 답가, 어디 있어?)

107050 @ 글아 봅서, 어떻 답그는지. 자리 사 왕 소금만 뿌려?(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답그는지. 자리돔 사 와서 소금만 뿌려?)

107050 #1 소금만 뿌리주게.(소금만 뿌리지.)

107050 #2 자리.(자리돔.)

107050 @ 으.(으.)

107050 #2 젓허는 건 집이 오랑 씻지 안 험사 돼여.(젓하는 건 집에 와서 씻지 않아야 돼.)

107050 @ 아.(아.)

107050 #2 그 어떤 사름은 바다에 배 들어온 디 강 사민 그디서 바닷물에 시치 주만은.(그 어떤 사람은 바다에 배 들어온 데 가서 사면 거기서 바닷물에 씻지만.)

107050 @ 음.(음.)

107050 #2 여기선 씻지 말양 다라에 놔근에 그 소금 멧 델 낱.(여기선 씻지 말고 대야에 놓고 그 소금 멧 델 놓고.)

107050 @ 음.(음.)

107050 #2 싹 젓어근에 향아리에 안 담는 거라. 그대로 ㄱ만이 다라에 ㄱ만이 이걸 놔두면 널 아침엔 보민 물이 나서 근근허주게.(싹 저어서 향아리에 안 담는 거야. 그대로 가만히 대야에 가만히 이걸 놔두면 널 아침엔 보민 물이 나서 근근하지.)

107050 @ 으 으.(으 으.)

107050 #2 근근허민 그때는 하나 하나 훌훌 허멍 단지로 놔둬 물은 이제 딸랑 보민 비늘이랑 그 추접헌 거 다 이 창에 잇어이. 그런 건 버려베딩 그때 단지에 놔두는 거.(근근하면 그때는 하나 하나 훌훌 하면서 단지로 놔두고 물은 이제 따라 보

면 비늘이랑 그 추접한 거 다 이 바닥에 있어. 그런 거 버려두고 그때 단지에 놔두는 거.)

107050 @ 아, 그럼 흐룻밤은 다라에서 채는 거구나?(아, 그럼 하룻밤은 대야에서 채는 거구나?)

107050 #2 으.(으.)

107050 @ 그 다음날 단지에 담는 거구나예?(그 다음날 단지에 담는 거군요?)

107050 #2 으, 경 곳인 물 빠 불라고 허면은 그추룩 허는 거.(으, 그렇게 곳은 물 빠 버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

107050 @ 으.(으.)

107050 #2 그자 무턱대고 담양 향아리에 놔 부는 사람도 있고.(그냥 무턱대고 담아서 향아리에 놔 버리는 사람도 있고.)

107050 @ 아.(아.)

107050 #2 여러 가지라.(여러 가지야.)

107050 @ 아, 게민 멜컷은?(아, 그럼 멀치컷은?)

107050 #2 멜컷은 그대로 소금 버무리멍 망데기에 탁 담양.(멀치컷은 그대로 소금 버무리면서 망데기에 탁 담고.)

107050 @으.(으.)

107050 #2 다 탁 두는 거.(다 탁 두는 거.)

107050 @ 그민, 아까 자리는 씻지 말렌 헛잖아예, 멜컷은 상 왕 씻어?(그럼, 아까 자리돔은 씻지 말라고 했잖아요, 멀치컷은 사 와서 씻어?)

107050 #2 아니, 멜도 안 씻어.(아니, 멀치도 안 씻어.)

107050 @ 안 씻어.(안 씻어.)

107050 #2 으, 맛엇넨 헝 안 씻어.(으, 맛없다고 해서 안 씻어.)

107050 @ 아, 씻어 불민 맛엇넨 헝예?(아, 씻어 버리면 맛없다고 해서요?)

107050 #2 으.(으.)

107050 @ 예, 뻬수다.(예, 뻬습니다.)

107050 #2 이젠 다 글앗지.(이젠 다 말했지.)

107050 @ 아니.(아니.)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장아찌 같은 거 담가 먹잖아예?(그 장아찌 같은 거 담가 먹잖아요?)

107055 #2 으.(으.)

107055 @ 마농이랑 마농지시랑.(마늘이랑 마늘장아찌랑.)

107055 #2 으.(으.)

107055 @ 그런 지시 종류가 뭐 뭐 잇수과? 마농지시도 있고.(그런 장아찌 종류가 뭐 뭐 잇습니까? 마늘장아찌도 있고.)

107055 #2 옛날엔, 요즘 올라사 마농지시주 옛날엔 아주 옛날엔 마늘 엮어서. 반치지.(옛날엔, 요즘 와야 마늘장아찌지. 옛날엔 아주 옛날엔 마늘 없었어. 파초장아찌.)

107055 @ 반치지?(파초장아찌?)

107055 #2 그 사람 울타리에 바나나 7톤 거 잇잖아.(그 사람 울타리에 바나나 같은 거 잇잖아.)

107055 @ 으.(으.)

107055 #2 똑 바나나 낭광 꼭 같은 거.(꼭 바나나 나무와 꼭 같은 거.)

107055 @ 으.(으.)

107055 #2 것이 일름이 반치라.(것이 이름이 파초야.)

107055 @ 아.(아.)

107055 #2 반치를.(파초를.)

107055 @ 예.(예.)

107055 #2 집 울타리에 것이 이만큼 술진 거 시민.(집 울타리에 것이 이만큼 살진 거 있으면.)

107055 @ 예.(예.)

107055 #2 호미로도 못 잘랑 톱으로.(낫으로도 못 잘라서 톱으로.)

107055 @ 으.(으.)

107055 #2 잘라다가 요만씩 간격 낱 쫄라서.(잘라다가 요만큼씩 간격 놓고 잘라서.)

107055 @ 으, 반치는 길이가 얼마나 해?(으, 파초는 길이가 얼마나 해?)

107055 #2 반친 길이 막 저 문 높이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파춘 길이 아주 저 문 높이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107055 @ 아, 그냥 나무였구나예?(아, 그냥 나무였군요?)

107055 #2 으.(으.)

107055 @ 낭예?(나무요?)

107055 #2 으, 바나나 나무주게. 영 그림에 봐도. 어디 텅기당 봐 봐 울타리에 있는 거.(으, 바나나 나무지. 이렇게 그림만 봐도. 어디 다니다가 봐 봐 울타리에 있는 거.)

107055 @ 으 으, 반치지.(으 으, 파초장아찌.)

107055 #2 으. 그것을 요만씩 잘라서 겁덕거리, 밖에, 베꼈디 건 데껴뒀.(으. 그것을 요만큼씩 잘라서 꺾질, 밖에, 밖에 건 던져두고.)

107055 @ 으.(으.)

107055 #2 안에 것만 장 돕는 디 같이 들이쳐, 메주에.(안에 것만 장 담그는 데 같이 들어뜨려, 메주에.)

107055 @ 아, 따로 담갔던 거 아니고.(아, 따로 담갔던 거 아니고.)

107055 #2 아니, 장 담는 디 들이쳐 봐두면.(아니, 장 담그는 데 들어뜨려서 봐

두면.)

107055 @ 으.(으.)

107055 #2 그놈이 무삭허게¹⁹¹⁾ 익은디, 이루 말허민 짠 것을 말허민 말힐 수가 엇지. 장 돕는 지시 얼마나 짬 거라.(그놈이 ‘무삭’하게 익었는데, 이루 말하면 짠 것을 말하면 말힐 수가 없지. 장 담그는 장아찌 얼마나 짬 거야.)

107055 @ 아.(아.)

107055 #2 그렇게 해서 조금 건져내영 찌지명 밥반찬 허고.(그렇게 해서 조금 건져내서 찢으면서 밥반찬 하고.)

107055 @ 으.(으.)

107055 #2 그 좀 다음 흐쓸 오래 잇어 가사 이 마늘이 나왔주.(그 좀 다음 조금 오래 잇어 가야 이 마늘이 나왔지.)

107055 @ 음.(음.)

107055 #2 옛날엔 콤포테사니라고 조금씩.(옛날엔 마늘이라고 조금씩.)

107055 @ 으.(으.)

107055 #2 콤포테사니, 콤포테사니.(마늘, 마늘.)

107055 @ 게민, 지시 담가 먹어난 건 아까 반치지.(그럼, 장아찌 담가 먹었던 건 아까 파초장아찌.)

107055 #2 으, 그 마늘지도 지금 저 뭐이나 저 무수 헤 가지고.(으, 그 마늘장아찌도 지금 저 뭐이나 저 무 해 가지고.)

107055 @ 으.(으.)

107055 #2 왕 기리¹⁹²⁾로 썰어 가지고.(굵게 썰어 가지고.)

107055 @ 으.(으.)

107055 #2 그놈에 섞어 가지고 마늘지를 허주게.(그놈에 섞어 가지고 마늘장아찌를 하지.)

107056 @ 마늘지렌 험니까 마농지렌 험니까?(‘마늘지’라고 험니까, ‘마농지’라고 험니까?)

107056 #2 마농지.(‘마농지’.)

107056 @ 마농지예?(‘마농지’요.)

107056 #2 으.(으.)

107056 @ 게민, ‘마농지’ 따로 있고 ‘콤포테사니지’ 따로 있고?(그럼, ‘마농지’ 따로 있고 ‘콤포테사니지’ 따로 있고?)

107056 #2 아니, 그게 그거. 그 콤포테사니엔 해도 그냥 지를 굴을 땀 마농지.(아니, 그게 그거. 그 ‘콤포테사니’라고 해도 그냥 장아찌를 말할 땀 ‘마농지’.)

107056 @ 아, 콤포테사니도 그냥 마농지예?(아, ‘콤포테사니’도 그냥 ‘마농지’요?)

107056 #2 마농지.(‘마농지’.)

191) ‘무삭허다’는 잘 익어서 물컹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192) ‘기리’는 일본어 ‘끼리’로 자른 것이라는 의미다. ‘왕 기리’는 굵게 자른 것을 말한다.

107056 @ 으, 으. 그럼 지시는, 지 종류는 반치지, 콕데사니지 두 개밖에 없는 거?(으, 으. 그럼 장아찌는, 장아찌 종류는 파초장아찌, 마늘장아찌 두 개밖에 없는 거?)

107056 #2 아니, 글후제 막 오래, 요즘이라 가사 뭐 그거 저거, 저 양에끈도 해서 지를 헐다 뭐를 헐다 해도.(아니, 그 이후에 아주 오래, 요즘에 와서야 뭐 그거 저거, 저 양하도 해서 장아찌를 한다 뭐를 한다 해도.)

107056 @ 으.(으.)

107056 #2 지는 나 생각엔 우리는 것베끼 안 해 난 거 다행.(장아찌는 내 생각엔 우리는 거밖에 안 했던 거 같아.)

107056 @ 음. 예전에 반치지에. 마농지 담글 때 어떻 담그는지 물어 줘서.(음. 예전에 파초장아찌요. 마늘장아찌 담글 때 어떻게 담그는지 말해 주세요.)

107056 #2 마농지 담글 때 요즘 오복 간장에 물에 소금 흐썰 더 넣 그거 근 맞창 팔팔 끓여근에.(마늘장아찌 담글 때 요즘 오복 간장에 물에 소금 조금 더 넣고 그거 간 맞춰서 팔팔 끓여서.)

107056 @ 어.(어.)

107056 #2 그걸 그 마농 썰어서 그 단지에 담았다가 익은 땐 비우면은 다 익어 불고 식은 다음에 그 마늘러레 비워.(그걸 그 마늘 썰어서 그 단지에 담았다가 익은 땐 비우면 다 익어 버리고 식은 다음에 그 마늘에 비워.)

107056 @ 으. 게민 아니, 옛날에 담갔던 거. 지금에야 오복 간장이주만은 옛날에는 장 담장.(으. 그럼 아니, 옛날에 담갔던 거. 지금에야 오복 간장이지만 옛날에는 장 담가서.)

107056 #2 옛날엔 집이 장.(옛날엔 집에 장.)

107056 @ 집이 장에?(집에 장에?)

107056 #2 으.(으.)

107056 @ 집이 장에 어떻 행?(집에 장에 어떻게 해서?)

107056 #2 집이 장에 해도 요즘 거치 담질 안 허여.(집에 장에 해도 요즘 같이 담그질 않아.)

107056 @ 으.(으.)

107056 #2 그자 저.(그냥 저.)

107056 @ 게난 옛날 담왔던 방법?(그러니까 옛날 담갔던 방법?)

107056 #2 그자 장물만 버물영 짬만 허민 먹었지.(그저 간장만 버물려서 짜기만 하면 먹었지.)

107056 @ 양념 안 해 가지고?(양념 안 해 가지고?)

107056 #2 예구, 양념 ㄹ튼 거.(예구, 양념 같은 거?)

107056 @ 으.(으.)

107038 #2 양념이 무시거라. 겨난 그 김치도 저 누물 죽인 것이 김치주.(양념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그 김치도 저 나물 (숨) 죽인 것이 김치지.)

107038 @ 히히.(히히.)

107038 #2 양념. 옛날 사름은 경 생강이다, 뭐 마늘이다, 멜젓이다 뭐 이거 저거 맛있는 양념을 허지를 못 헨게.(양념.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강이다, 뭐 마늘이다, 멸치젓이다 뭐 이거 저거 맛있는 양념을 하지를 못 했어.)

107038 @ 음.(음.)

107038 #2 그자. 이디서도 멜은 거리니까 멜젓은 시난.(그저. 여기서도 멸치는 잡으니까 멸치젓은 있으니까.)

107038 @ 으.(으.)

107038 #2 멜젓은 허는데. 그자 주로 마늘 조금 넣고 멜젓 넣고 고추ㄱ루 원. 죄다 양념이 거라.(멸치젓은 하는데. 그저 주로 마늘 조금 넣고 멸치젓 넣고 고춧가루 원. 죄다 양념이 거야.)

107038 @ 음.(음.)

107038 #2 녹물이라 녹물 거튼 거라게. 이제추록 이따만이 포기 앓지 안 허영 그 여기서는 옛날에 늬뻬가 무시것도 안 돼고 배추도 안 돼고. 함덕을 가서 배출 사서. 함덕.(나물이야 나물 같은 거야. 이제처럼 이만큼 포기 앓지 않아서 그 여기서는 옛날에 무인가 무엇도 안 되고 배추도 안 되고. 함덕을 가서 배출 사서. 함덕.)

107038 @ 아, 거기까지 강?(아, 거기까지 가서?)

107038 #2 함덕베끼 배추가 안 돼주게. 함덕.(함덕밖에 배추가 안 되지. 함덕.)

107038 @ 아.(아.)

107038 #2 여기 사람 말론 아이고, 함덕 배추만이 크다.(여기 사람 말론 아이고, 함덕 배추만큼 크다.)

107038 @ 아.(아.)

107038 #2 함덕 강 사 온 사름은 배추 닳은 걸로 좀 헤 먹고.(함덕 가서 사 온 사람은 배추 같은 걸로 좀 헤 먹고.)

107038 @ 으.(으.)

107038 #2 그렇지 못 현 사름은 갈양 나두민 그런 씨가 아니니까 섭만 와사 사¹⁹³ 나명 속이 안 차.(그렇지 못 한 사람은 갈아서 놔두면 그런 씨가 아니니까 일단 ‘와사사’ 나면서 속이 안 차.)

107038 @ 으.(으.)

107038 #2 안 차도 그놈을 캐여근에 저 바다에 강 짠물을 질어 오지.(안 차도 그놈을 캐서 저 바다에 가서 짠물을 질어 오지.)

107038 @ 으.(으.)

107038 #2 허벽 해서, 요즘 저 민속촌에 잇는 허벽.(허벽 해서, 요즘 저 민속촌에 잇는 허벽.)

107038 @ 으, 으.(으, 으.)

193) ‘와사사’는 식물 따위의 잎이나 줄기가 싱싱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7038 #2 질어다가 소금 흐썰 더 낱 걸 녹물만 여기 요즘 녹물 오래 죽이민 녹물만 낱 헌텐 해도 향아리에 거 잔물 질어당 소금 흐썰 놓고 그 배추를 들이청 돌 짝 지들라서 혼 15일 ㄱ만이 두는 거라. 뒷당 보민 것이 죽영 누리롱 헤시민 대 바구니에 건정 물 안 나게 어떻 이디 뭐 바탕 바다에 정 가주.(질어다가 소금 조금 더 넣고 걸 나물만 여기 요즘 나물 오래 죽이면 나물만 넣고 한다고 해도 향아리에 거 잔물 질어다가 소금 조금 넣고 그 배추를 들이뜨리어 돌 짝 지질러서 한 15일 가만히 두는 거야. 뒷다가 보면 것이 죽어서 누렇게 되면 대바구니에 건져서 물 안 나게 어떻게 여기 뭐 받쳐서 바다에 저 가지.)

107038 @ 어.(어.)

107038 #2 거 잔물에 또 씻어.(거 잔물에 또 씻어.)

107038 @ 아.(아.)

107038 #2 그 잔물에 씻영 또 정 오랑 물 빠지민, 헌다 허는 건 고춧ㄱ루허고 멜젓허고 그 마농 쪼금 허고. 그거 행 경 빨경도 안 허여. 고치가 안 좋은가 윈 이제 생각해 보민, 이제 고치덜은 경 물이 곱는다.(그 잔물에 씻어서 또 저 와서 물 빠지면, 헌다 하는 건 고춧가루하고 멀치젓하고 그 마늘 조금 하고. 그거 해서 그렇게 별장게도 안 해. 고추가 안 좋은가 윈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고추들은 그렇게 물이 고운데.)

107038 @ 음.(음.)

107038 #2 불그롱헌 거 그자. 신 거 무시거 몰라 짜 불고 허민 그자 나중에 그 자 누리롱헌 차, 배추라고 여기 사름은. 난 또 경해도 그나마 쪼금 휘썰 오래 낫당 먹어도, 우리 집이 그 하르방¹⁹⁴이 쪼금 잇어가난 원예를 취미 부쩍 허니까 헨 먹 엿주만은 이디 사름덜 배추 꿀 못 봐. 허단 내중이라 가야.(별건 거 그냥. 신 거 무엇 몰라 짜 버리고 하면 그저 나중에 그저 누런 채, 배추라고 여기 사름은. 난 또 그래도 그나마 쪼금 쪼금 오래 낫다가 먹어도, 우리 집이 그 할아버지가 쪼금 잇어가니까 원예를 취미 붙여서 하니까 해서 먹었지만 여기 사름들 배추 꿀 못 봐. 하다가 나중에 가야.)

107038 @ 어머니넨 심영 먹었구나, 배추예?(어머니넨 심어서 먹었구나, 배추요?)

107038 #2 으.(으.)

107057 @ 해 가지고. 휘, 휘 종류 있잖아예. 휘예. 아까는 장아찌 종류 물어봐 신디 이번엔 휘 종류?(해 가지고. 회, 회 종류 있잖아요. 회요. 아까는 장아찌 종류 물어봤는데 이번엔 회 종류?)

107057 #2 휘사 오죽 하게.(회야 오죽 많아.)

107057 @ 무신 휘 잇수과?(무슨 회 있습니까?)

107057 #2 아이고, 휘는 나 다 못 세켜. 윈 휘 못 허는 고기가 엿이니까. 윈 챗차는 자리주만은.(아이고, 회는 나 다 못 세졌어. 윈 회 못 하는 고기가 없으니까.)

194)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원 첫째는 자리돔이지만.)

107057 @ 자리훤.(자리회.)

107057 #2 자리 무신 빗게훤든, 상어훤든 훤 못허는 것이 원 엇어.(자리돔 무슨 수염상어회든, 상어회든 회 못 하는 것이 원 없어.)

107057 @ 빗게가 뭐파?(수염상어가 뭐니까?)

107057 #2 빗게 겁덕 벗겨 뒤근에 먹는 거.(수염상어 꺾데기 벗겨 두고 먹는 거.)

107057 @ 으.(으.)

107057 #2 그 빗게가 막 켈 슬이 또락전 세지.(그 수염상어가 아주 켈 살이 쫄깃하게 세지.)

107057 @ 생선 이름?(생선 이름?)

107057 #2 으.(으.)

107057 @ 빗게훤?(수염상어회?)

107057 #2 상어.(상어.)

107057 @ 상어훤.(상어회.)

107057 #2 자리. 원 나 그거 다 못 세기크라. 원 훤 못 먹는 것이 원 엇이니까.(자리돔. 원 나 그거 다 못 기억하겠어. 원 회 못 먹는 것이 원 없으니까.)

107057 @ 새끼훤도 먹어나고마씨?(새끼회도 먹었습니까?)

107057 #2 새끼훤¹⁹⁵⁾ 허주게.(새끼회 하지.)

107057 @ 음.(음.)

107057 #2 돼지 새끼훤.(돼지 새끼회.)

107057 @ 돼지 새끼훤예. 아까 빗게 얘기 헛잖아예?(돼지 새끼회요. 아까 수염상어 얘기 헛잖아요?)

107057 #2 으.(으.)

107057 @ 그 뭐 우럭 같은 것도 다 훤 헛수과?(그 뭐 우럭 같은 것도 다 회 헛습니까?)

107057 #2 다 훤 해여.(다 회 해.)

107057 @ 우럭, 객주리.(우럭, 쥐치.)

107057 #2 어.(어.)

107057 @ 으.(으.)

107057 #2 다 훤 해. 원 요즘 훤 못 먹는 고기가 없어. 옛날엔 그런 거를 훤 헛 먹을 중을 몰랑 그자 아는 건 자리.(다 회 해. 원 요즘 회 못 먹는 고기가 없어. 옛날엔 그런 거를 회 해 먹을 줄을 몰라서 그자 아는 건 자리돔.)

107057 @ 응. 그니까 지금 해 먹는 거 말고 옛날 해 먹어난 거 물어보는 거라 예.(응, 그러니까 지금 해 먹는 거 말고 옛날 해 먹었던 거 물어보는 거예요.)

107057 #2 으, 옛날에 아는 건 자리.(으, 옛날에 아는 건 자리돔.)

195) '새끼훤' 주로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로 만든 회를 가리킨다.

107057 @ 자리.(자리돔.)
 107057 #2 빗게.(수염상어.)
 107057 @ 자리훤.(자리돔회.)
 107057 #2 으.(으.)
 107057 @ 빗게훤.(수염상어회.)
 107057 #2 빗게훤가.(수염상어회가)
 107057 @ 빗게가 물고기 이름이과?('빗게'가 물고기 이름입니까?)
 107057 #2 으. 겁덕이 더들더들더들¹⁹⁶ 잇영 막 허난 그걸 벗겨 두고.(으. 껍데기가 '더들더들더들' 있어서 마구 하나까 그걸 벗겨 두고.)
 107057 @ 으.(으.)
 107057 #2 막 술이 또락정 맛있주게. 옛날에는 이런 상어여 뭐 객주리여 훤 먹을 줄을 몰랐어. 점점 지금이라 가난 벨 훤 다 먹는다.(아주 살이 쫄깃해서 맛있지. 옛날에는 이런 상어며 뭐 쥐치며 회 먹을 줄을 몰랐어. 점점 지금에 오니까 별 회 다 먹는데.)
 107057 @ 으.(으.)
 107057 #2 윈 옛날에 아는 건 자리훤.(윈 옛날에 아는 건 자리돔회.)
 107057 @ 자리훤.(자리돔회.)
 107057 #2 도새기 새끼 건 뭐 여저도 뭐 임신헛당 잘못돼민 그런 것도 해 오고 그 도새기 새끼는 잘해여.(돼지 새끼 건 뭐 여자도 뭐 임신했다가 잘못되면 그런 것도 해 오고 그 돼지 새끼는 잘해.)
 107057 @ 으, 잘 헤난예?(으, 잘 했었어요?)
 107057 #2 으.(으.)
 107057 @ 방어훤도 먹어나고?(방어회도 먹었었고?)
 107057 #2 으?(으?)
 107057 @ 방어훤?(방어회?)
 107057 #2 인제야 나는 거 이제야.(이제야 나는 거 이제야.)
 107057 @ 옛날엔 엇어난?(옛날엔 없었었어?)
 107057 #2 옛날엔 방어라 현 말이 윈 무신 말인가 윈 고기 종류가 그렇게 몰랐지.(옛날엔 방어라고 하는 말이 윈 무슨 말인가 윈 고기 종류가 그렇게 몰랐지.)
 107057 @ 으.(으.)
 107057 #2 그자 아는 건 저기 생선, 우럭. 기자 무신 돔.(그저 아는 건 저기 생선, 우럭 그저 무슨 돔.)
 107057 @ 으.(으.)
 107057 #2 그자 이런 정도베끼. 빗게, 상어. 지금은 뭐 방어여 벨 거여 그런 거 뭐.(그저 이런 정도밖에. 수염상어, 상어. 지금은 뭐 방어여 별 거여 그런 거 뭐.)
 107058 @ 음, 그렇지예. 그럼 봄에는 이런 반찬 먹고 여름에는 이런 반찬 먹고

196) '더들더들더들'은 생선의 비늘이 매끄럽지 않게 돌아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구분되는 건 있어났수과? 예를 들면 여름 돼야 뭐 물혜 같은 거나 냉국 같은 거나 먹어났잖아예?(음, 그렇지요. 그럼 봄에는 이런 반찬 먹고 여름에는 이런 반찬 먹고 구분되는 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여름 돼야 뭐 물회 같은 거나 냉국 같은 거나 먹었습니까?)

107058 #2 주로 옛날에는 기자 여름 나민 메역허고 나물 삶아근에 냉국 행 먹곡.(주로 옛날에는 그저 여름 되면 미역하고 나물 삶아서 냉국 해서 먹고.)

107058 @ 여름에는예?(여름에는요?)

107058 #2 으. 그 그런 김치도 가을 들어 해여 가야 겨울베낀 못 먹곡.(으. 그 그런 김치도 가을 들어 해 가야 겨울밖엔 못 먹고.)

107058 @ 으.(으.)

107058 #2 봄 나 가민 시들영 안 먹어, 못 먹어?(봄 돼 가면 시들어서 안 먹어, 못 먹어?)

107058 @ 음. 계민 봄에는 반찬 뭐 행 먹어.(음. 그럼 봄에는 반찬 뭐 해서 먹어.)

107058 #2 아이구, 그런 대로 뭐 여기 사람덜 반찬 옛날에는 뭐 메역 ㄴ튼 거여 그자 그런 어지렁허게 나물이영 먹주. 나물도 속 안 차도게 같아 퍼덕진¹⁹⁷⁾ 거.(아이고, 그런 대로 뭐 여기 사람들 반찬 옛날에는 뭐 미역 같은 거여 그저 그런 어지렁게 나물과 먹지. 나물도 속 안 차도 같아 ‘퍼덕진’ 거.)

107058 @ 퍼덕진 거.(‘퍼덕진’ 거.)

107058 #2 그거 철 출렁 반찬 못 먹어.(그거 철 차려서 반찬 못 먹어.)

107058 @ 으. 그냥 이신 거?(으. 그냥 있는 거?)

107058 #2 으. 자리가 저 봄에는 나긴 나는데 막 줄엇당.(으. 자리돔이 저 봄에는 나긴 나는데 아주 즐었다가.)

107058 @ 으.(으.)

107058 #2 흔 음력 스월달 웨민 막 알찬 술젓당.(한 음력 사월 되면 아주 알차게 살졌다가.)

107058 @ 음.(음.)

107058 #2 칠월달이 나민 또 자리가 줄어 불주.(칠월이 되면 또 자리돔이 줄어 버리지.)

107058 @ 으.(으.)

107058 #2 줄어당 가을 들민 자리가 그렇게 솔지민 그때 그거 상 ㄴ슬자리¹⁹⁸⁾라고 그거 반찬 허고.(줄었다가 가을 들면 자리가 그렇게 살찌면 그때 그서 사서 가을자리돔이라고 그거 반찬 하고.)

107058 @ 그러면 그 반찬은 조리는 거, 구워 먹는 거?(그러면 그 반찬은 조리는 거, 구워 먹는 거?)

197) ‘퍼덕지다’는 배추 따위의 채소가 속이 둥글게 들지 아니하고 윗부분이 벌어진 것을 말한다.

198) ‘ㄴ슬자리’는 가을철에 잡히는 자리돔을 말한다.

107058 #2 구워 먹어.(구워 먹어.)

107058 @ 아, 구워 먹어?(아, 구워서 먹어?)

107058 #2 으, ㄴ슬자리.(으, 가을자리돔.)

107058 @ 아, ㄴ슬자리예?(아, 가을자리돔요?)

107058 #2 으. 꾀 나무¹⁹⁹⁾ 그 뜰께 말고 참깨 나무를 헤영 털어난 걸 무경 세
 왔다가 그 꾀적을 살라서 ㄴ슬자리를 구워 먹어.(으. 꾀 나무 그 들께 말고 참깨 나
 무를 해서 털었던 걸 묶어서 세웠다가 그 깻짚을 (불에) 살라서 가을자리돔을 구워
 서 먹어.)

107058 @ 아, 하하. 꾀적에.(아, 하하. 깻짚에.)

107058 #2 아궁이에 솟디 다 그 불을 때니까.(아궁이에 솔에 다 그 불을 때니
 까.)

107058 @ 맞아마씨.(맞아요.)

107058 #2 게난 그 꾀집인가 그것을 꾀집이라고 헤영 꾀 나무에 꾀집 헤영 비
 안 맞게 잘 헛당 자리 굽젠 허민 그걸 앓당 숨아 가민.(그러니까 그 깻짚인가 그것
 을 깻짚이라고 해서 꾀 나무에 깻짚 해서 비 안 맞게 잘 했다가 자리돔 구우려고
 하면 그걸 가져다가 (불을) 때 가면.)

107058 @ 으.(으.)

107058 #2 나무 닻지 안헤도 검질 불보다는 망불이 이시니까.(나무 같지 않아도
 검불 불보다는 불이 있으니까.)

107058 @ 으, 으.(으, 으.)

107058 #2 경 험 그걸로 ㄴ슬자리 반찬 허고.(그렇게 해서 그걸로 가을자리돔
 반찬 하고.)

107058 @ 아, 경 불이 오래 강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꾀집이랑 콩집예?
 (아, 그렇게 불이 오래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게 깻짚이랑 콩짚요?)

107058 #2 으. 콩집도 콩집이엔 안 헤영 콩꼬질.(으. 콩짚도 콩짚이라고 안 하고
 ‘콩꼬질’.)

107058 @ 아, 콩꼬질.(아, ‘콩꼬질’.)

107058 #2 콩꼬질, 꾀집. 저 경 꾀나무여 무시거 안 험 꾀집.(콩짚, 깻짚. 저 그
 령게 깻짚이여 무엇이여 안 하고 깻짚.)

107058 @ 으.(으.)

107058 #2 콩꼬질.(콩짚.)

107058 @ 으. 경험 자리, ㄴ슬자리 구워 먹어난예?(으. 그렇게 해서 자리돔, 가
 을자리돔 구워 먹었어요?)

107058 #2 으.(으.)

장 담그기

199) 여기서 ‘나무’는 짚으로, ‘꾀 나무’는 ‘깻짚’을 가리킨다.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장?(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장은 아무렇게나 허는 사람은 해도 딱 시기로 말하면 음력 한 시월 말 돼영 십일월 초 돼민 메주를 썬야.(장은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은 해도 딱 시기로 말하면 음력 한 시월 말 되어서 십일월 초 되면 메주를 썬야.)

107059 @ 으.(으.)

107059 #2 이 새해 낡은 장을, 남저 있고 현 집은 안 담는다고 입춘 전에. 옛날에도 건 철저히, 입춘 전에.(이 새해 나서는 장을, 남자 있고 한 집은 담는다고 입춘 전에. 옛날에도 건 철저히, 입춘 전에.)

107059 @ 아.(아.)

107059 #2 목은해라고(목은해라고)

107059 @ 으.(으.)

107059 #2 신년 아니 난 때.(신년 아니 난 때.)

107059 @ 으.(으.)

107059 #2 그때 장을 돕는 거.(그때 장을 담그는 거.)

107059 @ 아, 장을 담는 거예?(어, 장을 담그는 거요?)

107059 #2 으.(으.)

107059 @ 그니까 저기, 저기 메주 삶고 허는 거는 음력?(그러니까 저기, 저기 메주 삶고 하는 거는 음력?)

107059 #2 음력 시월 그물어 가민 동지덜 보름 전에 메주를 삶아야.(음력 시월 저물어 가면 동짓달 보름 전에 메주를 삶아야.)

107059 @ 으, 삶아야.(으, 삶아야.)

107059 #2 삶아야 동지덜에 저 더러 물르고 선덜에 물라야 선덜 그물어 가민 장을 돕아 베야주게.(삶아야 동짓달에 저 더러 마르고 선달에 말라야 저물어 가면 장을 담가야지.)

107059 @ 으.(으.)

107059 #2 음력으로 정월 날 때 장을 잘 안 돕아.(음력으로 정월 날 때 장을 잘 안 담가.)

107061 @ 케민 장, 장 담그는 법 좀 알아줍서. 어떻 담그는지?(그럼 장, 장 담그는 법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담그는지?)

107061 #2 장 담그는 건 두 가지.(장 담그는 건 두 가지.)

107061 @ 음.(음.)

107061 #2 어떤 어명은 소금을 맹물에다가 낡 막 젓으면 그 소금을 녹으면 우리가 소금을 먹어도 굉장히 나쁜 걸 먹엄서. 소금 그 소금 만드는 데서 그 갯벌.(어떤 어머니는 소금을 맹물에다가 넣고 막 저으면 그 소금을 녹으면 우리가 소금을 먹어도 굉장히 나쁜 걸 먹고 있어. 소금 그 소금 만드는 데서 그 갯벌.)

107061 @ 으.(으.)

107061 #2 더러운 것이 소금에 부텨어.(더러운 것이 소금에 붙었어.)

107061 @ 으.(으.)

107061 #2 계민 소금이 지금 하얗해도 그 소금물을 안청당 보민 창에 검으롱한 저 거기 뭐 저 텔레비 보민 저디 조개 잡으레 간 디. 그런 색깔로 물이 더러우면 솔허게 우이 물로만 깨끗한 거 딸라 놔서 메주만 씻어근에 들이청 돕는 사름. 또 어떤 사름은 맹물에 메주를 들이쳐 놓고 알븐 광목 형벽 해서 주머니 접아 가지고. (그럼 소금이 지금 하얗도 그 소금물을 안쳤다가 보면 바닥에 검은 저 거기 뭐 저 텔레비전에 보면 저기 조개 잡으러 간 데. 그런 색깔로 물이 더러우면 살짝 위에 물로만 깨끗한 거 따라 놔서 메주만 씻어서 들어뜨려서 담그는 사름. 또 어떤 사름은 맹물에 메주를 들어뜨려 놓고 얇은 광목 형걸 해서 주머니 접어 가지고.)

107061 @ 으.(으.)

107061 #2 그레 속에 소금을 놔서 쌍 그레 탁 들이쳐. 털어지지 말게 이런 걸로 걸러근에 영 행 들이쳐. 경 두 가지로 담야, 두 가지로.(그리 속에 소금을 넣어서 싸서 그리 탁 들어뜨려. 떨어지지 않게 이런 걸로 걸려서 이렇게 해서 들어뜨려.)

107061 @ 으, 으. 계민 어무니는 어떻 담가나신지 메주 삶는 거부터 영 글아 줘서. 메주 삶는 거부터.(으, 으.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담갔었는지 메주 삶는 거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메주 삶는 거부터.)

107061 #2 메주는 어떻 헤여, 메주는 삶으, 메준 콩 내일 삶으려면 오늘 물에 담갔당.(메주는 어떻게 해, 메주는 삶는, 메준 콩 내일 삶으려면 오늘 물에 담갔다가.)

107061 @ 으. 얼마나 헤낫수과? 몇 웨, 아니 몇 말?(으. 얼마나 했었습니까? 몇 되, 아니 몇 말?)

107061 #2 전에 다른 반찬 엇어. 주로 그 웬장만 먹영 살 때는 혼 서 말 정도 헤나신디.(전에 다른 반찬 엇어. 주로 그 된장만 먹고 살 때는 한 서 말 정도 했었는데.)

107061 @ 어, 어.(어, 어.)

107061 #2 이젠 혼 말.(이젠 한 말.)

107061 @ 아, 이젠 혼 말?(아, 이젠 한 말?)

107061 #2 혼 말. 혼 말 해도 애기덜도 가져가도 혼 말이면 먹는다.(한 말. 한 말 해도 아기들도 가져가도 한 말이면 먹는데.)

107061 @ 으.(으.)

107061 #2 메주 삶양게 요렇게 동글동글 해서 티왕.(메주 삶아서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티워서.)

107061 @ 으.(으.)

107061 #2 하여튼 메주를 삶양 장 돕는 날 새에 혼 오십 일.(하여튼 메주를 삶아서 장 담그는 날 새에 한 오십 일.)

107061 @ 으.(으.)

107061 #2 오십 일 셔야 완전 몰라.(오십 일 있어야 완전 몰라.)

107061 @ 음.(음.)

107061 #2 그러면 거 선덜, 정월 안 난 때 선덜에 그거 씻엉 장을 담그는 거주께.(그러면 거 선덜, 정월 안 난 때 선덜에 그거 씻어서 장을 담그는 거지.)

107061 @ 으, 음.(으, 음.)

107061 #2 걁 그거 씻엉, 그 나는 올히도 돕는다. 난 소금을 써 보니까 너무 추접허길래 난 소금을 씻어.(그렇게 그거 씻어서, 그 나는 올해도 돕는데. 난 소금을 써 보니까 너무 추접하기에 난 소금을 씻어.)

107061 @ 으.(으.)

107061 #2 씻엉 장을 험서.(씻어서 장을 하고 있어.)

107061 @ 아, 기과. 녹아 불지 안 해. 녹아 흘러내려 불지 안 해?(아, 그렇습니까. 녹아 버리지 않아. 녹아 흘러내려 버리지 않아?)

107061 #2 손해야 가지.(손해야 가지.)

107061 @ 으.(으.)

107061 #2 거주만은 소금을 물에 확 흔 번 것어근에 대 차룽, 저 나일론 차룽디레 삭 건지민 저 삼분지 일은 손해 강 녹아 불어.(가지만 소금을 물에 확 한 번 저어서 대 채룽, 저 나일론 채룽에 삭 건지면 저 삼분의 일은 손해 가서 녹아 버려.)

107061 @ 어, 어.(어, 어.)

107061 #2 손해 가도 그걸 널엉 싹 들류와근에 후라이팬에 볶아.(손해 가도 그걸 널어서 싹 말려서 프라이팬에 볶아.)

107061 @ 아.(아.)

107061 #2 볶양 장을 돕는다 게난 어떤 사름 잘못헛당 장 쓰기도 허주께. 소금 잘못 만남.(볶아서 장을 담그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잘못헛다가 장 쓰기도 하지. 소금 잘못 만나서.)

107061 @ 아.(아.)

107061 #2 쓰기도 허는다 그런 거 엇이. 게난 장 돕는 것도 그것베끼 엇고 무시 거라 장.(쓰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장 담그는 것도 그거밖에 없고 무시 엇이야 장.)

107061 @ 그민 메주, 메주 슨젠 허민 콩 전날 물에 불리는 거마씨?(그림 메주, 메주 삶으려고 하면 콩 전날 물에 불리는 겁니까?)

107061 #2 응.(응.)

107061 @ 메주 슨을 때는 슯디 낱, 옛날 슨아난 거예, 영 불 지렸을 거 아니예?(메주 삶을 때는 슨에 넣고, 옛날 삶았던 거요, 이렇게 불 지렸을 거 아니요?)

107061 #2 으.(으.)

107061 @ 그민 콩은 슯디 어느 정도 낱 물 얼마나 낱 슨읍니까?(그림 콩은 슨에 어느 정도 넣고 물 얼마나 넣고 삶습니까?)

107061 #2 아이고, 그거는 이 슨아 가당 물 족아가민 더 놓고.(아이고, 그거는 이 삶아 가다가 물 적어 가면 더 놓고.)

107061 @ 아, 물 더 넣고?(아, 물 더 넣고.)

107061 #2 으.(으.)

107061 @ 그냥 찬물 더 비와 가명?(그냥 찬물 더 비워 가면서?)

107061 #1 으, 찬물 더 비와 가명.(으, 찬물 더 비워 가면서.)

107061 @ 케민, 메주는, 메주는 반은 놓니까, 가득 차게 놓니까?(그럼, 메주는, 메주는 반은 넣습니까, 가득 차게 넣습니까?)

107061 #2 콩 저 물 불른 것도 반 조금 넘어 노노렌 해도 불, 삶아 가민 막 물이 넘어근에 경 그득 못 놔.(콩 저 물 분 것도 반 조금 넘게 넣느라고 해도 불, 삶아 가면 마구 물이 넘어서 그렇게 가득 못 놔.)

107061 @ 으. 케민, 메주 삶아 가지고 만들잖아예?(으. 그럼, 메주 삶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107061 #2 으.(으.)

107061 @ 어떻 주물러? 막 발로 밟아?(어떻게 주물러? 마구 발로 밟아?)

107061 #2 저.(저.)

107061 @ 삶아진 거.(삶아진 거.)

107061 #2 발 깨끗이 씻어 보선 신영.(발 깨끗이 씻어서 보선 신고.)

107061 @ 삶는 거 몇 시간 정도 삶습니까?(삶는 거 몇 시간 정도 삶습니까?)

107061 #2 거 콩이 좋은 건 삶는 것도 쉽고.(거 콩이 좋은 건 삶는 것도 쉽고.)

107061 @ 어.(어.)

107061 #2 콩이 굵은 건 삶는 것도 오래난 거 몇 시간이렌 할 수 있어?(콩이 굵은 건 삶는 것도 오래니까 거 몇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

107061 @ 그냥 먹어 보명?(그냥 먹어 보면서?)

107061 #2 으.(으.)

107061 @ 삶아져신지 안 삶아져신지.(삶아졌는지 안 삶아졌는지.)

107061 #2 먹어 보명.(먹어 보면서.)

107061 @ 먹어 보명.(먹어 보면서.)

107061 #2 먹어 보명 삶아질 만이 삶아지민 두께 흐쫄 폭 허게 뜸 들이민.(먹어 보면서 삶아질 만큼 삶아지면 뚜껑 조금 폭 하게 뜸 들이면.)

107061 @ 으.(으.)

107061 #2 케민 다라에 놔근에 발 깨끗이 씻어 뒵 여기 보선, 깨끗한 거 새 보선 신영.(그럼 대야에 놓고 발 깨끗이 씻어 두고 여기 버선, 깨끗한 거 새 버선 신고.)

107061 @ 으.(으.)

107061 #2 불르는 거주게.(끓는 거지.)

107061 @ 으, 다라에 들엉.(으, 대야에 들어서.)

107061 #2 으, 블루민 불라져시민. 그렇지 았으면 무신 차두에 콩을 담아 가지고.(으, 끓으면 끓아지면. 그렇지 았으면 무슨 자루에 콩을 담아 가지고.)

107061 @ 으.(으.)

107061 #2 또 차두 다라에 놔근에 그자 다라 안에서 차두 영 주둥이 심어 가지고 영 혜영 영 블루던가.(또 자루 대야에 놓고 그저 대야 안에서 자루 이렇게 주둥이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든가.)

107061 @ 으. 차두가 뭐파?(으. '차두'가 뭐니까?)

107061 #2 저 비료 푸텐 뭐 천으로 멘근 거든.(저 비료 부대인데 뭐 천으로 만든 거든.)

107061 @ 아, 아 그.(아, 아 그.)

107061 #2 잘리, 잘리.(자루, 자루.)

107061 @ 잘리에?(자루요?)

107061 #2 으.(으.)

107061 @ 쌀잘리 같은 데 담아 가지고.(쌀자루 같은 데 담아 가지고.)

107061 #2 응, 그렇게 허던가. 다 지 의견만씩 혜여.(응, 그렇게 하던가. 다 자기 의견만큼씩 해.)

107061 @ 게민 어머니네는 툭툭툭 행 네모나게 만들영.(그럼 어머니네는 툭툭툭 해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107061 #2 으.(으.)

107061 @ 매달니까? 매달양 물렸수과, 그냥 물렸수과?(매달니까? 매달아서 말렸습니까, 그냥 말렸습니까?)

107061 #2 응, 매달양.(응, 매달아서.)

107061 @ 매달양.(매달아서.)

107061 #2 거 흔 이틀 영 아래 놔근에 영 시민 거 물 흐썰 빠지민, 전인 엇어도 어디 잇는디 사름ㄱ라 흐썰 혜다 도렌 헨 째으로도. 테레비 거이 째으로도 혜낫주 만든.(거 한 이틀 이렇게 아래 놓고 이렇게 있으면 거 물 조금 빠지면, 전엔 없어도 어디 잇는데 사람에게 조금 혜다 달라고 해서 째으로도. 텔레비전에 거 째으로도 했었지만.)

107061 @ 으.(으.)

107061 #2 엇이민 그자 다른 걸로 혜영. 매들면은 그 매든 디서 그 곰팡이가 나오면 터 가주게.(없으면 그저 다른 걸로 해서. 매달면 그 매단 데서 그 곰팡이가 나오면 떠 가지.)

107061 @ 음.(음.)

107061 #2 나오명 트명 물르명 그자 허민.(나오면서 뜨면서 말리면서 그저 하면.)

107061 @ 으.(으.)

107061 #2 흔 사십일 넘어가 가민 영 문직아 보민 판판허민 물랏구나 혜영.(한 사십일 넘어가면 이렇게 만져 보면 판판하면 말랏구나 해서.)

107061 @ 어디 걸어 뒤마씨?(어디 걸어 둥니까?)

107061 #2 우리 요 현관에 요 방 앞이 우린 걸영 내불어.(우리 요 현관에 요 방 앞에 우린 걸어 뒤.)

107061 @ 하하하. 아, 여기 앞에 뭐 있으니까?(하하하. 아, 여기 앞에 뭐 있으니까?)

107061 #2 으, 으.(으, 으.)

107061 @ 그민 뭐 그늘에 말려야 되는 건 아니다예. 햇빛 받아도 되는 거다 예?(그럼 뭐 그늘에 말려야 되는 건 아니네요. 햇빛 받아도 되는 거네요?)

107061 #2 햇빛 받아도 되는데, 영 집 안에서 영 햇볕 받은 건 허는데 그걸 터서 채 돌리지 안 현 거 저 밖에다 앓당 내놓민.(햇빛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햇볕 받은 건 하는데 그걸 떠서 채 마르지 않은 거 저 밖에다 가져다 내놓으면.)

107061 @ 으.(으.)

107061 #2 막 벌러져 불어.(막 벌어져 버려.)

107061 @ 으.(으.)

107061 #2 벌러져 불어.(벌어져 버려.)

107061 @ 계난 그늘에. 저도 어렸을 때 막 만들었던 거, 안에 집 안에.(그러니까 그늘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만들었던 거, 안에 집 안에.)

107061 #2 으. 벌어져 불어.(으. 벌어져 버려.)

107061 @ 고팡에 걸어 왔던 거 생각나마씨.(고방에 걸어 왔던 거 생각나요.)

떡류

107064 @ 떡 종류 말해 줘서. 떡 종류. 무신 떡, 무신 떡 잇수과, 떡 종류?(떡 종류 말해 주세요. 떡 종류. 무슨 떡, 무슨 떡 있습니까, 떡 종류?)

107064 #2 아이고, 이제 떡 수정도 하지. 옛날엔 떡 영 하영 안 해서.(아이고, 이제 떡 수도 많지. 옛날에 떡 이렇게 많이 안 했어.)

107064 @ 예, 옛날 거 옛날 거. 옛날에 무슨 떡, 식게나 멧질 허젠 허민?(예, 옛날 거 옛날 거. 옛날에 무슨 떡, 제사나 멧질 하려고 하면?)

107064 #2 멧질 허젠 허면은 요즘은 판 놓고 저 시루떡 현 것이 이것도 허고 저것도 허지만, 옛날에 어른덜은 이 꺾이 구신 다올리는 곡식이라고 해 가지고.(멧질 하려고 하면 요즘은 판 놓고 저 시루떡 한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이 꺾이 귀신 쫓는 곡식이라고 해 가지고.)

107064 @ 으, 으.(으, 으.)

107064 #2 계난 지도 알주. 이사할 때 팏빵 올려근에 다 허고 허난.(그러니까 자기도 알지. 이사할 때 팏빵 올려서 다 하고 하니까.)

107064 @ 으.(으.)

107064 #2 아는 사름덜은 팏떡을 제사에 안 썬.(아는 사름들은 팏떡을 제사에 안 썬.)

107064 @ 음.(음.)

107064 #2 사름이 죽어서 삼 년 전에는 스몛 구신이 아닌 산 일양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서 삼 년 전에는 사몛 귀신이 아닌 산 일양이라고 해서.)

107064 @ 음.(음.)

107064 #2 곧 죽을 때는 재물떡이라고 해서 꾀떡을 허는데.(곧 죽을 때는 재물
떡이라고 해서 팔떡을 하는데.)

107064 @ 으.(으.)

107064 #2 게난 옛날에 제사에 써난 건 제편, 흰 떡.(그러니까 옛날에 제서에
썼던 건 백설기, 흰 떡.)

107064 @ 제편.(백설기.)

107064 #2 흰 시루.(흰 시루.)

107064 @ 으, 으.(으, 으.)

107064 #2 요즘 백설기지.(요즘 백설기지.)

107064 @ 으. 아, 예전에 제편이런 불러난예?(으. 아, 예전에 백설기라고 불렀었
죠?)

107064 #2 옛날엔 제편.(옛날엔 백설기.)

107064 #2 으. 제편 해서 그거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솔벤 절벤 행 놔뉜주게. 솔
벤, 절벤허고 그 요즘은 움떡²⁰⁰⁾이 나왔는데 옛날엔 그렇게 움떡을 할 줄 몰르고
어떻게 해서 집이서 그루를 췌으니까 도구방²⁰¹⁾에 뉜. 그 움떡은 방앗간에서 빠는
거니까 그런 건 못허고 저 잘 식구도 많고 이제 모든 재료가 곡식이 많은 부자는
제사허젠 허민 친척덜이 오라서 그루도 췌고 제편허고 솔벤 절벤 인절미 우췌.(으.
시루떡 해서 그거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솔편 절편 해서 뉜었지. 솔편, 절편하고 그
요즘은 ‘움떡’이 나왔는데 옛날엔 그렇게 ‘움떡’을 할 줄 몰르고 어떻게 해서 집에서
가루를 뉜으니까 절구에 놓고. 그 ‘움떡’은 방앗간에서 뉜는 거니까 그런 건 못하고
저 잘 식구도 많고 이제 모든 재료가 곡식이 많은 부자는 제사하려고 하면 친척들
이 와서 가루도 뉜고 시루떡하고 솔편 절편 인절미 웃기떡.)

107064 @ 으.(으.)

107064 #2 이것이 기본이라이.(이것이 기본이야.)

107064 @ 아, 예 예.(아, 예 예.)

107064 #2 제편은 아래 놓곡.(시루떡은 아래 놓고.)

107064 @ 제편은 아래 놓고?(시루떡은 아래 놓고.)

107064 #2 그 다음은 인절미.(그 다음은 인절미.)

107064 @ 인절미.(인절미.)

107064 #2 그 다음은 절벤.(그 다음은 절편.)

107064 @ 으.(으.)

200) ‘움떡’은 기계로 만든 떡을 말한다.

201) ‘도구방’은 절구를 말한다. ‘도구방에’라고도 한다.

107064 #2 그 다음은 솔벤.(그 다음은 솔편.)

107064 @ 으.(으.)

107064 #2 그 다음은 우짚. 우짚은 거 우리 기름떡 같은 거.(그 다음은 웃기떡. 웃기떡은 거 우리 기름떡 같은 거.)

107064 @ 으.(으.)

107064 #2 원 그건 없어서 못 허는 사람은 ㄱ루를 ㅂ아 가지고.(원 그건 없어서 못 하는 사람은 가루를 ㅂ아 가지고.)

107064 @ 으.(으.)

107064 #2 저 그 새미 모양으로 만두 새길 만드는 거여.(저 그 새미 모양으로 만두 새길 만드는 거야.)

107064 @ 아.(아.)

107064 #2 이거 저거 복잡하게 안 해근예.(이거 저거 복잡하게 안 해서.)

107064 @ 아.(아.)

107064 #2 조개송편이라고.(조개송편이나고.)

107064 @ 조개송편이렌 불릅니까, 그걸?(조개송편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107064 #2 으, 조개송편.(으, 조개송편.)

107064 @ 음.(음.)

107064 #2 그거 허고 또 너무 없는 사람은 그 집이 ㅁ물을 그뎨 많이 같아나니까, 원 조만 불렛당²⁰²⁾ 그르쳐도 ㅁ물 같고 ㅁ물은 혼전허니까.(그거 하고 또 너무 없는 사람은 그 집에 메밀을 그뎨 많이 같았었으니까, 원 조만 같았다가 그르쳐도 메밀 같고 메밀은 혼전하니까.)

107064 @ 으.(으.)

107064 #2 정기, 정기.(빙떡, 빙떡.)

107064 @ 으, 정기.(으, 빙떡.)

107064 #2 으, 정기 행 쓰곡.(으, 빙떡 해서 쓰고.)

107064 @ 음.(음.)

107064 #2 주로 이제난 이거 저거주 옛날에 떡 이름이. 게고 막 없는 저 제웬만 제사 때는 제웬을 허는디 기자 대상 때고 소상 할 때는 그런 떡을 주로 사용허젠 허민 얼마나 없어야 혼착은 곧 ㄱ루 혼착은 조 ㄱ루 헤영 두 가지 ㄱ루 행도 떡 혼 빗²⁰³⁾을 만들어.(주로 이제니까 이거 저거지 옛날에 떡 이름이. 그리고 아주 없는 저 시루떡만, 제사 때는 시루떡을 하는데 그저 대상 때고 소상 할 때는 그런 떡을 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없어야 한쪽은 흰 가루 한쪽은 조 가루 해서 두 가지 가루 해서도 떡 한 ‘빗’을 만들어.)

107064 @ 아, 앞뒤를 다르게.(아, 앞뒤를 다르게.)

107064 #2 으.(으.)

202) ‘불르다’는 표준어의 ‘밟다’에 대응한다. 여기를 ‘조를 불르다’는 ‘조를 갈다, 조농사를 짓다’의 의미다.

203)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107064 @ 아, 하하.(아, 하하.)

107064 #2 거 곤 ㄹ루 쫄ㄹ루가 어려우니까.(거 흰 가루 쌀가루가 어려우니까.)

107064 @ 으.(으.)

107064 #2 조 ㄹ룬 자기 집에서 만들어노난 잇고 허민.(조 가룬 자기 집에서 만드니까 잇고 하면.)

107064 @ 으.(으.)

107064 #2 조 ㄹ루 반착, 쫄ㄹ루 반착 해서도 그걸 알기 쉽게 말허민 제펜곤떡으로 쓰는 거여.(조 가루 반쪽, 쌀가루 반쪽 해서도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 백설기로 쓰는 거야.)

107064 @ 곤떡으로 쓰는 거예?(흰떡으로 쓰는 거요?)

107064 #2 으, 경 옛날엔 떡이 그처럼 다 쫄 불렀다가 방에에 뺏고 또 대상이나 소상이나 영장이 나 가면 그 민속촌에 물방에 잇지이?(으, 그렇게 옛날엔 떡이 그렇게 다 쫄 불렀다가 방아에 뺏고 또 대상이나 소상이나 영장이 나면 그 민속촌에 연자방앗간 잇지?)

107064 @ 으, 으.(으, 으.)

107064 #2 그것에 굴곡 헤난. 떡방아가 이제사 나온 거주. 거 무신 전이 나왔어?(그것에 같고 했었어. 떡방아가 이제야 나온 거지. 거 무슨 전이 나왔을까?)

107064 @ 으, 그지예?(으, 그렇지요?)

107064 #2 으.(으.)

107064 @ 계민, 시루떡이 제펜이랑 같은 거잖아예?(그럼, 시루떡이 백설기랑 같은 거잖아요?)

107064 #2 거 시루에서 치는 거주게.(거 시루에서 찌는 거지.)

107064 @ 으, 시루에서 치는 거.(으, 시루에서 찌는 거.)

107064 #2 그 시루에서 문친떡²⁰⁴도 치곡.(그 시루에서 ‘문친떡’도 찌고.)

107064 @ 으.(으.)

107064 #2 제펜도 치곡.(백설기도 찌고.)

107064 @ 문친떡?(‘문친떡’?)

107064 #2 문친떡은 팯 논 거.(‘문친떡’은 팔 넣은 거.)

107064 @ 아. 문친떡은 팯 논 거?(아. ‘문친떡’은 팔 넣은 거.)

107064 #2 어. 팯 안 논 건 제펜.(어. 팔 안 넣은 건 백설기.)

107064 @ 아, 계난 백설기는 제펜.(아, 그러니까 백설기는 백설기.)

107064 #2 으.(으.)

107064 @ 팯 들어간 건 문친떡. 그 팯만 험니까? 콩도 험니까?(팔 들어간 건 ‘문친떡’. 그 팔만 합니까, 콩도 하지요?)

107064 #2 무신 콩?(무슨 콩?)

107064 @ 검은 콩 삶아 가지고 안 험니까? 안 허여?(검은 콩 삶아 가지고 안

204) ‘문친떡’은 시루떡의 한 종류다. 팔을 고물로 썼다.

합니까? 안 해?)

107064 #2 옛날에는 검은 콩이 있어서게? 그때.(옛날에는 검은 콩이 있어? 그때.)

107064 @ 아.(아.)

107064 #2 검은콩도 어느 나라서사 와신디, 이제 난 거주.(검은콩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제 난 거주.)

107064 @ 아.(아.)

107064 #2 그자 그뎨 주로 풋 집이 갈앗단 풋.(그저 그뎨 주로 팔 집에 갈앗다가 팔.)

107065 @ 그림, 이 제펜 만드는 거, 시루떡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줘서. 어떻게 합니까?(그림, 이 시루떡 만드는 거, 시루떡 만드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107065 #2 시루떡 만드는 건 방에에 ㄹ루를 곱아 가지고.(시루떡 만드는 건 방아에 가루를 곱아 가지고.)

107065 @ 쌀 물에 담갔당?(쌀 물에 담갔다가?)

107065 #2 쌀 물에 담갔당.(쌀 물에 담갔다가.)

107065 @ 으.(으.)

107065 #2 방에에 ㄹ아 가지고 ㄹ는 사름 여기서 ㄹ아지는 거 ㄹ으민 처근에 아래 ㄹ린 ㄹ룬 내 불고 체 우이 건 또 ㄹ아 ㄹ ㄹ긱 행 막 힘들어. 경 다 ㄹ아 ㄹ ㄹ아지민 방에 ㄹ여오랑 그 ㄹ ㄹ라에 헤도 좋고 허주만은 옛날엔 요즘처럼 좋은 ㄹ라가 ㄹ주게. 나무 도고리라고 그런 것도 ㄹ고. 나무로 판 도구리.(방아에 ㄹ아가 가지고 ㄹ는 사름 여기서 ㄹ아지는 거 같으면 처서 아래 내린 가룬 내 버리고 체 위에 건 또 ㄹ아 놓고 ㄹ고 해서 아주 힘들어. 그렇게 다 ㄹ아 놓고 ㄹ아지면 방에 ㄹ여와서 그 ㄹ ㄹ야에 헤도 좋고 하지만 옛날엔 요즘처럼 좋은 ㄹ야가 ㄹ지. 나무 함지박이라고 그런 것도 ㄹ고. 나무로 판 함지박.)

107065 @ ㄹ 도구리엔 합니까?(나무 함지박이라고 합니까?)

107065 #2 으, ㄹ 도구리도 ㄹ고 이제 그렇지 안 허민 장테²⁰⁵, 장테라고 허주. 대정²⁰⁶서 만든 거 플레 오는 사기 장테.(으, 나무 함지박도 ㄹ고 이제 그렇지 안 하면 ‘장테’, ‘장테’라고 하지. 대정에서 만든 거 팔러 오는 사기 ‘장테’.)

107065 @ 으.(으.)

107065 #2 거 옹기 플레 오는 거. 그런 것에 그걸 ㄹ 간을 맞창 물을 살살 그 ㄹ루에 서껴 가지고 ㄹ 힘 ㄹ 다가도록 미는 거야. 그 ㄹ를를. ㄹ루에서 막 칭이 나민, ㄹ 정도로 밀어 가지고 그 시루에 창이 시루 고망 터졌지.(거 옹기 팔러 오는 거. 그런 것에 그걸 놓고 간을 맞춰서 물을 살살 그 가루에 섞어 가지고 ㄹ 힘을 다해서 미는 거야. 그 가루를. 가루에서 아주 ㄹ이 나면, ㄹ 정도로 밀어 가지고 그

205) ‘장테’는 양푼 모양으로 만든 질그릇을 말한다.

206) ‘대정’은 제주시 대정읍의 행정 마을 중 하나다.

시루에 바닥이 시루 구멍이 터졌지.)

107065 @ 으, 으.(으, 으.)

107065 #2 고망 막을라면 대썩을, 다니다 보민 대 잊지, 대.(구멍을 막으려면 댓잎을, 다니다 보민 대 잊지, 대.)

107065 @ 예.(예.)

107065 #2 대썩을 타다서 이거 대썩이면 울로 나무에 붙여 낱 그치곡 꼭다리 그치곡 혜영 반씩 찢어다 놔서.(댓잎을 따다가 이거 댓잎이면 여기로 나무에 붙여 놓고 자르고 꼭지 자르고 해서 깨끗하게 찢어다 놔서.)

107065 @ 으.(으.)

107065 #2 시루 창에 그 대썩을 싹 끌아 가지고 그 가루 밀어 논 걸 뒀는 거여, 사발로.(시루 바닥에 그 댓잎을 싹 깔아 가지고 그 가루 밀어 놓은 걸 되는 거야, 사발로.)

107065 @ 으.(으.)

107065 #2 흔 징이라 허여. 하나 두께가 흔 징. 싹 그걸 뒀영 거기 낱 손으로 살살. 손재주도 좋아야 뒀여.(한 층이라고 해. 하나 두께가 한 층. 싹 그걸 되어서 거기 놓고 손으로 살살. 손재주도 좋아야 돼.)

107065 @ 하하하.(하하하.)

107065 #2 높은 디나 나자운 디 엇어야주게. 게민 떡이 두터운 거 알론 거 엇지. 경허영 흔 도리²⁰⁷⁾ 헤지민 또 ㄱ루 안 들게 그 대썩을 재깍²⁰⁸⁾ 또 더뜨는 거여. 또 더평 또 ㄱ루 뒀영 놔근에 막 그 할머니들이 그때 재주라. 또 막 살 살 살 혜근에 영 그 시루로 하나, 흔 시루 떡 놓젠 허민 막 시간 걸리게. 둘리가 대썩 더 퍼 주는 사람도 잊곡 혜영 그걸 놔근에 험벅 톱 더경 그걸 솟디 낱 솟 우이 낱 그거.(놓은 데나 낮은 데 없어야지. 그럼 떡이 두꺼운 거 얇은 거 없지. 그래서 한 층 하면 또 가루 안 들게 그 댓잎을 빈틈없이 또 덮는 거야. 또 엇어서 또 가루 돼서 넣고 그 할머니들이 그때 재주야. 또 아주 살 살 살 해서 이렇게 그 시루로 하나, 한 시루 떡 놓으려고 하면 아주 시간 걸리게. 둘이 댓잎 덮어 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놓고 형겅 톱 덮어서 그걸 술에 놓고 술 위에 놓고 그거.)

107065 @ 으.(으.)

107065 #2 영 이거, 이것을 이거이 만약에 솟이다 허민 이디 영 앓지민.(이렇게 이거, 이것을 이것이 만약에 솟이다 하면 여기 이렇게 엇히면.)

107065 @ 으.(으.)

107065 #2 일로 뭐 공기 나가카 부덴.(여기로 뭐 공기 나갈까 봐.)

107065 @ 으.(으.)

107065 #2 ㄱ루 또 물 꺾어서 짹 허게 막고 혜영 댓 시간 또 그것도 막 오래여. 경 행 딸렁 이제 비우면 재수가 좋으면 잘 소록허게²⁰⁹⁾ 익는데. 요즘은 방앗간에서

207) '도리'는 돌레를 돌게 겹을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여기서는 시루떡의 한 층을 가리키고 있다.

208) '재깍'은 빈틈없이 꼭 찬 모양을 말한다. '째깍', '찍깍', '직깍'이라고도 한다.

멧 분이면 팡팡 익는다.(가루 또 물 이겨서 짹 하게 막고 해서 몇 시간 또 그것도 아주 오래. 그렇게 해서 달여서 이제 비우면 재수가 좋으면 잘 ‘소룩’하게 익는데. 요즘은 방앗간에서 멧 분이면 팡팡 익는데.)

107065 @ 하하하.(하하하.)

107065 #2 재수가 굿이민 혼쪽은 익고 혼쪽은 설고.(재수가 굿으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설고.)

107065 @ 하하.(하하.)

107065 #2 경혜영 그걸 또 빗 간격으로 요렇게 헤민 요렇게, 요렇게. 혼 도리 헤 불민 또 대썩 이시민 대썩 때 똥.(그래서 그걸 또 ‘빗’ 간격으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요렇게. 한 층 하면 또 댓잎 있으면 댓잎 때 두고.)

107065 @ 예.(예.)

107065 #2 계난 그때 시절에는 얼마나 헛는지 그 대썩 부튼 거 이시민 그 대썩 뜯어 먹젠 아이덜이 막 돌아져.(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얼마나 헛는지 그 댓잎 붙은 거 있으면 그 댓잎 뜯어 먹으려고 아이들이 많이 매달려.)

107065 @ 하하.(하하.)

107065 #2 대썩에도 영 떼는디 조금씩 부트주게.(댓잎에도 이렇게 떼는데 조금씩 붙지.)

107065 @ 예.(예.)

107065 #2 경현 그것이 보통 제사 때 쓰는 거고.(그래서 그것이 보통 제사 때 쓰는 거고.)

107065 @ 아, 제사 때 쓰는 거.(아, 제사 때 쓰는 거.)

107065 #2 그자 문친떡,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제사 때에 상에만 올리곡이. 그나마 또 그 풋 노명, 대썩 노명 경 힘들게 안 허영 풋 노명은 흐썰 쉽주. 흐썰 더 두텁고. 갱 풋 노명 혜영 그건 그자 친족들도 나뉘고 먹고 그자 영.(그저 ‘문친떡’,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제사 때에 상에만 올리고. 그나마 또 그 팔 놓으면서, 댓잎 놓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안 하고 팔 놓으면서는 조금 쉽지. 조금 더 두껍고. 그래서 팔 놓으면서 해서 그건 그저 친척들도 나뉘서 먹고 그저 이렇게.)

107065 @ 아, 대썩 낱 하얗게 하는 것보다 풋 낱 허는 게 쉬워마씨?(아, 댓잎 놓고 하얗게 하는 것보다 팔 놓고 하는 게 쉬워요?)

107065 #2 으, 쉬워. 건 풋 뽏아근에 그자.(으, 쉬워. 건 팔 뽏아서 그저.)

107065 @ 으.(으.)

107065 #2 혼 도리 사발로 ㄱ루 얼만이 거러 낱 살 살 살 허영 또 풋 잘 살 살 허꺼근에 또 ㄱ루 놓곡 허민 허는디 대썩은 ㄱ리 아니 새여들게 그 ㄱ루 위이 쟈깅 더끄젠 허민.(한 층 사발로 가루 어느만큼 떠 넣고 살 살 살 해서 또 팔 잘 살 살 섞어서 또 가루 놓고 하면 하는데 댓잎은 가루 아니 새여들게 그 가루 위에 빈틈없이 덮으려고 하면.)

209) ‘소룩허다’은 떡 따위가 폭신하고 부드럽게 잘 익은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107065 @ 으.(으.)

107065 #2 막 힘들주게.(아주 힘들지.)

107065 @ 아.(아.)

107065 #2 그 또 아무나, 기술자나 비습해사.(그 또 아무나, 기술자나 비슷해 야.)

107065 @ 하하.(하하.)

107065 #2 겨난 그땐 제우 나 알아진 건 그 솔벤 절벤 그거 허고. 그건 아니 허 민 원 안 허고 허민.(그러니까 그땐 겨우 나 알 수 있는 건 그 솔편 절편 그거 하 고. 그건 아니 하면 원 안 하고.)

107065 @ 음.(음.)

107065 #2 이 제웬허고 인절미, 절벤, 솔벤, 우썩 그건 기본이난.(이 시루떡 하 고 인절미, 절편, 솔편, 웃기떡 그건 기본이니까.)

107074 @ 그럼 솔벤은 어떻 만들어났수과? 솔벤 만드는 거 좀 곱아 줘서. 솔 벤.(그럼 솔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솔편 만드는 거 좀 말해 주세요. 솔편.)

107074 #2 그거는 솔벤.(그거는 솔편.)

107074 @ ㄱ루 곱아 왕?(가루 갈아 와서?)

107074 #2 ㄱ루 곱아 오면.(가루 갈아 오면.)

107074 @ 으.(으.)

107074 #2 이제 절벤 만드는 건 어떻게 허느냐.(이제 절편 만드는 건 어떻게 허느냐.)

107074 @ 으.(으.)

107074 #2 이제 물 쪼끔 그거 ㄱ 맞춰서 ㄱ루에 물 낱 요만씩 허게 오메기²¹⁰ 를 만들어서.(이제 물 조금 그거 ㄱ 맞춰서 가루에 물 넣고 요만큼씩 하게 ‘오메기’ 를 만들어서.)

107074 @ 음. 솟디 낱 막 삶는 거여.(음. 솥에 넣고 잘 삶는 거야.)

107074 @ 음.(음.)

107074 #2 삶양 이제.(삶아서 이제.)

107074 @ 삶는다는 건 물, 끓는 물속에 그냥 놔? (삶는다는 건 물, 끓는 물속에 그냥 놔?)

107074 #2 으. 끌린 물에 막 끌리주게.(으. 끓인 물에 마구 끓이지.)

107074 @ 으.(으.)

107074 #2 끌렁 익어서냐 설어서냐 것도 잘 못 보민 안 돼주. 다 그것도 딱 맞 아야.(끓여서 익었는지 설었는지 것도 잘 못 보면 안 되지. 다 그것도 딱 맞아야.)

107074 @ 으.(으.)

107074 #2 것도 끌린 물에 낱 삶양 익은 거 닳다 익은 거 닳다 허영 건지렌 허

210) ‘오메기’는 떡 이름의 하나다.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글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으로 팔고물을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는 ‘오메기 떡 모양’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영.(것도 끓인 물에 넣고 삶아서 익은 거 같다 익은 거 같다 해서 건지라고 해서.)

107074 @ 으.(으.)

107074 #2 그거 이제 조루 닳은 물 나가는 곰박으로, 곰박이라 떡 건지는 거.
(그거 이제 조리 같은 물 나가는 석자로, 석자야 떡 건지는 거.)

107074 @ 떡 건지는 거 곰박예?(떡 건지는 석자요?)

107074 #2 어. 곰박으로 건정 장텐가 뭐 옛날 말로 장테주 장테. 장테 그것에
냥 손 아니 뜨거울 만이 짐이 나가면은 이제는 막 달루는 거여.(어. 석자로 건져서
'장테'인가 뭐 옛날 말로 '장테'지 '장테'. '장테' 그것에 놓고 손 아니 뜨거울 만큼
김이 나가면 이제는 마구 이기는 거야.)

107074 @ 으.(으.)

107074 #2 절베히는 것만. 달뤄서 이제 떡이, 이제 헤질 거 ㄹ트면 그때는 사람
덜 모여 앗앙 그치명 요추록 헤근에 두 방울 헤지민 똑 두 개 마주 부쳐근에.(절편
하는 것만. 이겨서 이제 떡이, 이제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그때는 사람들 모여 앗아
서 자르면서 이렇게 해서 두 방울 하면 똑 두 개 마주 붙여서.)

107074 @ 으.(으.)

107074 #2 본 잊지 분.(떡살 잊지 떡살.)

107074 @ 예, 떡분.(예, 떡살.)

107074 #2 분으로 똑허게 누리뜨고.(떡살로 똑하게 누르고.)

107074 @ 아.(아.)

107074 #2 또 두 개 부짱 똑 허게 누르뜨고. 솔베히곡 인절미허곡 우짱은 똑 ㄹ
튼 종류로 저 물을 ㄹ루에 물을 서껴서.(또 두 개 붙여서 똑 하게 누르고. 솔편하고
인절미하고 웃기떡은 꼭 같은 종류로 저 물을 가루에 물을 섞어서.)

107074 @ 으.(으.)

107074 #2 저 알맞은 정도 뵈다 허면 요만씩 오메기보다 크게 이만씩 만들어.
(저 알맞은 정도 뵈다고 하면 이만큼씩 '오메기'보다 크게 이만큼씩 만들어.)

107074 @ 으.(으.)

107074 #2 만들양.(만들어서.)

107074 @ 으.(으.)

107074 #2 끓는 물에 들이청 잠깐. 혼 오 분 들이쳤다가 꺾데기만 쪼끔 익으면
건져 내는 거여.(끓는 물에 들이뜨려서 잠깐. 한 오 분 들이뜨렸다가 꺾데기만 조금
익으면 건져 내는 거야.)

107074 @ 아, 그거는.(아, 그거는.)

107074 #2 건져 내영 막 달좌.(건져 내어서 막 이겨.)

107074 @ 달황 뵈민 이제 밀어 가지고 그 분이 잊지 들 반착.(이겨서 되면 이
젠 밀어 가지고 그 떡살이 잊지 달 반쪽.)

107074 @ 예.(예.)

107074 #2 췌로 만든 거.(쇠로 만든 거.)

107074 @ 예.(예.)

107074 #2 밀어 가지고 술펜 두께만 이만 허민 들 반착으로 떠내어.(밀어 가지고 술펜 두께만 이만큼 하면 달 반쪽으로 떠내어.)

107074 @ 음.(음.)

107074 #2 떠내민 요건 또 어떻게 허느냐, 술입.(떠내면 요건 또 어떻게 하느냐, 술입.)

107074 @ 음.(음.)

107074 #2 소나무의 술입. 술입을 헤다 낫다가 술입을 해야지 미릿 헤영 놔둬야지.(소나무의 술입, 술입을 해 낫다가 술입을 해야지. 미리 해서 놔둬야지.)

107074 @ 음.(음.)

107074 #2 떡 허는. 헤다 낫다가 솟데 바드랭일 놓는 거여, 바드랭이.(떡 하는. 헤다 낫다가 술에 경그레를 놓는 거야, 경그레.)

107074 @ 음.(음.)

107074 #2 빠지지 안허게 놔서 술입 살 살 허게 혼 도리 놓고 떡 혼 도리 놔지민 또 술입 혼 도리 놓고 헤영 멧 징²¹¹⁾, 징 놔 가지고.(빠지지 않게 놓아 가지고 술입 살 살 하게 한 ‘도리’ 놓고 떡 한 ‘도리’ 놓으면 또 술입 한 ‘도리’ 놓고 해서 멧 층 층 놔서.)

107074 @ 으.(으.)

107074 #2 이제 쳐진 거 닳다 허면 술벤 허날 물, 박세기에 물 낳 영 내낳 흔들 흔들 흔들 안 익은 놈은 그릇 나명 벌러지고.(이젠 찌진 거 같으면 술펜 하나를 물, 바가지에 물 넣고 이렇게 내놓고 흔들흔들 흔들면 안 익은 놈은 금 나면서 벌어지고.)

107074 @ 으.(으.)

107074 #2 익은 놈은 안 벌러져.(익은 놈은 안 벌어져.)

107074 @ 으.(으.)

107074 #2 게민 익은 거 닳다 헤영 내영 물에 씻영 그놈을 다 술입 허멍 하나 하나 영 씻영 차룽에 놔서 물 빠지민 또 기름 불르고.(그림 익은 거 같다 해서 내서 물에 씻어서 그놈을 다 술입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씻어서 차룽에 놓고 물 빠지면 또 기름 바르고.)

107074 @ 으.(으.)

107075 #2 인절미 허고 그건 그추룩 헤영 두 가지는 그렇게 허고.(인절미 하고 그건 그렇게 해서 두 가지는 그렇게 하고.)

107075 @ 으.(으.)

107075 #2 우찍은 요즘 기름떡이라.(웃기떡은 요즘 기름떡이야.)

107075 @ 기름떡예.(기름떡요.)

211) ‘징’은 술에 무엇을 찼 때, 찌는 것이 술 안의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침으로 놓는 것이다. 표준어의 ‘경그레’인데, 여기서는 먼이 포개져 있는 층을 말하고 있다.

107075 #2 물 맞춰서 우썩 뿐이 요만이 헛 거 잊지?(물 맞춰서 웃기떡 떡살이 요만큼 한 거 잊지?)

107075 @ 음.(음.)

107075 #2 걸로 똑똑 누리뎡 터 가지고 이제 그건 옛날에도 후라이팬이 없을 때에도 솥뚜껑에라도 걸 조금 살짝.(걸로 똑똑 누르면서 떠 가지고 이제 그건 옛날에도 프라이팬이 없을 때라도 솥뚜껑에라도 걸 조금 살짝.)

107075 @ 아.(아.)

107075 #2 옛날은 그 빙떡을 솥뚜껑으로 허니까.(옛날은 그 빙떡을 솥뚜껑으로 하니까.)

107075 @ 예, 예.(예, 예.)

107075 #2 그때라도 살짝 솥뚜껑에 놔도 너무 아니 해도 살짝 흐썩 헤영 우썩으로 쓰고.(그때라도 살짝 솥뚜껑에 놔도 너무 아니 해도 살짝 조금 해서 웃기떡으로 쓰고.)

107075 @ 아.(아.)

107075 #2 원 떡 허는 거 그거. 이제 벨 거 움떡²¹²⁾이여 뭐여 해도 옛날엔 떡이 그렇게.(원 떡 하는 거 그거. 이제 벨 거 ‘움떡’이여 뭐며 해도 옛날엔 떡이 그렇게.)

107075 @ 아.(아.)

107075 #2 기계도 옛고 기술도 옛곡.(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고.)

107075 @ 음.(음.)

107075 #2 너무 떡 허는 게. 곡식을 방에 뺏아서 찰을 나와 놓고 또 그 찰을 듬갠다가 또 ㄱ를 뺏아서 떡을 헐라고 허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너무 떡 하는 게. 곡식을 방아에 뺏아서 찰을 내어서 또 그 찰을 담갠다가 또 ㄱ를 뺏아서 떡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힘이 들어.)

107075 @ 하하.(하하.)

107075 #2 여저는 방에만 짓다 보민 세상 세월 다 갖지. 식구나 좋으면 헛디.
(여자는 방아만 찧다 보면 세상 세월 다 갖지. 식구나 좋으면 헛디.)

107075 @ 으.(으.)

107075 #2 방에 지고 보리, 저 보리 곶알 보리쌀 곶알야 밥헐 거난 보리쌀 곶알 방에 짓고 허당 보민 여저는 세월 다 가.(방아 찧고 보리, 저 보리 갈아서 보리쌀 갈아야 밥헐 거니까 보리쌀 곶알 방아 찧고 하다가 보면 여자는 세월 다 가.)

107066 @ 하하. 송편은마씨? 송편?(하하. 송편은요? 송편?)

107066 #2 송편은 아까 솔펜 허듯 ㄱ루 헤다근에 물 쪼금 맞춰 가지고 요만큼씩 헤영 께는 물에 혼 번 들이썩당 건져내영 달튀근에.(송편은 아까 솔펜 하듯 가루 헤다가 물 쪼금 맞춰 가지고 요만큼씩 해서 끓는 물에 한 번 들이뜨렸다가 건져서 이겨서.)

212) ‘움떡’은 기계로 만든 떡을 말한다.

107066 @ 어.(어.)

107066 #2 송편 할 만씩 만드는데 그거는 저 저 생각하는 사람은 팻을 앙꼬를 안 놔, 안 놔 그자 콩 계역도 넣고.(송편 할 만큼씩 만드는데 그거는 저 저 생각하는 사람은 팻을 팻소를 안 넣어, 안 넣고 그자 콩 미숫가루도 넣고.)

107066 @ 음. 아, 콩 계역도 넣고?(음. 아, 콩 미숫가루도 넣고?)

107066 #2 으. 콩 계역도 놓곡 이제 경 정 허는디 어떤 사람은 팻 놔도 팻을 것도 팻이라고 팻을 제사하는 디 쓰는 거는 잘 안 좋게 생각하여 안 쓰주게.(으. 콩 미숫가루도 넣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팻 넣어도 팻을 것도 팻이라고 팻을 제사하는 데는 쓰는 거는 잘 안 좋게 생각해. 안 쓰지.)

107066 @ 으.(으.)

107066 #2 팻은 구신 다올리는 거렌.(팻은 귀신 쫓는 거라고.)

107066 @ 으, 으.(으, 으.)

107078 #2 정긴 주로 기자 막 잘하는 사람은 저 콩 계역도 해도 그거는 너무 허난 기자 무수, 무수.(빙떡 주로 그자 아주 잘하는 사람은 저 콩 미숫가루도 해도 그거는 너무 하니까 그자 무, 무.)

107078 @ 음.(음.)

107078 #2 빙떡 소곱엔 무수. 침 이젠 빙떡이주만은 옛날은 정기.(빙떡 속엔 무. 침 이젠 빙떡이지만 옛날은 ‘정기’.)

107078 @ 정기. 것도 ㄱ루는 어떻 풀니까?(빙떡. 것도 가루는 어떻게 풀니까?)

107078 #2 ㄱ루는 ㄱ물해다근에.(가루는 메밀해다가.)

107078 @ 으.(으.)

107078 #2 막 그걸 두 벌 세 벌 헤영 쫄 만들앙. 자기 ㄱ물 그 ㄱ물쫄 멘글젠 허민 잘도 힘들어. 경헨 그 쫄 허민 쫄 세 가지로 헤여. 도레미쫄²¹³⁾이라고 헤영 훑은 거. 그 다음은 보통 죽 끌렁 떡곡. 그 다음은 스투기 헤영 세 가지로 헤영 스투기 ㄱ튼 거 이제 또 영 영허는 ㄱ레에 막 가루로 곱아야지게.(아주 그걸 두 벌 세 벌 해서 쫄 만들어서. 자기 메밀 그 메밀쫄 만들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 그래서 그 쫄 하면 쫄 세 가지로 해. ‘도레미’쫄이라고 해서 훑은 거. 그 다음은 보통 죽 끓여서 먹고. 그 다음은 싸라기 해서 세 가지로 해서 싸라기 같은 거 이제 또 이렇게 하는 맷돌에 마구 가루로 갈아야지.)

107078 @ 음.(음.)

107078 #2 가루로 곱앙 체로 쳐근에 체 아래 걸로 헤영 이제 또 다라에 ㄱ 맞창.(가루로 갈아서 체로 쳐서 체 아래 걸로 해서 이제 또 대야에 ㄱ 맞춰서.)

107078 @ 으.(으.)

107078 #2 카근에 이제 거리명 정기 지지주.(타서 이제 뜨면서 빙떡 지지지.)

107078 @ 무수는?(무는?)

107078 #2 무수는 씻영 썰영 솟디 낱 솥앙게. 건져 내영 소금이나 쪼금 치고 침

213) ‘도레미쫄’은 메밀쫄의 굵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 가장 굵은 것을 가리킨다.

요즘 마늘겉²¹⁴)이나 쪼금 놔근에 기자 영 간만 맞으면.(무는 씻어서 썰어서 솥에 놓고 삶아서. 건져 내서 소금이나 조금 치고 침 요즘 마늘이나 조금 넣고 그제 이렇게 간만 맞으면.)

107078 @ 음, 간만 맞으면. 아까 므물썰.(음, 간만 맞으면. 아까 메밀쌀.)

107078 #2 으.(으.)

107078 @ 세 종류로 한텐 헛잖아예?(세 종류로 한다고 헛잖아요?)

107078 #2 으.(으.)

107078 @ 도레미썰 그 다음 스테기.(‘도레미쌀’ 그 다음 싸라기.)

107078 #2 아니, 도레미썰하고 중간에 거 좋은 거 그거.(아니, ‘도레미쌀’하고 중간에 거 그거.)

107078 @ 그 중간에 거 그건 이름이 따로 없고?(그 중간에 거 그건 이름이 따로 없고?)

107078 #2 으. 말쑈 건 스테기.(으. 나중에 건 싸라기.)

107078 @ 보통 그냥 중간에 거렌만 얘기하는 거예?(보통 그냥 중간에 거라고만 얘기하는 거요?)

107078 #2 으.(으.)

107078 @ 그럼 용도가 달라마씨? 도레미썰은 뭐에 써? 굵은 거?(그럼 용도가 달라요? ‘도레미’썰은 뭐에 써? 굵은 거?)

107078 #2 훑고, 훑어 부난 그거하고 소레긴 마레나 곱고.(굵고, 굵어 버리니까 그거하고 싸라긴 맷돌에나 곱고.)

107078 @ 아.(아.)

107078 #2 가운데 건 죽도 끌령 먹고.(가운데 건 죽도 끓여서 먹고.)

107078 @ 아.(아.)

107078 #2 도레미썰 마튼 스테기 마튼 건 마레나 곱앙 정기나 지지, 빙떡이나 지지곡.(‘도레미’썰 같은 싸라기 같은 건 맷돌이나 갈아서 빙떡이나 지지, 빙떡이나 지지고.)

107078 @ 아.(아.)

107078 #2 가운데 건 죽 끌령 먹고.(가운데 건 죽 끓여서 먹고.)

107078 @ 아, 죽 끌령 먹고.(아, 죽 끓여서 먹고.)

107078 #2 도레미썰이엔 현 거 므물이 동글락게 겹덕만 나가고 므물 방울 형체로 그대로 이신 거.(‘도레미’썰이라고 한 거 메밀이 동그랗게 껍데기만 나가고 메밀 방울 형체로 그대로 있는 거.)

107078 @ 아.(아.)

107078 #2 그대로 죽 끌령 먹는 건 두 개씩 벌러지지.(그대로 죽 끓여서 먹는 건 두 개씩 벌러지지.)

107078 @ 으.(으.)

214) 여기서 ‘마늘겉’은 마늘을 나타내고 있다.

107078 #2 벌러지는데 스레긴 너무 여러 개로 쪼개져 불고.(벌어지는데 싸라긴 너무 여러 개로 쪼개져 버리고.)

107078 @ 으.(으.)

107078 #2 도레미썰은 어찌다가 겁죽만 동글락게 버슬어정 물방울 형상이 그대로 시난 도레미썰이렌 허주.(‘도레미’썰은 어찌다가 꺾테기만 동그랴게 벗어져 물방울 형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도레미’썰이라고 하지.)

107078 @ 아, 경혜 부난예?(아, 그래 버리니까요?)

107078 #2 어.(어.)

107068 @ 상웨떡²¹⁵, 상웨떡은 어떻 만들앗수과?(‘상웨떡’, ‘상웨떡’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68 #2 상웨떡은 옛날에는 우리 밀 여기서 가니까 그 밀 해당 장만해근에 줌 낫게 사는 사람은 그 밀은 물궤렌가 저 방에, 큰방에 강 물 적정 막 굴민 그 밀이 겁덕이 다 벗어져.(‘상웨떡’은 옛날에는 우리 밀 여기서 가니까 그 밀 해당 장만해서 줌 낫게 사는 사람은 그 밀은 연자방아인가 저 방아, 큰 방아에 가서 물 적셔서 갈면 그 밀이 꺾테기가 다 벗겨져.)

107068 @ 으.(으.)

107068 #2 겁덕이 벗어지민 그걸 오라근에 물류왕 겁덕 잘 퍼 두고 해근에 이제 정궤에 그 밀을 밀궤를 막 굴주게. 밀궤를 굴민 밥을 저 식은 밥해야. 밥은 해근에 쉰다릴 해 놓는 거야. 누룩은 자기가 보리 가니까 보리 해영 누룩은 해 놓는 것에.(꺾테기가 벗겨지면 그걸 와서 말려서 꺾테기 잘 퍼 두고 해서 이제 풀맷돌에 그 밀을 밀가루 막 갈지. 밀가루를 갈면 밥을 저 식은 밥해야. 밥은 해서 쉰다릴 해 놓는 거야. 누룩은 자기가 보리 가니까 보리 해서 누룩은 해 놓는 것에.)

107068 @ 음.(음.)

107068 #2 밥행 쉰다리²¹⁶를 해 놓민 그 쉰다리가 보통 조금 궤여²¹⁷ 갈 때는 힘이 엇어이. 막 콧 허게 궤면은 그 쉰다리를 물 짜서, 누룩허고 밥 건지는 짜 불고 물만 해 가지고 그 밀궤루로 물양 허민 밀궤루 궤에 굴멍.(밥해서 쉰다리를 해 놓으면 그 쉰다리가 보통 조금 끓어 갈 때는 힘이 없어. 아주 콧 하게 끓으면 그 쉰다리를 물 짜서 누룩하고 밥 건더기는 짜 버리고 물만 해 가지고 그 밀가루로 말아서 하면 밀가루 맷돌에 갈면서.)

107068 @ 으.(으.)

107068 #2 또 체로 치명 채 우이 건 허고 체 아래 것만. 경헨 그 쉰다리 물로 물양 놔두민 피민 상웨²¹⁸주게.(또 체로 치면서 채 위에 건 하고 체 아래 것만. 그

215)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216)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217) ‘궤다’는 표준어 ‘끓다’로, 여기서는 술 따위가 어느 정도 발효되어 끓는 것을 말한다.

218) 여기서 ‘상웨’는 ‘상웨떡’을 말한다. ‘상웨떡’은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렇게 해서 그 쉰다리 물로 말아서 놔두면 피면 ‘상웨떡’이지.)

107068 @ 아.(아.)

107068 #2 겐 또 막 그거 해도 얼마나 엇어신디 쉰다리 짜 분 주시허고 밀 글 명 상웨떡 허젠 돌아난 우에 거 허고.(그래서 또 마구 그거 해도 얼마나 없었는지 쉰다리 짜 버린 찌꺼기하고 밀 갈면서 ‘상웨떡’ 하려고 갈았던 위에 거하고.)

107068 @ 으.(으.)

107068 #2 그걸로 떡을 요만씩 또 만들어 그거는 췌기떡이라고.(그걸로 떡을 요 만큼씩 또 만들어 그거는 췌기떡이라고.)

107068 @ 췌기떡?(췌기떡?)

107068 #2 어.(어.)

107068 @ 췌기떡?(췌기떡?)

107068 #2 어.(어.)

107068 @ 상웨떡보다 죽은 것과?(‘상웨떡’보다 작은 겁니까?)

107068 #2 똑 그거 저 요만씩 허게. 췌기떡이라고 헌디 제사함 전이 그 고운 상웨는 아이덜이 먹을 수가 없어.(똑 그거 저 요만큼씩 하게. 췌기떡이라고 했는데 제사하기 전에 그 고운 ‘상웨떡’은 아이들이 먹을 수가 없어.)

107068 @ 으.(으.)

107068 #2 그건 제사상에만 허곡 제사해난 다음 떡곡.(그건 제사상에만 하고 제사한 다음 떡고.)

107068 @ 음.(음.)

107068 #2 그 췌기떡을 헤사 제사렌 허민 아이덜은 다 먹젠. 어느 학꼐 가카.(그 췌기떡을 해야 제사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 먹으려고. 어느 학꼐 갈까.)

107068 @ 하하하.(하하하.)

107068 #2 툇아앗아 놓민. 어느 학원을 가카.(지켜 앉아서 기다리면. 어느 학원을 갈까.)

107068 @ 그거 얻어 먹젠.(그거 얻어 먹으려고.)

107068 #2 그 췌기떡. 그 저 누룩 덩어리만 흐쫂 건져덩 밥해나난 거영 그 밀헝 뉘엔 허주. 그 밀 저 채 베꺄터레 난 건. 밀헝뉘 뉘 이만씩 동글동글 해근에 솟디 뉘서 감저 치꺄트 막 치는 거야. 청 익으민 아이덜 그거 떡곡.(그 췌기떡. 그 저 누룩 덩어리만 조금 건져두고 밥헝던 거와 그 밀기울이라고 하지. 그 밀 저 채 바꺄으로 난 건. 밀기울 뉘고 이만큼씩 동글동글 해서 솔에 뉘고 고구마 찌꺄트 막 찌는 거야. 찌서 익으면 아이들 그거 떡고.)

107068 @ 아. 원래 상웨떡은 밀로 허는 건데?(아. 원래 ‘상웨떡’은 밀로 하는 건데?)

107068 #2 으.(으.)

107068 @ 이 췌기떡은 밀 아니고.(이 췌기떡은 밀 아니고.)

107068 #2 아니, 밀이라도.(아니, 밀이라도.)

107068 @ 어쨌든.(어쨌든.)

107068 #2 그 위에 난 거.(그 위에 난 거.)

107068 @ 위에 난 거예?(위에 난 거요?)

107068 #2 어, 곳인.(어, 곳은.)

107068 @ 예, 예. 밀, 상웨떡 허는 밀보다는 좀.(예, 예. 밀, ‘상웨떡’ 하는 밀보다는 좀.)

107068 #2 험뉘, 험뉘.(밀기울, 밀기울.)

107068 @ 별로 안 좋은 밀?(별로 안 좋은 밀?)

107068 #2 안 좋은 거주게. 험뉘라고.(안 좋은 거지. 밀기울이라고.)

107068 @ 험뉘예?(밀기울요?)

107068 #2 으.(으.)

107068 @ 아, 험뉘로 음. 췌기떡.(아, 밀기울로 음. 췌기떡.)

107068 #2 으.(으.)

107071 @ 설기떡도 알아집니까, 설기떡? 설기떡이 뭐과?(백설기도 압니까, 백설기? 백설기가 뭘니까?)

107071 #2 설기떡은 무시거라? 설기떡 잊어버렸저 설기떡 말은 들어신디.(‘설기떡’이 뭐야? ‘설기떡’ 잊어버렸어 ‘설기떡’ 말은 들었는데.)

107069 @ 그 고사할 때, 제사떡이랑 상례 떡은, 저기 장사 났을 때, 장 났을 때 떡은 같잖아예?(그 고사할 때, 제사떡이랑 상례 떡은, 저기 장사 났을 때, 장 났을 때 떡은 같잖아요?)

107069 #2 으.(으.)

107069 @ 제사떡은 순서가 제편, 인절미, 절편, 솔벤, 우짖.(제사떡은 순서가 시루떡, 인절미, 절편, 솔편, 웃기떡.)

107069 #2 으.(으.)

107069 @ 이렇게 놓을 거예?(이렇게 놓을 거요?)

107069 #2 으.(으.)

107070 @ 근데 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그런데 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107070 #2 으. 장 났을 때는 사람 죽어서 첫 번째 험 때.(으. 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107070 @ 으.(으.)

107070 #2 그때에 그 저 제편허고 솔벤, 절편을 못 쓰면은 후에 후에 아무 때도 그 떡을 못 험다고 성복제라고 처음 죽영 사름 첫 제에 그 떡을 못 허면은 대상, 소상에도 못 허고 다음 제사에도 못 험다고.(그때에 그 저 시루떡허고 솔편, 절편을 못 쓰면 후에 후에 아무 때도 그 떡을 못 험다고 성복제라고 처음 죽어서 사람 첫 제에 그 떡을 못 하면 대상, 소상에도 못 하고 다음 제사에도 못 험다고.)

107070 @ 어.(어.)

107070 #2 사름이 죽으면은 첫 번째 아멩 어려워도 그 제편허고 솔벤, 절편은

헤여.(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루떡하고 술편, 절편은 해.)
 107070 @ 아.(아.)
 107070 #2 으.(으.)
 107070 @ 그거 해야 되는 거예?(그거 해야 되는 거요?)
 107070 #2 으.(으.)
 107070 @ 어쨌든 순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예?(어쨌든 순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요?)
 107070 @ 으.(으.)
 107070 #2 제사 때나예?(제사 때나요?)
 107070 #2 으, 똑거튼 거.(으, 똑같은 거.)
 107070 @ 제편, 인절미, 술 아니.(시루떡, 인절미, 술 아니.)
 107070 #2 절편.(절편.)
 107070 @ 으, 절편, 술편, 우썩 해 가지고.(으, 절편, 술편, 웃기떡 해 가지고.)
 107070 #2 으.(으.)
 107070 @ 순서는 똑같고 올리는 것도 똑같고예?(순서는 똑같고 올리는 것도 똑같고요?)
 107070 #2 으.(으.)
 107070 @ 올리는 것도 거의 똑같고?(올리는 것도 거의 똑같고?)
 107070 #2 으.(으.)
 107076 @ 고사나 당 갈 때, 당에 갈 때. 당에 갈 때는 어떤 떡 해놔수과?(고사나 당 갈 때. 당에 갈 때는 어떤 떡 했었습니까?)
 107076 #2 당에 갈 땐 게. 동그랑헌 거 알뜰게게, 굿떡²¹⁹이라고게.(당에 갈 땐. 동그란 거 얇게, ‘굿떡’이라고.)
 107076 @ 으.(으.)
 107076 #2 요만이 해근에게.(요만큼 해서.)
 107076 @ 으.(으.)
 107076 #2 믫물가루로 허는 사름도 잇고.(메밀가루로 하는 사람도 잇고.)
 107076 @ 으.(으.)
 107076 #2 쌀떡으로 허는 사름도 잇고.(쌀떡으로 하는 사람도 잇고.)
 107076 @ 으, 그걸 굿떡이렌 허는 거? 당에 갈 때 가져 가는 거를?(으, 그걸 ‘굿떡’이라고 하는 거? 당에 갈 때 가져 가는 거를?)
 107076 #2 으, 그거 굿떡.(으, 그거 ‘굿떡’.)
 107076 @ 그거 이름 자체가 굿떡이고 동그랑허게 지지는 거잖아예?(그거 이름 자체가 ‘굿떡’이고 동그랑게 지지는 거잖아요?)
 107076 #2 으, 게난 거 돌레²²⁰.(으, 그러니까 거 ‘돌레’.)

219) ‘굿떡’은 굿할 때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220) ‘돌레’는 둥근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돌레떡’을 가리킨다.

107076 @ 아, 돌레떡²²¹). 맞아 맞아 돌레떡.(아, ‘돌레떡’. 맞아 맞아 ‘돌레떡’.)
 107076 #@ 으.(으.)
 107076 @ 믱물로 해도 돌레떡?(메밀로 해도 ‘돌레떡’.)
 107076 #2 어, 믱물 돌레.(어, 메밀 ‘돌레’.)
 107076 @ 어.(어.)
 107076 #2 곤쌀로 현 돌레.(흰쌀로 한 ‘돌레’.)
 107076 @ 으, 곤쌀로 해도 돌레예?(으, 흰쌀로 해도 ‘돌레’요?)
 107076 #2 으.(으.)
 107076 @ 다데²²²)는 뭘지 알아지쿠과?(‘다데’는 뭘지 알겠습니까?)
 107076 #2 어?(어?)
 107076 @ 다데? 다덴 엇어?(‘다데’? ‘다데’ 없어?)
 107076 #2 나 다데 말은 안 들어봐신디.(나 ‘다데’ 말은 안 들어봤는데.)
 107076 @ 으. 이거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떡도 잇수과? 지금 얘기한 떡 말양 다른 떡.(으. 이거 얘기한 거 말고 다른 떡도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떡 말고 다른 떡.)
 107076 #2 아이고 몰라, 몰르켜 나.(아이고 몰라, 모르겠어 나.)
 107076 @ 뭘 집에서 해 먹는 거? 엇어예?(뭘 집에서 해 먹는 거?)
 107076 #2 으, 몰라 요즘 기겟방²²³)에 강 맞춰 허는 건 헐 말 엇고 게난.(으, 몰라 요즘 ‘기겟방’에 가서 맞춰서 하는 건 할 말 없고 그러니까.)
 107076 @ 그런 건 안 해도 돼고.(그런 건 안 해도 되고.)

소와 고물

107079 @ 그럼 떡 허젠 허민 고물, 떡 할 때 속에 놓는 소부터 할게마씨, 소. 예를 들면 송편 만들젠 허면 안에 뭘 넣잖아예?(그럼 떡 하려고 하면 고물, 떡 할 때 속에 놓는 소부터 할게요, 소. 예를 들면 송편 만들려고 하면 안에 뭘 넣잖아요?)
 107079 #2 응.(응.)
 107079 @ 떡에?(떡에?)
 107079 #2 으.(으.)
 107079 @ 게민 송편 넣을 때 어떤 종류가 잇수과? 아까는 저기 콩?(그럼 송편 넣을 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까는 저기 콩?)
 107079 #2 게메 그거 풋도 허는 사름은 허여도.(그러게 그거 팔도 하는 사름은 해도.)
 107079 @ 음.(음.)
 107079 #2 안 허는 사름은 콩ㄴ루나.(안 하는 사름은 콩가루나.)

221)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222) ‘다데’는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을 말한다.

223) ‘기겟방’은 정미소를 가리킨다.

107079 @ 콩ㄹ루.(콩가루.)
 107079 #2 으, 막 쨌 쨌게.(으, 막 그렇게 해서 했어.)
 107079 @ 콩ㄹ루?(콩가루?)
 107079 #2 콩ㄹ루나 허고 또 쫓도 막 쫓앙 허는 사름도 잇고.(콩가루나 하고 또 팔도 막 빵아서 하는 사름도 잇고.)
 107079 @ 으. 콩도 그냥 노란 콩?(으. 콩도 그냥 노란 콩?)
 107079 #2 파란 콩게. 이디 우리 장 콩 가는 거, 집이들 가니까.(파란 콩. 여기 우리 장 콩 가는 거, 집에들 가니까.)
 107079 @ 집에 가는 거예? 장콩 가는 거예. 저기 쨌 안 하고?(집에 가는 거요? 장콩 가는 거요. 저기 쨌 안 하고?)
 107079 #2 쨌도 허는 사름은 헤여. 쨌 볶아근예.(참깨도 하는 사름은 해. 참깨 볶아서.)
 107079 @ 으.(으.)
 107079 #2 ㄹ루에 줌 서쨌.(가루에 줌 섞어서.)
 107079 @ 으, ㄹ루에 서쨌.(으, 가루에 섞어서.)
 107079 #2 설탕이영.(설탕과.)
 107079 @ 으, 설탕에 서쨌.(으, 설탕에 섞어서.)
 107079 #2 허는 사름은 허여.(하는 사름은 해.)
 107079 @ 으, 쨌도 허고예. 그럼 무치는 건. 고물은? 떡 우에 하는 거 아까 콩 하고?(으, 참깨도 하고요. 그럼 묻히는 건. 고물은? 떡 위에 하는 거 아까 콩 하고?)
 107080 #2 무시거 무쳐?(무엇 묻혀?)
 107080 @ 떡 우에 무치는 거? 문친떡²²⁴ 헐 때?(떡 위에 묻히는 거? ‘문친떡’ 할 때?)
 107080 #2 문친떡 헐 때 쫓게.(‘문친떡’ 할 때 팔.)
 107080 @ 쫓.(팔.)
 107080 #2 쫓허고 어떤 사름은 또 콩ㄹ루로도 허는 사름 잇어.(팔하고 어떤 사름은 또 콩가루로도 하는 사름 잇어.)
 107080 @ 으음.(으음.)
 107080 #2 콩ㄹ루로도 쫓 대신.(콩가루로도 팔 대신.)
 107080 @ 음.(음.)
 107080 #2 영 그 사이에 부뜨지 말라고.(이렇게 그 사이에 붙지 말라고.)
 107081 @ 음. 콩이나 쫓이나.(음. 콩이나 팔이나.)
 107081 #2 으.(으.)
 107081 @ 그럼 떡 만들 때 뭐하지 말라 해서, 뭐 금기하는 거든지 그런 건 엇 수과?(그럼 떡 만들 때 뭐 하지 말라고 해서, 뭐 금기하는 거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224) ‘문친떡’은 시루떡의 한 종류다. 팔을 고물로 썼다.

107081 #2 에, 저 굿떡은.(에, 저 ‘굿떡’은.)

107081 @ 으.(으.)

107081 #2 아무나 못 만직고.(아무나 못 만직고.)

107081 @ 아.(아.)

107081 #2 굿떡은 만직기로 딱 지정된 사람베낀. 몸이 좋지 않거나 어디 나쁜 걸 봤거나 허카 부덴.(‘굿떡’은 만직기로 딱 지정된 사람밖에. 몸이 좋지 않거나 어디 나쁜 걸 봤거나 할까 봐.)

107081 @ 으.(으.)

107081 #2 굿떡은 굿 제물이라고 하여 굿 제물 허는 디는 아무상 것이 못 땡기 기고. 뭐 제사할 때는 무시거라 경 어려와도 애기덜 툫아지민 자파리 허렌 허멍 요 만씩 ㄱ루 ㄴ 것도 그차주곡 기자.(‘굿떡’은 굿 제물이라고 해서 굿 제물 하는 데는 아무 이유 없이 못 다니고. 뭐 제사할 때는 무엇이냐 그렇게 어려워도 아기들 지켜 앉아 있으면 장난 하라고 하면서 요만큼씩 가루 만 것도 잘라주고 그저.)

107081 @ 흐흐.(흐흐.)

107081 #2 자파리허주게.(장난하지.)

107081 @ 자파리허게 쥐나고예?(장난하게 줬었고요?)

107081 #2 으.(으.)

107081 @ 굿떡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뭐?(‘굿떡’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뭐?)

107081 #2 굿떡허는 사람이엔 행 굿 제물 험서 경혜영 굿 제물 허레 가는 사람 영 허주 아무나 안 허주게. 굿 제물.(‘굿떡’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굿 제물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굿 제물 하러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아무나 안 하지. 굿 제물.)

107081 @ 아, 굿 제물 허는 사람은 아무나 안 허는 거?(아, 굿 제물 하는 사람은 아무나 안 하는 거?)

107081 #2 으.(으.)

107081 @ 게른 다른 거 물어보쿠다. 이젠 떡 말고예.(그럼 다른 거 물어보겠습 니다. 이젠 떡 말고요.)

107081 #2 으.(으.)

별식

107082 @ 순대도 만들어놨잖아예?(순대도 만들었었잖아요?)

107082 #2 으.(으.)

107082 @ 뭐 저기 큰일 있을 때는?(뭐 저기 큰일 있을 때는?)

107082 #2 으.(으.)

107082 @ 순대 만드는 거 곱아 줘서. 순대.(순대 만드는 거 말해 주세요. 순대.)

107082 #2 순대 벨 거 아니주, 무신. 식은 밥도 시민 놓고 당면 흐썰 썰어 놓고 기자 양념 마늘 거튼 거영 흐썰 낱 ㄱ물ㄱ루에 기자 ㄱ 맞춰 그건 담은 거난.(순대 벨 거 아니지. 무슨. 식은 밥도 있으면 넣고 당면 조금 썰어 넣고 그저 양념 마늘

같은 거와 조금 넣어서 메밀가루에 그저 간 맞춰서 그건 담는 거니까.)

107082 @ 음, 계민 창자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음, 그럼 창자는 아무거나 상관없는 거?)

107082 #2 창잔 씻어 보면서.(창잔 씻어 보면서.)

107082 @ 예.(예.)

107082 #2 돼지에 따라 창자가 좋은 건 이 깎는 거꺼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디.(돼지에 따라 창자가 좋은 건 이 가는 거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107082 @ 으.(으.)

107082 #2 어떤 돼지는 ㄴ는 수에라고 허주. ㄴ는 수에는 못 담을 돼지가 잇넬헤여.(어떤 돼지는 가는 순대라고 하지. 가는 순대는 못 담을 돼지가 있다고 해.)

107082 @ 어?(어?)

107082 #2 남저덜 허는 거 보민.(남자들 하는 거 보면.)

107082 @ 아.(아.)

107082 #2 아 이건 준 베설로 원 못 쓰쿠다. 준 베설은 좋지 안 허연에. 또 어떤 건 준 베설꺼지 다 담았수다. 영 허난.(아, 이건 잔 창자로 원 못 쓰겠습니다. 잔 창자는 좋지 않아. 또 어떤 건 잔 창자까지 다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07082 @ 아.(아.)

107082 #2 우리가 큰일 할 땐 그거 자꾸 들어 보난.(우리가 큰일 할 땐 그건 자꾸 들어 보니까.)

107082 @ 준 베설이렌 허는 거예?(잔 창자라고 하는 거요?)

107082 #2 으, 준 베설.(으, 잔 창자.)

107082 @ 으, 으.(으, 으.)

107082 #2 계민 그 막은창²²⁵⁾ 쳇, 큰 것이 이만이 솔진 게 막은창. 큰 베설은 요만이 허고 준 베설은 이만이 현 건디 경해도 저 순대 담을 땐 주로 기자 ㄴ물ㄴ루.(그럼 그 ‘막은창’ 쳇, 큰 것이 이만큼 살진 게 ‘막은창’. 큰 창자는 요만큼 하고 잔 창자는 이만큼 현 건데 그래도 저 순대 담을 땐 주로 그저 메밀가루.)

107082 @ 으.(으.)

107082 #2 그 도야지에 피허고.(그 돼지에 피하고.)

107082 @ 으.(으.)

107082 #2 식은 밥도 조금 농곡 당면 조금 농곡 그자 그거, ㄴ 맞창, 소금 ㄴ 맞창.(식은 밥도 조금 넣고 당면 조금 넣고 그저 그거, 간 맞춰서, 소금 간 맞춰서.)

107082 @ 아. 그 쌀로 아니고 밥으로 넣는 거구나예?(아. 그 쌀로 아니고 밥으로 넣는 거군요?)

107082 #2 으, 쌀은 안 허여.(으, 쌀은 안 해.)

107082 @ 당면도 삶아 넣는 거예?(당면도 삶아 넣는 거요?)

107082 #2 으, 등면도 물 그자.(으, 당면도 물 그저.)

225) ‘막은창’은 돼지의 막은 창자를 말한다.

107083 @ 두부도 만들어냈지예, 두부?(두부도 만들었었지요, 두부?)

107083 #2 두부 집어서 만들어나신디이.(두부 집에서 만들었었는데.)

107083 @ 으.(으.)

107083 #2 아이고, 두부 만드는 건 어려와근에 그거 설명이.(아이고, 두부 만드는 건 어려워서 그거 설명이.)

107083 @ 두부 만드는 거 어려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콩 먼저 삶아야 됩니까, 콩가루 해야 됩니까?(두부 만드는 거 어려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콩 먼저 삶아야 됩니까, 콩가루 해야 됩니까?)

107083 #2 콩 물에 커야주. 물에 커.(콩 물에 담가야지. 물에 담가.)

107083 @ 물에 켕?(물에 담가?)

107083 #2 물에 켕 *** 이만씩 우려나민 그걸 이제, 옛날 말로 도고리.(물에 담가 *** 이만큼씩 우려나민 그걸 이제, 옛날 말로 함지박.)

107083 @ 으.(으.)

107083 #2 도고리가 거 ㄹ레보단 막 큰 이만이 현 도고리 소곱더레 ㄹ레를 얹혀서.(함지박이 거 멧돌보단 아주 큰 이만큼 한 함지박 속에 멧돌을 얹혀서.)

107083 @ 으.(으.)

107083 #2 그 삶은 콩을 거러 놓명 막 삶으면 막 거품 나명 그걸 경 곱아지주, 허민.(그 삶은 콩을 떠 놓으면서 마구 삶으면 마구 거품 나면서 그걸 그렇게 갈아지지, 하면.)

107083 @ 어, 어.(어, 어.)

107083 #2 그거 이제 아이고 거 다 설명, 그놈을 가마솥 삶은 더레 그걸 이제 놔서 삶으면 이게 얼추 익으면 이제 또 퍼내어. 퍼내서 이제는 둠비 잘리라고 천으로 차두를 요만큼씩 만들어.(그거 이제 아이고 거 다 설명, 그놈을 가마솥 같은 데 그걸 이제 놓고 삶으면 이게 얼추 익으면 이제 또 퍼내어. 퍼내서 이제는 두부 자루라고 천으로 자루를 요만큼씩 만들어.)

107083 @ 으.(으.)

107083 #2 어명들이 멧 사름 들어 가지고 그걸 막 짜는 거여.(어머니들이 멧 사람 들어 가지고 그걸 막 짜는 거야.)

107083 @ 음.(음.)

107083 #2 막 짜면 그 차두 아래 느리운 그 깨끗헌 물은 저디 삶아난 솥 단장혜영 그레 놔근에, 그레 낱 그 주시는 우이 주시는 옆에 놔두고 이제 아랫물 짱 막 삶으면 거자 삶아져 가민 소금 쳐, 소금 치민 그 물이 콩국거치 듬발듬발²²⁶⁾ 언쳐가주.(막 짜면 그 자루 아래 내린 그 깨끗헌 물은 저기 삶았던 솥 단장혜서 그리 넣어서, 그리 넣고 그 찌꺼기는 위에 찌꺼기는 옆에 놔두고 이제 아랫물 짜서 막 삶으면서 그저 삶아져 가면 소금 쳐, 소금 치면 그 물이 콩국처럼 ‘듬발듬발’ 엉겨 가

226) ‘듬발듬발’은 점성이 있는 액체나 가루 따위가 한 덩어리가 되면서 굳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지.)

107083 @ 으.(으.)

107083 #2 언처 가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질긴 거, 천이 미녕보단 베.(엉겨 가면 이제는 옛날에는 그 질긴 거, 천이 무명보단 베.)

107083 @ 으.(으.)

107083 #2 베로 뭐 차들 해근에 그 물을 차두에 다 이제 듬발듬발천 물은 거러 놓는 거여. 거러 낱 물 흘르게 예를 들면 그 도고리에.(베로 뭐 자루를 해서 그 물을 차두에 다 이제 ‘듬발듬발’한 물은 떠 넣는 거야. 떠 넣고 물 흐르게, 예를 들면 그 함지박에.)

107083 @ 으.(으.)

107083 #2 도고리 위에 뭐 놔서 그 우이 요, 요런 걸 다 걸쳐 가지고.(함지박 위에 뭐 놔서 그 위에 요, 요런 걸 다 걸쳐 가지고.)

107083 @ 으.(으.)

107083 #2 그 차두를 그레 탁 낱, 이제 거트민 널판이지 널판 낱 우리 들르지도 못할 들을 몇 개 놔서 지들라 그 널판 아래 놓곡 널판 더끄곡 해영. 경 지들랑 놔 두민 영 옆으로 문직아 보민 것이 판판해졌어이.(그 자루를 그리 탁 놓고, 이제 같 으면 널빤지이지 널빤지 놓고 우리 들지도 못할 들을 몇 개 놓고 내리눌러 그 널판 아래 놓고 널판 덮고 해서. 그렇게 내리눌러 놔두면 이렇게 옆으로 만져 보면 것이 판판해졌어.)

107083 @ 으.(으.)

107083 #2 흔 이제 허민 널 아침 흔 일곱 여덟 시나 돼어야지. 이제 허민.(한 이제 하면 널 아침 한 일곱 여덟 시나 돼어야지. 이제 하면.)

107083 @ 아침, 아. 이제 허민.(아침, 아. 이제 하면.)

107083 #2 끓인 걸 이제 담양 지들랑 놔두민.(끓인 걸 이제 담아서 내리눌러 놔 두면.)

107083 @ 으.(으.)

107083 #2 게민 영 보민 판판한 거 돌 치와 두고 널판대기 앓아 두고 보민 판 판해져시민 그놈을 이제 베는 거여. 칼로 흔 모만씩. 게난 집어, 집어서 허는 식이 그거난 옛날에도 옛날에 잔치를 헐라고 허민 막 치레 허는 사람은 두부를 헐어이. (그럼 이렇게 보면 판판한 거 돌 치워 두고 널빤지 가져 두고 보면 판판해지면 그 놈을 이제 베는 거야. 칼로 한 모 만큼씩. 그러니까 집에, 집에서 하는 식이 그거니까 옛날에도 옛날에 잔치를 하려고 하면 아주 치레 하는 사람은 두부를 헐어.)

107083 @ 어.(어.)

107083 #2 두부를 했는데 이 시집을, 사나 못 사나 싸움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남자 하나 조름에 여자가 들이 당했다.(두부를 했는데 이 시집을, 사나 못 사나 싸움이 났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남자 하나 꿈무니에 여자가 들이 당 했다.)

107083 @ 하.(하.)

107083 #2 죽은 각시도 당했다 경허민 싸울 때는 그 두부를 찢라고 하면 막 손이 뜨거워이. 너미 식어 베도 안 돼고 뜨거우난 문제가 죽은 메누리 보고는 둬비 물에 손 댄 메누리냐, 느 시집 오젠 허난 두부 허멍 손 뜨겁지 안 했다.(작은 각시도 당했다 그러면 싸울 때는 그 두부를 짜려고 하면 아주 손이 뜨거워. 너무 식어 버려고 안 되고 뜨거우니까 문제가 작은 며느리 보고는 두부 물에 손 댄 며느리냐, 너 시집 오려고 하니까 두부 하면서 손 뜨겁지 안 했다.)

107083 @ 아.(아.)

107083 #2 너 시집 올 때는 두부도 안 허고 시집을 온 메누리니까.(너 시집 올 때는 두부도 안 하고 시집을 온 며느리니까.)

107083 @ 아.(아.)

107083 #2 너는 둬비 물에 손 댄 메누리냐. 두부도이 두부엔 안 해 둬비.(너는 두부 물에 손 댄 며느리냐. 두부도 두부엔 안 해 ‘둬비’.)

107083 @ 둬비엔 허지예?(‘둬비’라고 하지요?)

107083 #2 둬비.(‘둬비’.)

107083 @ 으, 둬비렌 허고.(으, 두부라고 하고.)

107083 #2 둬비 물에 손 댄 메누리냐.(두부 물에 손 댄 며느리냐.)

107083 @ 아.(아.)

107083 #2 옛날 경 곱아, 그렇게 헤났어.(옛날 그렇게 말해, 그렇게 했었어.)

107083 @ 하하.(하하.)

107083 #2 아이고, 이제 그것만 곱으민 무시거 헐 거니 이제랑.(아이고, 이제 그것만 말하면 무엇 할 거니 이제는.)

107083 @ 몇 개, 몇 개만 더마씨. 몇 개 더. 목, 목?(몇 개, 몇 개만 더요. 몇 개 더 목, 목?)

107084 #2 목은 여러 가지주.(목은 여러 가지지.)

107084 @ 여러 가지 목 헤났던 거? 우선은 그냥 메밀목부터?(여러 가지 목 했었던 거? 우선 그냥 메밀목부터?)

107084 #2 메밀목.(메밀목.)

107084 @ 믰물목?(메밀목?)

107084 #2 으, 믰물목인디 목은 여러 가지로 치레 영 잘허는 사름은 아까 ㄱ튼 스테기나 그 저 도레미쌀²²⁷⁾ 훑은 거는 안 돼고이 죽 끓여 먹는 거 흥쌀 믰물쌀을 물에 푹 푹 담갔다가 푹 우려나면은 이제 차두에 담아서 몽갈몽갈²²⁸⁾ 막 허다 보민 믰물쌀은 막 약헌 거니까 믰물은이 이 나는 시기도 막 짧으주게.(으, 메밀목인데 목은 여러 가지로 치레 이렇게 잘하는 사름은 아까 같은 짜라기나 그 저 ‘도레미쌀’ 굵은 거는 안 되고 죽 끓여 먹는 거 조금 메밀쌀을 물에 푹 담갔다가 푹 우려나면 이제

227) ‘도레미쌀’은 메밀쌀의 굵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 가장 굵은 것을 가리킨다.

228) ‘몽갈몽갈’은 작고 둥그스름한 것을 손으로 만지며 이리저리 흔들거나 미끄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자루에 담아서 ‘몽갈몽갈’ 마구 하다 보면 메밀쌀은 아주 약한 거니까 메밀은 이 나
는 시기도 아주 짧지.)

107084 @ 으.(으.)

107084 #2 다른 농서 반 시기 웨영 갈아도 ㄴ치 웨는 거난. ㄴ물썰은 약헌 거니
까 막 허당 보민 ㄴ물썰이 거푸레기만 남양 다 물을 짜져버. 허민 그 물을 솟디 비
와 가지고 그 ㄴ 허영 게고 저고 젓노렌 허면 풀풀허²²⁹면은 이제 그걸 어디 판데
기에나 어디 낭푼에나 퍼 낵 놔두민 것이 똑 똑 언치민 청묵²³⁰.(다른 농사 반 시
기 되어서 갈아도 같이 되는 거니까. 메밀쌀은 약한 거니까 마구 하다가 보면 메밀
쌀이 겹질만 남고 다 물을 짜져. 하면 그 물을 솔에 비워 가지고 그 ㄴ 해서 그렇
게 저렇게 젓노라고 하면 ‘풀풀’하면 이제 그걸 어디 판때기에나 어디 양푼에나 퍼
넣어 놔두면 것이 똑 똑 영기면 청묵.)

107084 @ 음.(음.)

107085 #2 청묵이고 청묵 못 허는 사람은 그대로 영 ㄴ를 ㄴ물ㄴ를 해 가지고
뉼성시프다²³¹ 허게 물에 카서.(‘청묵’이고 ‘청묵’ 못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가
루를 메밀가루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물을 타서.)

107085 @ 으.(으.)

107085 #2 또 솟디 놔서 그렇게 젓으멍 풀닥풀닥²³²허게만 젓영 또 뵈에 평 놔
두민 판판허민 그건 쏘 묵.(또 솔에 놔서 그렇게 저으면서 ‘풀닥풀닥’하게만 저어서
또 뵈에 퍼서 놔두면 판판하면 그건 쏘 묵.)

107085 @ 음. 쏘 묵.(음, 쏘 묵.)

107085 #2 쏘 묵, 청묵.(쏘 묵, ‘청묵’.)

107085 @ 어.(어.)

107085 #2 또 ㅎ나는 이제 ㄴ물ㄴ를 해서 그것도 저것도 못 허는 사람은 요만
허민 뉼겏다 해서 알맞게 부침개 허는 것만이 카서.(또 하나는 이제 메밀가를 해서
그것도 저것도 못 하는 사람은 요만큼 하면 되겏다 해서 알맞게 부침개 허는 것만
큼 타서.)

107085 @ 으.(으.)

107085 #2 옛날에 후라이판도 엇으니까 솟두경에 놔서 싹 허게 묵 두께로 지지
는 거여.(옛날에 프라이팬도 없으니까 솔뚜경에 놔서 싹 하게 묵 두께로 지지는 거
야.)

107085 @ 으.(으.)

107085 #2 이만이 두께 허게 지정.(이만큼 두께 하게 지져서.)

107085 @ 으, 으.(으, 으.)

107085 #2 또 요만씩 썰민 그거 지진 묵.(또 요만큼씩 썰면 그거 지진 묵.)

229) ‘풀풀허다’는 국이나 죽 따위가 되어서 차진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230) ‘청묵’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쏘 묵을 말한다.

231) ‘뉼성시프다’는 무슨 일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미다.

232) ‘풀닥풀닥’은 액체 따위가 묽지 않고 걸쭉한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107085 @ 아, 하하.(아, 하하.)

107085 #2 계난 목 종륜 그거 세 개.(그러니까 목 종륜 그거 세 개.)

107085 @ 세 개예?(세 개요?)

107085 #2 으.(으.)

107085 @ 청목, 쏘 목, 지진 목예.(‘청목’, 쏘 목, 지진 목요.)

107085 #2 계난 요즘이야 두부 해영 목 헛주. 그땐 두부 허게, 목 허게 두부를 못 했어. 두분 해져야지, 못 허여. 요즘은 두부로 목 하영 허는디.(그러니까 요즘이야 두부 해서 목 했지. 그땐 두부 하게, 목 하게 두부로 목 많이 하는데.)

107086 @ 으, 으. 저기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어떻 만들었수과, 미숫가루? 보리 쌀 행?(으, 으. 저기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숫가루? 보리쌀 해서?)

107086 #2 미숫가루는 게.(미숫가루는 그래.)

107086 @ 미숫가루렌 헛수과, 이름을?(미숫가루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107086 #2 미숫가루.(미숫가루.)

107086 @ 미숫가루?(미숫가루?)

107086 #2 옛날엔 계역.(옛날엔 ‘계역’.)

107086 @ 계역예. 계역이렌 헛지예?(‘계역’요. ‘계역’이라고 했지요?)

107086 #2 보리 계역, 보리 계역.(보리 미숫가루, 보리 미숫가루.)

107086 @ 으, 보리 계역으로 하게, 우리. 보리 계역예. 보리 계역 어떻 만들었 수과?(으, 보리 미숫가루로 하게, 우리. 보리 미숫가루요. 보리 미숫가루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86 #2 솔브리도 좋곡, 그건 걸보리도 좋은데 깨끗하게만 행 잘만 들류민 볶 으는 거야. 솥뚜껑이에서.(쌀보리도 좋고, 그건 걸보리도 좋은데 깨끗하게만 해서 잘만 말리면 볶는 거야. 솥뚜껑에서.)

107086 @ 솥뚜껑에서?(솥뚜껑에서?)

107086 #2 어. 솥뚜껑이 크지. 저 껍 껍 껍 막 잘만 하민 케주게. 경 평평 벌러 지지 안 허고 그자 그릇만 조금 푹 푹 푹 나민. 아, 그것도 ㄹ레에 곱앙 체로 치민 우이 거 말앙 아래 것이 보리 계역이주.(어. 솥뚜껑이 크지. 저 푹 푹 푹 아주 잘 하면 트지. 그렇게 평평 벌어지지 않고 그저 금만 조금 푹 푹 푹 나면. 아, 그것도 맷돌에 갈아서 체로 치면 위에 거 말고 아래 것이 보리 미숫가루지.)

107086 @ 집이서 갑니까, 것도.(집에서 갑니까, 것도?)

107086 #2 계계.(그럼.)

107086 @ 아.(아.)

107086 #2 ㄹ레에게. 원 이걸로만 살았주, 이 ㄹ레.(맷돌에. 원 이걸로만 살았지, 이 맷돌.)

107086 @ 이 ㄹ레?(이 맷돌?)

107086 #2 으.(으.)

107086 @ 이거 뭐 다른 이름은 엇고?(이거 뭐 다른 이름은 없고?)
 107086 #2 쟁ㄹ레.(폴맷돌.)
 107086 @ 다시 한 번?(다시 한 번?)
 107086 #2 쟁ㄹ레.(폴맷돌.)
 107086 @ 쟁ㄹ레렌 불르는 거. 집에서 직접 ㄹ는 거예?(폴맷돌이라고 부르는 거. 집에서 직접 가는 거요?)
 107086 #2 으, 쟁ㄹ레.(으, 폴맷돌.)
 107086 @ 으. 쟁ㄹ레엔 곶아.(으. 폴맷돌라고 말해.)
 107086 #2 쟁ㄹ레. 밖에 나강 접으로 현 큰 건 들ㄹ레.(폴맷돌. 밖에 나가서 계로 한 큰 건 연자방앗간.)
 107087 @ 들ㄹ레예. 지짐이, 지짐이도 부청 먹어났수과?(연자방앗간요. 지짐이, 지짐이도 부쳐서 먹었었습니까?)
 107087 #2 옛날엔 지짐이 못 해서.(옛날에 지짐이 못 해서.)
 107087 @ 못 했어?(못 했어?)
 107087 #2 으. 요 근래 오랑 벨 거 다 험주. 옛날엔 곧장 묵허고 떡허고 저 고기 적. 옛날에 고기 적 요만씩 썰어근에 저 꽃이에 꾸민 이보단 훨씬 너비 좁양 요만씩 허게 그자 녁 점.(으. 요 근래 와서 벨 거 다 하고 있지. 옛날엔 곧장 묵하고 떡하고 저 고기 적. 옛날에 고기 적 요만큼씩 썰어서 저 꼬챙이에 꿰면 이보단 훨씬 너비 좁아서 요만큼씩 하게 그저 녁 점.)
 107087 @ 으.(으.)
 107087 #2 그거 꿰영 그건 적.(그거 꿰어서 그건 적.)
 107087 @ 으.(으.)
 107087 #2 적. 지지미가 어디 셔?(적. 지짐이가 어디 있어?)
 107087 @ 어디 셔?(어디 있어?)
 107088 @ 흑시 술 담가, 오메기술²³³ 담가났수과? 오메기술?(흑시 술 담가, ‘오메기술’ 담갔었습니까? ‘오메기술’?)
 107088 #2 나는 듨그지는 안 허고 허는 거 봄만 헤신디.(나는 담그지는 앓고 거 보기만 했는데.)
 107088 @ 으, 어땡 담급디까? 오메기술은?(으, 어떻게 담급디까? 오메기술은?)
 107088 #2 오메기술은, 오메기술 허젠 허민 막 보리 그것에 누룩을 깨끗이 헤야 돼여.(‘오메기술’은, ‘오메기술’ 하려고 하면 아주 보리 그것에 누룩을 깨끗이 헤야 돼.)
 107088 @ 어.(어.)
 107088 #2 누룩을 깨끗이 해 뵈다가.(누룩을 깨끗이 해 뵈다가.)
 107090 @ 으. 누룩은 어땡 만드는 거? 보리 혈 때?(으. 누룩은 어떻게 만드는

233) ‘오메기술’은 좁쌀로 빻은 술을 말한다. 이것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거? 보리 할 때?

107090 #2 누룩은 보리를 저 보리쌀 굴멍, 보리 우리 쌀 밥헝 먹젠 굴멍 조금 스테기영 곳인 거.(누룩은 보리를 저 보리쌀 갈면서, 보리 우리 쌀 밥해서 먹으려고 갈면서 조금 싸라기와 곳은 거.)

107090 @ 으.(으.)

107090 #2 그루도 서꺼지곡 스테기로 웬 거 현 거를 물 맞게 물 조늘앙 영 영 해 보민 떡만이 허다 싶으면 그놈은 탄탄하게 췌영 따뜻하게 놔두민 거 트는 거라. (가루도 섞이고 싸라기로 된 거 한 거를 물 맞게 물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면 떡만큼 허다 싶으면 그놈은 탄탄하게 쥐어서 따뜻하게 놔두면 거 뜨는 거야.)

107090 @ 음.(음.)

107090 #2 푸린 꽃, 노린 꽃 피멍 트면.(푸른 꽃, 노란 꽃 피면서 뜨면.)

107090 @ 음.(음.)

107090 #2 트민 이제 내냥 물리주게. 트멍 물리멍 해 가민 밖에 안 널어도 그게 누룩.(뜨면 이제 내놓고 말리지. 뜨면서 말리면서 해 가면 밖에 안 널어도 그게 누룩.)

107090 @ 으.(으.)

107090 #2 누룩이곡 갱 누룩을 헛당 오메기술은 허젠 허민 좁쌀을 해 가지고 물에 담강 놔두민 좁쌀이 다 불어나면 이제 방에 뿔는 거여이.(누룩이고 그래서 누룩을 했다가 ‘오메기술’은 하려고 하면 좁쌀을 해 가지고 물에 담가서 놔두면 좁쌀이 다 불어나면 이제 방아 빵는 거야.)

107090 @ 으.(으.)

107090 #2 뿔앙, 뿔으멍 체로 치멍 체 우이 거는 또 냥 뿔곡 헝 그루를 또 헤지민 그 오메기떡 허는 건 흐려 부난에 흐린, 찰조라 부난 그 놈을 막 멍심헤영 너미 질어불카 부덴.(빵아서, 빵아서 체로 치면서 체 위에 거는 또 놓고 빵고 해서 가루를 또 해지면 그 ‘오메기떡’ 하는 건 흐려 버리니까 흐린, 차조여 버리니까 그 놈을 아주 멍심해서 너무 질어버릴까 봐.)

107090 @ 으.(으.)

107090 #2 물 맞추와근에 요만씩 오메기떡을 해 가지고.(물 맞춰서 요만큼씩 ‘오메기떡’을 해 가지고.)

107090 @ 으.(으.)

107090 #2 찰조라 부난 솟디 부트카 부덴 인척에 곶앗듯이 그 대썸을 헤다근에 그 요만씩 길게 영 나무대에 부트게 헤당 영 이것이 솟이민 영 솟 아래 썸 가게 헤영 물 끌려 가민 오메기떡을 그레 냥 숲앙 이제 다 익어, 익은 성 시프다 허민 그 숲아난 물이나 오메기떡이나 그자 죽거치 휘휘 젓영 그자 그 누룩 그를 서경.(차조여 버리니까 솔에 붙을까 봐 아까 말했듯이 그 댓잎을 헤다가 그 요만큼씩 길에 이렇게 대나무에 붙게 헤다가 이렇게 이것이 솔이면 이렇게 솔 아래 잎 가게 해서 물 끓어 가면 ‘오메기떡’을 그리 넣고 삶아서 이제 다 익어, 익은 것 싹다 하면 그 삶

아난 물이나 ‘오메기떡’이나 그저 죽같이 휘휘 저어서 그저 그 누룩 가를 섞어서.)

107090 @ 으.(으)

107090 #2 그 누룩도 뺏아야 따시 그걸 몰랐던 걸.(그 누룩도 뺏아야 또 그걸 말렸던 걸.)

107090 @ 아.(아.)

107090 #2 방에에 안 뺏으면 그것이 어떻 해영.(방에에 안 뺏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107090 @ 으.(으.)

107090 #2 뺏앙 그걸 항아리에, 할망덜이 그걸 영 간을 맞추는 거여. 쌀이 멧 웨민 누룩이 요거 얼마다 해영 맞창 혼 이틀만 시민 풍당풍당²³⁴ 해여 가주게. 푸글락푸글락²³⁵. 게민 웨여도 그놈을 그만이 그대로 놔두민 이제 오래 웨민 든 술로, 게난 누룩을 깨끗이 해야.(뺏아서 그걸 항아리에, 할머니들이 그걸 이렇게 간을 맞추는 거야. 쌀이 멧 되면 누룩이 요거 얼마다 해서 맞춰서 한 이틀만 있으면 ‘풍당풍당’ 해 가지. ‘푸글락푸글락’. 그림 끓여도 그놈을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이제 오래 끓으면 단 술로, 그러니까 누룩을 깨끗이 해야.)

107090 @ 으.(으.)

107090 #2 먹고자프민 튼튼한 죽 닦은 걸 거렁 먹꼭 그렇지 안 허영 청주.(먹고 싶으면 텃텃한 죽 닦은 걸 떠서 먹고. 그렇지 안 하고 청주.)

107090 @ 으.(으.)

107090 #2 청주를 헐라면 그만이 건드리지 말앙 내 불민 기름 거치 우이 술을 딱 우터레 나는 거여. 게민 술술 툇랑 이제 그거 청주는 제서에 쓰꼭.(청주를 하려면 가만히 건드리지 말고 내 버리면 기름 같이 위에 술을 딱 위에 나는 거야. 그림 살살 따라서 이제 그거 청주는 제사에 쓰고.)

107090 @ 으.(으.)

107090 #2 제서에 쓰는 사람이 핫주게.(제사에 쓰는 사람이 많지.)

107090 @ 으.(으.)

107090 #2 청주.(청주.)

107090 @ 위에 것만 영 딸르는 거과, 아니면 뭐에 걸르는 것과?(위에 것만 이렇게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뭐에 거르는 겁니까?)

107090 #2 위에 것만 거 아래 거 들지 말게 영 술술 허게 해근에 청주.(위에 것만 거 아래 거 들지 않게 이렇게 살살 하게 해서 청주.)

107090 @ 으, 청주.(으, 청주.)

107091 #2 청주 해근에 제서에 썼주게.(청주 해서 제사에 썼지.)

107091 @ 으, 으.(으, 으.)

107091 #2 청주 허고 이제 감주 허젠 허든, 이제 골감주로 허젠 허든 저 보리

234) ‘풍당풍당’은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면서 잇따라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235) ‘푸글락푸글락’은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면서 잇따라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해 가지고 물 올려근에 골 놀 때는 물 올령 막 물 불어나시민 싹 건정 빛에 따뜻하게 놔두민 탁 보리가 날라고 바작바작바작 막 허민 그놈을 이제 그만 몰르게 헤영 밖에다 널영 죽이는 거여. 나젠 허는 것을. 널영 그걸 바삭 몰르민 걸 ㄴ는 거여. (청주 하고 이제 감주 하려고 하면, 이제 옛기름으로 만든 감주로 하려고 하면 저 보리 해 가지고 물 우려서 옛기름 넣을 때는 물 우려서 아주 물 불어나면 싹 건져서 빛에 따뜻하게 놔두면 탁 보리가 나려고 바작바작바작 하면 그놈을 이제 그만 마르게 해서 밖에다 널어서 죽이는 거야. 나려고 하는 것을. 널어서 그걸 바삭 마르면 걸 가는 거야.)

107091 @ 으.(으.)

107091 #2 곶알 골 ㄴ루를 헛다가 따시 이젠 그 찰좁쌀 해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 가지고 그 알맞게 물 넣 그 곶 ㄴ루를 서경 놔두민 이젠 밥에 쌀은 다 물 돼 부는 거여.(갈아서 옛기름 가루를 헛다가 다시 이젠 그 찰좁쌀 해 가지고 밥을 해서, 밥을 해 가지고 그 알맞게 물 넣고 그 옛기름 가루를 섞어서 놔두면 이젠 밥에 쌀은 다 물 돼 버리는 거야.)

107091 @ 으.(으.)

107091 #2 그 든 것에 물 돼 불민 것도 딱 짜 가지고 이제 솟디 놔서 딸리노렌 허민 것이 옛기름.(그 단 것에 물 돼 버리면 것도 딱 짜 가지고 이제 술에 놔서 달 이느라고 하면 것이 옛기름.)

107091 @ 음.(음.)

107091 #2 게민 옛기름은 해서 요만헌 조막단지²³⁶)라고 허여. 옛날 단지 이만한 거.(그럼 옛기름은 해서 요만한 ‘조막단지’라고 해. 옛날 단지 이만한 거.)

107091 @ 쪼그만헌 거.(조그마한 거.)

107091 #2 어. 조막단지에 담아서 아이덜 미치지 못 허게. 아이덜 미치민 그 옛기름 알민 다 파먹어 불주게.(어. ‘조막단지’에 담아서 아이들 미치지 못 허게. 아이들 미치면 그 옛기름 알면 다 파먹어 버리지.)

107091 @ 하하.(하하.)

107091 #2 아이덜 미치지 못허게 그걸 놔뒀다가 제서 때에는 한두 숟가락쯤.(아이들 미치지 못하게 그걸 놔뒀다가 제사 때에는 한두 숟가락쯤.)

107091 @ 으.(으.)

107091 #2 떠 놔근에 물 넣, 설탕만이 돌아게, 거 흥썰 들게 허민.(떠 넣고 물 넣고 설탕만큼 달아. 거 조금 달게 하면.)

107091 @ 으.(으.)

107091 #2 거 감주.(거 감주.)

107091 @ 음.(음.)

107091 #2 우리 어머니도 행 놔두민 우리 동생덜 퍼먹어 베나서.(우리 어머니도 해서 놔두면 우리 동생들 퍼먹어 버렸었어.)

236) ‘조막단지’는 질그릇으로 만든 단지로 젓갈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자그마한 단지를 말한다.

107091 @ 아. 그럼 옛기름에 물 섞으면 감주가 되는 거라?(아. 그럼 옛기름에 물 섞으면 감주가 되는 거야?)

107091 #2 어. 옛기름에 물 섞으면.(어. 옛기름에 물 섞으면.)

107091 @ 계민 골은 뭐과, 골은?(그럼 ‘골’은 뭘니까, ‘골’은?)

107091 #2 골게 아까 골은 그 옛기름 허젠 허민 보리를 헛다가 물을 담강 다 퍼지민.(‘골’ 아까 ‘골’은 그 옛기름 하려고 하면 보리를 헛다가 물을 담가서 다 퍼지면.)

107091 @ 으.(으.)

107091 #2 그놈을 물을 건져 가지고 뭐 차롱 착에나 낱 뭐 더평 चु지 안 헌 디 놔두민 바짝 나지, 그거.(그놈을 물을 건져 가지고 뭐 채롱 짝에나 놓고 뭐 덮어서 चु지 않은 데 놔두면 바짝 나지, 그거.)

107091 @ 아, 보리를.(아, 보리를.)

107091 #2 발 나, 발 난 다음에 또 싹이 나젠 허지게.(발 나, 발 난 다음에 또 싹이 나려고 하지.)

107091 @ 으.(으.)

107091 #2 싹이 나젠 허민 영 흥나 입에 놔 보민 소곱에가 뭐 골아근에 들코름 허멍 무시겨 엇어가.(싹이 나려고 하면 이렇게 하나 입에 놔 보면 속에 뭐 끓아서 달콤하면서 무엇 없어져.)

107091 @ 아.(아.)

107091 #2 계민 걸 이제 죽어 불게 베졌디 내근에 널영 막 여러 날 물리당 보민 얼마나 달라야 것이 이제 팔앙 골게 웰 거라.(그럼 걸 이제 죽어 버리게 밖에 널어서 아주 여러 날 말리다가 보면 얼마나 말라야 것이 팔아서 끓게 될 거야.)

107091 @ 음.(음)

107091 #2 골아야지.(끓어야지.)

107091 @ 으.(으.)

107091 #2 그것 해서 계난 골, 골 ㄹ루.(그것 해서 그러니까 옛기름, 옛기름 가루.)

107089 @ 음. 아, 계민 쉰다리는?(음. 아, 그럼 쉰다리는?)

107089 #2 쉰다리는, 쉰다리는 쉬운 거.(쉰다리, 쉰다리는 쉬운 거.)

107089 @ 으.(으.)

107089 #2 쉰다리는 누룩만 행 이시민.(쉰다리는 누룩만 해서 있으면.)

107089 @ 으.(으.)

107089 #2 밥에 뭐 죽만이 물 해근에 그 누룩만 들이치민 바글바글 케민 쉰다리 돼지.(밥에 뭐 죽만큼 물 해서 그 누룩만 들이뜨리면 바글바글 끓어서 쉰다리 되지.)

107089 @ 밥에 누룩만 들이치민 돼는 거라?(밥에 누룩만 들이뜨리면 되는 거야?)

107089 #2 물 조금 놓양.(물 조금 넣고.)

107089 @ 으.(으.)

107089 #2 웬 죽만이, 죽 돼다 싶은 거만이 밥에 물 놔근에 쉰다리만 멧 방울 들이청 놔두민 부글부글 케민.(된 죽만큼, 죽 돼다 싶은 거만큼 밥에 물 넣고 쉰다리만 멧 방울 들이뜨려서 놔두면 부글부글 끓으면.)

107089 @ 얼마나 놔두민?(얼마나 놔두면?)

107089 #2 거 사람에 따라.(거 사람에 따라.)

107089 @ 예.(예.)

107089 #2 난 이제 헝 놔두민 넬 혼 오후에사 먹는다 어떤 사람은 이제 헝 놔두민 넬 아침이 먹주게.(난 이제 해서 놔두면 넬 한 오후에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해서 놔두면 넬 아침에 먹지.)

107089 @ 아.(아.)

107089 #2 성질이 와삭바삭헌²³⁷⁾ 사람은 제기 바글바글 케고.(성질이 ‘와삭바삭’한 사람은 빨리 바글바글 끓고.)

107089 @ 하하.(하하.)

107089 #2 쉰다리넌 제일 쉬운 거. 누룩만.(쉰다리넌 제일 쉬운 거. 누룩만.)

107089 @ 아.(아.)

107089 #2 요즘도이 쉰다리 짹 헝 먹는 것이 저 시장에 누룩이 짹 폰니까.(요즘도 쉰다리 짹 해서 먹는 것이 저 시장에 누룩이 짹 파니까.)

107089 @ 으.(으.)

107089 #2 비싸도 안 허주게.(비싸지도 않지.)

107089 @ 으.(으.)

107089 #2 혼 삼백 원, 사백 원 혼 돌레²³⁸⁾에.(한 삼백 원, 사백 원 한 ‘돌레’에.)

107089 @ 아, 기과? 혼 돌레에 삼백 원, 사백 원?(아, 그렇습니까? 한 ‘돌레’에 삼백 원, 사백 원?)

107089 #2 으, 그러난. 거 사다근에 요만씩 조그만씩 썰어근에 밥 혼 사발 남았다 허민 물 영 흐쉴 것영 그거 멧 방울 들이청 놔두민.(으, 그러니까. 거 사다가 요만씩씩 조그만씩 썰어서 밥 한 사발 남았다 하면 물 이렇게 조금 저어서 그거 멧 방울 들이뜨려서 놔두면.)

107089 @ 아.(아.)

107089 #2 쉰다리가 쉬운 거라.(쉰다리가 쉬운 거야.)

107089 @ 쉬운 거구나.(쉬운 거군요.)

107089 #2 으.(으.)

107089 @ 그럼 아까 누룩은 상웨떡 만들 때도 누룩 좀 넣는덴 헛지예?(그럼 아

237) ‘와삭바삭허다’는 성질이 급한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238) ‘돌레’는 둥근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는 둥근 모양의 물건을 세는 단위 명사로 쓰였다.

까 누룩은 ‘상웨떡’ 만들 때도 누룩 좀 넣는다고 했지요?)

107089 #2 상웨떡 만들 땐.(‘상웨떡’ 만들 땐.)

107089 @ 예.(예.)

107089 #2 누룩혜근에 쉰다리 혜영.(누룩해서 쉰다리 해서.)

107089 @ 으.(으.)

107089 #2 오래 내 불민 그 쉰다리가 너무 오래면 처음은 들고 말젠 쉼혜여. 막 시여 시여. 게민 그 신 걸 건져 가지고 물 짜서 상웨떡 허는 거라.(오래 내 버리면 그 쉰다리가 너무 오래면 처음은 달고 나중엔 쉬어. 아주 시어 시어. 그럼 그 신 걸 건져 가지고 물 짜서 ‘상웨떡’ 하는 거야.)

107091 @ 옛, 옛? 옛도 만들아났수과?(옛, 옛? 옛도 만들었었습니까?)

107091 #2 게, 옛 안 골아냐, 아까 옛기름 만드는 거.(그럼, 옛 말 안 하더냐, 아까 옛기름 만드는 거.)

107091 @ 옛기름 만드는 거 말고 썩 옛 같은 거?(옛기름 만드는 거 말고 썩 옛 같은 거?)

107091 #2 아, 썩 옛 같은 거는 꼭거치 허다가 거자 끓을 때에 고기 들어쳐 불민 썩옛.(아, 썩 옛 같은 거는 똑같이 하다가 그저 끓을 때에 고기 들어뜨려 버리면 썩옛.)

107091 @ 하하.(하하.)

107091 #2 닭이나 썩이나.(닭이나 썩이나.)

107091 @ 닭이나 썩이나. 그럼 옛 종류는 닭옛도 있고, 썩옛 있고?(닭이나 썩이나. 그럼 옛 종류는 닭옛도 있고 썩옛 있고?)

107091 #2 으.(으.)

107091 #2 또 뭐 잇수과?(또 뭐 있습니까?)

107091 #2 몰라 그자 득옛, 썩옛만 허는데.(몰라 그저 닭옛, 썩옛만 하는데.)

107091 @ 으.(으.)

107091 #2 재료는 똑거트게 허다가 너무 허도 안 허고 두루 허도 안 혜영 거자 반, 너무 인척 고기를 놓민 고기가 세영 못 먹어어.(재료는 똑갈게 하다가 너무 하지도 앓고 덜 하지도 앓고 그자 반, 너무 일찍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세서 못 먹어.)

107091 @ 으, 막 오래 끓이면?(으, 아주 오래 끓이면?)

107091 #2 으. 겨난 거자 끓여져 갈 때 고기만 다 단속헛다근²³⁹에 들어쳐 불민 그 옛.(으. 그러니까 그자 끓어 갈 때 고기만 장만헛다가 들어뜨려 버리면 그 옛.)

107091 @ 아.(아.)

107091 #2 그 옛기름 헐 때 허는 재료 똑 그와 거치 그추록.(그 옛기름 할 때 하는 재료 그와 같이 그처럼.)

239) 여기서 ‘장만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07091 @ 똑같이?(똑같이?)

107091 #2 으, 경 허는 거.(으, 그렇게 하는 거.)

107092 @ 으, 으. 그 특별하게 어무니가 만들어, 저 제사 때나 뭐 명절 때 특별하게 만들었던 음식 잇수과? 얘기했던 거 말앙?(으, 으. 그 특별하게 어머니가 만들어, 저 제사 때나 뭐 명절 때 특별하게 만들었던 음식 있습니까? 얘기했던 거 말고?)

107092 #2 엇어.(없어.)

107092 @ 엇어.(없어.)

8. 주생활

구조

108001 @ 집 짓는, 집 지어난 거 물어보쿠다예.(집 짓는, 집 지었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108001 #1 어.(어.)

108001 @ 집 하젠 허민 어쨌든 동네 사름덜이랑 같이?(집 하려고 하면 어쨌든 동네 사름들이랑 같이?)

108001 #1 동네 사름덜이 다 왕 허주게.(동네 사름덜이 와서 하지.)

108001 @ 같이 도왕 집.(같이 도와서 집.)

108001 #1 으, 그때는 다.(으, 그때는 다.)

108002 @ 집 종류에는 어떤 어떤 집이 잇엇수과? 그때는 다 초가라신디?(집 종류에는 어떤 어떤 집이 잇엇습니까? 그때는 다 초가였는데?)

108002 #1 다 초간디 부저칩이는 스칸이엔 허는디 삼간집이주게.(다 초가인데 부자칩에는 사칸이라고 하는데 삼간집이지.)

108002 @ 삼간집?(삼간집?)

108002 #1 으. 삼간집이라는 게 세 군데로 나뉘졌다 해서 삼간집이주게.(으. 삼간집이라는 게 세 군데로 나뉘졌다 해서 삼간집이지.)

108002 @ 삼간집예?(삼간집요?)

108002 #1 으.(으.)

108002 @ 여기, 지붕이 초가로 된 거 초가집이고 지에집 잇어낫수과?(여기, 지붕이 초가로 된 거 초가집이고 기와집 잇엇습니까?)

108002 #1 남원리 엇어나서. 도당집 잇어낫주. 남원리는.(남원리 없었어. 함석집이 잇엇지.)

108002 @ 아, 도당집?(아, 함석집?)

108002 #1 으.(으.)

108002 @ 도당집 잇어낫고.(함석집 잇엇고.)

108002 #1 지금은 함석이주게.(지금은 함석이지.)

108002 @ 예, 예. 기와집을 지에라고 합니까?(예, 예. 기와집을 '지에'라고 합니

까?)

108002 #1 으, 지워.(으, ‘지워’.)

108002 @ 지, 다시 한 번 소리내 줘서.(지, 다시 한 번 소리내 주십시오.)

108002 #1 지워.(‘지워’.)

108002 @ 지워, 지워집?(‘지워’, ‘지워집’?)

108002 #1 으, 여기 절간에만 잇었주.(으, 여기 절간에만 있었어.)

108002 @ 아, 절간은 지워집이랴수과?(아, 절간은 기와집이었습니까?)

108002 #1 게고 남원 학교.(그리고 남원 학교.)

108002 @ 아, 학교랑예, 으. 뭐 흙집, 돌집은?(아, 학교랑요, 으. 뭐 흙집, 돌집은?)

108003 #1 아, 그때 전부 그때는.(아, 그때 전부 그때는.)

108002 @ 으.(으.)

108002 #1 담 싸 가지고 베갯디 웨벽에 전부 담을 쌓서 흑을 불랴주게.(담 쌓아 가지고 외벽에 전부 담을 쌓아서 흑을 불랴어.)

108002 @ 게니까.(그러니까.)

108002 #1 그 동네 사름덜이 모여 가지고 흑집이엔 헨 전부 헤 줴다고.(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흙집이라고 해서 전부 해 줴다고.)

108002 @ 으, 으. 그 삼간집, 아까 삼간집이라고 하면은 집체가 세 채 있다는 거?(으, 으. 그 삼간집, 아까 삼간집이라고 하면 집체가 세 채 있다는 거?)

10800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02 @ 그럼?(그럼?)

108002 #1 칸이 세 개로 나뉘졌다 이 말이주.(칸이 세 개로 나뉘졌다 이 말이 지.)

108002 @ 칸이 세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 예를 들면 초가집이예, 초가집 잇으면.(칸이 세 개로 나누어졌다는 말. 예를 들면 초가집이요, 초가집 잇으면.)

108002 #1 게난.(그러니까.)

108002 @ 으.(으.)

108002 #2 하르방²⁴⁰) 잘 만났저게. 하르방신디 잘 들어근예.(할아버지 잘 만났어. 할아버지에게 잘 들어서.)

108002 @ 예.(예.)

108002 #1 웨냐면은.(왜냐면.)

108002 @ 예.(예.)

108002 #1 초가집이 어떻게 허느냐 허면, 웨 삼간이라 헛는고 허니까.(초가집이 어떻게 허느냐 하면, 왜 삼간이라고 헛는고 하니까.)

108002 @ 예.(예.)

108002 #1 집이, 이렇게 집을 지을 적에는.(집이, 이렇게 집을 지을 적에는.)

240)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108002 @ 예.(예.)

108002 #1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라고 해서 삼간집이라고. 게 삼간집이 맞는 거주.(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라고 해서 삼가집이라고. 그래 삼간집이 맞는 거지.)

108002 @ 아, 삼간집. 그럼 만약에 집이 이렇게.(아, 삼간집. 그럼 만약에 집이 이렇게.)

108002 #1 게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뉘서 가운데 삼방.(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뉘서 가운데 마루.)

108002 @ 으.(으.)

108002 #1 정제 요쪽 구들.(부엌 요쪽 구들.)

108002 @ 아, 여기 이결, 이결.(아, 여기 이결, 이결.)

108002 #1 어, 삼방.(어, 마루.)

108002 @ 삼방을 중심으로 이쪽 있고 이쪽 있으니까 삼간집, 삼간집이런 헛던 거?(마루를 중심으로 이쪽 있고 이쪽 있으니까 삼간집, 삼간집이라고 했던 거?)

108002 #1 어.(어.)

108002 @ 만약에 집이 요렇게.(만약에 집이 요렇게.)

108002 #1 이간집²⁴¹⁾이엔 허면은 옛날도.(‘이간집’이라고 하면 옛날도.)

108002 @ 으.(으.)

108002 #1 옛날 못사는 사람은 이간집을 허주게.(예날 못사는 사람은 ‘이간집’을 하지.)

108002 @ 이간집.(‘이간집’.)

108002 #1 혼자 정제허고 구들.(혼자 부엌하고 구들.)

108002 @ 으, 정제하고 구들.(으, 부엌하고 구들.)

108002 #1 또 아주 못살민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 웨기둥에 청기와 집이엔 행 거 별명으로 못 산덴 혜영.(또 아주 못살면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 외기둥에 청기와 집이라고 해서 거 별명으로 못 산다고 해서.)

108002 @ 으.(으.)

108002 #1 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는 원두막 모양으로.(가운데 기둥 하나 세워 가지고 원두막 모양으로.)

108002 @ 으.(으.)

108002 #1 아주 못사는 사람은.(아주 못사는 사람은.)

108003 @ 못사는 사람은 경 혜났구나. 게문 아버지 이렇게 집채가 이렇게 있어 예?(못사는 사람은 그렇게 했었구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집채가 이렇게 있어요?)

108003 #1 으.(으.)

108003 @ 게민 여기는?(그럼 여기는?)

108003 #1 그거 세 거리집이엔 현다.(그거 세 채 집이라고 한다.)

241) ‘이간집’은 두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8003 @ 세 거리집, 예.(세 채 집, 예.)

108003 #1 두 개민 두 거리집.(두 개면 두 채 집.)

108003 @ 두 거리집예. 게민 여기는 뭐렌 해낫수과?(두 채 집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108003 #1 어디 이 밖에?(어디 이 밖에?)

108003 @ 아니 이 집은?(아니 이 집은?)

108003 #1 안커레.(안채.)

108003 @ 안커레, 또.(안채, 또.)

108003 #1 저 뱃기던 바커레.(저 밖엔 바깥채.)

108003 @ 바커레. 그럼 하나는?(바깥채. 그럼 하나는?)

108003 #1 게, 요것이 사름 살면은 그대로 바커레고 쉼 거튼 거 놓면은 쉼막이 고게.(그래, 요것이 사람 살면 그대로 바깥채이고 소 같은 거 놓으면 외양간이고.)

108003 @ 아, 목커리엔 현 말은 엇수과?(아, 결채라고 한 말은 없습니까?)

108003 #1 몽커리엔 씨. 여긴 목커린엔 현 말은 쓰는 사름이 드물주.(결채라고 씨. 여긴 결채라고 한 말은 쓰는 사람이 드물지.)

108003 @ 게민 안커리, 밧커리이란예. 목커리는 잘 안 쓰고예?(그럼 안채, 바깥채이었어요. 결채는 잘 안 쓰고요?)

108003 #1 으, 이쪽에는 잘 안 씨. 저 서쪽으로 가니까 많이 쓰더라만은.(으, 이쪽에는 잘 안 씨. 저 서쪽으로 가니까 많이 쓰더라만.)

108004 @ 그럼, 삼간집, 집 짓을 때 어떻 해나신지 생각나는 거 영 곱아 줘서? 예를 들면 나무 행 왕?(그럼, 삼간집, 집 지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생각나는 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나무 하고 와서?)

108004 #1 나무 행 와근예.(나무 하고 와서.)

108004 @ 으.(으.)

108004 #1 목취 빌영 짜주게.(목수 빌려서 짜지.)

108004 @ 으.(으.)

108004 #1 짠덴 허주게.(짠다고 하지.)

108004 @ 으, 나무를 짜는 거예?(으, 나무를 짜는 거요?)

108004 #1 어. 짜 가지고는 허게 뉘면은 요 가운데 거만 딱 세워.(어. 짜 가지고는 하게 되면 요 가운데 거만 딱 세워.)

108005 @ 으. 가운데 거를 뭐과? 기둥, 지둥?(으. 가운데 거를 뭘니까? 기둥, '지둥'?)

108005 #1 지둥게. 경헨 세와 놓면은 요런 데 세우는 거, 중간에 세우는 건 입쟁이.(‘지둥’. 그렇게 해서 세워 놓으면 요런 데 세우는 거, 중간에 세우는 건 입쟁이.)

108005 @ 중간에 세우는 거 입쟁이?(중간에 세우는 거 입쟁이?)

108005 #1 으. 그 저 슬진 건 기둥.(으. 그 저 살진 건 기둥.)

108005 @ 으.(으.)
 108005 #1. 여긴 기둥이렌 안 해영 지둥.(여긴 기둥이라고 안 하고 ‘지둥’.)
 108005 @ 지둥, 예.(기둥, 예.)
 108005 #1 허고 입쟁이.(하고 입쟁이.)
 108005 @ 으.(으.)
 108005 #1 저 문 허는 건 문틀이엔도 허고 문입쟁이엔도 허고 그거주게.(저 문 하는 건 문틀이라고도 하고 문설주라고도 하고 그거지.)
 108004 @ 음. 경 세워?(음. 그렇게 세워서?)
 108004 #1 세워근에 우에 상마루허고 중마루²⁴²허고 그 아래 건 포. 경해근에 서리 걸침 서슬²⁴³ 해근에 우이 흑질 허여.(세워서 위에 용마루하고 ‘중마루’하고 그 아래 건 보. 그렇게 해서 서까래 걸쳐서 ‘서슬’ 해서 위에 흑질 해.)
 108004 @ 으.(으.)
 108004 #1 우이도.(위에도.)
 108004 @ 으. 벽 여기부터 흑질합니까?(으. 벽 여기부터 흑질합니까?)
 108004 #1 천정도, 저 지붕에도 해여.(천장도, 저 지붕에도 해.)
 108004 @ 지붕에도 허는데 어쨌든 나무 다 세운 다음에 벽을 먼저 흑질할 거 아니예?(지붕에도 하는데 어쨌든 나무 다 세운 다음에 벽을 먼저 흑질할 거 아니요?)
 108004 #1 아니, 우에부떠.(아니, 위에부터.)
 108004 @ 아, 우에부떠 흑질합니까?(아, 위에부터 흑질합니까?)
 108004 #1 어, 경헨 완전히 더큰 다음에.(어, 그렇게 해서 완전히 덮은 다음에.)
 108004 @ 예.(예.)
 108004 #1 더큰 다음엔. 보통 여기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다들어근에 우이영 옆 이영 당일에 허주게.(덮은 다음엔. 보통 여기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위와 옆과 당일에 하지.)
 108004 @ 아, ㄴ치?(아, 같이?)
 108004 #1 으, 당일에.(으, 당일에.)
 108004 @ 그럼, 집 짓는데 얼마 안 걸리겠다예?(그럼, 집 짓는데 얼마 안 걸리 겠네요?)
 108004 #1 얼마 안 걸리주게.(얼마 안 걸리지.)
 108004 @ 얼마 안 걸려예. 낭덜 미리 다 행 오민예.(얼마 안 걸려. 나무들 미리 다 해서 오면요.)
 108004 #1 어, 낭 해 오민 뭐 이, 삼일이민 다.(어, 나무 해 오면 뭐 이, 삼일이면 다.)
 108004 @ 으.(으.)

242) ‘중마루’는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에 놓인 나무를 말한다.

243)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를 말한다.

108004 #1 계민, 딱 기둥 세우면 담 다와 가명 흠질해 가명 해영.(그럼, 딱 기둥 세우면 담 쌓아 가면서 흠질해 가면서 해서.)

108004 @ 담 다와 가명 흠질해 가명. 그민 담도 미리 행 오고예. 그럼 저기에. 그 우리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기둥 될 것과? 기둥이 어느 쪽에 들어갈 거. 이거 삼방이민?(담 쌓아 가면서 흠질해 가면서. 그럼 담도 미리 해 오고요. 그럼 저기요. 그 우리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게 기둥 될 겁니까? 기둥이 어느 쪽에 들어갈 거. 이거 마루면?)

108004 #1 아니, 이렇게 이거 두 개부터 먼저 저쪽에도 두 개. 경 행 네 개를 먼저 세와.(아니, 이렇게 이거 두 개부터 먼저 저쪽에도 두 개. 그렇게 해서 네 개를 먼저 세워.)

108004 @ 으.(으.)

108004 #1 딱 세우면 우이 상마를 먼저 걸쳐 붙어야주.(딱 세우면 위에 용마를 먼저 걸쳐 버려야지.)

108004 @ 으, 상마루.(으, 용마루.)

108004 #1 경 허고 중마루허고 거민 이제 쓰러지질 안 허니까.(그렇게 하고 ‘중마루’하고 그럼 이제 쓰러지질 않으니까.)

108004 @ 아하, 기둥 네 개 먼저 세우고?(아하, 기둥 네 개 먼저 세우고?)

108004 #1 어, 경 해근에 이렇게 세우면은 이렇게 또 그르 해근에 세와 불민은 이게 쓰러지지 안 허주게.(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또 가로 해서 세우면 이게 쓰러지지 않아.)

108004 @ 으, 으.(으, 으.)

108004 #1 그러면은 담 다와근에 담더레 서리 걸쳐 붙어. 계민 지붕부터 먼저 뒀는 거주.(그러면 담 쌓아서 담에 서까래 걸쳐. 그럼 지붕부터 먼저 되는 거지.)

108004 @ 아.(아.)

108004 #1 그러면 서슬이엔 해근에 준 낭 해 가지고는, 대나무나 해다가 죽 여꺼 내려. 경 흠질해 붙어.(그러면 ‘서슬’이라고 해서 잔 나무 해 가지고, 대나무나 해다가 쪽 엮어 내려. 그렇게 흠질해 버려.)

108005 @ 그 여끄는 걸 서슬이엔 헐 거예?(그 엮는 걸 ‘서슬’이라고 할 거요?)

108005 #1 그 낭으로 허는 건 서슬.(그 나무로 하는 건 ‘서슬’.)

108005 @ 낭으로 허는 건 서슬예, 아. 주춧돌은 어느 것과?(나무로 하는 건 ‘서슬’요, 아. 주춧돌은 어느 겁니까?)

108005 #1 주춧돌은 기둥 바투는 거.(주춧돌은 기둥 받치는 거.)

108005 @ 기둥 바투는 거 주춧돌예?(기둥 받치는 거 주춧돌요?)

108005 #1 어.(어.)

108005 @ 그 다음 보는 뭐과?(그 다음 보는 뭐니까?)

108005 #1 포?(보?)

108005 @ 보는 엇고 포렌 험니까?(보는 없고 ‘포’라고 합니까?)

108005 #1 어.(어.)

108005 @ 여기 집 짓을 때 포도 들어가? 어디가 포라?(여기 집 지을 때 보도 들어가? 어디가 보야?)

108005 #1 상마루 아래 들어가는 ㄹ르 웬 나무.(용마루 아래 들어가는 가로 된 나무.)

108005 @ 아, 그게 포예?(아, 그게 보요?)

108005 #1 으.(으.)

108005 @ 그 다음 도리는 뭐짜?(그 다음 도리는 뭘니까?)

108005 #1 도리?(도리?)

108005 @ 예.(예.)

108005 #1 도리엔 현 건 베꼈디.(도리라고 하는 건 밖에.)

108005 @ 아, 베꼈디.(아, 밖에.)

108005 #1 돌아가명 집가제로, 집가제엔 현 거 켈 밑에. 집 끄트머리니까.(돌아가면서 처마로, 처마라고 한 거 켈 밑에. 집 끄트머리니까.)

108005 @ 예.(예.)

108005 #1 여 여 여것이 집 끝테 아니라게.(이 이 이것이 집 끝이 아니야.)

108005 @ 예.(예.)

108005 #1 여것이 영 돌아가명 여끄는 것이 도리.(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엮는 것이 도리.)

108005 @ 아, 여끄는 거. 계민 여기 길죽한 낭을 뭐렌 허는 거?(아, 엮는 거. 그럼 여기 길죽한 나무를 뭐라고 하는 거?)

108005 #1 어디?(어디?)

108005 @ 이 집줄 묶젠 허민.(이 집줄 묶으려고 하면.)

108005 #1 아, 거왕. 여긴 거왕대라고 허주, 거왕대. 주로 대나물 쓰니까 거왕대.(아, 평고대. 여긴 평고대라고 하지, 평고대. 주로 대나물 쓰니까 평고대.)

108005 @ 아, 거왕대.(아, 평고대.)

108005 #1 낭으로 그자 거왕, 거왕 허주게.(나무로 그저 평고대, 평고대 하지.)

108005 @ 거왕예, 거왕대. 잠간만예.(평고대요, 평고대. 잠간만요.)

108003 @ 저기 집 지으면 삼간집이라예?(저기 집 지으면 삼간집이지요?)

108003 #1 삼간집도 허고 이간집도 허고 자기 삶에 맞춰 허주게.(삼간집도 하고 '이간집'도 하고 자기 삶에 맞춰서 하지.)

108007 @ 만약 삼간집이면 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만약 삼간집이면 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08007 #1 방 두 개 세 개.(방 두 개 세 개.)

108007 @ 두 개 세 개. 방 있고, 삼간집이면 방 있고 또 뭐 잇수과?(두 개 세 개. 방 있고, 삼간집이면 방 있고 또 뭐 있습니까?)

108007 #1 삼방.(마루.)

108007 @ 삼방 있고.(마루 있고.)

108010 #1 정제.(부엌.)

108010 @ 정제 있고.(부엌 있고.)

108009 #1 고팡.(고방.)

108009 @ 고팡, 고팡 있고예?(고방, 고팡 있고요?)

108009 #1 으, 요즘은 고팡을 안 허니까 방이 됐는데.(으, 요즘은 고팡을 안 하니까 방이 됐는데.)

108009 @ 으.(으.)

108009 #1 겐디 옛날 골방이라고 해서 처, 비바리덜 곱지는 데가 잇었어.(그런데 옛날 골방이라고 해서 처, 처녀들 숨기는 데가 있었어.)

108007 @ 무사 비바리들 곱지는 거라?(왜 비바리들 숨기는 거야?)

108007 #1 나 알아게? 옛날은 여자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덜 았잖아게.(내가 알아? 옛날은 여자들이 밖으로 잘 나가지들 안잖아.)

108007 @ 으.(으.)

108007 #1 그러면 뒷방에 쪼금만허게 멘들양.(그러면 뒷방에 쪼그마하게 만들어서.)

108007 @ 아, 하하하. 시집가기 전이 여기서 이시렌 했던 거.(아, 하하하. 시집가기 전에 여기서 있으라고 했던 거.)

108007 #1 겐 골방이렌 허주게, 것ᄇ라. 여기 사람들은 골방.(그래서 골방이라고 하지, 것보고. 여기 사람들은 골방.)

108007 @ 골방이라고 부르는 거예. 고팡 말고라예?(골방이라고 부르는 거요. 고팡 말고요?)

108007 #1 으, 거 고팡 말고. 고팡허고 골방허고 틀려.(으, 거 고팡 말고. 고팡하고 골방하고 틀려.)

108007 @ 틀린 거라예. 방에 벽장 같은 것도 만듭니까? 방에 벽장 같은 것도 이십니까?(틀린 거지요. 방에 벽장 같은 것도 만듭니까? 방에 벽장 같은 것도 있습니까?)

108007 #1 옛날 시룽.(옛날 벽장.)

108007 @ 시?(시?)

108007 #1 시룽.(벽장.)

108007 @ 시룽이엔 현 거예?(벽장이라고 한 거요?)

108007 #1 으.(으.)

108007 @ 아, 시룽. 시룽이 어떤 거?(아, 벽장. 벽장이 어떤 거?)

108007 #1 웨냐면 이불 거튼 거 올려놀라고.(왜냐하면 이불 같은 거 올려놓으려고.)

108007 @ 예.(예.)

108007 #1 이 아래는, 옛날에는 굴목²⁴⁴을 진으니까.(이 아래는, 옛날에는 ‘굴

목'을 때니까.)

108007 @ 예.(예.)

108007 #1 어떻게 허게 뉘, 만약에 여기 허게 뉘면은 올로 굴목을 진을 거면은 요 높이 해근에 요렇게 짜.(어떻게 하게 된, 만약에 여기 하게 되면 올로 '굴목'을 뉘 거면 요 높이 해서 요렇게 짜.)

108007 @ 짜?(짜?)

108007 #1 아니, 이렇게 해서 방을 만들어. 켜 이렇게 만들어 놓면은.(아니, 이렇게 해서 방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08007 @ 예.(예.)

108007 #1 이 아래는 저 밖으로 굴목 진고.(이 아래는 저 밖에는 '굴목' 때고.)

108007 @ 으, 으.(으, 으.)

108007 #1 그럼 방이 요꺼지 오는 거 아니.(그럼 방이 요까지 오는 거 아니.)

108007 @ 예, 예.(예, 예.)

108007 #1 게민, 올로 요꺼진 내 불지 안 헐라고 이렇게 막아 낡 여기 이불도 올려놓고 아래 뉘든 물건 거튼 거 올려놓게 만들어 뉘.(그럼, 올로 요꺼진 내 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아 놓고 여기 이불도 올려놓고 아래 뉘든 물건 같은 거 올려놓게 만들어 뉘어.)

108007 @ 예, 그거.(예, 그거.)

108007 #1 걸 보고 시룽이렌 허주, 시룽.(걸 보고 벽장이라고 하지, 벽장.)

108007 @ 시룽이렌 불러마씨?(벽장이라고 부릅니까?)

108007 #1 어.(어.)

108008 @ 아, 그런 데를 시룽이라고 부를 거라예. 마루는 마루에 부섭²⁴⁵ 같은 것도 낯수과?(아, 그런 데를 벽장이라고 부를 거지요. 마루는 마루에 '부섭' 같은 것도 낯습니까?)

108008 #1 아, 그렇주게. 옛날에는 거의 다 옛날에 부섭이 잇엇주게.(아, 그렇지. 옛날에는 거의 다 옛날에 '부섭'이 잇엇지.)

108008 @ 거의 다 부섭이 잇엇어?(거의 다 '부섭'이 잇엇어?)

108008 #1 어.(어.)

108008 @ 만약에 이렇게 뉘면 여기가 방이 뉘 거우다. 이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위치우다예.(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방이 뉘 겁니다. 이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108008 #1 으, 게메 알아.(으, 그래 알아.)

108008 @ 여긴 방이고 여긴 고평일 거 아니?(여긴 방이고 여긴 고평일 거 아니?)

108008 #1 으, 맞주.(으, 맞지.)

244) '굴목'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245) '부섭'은 마루 뉘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를 말한다.

108008 @ 여긴 뭐 이걸 뭐 물건들 놔두는?(여기 뭐 이걸 뭐 물건들 놔두는?)

108008 #1 아, 옛, 저 저 여기는 그런 걸 잘 안 만들주.(아, 옛, 저 저 여기는 그런 걸 잘 안 만들지.)

108008 @ 아, 이런 거 안 만들어. 여기는 뒷문?(아, 이런 거 안 만들어. 여기는 뒷문?)

108008 #1 으, 뒷문.(으, 뒷문.)

108008 @ 그럼 이 마루를 뭐, 널마루렌 곶읍니까?(그럼 이 마루를 뭐, 널마루라고 말합니까?)

108008 #1 아, 여기서는 삼방²⁴⁶.(아, 여기서는 ‘삼방’.)

108008 @ 삼방이렌 곶을 거예?(‘삼방’이라고 말할 거요?)

108008 #1 으.(으.)

108008 @ 삼방이엔 곶을 거. 부섭은, 부섭은?(‘삼방’이라고 말할 거. ‘부섭’은, ‘부섭’은?)

108008 #1 부섭은 이걸 대문²⁴⁷이렌 허거든.(‘부섭’은 이걸 ‘대문’이라고 하거든.)

108008 #1 예, 예.(예, 예.)

108008 @ 대문으로 쪽 들어오면 켈 안에. 뒷문 뒷문 가차이 가서.(‘대문’으로 쪽 들어오면 켈 안에. 뒷문 뒷문 가까이 가서.)

108008 @ 이게 뒷문이면.(이게 뒷문이면.)

108008 #1 뒷문 가차이 가서 만들주게.(뒷문 가까이 가서 만들지.)

108009 @ 뒷문 가차이 가 가지고. 으, 부섭은예. 게문 고팡에는 뭐 뭐 놔둬니까?(뒷문 가까이 가서. 으, ‘부섭’은요. 그럼 고팡에는 뭐 뭐 놔둬니까?)

108009 #1 아, 쌀 같은 거나 소금이, 같은 거. 쌀 같은 거 놓는 디주게.(아, 쌀 같은 거나 소금이, 같은 거. 쌀 같은 거 놓는 데지.)

108009 @ 무사 고팡을 만들어나신고예? 그때는.(왜 고팡을 만들었었을까요?)

108009 #1 여긴 창고가 없으니까.(여긴 창고가 없으니까.)

108009 @ 창고가 없으니까. 게문 고팡에 왜 안칠성²⁴⁸이 산다고?(창고가 없으니까. 그럼 고팡에 왜 안칠성이 산다고?)

108009 #1 아, 거는 허는 사람 아니 허는 사람.(아, 거는 하는 사람 아니 하는 사람.)

108009 @ 허는 사람 안 허는 사람.(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108009 #1 허는 집, 안 허는 집. 안칠성 밧칠성²⁴⁹ 허는디, 이쪽으로는 거 허는 집이 벨로 드물어.(하는 집, 안 하는 집. 안칠성 ‘밧칠성’ 하는데, 이쪽으로는 거 하는 집이 벨로 드물어.)

246) ‘삼방’은 표준어로 ‘마루’를 말한다. ‘상방’, ‘마리’라고도 한다.

247) ‘대문’은 집의 앞쪽에서 마루로 드나드는 문을 말한다.

248)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는 뱀 신을 말한다. 여자 귀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249) ‘밧칠성’은 울타리 안의 일정한 곳을 정해서 모시는 신을 말한다.

108009 @ 아, 남원은 별로 안 해. 그럼 안칠성 허는 디는 나중에 제사 때?(아, 남원은 별로 안 해. 그럼 안칠성 하는 데는 나중에 제사 때?)

108009 #1 제사 때 거 올리고 허주게.(제사 때 거 올리고 하지.)

108009 @ 고팡제 지내는 거라예?(고방제 지내는 거지요?)

108009 #1 으.(으.)

108009 @ 그럼, 여기 남원리 고팡제 안 지냅니까?(그럼, 여기 남원리 고팡제 안 지냅니까?)

108009 #1 허는 집이 드물어.(하는 집이 드물어.)

108010 @ 아, 드물어. 기구나. 정지는, 정지에는?(아, 드물어. 그렇구나. 부엌은, 부엌에는?)

108010 #1 부엌.(부엌.)

108010 @ 부엌예?(부엌요?)

108010 #1 으.(으.)

108010 @ 부엌을 정지렌 헛수과, 정제렌 헛수과?(부엌을 ‘정지’라고 했습니까, ‘정제’라고 했습니까?)

108010 #1 정제, 정제 헤여.(‘정제’, ‘정제’ 해.)

108010 @ 정제예.(‘정제’요.)

108010 #1 으.(으.)

108010 @ 정제렌 허는디 정제에는, 정제에 뭐 뭐 잇수과? 잇엇던 물건. 솥 잇고?(부엌이라고 하는데 부엌에는, 부엌에는 뭐 뭐 잇습니까? 잇엇던 물건. 솥 잇고?)

108010 #1 살레.(찬장.)

108010 @ 살레 잇고?(찬장 잇고?)

108010 #1 거뿐이주게 무시거.(거뿐이지 무엇.)

108010 @ 물항?(물독?)

108010 #1 물항허고. 물항은 거 우선권이니까.(물독하고. 물독은 거 우선권이니까.)

108010 @ 하하하.(하하하.)

108010 #1 거 말고는 다른 거 있을 수가 엇주게. 살레는 사발 거튼 거 놓는 데니까.(거 말고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지. 찬장은 사발 같은 거 놓는 데니까.)

108010 @ 놓는 거, 사발 씻영 놓고예?(놓는 거, 사발 씻어서 놓고요?)

108010 #1 어.(어.)

108010 @ 거른 솥은 한 몇 개나 안청 잇어? 집마다 틀려?(그럼 솥은 한 몇 개나 앓혀 잇어? 집마다 틀려?)

108010 #1 두 개, 세 개.(두 개, 세 개.)

108010 @ 두 개 세 개.(두 개, 세 개.)

108010 #1 집집마다 틀리주.(집집마다 틀리지.)

108010 @ 예, 틀려예.(예, 틀려요.)

108011 @ 두 개, 세 개. 여기에 집 짓을 때 요 주위에 이거를 뭐렌 험니까. 이거를?(두 개, 세 개. 여기에 집 지을 때 요 주위에 이거를 뭐라고 험니까. 이거를?)

108011 #1 문 이신 디?(문 있는 데?)

108011 @ 으, 문 이신 디. 문 이신 디 나무를.(으, 문 있는 데. 문 있는 데 나무를.)

108011 #1 게메. 문 옆에 세우는 건.(그러게. 문 옆에 세우는 건.)

108011 @으.(으.)

108011 #1 뭐냐 입쟁이게.(뭐냐 입쟁이.)

108011 @ 입쟁이. 문입쟁이?(입쟁이. 문설주?)

108011 #1 으.(으.)

108011 @ 게믄 문입쟁이렌 허면.(그럼 문설주라고 하면.)

108011 #1 거 아래 거나 우이 건 지팡.(거 아래 거나 위에 건 문지방.)

108011 @ 문지방.(문지방.)

108011 #1 어.(어.)

108011 @ 여기 옆에 세워 두는 건 문입쟁이.(여기 옆에 세워 두는 거 문설주.)

108011 #1 어.(어.)

108011 @ 우에 거랑 아래 거는 문지방?(위에 거랑 아래 거는 문지방?)

108011 #1 어, 지팡.(어, 문지방.)

108011 @ 지팡, 그거 세워 놓고 문 끼우젠 허면?(지방, 그거 세워 놓고 문 끼우려고 하면?)

108011 #1 무시거.(무시거.)

108011 @ 뭐?(뭐?)

108011 #1 도절귀 허주게. 문, 문 저 도메²⁵⁰⁾ 시키는 건, 옛날엔 밀장²⁵¹⁾이 아니라 열고 닫아 허는 거니까.(돌쩌귀 하지. 문, 문 ‘도메’ 시키는 건. 옛날엔 미단이 문이 아니라 열고 닫고 하는 거니까.)

108011 @ 예.(예.)

108011 #1 건 도절귀.(건 돌쩌귀.)

108011 @ 아, 도절귀. 문도절귀렌 험니까, 그냥 도절귀렌 험니까?(아, 돌쩌귀. 문돌쩌귀라고 험니까, 그냥 돌쩌귀라고 험니까?)

108011 #1 도절귀, 도절귀 허주게.(돌쩌귀, 돌쩌귀 하지.)

108013 @ 도절귀예. 여기에 문 만들 때 호령창²⁵²⁾도 만들어놨수가?(돌쩌귀요. 여기는 문 만들 때 ‘호령창’도 만들었었습니까?)

108013 #1 그런 말은 없어 여긴. 호령창 허는 말은 었어.(그런 말은 없어 여긴. ‘호령창’ 하는 말은 없어.)

250) ‘도메’는 일본어 ‘とめ’에서 온 말로, ‘멈추게 함 또는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251) ‘밀장’은 미단의 문의 하나로 ‘밀장문’이라고도 한다.

252) ‘호령창’은 마루의 큰 대문 옆에 만든 조그만 창을 말한다.

108014 @ 엇어, 호령창 엇어예. 저 굴묵²⁵³⁾ 하면 굴묵 진젠 허면 연료 같은 건 어떤 거 써낫수과?(없어, ‘호령창’ 없어요. 저 ‘굴묵’ 하면 ‘굴묵’ 때려고 하면 연료 같은 건 어떤 거 썼었습니까?)

108014 #1 옛날 몬지락²⁵⁴⁾이나 소똥 똥똥 좇어다가.(옛날 ‘몬지락’이나 소똥 말똥 주워다가.)

108014 @ 소똥 말똥 주어다가. 게든 소똥 말똥 좇으레는 언제쯤 가는 것과?(소똥 말똥 주워다가. 그럼 소똥 말똥 주우러는 언제쯤 가는 겁니까?)

108014 #1 건 혼이 없어.(건 한이 없어.)

108014 @ 그냥 밧디 이신 디 아무 디 강?(그냥 밧에 있는 데 아무 데 가서?)

108014 #1 으.(으.)

108014 @ 그럼 여름 때도 강 모아 낚당 겨울에?(그럼 여름 때도 가서 모아 낚다가 겨울에?)

108014 #1 시꺼 움도 허고. 옛날에는 여기에 마당이라고 해서 마당에 검질을 깔았거든.(실어 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기 마당이라고 해서 마당에 검불을 깔았거든.)

108014 @ 예.(예.)

108014 #1 풀을.(풀을.)

108014 @ 예.(예.)

108014 #1 겐 몬지락이 생겨. 걸 모다 낚다가.(그래서 ‘몬지락’이 생겨. 걸 모아 낚다가.)

108014 @ 아, 그 마당에 깔았던 허는 뭐는?(아, 그 마당에 깔았다고 하는 뭐는?)

108014 #1 제주도 말로 새.(제주도 말로 새.)

108014 @ 아, 새 깎아낫수과? 보리짚 깎아난 건 아니고?(아, 새 깔았었습니까? 보리짚 깔았던 건 아니고?)

108014 #1 보리짚도 깔고 새도 깔고 조침도 깔고. 조침은 소 뻥이라고 잘 안 깔지.(보릿짚도 깔고 새도 깔고 조짚도 깔고. 조짚은 소 먹이려고 잘 안 깔지.)

108015 @ 안 깔고. 아, 집 앞에 요거는 뭐마씨, 요거?(안 깔고. 아, 집 앞에 요거는 뭐입니까, 요거?)

108015 #1 어느 거?(어느 거?)

108015 @ 이 여기 초가 앞이 요렇게 이거.(이 여기 초가 앞에 요렇게 이거.)

108015 #1 풍채.(차양.)

108015 @ 풍채예?(차양요?)

108015 #1 으, 여긴 풍채.(으, 여긴 차양.)

108015 @ 풍채는 아예 달린 것도 있고 뗄 수 있는 것도 잇수과?(차양은 아예

25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254) ‘몬지락’은 표준어 ‘먼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검불’의 의미로 쓰였다.

달린 것도 있고 뿔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108015 #1 전부 여긴 뿔 수 있게끔 허고, 허는 집이 드물었어. 여긴. 바람이 세니까.(전부 여긴 뿔 수 있게끔 하고, 허는 집이 드물었어. 여긴. 바람이 세니까.)

108015 @ 아.(아.)

108015 #1 여긴 남풍이 세니까.(여긴 남풍이 세니까.)

108015 @ 아, 바람 세 부난 풍채 많이 안 했고. 게문 때는 거랑 그냥 붙어진.(아, 바람 세 버리니까 차양 많이 안 했고. 그럼 때는 거랑 그냥 붙어진.)

108015 #1 에에, 붙은 건 없었어.(에에, 붙은 건 없었어.)

108015 @ 아, 붙는 건 없고. 어쨌든 그냥 풍채엔 붙었던 거라예?(아, 붙는 건 없고 어쨌든 그냥 차양이라고 붙었던 거지요?)

108015 @ 어.(어.)

108016 #1 풍채예. 물팡²⁵⁵은 뭐과, 물팡?(차양요. ‘물팡’은 뿔니까, ‘물팡’?)

108016 #1 아, 게 물 정 와서 부리는 데.(아, 물 지고 와서 부리는 데.)

108016 @ 부리는 데.(부리는 데.)

108016 #1 그냥 밑에 못 부리니까 돌로 팡²⁵⁶을 만들주게.(그냥 밑에 못 부리니까 돌로 ‘팡’을 만들지.)

108016 @ 예. 게민, 물허벅²⁵⁷에 물 길어 온 거?(예. 그럼, ‘물허벅’에 물 길어 온 거?)

108016 #1 어, 그렇주게. 물허벅에 구덕 헤근에 정 오면은 땅에 못 부리니까.(어. 그렇지. ‘물허벅’에 바꾸니 해서 저 오면 땅에 못 부리니까.)

108016 @ 음.(음.)

108016 #1 그 부리기 좋게끔 돌을 양 옆이 세와 가지고 우이 팽팽한 돌로.(그 부리기 좋게끔 돌을 양 옆에 세워 가지고 위에 평평한 돌로.)

108016 @ 으.(으.)

108016 #1 요즘은 까끄주만은 옛날에는 다니면서 팽팽헌 돌 주워다가.(요즘은 깎지만 옛날에는 다니면서 평평한 돌 주워다가.)

108016 @ 으, 게문 영 집 짓으면 어느 쪽에 물팡을 만들앗수과?(으, 그럼 이렇게 집 지으면 어느 쪽에 ‘물팡’을 만들었습니까?)

108016 #1 정제 쪽으로.(부엌 쪽으로.)

108016 @ 아, 정제 쪽에, 정제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예?(아, 부엌 쪽에, 부엌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요?)

108016 #1 으, 밖에, 밖에.(으, 밖에, 밖에.)

108016 @ 게문, 물항은 정제에 뉘난?(그럼, 물독은 부엌에 뉘었어?)

108016 #1 정제 안에.(부엌 안에.)

255)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말한다.

256) ‘팡’은 말을 타로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때에 받침이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257) ‘물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쓰는 허벅이다.

108016 @ 정제 안에 놓고, 그림 정 왕 거기 정지 쪽에.(부엌 안에 놓고, 그림 지고 와서 거기 부엌 쪽에.)

108016 #1 경 행 물 느리와근에 물 비와 땀, 그 물 진 차 강 항더레 비와 땀.
(그렇게 해서 물 내려서 물 비워 두고, 그 물 진 채 가서 항에 비워 두고.)

108016 @ 물 지는 거는 물허벅이고, 물구덕²⁵⁸ 있고, 대바지²⁵⁹는 뭐과?(물 지는 거는 ‘물허벅’이고, ‘물구덕’ 있고, ‘대바지’는 뭐니까?)

108016 #1 대바지는 허벅 족은 거.(‘대바지’는 허벅 작은 거.)

108016 @ 허벅 족은 거.(허벅 작은 거.)

108016 #1 어린 아이덜 쓰는 거.(어린 아이들 쓰는 거.)

108016 @ 아, 조그만헌 건 대바지.(아, 조그마한 건 ‘대바지’.)

108016 #1 어.(어.)

108016 @ 어른들 쓰는 건.(어른들 쓰는 건.)

108016 #1 허벅.(허벅.)

108017 @ 허벅 음. 허벅예. 저기 집, 아부지 집에도 집 앞에 골목이 잇엇수과?
올레²⁶⁰렌 헌 거?(허벅 음. 허벅요. 저기 집, 아버지 집에도 집 앞에 골목이 잇엇습
니까? ‘올레’라고 한 거?)

108017 #1 옛날에 거의 올레덜 잇엇주게.(옛날에 거의 ‘올레’들 잇엇지.)

108017 @ 거의 올레덜예, 골목예.(거의 ‘올레’요, 골목요.)

108017 #1 골목이엔 헌 건 여기서는 작은 길보고 골목이라고 허여.(골목이라고
한 건 여기서는 작은 길보고 골목이라고 해.)

108017 @ 여기 골목이라고 헤낫수과, 올레렌 안 허고?(여기 골목이라고 했엇습
니까, ‘올레’라고 안 하고?)

108017 #1 아니, 집이 들어오는 건 올레고 골목이엔 헌 거 여기선 작은 길.(아
니, 집에 들어오는 건 ‘올레’고 골목이라고 한 거 여기선 작은 길.)

108017 @ 작은 길.(작은 길.)

108017 #1 이 좁은 길, 넓지 않은 길보고 골목길이엔. 골목이엔 여기선.(이 좁은
길, 넓지 않은 길보고 골목길이라고. 골목이라고 여기선.)

108017 @ 좁은 길은 골목이렌 허고, 집 안터레 들어오는 건?(좁은 길은 골목이
라고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건?)

108017 #1 올레.(‘올레’)

108018 @ 올레렌 허고예, 예. 문간채라고는 안 헤낫수과?(‘올레’라고 하고요,
예. 문간채라고는 안 했엇습니까?)

108018 #1 여긴 문간채라는 말은 없엇주.(여긴 문간채라는 말은 없엇지.)

108003 @ 엇어예, 으. 안커리, 바커리엔 쓰고 목커리도 안 쓰고예?(없어요, 으.
안채, 바깥채엔 쓰고 곁채도 안 쓰고요?)

258) ‘물구덕’은 ‘물허떡’을 넣고 지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259) ‘대바지’는 어린 아이들이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허벅을 말한다.

260)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8003 #1 몽커리엔 쓰는 데 벨로 엇엇주.(결채엔 쓰는 데 별로 없었지.)

108019 @ 가리터는 뭐과, 가리? 우리 출 같은 거 해 오면 가리 만듭니까?(가리 터는 뭇니까, 가리? 우리 풀 같은 거 해 오면 가리 만듭니까?)

108019 #1 여기는 가리터엔 현 말이 없는데.(여기는 가리터라고 하는 말은 없는데.)

108019 @ 으.(으.)

108019 #1 저 여기서는 가리라고 하면은 따비라고 현 것이 있어.(저 여기서는 가리라고 하면 따비라고 한 것이 있어.)

108019 @ 으.(으.)

108019 #1 옛날 흑 일르는 거.(옛날 흑 일구는 거.)

108019 @ 으.(으.)

108019 #1 걸 요렇게 생긴 걸 보고 여기서는 가리라고 해여.(걸 요렇게 생긴 걸 보고 여기서는 ‘가리’라고 해.)

108019 @ 으. 흑 일르는 거.(으. 흑 일구는 거.)

108019 #1 겐디 다른 말은 없어.(그런데 다른 말은 없어.)

108019 @ 예, 그 출 해 오면 출놀 놀잖아예?(예, 그 풀 해 오면 풀가리 가리잖아요?)

108019 #1 게, 놀주게.(그럼, 가리지.)

108019 @ 그럼, 우이 지봉, 출놀도 영 지봉 덮으잖아예.(그럼, 위에 지봉, 풀가리도 이렇게 지봉 덮잖아요.)

108019 #1 건 옷뚜께라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긴 걸로 해서 우이 더뜨주게.(건 윗뚜껍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긴 걸로 해서 위에 덮지.)

108019 @ 아, 출 가져온 거 해 가지고 가장 긴 거를 옷뚜께렌 헐 거예?(아, 풀 가져온 거 해 가지고 가장 긴 거를 윗뚜껍이라고 할 거요?)

108019 #1 으.(으.)

108019 @ 예, 알았수다. 잠깐만.(예, 알았습니다. 잠깐만.)

108019 #1 오즘이나 싸 똥.(오즘이나 싸 두고.)

108019 @ 예.(예.)

108021 @집에 돼지우리가 있어났잖아예?(집에 돼지우리 있었잖아요?)

108021 #1 돛통.(돼지우리.)

108021 @ 돛통, 돛통 있어났지예. 돛통 하면은.(돼지우리, 돼지우리 있었었지요. 돼지우리 하면.)

108021 #1 겐디 여기 돛통이엔도 허고.(그런데 여기 돼지우리라고도 하고.)

108021 #2 통시.(변소.)

108021 #1 통시엔도 허고.(변소라고도 하고.)

108021 @ 통시엔도 허고예?(변소라고도 하고요?)

108021 #1 어.(어.)

108021 @ 기민 여기 화장실 볼 때 거기에 판때기 놔진 건 뭐렌 해낫수과?(그럼 여기 화장실 볼 때 거기에 판때기 놓인 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108021 #2 지들팡.(부출돌.)

108021 @ 지들팡.(부출돌.)

108021 #2 겐디 디딜팡인디 지들팡이엔 헤 여긴.(그런데 ‘디딜팡’인데 ‘지들팡’이라고 해 여긴.)

108021 @ 지들팡.(부출돌.)

108021 #1 음이 나오는 게 따지고 보민 디딜팡인디. 디딘다.(음이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디딜팡’인데. 디딘다.)

108021 #2 돌로 현 건 잘 현 집이고 나무땡이 걸청.(돌로 한 건 잘 한 집이고 나무 걸쳐서.)

108021 #1 나무땡이 두 개 영 놔근에.(나무 두 개 이렇게 놔서.)

108021 @ 돌로 현 것도 디딜, 지들팡, 나무로 현 것도 지들팡.(돌로 한 것도 디딜, ‘지들팡’, 나무로 한 것도 ‘지들팡’.)

108021 #1 어.(어.)

108021 @ 낭 지들팡이렌은 따로 안 허고?(나무 ‘지들팡’이라고는 따로 안 하고?)

108021 #1 아니, 경 안 곶야.(아니, 그렇게 안 말해.)

108021 @ 다 지들팡예?(다 부출돌요?)

108021 #1 어.(어.)

108020 @ 케민, 돼지 우에 요렇게 돼지 비 맞을 거 생각해영.(그럼, 돼지 위에 요렇게 돼지 비 맞을 거 생각해서.)

108020 #1 건 돼지 집.(건 돼지 집.)

108020 @ 돼지 집도 있고.(돼지 집도 있고.)

108020 #1 어, 거 다 해야지.(어, 거 다 해야지.)

108020 @ 다 해야 되는 거예.(다 해야 되는 거요.)

108020 #2 돛칩²⁶¹.(돼지 집.)

108020 @ 돛칩.(돼지 집.)

108020 #2 으, 돛집, 돛집.(으, 돼지 집, 돼지 집.)

108020 @ 돛집도 있고.(돼지 집도 있고.)

108020 #1 어.(어.)

108020 @ 우리 일 볼 때 가려지는 이것도 하고?(우리 일 볼 때 가려지는 이것도 하고?)

108020 #1 옛날엔 없었어.(옛날엔 없었어.)

108020 @ 옛날엔 엇어난예. 엇어난예?(옛날엔 없었어요, 없었어요?)

261) ‘돛칩’은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돼지 집을 말한다.

108020 #1 어.(어.)

108020 @ 헛간?(헛간?)

108022 #1 헛간이엔 현 건.(헛간이라고 한 건.)

108022 @ 쉼막.(외양간.)

108022 #1 밧거리에 문 없는 걸 헛간. 문 없으면 헛간.(바깥채에 문 없는 걸 헛간. 문 없으면 헛간.)

108022 @ 밧거리에 문 엇인 거예?(바깥채에 문 없는 거요?)

108022 #1 어.(어.)

108022 @ 헛간에 뭐 놔뒀수과?(헛간에 뭐 놔두었습니까?)

108022 #1 보통 헛간이엔 허면은 명석 같은 거나.(보통 헛간이라고 하면 명석 같은 거나.)

108022 @ 음, 명석 놔두고?(음, 명석 놔두고?)

108022 #1 또 게 예전엔 지들거. 땀감, 지들거도 들고고.(또 게 예전엔 땀감. 땀감, 땀감도 들고고.)

108022 #2 저 헛간더레 들어 불라.(저 헛간으로 들어 버려라.)

108022 @ 아, 헛간더레 들어 불라. 지들거도 들고고.(아, 헛간으로 들어 버려라. 땀감도 들고고.)

108022 #1 게 간단허게. 옛날에는 문거튼 거 헛라면 힘이 들고 없으니까. 또 그 걸 문을 달면은 세금을 내야 돼여.(그래, 간단하게. 옛날에는 문 같은 거 하려면 힘이 들고 없으니까. 또 그거 문을 달면 세금을 내야 돼.)

108022 @ 으, 음.(으, 음.)

108022 #1 지금도 집을 지어 가지고는 문이 없으면 집이라고 안 험니다이.(지금도 집을 지어 가지고는 문이 없으면 집이라고 안 합니다.)

108022 @ 아, 집이라고 안 험마씨?(아, 집이라고 안 합니까?)

108022 #1 어, 세금 안 받아 가. 이 집 이렇게 짓어 놓고 문 없으면 세금 안 받아 가.(어, 세금 안 받아 가. 이 집 이렇게 지어 놓고 문 없으면 세금 안 받아 가.)

108022 @ 아, 집이라고 생각 안 행예?(아, 집이라고 생각 안 해서요?)

108022 #1 으.(으.)

108023 @ 쉼막은?(외양간은?)

108023 #1 쉼막은 소 매는 디게. 소나 말 매는 디.(외양간은 소 매는 데. 소나 말 매는 데.)

108023 @ 소나 말 매는 디.(소나 말 매는 데.)

108023 #1 겨울에, 여름에는 방목허고 겨울에 가져다가 거기다가 여기서 맨다고 허주게. 무꺼 놓는 거. 쉼 맨다, 물 맨다.(겨울에, 여름에는 방목하고 겨울에 가져다가 거기다가 거기다가 여기서 맨다고 하지. 묶어 놓는 거. 소 맨다, 말 맨다.)

108024 @ 항 놔두는 디는 어디 항 놔뒀수과?(독 놔두는 데는, 어디 독 놔두었습니까?)

108024 #1 고팡.(고방.)
 108024 @ 고팡에 향 놔뒀수과?(고방에 독 놔두었습니까?)
 108024 #1 어.(어.)
 108024 @ 웬장, 간장 향은?(된장, 간장 독은?)
 108024 #1 그거는게, 장독이렌 허질 았고 여기는 안땀, 집 뒤에 안땀.(그거는, 장독이라고 하질 았고 여기는 ‘안땀’, 집 뒤에 ‘안땀’.)
 108024 @ 안투에?(‘안투에’?)
 108024 #1 뒤에, 안 뒤에.(뒤에, 안 뒤에.)
 108024 @ 안땀.(‘안땀’.)
 108024 #1 안땀, 안땀 허주게.(‘안땀’, ‘안땀’하지.)
 108024 @ 그럼 장독대를 거?(그럼 장독대를 거?)
 108024 #1 여기는 장독대란 말이 없어.(여기는 장독대란 말이 없어.)
 108024 @ 안땀렌 헛던 거.(‘안땀’라고 헛던 거.)
 108024 #1 으. 저 안땀에 강 장 거렁 오라.(으. 저 ‘안땀’에 가서 간장 떠 와라.)
 108025 @ 음. 춤²⁶²이나 춤향²⁶³은 뭐과?(음. ‘춤’이나 ‘춤향’은 뭇니까?)
 108025 #1 춤?(‘춤’?)
 108025 @ 으.(으.)
 108025 #1 춤이엔 건 여기서는 이 저 울타리에 나무가 있으면은 새를 가지고 무꺼 놔.(‘춤’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 저 울타리에 나무가 있으면 새를 가지고 묶어 놔.)
 108025 @ 어.(어.)
 108025 #1 경혜근에 향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춤 받는다고 그러지.(그래서 향아리에 물을 받는 거를 보고 ‘춤’ 받는다고 그러지.)
 108025 #2 그 물 먹엇주게.(그 물 먹엇지.)
 108025 @ 아, 수도 엇어 부난.(아, 수도 없어 버리니까.)
 108025 #1 어, 그렇주게.(어, 그렇지.)
 108025 @ 수도 엇어 부난.(수도 없어 버리니까.)
 108025 #1 물 질러 갈라고 허면은 여름에나 저 못에, 못이라든지 바닷가에 가야 물을 길어다 먹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 오면은 향아리를 해 가지고는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레 무꺼서 그레 물을 들어가게 하면은 이파리에 비 와서 골린 물이 전부 향아리에 전부 고이니까.(물 질러 가려고 하면 여름에나 저 못에, 못이라든지 바닷가에 가야 물을 길어다 먹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 오면 향아리를 해 가지고는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리 묶어서 그리 물을 들어가게 하면 이파리에 비 와서 고인 물이 전부 향아리에 전부 고이니까.)
 108025 #2 하늘로 내린 물은 좋다고 해서.(하늘로 내린 물은 좋다고 해서.)

262) ‘춤’을 새를 머리 땅듯이 땅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이나 빗물 따위를 나무 밑에 둔 향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263) ‘춤향’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받는 향아리를 말한다.

108025 @ 음.(음.)

108025 #1 걸 보고 춤 받는다고 했주.(걸 보고 ‘춤’ 받는다고 했지.)

초가 지붕하기

108026 @ 춤 받는다고 했던 거예. 그리고 우리 집에 지붕 그뎨 새로 허니까, 혈면 거뒤 가지고 다시?(‘춤’ 받는다고 했던 거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지붕 그뎨 새로 허니까, 혈면 거뒤 가지고 다시?)

108026 #1 아니, 거 거뒤 내는 건 막 몇 년 묵으면은 지붕이 무거우니까 거뒤냈주.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더뒤주제.(아니, 거 걸어 내는 건 아주 몇 년 묵으면 지붕이 무거우니까 거뒤냈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뒤었지.)

108026 @ 초가지붕 그거 몇 년이면 한 번씩 영 바뀔니까?(초가지붕 그거 몇 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바뀔니까?)

108026 #1 일 년이면, 매년.(일 년이면, 매년.)

108026 @ 아, 매년 허는 거과?(아, 매년 하는 겁니까?)

108026 #1 어.(어.)

108026 #2 새 이는 거게, 우에.(새 이는 거, 위에.)

108026 #1 게메.(그러니까.)

108026 @ 예, 새 더프는 거?(예, 새 뒤는 거?)

108026 #1 새 더프는 거 매해, 매해.(새 뒤는 거 매해, 매해.)

108027 @ 매해. 그럼 새 더프젠 허민 어떤 준비를 험니까? 지붕 이젠 허민?(매해. 그럼 새 뒤으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지붕 이려고 하면?)

108027 #1 새 비여당.(새 베어다가.)

108027 @ 새 비여당, 거 가을에 비여당예.(새 베어다가, 거 가을에 베어다가요.)

108027 #1 긴 건 새라. 그리고 짧은 건 각단²⁶⁴이라고 해.(긴 건 새야. 그리고 짧은 건 ‘각단’이라고 해.)

108027 @ 아, 예.(아, 예.)

108027 #2 각단이엔 허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논다²⁶⁵, 영 허는 사름은 줄 논다 허고 이거 데왕 가는 건 줄 빈다²⁶⁶ 이리거든. 그래 가지고는 그거 어울렁 새로 뒤어 가지고는 무끄는 거주.(‘각단’이라고 하는 건 줄 이젠, 줄 여기선 줄 놓는다, 이렇게 하는 사름은 줄 놓는다 하고 이거 틀어서 가는 건 ‘줄 빈다’ 이리거든. 그래 가지고는 그거 어울려서 새로 뒤어 가지고 묶는 거지.)

108027 @ 으. 그럼 각단으로는 줄 놓을 때 쓰는 거예?(으. 그럼 ‘각단’으로는 줄 놓을 때 쓰는 거요?)

264)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265) ‘줄 놓다’은 ‘집줄’을 꼬아 만드는 데는 띠를 알맞게 차례로 잘 조정해 주어 알맞은 굵기로 줄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66) ‘줄 빈다’는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서 ‘호롱이’란 도구로 줄이 되게 꼬는 것을 말한다. ‘집줄 빈다’라고도 한다.

- 108027 #1 어.(어.)
- 108027 @ 새는 언제 밍니까?(새는 언제 뱀니까?)
- 108027 #1 새는.(새는.)
- 108027 #2 십일월 돼사.(십일월 되야.)
- 108027 #1 동지 전에.(동지 전에.)
- 108027 @ 동지 전에.(동지 전에.)
- 108027 #1 그러면 완전히 노랗게 익주게 익어. 미리 허면은 야리거든.(그러면 완전히 노랗게 익지 익어. 미리 하면 야리거든.)
- 108027 #2 지난 허민 눈 맞앙 삭아 불고.(지나서 하면 눈 맞아서 삭아 버리고.)
- 108027 #1 게난 새 빔이 힘들엇주게.(그러니까 새 베기가 힘들었지.)
- 108027 @ 아, 그믄 출 다 끝나고 나서다예?(아, 그럼 풀 다 끝나고 나서네요?)
- 108027 #1 아이, 출 끝나고 보리 농서짓고 난 다음에.(아이, 풀 끝나고 보리 농사짓고 난 다음에.)
- 108028 @ 줄 만들 때는 어떻 합니까? 아까. 아까 각단으로 줄을 어떻 만들어?
(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아까 ‘각단’으로 줄을 어떻게 만들어?)
- 108028 #1 겐 혼 사름은 여기서 놓고.(그래서 한 사름은 여기서 놓고.)
- 108028 @ 놓고.(놓고.)
- 108028 #1 여기서 연결해 주는 사름보고 줄 놓는다 허고.(여기서 연결해 주는 사름보고 줄 놓는다 하고.)
- 108028 @ 줄 놓는다 허고.(줄 놓는다 하고.)
- 108028 #1 이거 젓어 가는 사름보곤 줄 빈다 허고.(이거 저어 가는 사름보곤 ‘줄 빈다’ 하고.)
- 108028 #2 어울릴 때는 네 사름도 비고.(어울릴 때는 네 사름도 ‘비고’.)
- 108029 @ 게니까 줄 놓젠 허민 뭐가 있어야잖아예?(그러니까 줄 놓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잖아요?)
- 108029 #1 호랭이²⁶⁷. 여기서는 호랭이.(‘호랭이’. 여기서는 ‘호랭이’.)
- 108029 @ 호랭이.(‘호랭이’.)
- 108029 #1 앉아서 허는 건 뒤채²⁶⁸.(앉아서 하는 건 ‘뒤채’.)
- 108029 @ 뒤채. 게믄 호랭이 돌리는 사름은 아까 뭐렌 허고?(‘뒤채’. 그럼 ‘호랭이 돌리는 사름은 아까 뭐라고 하고?)
- 108028 #1 줄 빈다.(‘줄 빈다’.)
- 108028 @ 줄 빈다 허고 뒤채 놓는 사름은 줄 논다?(‘줄 빈다’ 하고 ‘뒤채’ 놓는 사름은 줄 놓는다?)
- 108028 #1 어.(어.)
- 108028 @ 게믄 그거 놉 빌영 허는 것과?(그럼 그거 놉 빌려서 하는 겁니까?)

267) ‘호랭이’는 집줄,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268) ‘뒤채’는 집줄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108028 #1 수눌영도 허고 놉 빌영도 허고.(폼앗이도 하고 놉 빌려서도 하고.)

108028 #2 것이 누게 빌어오라사주게 이녁 식구 엇이민, 네 사름 허젠 허민.(것이 누구 빌려와야지 이녁 식구 없으면, 네 사람 하려고 하면.)

108028 @ 네 사름 해야 돼는 거?(네 사람 해야 되는 거?)

108028 #2 흐나로 비여²⁶⁹)당 여기 폼앗당 흐나로 두 개 만들어사 베 뒤여근에 혈거나 여기서 둘이 비고 저기서 혼 놉 들르고 혼 놉은 영 심어근에 영 헤영 놓고 허민 네 사름.(하나로 꼬다가 여기 폼앗다가 하나로 두 개 만들어야 바 되어서 혈거나, 여기서 둘이 꼬고 저기서 한 놉 들고 한 놉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놓고 하면 네 사람.)

108028 @ 네 사름 잇어야 혈 거. 수눌영 헤사큰게.(네 사람 잇어야 할 거. 폼앗 이해서 해야겠네.)

108028 #2 줄 올리젠 허민 막 빌어 오람주게.(줄 올리려고 하면 막 빌려 오지.)

108028 #1 보통 수눌영도 허고 집 식구 잇이민 식구끼리 허곡게.(보통 폼앗이해서도 하고 집 식구 있으면 식구끼리 하고.)

108030 @ 음. 그 아까 우리 초가집 앞에.(음. 그 아까 우리 초가집 앞에.)

108030 #1 풍채.(차양.)

108030 @ 풍채 말고 그 집줄²⁷⁰) 이을 때 이 낭을?(차양 말고 그 ‘집줄’ 이을 때 이 나무를?)

108030 #1 거왕.(평고대.)

108030 @ 아, 이거 거왕이렌 허는 거예?(아, 이거 평고대라고 하는 거요?)

108030 #1 으, 거왕.(으, 평고대.)

108030 @ 이걸 대나무로 사용했었다는 거지예?(이걸 대나무로 사용했었다는 거지요?)

108030 #1 대나무, 대나무가 오래 가고 미끄러운 게 그거베끼 없으니까게. 나무는 그런 게 없으니까.(대나무, 대나무가 오래 가고 미끄러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무는 그런 게 없으니까.)

108030 @ 으, 길고?(으, 길고?)

108030 #1 으.(으.)

108030 @ 그럼 이 집줄 매기는 일 년에 혼 번 하는 거마씨?(그럼 이 ‘집줄’ 매기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요?)

108030 #1 으.(으.)

108031 @ 일 년에 혼 번예. 그 집줄 감아 낱 집줄 놓아 낱 막 하영 만들어졌수다, 하영 만들어지난.(일 년에 한 번요. 그 ‘집줄’ 감아 놓고 ‘집줄’ 놓고 나서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드니까.)

108031 #1 그렇지.(그렇지.)

269) ‘비다’는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그것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엮어매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 떠는 꼬는 것을 말한다.

270)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엮어매는 줄을 말한다.

108031 @ 이 남으면 어떻 험니까? 집줄 남은 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줄’ 남은 거?)

108032 #1 무사 남아? 아, 옛날 부엌 방식.(왜 남아? 아, 옛날 부엌 방식.)

108032 @ 아, 하하.(아, 하하.)

108032 #1 그 줄로 영 험 부엌 방식을 쟁 안 허민 때어 불고, 불 질러 불고.(그 줄로 이렇게 해서 부엌 방식을 그렇게 안 하면 때 버리고, 불 질러 버리고.)

108032 @ 남은 거 불 질러 불고.(남은 거 불 질러 버리고.)

108032 #1 게고 또 이거 사용해난 거, 사용해난 거는 빨감으로 사용하고.(그리고 또 이거 사용했던 거, 사용했던 거는 빨감으로 사용하고.)

108032 @ 우에 써난 거예?(위에 썼던 거요?)

108032 #1 으, 건 빨감으로 사용허고.(으, 건 빨감으로 사용하고.)

108032 @ 막 삭은 거 불 잘 붙으난예.(아주 삭은 거 불 잘 붙으니까요.)

108032 #1 맞추게.(맞지.)

연장

108033 @ 집 지을 때 연장은 뭐 뭐 필요험니까?(집 지을 때 연장은 뭐 뭐 필요 합니까?)

108033 #1 무시거 집 짓을 때?(무엇 집 지을 때?)

108033 @ 예, 연장? 집 지을 때 쓰는 연장?(예, 연장? 집 지을 때 쓰는 연장?)

108033 #1 경허난 요즘 목수덜은 그걸 안 허는데, 옛날엔 자귀. 곱자귀²⁷¹라고 자귀.(그러니까 요즘 목수들은 그걸 안 하는데, 옛날엔 자귀. ‘곱자귀’라고 자귀.)

108033 @ 자귀.(자귀.)

108033 #1 또 까끄는 건 귀자귀.(또 깎는 건 귀자귀.)

108033 @ 귀자귀²⁷².(귀자귀.)

108033 #1 큰 나무 가지고 영 가까 내는 건.(큰 나무 가지고 이렇게 깎아 내는 건.)

108033 @ 으, 으.(으, 으.)

108033 #1 귀자귀, 자귀, 톱, 끌.(귀자귀, 자귀, 톱, 끌)

108033 @ 으.(으.)

108033 #1 옛날엔 못이 힘들었으니까 못을 잘 안 썰주게.(옛날엔 못이 힘들었으니까 못을 잘 안 썰지.)

108033 @ 톱, 톱이랑 끌이랑.(톱, 톱이랑 끌이랑.)

108033 #1 으.(으.)

108033 @ 못은 힘들어서예?(못은 힘들어서요?)

108033 #1 어. 요 근래 와서 못덜은 사용험주게.(어. 요 근래 와서 못들은 사용

271) ‘곱자귀’는 자귀의 한 종류다.

272) ‘귀자귀’는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를 말한다.

했지.)

108033 @ 계민 자귀, 톱, 끌 요거 있으면 집 지어지는 거?(그럼 자귀, 톱, 끌 요거 있으면 집 지을 수 있는 거?)

108033 #1 으.(으.)

108033 @ 흙 바를 때 쓰는 건?(흙 바를 때 쓰는 건?)

108033 #1 아, 손으로. 옛날엔 다 손으로.(아, 손으로. 옛날엔 다 손으로.)

108033 @ 아, 손으로 헛수과?(아, 손으로 헛수과였습니까?)

108033 #1 어, 옛날에 다 손으로. 췌손이엔 헛 거는.(어, 옛날에 다 손으로. 쇠손이라고 하는 거는.)

108033 @ 췌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여. 건 세멘²⁷³⁾ 나오면서 나온 거.(쇠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거 시멘트 나오면서 나온 거.)

108033 @ 아, 흙 바를 땐 손으로, 나무로도 뭐 안 만들어?(아, 흙 바를 땐 손으로 나무로도 뭐 안 만들어?)

108033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8033 @ 계민 이건 췌손이잖아예?(그럼 이건 쇠손이잖아요?)

108033 #1 으.(으.)

108033 @ 이 받치는 건 뭐렌 헛수과? 건 엇어난?(이 받치는 건 뭐라고 헛수과였습니까? 건 없었어?)

108033 #1 여기서는 그걸 안 췌.(여기서는 그걸 안 썼어.)

108033 @ 안 췌난.(안 썼어.)

108033 #1 이 삭강 세멘 나옴 시작해사.(이 ‘삭강’ 시멘트 나오기 시작해야.)

108033 @ 음.(음.)

108033 #1 겐디 이제 그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 선생이라고. 여기 와 가지고, 저 일본서 나와가지고 중학교 선생도 했는데 이 양반이 여기 소라 껍질.(그런데 이제 그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 선생이라고. 여기 와 가지고, 저 일본서 나와서 중학교 선생도 했는데 이 양반이 여기 소라 껍질.)

108033 @ 음.(으.)

108033 #1 구쟁기 껍질 해 가지고 술아서 휘를 만들었어.(소라 껍질 해 가지고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어.)

108033 @ 으.(으.)

108033 #1 석회, 휘 그걸로 칠하는 사람은 그걸로 헛수과.(석회, 회 그걸로 칠하는 사람은 그걸로 헛수과.)

108033 @ 아, 조개껍질 같아 가지고.(아, 조개껍질 같아 가지고.)

108033 #1 아니, 불태와 가지고는.(아니, 불태워 가지고.)

108033 @ 아, 불태왕.(아, 불태워서.)

108033 #1 그러면 그걸 휘, 석회라고 헛수과는 그걸 만들어서, 요 앞에서 그

273) ‘세멘’은 일본어 ‘セメン’으로 시멘트를 말한다.

걸 만들었는데.(그러면 그걸 회, 석회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요 앞에서 그걸 만들었는데.)

108033 @ 그거 할 때는 쇠손 써놔수과?(그거 할 때는 쇠손 썼었습니까?)

108033 #1 어.(어.)

108034 @ 톱도 종류가 있지 않우과?(톱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8034 #1 큰 건 거두.(큰 건 거도.)

108034 @ 응, 큰 건 거두 그리고?(응, 큰 건 거도 그리고?)

108034 #1 작은 건 그대로 톱.(작은 건 그대로 톱.)

108034 @ 작은 건 톱.(작은 건 톱.)

108034 #1 또 또 목수들 쓰는 거, 이 문 짤 때 쓰는 건 양날베기²⁷⁴.(또 또 목수들 쓰는 거, 이 문 짤 때 쓰는 건 양날박이.)

108034 @ 양날베기. 그건 날이 두 쪽 있는 거?(양날박이. 그건 날이 두 쪽 있는 거?)

108034 #1 으, 양쪽 있는 거.(으, 양쪽 있는 거.)

108034 @ 양날베기. 또 왜 그 큰 톱 혼자 못 쓰고 둘이 잡앙 영 영 허는 것도 있잖아예?(양날박이. 또 왜 그 큰 톱 혼자 못 쓰고 둘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8034 #1 으, 그 낭 오리는 거. 건 줄톱²⁷⁵.(으, 그 나무 오리는 거. 건 ‘줄톱’.)

108035 @ 줄톱. 못 뽑을, 못 뽑을 때 쓰는 거?(‘줄톱’. 못 뽑을, 못 뽑을 때 쓰는 거?)

108035 #1 빠루²⁷⁶.(쇠지레.)

108035 @ 빠루? 못 뽑을 때 쓰는 거 빠루렌 험니까?(쇠지레? 못 뽑을 때 쓰는 거 쇠지레라고 합니까?)

108035 #1 어. 여기 사름덜은 빠루.(어. 여기 사람들은 쇠지레.)

108035 @ 빠루렌 허면 이거 못 뽑고 여기는?(쇠지레라고 하면 이거 못 뽑고 여기는?)

108035 #1 망치 그 그건 요 근래 나온 거.(망치 그 그건 요 근래 나온 거.)

108035 @ 아, 망치 요 근래 나온 거.(아, 망치 요 근래 나온 거.)

108035 #1 어, 그건 흔 작은 망치허고 흔 작은 못 뽑는 거주.(어, 그건 한 쪽은 망치하고 한 쪽은 못 뽑는 거지.)

108035 @ 배척이랑 장도리란 건 뭐과?(배척이랑 장도리란 건 뭐니까?)

108035 #1 장도리렌 현 거는 저 문 짤 때 쓰는 거.(장도리라고 한 거는 저 문 짤 때 쓰는 거.)

274) ‘양날베기’는 여기서 톱 종류 중에서 양쪽으로 날이 있는 톱을 말한다. ‘양날’은 ‘양날’이고 ‘-베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을 더하는 표준어의 접미사 ‘-박이’에 해당한다.

275) ‘줄톱’은 여기서 나무를 오릴 때 쓰이는 톱을 가리킨다.

276) ‘빠루’는 일본어 ‘パール(쇠지레)’에서 온 말이다.

108036 @ 문 짤 때 쓰는 거. 대패는 종류가?(문 짤 때 쓰는 거. 대패는 종류가?)

108036 #1 대패는 시아게²⁷⁷⁾ 대패 있고 그대로 대패 있는디.(대패는 끝손질 대패 있고 그대로 대패 있는데.)

108036 @ 으.(으.)

108036 #1 게 나무 편편하게 깎으는 거.(그래 나무 편편하게 깎는 거.)

108036 @ 예, 편편하게 깎을 때 쓰잖아예. 이런 거 밀 때 쓰는 거예. 게민 그거는 종류가 하나밖에 잇수과? 대패 종류도 여러 개 잇수과?(예, 편편하게 깎을 때 쓰잖아요. 이런 거 밀 때 쓰는 거요. 그럼 그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대패 종류도 여러 개 있습니까?)

108036 #1 어 어. 거 시아게 대패 있고, 시아게 일본말인데.(어 어. 거 끝손질 대패 있고, ‘시아게’ 일본말인데.)

108036 @ 으.(으.)

108036 #1 여기 사름덜 일본말이주만은 시아게 대패 시아게 대패 했주게.(여기 사람들 일본말이지만 ‘시아게’ 대패, ‘시아게’ 대패 했지.)

108036 @ 시아게 대패 있고 또?(끝손질 대패 있고 또?)

108036 #1 그대로 대패 있고.(그대로 대패 있고.)

108036 @ 그대로 대패 있고.(그대로 대패 있고.)

108036 #1 홈베기²⁷⁸⁾ 있고.(‘홈베기’ 있고.)

108036 @ 잠깐만예, 홈베기?(잠깐만요, ‘홈베기’?)

108036 #1 여기 홈 치는²⁷⁹⁾ 거게.(여기 홈 만드는 거.)

108036 @ 아, 홈 치는 거. 그른 시아게 대패는 어떤 거?(아, 홈 만드는 거. 그럼 끝손질 대패는 어떤 거?)

108036 #1 더 늘쓴 거.(더 날카로운 거.)

108036 @ 아, 보통 대패로 해 놓고 시아게 대패 해여.(아, 보통 대패로 해 놓고 끝손질 대패 해.)

108036 #1 으, 경 허게 뒤편은 이 저 대패허고 뭐 또 곱은자.(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저 대패하고 뭐 또 곱자.)

108037 @ 곱은자. 자예?(곱자. 자요?)

108037 #1 거 각 맞추는 거게.(거 각 맞추는 거.)

108037 @ 예, 각 맞추는 거, 곱은자 있고.(예, 각 맞추는 거, 곱자 있고.)

108037 #1 으.(으.)

108037 @ 또 자 뭐 또 잇수과? 곱은자 하나?(또 자 뭐 있습니까? 곱자 하나?)

108037 #1 곱은자면 뒤편.(곱자면 뒤편.)

108037 @ 곱은자면 뒤편, 으.(곱자면 뒤편, 으.)

277) ‘시아게’는 일본어 ‘しあげ’로 ‘마무리, 끝손질’의 의미다.

278) ‘홈베기’는 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킨다.

279) ‘홈 치다’는 홈을 만든다는 의미다.

108037 #1 켄디 곱은자도 요 근래 나온 것이지 옛날에는 나무로 해서 딱 만들
영 썰어.(그런데 곱자도 요 근래 나온 거지 옛날에는 나무로 해서 딱 만들어서 썰
어.)

108037 @ 아.(아.)

108037 #1 그 곱은자도 옛날에는. 그 각을 맞추기 위해서게.(그 곱자도 옛날에
는. 그 각을 맞추기 위해서.)

108037 @ 으, 으 나무로 만들었어?(으, 으 나무로 만들어서요?)

108037 #1 으.(으.)

108038 @ 그 떡통, 떡줄은 뭐봐?(그 떡통, 떡줄은 뭐니까?)

108038 #1 떡통이엔 현 거는 그 저 수평 맞추앙 재는 거.(떡통이라고 한 거는
그 저 수평 맞춰서 재는 거.)

108038 @ 떡통은 수평 재는 거. 떡줄은?(떡통은 수평 재는 거. 떡줄은?)

108038 #1 떡줄은게 떡통 안에 떡물 묻혀 가지고는 줄, 줄이 있어야 수평 짤 거
아니게.(떡줄은 떡통 안에 떡물 묻혀 가지고는 줄, 줄이 있어야 수평 짤 거 아니.)

108039 @ 수평 재는 거예, 집 지을 때. 흑손, 흑받기를?(수평 재는 거요, 집 지
을 때. 흑손, 흑받기를?)

108039 #1 여긴 그거 엇어.(여긴 그거 없어.)

108039 @ 엇어난예?(없었어요?)

108039 #1 전부 손으로.(전부 손으로.)

108039 @ 손으로 흑 부쳐난.(손으로 흑 붙였어.)

108039 #1 게도 옛날 사름덜 잘헤여.(그래도 옛날 사람들 잘해.)

108039 @ 음.(음.)

9. 신앙

109001 @ 그 가신 집에 신이 잇덴 허잖아?(그 가신 집에 신이 있다고 하잖아?)

109001 #2 음.(음.)

109001 @ 집에 신, 집안에 신 헤 가지고 식게할 때 조왕신 뭐 그런 것도 안 헤
낫수과, 어떤 거라? 가신이 뭐라, 가신이?(집에 신, 집안에 신 헤 가지고 제사할 때
조왕신 뭐 그런 것도 안 했었습니까, 어떤 거야? 가신이 뭐야, 가신이?)

109001 #2 안네엔 허지 안 헤사, 안네?('안네'라고 하지 았았어, '안네'.)

109001 @ 안네? 안네가 뭐과?('안네'? '안네'가 뭐니까?)

109001 #2 우린 안 해도 보통 사름덜이 제사할 때에.(우린 안 해도 보통 사람들
이 제사할 때에.)

109001 @ 으.(으.)

109001 #2 문전제²⁸⁰허고 이제 말론 그디가 어디 셔, 옛날에 고평에 쓸덜 놓고

헌디 그디 갖다 올리주게.(‘문전제’하고 이제 말로는 거기가 어디 있어, 옛날에 고방에 쌀들 놓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올리지.)

109001 @ 으.(으.)

109001 #2 그거는 허는데 다른 건 가신은 몰르고 안네라고 그걸 올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그거는 하는데 다른 건 가신은 몰르고 ‘안네’라고 그걸 올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109001 @ 게민 제서할 때 ㄱ치 다 올리는 거?(그럼 제사할 때 같이 다 올리는 거?)

109001 #2 어. 올리고 제사 설러베 가민 내리곡.(어. 올리고 제사 치워 가면 내리고.)

109001 @ 게민 삼촌네는 고팡제²⁸¹를 안 했던 거?(그럼 삼촌네는 ‘고방’제를 안 했던 거?)

109001 #2 으.(으.)

109002 @ 게민 성주는 뭐과, 성주?(그럼 성주는 뭇니까, 성주?)

109002 #2 성주, 집 짓으면 성주풀이.(성주, 집 지으면 성주풀이.)

109002 @ 아, 집 짓으면 성주풀이 허는 거?(아, 집 지으면 성주풀이 하는 거?)

109002 #2 어.(어.)

109002 @ 어쨌든 그것도 집에 신 이시난 신안테 신안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어쨌든 그것도 집에 신 있으니까 신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

109002 #2 성주?(성주?)

109002 @ 으.(으.)

109002 #2 성주 굿이주게.(성주 굿이지.)

109002 @ 예, 굿.(예, 굿.)

109002 #2 무당 빌어당.(무당 빌려다가.)

109002 @ 예, 게민 집 짓을 때 언제 성주를 허는 것과?(예, 그럼 집 지을 때 언제 성주를 하는 겁니까?)

109002 #2 헤지는 사름도 잇곡 못 허는 사름도 잇고.(할 수 있는 사름도 있고 못 하는 사름도 있고.)

109002 @ 겐 집 다 짓은 다음에 허는 거?(그럼 집 다 지은 다음에 하는 거?)

109002 #2 어, 살젠 허민. 살단도 허곡 살젠 허민 허고.(어, 살려고 하면. 살다가도 하고 살려고 하면 하고.)

109002 @ 아, 살단도 허고.(아, 살다가도 하고.)

109002 #2 으.(으.)

109002 @ 게민 뭇 뭇 올려놔?(그럼 뭇 뭇 올려놓아?)

109002 #2 거 심방 허렌 현 대로만 헤살 거주게.(거 무당 하라고 한 대로만 해

280)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281) ‘고팡제’는 제사 때 ‘고방’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야 할 거지.)

109002 @ 완전 성주는 굿이구나.(완전 성주는 굿이구나.)

109002 #2 어, 굿계. 아이고, 건 심방 빌영.(어, 굿. 아이고, 건 무당 빌려서.)

109002 @ 으.(으.)

109002 #2 그건 아무 소관 엇고 돈만 드는 거. 허렌 현 대로.(그건 아무 소관 없고 돈만 드는 거. 하라고 한 대로.)

109002 @ 으, 게민 삼촌네는 성주도 안 해낫수과?(으, 그럼 삼촌네는 성주도 안 했어요?)

109002 #2 아무 것도 안 했어.(아무 것도 안 했어.)

109002 @ 애기덜 아팠을 때도 뭐 안 허고?(아기들 아팠을 때도 뭐 안 하고?)

109002 #2 아파서계?(아파서?)

109003 @ 하하. 게민 문전제 지내는 거는 식계 때만 해당되는 것과?(하하. 그럼 ‘문전제’ 지내는 거는 제사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109003 #2 어계. 제사할 때만 문전제 허주 어느 때 허여?(어. 제사할 때만 ‘문전제’ 하지 어느 때 해?)

109003 @ 누계가 밖에, 웨방 나간다거나 혈 때?(누가 밖에, 외방 나간다거나 할 때?)

109003 #2 아니.(아니.)

109003 @ 안 해낫구나.(안 했었구나.)

109003 #2 아니, 밖에 나가는 사람은 그거는 사람마다 아니고 흐쫂 영 그런 무당에 흐쫂 허고 뭐 허는 사람은 어디 객지러레 애기덜 나가젠 허민 그 나그네²⁸²⁾ 빌어다근에 문전으로 빌어.(아니, 밖에 나가는 사람은 그거는 사람마다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런 무당에 조금 하고 뭐 하는 사람은 어디 객지로 아기들 나가려고 하면 그 나그네 빌려서 문전으로 빌어.)

109003 @ 예, 예. 경헌덴 험디다.(예, 예. 그런다고 함데다.)

109003 #2 그건 참 알기 쉽게 말허민 나가는 사람 어떻 성공허게 해 줘셴. 어디 시험을 보레 가든가이.(그건 참 알기 쉽게 말하면 나가는 사람 어떻게 성공허게 해주셴. 어디 시험을 보러 가든가.)

109003 @ 예.(예.)

109003 #2 뭐 허레 가젠 허민 문전에 비는 사람은 헌다.(뭐 하러 가려고 하면 문전에 비는 사람은 해.)

109003 @ 아, 게민 어쨌든 제사에 문전제 지내는 거처럼 차려 낵 여기.(아, 그럼 어쨌든 제사에 ‘문전제’ 지내는 거처럼 차려 놓고 여기.)

109003 #2 그건 오랑 심방 허는 대로 그추룩 츠리느냐게, 경 안 츠려근에 저 그 사람 오랑 찰허곡 돈허고 물허곡만 놓곡 또 그 크게 찰리젠 현 사람은 밥헝 놓고.(그건 와서 무당 하는 대로 그렇게 차리니, 그렇게 안 차려서 저 그 사람 와서 쌀하

282) 여기서 ‘나그네’는 무당을 가리킨다.

고 돈하고 물하고만 놓고 또 크게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밥해 놓고.)

109003 @ 아.(아.)

109003 #2 경행 오랑 빌주게. 저 어디 객지러레 아덜 시험을 보레 간다던가 참 사업을 허레 나간다던가 허민 경허는 사름은 한 생이더라.(그렇게 와서 빌지. 저 어디 객지에 아들 보러 간다던가 참 사업을 하러 나간다던가 하면 그러는 사람은 많은 모양이더라.)

109003 @ 음.(음.)

109003 #2 난 해 보도 안 허고 보도 안 헛주만은 들은 말로.(난 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안 헛지만 들은 말로.)

109003 @ 들은 말로.(들은 말로.)

109003 #2 어.(어.)

109004 @ 조왕이라는 건 뭐과?(조왕이라는 건 뭇니까?)

109004 #2 조왕은 부엌.(조왕은 부엌.)

109004 @ 부엌, 부엌 신. 계민 고평이랑 부엌이랑 뭐가 트난 거라?(부엌, 부엌 신. 그럼 고평과 부엌과 뭐가 다른 거야?)

109004 #2 틀리주게.(틀리지.)

109004 @ 으.(으.)

109004 #2 이건 조왕이고 고평은 고평이엔만 행 몰라. 이건 조왕이난 조왕엔 무신 절간에서나 오라근에 허꼭 저 잘허는 사름덜은 일 년에 혼 번 조왕제엔 허멍 나그넬 들양 오면.(이건 조왕이고 고평은 고평이라고만 해서 몰라. 이건 조왕이니까 조왕에는 무슨 절간에서나 와서 하고 저 잘하는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번 조왕제라고 하면서 나그넬 데러오면.)

109004 @ 으.(으.)

109004 #2 원 조왕으로덜 든 비는 생이라라.(원 조왕으로들 모두 비는 모양이야.)

109004 @ 계난 삼촌네는 일 년에 혼 번 정월달에 뭐 안 해낫구나?(그럼 삼촌네는 일 년에 한 번 정월달에 뭐 안 했었구나?)

109004 #2 으, 들은 말.(으, 들은 말.)

109005 @ 들은 말. 칠성²⁸³은 뭐과?(들은 말. ‘칠성’은 뭇니까?)

109005 #2 거 밖에, 밖에. 칠성이 두 가지라이.(거 밖에, 밖에 ‘칠성’이두 가지야.)

109005 @ 예, 예.(예, 예.)

109005 #2 막 위험헌 칠성은 밖에.(아주 위험한 ‘칠성’은 밖에.)

109005 @ 으.(으.)

109005 #2 밖에 저 무신 것사 해신디는 모르고 새 혼 단 해근에 영 무시거 주 쟁인가 꼭대기 창 더끈 거에 허고. 저 고평에.(밖에 저 무슨 것이야 했는지는 모르

283) ‘칠성’은 집안에서 신으로 모시는 뱀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 새 한 단 해다가 이렇게 무슨 주저리인가 꼭대기 창 덮은 거 하고. 저 고방에.)
 109005 @ 으.(으.)
 109005 #2 계난 건 아무 디나. 흔 밋을에 흔 집이나 두 집이나베끼 안 돼여.(그러니까 건 아무 데나. 한 마을에 한 집이나 두 집이나밖에 안 돼.)
 109005 @ 아, 칠성 모시는 디가 많지 않구나.(아, ‘칠성’ 모시는 데가 많지 않구나.)
 109005 #2 아이구, 어디.(아이고, 어디.)
 109005 @ 여기 어디 칠성 모신덴 허는 마을이 어디라, 거기 여자덜은 뱀 구신 부텅 온덴 허는?(여기 어디 ‘칠성’ 모신다고 하는 마을이 어디야, 거기 여자들은 뱀 귀신 붙어서 온다고 하는?)
 109005 #2 건 토산.(건 토산.)
 109005 @ 아, 토산.(아, 토산.)
 109005 #2 토산 당.(토산 당.)
 109005 @ 예, 예.(예, 예.)
 109005 #2 계난 그디 딸 해 오면 구신이 부터 온덴 허고 저 거시기 또 신산리.(그러니까 거기 딸 해 오면 귀신이 붙어 온다고 하고 저 거시기 또 신산리.)
 109005 @ 예.(예.)
 109005 #2 신산리 사름 해 오면 신산린 도깨비 구신이엔 허주.(신산리 사름 해 오면 신산린 도깨비 귀신이라고 하지.)
 109005 @ 계민 토산은 뱀 귀신이고 신산리는 도깨비 귀신이라?(그럼 토산은 뱀 귀신이고 신산리는 도깨비 귀신이야?)
 109005 #2 으, 계난 경헨 그디 신산리 사름 보통 믋스왕 안 헌데 허여.(으,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신산리 사름 보통 무서워서 안 한다고 해.)
 109005 @ 아.(아.)
 109005 #2 경해도 해 오라도 아무치도 안 헌디. 우리도 신산리 사름 해 오랏저 만은, 동세. 살암저, 하하.(그래도 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도 신산리 사름 해 왔지만, 동서. 살고 있어, 하하.)
 109005 @ 하하. 계민 칠성이라는 말이 뱀 귀신이렌 허는 말이 아니과?(하하. 그럼 ‘칠성’이라는 말이 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109005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9005 @ 건 다른 것과?(건 다른 겁니까?)
 109005 #2 으.(으.)
 109001 @ 다른 거. 계민 삼촌 어디 저기 절간에도 안 텡기고?(다른 거. 그럼 삼촌 어디 저기 절간에도 안 다니고?)
 109001 #2 절간에 가 와.(절간에 가 와.)
 109001 @ 절간엔 텡기멘?(절간에 다녀요?)
 109001 #2 절간엔 텡기단 나이가 드난 요샌 안 텡겸주.(절간에 다니다가 나이가

드니까 요샌 안 다니지.)

109001 @ 당에는 안 텡겡수과?(당에는 안 다녔습니까?)

109001 #2 당에는 영 귀중헌 일이나 잇어근에 옛날 저 아덜 풀면은 흥세²⁸⁴)를 낫주게. 친을 놓민 그건 가시어명이 알앙 처릴 헤사는디 탁 기자 돌려보내민 그거 혼 발 바라 놓고 겐 그거 바치는 디가 잇주게, 당.(당에는 이렇게 귀중한 일이나 잇어서 옛날 저 아들 팔면 ‘흥세’를 낫지. 친을 놓으면 그건 장모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탁 그냥 돌려보내면 그거 한 발 재 놓고 그래서 그거 바치는 데가 있어, 당.)

109001 @ 으.(으.)

109001 #2 그 당긱허는 날. 아무 날 아니라 심방 강긱허는 날.(그 당긱하는 날. 아무 날 아니라긱하는 날.)

109001 @ 으.(으.)

109001 #2 그런 거나 바치레 가 오랏주, 그자 믿음으로 가오진 안 허고.(그런 거나 바치러 갔다 왔지, 그저 믿음으로 갔다 오진 았고.)

109001 @ 아, 헤 온 거 바치레.(아, 헤 온 거 바치러.)

109001 #2 으, 바치레. 믿음으로 가 오는 사름은 거 가는 날이 잇주게.(으, 바치러. 믿음으로 갔다 오는 사름은 거 가는 날이 잇지.)

109001 @ 으.(으.)

109001 #2 경헨 그날은 벨일이 잇어도 막 잘 출령 가주게.(그렇게 해서 그날은 벨일이 았어도 아주 잘 차려서 가지.)

109001 @ 그민 여기 남원리에는 무슨 당이 잇어낫수과?(그럼 여기 남원리에는 무슨 당이 잇었습니까?)

109001 #2 남원리.(남원리.)

109001 @ 몇 군데 잇지 안 허여?(몇 군데 잇지 았아요?)

109001 #2 남원에 당 헛단에 문딱 엇이와 불고, 이디 사소헌 당은 어시와 불고 저디 큰 당 하나만, 저 의귀리 가는 사이에 지금 하나 이신디 당 이름은.(남원에 당 헛다가 모두 았애 버리고, 여기 사소한 당은 았애 버리고 저기 큰 당 하나만, 저 의귀리 가는 사이에 지금 하나 잇는데 당 이름은.)

109001 @ 몇 군데나 잇엇수과?(몇 군데나 잇었습니까?)

109001 #2 시방 한남리 막 제라헌 큰 당 잇고.(지금 한남리 아주 제대로 큰 당 잇고.)

109001 @ 아, 한남리?(아, 한남리?)

109001 #2 한남리.(한남리.)

109001 @ 으.(으.)

109001 #2 한남리 원 막, 한남리 사름은 벨 일이 잇어도.(한남리 원 아주, 한남

284) ‘흥세’이란 혼례를 치를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함인 ‘흥세함’을 말한다. 여기서는 ‘흥세함’에 넣는 혼서를 가리킨다.

리 사람은 별 일이 있어도.)

109001 @ 한남리.(한남리.)

109001 #2 그 당긋허는 날은 원 요만이 헛든 요만일 헛든 혼 집이 솟만 트로
얏지민 멧 십, 멧 가호가 살아도 득 흥나 허고 떡허고 그 당긋 허는 날은 다 가
와.(그 당긋 하는 날은 원 요만큼씩 헛든 요만큼 헛든 한 집에 솔만 따로 얏히면 멧
십, 멧 가호가 살아도 닭 하나 하고 떡하고 그 당긋 하는 날은 다 갔다 와.)

109001 @ 당긋허는 날은. 언제 당긋을 허는 거?(당긋 하는 날은. 언제 당긋을
하는 거?)

109001 #2 음력으로 이월 초아흐렛날.(음력으로 이월 초아흐렛날.)

109001 @ 아.(아.)

109001 #2 경혜 가는데 나는 그거 관심 안 두난 난 저디 의귀리 가는데 당 흥
나 잇영 조금 멧겨도 그만 당이 식어져 변. 당에 멧기는 사름덜이 원 아이 멧겨 부
난.(그렇게 하다가 나는 그거 관심 안 두니까 난 저기 의귀리 가는데 당 하나 있어
서 조금 다녀도 그만 당이 식어 버렸어. 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원 안 다녀 버리니
까.)

109001 @ 음.(음.)

109001 #2 심방이 그 당 가졌던, 임제 노릇 헛던 심방덜도 다 죽어 불고.(심방
이 그 당 가졌던, 임자 노릇 헛던 심방덜도 다 죽어 버리고.)

109001 @ 죽어 불고.(죽어 버리고.)

109001 #2 으, 널당²⁸⁵이렌 헛주, 널당.(으, ‘널당’이라고 헛지, ‘널당’.)

109001 @ 널당? 어디 잇었던 게 널당?(‘널당’? 어디 잇었던 게 ‘널당’?)

109001 #2 우리 남원에 잇었던 게 널당.(우리 남원에 잇었던 게 ‘널당’.)

109001 @ 으.(으.)

109001 #2 저 한남리 당은 원 모르켜.(저 한남리 당은 전혀 모르겠어.)

109001 @ 계민 당에 가젠 허민 뭐 행 가났수과?(그럼 당에 가려고 하면 뭐 해
서 갔었습니까?)

109001 #2 당에 가젠 허민 쓸허고 떡허고.(당에 가려고 하면 쌀하고 떡하고.(당
에 가려고 하면 쌀하고 떡하고.)

109001 @ 으, 무슨 떡?(으, 무슨 떡?)

109001 #2 게 동글락, 요만이 헛 거.(동그란, 요만큼 헛 거.)

109001 @ 그걸 무슨 떡이렌 글아난?(그걸 무슨 떡이라고 헛었어?)

109001 #2 이거 굿떡²⁸⁶이주게, 이거 무시거라?(이거 굿떡이지. 이거 뭐야?)

109001 @ 굿떡, 굿떡.(굿떡, 굿떡.)

109001 #2 으.(으.)

109001 @ 믱물궤루로?(메밀가루로?)

285) ‘널당’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잇었던 당 이름이다.

286) ‘굿떡’은 굿할 때 제물로 올리는 떡을 말한다.

109001 #2 곤ㄴ루로 해도 좋고 믹물ㄴ루로 해도 좋고.(흰쌀가루로 해도 좋고 메밀가루로 해도 좋고.)

109001 @ 믹물ㄴ루로 해도 좋고.(메밀가루로 해도 좋고.)

109001 #2 으, ㄴ 돌레²⁸⁷).(으, ㄴ ‘돌레’.)

109001 @ ㄴ 돌레, 예, 돌레떡²⁸⁸)예. 그거 행 가져 갖던 거.(ㄴ ‘돌레’, 예, ‘돌레떡’요. 그거 해서 가지고 갖던 거.)

109001 #2 이제 다 끝났지?(이제 다 말했지?)

109001 @ 게민 절간 텅긴 건 언제서부터 절간 텅겨졌수과? 당 안 텅기기 시작 허난?(그럼 절간 다닌 건 언제부터 절간 다녔습니까? 당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109001 #2 아니, 당은 경헨 혼 번 그런 디 안 가 오고 절간에 하영도 안 텅기고 혼 십오 년 텅견에 설러 불엇주.(아니, 당은 그렇게 한 번 그런 데 안 갔다 오고 절간에 많이 안 다니고 한 십오 년 다니고 치워 버렸지.)

109001 @ 아, 게민 집에서 뭐, 뭐 정성을 해 보진 안 해신게.(아, 그럼 집에서 뭐, 뭐 정성을 해 보진 안 했네요.)

109001 #2 어떻?(어떻게?)

109001 @ 집에서 정성을 안 해 봤어?(집에서 정성을 안 해 봤어?)

109001 #2 안 해 봤주게.(안 해 봤지.)

109001 @ 하하하.(하하하.)

109001 #2 저 구들에 할에비가이.(저 구들에 할아버지가.)

109001 @ 으.(으.)

109001 #2 아이구, 사름 일생 살젠 허민 길을 다까사 우리가 헐헐헐 건디. 요새 길 잘 다까점저, 그추룩 허멍 원 스못 하르방²⁸⁹)이 ㄴ딱도 못 허게 헤라.(아이구, 사람 일생 살려고 하면 길을 닦아야 우리가 한가할 텐데. 요새 길 잘 닦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원 사름 할아버지가 ㄴ딱도 못 하게 했어.)

109001 @ 아, 텅기지 못허게 헤난?(아,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109001 #2 으.(으.)

109001 @ 친정에서도 안 텅겨낫수과, 친정어무니까?(친정에서도 안 다녔었습니까, 친정어머니가?)

109001 #2 우리 친정아버지도 경 강단은 췌여. 우리 아버지 몰르게 슬쩍슬쩍, 무당 할망 돌아당 우리 동생덜 클 때는 췌금 해도.(우리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강단은 세. 우리 아버지 몰르게 살쩍살쩍, 무당 할머니 데려다가 우리 동생들 클 때는 췌금 해도.)

109001 @ 으, 으.(으, 으.)

109001 #2 나도 그런 식베끼.(나도 그런 식밖에.)

109001 @ 아, 아버지가 못 허게 해 부난.(아, 아버지가 못 하게 해 버니니까.)

287) ‘돌레’는 둥근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서는 ‘돌레떡’을 가리킨다.

288)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췌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289) ‘하르방’은 표준어로 ‘할아버지’다. 여기서서는 남편을 가리킨다.

109001 #2 으, 계난 나도 어떻 밖으로 허는 거나.(으,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밖에서 하는 거나.)

109001 @ 예.(예.)

109001 #2 심방허고 약속허영 그자. 아의덜 따문 무슨 사건이 신 때는 나가 슬 짝슬짝 그자 헛주.(심방하고 약속해서 그저. 아이들 때문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 내가 살짝살짝 그저 헛지.)

109001 @ 왜 삼촌 물질도 헤나지 안 헨?(왜 삼촌 물질도 했었지 않아?)

109001 #2 물질도 헤낫주.(물지도 했었지.)

109001 @ 물질허민 바당에 강도 막 ㄴ치덜 허잖아? 영등굿²⁹⁰ 헐 때나?(물질하면 바다에 가서도 같이 허잖아? 영등굿 할 때나?)

109001 #2 바다 강 물질허단에 영등굿 헐 때도. 물질을 잘 못 허연.(바다 가서 물질하다가 영등굿 할 때도. 물질을 잘 못 하니까.)

109001 @ 으.(으.)

109001 #2 잘 못 허고.(잘 못 하고.)

109001 @ 으.(으.)

109001 #2 시어명이 워낙 물질도 잘 허고 그디 막 놀아뎡기난에 나ㄴ튼 건 기자 ㄴ만이 집이 이시민 어무니가 다.(시어머니가 워낙 물질도 잘하고 거기 아주 날아다니니까 나같은 건 그저 가만이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다.)

109001 @ 하하.(하하.)

109001 #2 올리고 다.(올리고 다.)

109001 @ 영등굿 헐 때도. 예, 예 고맙수다.(영등굿 할 때도. 예, 예 고맙습니다.)

10. 세시풍속

1월

110001 @ 그럼 저기에, 저기 세시풍속에 대해서 물어보쿠다.(그럼 저기요, 저기 세시풍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0001 #1 어.(어.)

110001 @ 각 월마다 뭐가 있잖아예? 예를 들면 정월에는 정월 멧질이 이실 거예, 먼저예?(각 월마다 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월에는 정월 명절이 있을 거요, 먼저요?)

110001 #1 으.(으.)

110001 @ 정월 멧질, 정월 멧질날은 언제 어떻 허는 것과?(정월 명절, 정월 명절날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90) '영등굿'은 영등신을 보내기 위해 음력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행하는 굿을 말한다.

110001 #1 정월, 옛날에는 여기는 정월 초하루날 멧질을 세면은.(정월, 옛날에는 여기는 정월 초하룻날 멧질을 지내면.)

110001 @ 으.(으.)

110001 #1 보통 그날은, 요즘은 이제 단순하게 살려고 허니까 팔촌 집이도 멧질 먹으러 안 가는데.(보통 그날은, 요즘은 이제 단순하게 살려고 하니까 팔촌 집에도 멧질 먹으러 안 가는데.)

110001 @ 으.(으.)

110001 #1 우리 이쪽 풍속으로는 옛날에는 차순부터 멧질을 해 오기 시작하여. 그래서 종손 집인 켈 나중에. 그러면 어둡어.(우리 이쪽 풍속으로는 옛날에는 차순부터 멧질을 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종손 집엔 켈 나중에. 그러면 어두워.)

110001 @ 음.(음.)

110001 #1 게민 그날부터 초사흘까지 세배라고 해서 다녔어.(그럼 그날부터 초사흘까지 세배라고 해서 다녔어.)

110001 @ 음. 언제까지, 그날부터?(음. 언제까지, 그날부터?)

110001 #1 초사흘날까지.(초사흘날까지.)

110001 @ 아, 초사흘날까지. 초하루서부터 초사흘날까지.(아, 초사흘날까지. 초하루서부터 초사흘날까지.)

110001 #1 그러면은 동네, 옛날에는 삼 년 상을 치뤘으니까 상식을 허거든.(그러면 동네, 옛날에는 삼 년 상을 치뤘으니까 상식을 하거든.)

110001 @ 으.(으.)

110001 #1 사람이 죽으면은 상을 싱겨 놔. 거기 가고 또 나이 많은 어른 집에 세배를 쪽 다녔어.(사람이 죽으면 상을 차려 놔. 거기 가고 또 나이 많은 어른 집에 세배를 쪽 다녔어.)

110001 @ 으, 인사하러예, 세배하러.(으, 인사하러요, 세배하러.)

110001 #1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단오가 있었는데 단오 해방 전에 없어진 집이 있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단오가 있었는데 단오 해방 전에 없어진 집이 있고.)

110002 @ 아, 먼저 정월 거부터 먼저 여쭙 보쿠다, 정월예?(아, 먼저 정월 거부터 먼저 여쭙 보겠습니다, 정월요?)

110002 #1 어.(어.)

110002 @ 정월달에는 정월 멧질이 있고 대보름이 잇어났잖아예?(정월달에는 정월 멧질이 있고 대보름이 있었잖아요?)

110002 #1 여긴 대보름 안, 안 출려.(여긴 대보름 안, 안 차려.)

110002 @ 안 출런마씨?(안 차렸어요?)

110002 #1 안 출런.(안 차렸어.)

110003 @ 저기 방사란 게 뭐과, 방사? 액막이 같은 거나 방사?(저기 방사라는 게 뭇니까, 방사? 액막이 같은 거나 방사?)

110003 #1 그거 여기 사람네 액막이, 방사는 해녀덜 바다에 가서 허는 사람덜베

끼 없어.(그거 여기 사람들 액막이, 방사는 해녀들 바다에 가서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110003 @ 아.(아.)

110003 #1 거 지²⁹¹⁾ 드린다고 해서 밥이랑 고기랑 싸 가지고.(거 ‘지’ 드린다고 해서 밥이랑 고기랑 싸 가지고.)

110003 @ 예.(예.)

110003 #1 바다에 가서 굻히고 거 데끼고.(바다에 가서 굻하고 거 던지고.)

110003 @ 그거 정월에 험니까, 정월달에?(그거 정월에 험니까, 정월달에?)

110003 #1 어, 배.(어, 배.)

110003 @ 으.(으.)

110003 #1 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닻 실러서 띄우고. 거 해녀덜, 해녀덜이나 어부덜.(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닻 실어서 띄우고. 거 해녀들, 해녀들이나 어부들.)

110004 @ 지금은 여기 남원리 포제²⁹²⁾ 안 허잖아예?(지금은 여기 남원리 포제 안 하잖아요?)

110004 #1 남원이리에서 허주.(남원2리에서 하지.)

110004 @ 이리에서 허는 거예. 포제할 때 금줄이나 그런 거 험니까? 금줄 맵니까?(2리에서 하는 거요. 포제할 때 금줄이나 그런 거 험니까? 금줄 맵니까?)

110004 #1 아니, 그 저 제관을 정허면은.(아니, 그 저 제관을 정하면.)

110004 @ 예.(예.)

110004 #1 제관이 혼 밧디 전부 모여, 오일 전부터.(제관이 한 군데 전부 모여, 오일 전부터.)

110004 @ 으.(으.)

110004 #1 켜 거기만 메주게.(그래서 거기만 매지.)

110004 @ 제관 모이는 곳에만?(제관 모이는 곳에만?)

110004 #1 으.(으.)

110004 @ 그럼 제관이 모영 오 일 동안 ㄴ치 사는 거?(그럼 제관이 모여서 오 일 동안 같이 사는 거?)

110004 #1 ㄴ치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살곡.(같이 거기서 밥 먹고 거기 살고.)

110004 @ 아, 집이 못 가고?(아, 집에 못 가고?)

110004 #1 어.(어.)

110004 @ 아, 포제 지낼 때 집이 못 가고마씨?(아, 포제 지낼 때 집에 못 가고요?)

110004 #1 어. 그런데 만약에 그걸 허당도.(어.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다가도.)

110004 @ 으.(으.)

291) ‘지’는 해녀들이 용왕에게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넣을 밥과 계란 등의 제물을 백지에 싼 물건을 말한다.

292) ‘포제’는 음력 정월에 마을의 번영이나 건강을 위해 지내는 마을제를 말한다.

110004 #1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으로 옮기, 연기허여.(사람이 죽으면 다음으로 옮겨, 연기해.)

110004 @ 동네에 사람이 죽으면?(동네에 사람이 죽으면?)

110004 #1 남원리서, 예를 들어서.(남원리에서, 예를 들어서.)

110004 @ 예.(예.)

110004 #1 헐라고 출려 났다 겐디 사람 죽으면 안 허여.(하려고 차려 났는데 그런데 사람 죽으면 안 해.)

110004 @ 아.(아.)

110004 #1 겐 다음 정일에.(그래서 다음 정일에)

110004 @ 예.(예.)

110004 #1 정자 든 날에만 포제는 허니까 다음 정일에.(정자 든 날에만 포제는 하니까 다음 정일에.)

110004 @ 게든, 제관은 어떻 정허는 것과, 포제할 때?(그럼, 제관은 어떻게 정하는 것과, 포제할 때?)

110004 #1 부락에서 누게 누게 혜근에 정허주게.(부락에서 누구 누구 해서 정하지.)

110004 @ 아, 회의행 추천해 가지고?(아, 회의해서 추천해 가지고?)

110004 #1 어, 어. 옛날에는 영의뜸이라고 해서.(어, 어. 옛날에는 ‘영의뜸’이라고 해서.)

110004 @ 예.(예.)

110004 #1 나이 켈 많은 어른을.(나이 켈 많은 어른을.)

110004 @ 예.(예.)

110004 #1 겐디 것도 저, 저 옛날에 양반 쌍놈 허기 땀시.(그런데 것도 저, 저 옛날에 양반 상놈 하기 때문에.)

110004 @ 예.(예.)

110004 #1 좀 낮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영의뜸 안 시켜줘.(좀 낮은 사람은 아니 들어도 ‘영의뜸’ 안 시켜줘.)

110004 @ 영의뜸?(‘영의뜸’?)

110004 #1 영의뜸.(‘영의뜸’.)

110004 @ 아, 영의뜸.(아, ‘영의뜸’.)

110004 #1 나이 켈 많은 남저 어른.(나이 켈 많은 남자 어른.)

110004 @ 으.(으.)

110004 #1 겐 그 어른을 주관으로 해서 포제 상젤 모인다 허거든. 그래서 회의, 회합을 해여. 경허고 오늘은 어느, 예를 들어 김씨 집안에 하나, 고씨 집안에 하나 이렇게 해 가거든.(그래서 그 어른을 주관으로 해서 포제 상제를 모은다 하거든. 그래서 회의, 회합을 해. 그리고 오늘은 어느, 예를 들어 김씨 집안에 하나, 고씨 집안에 하나 이렇게 해 가거든.)

110004 @ 으.(으.)

110004 #1 그러면은 참 옛날 양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돼야지 잡곡 허는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초헌을 헌 김칩이서 했으면 다음엔 현칩이서 허자 그 다음은 김칩이서 허자 허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모아서. 허면은 예를 들어 고칩이 허게 돼면은 고칩이서가 아, 우린 누게 내 놓겠다.(그러면 참 옛날 양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돼지 잡고 하는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초헌을 헌 김씨 집에서 했으면 다음엔 현씨 집에서 하자, 그 다음은 김씨 집에서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모아서. 하면 예를 들어 고씨 집이 하게 되면 고씨 집에서 아, 우린 누가 내 놓겠다.)

110004 @ 아, 그럼 어쨌든 영의땀허는 사람이 기준이 돼근에.(아, 그럼 어쨌든 ‘영의땀’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110004 #1 어, 그렇주.(어, 그렇지.)

110004 @ 경 각 집안마다 아, 이번에는 김칩 고칩 골고루 가게는 허는구나예? (그렇게 각 집안마다 아, 이번에는 김씨 집, 고씨 집 골고루 가게 하는군요?)

110004 #1 그렇주게. 경 안 허민 큰일나게.(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큰일나.)

110004 @ 으. 그문 뭘 붉은 흙 뿌리기 같은 것도 합니까?(으. 그럼 뭘 붉은 흙 뿌리기 같은 것도 합니까?)

110004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4 @ 그런 거 었어?(그런 거 없어?)

110004 #1 여긴 그런 건 었어. 이쪽으론 신이 거의 없는 편.(여긴 그런 건 없어. 이쪽으론 신이 거의 없는 편.)

110004 @ 여긴 그러과? 남원리는?(여긴 그렇습니까? 남원리는?)

110004 #1 어. 남원, 한남리, 수망리러렌 거의 없어.(어. 남원, 한남리, 수망리로 는 거의 없어.)

110004 @ 아, 신 없다고 해? 거민 포켓날은 정이 있는 날?(아, 신 없다고 해? 그럼 포켓날은 정이 있는 날?)

110004 #1 정자 갑자 을축 허는데 정자. 정자 든 날.(정자 갑자 을축 하는데 정자. 정자 든 날.)

110004 @ 아, 정자가 들어 있는 날을 포켓날로 정하고.(아, 정자가 들어 있는 날을 포켓날로 정하고.)

110004 #1 정월 첫째 정자 들은 날.(정월 첫째 정자 든 날.)

110004 @ 아, 정월달에 첫째 정자 드는 날. 근데 마을에 저기 상 난 집 이시민 안 허는 거?(아, 정월달에 첫째 정자 든 날. 그런데 마을에 저기 상 난 집 있으면 안 하는 거?)

110004 #1 그때 사람 죽어불민 안 허여.(그때 사람 죽으면 안 해.)

110004 @ 아, 그때.(아, 그때.)

110004 #1 으. 그때만 말고. 미리 죽은 건 필요 었고게.(으. 그때만 말고. 미리

죽은 건 필요 없고.)

110005 @ 음. 안택은 뭐과?(음. 안택은 뭘니까?)

110005 #1 안택엔 헌 말 들어본 적 어신디.(안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없는 데.)

110005 @ 안택. 안택 몰라?(안택, 안택 몰라?)

110005 #1 안택이엔 헌 말은 잘 모르겠네이.(안택이라고 하는 말은 잘 모르겠네.)

110006 @ 보리밭 밟기는 어떻 험니까? 보리밭 밟기. 거 일월달에 허는 거과?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험니까? 보리밭 밟기. 거 일월에 하는 겁니까?)

110006 #1 봄에, 봄에.(봄에, 봄에.)

110006 @ 봄에.(봄에.)

110006 #1 봄 나 갈 적에.(봄 돼 갈 적에.)

110006 @ 아.(아.)

110006 #1 거 왜냐하면 흙이 얼었다 뭐 했다 허민 땅이 부꺼져 불거든.(거 왜냐하면 흙이 얼었다 뭐 했다 하면 땅이 부풀어 버리거든.)

110006 @ 꼭 정월에 했던 건 아니다예?(꼭 정월에 했던 건 아니네요?)

110006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6 @ 보리밭 밟기는예.(보리밭 밟기는요.)

110006 #1 정월달엔 여긴 아무 것도 안 허여.(정월달엔 여긴 아무 것도 안 해.)

110007 @ 아무 것도 안 해. 혹시 걸궁 같은 거 해낫수과? 걸립, 걸궁?(아무 것도 안 해. 혹시 걸립 같은 거 했었습니까? 걸립, '걸궁'?)

110007 #1 아, 옛날에.(아, 옛날에.)

110007 @ 옛날에, 옛날에.(옛날에, 옛날에.)

110007 #1 조금씩 헛주게.(조금씩 헛지.)

110007 @ 조금씩. 계민 걸궁허는 이유가 뭐과?(조금씩. 그럼 걸립하는 이유가 뭘니까?)

110007 #1 단합을 위해서.(단합을 위해서.)

110007 @ 예.(예.)

110007 #1 허는 거주게.(하는 거지.)

110007 @ 걸궁 허명 영 집집마다 탕기멍?(걸립 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110007 #1 어 어, 그럼 쌀도 좀 주고.(어 어, 그럼 쌀도 좀 주고.)

110007 @ 그니까.(그러니까.)

110007 #1 돈도 좀 주고.(돈도 좀 주고.)

110007 @ 그거 가지고 포제를 지내고 했던 거?(그거 가지고 포제를 지내고 했던 거?)

110007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07 @ 그런 거 상관었어?(그런 거 상관없어?)

110007 #1 여기는 포제 허게 뒤편은 옛날에는 집집마다.(여기는 포제 하게 되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110007 @ 음.(음.)

110007 #1 쌀이든 돈이든 가쁜 쌀, 올해 예를 들어서 혼 뒤편 허자 딱 그러면은 집집마다 혼 뒤편 내야 뒤편.(쌀이든 돈이든 가면 쌀, 올해 예를 들어서 한 뒤편 하자 딱 그러면 집집마다 한 뒤편 내야 뒤편.)

110007 @ 아.(아.)

110007 #1 겐디 이 올레 안에 형제간이 다 살민 혼 사람, 하나만 내민 뒤편고.(그런데 이 올레 안에 형제간이 다 살면 한 사람, 하나만 내면 뒤편고.)

110007 @ 으.(으.)

110007 #1 올레가 따로 허게 뒤편은 따로 내고.(올레가 따로 하게 되면 따로 내고.)

110007 @ 하하하. 형제끼리 같이 살아야 줌.(하하하. 형제끼리 같이 살아야 줌.)

110007 #1 혼 올레 안에 살민 안 내고.(한 올레 안에 살면 안 내고.)

110008 @ 음, 안 내도 뒤편고. 저기 입춘, 우수. 입춘이 어떤 것과?(음. 안 내도 뒤편고. 저기 입춘, 우수. 입춘은 어떤 겁니까?)

110008 #1 여기선 안 해. 입춘이게 절기주게, 여기선 뒤편 안 허여.(여기선 안 해. 입춘이 절기지. 여기선 뒤편 안 해.)

110008 @ 뒤편 안 해도 입춘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줌서.(뒤편 안 해도 입춘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110008 #1 입춘날은게 묵은 날은 가고 새날 들어온뎌 허는디 여기는 입춘 경 뒤편. 입춘날 건디 모여근에 술 먹는 사름덜은 잇어. 핑계 허영.(입춘은 묵은 날은 가고 새날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입춘 그렇게 뒤편. 입춘 그런데 모여서 술 먹는 사름들은 잇어. 핑계 해서.)

110008 @ 옛날에 여자들 어디.(옛날에 여자들 어디.)

110008 #1 아, 옛날에는 입춘 뒤편 가면은.(아, 옛날에는 입춘 뒤편 가면.)

110008 @ 늑의 집 가지 말랜.(남의 집 가지 말라고.)

110008 #1 늑의 집 가지 말랜 검질 진뎌 해근에.(남의 집 가지 말라고 검이 무성하게 돌아난다고 해서.)

110008 @ 으, 으. 해낫지예?(으, 으. 했었지요?)

110008 #1 으.(으.)

110008 @ 저 늑의 집 놀레 못 가는 날이랏수게. 여자들만.(저 남의 집 놀레 못 하는 날이었쥌. 여자들만.)

110008 #1 어, 남잔 가민 곤밥 해 준뎌 허고. 겐디 여긴 그건 엇어서.(어, 남잔 가민 흰밥 해 준다고 하고. 그런데 여긴 그런 없었어.)

110008 @ 아, 그런 거 엇엇수과?(아, 그런 거 없었습니까?)

110008 # 으.(으.)

110008 @ 저 어릴 때만 해도.(저 어릴 때만 해도.)

110008 #1 겐디 이쪽더렌 그러니까 나 전이도 얘기했주만 각 처에서 모여 살기 땀시 그런 걸 안 허주게.(그런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처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지.)

110008 @ 아, 우수는 어떤 날이과, 우수?(아, 우수는 어떤 날입니까, 우수?)

110008 #1 여기 우수 세도 안 허여. 우수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여기 우수 쇠도 앓아. 우수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

110008 @ 아,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예?(아,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요?)

110008 #1 으, 여긴 우수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으, 여긴 우수 오는지 마는지도 몰라.)

2월

110009 @ 저 이월달 넘어가쿠다예.(저 이월 넘어가겠습니다.)

110009 #1 으.(으.)

110009 @ 이월달 가면 영등하잖아예?(이월 가면 영등하잖아요?)

110009 #1 여기 영등할망²⁹³⁾ 들어온덴 헨에 어제 가지 안 헤서.(여기 ‘영등할망’ 들어온다고 해서 어제 가지 앓았어.)

110009 @ 어제 간예?(어제 갔지요?)

110009 #1 어제 보름이난. 어제 이월 보름이난.(어제 보름이니까. 어제 이월 보름이니까.)

110009 @ 이월 보름이난예.(이월 보름이니까요.)

110009 #1 어.(어.)

110009 @ 여기도 영등 올 때는.(여기도 영등 올 때는.)

110009 #1 그 저 해녀들 영등곳²⁹⁴⁾ 헤여. 해녀들이나 어부들.(그 저 해녀들 ‘영등곳’ 해. 해녀들이나 어부들.)

110009 @ 어부들.(어부들.)

110009 #1 이 사람덜은 영등곳이라고 해서 허는데 그저 농서짓는 사람은 생각도 안 허여.(이 사람들은 ‘영등곳’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저 농사짓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110009 @ 어쨌든 영등할망은 바다랑 관계있는 거?(어쨌든 ‘영등할망’은 바다랑 관계있는 거?)

110009 #1 으. 여기서 글로 미뤄 붙어.(으. 여기서 거기로 미뤄 버려.)

110010 @ 으, 해녀에서 알양 해.(으, 해녀에서 알아서 해.)

293) ‘영등할망’은 ‘영등신’으로 음력 2월 1일에 입도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이 기간에 섬을 돌며, 해산물의 낚은 것은 모두 먹어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준다고 전해진다.

294) ‘영등곳’은 영등신을 보내기 위해 음력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행하는 곳을 말한다.

110010 #1 으.(으.)

110010 @ 경칩은 어떤 것과?(경칩은 어떤 겁니까?)

110010 #1 경칩도 여기엔 오는지 몰르고.(경칩도 여기엔 오는지 모르고.)

110010 @ 춘분은?(춘분은?)

110010 #1 춘분도 오는지 마는지 몰르고.(춘분도 오는지 마는지 모르고.)

3월

110011 @ 몰르고. 예, 삼월달 넘어가쿠다. 삼월달에는 뭐 있냐 하면 한식 이신디, 한식날은?(모르고. 예, 삼월 넘어가겠습니다. 삼월에는 뭐 있느냐 하면 한식 있는데, 한식날은?)

110011 #1 한식이 널 아니라게.(한식이 널 아니야.)

110011 @ 아, 널이과, 한식이?(아, 널입니까, 한식이?)

110011 #1 양력으론 뭐 이거 양력으론 딱 맞는 거니까.(양력으론 뭐 이거 양력으론 딱 맞는 거니까.)

110011 @ 으. 한식날은 뭐?(으. 한식날은 뭐?)

110011 #1 오일날이 청명이고 그 뒷날이 한식이난에.(오일이 청명이고 그 뒷날이 한식이니까.)

110011 @ 예, 예. 한식날에는 뭐 해?(예, 예. 한식날에는 뭐 해?)

110011 #1 건디 옛날은 한식을 했다고 허는데.(그런데 옛날은 한식을 했다고 하는데.)

110011 @ 예, 기억 엇수과?(예, 기억 없습니까?)

110011 #1 기억, 기록도 엇고. 우리 큰웨할아버지 여기서 유명헌 어른이랏주.(기억, 기록도 없고. 우리 큰외할아버지 여기서 유명한 어른이었어.)

110011 @ 예.(예.)

110011 #1 게서 나 그 할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걸 물어봤는데 이쪽으론 허지 안 헛져.(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 살아 계실 적에 걸 물어봤는데 이쪽으론 하지 않았어.)

110011 @ 한식 안 헛언마씨?(한식 안 했어요?)

110011 #1 어.(어.)

110012 @ 청명날은?(청명은?)

110012 #1 청명도 여기 뭐.(청명도 여기 뭐.)

110012 @ 청명날 산소 가거나 안 헛니까?(청명날 산소 가거나 안 합니까?)

110012 #1 여긴 안 허여.(여긴 안 해.)

110012 @ 안 해마씨?(안 해요?)

110012 #1 으.(으.)

110012 @ 곡우 모르쿠과?(곡우 모르겠습니까?)

110012 #1 곡우도 모르고, 여기는 오월 단오는.(곡우도 모르고, 여기는 오월 단

오는.)

110012 @ 으.(으.)

110012 #1 오월 단오는 완전히 설리지 건디 얼마 안 돼여. 이쪽으로는.(오월 단오는 완전히 없어진 지 얼마 안 돼. 이쪽으로는.)

110012 @ 아, 기과? 언제까지 오월 단오를 지냈수과?(아,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오월 단오를 지냈습니까?)

110012 #1 우리 집이도 해방 후에도 쪽 허다가 설렸는데.(우리 집에도 해방 후에도 쪽 허다가 없었는데.)

110012 @ 해방 후에도 허연?(해방 후에도 했어?)

110012 #1 으.(으.)

110015 @ 단오날은 어떻 지냅니까?(단오날은 어떻게 지냅니까?)

110015 #1 그대로 저 멧질이나 마찬가지로, 저 팔월 추석이나 마찬가지로.(그대로 저 멧질이나 마찬가지로, 저 팔월 추석이나 마찬가지로.)

110015 @ 미리 음식들 경 하영 준비허여?(미리 음식들 그렇게 많이 준비해?)

110015 #1 어, 그래서 제사 지내고 헛더랏주게.(어, 그래서 제사 지내고 했었지.)

110015 @ 어떻 단오날을 경 중요시 여겨나신고예?(어떻게 단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었나요?)

110015 #1 글썸, 나도 건 모르겠어.(글썸, 나도 건 모르겠어.)

4월

110013 @ 사월달엔 초파일 있잖아예?(사월엔 초파일 있잖아요?)

110013 #1 여기도 절간에 가는 사람만.(여기도 절간에 가는 사람만.)

110013 @ 그지예, 절간에 가는 사람만.(그쵸. 절간에 가는 사람만.)

110013 #1 으.(으.)

110013 @ 입하, 소만에는.(입하, 소만에는.)

110013 #1 에이 그런 것도 이딘 엇고.(에이 그런 것도 여긴 없고.)

5월

110015 @ 단오 명절은 추석 같이 지내당.(단오 명절은 추석 같이 지내다가.)

110015 #1 이젠 전부, 일본 시대부턴 못 허게 했어. 숨어서들 허다가 해방 뉘니까 허다가 것도 간소화돼명 삭삭.(이젠 전부, 일본 시대부턴 못 하게 했어. 숨어서들 허다가 해방 되니까 허다가 것도 간소화되면서 삭삭.)

110016 @ 망중, 하지?(망중, 하지?)

110016 #1 여긴 그런 거 안 따져.(여긴 그런 거 안 따져.)

6월

110017 @ 유월달에 닭 잡아먹는 날 이수과?(유월에 닭 잡아먹는 날 있습니까?)
 110017 #1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넨 해낫주.(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다고 했었지.)
 110017 @ 그믐, 그믐 그날 닭 잡아 먹어마씨, 아니?(그럼, 그럼 그날 닭 잡아먹어요, 아니?)
 110017 #1 그거 옛날 소리. 먹을 거 옛일 때.(그거 옛날 소리. 먹을 거 없을 때.)
 110018 @ 하하하. 삼복 날이?(하하하. 삼복 날이?)
 110018 #1 여긴 복도 안 따져.(여긴 복도 안 따져.)
 110019 @ 소서, 대서?(소서, 대서?)
 110019 #1 안 따지고.(안 따지고.)

7월

110020 @ 칠월 달 감수다예.(칠월 갑니다.)
 110020 #1 으.(으.)
 110020 @ 칠석은?(칠석은?)
 110020 #1 칠월덜도 칠석도 여긴 안 새고.(칠월도 칠석도 여긴 안 지내고.)
 110020 @ 안 새고.(안 지내고.)
 110020 #1 것도 절간에 가는 사름만.(것도 절간에 가는 사람만.)
 110021 @ 절간에 가는 사람예. 백중제²⁹⁵?(절간에 가는 사람요. ‘백중제’?)
 110021 #1 백중제는 허당, 소 키우는, 소나 말 키우는 사름덜.(‘백중제’는 하다가 소 키우는, 소나 말 키우는 사람들.)
 110021 @ 무사 소 키우는 사람들이 백중제 지냅니까? 관련 잇수과?(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백중제 지냅니까? 관련 있습니까?)
 110021 #1 그 저 뭐 지금도 헤여.(그 저 뭐 지금도 해.)
 110021 @ 아, 백중제를?(아, ‘백중제’를?)
 110021 #1 소 많이 키우는 사름덜 지금도 헐다고.(소 많이 키우는 사람들 지금도 한다고.)
 110021 @ 그럼 제 지내는 거?(그럼 제 지내는 거?)
 110021 #1 아, 난 안 가보니까 몰르는데, 또 그냥 전부 출령 가. 아, 여기 장대선이라는 아이도 있는데.(아, 난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또 그냥 전부 차려서 가. 아, 여기 장대선이라는 아이도 있는데.)
 110021 @ 으.(으.)
 110021 #1 가이네도 소 많이 키우니까 백중날 소 키우는 사름끼리 목장에 가서 같이 제사지내고 술 먹고 헐텐 허대.(그 아이네도 소 많이 키우니까 백중날 소 키우는 사름끼리 목장에 가서 같이 제사지내고 술 먹고 한다고 해.)

295) ‘백중제’는 7월 14일에 행하는 목축에 관련된 제를 말한다.

110023 @ 음. 모래찜 같은 거 험니까? 물맛이 뭐 그런 거?(음. 모래찜질 같은 거 합니까? 물맛이 뭐 그런 거?)

110023 #1 아, 여긴 저 소정방이나.(아, 여긴 저 소정방이나.)

110023 @ 예.(예.)

110023 #1 돈내코.(돈내코.)

110023 @ 돈내코.(돈내코.)

110023 #1 물 맞이레 갓주. 백중 때, 백중 3리에. 그때 더울 때니까.(물 맞으러 갔지. 백중 때, 백중 경에. 그때 더울 때니까.)

110023 @ 물 맞으면 뭐가 좋든 물 맞는 거?(물 맞으면 뭐가 좋다고 물 맞는 거?)

110023 #1 신경통 좋든 허여.(신경통 좋다고 해.)

110022 @ 모래찜은 안 허고?(모래찜질은 안 하고?)

110022 #1 여기 모래찜 혈 디가 엇주게.(여기 모래찜질 할 데가 없지.)

110022 @ 저기 표선 가민.(저기 표선 가면.)

110022 #1 안 헤여.(안 해.)

110024 @ 안 허여. 입추, 처서 뭐 안 험니까?(안 해. 입추, 처서 뭐 안 합니까?)

110024 #1 여기 아무것도 안 허여.(여기 아무것도 안 해.)

8월

110025 @ 팔월달에 별초허지예?(팔월에 별초하지요?)

110025 #1 별초, 으.(별초, 으.)

110025 @ 별초 어떻 험니까? 언제?(별초 어떻게 합니까?)

110025 #1 이젠, 옛날에는 백로.(이젠, 옛날에는 백로.)

110025 @ 백로.(백로.)

110025 #1 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별초를 했는데 이제는 양력으로 구월, 주로 일요일날 택해서들 허주게.(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별초를 했는데 이제는 양력으로 구월, 주로 일요일 택해서들 하지.)

110025 @ 아, 양력으로.(아, 양력으로.)

110025 #1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고.(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많고.)

110025 @ 으.(으.)

110025 #1 직장이 만허니까.(직장이 많으니까.)

110025 @ 예.(예)

110025 #1 이제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우리도 구월 첫째 일요일 날 별초 허여. 쟁 안 허민 직장 있는 사람덜 못 허니까.(이제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우리도 구월 첫째 일요일 날 별초해. 그렇게 안 하면 직장 있는 사람들 못 하니까.)

110025 @ 그 음력 초하루도 생각 안 허고?(그 음력 초하루도 생각 안 하고?)

110025 #1 옛날에는 걸 생각, 모듬별초²⁹⁶)라고 해서 초하루날 했는데.(옛날에는 걸 생각, ‘모듬별초’라고 해서 초하룻날 했는데.)

110025 @ 으, 으.(으, 으.)

110025 #1 이제는 직장인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야.(이제는 직장인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110025 @ 그민 모듬별초 험니까, 삼춘네도?(그럼 ‘모듬별초’ 합니까, 삼춘네도?)

110025 #1 허야주게.(해야지.)

110025 @ 몇 집 정도가 모입니까?(몇 집 정도가 모입니까?)

110025 #1 아이고, 많이 모여.(아이고, 많이 모여.)

110025 @ 많이 모여. 그럼 모듬별초도 하고 우리 집만 하는 별초도 하고?(많이 모여. 그럼 ‘모듬별초’도 하고 우리 집만 하는 별초도 하고?)

110025 #1 어, 그렇주.(어, 그렇지.)

110025 @ 며칠 험수과, 별초를?(며칠 합니까, 별초를?)

110025 #1 아, 옛날에 차 없을 적에는 한 며칠씩 걸렸는데, 저 용눈이오름²⁹⁷)에, 거 티비(TV)도 나오는데.(아, 옛날에 차 없을 적에는 한 며칠씩 걸렸는데, 저 ‘용눈이오름’에, 거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110025 @ 으, 용눈이오름.(으, ‘용눈이오름’.)

110025 #1 우리 고조부님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옛날은 세 사람 당일 가서 못 해 왔어. 걸영 가기 땀시.(우리 고조부님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옛날은 세 사람 당일 가서 못 해 왔어. 걸어서 가기 때문에.)

110025 @ 걸영 가젠 허난.(걸어서 가려고 하니까.)

110025 #1 이젠 차로 허니까 하루에덜 가.(이젠 차로 하니까 하루에 가.)

110025 @ 하루 가민 다 해 볼 거?(하루 가면 다 해 버릴 거?)

110025 #1 어. 별초허는 시간이야 얼마 걸려, 왔다갔다 허는 거주.(어. 별초하는 시간이야 얼마 걸려, 왔다갔다 하는 거지.)

110026 @ 음. 팔월 명질이 추석인 거잖아예?(음. 팔월 명질이 추석인 거잖아요?)

110026 #1 어.(어.)

110026 @ 추석 때는 정월 명질이랑 비교행?(추석 때는 정월 명질이랑 비교해서?)

110026 #1 아, 꼭가치 허여. 여긴 똑같아.(아, 똑같이 해. 여기 똑같아.)

110026 @ 으, 근데.(으, 그런데.)

110026 #1 이젠 세배 안 다니니까 똑같아.(이젠 세배 안 다니니까 똑같아.)

9월

296) ‘모듬별초’는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별초를 말한다.

297) ‘용눈이오름’은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에 있는 오름이다.

110028 @ 아. 팔월맹절도예. 백로, 상강 험니까?(아. 팔월 명절도요. 백로, 상강 험니까?)

110028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0028 @ 백로날도 상관없어. 입동, 소설?(백로날도 상관없어. 입동, 소설?)

110028 #1 자, 고구마나 하나 먹으명.(자, 고구마나 하나 먹으면서.)

10월

110029 @ 예, 고맙습니다. 하나 먹을 게예. 입동 소설?(예, 고맙습니다. 하나 먹을 게요. 입동, 소설?)

110029 #1 그런 거 안 헌덴 허난, 여긴.(그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긴.)

11월

110032 @ 동지?(동지?)

110032 #1 동지도 안 세여.(동지도 안 쇠어.)

110030 @ 동지 팍죽 해 먹어났수과?(동지 팍죽 해서 먹었습니까?)

110030 #1 팍죽 해 먹는 집 있고 안 해 먹는 집 있고.(팍죽 해 먹는 집 있고 안 해 먹는 집 있고.)

110030 #2 절에서나 허고.(절에서나 하고.)

110030 @ 절에서나 허고. 어무니 동지 팍죽 험니까?(절에서나 하고. 어머니 동지 팍죽 험니까?)

110030 #1 우리 안 해 먹어.(우리 안 해 먹어.)

110030 @ 안 해 먹어.(안 해 먹어.)

110030 #2 해 먹는 사람이 잇어.(해 먹는 사람이 잇어.)

110030 @ 으.(으.)

110030 #2 잇어도 거 집마다 안 허여.(잇어도 거 집마다 안 해.)

110031 @ 납평날이 뭐과, 그런 거 엇어?(납일이 뭍니까, 그런 거 없어?)

110031 #1 엇어.(없어.)

12월

110033 @ 대설, 동지 안 험거예. 친구간²⁹⁸ 관계 잇수과?(대설, 동지 안 할 거지요. '친구간' 관계 있습니까?)

110033 #2 친구간?('친구간'?)

110033 @ 친구간.(친구간.)

110033 #1 누게 이사허고 싶은 사람.(누구 이사하고 싶은 사람.)

110033 @ 그럼, 여기도 친구간 따정 이사험니까?(그럼, 여기도 '친구간' 따져서

298) '친구간'은 절기로 대한 후 7일부터 입춘 3일 전까지의 6일 동안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손이 없다고 해서 주로 이사를 하거나 집안을 수리하기도 한다.

이사합니까?)

110033 #1 으. 또 집 거튼 거 고치젠 현다던지.(으. 또 집 같은 거 고치려고 한 다든지.)

110033 @ 케민 친구간이 어떤 날이 친구간인 것과?(그럼 '친구간'이 어떤 날이 '친구간'인 겁니까?)

110033 #1 신이 없는 날게. 저 산, 하늘레 올라 불영 없는 날.(신이 없는 날. 저 산, 하늘로 올라 버려서 없는 날.)

110033 @ 하하하.(하하하.)

110033 #2 묵은해는 다 가고 새해는 아직 안 나고.(묵은해는 다 가고 새해는 아직 안 나고.)

110033 @ 으. 아직 새해 들기 전에, 명절 돼기, 설날 돼기 전이라.(으. 아직 새 해 들기 전에, 명절 되기, 설날 되기 전이야.)

110033 #2 으.(으.)

110033 #1 명절 현 후제도 친구간 올 수도 잇주.(명절 한 후에도 '친구간' 올 수도 있지.)

110033 #2 입춘 돼기 전에.(입춘 되기 전에.)

110033 #1 입춘 전. 삼일 전까지.(입춘 전. 삼일 전까지.)

110034 @ 그 이사 갈 때 집 어떻 구합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사 가젠 허민?(그 이사 갈 때 집 어떻게 구합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사 가려고 하면?)

110034 #2 어떻 구헤게. 이녁 집 어시 사름은 집 빌영 가고.(어떻게 구헤. 자기 집 없는 사름은 집 빌려서 가고.)

110034 @ 알음알음 물어봐 가는 거?(알음알음 물어보고 가는 거?)

110034 #1 어.(어.)

110033 @ 갈 때 택일?(갈 때 택일?)

110033 #2 행 가주게.(해서 가지.)

110033 #1 친구간에 거의 택일 안 허여.('친구간'에 거의 택일 안 해.)

110035 @ 음. 이사 갈 때 뭐부터 가져가고 그건 거 이수과?(음. 이사 갈 때 뭐 부터 가져가고 그런 거 있습니까?)

110035 #2 솟.(솟.)

110035 @ 솟 먼저 들어가고예.(솟 먼저 들어가고요.)

110035 #1 왜냐하면 택일하게 되면은.(왜냐하면 택일하게 되면.)

110035 @ 예.(예.)

110035 #1 몇 시에 가라 허면은 강 솟부터 먼저 가근에 불만 살라근에 밥을 허 든지 불살라 불민 췌 거.(몇 시에 가라 하면 가서 솟부터 먼저 가서 불만 살라서 밥 을 하든지 불살라 버리면 되는 거.)

110035 @ 음, 불살랑.(음, 불살라서.)

110035 #1 솟 앓져근에.(솟 안쳐서.)

110035 @ 솟 앓정예. 예.(솟 안쳐서요. 예.)

11. 놀이

111001 @ 옛날에 놀아난 거 물어보쿠다. 놀이 했던 거를. 어렸을 때.(옛날에 놀았던 거 물어보겠습니다. 놀이 했던 거를. 어렸을 때.)

111001 #1 으.(으.)

111001 @ 어떤 거 허멍 놀아나신지 그걸 물어보쿠다.(어떤 거 하면서 놀았었는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111001 #1 방치기.(‘방치기’.)

111001 @ 예, 방치기, 또.(예, ‘방치기’, 또.)

111001 #1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게 이렇게 굻어 나서 허는 거.(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굻고 나서 하는 거.)

111001 @ 방치기렌 헤마씨?(‘방치기’라고 해요?)

111001 #1 으, 여기선 방치기렌 허주게.(으, 여기선 ‘방치기’라고 하지.)

111001 @ 방치기 또?(‘방치기’ 또?)

111001 #1 뭐 자치기.(뭐 자치기.)

111001 @ 자치기.(자치기.)

111001 #1 뭐 진돌이 그렇게 그런 거주 뭐. 다른 건 없어 여긴. 팽이치기.(뭐 ‘진돌이’ 그렇게 그런 거지 뭐. 다른 건 없어 여긴. 팽이치기.)

111001 @ 팽이치기, 연날리기?(팽이치기, 연날리기?)

111001 #1 이쪽으로는 연 그다지 날리지 안 헛주. 연날리기 종이가 힘들어놓니까 우리 두린 때는 여기 종이가 힘들어놓니까 힘들엇주게.(이쪽으로는 연 그다지 날리지 않았지. 연날리기 종이 힘들드니까. 우리 어린 때는 여기 종이 힘들드니까 힘들엇지.)

111001 @ 으. 연날리기 뭐 쪽기차기?(으. 연날리기 뭐 제기차기?)

111001 #1 쪽기차기도 허고.(제기차기도 하고.)

111001 @ 쪽기차기도 허고예. 말타기도 허고예?(제기차기도 하고요. 말타기도 하고요?)

111001 #1 어, 그거 헛어.(어, 그거 헛어.)

111001 @ 구슬치기도 허고예?(구슬치기도 하고요?)

111001 #1 구슬치긴 안 헛어. 우리 두린 적엔 안 헛어.(구슬치긴 안 헛어. 우리 어릴 적엔 안 헛어.)

111001 @ 아, 다마치기 안 헤낫수과?(아, 구슬치기 안 헛었습니까?)

111001 #1 어.(어.)

111001 @ 슴박꼭질?(스삼꼭질?)

111001 #1 여기선 곱을락.(여기선 ‘곱을락’.)
 111001 @ 으. 곱을락. 굴렁쉐 거트 건 안 해나수과?(으. 슈바꼭질. 굴렁쇠 같은 건 안 했습니까?)
 111001 #1 아니, 그것도 안 허고.(아니, 그것도 안 하고.)
 111001 @ 안 하고.(안 하고.)
 111001 #1 그런 게 없었어. 여긴 촌이니까.(그런 게 없었어. 여긴 촌이니까.)
 111001 @ 으, 으.(으, 으.)
 111001 #1 도시에사 헛지.(도시에야 헛지.)
 111001 @ 으. 뽕이치기²⁹⁹?(으. ‘뽕이치기’?)
 111001 #1 뽕이치기는 허주게. 그건 봄철에.(‘뽕이치기’는 하지. 그건 봄철에.)
 111001 @ 봄철에.(봄철에.)
 111001 #1 으. 흔 철에.(으. 한 철에.)
 111001 @ 계난 그런 거 하나씩 물어볼게예, 하나씩예.(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하나씩요.)
 111001 #1 으.(으.)
 111002 @ 우선은 연에서부터 먼저 물어보쿠다, 연날리기?(우선은 연에서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연날리기?)
 111001 #1 으.(으.)
 111002 @ 연 종류에 뭐가 잇수과?(연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111002 #1 여기는 가오리연 허고 들연.(여기는 가오리연 하고 달연.)
 111002 @ 가오리연, 들연?(가오리연, 달연?)
 111002 #1 어.(어.)
 111002 @ 방패연 같은 건 안 허고?(방패연 같은 건 안 하고?)
 111002 #1 가오리, 저 들연이 방패연이주게.(가오리, 저 달연이 방패연이지.)
 111002 @ 들연이 방패연예.(달연이 방패연요.)
 111002 #1 으, 네모나게 헤 가지고 가운데 구멍 허는 게?(으, 네모나게 헤 가지고 가운데 구멍 하는 게?)
 111002 @ 예.(예.)
 111002 #1 여기선 방패연이라고 허지 않고 들연.(여기선 방패연이라고 하지 않고 달연.)
 111002 @ 들연.(달연.)
 111002 #1 으, 들같이 가운데 구멍 낫다고 해서 들연.(으, 달 같이 가운데 구멍 낫다고 해서 달연.)
 111002 @ 아, 기마씨. 그거허고 가오리연예?(아, 그래요. 그거하고 가오리연요?)
 111002 #1 가오리거치 생겼다고 헤 가지고 가오리연.(가오리 같이 생겼다고 해

299) ‘뽕이치기’는 뽕기를 가지고 노는 내기 놀이를 말한다. ‘뽕이’에 ‘치다’의 명사형인 ‘치기’가 결합한 것으로, ‘뽕이’는 ‘뽕이’, ‘뽕이치기’는 ‘뽕이치기’라고도 한다.

가지고 가오리연.)

111002 @ 경 두 개 만들었던 거.(그렇게 두 개 만들었던 거.)

111002 #1 어.(어.)

111003 @ 그럼 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차근차근 알아 줘서.(그럼 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차근차근 말해 주십시오.)

111003 #1 창호지.(창호지.)

111003 @ 예.(예.)

111003 #1 창호지가 저 한지주게.(창호지가 저 한지지.)

111003 @ 예.(예.)

111003 #1 창호지 해 가지고 대나무. 대나무 쪼개 가지고는 가까.(창호지 해 가지고 대나무. 대나무 쪼개 가지고는 깎아.)

111003 @ 으.(으.)

111003 #1 그래 이런 풀이 없으니까 밥풀. 밥풀 막 끈적거리근에 밥풀로 부쳐근 예.(그리 이런 풀은 없으니까 밥풀. 밥풀 막 끈적거리서 밥풀로 붙여서.)

111003 @ 잘르는 거는 어느만큼 자릅니까?(자르는 거는 어느만큼씩 자릅니까?)

111003 #1 대?(대?)

111003 @ 예.(예.)

111003 #1 건 종이에 맞춰.(건 종이에 맞춰서.)

111003 @ 종이에 맞춰예?(종이에 맞춰서요?)

111003 #1 저 부저집 아이덜이나 종이 하면은 크게 만들고 족으면 족게 만들고.(저 부저집 아이덜이나 종이 많으면 크게 만들고 작으면 작게 만들고.)

111003 @ 족으면 족게 만들고예.(작으면 작게 만들고요.)

111003 #1 가오리연 같은 건 이 저 신문지 이시민 신문지로도 만들고. 달연은 안 돼.(가오리연 같은 건 이 저 신문지 있으면 신문지로도 만들고. 달연은 안 돼.)

111003 @ 아, 달연은 신문지로 안 돼마씨?(아, 달연은 신문지로 안 돼요?)

111003 #1 신문지로 안 돼.(신문지로 안 돼.)

111003 @ 그민 연 만들젠 허민 필요헌 게.(그럼 연 만들려고 하면 필요한 게.)

111003 #1 대.(대.)

111003 @ 대.(대.)

111003 #1 종이.(종이.)

111003 @ 종이.(종이.)

111003 #1 어, 밥풀.(어, 밥풀.)

111003 @ 밥풀만 이시민 웨는 거라예?(밥풀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111004 #1 으. 연술은 게난 힘든 게 자기 집에 길쌈을 허면은 할머니나 어머니 나 허게 웨면은 그 저 실 곳인 거.(으. 연줄은 그러니까 힘든 게 자기 집에 길쌈을 하면 할머니나 어머니나 하게 되면 그 저 실 곳은 거.)

111004 @ 으, 음.(으, 음.)

111004 #1 빌어 가지고 걸로 드렁. 거 이제 연술 헐카 부덴 것도 밥풀 맥여 가지고.(빌어 가지고 걸로 드려서. 거 이제 연술 할까 봐 것도 밥풀 맥여 가지고.)

111004 @ 줄을, 줄에 밥풀 맥여?(줄을, 줄에 밥풀 맥여?)

111004 #1 으. 연술. 그래야 바짝바짝 허고.(으, 연술. 그래야 바짝바짝 하고.)

111004 @ 아.(아.)

111004 #1 잘 안 늘어나게.(잘 안 늘어나게.)

111004 @ 안 늘어나니까, 연술.(안 늘어나니까, 연술.)

111004 #1 게고 또 연싸움 허젠 허민 유리.(그리고 또 연싸움 하려고 하면 유리.)

111004 @ 으.(으.)

111004 #1 유리 부수와 가지고는 밥풀에 서터. 겐 연술에 메겨.(유리 부수어서 밥풀에 섞어. 그래서 연술을 먹여.)

111004 @ 그거 날카롭게 할려고?(그거 날카롭게 하려고?)

111004 #1 으, 그러면은 연술 이렇게 하게 돼면은 이걸 당겼다 늦췄다 허면은 잘라지주게 실이. 잘라지민 날아가는 거주.(으, 그러면 연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당겼다 늦췄다 하면 잘리지 실이. 잘리면 날아가는 거지.)

111004 @ 아, 거난 유리 뭐 해 가지고.(아, 그러니까 유리 뭐 해 가지고.)

111004 #1 으. 유리 부셔서.(으. 유리 부셔서.)

111004 @ 음. 게민 연 만들젠 허민 대나무 미리 행 놔두는 거과?(음. 그럼 연 만들려고 하면 대나무 미리 해서 놔두는 겁니까?)

111004 #1 아, 그 때 잘라당.(아, 그 때 잘라다가.)

111004 @ 그 때 잘라당예.(그 때 잘라다가요.)

111004 #1 그땐 대가 많았으니까게.(그땐 대가 많았으니까.)

111004 @ 열레나 실 같은 것들은?(열레나 실 같은 것들은?)

111004 #1 실 글썸, 집에 길쌈허게 돼민 미녕실.(실 글썸, 집에 길쌈하게 되면 무명실.)

111004 @ 미녕실.(무명실.)

111004 #1 어.(어.)

111005 @ 게문 연싸움 허젠 허민 어떻 해?(그럼 연싸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111005 #1 글썸 연 날려 가지고는 이제 늦춰당 땡것당 허민 이제 영 겹치주게, 실이. 연이 겹치는 게 아니라 실이 겹쳐.(글썸 연 날려 가지고는 이제 늦췄다가 당겼다가 하면 이제 이렇게 겹치지, 실이.)

111005 @ 으.(으.)

111005 #1 그러면 텡겨다 허민 그 실이 잘라져 부는 거주.(그러면 당겼다가 하면 그 실이 잘려 버리는 거지.)

111005 @ 으.(으.)

111005 #1 그러면 실 짤라진 거는 연이 땅에 떨어져 분단 말이지.(그러면 실 잘린 거는 연이 땅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111006 @ 음. 연날기 허멍 뭐 재미난 일 벗어나수과?(음. 연날리기 하면서 뭐 재밌던 일 없었습니까?)

111006 #1 엇어.(없어.)

111006 @ 엇어, 하하하.(없어, 하하하.)

111006 #1 그 때는 못 살아 놓니까. 이 학교도 그 때는 삼일 이상 결석 안허민 그 때는 도지사 상을 줬다고. 여긴 농촌이니까 그 때 애기들, 형제간이 만허니까 애기업체엔 해근에 애기 돌아야 부모네가 밭디 강 검질도 메고 농사짓는 거주.(그 때는 못 사니까. 이 학교도 그 때는 삼일 이상 결석 안 하면 그 때는 도지사 상을 줬다고. 여긴 농촌이니까 그 때 애기들, 형제간이 많으니까 업저지라고 해서 애기 데려서 부모네가 밭에 가서 김도 매고 농사짓는 거지.)

111006 @ 아.(아.)

111006 #1 예, 공부허기가 힘들엇주게.(예, 공부하기가 힘들엇지.)

111002 @ 그럼 연 이름덜 알아지쿠, 아 저기 연 부분 이름덜. 케니까 연 안에?(그럼 연 이름덜 알겠습니까, 아 저기 연 부분 이름덜. 그러니까 연 안에?)

111002 #1 어.(어.)

111002 @ 머리 부분은 뭐렌 곱아? 아까 들연이렌 헨 거예?(머리 부분은 뭐라고 말해? 아까 달연이라고 한 거요?)

111002 #1 어.(어.)

111002 @ 들연이렌 헛잖아, 방패연을 들연이렌 헨텐 헛잖아예?(달연이라고 헛잖아, 방패연을 달연이라고 한다고 헛잖아요?)

111002 #1 여기선 기자 종이, 연살.(여기선 그저 종이, 연살.)

111002 @ 으.(으.)

111002 #1 겐 이젠 영 줄 메는 건 벌이줄 맨다.(그래서 이젠 이렇게 줄 메는 건 벌이줄 맨다.)

111002 @ 벌이줄 맨다?(벌이줄 맨다?)

111002 #1 어.(어.)

111002 @ 줄 메는 건?(줄 메는 건?)

111002 #1 어. 겨고 연술에 해 가지고 띄우는 거베긴 뭐. 앞이가 뭐이다. 겨고 들연은.(어. 그리고 연줄에 해 가지고 띄우는 거밖에 뭐. 앞이 뭐이다. 그리고 달연은.)

111002 @ 으.(으.)

111002 #1 들, 저 들연은 풍지가 엇고 가오리는 풍지가 잇주.(달, 저 달연은 풍지가 없고 가오리는 풍지가 있지.)

111002 @ 풍지가 있지예?(풍지가 있지요?)

111002 #1 그든 그 풍지는 뭐렌 불러?(그럼 그 풍지는 뭐라고 불러?)

111002 #1 연 꼬리엔 허고 또 옆이 귀가 있어.(연 꼬리라고 하고 또 그 옆에 귀가 있어.)

111002 @ 귀?(귀?)

111002 #1 으, 연 귀.(으, 연 귀.)

111002 @ 연 귀?(연 귀?)

111002 #1 으.(으.)

111002 @ 연 귀예?(연 귀요?)

111002 #1 으.(으.)

111002 @ 연 귀엔 허고.(연 귀라고 하고.)

111002 #2 게고 연 꼬리.(그리고 연 꼬리.)

111002 @ 연 꼬리?(연 꼬리?)

111002 #1 어.(어.)

111002 @ 연 꼬리. 그, 그 들연에 동그란 거, 구멍 난 부분을 뭐렌 험니까?(연 꼬리. 그, 그 달연에 동그란 거, 구멍 난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111002 #1 아, 그건 무신 여기선 뭐렌 안 곴아.(아, 그건 무슨 여기선 뭐라고 안 말해.)

111002 @ 이름 엇어?(이름 없어?)

111002 #1 여기선 그런 말은 안 곴아.(여기선 그럼 말은 안 해.)

111002 @ 그럼 줄은?(그럼 줄은?)

111002 #1 연술. 연줄, 여기선 줄이엔 안 헤영 연술.(연줄. 연줄, 여기선 줄이라고 안 하고 ‘연술’.)

111002 @ 연술이렌 헤예?(‘연술’이라고 해요?)

111002 #1 어.(어.)

111002 @ 으.(으.)

111002 #1 여기 줄이엔 안 허여, 술.(여기 줄이라고 안 하고, ‘술’.)

111002 @ 그 연술 영 영, 영 감는 그걸 뭐렌 험니까?(그 연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111002 #1 얼레, 여기서도 얼레엔 허주.(얼레, 여기서도 얼레라고 하지.)

111002 @ 얼레엔 그냥 헤예?(얼레라고 그냥 해요?)

111002 #1 으.(으.)

111002 @ 그럼, 그 얼레 종류에 따라 뭐 두모얼레 네모얼레?(그럼, 그 얼레 종류에 따라 뭐 두모얼레, 네모얼레?)

111002 #1 아, 여긴 그추룩 안 헨 기자 요렇게 짜 가지고 네모로 요렇게 되게 헤 가지고는.(아, 여긴 그렇게 안 하고 그저 이렇게 짜 가지고 네모로 요렇게 되게 헤 가지고는.)

111002 @ 으.(으.)

111002 #1 살 박아 가지고 그대로.(살 박아 가지고 그대로.)

111002 @ 네 개로?(네 개로?)

111002 #1 어.(어.)

111002 @ 그럼 네모얼레렌 말도 안 허겠다예?(그럼 네모얼레라고 말도 안 하겠네요?)

111002 #1 예, 그대로, 그대로.(예, 그대로, 그대로.)

111002 @ 연줄은 감다, 굶다?(연줄은 감다, ‘굶다’?)

111002 #1 감다.(감다.)

111002 @ 연줄을 감다.(연줄을 감다.)

111002 #1 게난 재기 감으라이.(그러니까 재게 감으라.)

111002 @ 재기 감으라이.(재게 감으라.)

111002 #1 경헨 재기 풀라이.(그래서 재게 풀어라.)

111002 @ 풀라 허는 거를?(풀어라 하는 거를?)

111002 #1 연을 띄울라면 늦춰 주는 거.(연을 띄우려면 늦춰 주는 거.)

111002 @ 늦춰 주는 거예?(늦춰 주는 거요?)

111002 #1 으.(으.)

111002 @ 뭐 연에 매는 줄이렌 해근에 벌이줄 그런 건?(뭐 연에 매는 줄이라고 해서 벌이줄 그런 건?)

111002 #1 벌이줄게.(벌이줄.)

111002 @ 벌이줄을 그냥 연줄이렌만 허는 거예?(벌이줄을 그냥 연줄이라고만 하는 거요?)

111002 #1 벌이줄 메사 벌이줄에 연줄을 메주게.(벌이줄 매야 벌이줄에 연줄을 매지.)

111002 @ 아, 벌이줄을 메사?(아, 벌이줄을 매야?)

111002 #1 어.(어.)

111002 @ 그럼, 벌이줄 부분이 어디라?(그럼 벌이줄 부분이 어디야?)

111002 #1 요거, 요거 가트면은.(요거, 요거 같으면.)

111002 @ 예, 여기.(예, 여기.)

111002 #1 여기, 여기 이건 이건 저 들연.(여기, 여기 이건 이건 저 달연.)

111002 @ 으, 들연.(으, 달연.)

111002 #1 가오리연은 가운데.(가오리연은 가운데.)

111002 @ 가운데.(가운데.)

111002 #1 어.(어.)

111002 @ 그럼 여기를 벌이줄이렌 허는 건 똑같다예?(그럼 여기를 벌이줄이라고 하는 건 똑같네요?)

111002 #1 어.(어.)

111007 @ 그럼 제기는 어떻 만들야났수과?(그럼 제기는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111007 #1 제기는.(제기는.)
 111007 @ 쪽기, 쪽기?(쪽기, 쪽기?)
 111007 #1 여기 제기엔 안 행 쪽기가 맞추.(여기 제기라고 안 하고 ‘쪽기’가 맞지.)
 111007 @ 쪽기. 쪽기는 어떻?(제기. 제기는 어떻게?)
 111007 #1 허게 뒤편은 형겹.(하게 되면 형겹.)
 111007 @ 으.(으.)
 111007 #1 즐게 찢어 가지고는 그땐 여기는 거기 놀 게 없으니까, 소라, 구쟁기 이 딱지 그 앞이 딱지 그거 낱.(잘게 찢어 가지고 그땐 여기는 거기 놀 게 없으니까, 소라, 소라 딱지 그 앞에 딱지 그거 놓고.)
 111007 @ 그거 낱 하하.(그거 놓고 하하.)
 111007 #1 엇이니까게.(없으니까.)
 111007 @ 엇이니까. 묶는 건 어떻 묶어?(없으니까. 묶는 건 어떻게 묶어?)
 111007 #1 실로. 일본 동전.(실로. 일본 동전.)
 111007 @ 예.(예.)
 111007 #1 그걸로 놓기도 허주. 그거 망헨 가 부니까, 그거 쓸 곳도 엇이니까.(그걸로 놓기도 하지. 그거 망해서 가 버리니까, 그거 쓸 곳도 없으니까.)
 111007 @ 아.(아.)
 111007 #1 근데 주로 구쟁기 딱지.(그런데 주로 소라 딱지.)
 111007 @ 구쟁기 딱지.(소라 딱지.)
 111007 #1 그거 두 개나 세 개 놔근에 무정.(그거 두 개나 세 개 놓고 묶어서.)
 111007 @ 으.(으.)
 111007 #1 흥나만은 게벼우니까게.(하나만은 가벼우니까.)
 111007 @ 아하, 가벼워 부난.(아하, 가벼워 버리니까.)
 111001 #1 하하. 겨고 또 침, 놀이에 여기 못치기³⁰⁰엔 헨 것이 있어주.(하하. 그리고 또 침, 놀이에 여기 ‘못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111001 @ 못치기?(‘못치기’?)
 111007 #1 으.(으.)
 111007 @ 못치기는 뭐 어떻 허는 거라?(‘못치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11001 #1 왜 못이엔 해근에.(왜 못이라고 해서.)
 111001 @ 예.(예.)
 111001 #1 이 집 짓을 때나 드러 박는 거.(이 집 지을 때나 마구 박는 거.)
 111001 @ 예.(예.)
 111001 #1 그걸로도 헨 놀았주. 그건 왜 놀았는고 허니까 사삼사건 때 이디 습격 들영 학교들 다 타 부니까.(그것으로도 해서 놀았지. 그건 왜 놀았는가 하니까 사삼사건 때 여기 습격 들어서 학교들 다 타 버리니까.)

300) ‘못치기’는 ‘못’을 가지고 노는 놀이 이름이다.

111001 @ 예.(예.)

111001 #1 그 못이 많았어. 그 못이. 이 학생덜 그거 가근에 좇어단.(그 못이 많았어. 그 못이. 이 학생들 그거 가서 주워다가.)

111001 @ 예.(예.)

111001 #1 그걸로 못치기 해근에. 무사 안 돼멘?(그걸로 ‘못치기’ 해서. 왜 안 되고 있나?)

111001 @ 됐다.(됐어요.)

111001 #1 그리고 한 열 댓 설 넘으면은 열 댓 설 넘어근에 혼 장개가기 전이 덜은 구녁치기³⁰¹⁾엔 해 가지고 돈 내기.(그리고 한 열 댓 살 넘으면 열 댓 살 넘어서 한 장가가기 전에는 ‘구녁치기’라고 해 가지고 돈 내기.)

111001 @ 구녁치기?(‘구녁치기’?)

111001 #1 으, 구녁치기엔 해 가지고는 땅에, 이렇게 땅을 파.(으, ‘구녁치기’라고 해 가지고는 땅에, 이렇게 땅을 파.)

111001 @ 예, 예.(예, 예.)

111001 #1 땅을 파 가지고는 동전, 진짜 동전으로 사용허는 동전으로.(땅을 파 가지고는 동전, 진짜 동전으로 사용하는 동전으로.)

111001 @ 으.(으.)

111001 #1 해서 혼 사람이 하나씩 내 뇌근에 그 구멍더레 들어 던지는 거라. 구멍에 들어가민 먹고, 안 들어가민 돌로 맞춰.(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놓고 그 구멍에 들어 던지는 거야. 구멍에 들어가면 먹고, 안 들어가면 돌로 맞춰서.)

111001 @ 하하.(하하.)

111001 #1 떡대라고 해서 게민 만약에 나가 던지면은 그쪽에서가 어느 걸 맞추라고 지적을 해 줘.(‘떡대’라고 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던지면 그쪽에서가 어느 걸 맞추라고 지적을 해 줘.)

111001 @ 음.(음.)

111001 #1 그럼 그걸 맞추민 자기 돈이 되는 거라. 어린 아이덜은 돈 없으면 못 허고.(그럼 그걸 맞추면 자기 돈이 되는 거야. 어린 아이들은 돈 없으면 못 하고.)

111001 @ 음.(음.)

111001 #1 그자 빠른 아이덜은 열서너네 설, 그 학교 오류 학년. 우리 할 때는 사 학년에 결혼헌 사람도 잇었으니까.(그저 빠른 아이들은 열서너 살, 그 학교 오류 학년. 우리 할 때는 사 학년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111001 @ 그걸 무슨 치기라, 구녁치기?(그걸 무슨 치기야, ‘구녁치기’?)

111001 #1 어.(어.)

111001 @ 구녁³⁰²⁾? 고양이 아니고 구녁?(‘구녁’? ‘고망’도 아니고 ‘구녁’?)

111001 #1 으, 구녁치기.(으, ‘구녁치기’.)

301) ‘구녁치기’는 구멍에 돈이나 구슬을 던져 넣는 놀이의 일종이다.

302) ‘구녁’은 표준어 ‘구멍’에 대응한다. ‘고망’, ‘고냥’이라고도 한다.

111001 @ 아, 구녕치기에. 동전 가정 잇당, 십 원짜리 동전?(아, ‘구녕치기’요. 동전 가지고 있다가, 십 원짜리 동전?)

111001 #1 그 때 일 원짜리도 잇고 그 때 나오는. 진짜 사용허는 돈.(그 때 일 원짜리도 잇고 그 때 나오는. 진짜 사용하는 돈.)

111001 @ 돈 가정예?(돈 가지고요?)

111001 #1 으.(으.)

111001 @ 님의 돈 따 먹는 거?(님의 돈 따 먹는 거?)

111001 #1 그렇주게. 게난 어린 아이덜 도박이지.(그렇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도박이지.)

111001 @ 어, 진짜 놀이가 아니고 도박인게예.(어, 진짜 놀이가 아니고 도박이 네요.)

111001 #1 게, 딴 건 자기 거니까게.(그래, 딴 건 자기 거니까.)

111007 @ 자기 거니까예. 아까 제기 만드는 거 다시 혼 번만 곶아 줍서. 여기 안 들어간.(자기 거니까요. 아까 제기 만드는 거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십시오. 여기 안 들어갔어.)

111007 #1 구쟁기 딱지.(소라 딱지.)

111007 @ 쪽기 만드는 거. 예, 구쟁기 딱지.(제기 만드는 거. 예, 소라 딱지.)

111007 #1 어, 우이, 여물에 부튼 거 여물에 우이 딱지.(어, 위에, 여물이 붙은 거 여물에 위에 딱지.)

111007 @ 으 으.(으 으.)

111007 #1 그거를 이렇게 형겍으로 싸는 거라.(그거를 이렇게 형겍으로 싸는 거 야.)

111007 @ 으, 어쨌든.(으, 어쨌든.)

111007 #1 이레 싸 가지고는 이렇게 여디 딱 접아가지고 그거 실로 감아.(이리 싸 가지고는 이렇게 여기 딱 접어서 그거 실로 감아.)

111007 @ 실로 감아.(실로 감아.)

111007 #1 케민 우인 찢는다 이거주. 줍질게. 그러면 제기가 웨여.(그림 위엔 찢는다 이거지. 가늘게. 그러면 제기가 돼.)

111007 @ 쪽기 웨는 거예.(제기 되는 거요.)

111007 #1 으.(으.)

111008 @ 기민 쪽기차기 종류에도 뭐 한 발?(그림 제기차기 종류에도 뭐 한 발?)

111008 #1 혼 발차기, 두 발차기.(한 발차기, 두 발차기.)

111008 @ 또?(또?)

111008 #1 또 저 종 들인다고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안티 들어 던져. 그러면 또 차.(또 저 종 들인다고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들고 던져. 그러면 또 차.)

111008 @ 아, 그걸 종 들인텐 헤?(아, 그걸 종 들인다고 해?)

111008 #1 어, 여기선 중 들인텐 해.(어, 여기선 중 들인다고 해.)

111008 @ 흔 밭차기, 두 밭차기, 그 다음 올리기?(한 밭차기, 두 밭차기, 그 다음 올리기?)

111008 #1 여긴 올리기 그런 건 엇고.(여긴 올리기 그런 건 없고.)

111009 @ 그런 건 엇고. 그런 건 없고예. 게민 제기, 쪽기차기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거?(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요. 그럼 제기, 제기차기는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는 거?)

111009 #1 그렇주게. 많이 차는 사름이 이기주게.(그렇지. 많이 차는 사람이 이기지.)

111010 @ 쪽기차기 허멍 재미난 일 잇어나수과?(제기차기 하면서 재밌던 일 있었습니까?)

111010 #1 아니, 그런 거 엇어.(아니, 그런 거 없어.)

111012 @ 자치기?(자치기?)

111012 #1 자치기는 게 대나무, 저 대나무렌 험저, 그대로 나무.(자치기는 대나무, 저 대나무라고 하고 있네, 그대로 나무.)

111012 @ 으.(으.)

111012 #1 좀 이렇게 슬지고 요만이 긴 거는 자.(조금 이렇게 살지고 요만큼 긴 거는 자.)

111012 @ 으.(으.)

111012 #1 또 이레 짧은 건 치, 그래서 이걸 쳐 가지고 멀리 가는 사름이 들어 던져.(또 이리 짧은 건 치, 그래서 이걸 쳐 가지고 멀리 가는 사람이 들고 던져.)

111012 @ 음.(음.)

111012 #1 들어 던지민 이 둥글렁허게 방이라고 그려 낱. 그 방 안에 들어가민 죽는 거라. 저기 던지는 사름이 던져 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민 이제 때린다 이거지.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그럼 멀리서 쳐서 몇 자 행 불러 자를.(들고 던지면 이 둥그렇게 방이라고 그려 놓아.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저기 던지는 사람이 던져 가지고. 거기 안 들어가면 이제 때린다 이거지.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그럼 멀리서 쳐서 몇 자 해서 불러 자를.)

111012 @ 으.(으.)

111012 #1 그럼 그걸 자로 험 재는 거주. 게서 이제 쉰 자 나기 허민 쉰 자 빨리 허는 사름이 이기는 거. 허는 편이.(그럼 그걸 자로 해서 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쉰 자 나기 하면 쉰 자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하는 편이.)

111013 @ 그민, 이 자치기, 아까 쪽기차기도 두 사람만도?(그럼, 이 자치기, 아까 제기차기도 두 사람만도?)

111013 #1 아니, 건 몇 사름도 험 수 있는 거.(아니, 건 몇 사름도 할 수 있는 거.)

111013 @ 여러 사름이 험 수 있는 거. 자치기도 마찬가지로.(여러 사름이 할 수

있는 거. 자치기도 마찬가지로.)

111013 #1 어.(어.)

111013 @ 팀 나뉘냐?(팀 나뉘서?)

111013 #1 아니. 그건 저 자치기만은 두 펜으로 나뉘.(아니. 그건 저 자치기만은 두 편으로 나뉘.)

111013 @ 두 펜으로 나뉘.(두 편으로 나뉘서.)

111013 #1 쪽기차기는 각자 헐 수도 있고.(제기차기는 각자 할 수도 있고.)

111013 @ 아, 각자 헐 수 있는데, 자치기는 펜 나뉘서.(아, 각자 할 수 있는데, 자치기는 편 나뉘서.)

111013 #1 펜 나뉘, 두 패로.(편 나뉘서, 두 패로.)

111013 @ 나뉘서 허는 거.(나뉘서 하는 거.)

111013 #1 게 가지고는 백 자 내기, 백 자 나기 전에 죽는단 말이지.(그래 가지고는 백 자 내기, 백 자 나기 전에 죽는단 말이지.)

111013 @ 음.(음.)

111013 #1 그럼 잘허는 사람이 선수로 나가근에가 흔꺼번에 몇 자 허게 돼민 또 전부 살아남 새로 또 허고.(그럼 잘하는 사람이 선수로 나가서 한꺼번에 몇 자 하게 되면 또 전부 살아나서 새로 또 하고.)

111013 @ 잘허는 사람이 이기면 다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잘하는 사람이 이기면 다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

111013 #1 그렇주게. 이 저 몇 자, 그러면 몇 자 허민 살아날락 약속허주게.(그렇지. 이 저 몇 자, 그러면 몇 자 하면 살아나기로 약속하지.)

111013 @ 아.(아.)

111013 #1 게 백 자 허기 전에 여기서 흔 사람만 남는다 이겨주.(그래 백 자 하기 전에 여기서 한 사람만 남는다 이겨지.)

111013 @ 으, 으.(으, 으.)

111013 #1 그럼 저쪽엔 여러 사람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수가 뺨 이제 서른 자면 서른 자, 흔 번에. 약속헌 서른 자 허게 돼민 전부 살아나는 거라.(그럼 저쪽엔 여러 사람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수가 돼서 이제 서른 자면 서른 자, 한 번에. 약속한 서른 자 하게 되면 전부 살아나는 거야.)

111013 @ 아, 그럼 아까 자치기 헐 때 긴 게 자, 짧은 게 치?(아, 그럼 아까 자치기 할 때 긴 게 자, 짧은 게 ‘치’?)

111013 #1 어.(어.)

111013 @ 그럼 우리 치는 게 치인 거라예?(그럼 우리 치는 게 ‘치’인 거지요?)

111013 #1 손에 잡은 게 자.(손에 잡은 게 자.)

111012 @ 손에 잡은 게 자예?(손에 잡은 게 자요?)

111012 #1 으.(으.)

111012 @ 땅에 있는 게 치. 그럼 그 자 준비는 어떻 험니까?(땅에 있는 게 ‘치’.

그럼 그 자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1012 #1 그 때는 낭 그차근에 허주.(그 때는 나무 끊어서 하지.)

111012 @ 동네에 있는 낭 그차근에예?(동네에 있는 나무 끊어서요?)

111012 #1 어.(어.)

111012 @ 똑같은 낭 사용하는 거, 자랑 치랑?(똑같은 나무 사용하는 거, 자랑 ‘치’랑?)

111012 #1 치는 가늘고 잘 깨지니까 동백나무.(‘치’는 가늘고 잘 깨지니까 동백 나무.)

111012 @ 치는 동백나무.(‘치’는 동백나무.)

111012 #1 가시나무 거튼 단단헌 나무로 허주게.(가시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하지.)

111012 @ 아.(아.)

111012 #1 치는.(‘치’는.)

111012 @ 자는 아무 거나 상관엇신디?(자는 아무 거나 상관없는데?)

111012 #1 건 소나무도 돼고 아무 낭이나.(건 소나무도 되고 아무 나무라도.)

111012 @ 음. 가시낭이나 동백낭이나.(음. 가시나무나 동백나무나.)

111012 #1 단단헌 나무.(단단한 나무.)

111014 @ 단단헌 거예?(단단한 거요?)

111014 #1 으.(으.)

111014 @ 단단헌 거. 자치기허명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 엿수과?(단단한 거. 자치기하면서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 없습니까?)

111014 #1 에이, 다 시간 보내기.(에이 다 시간 보내기.)

111015 @ 몰타기?(말타기?)

111015 #1 몰타기는.(말타기는.)

111015 @ 몰타기 종류.(말타기 종류.)

111015 #1 그거 몰타기 허게 되면 펜 갈랑.(그거 말타기 하게 되면 편 갈라서.)

111015 @ 으. 뭐 죽은몰타기, 대몰타기?(으. 뭐 작은 말타기, 대말타기?)

111015 #1 아니, 여긴 그런 건 엿어, 그런 건 엿엇고.(아니, 여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엇고.)

111015 @ 엿어. 편 갈랑 어떻마씨, 그 다음?(없어. 편 갈라서 어떻게요, 그 다음?)

111015 #1 게, 펜 갈랑게 혼 사름 사고 죽 구부리면은 진 펜부터 먼저. 게 가지고는 뛰어강 그 우이 타는 거라.(그래, 편 갈라서 한 사람 서고 죽 구부리면 진 편 부터 먼저. 그래 가지고는 뛰어가서 그 위에 타는 거야.)

111015 @ 으.(으.)

111015 #1 게민 대장안티 장췌³⁰³⁾ 불령.(그럼 대장에게 가위바위보 불려서.)

303) ‘장췌’은 일본어 ‘じゃんけん(ぼう)’에서 온 말로, ‘가위바위보’를 말한다. 제보자는 ‘가위바위보’를

111015 @ 으.(으.)

111015 #1 우리가 또 이기면은 계속 타는 거고 지면은 또 옆드리는 거고.(우리가 또 이기면 계속 타는 거고 지면 또 옆드리는 거고.)

111015 @ 지면은 옆드리는 거. 영 세 사람이 옆드려서 한 사람이 올라탕.(지면 옆드리는 거. 이렇게 세 사람이 옆드려서 한 사람이 올라타서.)

111015 #1 앞에 혼 사람이 상 잇는 거니까.(앞에 한 사람이 서 잇는 거니까.)

111015 @ 으, 으. 타고 그 다음 또 타고 또 타고 탄예?(으, 으. 타고 그 다음 또 타고 또 타고 타요?)

111015 #1 게민 앞이 사람이 장께 불렁.(그럼 앞에 사람이 가위바위보 불려서.)

111015 @ 게민 여기 타는 사람은 장께 불르는 사람 한 사람이 고정행 해도 돼, 아니면 바꾸명 해야 돼?(그럼 여기 타는 사람은 가위바위보 부르는 사람 한 사람이 고정해서 해도 돼요, 아니면 바꾸면서 해야 돼?)

111015 #1 건 알아근에.(건 알아서.)

111015 @ 알아 가지고 뭐 바꾸명 해도 되고?(알아 가지고 뭐 바꾸면서 해도 되고?)

111015 #1 으.(으.)

111015 @ 게민 뭐 죽은말타기, 생말타기 그런 건?(그럼 뭐 죽은말타기, 생말타기 그런 건?)

111015 #1 여긴 그런 거 없어.(여긴 그런 거 없어.)

111020 @ 그런 건 엇고예. 다마치기는?(그런 건 없고요. 구슬치기는?)

111020 #1 이디 우리 어릴 땐 다마가 없으니깐.(여기 우리 어릴 땐 구슬이 없으니깐.)

111020 @ 다마 엇어난? 딱지치기도 안 해났수과?(구슬 없었어? 딱지치기도 안 했었습니까?)

111028 #1 딱지치기도 우리 설러분 후제. 종이덜이 없으니까게.(딱지치기도 우리 그만둔 후에. 종이들이 없으니까.)

111032 @ 아하. 종이덜이 엇어 부난. 곱을락은?(아하. 종이들이 엇어 버리니까. 숨바꼭질은?)

111032 #1 곱을락은 허주게.(숨바꼭질은 하지.)

111032 @ 곱을락은?(숨바꼭질은?)

111032 #1 겐디 곱을락은 어린애들은 잘 안 허고 그 때에 좀 나이 든, 열여섯, 열일곱 처녀 총각덜 모영 많이 허주게.(그런데 숨바꼭질은 어린애들은 잘 안 하고 그 때에 좀 나이 든, 열여섯, 열일곱 처녀 총각들 모여서 많이 하지.)

111032 @ 아, 기과? 우리 어렸을 때 막 헛던 거 같은디.(아,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헛던 거 같은데.)

111032 #1 겐디 여기서 그추룩 안 헛어.(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안 헛어.)

‘장겐’, ‘장겐보’, ‘장끼’ 등으로 말하고 있다.

111032 @ 곱을락?(숨바꼭질?)

111032 #1 계민 어린 아이들은 그냥 구경허민 곤지 말라, 곤지 말라 허멍.(그럼 어린 아이들은 그냥 구경하면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111033 @ 아하, 곱을락할 때 술래, 술래는 어떻 정허여.(아하, 숨바꼭질할 때 술래 어떻게 정해.)

111033 #1 장겐 혜영 쨌 진 사름.(가위바위보 해서 쨌 진 사람.)

111033 @ 장겐보 행 쨌 진 사름예.(가위바위보 해서 쨌 진 사람요.)

111033 #1 경 헨 좏으면은 좏은 사름들끼리 장겐 불렁 술래허고.(그렇게 해서 좏으면 좏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불려서 술래하고.)

111033 @ 음, 다 좏아야 끝나는 거?(음, 다 좏아야 끝나는 거?)

111033 #1 어.(어.)

111033 @ 다 좏아야.(다 좏아야.)

111033 #1 그렇주게. 아니, 혼 멧 사름 좏고 못 좏으면은 아이구, 나오라 헤 불주게.(그렇지. 아니, 한 멧 사람 좏고 못 좏으면 아이고, 나와라 헤 버리지.)

111033 @ 으, 기민.(으, 그럼.)

111033 #1 멧 사름만 좏으민.(멧 사람만 좏으면.)

111033 @ 계민 멧 사람만.(그럼 멧 사람만.)

111033 #1 좏은 사름끼리만 또 장겐보허는 거라.(좏은 사람끼리만 또 가위바위보하는 거야.)

111033 @ 예, 좏은 사름덜끼리만 헐 거예. 계민 주로 어디 곱아낫수과?(예, 좏은 사람들끼리만 할 거요?. 그럼 주로 어디 숨었었습니까?)

111034 #1 아이고, 혼이 엇어 거. 밧 구석에도 간 곱아 불고. 이 봄철에는 보리 밧디 그런 디나 아니민 굴묵³⁰⁴ 거튼 디.(아이고, 혼이 엇어 거. 밧 구석에도 가서 숨어 버리고. 이 봄철에는 보리밭에 그런 데나 아니면 ‘굴묵’ 같은 데.)

111034 @ 굴묵, 굴묵.(‘굴묵’, ‘굴묵’.)

111034 #1 으, 굴묵 거튼 디. 겐디 굴묵은 잘 좏는단 말이지.(으, ‘굴묵’ 같은 데. 그런데 ‘굴묵’은 잘 좏는단 말이지.)

111034 @ 아하.(아하.)

111034 #1 계민, 주로 담 엠에 잘 곱아. 경헐 영 가민 저레 돌아나 불고.(그럼, 주로 담 옆에 잘 숨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저리 달아나 버리고.)

111034 @ 으.(으.)

111034 #1 이레 돌아나 불고. 쟁 안 허민 낭 우이도 올라 불고.(이리 달아나 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나무 위에도 올라 버리고.)

111032 @ 영 손으로 잡아야 잡은 거?(이렇게 손으로 잡아야 잡는 거?)

111032 #1 아니 아니, 너 좏았저 허민.(아니 아니, 너 좏았어 하면.)

111032 @ 그니까.(그러니까.)

304)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밧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11032 #1 손으로 가리키민 좇은 거.(손으로 가리키면 좇은 거.)
 111032 @ 기지예?(그렇지요?)
 111032 #1 어.(어.)
 111036 @ 실뜨기도 알아지쿠과?(실뜨기도 알겠습니까?)
 111036 #1 무시거?(무엇?)
 111036 @ 실. 영 행 놀아난 거.(실. 이렇게 해서 놀았던 거.)
 111036 #1 실? 아.(실? 아.)
 111036 @ 실 가져 가지고.(실 가져 가지고.)
 111036 #1 그것도 헤난디 나 그거 이름을 몰라.(그것도 했었는데 나 그거 이름을 몰라.)
 111036 @ 남저덜은 잘 안 허잖아. 여저덜이 헛던 놀이 아니예? 나중에 어무니 안티 물어보쿠다. 공기놀이?(남자들은 잘 안 하잖아. 여자들이 헛던 놀이 아니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놀이?)
 111041 #1 공기도 남저, 여긴 남저덜 안 해서.(공기도 남자, 여긴 남자들 안 했어.)
 111041 @ 남저 안 헛예?(남자 안 했지요?)
 111041 #1 으, 여저덜만.(으, 여자들만.)
 111044 @ 고누 알아지쿠과, 고누?(고누 알겠습니까, 고누?)
 111044 #1 고누엔 현 건 무신 말이라.(고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111053 @ 예, 윷놀이?(예, 윷놀이?)
 111053 #1 에이, 어린아이덜 윷놀이 안 허여.(에이, 어린아이들 윷놀이 안 해.)
 111053 @ 아니, 어른 돼 가지고 헛을 때.(아니, 어른 돼 가지고 헛을 때.)
 111053 #1 어른들은 허주게.(어른들은 하지.)
 111053 @ 어른 똥 헛을 때 윷놀이.(어른 돼서 헛을 때 윷놀이.)
 111053 #1 여기는 어른덜은 헤도 아이덜 윷놀이 헛당은 큰일 나게.(여기는 어른들은 헤도 아이들 윷놀이 했다가는 큰일 나게.)
 111053 @ 하하.(하하.)
 111053 #1 안 허여.(안 해.)
 111053 @ 어른 똥을 때 윷놀이, 윷가락 어떻 준비합니까?(어른 똥을 때 윷놀이, 윷가락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3 #1 낭 요만씩 잘라 가지고 두 개 깨여.(나무 요만큼씩 잘라 가지고 두 개 깨.)
 111054 @ 두 개 깨여, 무슨 낭으로 헤?(두 개 깨, 무슨 나무로 헤?)
 111054 #1 여긴 혼이 엇어. 주로 동박낭, 여기는.(여긴 한이 없어. 주로 동백나무, 여기는.)
 111055 @ 동박낭이과? 그럼 종지는 뭘 종지로 씹니까?(동백나무입니까? 그럼 종지는 뭘 종지로 씹니까?)

111055 #1 장 좋지.(장 좋지.)
 111055 @ 잔 좋지, 술 마시는?(장 좋지, 술 마시는?)
 111055 #1 아니 아니, 술 먹는 거 말양 상 차리면 간장 놓는 거 요만한 거.(아니 아니, 술 먹는 거 말고 상 차리면 간장 놓는 거 요만한 거.)
 111055 @ 으, 으. 장 좋지예. 케민 판은 어디에 그려?(으, 으. 장 좋지요. 그럼 판은 어디에 그려?)
 111055 #1 명석에.(명석에.)
 111055 @ 명석에 하하하.(명석에 하하하.)
 111055 #1 여긴 명석에 허난에.(여긴 명석에 하니까.)
 111059 @ 예, 명석에예.(예, 명석에요.)
 111059 #2 거 보라 하르방³⁰⁵) 오난 오죽 좋냐게. 나랑 허지 말양 하르방만 헤이민 좋은 건디.(거 보라 할아버지 오니까 오죽 좋니. 나랑 하지 말고 할아버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111061 @ 팽이치기?(팽이치기?)
 111061 #1 팽이는 팽이도 동박냥이 제일 좋아. 속이 안 구리니까³⁰⁶.(팽이는 팽이도 동백나무가 제일 좋아. 속이 안 비어 있으니까.)
 111061 @ 예.(예.)
 111061 #1 경혜 가지고 깎아근에.(그래 가지고 깎아서.)
 111061 @ 깎양?(깎아서?)
 111061 #1 게서 저 대 막덩이나 나무 막덩이 요만한 거 헤근에 형겅.(그래서 저 대 막대기 나무 막대기 요만한 거 해서 형겅.)
 111061 @ 어.(어.)
 111061 #1 형겅 해서 끈을 이렇게 무껴.(형겅 해서 끈을 이렇게 묶어.)
 111061 @ 어.(어.)
 111060 #1 그래 가지고는 팽이 감양 돌려근에 치는 거.(그래 가지고는 팽이 감아서 돌려서 치는 거.)
 111060 @ 음. 케민 팽이에 종류가 따로 잇엇수과?(음. 그럼 팽이는 종류가 따로 잇습니까?)
 111060 #1 아니주게.(아니지.)
 111064 @ 없엇던 거예. 팽이도 싸움 험니까, 팽이 싸움?(없엇던 거요. 팽이도 싸움합니까, 팽이 싸움?)
 111064 #1 허주게.(하지.)
 111064 @ 케민 어떻험니까?(그럼 어떻게 합니까?)
 111064 #1 둥그령, 서로 둥그령.(둥글려서, 서로 둥글려서.)
 111064 @ 으.(으.)

305)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306) '구리다'는 속이 들떠서 비어 있다는 의미다.

111064 #1 딱 일로도 치고 일로도 치면 팽이와 팽이끼리 부딪쳐.(딱 일로도 치고 일로도 치면 팽이와 팽이끼리 부딪쳐.)

111064 @ 으.(으.)

111064 #1 겐 쓰러지는 게 지는 거주게.(그래서 쓰러지는 게 지는 거지.)

111064 @ 쓰러지는 게. 치는 사람은 자기 팽이만 치는 거라?(쓰러지는 게. 치는 사람은 자기 팽이만 치는 거야?)

111064 #1 어.(어.)

111064 @ 굴렁쇠 같은 거 해놔수과?(굴렁쇠 같은 거 했었습니까?)

111064 #1 아니. 엇인 걸 해져게?(아니. 없는 걸 할 수 있어?)

111069 @ 깡통차기?(깡통차기?)

111069 #1 깡통차기도 안 허고.(깡통차기도 안 하고.)

111001 #2 쪽기차긴 잇주.(제기차긴 있지.)

111001 #1 쪽기차긴 허고.(제기차긴 하고.)

111001 @ 으, 쪽기차긴 아까 물어봤수다.(으, 제기차긴 아까 물어봤습니다.)

111072 @ 저기 뽕이치기, 이젠 뽕이치기 어떻 험니까?(저기 ‘뽕이치기’, 이젠 ‘뽕이치기’ 어떻게 합니까?)

111072 #1 뽕이, 우리 여깃말로 새.(뽕기, 우리 여깃말로 새.)

111072 @ 새.(새.)

111072 #1 새왓디 가근에 꽃이지게.(새밭에 가서 꽃이지.)

111072 @ 으.(으.)

111072 #1 그거 뽑아다가.(그거 뽑아다가.)

111072 @으.(으.)

111072 #1 멧 개 이렇게 숨어, 이렇게 짹 돌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방이 생긴다. 그럼 멧 개 짹는다. 게민 나가 만약에 열 개민 열 개 짹으면 나 열 개 주고 서른 개 짹으면 서른 개 주곡.(멧 개 이렇게 숨어, 이렇게 짹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방이 생긴다. 그럼 멧 개 짹는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열 개면 열 개 짹으면 나 열 개 주고 서른 개 짹으면 서른 개 주고.)

111072 @ 그럼, 뽕이치기³⁰⁷⁾ 허젠 허민 뽕이를 뽑아와야겠다예?(그럼, ‘뽕이치기’ 하려고 하면 뽕기를 뽑아와야겠네요?)

111072 #1 게, 새왓디 강 뽑앙 와야지. 쟁 험 새왓 임제안티 걸리민 옥든곡.(그래, 새밭에 가서 뽑아 와야지. 그렇게 해서 새밭 임자에게 걸리면 옥먹고.)

111072 @ 무사?(왜?)

111072 #1 아, 그거 뽑아 불민 새가 안 자라주.(아, 그거 뽑아 버리면 새가 안 자라지.)

111072 @ 아, 그거 뽑아 불민 새가 안 자라?(아, 그거 뽑아 버리면 새가 안 자

307) ‘뽕이치기’는 뽕기를 가지고 노는 내기 놀이를 말한다. ‘뽕이’에 ‘치다’의 명사형인 ‘치기’가 결합한 것으로, ‘뽕이’는 ‘뽕이’, ‘뽕이치기’는 ‘뽕이치기’라고도 한다.

라?)

111072 @ 안 돼주게.(안 되지.)

111072 #1 저 어렸을 때 우리 그거 빵이 뽑앙 먹어나신디.(저 어렸을 때 우리 그거 빨기 뽑아서 먹었었는데.)

111072 #1 아고, 맛 좋아.(아이고, 맛 좋아.)

111072 @ 연한 거예?(연한 거요?)

111072 #1 이제 먹을 게 만허니까 헛지 옛날에는.(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헛지 옛날에는.)

111072 #2 억새, 억새 빵인 더 좋아.(억새, 억새 빨긴 더 좋아.)

111072 #1 여기 말로 어웁이라고 헛어, 억새보고 어웁이라고 허주 여기 사름덜.(여기 말로 '어웁'이라고 헛어. 억새보고 '어웁'이라고 하지. 여기 사름들.)

111072 @ 으, 으.(으, 으.)

111072 #1 어웁 빵이는 그 여물이 더 맛 좋아.(억새 빨기는 그 여물이 더 맛 좋아.)

111072 @ 여물이?(여물이?)

111072 #1 거 슬지니까게.(거 살지니까.)

111072 @ 아하.(아하.)

111072 #1 겐 빵이치기 허젠 허민 참 늬의 밧디, 여기는 해변이니까 새밧이 힘들주게. 겐 주인 뵘샤 안 뵘샤 몰르게 이렇게 뽑아당 새.(겐 '빵이치기' 하려고 하면 참 남의 밧에, 여기는 해변이니까 새밧이 힘들지. 그래서 주인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게 이렇게 뽑아다가 새.)

111072 @ 하하하. 뽑아당?(하하하. 뽑아다가?)

111072 #1 놀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 때 당시 촌이니까. 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에 가서 밧다.(놀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 때 당시 촌이니까. 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에 가서 밧다.)

111072 @ 으.

111072 #1 그걸 놀라고 해도 재료가 없으니까 못 논다 이거지.(으. 그걸 놀려고 해도 재료가 없으니까 못 논다 이거지.)

111072 @ 못 노는 거라예?(못 노는 거지요?)

111072 #1 그렇주게.(그렇지.)

111075 @ 저기 고무줄놀이도 해낫수과?(저기 고무줄놀이도 했었습니까?)

111075 #1 아 여자덜 허주게, 여자덜.(아 여자들 하지, 여자들.)

111075 @ 이것도 어무니안티 물어봐야쿠다. 줄넘기?(이것도 어머니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111078 #1 줄넘긴 무시거라?(줄넘긴 무엇이야?)

111078 #2 베필락.(줄넘기.)

111078 #1 베필락 게메 잘 안 해여.(줄넘기 글썸 잘 안 해.)

111078 @ 이거 어무니안티 물어볼 겨우다.(이거 어머니에게 물어볼 겁니다.)

111078 #2 고무줄 헐 때는 저 막 옛날 아니라.(고무줄 할 때는 저 아주 옛날 아니야.)

111078 #1 요 근래.(요 근래.)

111078 #2 혼 육십 년, 칠십 년 전.(한 육십 년, 칠십 년 전.)

111078 @ 육십 년, 칠십 년 전?(육십 년, 칠십 년 전?)

111078 #2 어. 칠십 년 전이.(어. 칠십 년 전에.)

111078 @ 그럼, 어무니 열 설 땀게. 칠십 년 전이민?(그럼, 어머니 열 설 때네. 칠십 년 전이면?)

111078 #2 으. 열 설 때. 열 설, 열다섯 돼 가난 혼 칠십년 돼엇주.(으. 열 설 때. 열 설, 열다섯 돼 가니까 한 칠십 년 되었지.)

111082 @ 으, 계난 그런 거, 그런 거. 어무니안티 물어보쿠다. 여기 한다리인다리³⁰⁸도 잇수과?(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어머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한다리인다리’도 있습니까?)

111082 #2 한다리인다리 잇주게.(‘한다리인다리’ 있지.)

111082 #1 그 저 조용히 겨울 방 안에 강 앓앙 놀민덜게.(그 저 조용히 겨울 방 안에 가서 앉아서 놀면들.)

111082 @ 겨울에. 건 어떻 허는 거?(겨울에. 건 어떻게 하는 거?)

111082 #1 저 할망³⁰⁹이 건 잘 알아.(저 할머니가 건 잘 알아.)

111082 @ 어무니가 오셔야 돼크라.(어머니가 오셔야 되겠어.)

111082 #2 아이고, 나 거, 거 하르방안티 들으라.(아이고, 나 거, 거 할아버지에 게 들어라.)

111082 @ 여기 오십서.(여기 오십시오.)

111082 #2 이런 다리덜 코짱히 놓민 혼다리인다리.(이런 다리들 가지런하게 놓으면 ‘한다리인다리’.)

111082 @ 어.(어.)

111082 #2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³¹⁰ 지등에 쳐.(‘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 기등에 쳐.)

111082 @ 어.(어.)

111082 #2 그거주게, 노래 부르는 게.(그거지, 노래 부르는 게.)

111082 @ 그럼 다리 영 번갈앙 앓앙?(그럼 다리 이렇게 번갈아서 앉아서?)

111082 #1 서로 이렇게.(서로 이렇게.)

111083 #2 아니 겨민 이 다리를 다리를 곤는 사름이 혼 서이가 앓으민 혼 다리, 혼 다리 행 다 다리 수정을 허다 보면은 개청 대청 원님 수설 지등에 척 허면은 이 다리가 부트민 이거는 못 허여. 이거는 빠베야 돼여.(아니 그러면 이 다리를 다리를

308) ‘한다리인다리’는 놀이의 한 종류다.

309) ‘할망’은 표준어 ‘할머니’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아내를 가리킨다.

310) ‘개청 대청 원님 수설 횡경 밧디’는 ‘한다리인다리’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말하는 사람이 한 셋이 앉으면 한 다리, 한 다리 해서 다 다리 수를 하다 보면 ‘개청 대청 원님 수설 지동’에 척 하면 이 다리가 붙으면 이거는 못 해. 이거는 빼 버려야 돼.)

111084 @ 빼 붙어야 돼여.(빼 버려야 돼.)

111084 #2 어. 거민 또 남은 것만 해근에 그것에 가민 또 빼 붙어야 돼고.(어. 그럼 또 남은 것만 해서 그것에 가면 또 빼 버려야 돼고.)

111083 @ 아까 그 노래 한 번만 더 불러 줘서.(아까 그 노래 한 번만 더 불러 주십시오.)

111083 #2 노래 무슨 노래?(노래 무슨 노래?)

111083 @ 흥 다리 두 다리, 흥 번만 더.(한 다리 두 다리, 한 번만 더.)

111083 #2 계난 그것이 말째라가난이 막 노래가 여러 가지로 나오란.(그러니까 그것이 말째야가니까 아주 노래가 여러 가지로 나왔어.)

111083 @ 으.(으.)

111083 #2 경헌디 계도 우리 처음 배울 땐, 흥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지동에 쳐. 게 그거주게.(그런데 그래도 우리 처음 배울 땐, ‘흥다리인다리 개청 대청 원님 수설’ 기동에 쳐. 그래 그거지.)

111084 @ 쳐 허민 그 다리가 걸린 거?(쳐 하면 그 다리가 걸린 거?)

111084 #2 만약에 이 다리 와서 이 다리가 걸리민 빠는 거.(만약에 이 다리 와서 이 다리가 걸리면 빠는 거.)

111084 @ 빼 버리는 거예.(빼 버리는 거요.)

111084 #2 어, 남은 다리만 또 허다근에 걸리민 또 허고.(어, 남은 다리만 또 하다가 걸리면 또 하고.)

111084 @ 계민 난 진 거예?(그럼 난 진 거요?)

111084 #2 어. 이제.(어. 이제.)

111075 @ 어무니 고무줄놀이 해난 것도 곱아 줘서.(어머니 고무줄놀이 했던 것도 말해 주세요.)

111075 #2 고무줄 노래해난 건 그 노랜 아니 헛어. 고무줄 노랜.(고무줄 노래했던 건 그 노랜 아니 헛어. 고무줄 노랜.)

111075 @ 고무줄 헛 때 흥 줄 고무줄도 있고 여러 가지 잇수과?(고무줄 할 때 한 줄 고무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111075 #2 아니, 고무줄은 이레 이디 심고 저레 심곡 헛 두 사람이 심영 가운데서 뛰주게.(아니, 고무줄은 이리 여기 잡고 저리 잡고 해서 두 사람이 잡고 가운데서 뛰지.)

111075 @ 으.(으.)

111075 #2 계난 그거는 근래에 아이들이, 우리보단 막 아래 아이덜이 허주게.(그러니까 그거는 근래에 아이들이, 우리보단 아주 아래 아이덜이 하지.)

111075 @ 아, 어무니 때가 아니고.(아, 어머니 때는 아니고.)

111075 #2 어.(어.)
 111075 @ 나중에 헨 거.(나중에 한 거.)
 111078 #2 우리렌 그 베펠락을 주로 허고 그 베펠락을 헤난 노래는 윈.(우리들 그 줄넘기를 주로 하고 그 줄넘기를 했던 노래는 윈.)
 111078 @ 베펠락?(줄넘기?)
 111078 #2 어.(어.)
 111078 @ 베펠락은 멧 사름이 험니까?(줄넘기는 멧 사름이 험니까?)
 111078 #2 베펠락은 혼자.(줄넘기는 혼자.)
 111078 @ 으.(으.)
 111078 #1 혼자 그자 베 가지고 이거라. 혼자.(혼자 그저 바 가지고 이거야. 혼자.)
 111078 @ 아, 여러 사름이, 둘이가 영 돌려주고 뛰어가는 건 안 허고?(아, 여러 사름이, 둘이 이렇게 돌려주고 뛰어가는 건 안 하고?)
 111078 #2 그거는 근래에 체육대회 ㄴ튼 때 허는 거주게 그거는.(그거는 근래에 체육대회 같은 때 하는 거지 그거는.)
 111078 @ 아, 혼자만.(아, 혼자만.)
 111078 #2 근래에 체육대회 ㄴ튼 때 멧 사름이 사 가지고 돌리면서주. 그 때는 베 헨 발은 헨 거 가정 혼자, 혼자.(근래에 체육대회 같은 때 멧 사름이 사 가지고 돌리면서지. 그 때는 바 한 발은 한 거 가지고 혼자, 혼자.)
 111080 @ 그네뛰기는?(그네뛰기는?)
 111080 #2 그네뛰기는게 나무에 베 걸어근에게.(그네뛰기는 나무에 바 걸어서.)
 111080 #1 그것도 잘 안 헐어. 해변이니까 나무가 많지 안 허난에.(그것도 잘 안 헐어. 해변이니까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111080 @ 아, 그 나무도 큰 나무여야 텔 거난예?(아, 그 나무도 큰 나무여야 될 거니까요?)
 111080 #1 어.(어.)
 111080 #2 그렇게 해서 그 저 오래 그걸 헤 가민.(그렇게 해서 그 저 오래 그걸 헤 가면.)
 111080 #1 게고 걸 부랑꼬³¹¹⁾엔 헤여. 부랑꼬.(그리고 걸 그네라고 해. 그네.)
 111080 @ 부랑꼬 그거는 일본말.(‘부랑꼬’ 그거는 일본말.)
 111080 #2 으.(으.)
 111080 #1 게메 일본말인디이 여기 사름덜은 부랑꼬엔 헐어.(그러게 일본말인데 여기 사름들은 ‘부랑꼬’라고 헐어.)
 111080 @ 부랑꼬엔 해서예?(‘부랑꼬’라고 헐어요?)
 111080 #2 으.(으.)

311) ‘부랑꼬’는 일본어 ‘ぶらんこ’에서 온 말로 ‘그네’를 말한다.

12. 통과이레

출생

112001 @ 애기, 애기 가졌을 때 애기 가지면 태교 같은 건 신경 쓰난마씨? 배 속에 이실 때, 애기 생기민?(아기, 아기 가졌을 때 애기 가지면 태교 같은 건 신경 썼었습니까? 배 속에 있을 때, 애기 생기면?)

112001 #2 아니. 것도 옛언에, 혼 번 나 애기 가짐은 으섯 갠 가졌주. 혼 번은 애길 가져신디 쓰러진 적도 아무 적도 옛인디.(아니. 것도 없었어, 한 번 내가 애기 갖기는 여섯 갠 가졌어. 한 번은 애길 가졌는데 쓰러진 적도 아무 적도 없는데.)

112001 @ 으.(으.)

112001 #2 침 배도 크게 안 아프고 기자 굶인물³¹²만 팔팔하게 난에게.(침 배도 크게 안 아프고 그저 ‘굶인물’만 팔팔하게 나서.)

112001 @ 어.(어)

112001 #2 굶인물만 팔팔하게 나난 저 집에 오란에 집이 흐뎀 이신 처레주. 집이 오란. 옛날엔이 애기가 배소굽에서 움직영 이상 돼민 기자 새끼훤³¹³나, 돼지 잡아근에이.(‘굶인물’만 팔팔하게 나니까 저 집에 와서 집에 조금 있는 셈이지. 집에 와서. 옛날엔 애기가 배속에서 움직이며 이상 되면 그저 새끼훤나, 돼지 잡아서.)

112001 @ 으.(으.)

112001 #1 도새기 새끼 흐나 확 해다근에 훤 청 맥이민 살 거는 제 자리에는 부뜨고 안 될 건 팔 팔 팔 내려가 불주게.(돼지 새끼 하나 확 해다가 회 쳐서 먹으면 살 거는 제 자리에 붙고 안 될 건 팔 팔 팔 내려가 버리지.)

112001 @ 아.(아.)

112001 #1 경허난 집이 오난 이젠 어디 간에. 그걸 허젠 허민 어디 도야질 잡아, 도야질 새끼 벤 거 사사주게.(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 어디 돼질 잡아, 돼지 새끼 벤 거 사야지.)

112001 @ 음.(음.)

112001 #2 상 잡양 고긴 풀고 그것만 쓰명. 케난 도새기 새끼 헤단에 훤 행 먹으난 그 아프던 배가 누글누글누글 허명 싹 빠져 베라게.(사서 잡아서 고긴 팔고 그것만 쓰면서. 그러니까 돼지 새끼 하다가 회 해서 먹으니까 그 아프던 배가 누글누글누글 하면서 싹 빠져 버리더라.)

112001 @ 음.(음.)

112001 #2 경 험게 경 험 흐나 해 불고, 흐난 난 죽어 불고 험에.(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 해 버리고, 하난 낳아서 죽어 버리고 해서.)

112001 @ 저기 큰 아이 흐나 낭 죽어 분 건 얼마나 잇영?(저기 큰 아이 하나

312) ‘굶인물’은 고름이 빠진 종기 등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해산할 때 ‘양수’ 따위를 가리킨다.

313) ‘새끼훤’ 주로 돼지의 태반 속의 새끼로 만든 회를 가리킨다.

낳아서 죽어 버린 건 얼마나 있어서?)

112001 #2 흔 덜 넘은 세 설이주게. 오월달에 들 넘어 팔월 낭 죽으난.(한 달 넘은 세 살이지. 오월 달에 들 넘어서 팔월 나서 죽으니까.)

112001 @ 아팡?(아파서?)

112001 # 으. 지금 ㄱ타시든 원 죽지 안 헐 아이. 침 잘 못 쥐 부난, 그 때 우리도 침 잘 못 쥐 부난 말 몰란.(으. 지금 같았으면 원 죽지 않을 아이. 침 잘 못 쥐 버리니까, 그 때 우리도 침 잘 못 쥐 버리니까 말 몰랐어.)

112001 @ 아이구.(아이구.)

112001 #2 계난, 계난이 이 허가 엇이 이원신디 가지 말고 이 야부³¹⁴ 의사신디 가지 말렌 현 게 그거주. 경 헨 죽어 벳주, 경 헨 죽어 부난 그 다음은 저 큰아덜. 스물일곱에 낳주게, 스물다섯에 난 아인 죽어 부난 두 설 묻이로. 그 아이 죽을 때 베엇던 아이주 큰아덜이.(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허가 없는 의원에게 가지 말고 이 돌팔이 의사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게 그거지. 그렇게 해서 죽어 버렸어, 그렇게 해서 죽어 버리니까 그 다음은 저 큰아들. 스물일곱에 낳았지, 스물다섯에 난 아인 죽어 버리니까 두 살 터울로. 그 아이 죽을 때 뻐던 아이지 큰아들이.)

112001 @ 음. 그민 애기 가지면 거의 산달까지 밧디 강 일 허잖아예?(음, 그럼 아기 가지면 거의 산달까지 밧에 가서 일 하잖아요?)

112001 #2 허주게.(하지.)

112001 @ 하하.(하하.)

112001 #2 허꼭말꼭.(하고말고.)

112001 @ 허꼭말꼭예. 전날까지도예? 애기 날 때.(하고말고요. 전날까지도요? 아기 날 때.)

112001 #2 큰아덜 날 땐 저 산디 비레 가신디, 스몫 날을 해도 못 바레난 재기 스몫 오젠 아판에 재기 헤 텡 집이 오란에 난 눅고 아방³¹⁵은 또 흔 번 시꺼 오고 헨에 밤이 낳주.(큰아들 날 때 저 밧벼 베러 갔는데, 사몫 날을 해도 못 보니까 재게 사몫 오려고 아파서 재게 해 두고 집에 와서 난 눅고 아버지는 또 한 번 실고 오고 해서 밤에 낳았지.)

112001 @ 하하. 저녁에 강 산디 시꺼 왕.(하하. 저녁에 가서 밧벼 실고 와서.)

112001 #2 뭐 저추룩 덜렁거려도이 그런 건 아주 즘삼혜영³¹⁶ 늬의 집이 애기 내우³¹⁷레도 가 오고. 애기 나는 것도 시어머니나 무신 누게 원 오라 보지 안 해서. 기자.(뭐 저렇게 덜렁거려도 그런 건 아주 자상해서 남의 집에 아기 ‘내우’러 갔다 오고. 아기 낳는 것도 시어머니나 무슨 누구 원 와 보지 않았어. 그저.)

112001 @ 계도 누구, 산과 부를 거 아니?(그래도 누구, 산과 부를 거 아니?)

314) ‘야부’는 일본어의 ‘야부’에서 온 말로, ‘야부 의사’라고 하면 ‘돌팔이 의사’를 말한다.

315) ‘아방’은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을 가리키고 있다.

316) ‘즘삼헨다’는 ‘사리를 헤아림이 꼼꼼하고 자세하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자상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317) ‘내우다’는 ‘나오게 하다’의 의미로 ‘아기를 내우다’는 아기를 낳을 때 산모를 돕고 아기를 받는 것을 말한다.

112001 #2 나가 낳민 저 사름³¹⁸이 줄 쫄를 거주게.(내가 낳으면 저 사람이 줄 자를 거지.)

112001 @ 아, 아버지가 쫄라?(아, 아버지가 잘라?)

112001 #2 으, 나가 낳민. 쫄르민 쌍 녹저더근에 어머니신디 애기 낳수다 헤영.
(으, 내가 낳으면. 자르면 싸서 눅혀서 어머니에게 아기 낳았습니다 해서.)

112001 @ 에구게, 애기 낳 때 돼민 물 끌려 두고 뭘 끌아 두고 경 안 허여?(에구, 아기 낳을 때 되면 물 끓여 두고 뭘 깔아 두고 그렇게 안 해?)

112001 #2 게 이레 짝은 깔앙게.(그래 이리 짝은 깔아서.)

112001 @ 으, 짝 깔앙.(으, 짝 깔아서.)

112001 #2 이녁냥으로 깔앙.(이녁대로 깔아서.)

112001 @ 아.(아.)

112001 #2 경 허민 시어명이 저 아덜만이 못허여. 성질이 차분허질 못허여.(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가 저 아들만큼 못 해. 성질이 차분하질 못 해.)

112001 @ 막 바깥 일만 하셨구나. 밧디일, 물질.(막 밖에 일만 하셨구나. 밧엿일, 물질.)

112001 #2 알기 쉽게 말허민 아주 놀 강아지³¹⁹ 거치 놀아 텡겨.(알기 쉽게 말하면 아주 날 강아지 같이 날아 다녀.)

112001 @ 그니까 일만예?(그러니까 일만요?)

112001 #2 바농질도 무시거.(바느질도 무엇.)

112001 @ 못허고?(못하고?)

112001 #2 이만씩 이만씩 허명.(이만큼씩 이만큼씩 하면서.)

112001 @ 하하.(하하.)

112001 #2 시아버지가 바농질을 잘헨게 저 사름도 바농질 잘헌다.(시아버지가 바느질을 잘했는데 저 사름도 바느질 잘한다.)

112001 @ 아.(아.)

112001 #2 시방 이거이 옷 쪼금 줄일 거라도 시민 확 그차뵤 지냥으로 줄영 입곡.(시방 이거 옷 쪼금 줄일 거라고 있으면 확 끊어서 자기대로 줄여서 입고.)

112001 @ 아.(아.)

112001 #2 나 엿이민 다 헌다.(나 없으면 다 한다.)

112001 @ 아, 기마씨?(아, 그렇습니까?)

112001 #2 으.(으.)

112001 @ 계민 아버지도 미싱³²⁰질 헤?(그럼 아버지도 재봉질 해?)

112001 #2 어, 허여.(어, 해.)

112001 @ 아이구, 아이구.(아이고, 아이고.)

318) 여기서 '저 사름'은 '남편'을 가리킨다.

319) 여기서 '놀 강아지'는 '놀다(날다)'에 '강아지'를 결합한 말로 '재빠르게 움직이는 강아지'를 나타낸 말인 것 같다.

320) '미싱'은 일본어 'ミシン'으로 '재봉틀'을 말한다. 여기서 '미싱질'은 '재봉질'에 대응한다.

112001 #2 바지라도 사당 흐쩍 건다 허민 나만 엇이민 싹 줄영 입어붙어.(바지라도 사다가 조금 길다 하면 나만 없으면 싹 줄여서 입어.)

112002 @ 하하. 게민 애기 낳젠 허민 뭘 준비해 둥니까, 옛날에는?(하하. 그럼 아기 낳으려고 하면 뭘 준비해 둥니까, 옛날에는?)

112002 #2 옛날에 사름은 애기 낳 때 원 기자 믈물궤루 해당 놔두주게.(옛날에 사름은 아기 낳 때 원 그저 메밀가루 해다가 놔두지.)

112002 @ 믈물궤루.(메밀가루.)

112002 #1 믈물궤루 해당 놔뵤 기자 그거 니빨 때문에 흐랑허게 현다고 저 믈물궤루 낳 꿰는 물에 해근에 기자 영 몰양 그 순구룩 짓엉, 꿰는 물러레 순구락으로 질퍽질퍽허민 기자 물싹헌 거 그거 애기 어멍 궤루 카 주는 거 궤루 카는 거 그거 헤영 허고, 그거 먹어나민 능력 있는 대로 고기 사 먹을 사름은 사 먹고 못 사 먹는 사름은 못 사 먹고.(메밀가루 해다가 놔두고 그저 그거 이빨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한다고 저 메밀가루 넣고 끓는 물에 해서 그저 이렇게 말아서 그 순가락으로 저어서, 끓는 물에 순가락으로 질퍽질퍽하면 그저 물싹헌 거 그거 아기 어머니 가루 타 주는 거 가루 타는 거 그거 해서 하고, 그거 먹어나민 능력 있는 대로 고기 사 먹을 사름은 사 먹고 못 사 먹는 사름은 못 사 먹고.)

112002 @ 으.(으.)

112002 #1 경허고 기자 그 아이고 요새 궤타시민이 그 무시거 샷바.(그리고 그저 그 아이고 요새 같았으면 그 무엇 살바.)

112002 @ 으.(으.)

112002 #2 오죽 좋아. 애기 나나민이 무신 고기국이나 못 얻어먹으면 혼 들도 굿인물 안 개주게.(오죽 좋아. 아기 낳으면 무슨 고깃국이나 못 얻어먹으면 한 달도 ‘굿인물’ 안 그치지.)

112002 @ 으.(으.)

112002 #1 그추룩 경 허민 아무것도, 무슨 생리델 허느냐? 경허민 이 옷에, 옷도 옛날말로 속궤³²¹이라 속궤.(그처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무슨 생리대를 하니? 그러면 이 옷에, 옷도 옛날말로 ‘속궤’이야 ‘속궤’.)

112002 @ 으, 속궤.(으, ‘속궤’.)

112002 #2 그 이제 고무옷 말양 해녀들 물에질헐 때 입는 거.(그 이제 고무옷 말고 해녀들 물질할 때 입는 거.)

112002 @ 으.(으.)

112002 #2 그거 조금 느리민 속궤더레 게우살³²² 행 베궤터레궤장 게우살허고.(그거 조금 내리면 ‘속궤’에 ‘게우살’ 해서 밖으로까지 ‘게우살’하고.)

112002 @ 으.(으.)

112002 #2 게난 애기 나나민 무신 고기, 고기국도 바궤고기 국을 좀 얻어먹어민

321) ‘속궤’은 속옷을 말한다. 해녀들이 물질헐던 입던 옷을 ‘속궤’이라 하기도 한다.

322) ‘게우살’은 여성의 월경 때 출혈에 의한 혈흔을 말한다.

כותין물이 재기 개고 그거, 능력 엇언 그거 사지 못하고 못 얻영 먹으면 כותין물이 한창 가.(그러니까 아기 낳으면 무슨 고기, 고깃국도 바닷고기 국을 좀 얻어먹으면 ‘כותין물’이 재게 그치고 그거, 능력 없어서 그거 사지 못하고 못 얻어먹으면 ‘כותין물’이 한참 가.)

112002 @ 한참 가.(한참 가.)

112002 #2 영 입단 너저분헌 옛날 갈³²³ 몸뻘³²⁴ 같은 거 그런 건 막 두민 그런 때 필요하여 곶아 입곡.(이렇게 입다가 너저분한 옛날 감물 들인 일 바지 같은 거 그런 건 아주 어린 그런 때 필요해 갈아입고.)

112002 @ 으.(으.)

112002 #1 경 허는 거주.(그렇게 하는 거지.)

112003 @ 그민 아버지가 태 잘랐잖아예?(그럼 아버지가 태 잘랐잖아요?)

112003 #2 으.(으.)

112003 @ 그 텃줄은 어떻 험니까, 그거? 그냥 불살라 불어, 어떻 해?(그 텃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불살라 버려, 어떻게 해?)

112003 #2 텃줄은 싸근에 ㄱ만이 그 얘기 클 때도록 놔두민, 저 하도 오래난에 말쑈 좀 일어서라. 저 냉장고에나 아이 놔된 기자 영 험 놔두난.(텃줄은 싸서 가만히 그 아기 클 때도록 놔두면, 저 너무 오래니까 나중엔 좀 일었더라. 저 냉장고에나 아니 놔두고 그거 이렇게 해서 놔두니까.)

112003 @ 물려 가지고.(말려 가지고.)

112003 #2 으. 좀 일어서라게. 그 때는 험 수 엇이 던져 불고. 쌍 놔두주.(으. 좀 일었더라. 그 때는 할 수 없이 던져 버리고. 싸서 놔두지.)

112003 @ 으, 쌍 놔두고예.(으, 싸서 놔두고요.)

112003 #2 텃줄은 오래 잇당 털어지는 애긴 좋으켜. 재기 털어져 부는 애긴 כות이켜 해도 윈 어떻사 허는디 기자.(텃줄은 오래 잇다가 떨어지는 아긴 좋겠어. 재게 떨어져 버리는 아긴 כות겠어 해도 윈 어떻게야 하는지 그저.)

112003 @ 상관엇입디까?(상관엇었습니까?)

112003 #2 몰라. 기자 험 메틀 시민 털어지민. 것도 조심허곡 헤사주게. 물도 가게 말고. 그레 잘 조심헤사.(몰라. 그저 한 며칠 있으면 떨어지면. 것도 조심하고 헤야지. 물도 가게 말고. 그리 잘 조심헤야.)

112004 @ 으, 아까 얘기 나민 산모, 어떻 음식은 ㄱ물로 허는 거예?(으, 아까 얘기 낳으면 산모, 어머니 음식은 메밀로 하는 거요?)

112004 #2 으, ㄱ물ㄱ루. 아이고, 얘기 어떻 ㄱ루 카 쥐사컬. 게난 우린 엇영 못 허주. 누게 헤 줄디 바래진 안 허여.(으, 메밀가루. 아이고, 아기 어머니 가루 타 쥐야하는데. 그러니까 우린 없어서 못하지. 누가 헤 줄지 바라진 았아.)

112004 @ 으.(으.)

323) ‘갈’은 감물을 들인 ‘갈웃’을 말한다.

324) ‘몸뻘’은 일본어 ‘もんべ’로 ‘일 바지’를 말한다. 여기서 ‘갈 몸뻘’은 감물을 들인 일 바지는 가리키는 말이다.

112004 #2 우리 어머니도 경 잘살꼭 해도 마음이 경 자상하게 안 허영 애기 난 걸 무시거 해 줘사컬 혼엇이 안 허여.(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잘살고 해도 마음이 그렇게 자상하지 않아서 아기 낳은 걸 무엇 해 줘야할 걸 한없이 안 해.)

112004 @ 아, 안 허여.(아, 안 해.)

112004 #2 우리 시어명신디 혼 끼도 얻어먹지 못허고. 차라리 나가 무신 거 해당 낫당 애기 낫수텐 허민 오민 나신디 거 숲양, 어무니가 숲노렌 헨 숲양 그치도 먹곡.(우리 시어머니에게 한 끼도 얻어먹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무슨 거 해다가 낫다가 아기 낳았다고 하면 오면 나에게 거 삶아서, 어머니가 삶느라고 해서 삶아서 같이도 먹고.)

112004 @음.(음.)

112004 #2 경 혜낫주.(그렇게 했었지.)

112005 @ 음, 애기 목욕은 언제 시킵니까, 그럼?(음. 아기 목욕은 언제 시킵니까, 그럼?)

112005 #2 애기 목욕은게 그걸 나근에 샐다근에게 뒷날은 애기 목욕을, 그날 시키는 사람도 있고 시켜사주게 시키민. 애기 날 때꺼장 무신 그루 음식이나 먹으면 이 애기 이디가 이디 상뻘³²⁵⁾론가 행주로 해 가민 민작민작³²⁶⁾ 허민, 요즘은 애기 비누로덜 싹 깨끗이 해 부는디, 그뻘 그 애기난 애기라고 비누나 허민 애기 비누도 아니고 눈더레나 비눗물 가카 부덴이.(아기 목욕은 그걸 낳아서 샐다가 뒷날은 아기 목욕을, 그날 시키는 사람도 있고 시켜야지 시키면. 아기 낳을 때까지 무슨 가루 음식이나 먹으면 아기 여기가 여기 ‘상뻘’로인가 행주로 해 가면 ‘민작민작’ 하면, 요즘은 아기 비누로들 싹 깨끗이 해 버리는데, 그뻘 그 아기니까 아기라고 비누나 하면 아기 비누도 아니고 눈에나 비눗물이 갈까 봐.)

112005 @ 으.(으.)

112005 #2 그거 기자 물로만 허렌 허민, 행주로 이레 밀민 이레 갓닥 저레 밀민 저레 갓닥 민작현³²⁷⁾ 거.(그거 그저 물로만 하라고 하면, 행주로 이리 밀면 이리 갔다가 저리 밀면 저리 갔다가 미끄러우면서 끈적끈적한 거.)

112005 @ 으.(으.)

112005 #2 경해도 머리도 부떠근에 헤영헌 것이 게작해³²⁸⁾도 메틀 험시민 어떻 어떻 벗어져. 매날 헤사주, 매날.(그래도 머리도 붙어서 하얀 것이 ‘게작’해도 며칠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벗겨. 맨날 해야지, 맨날.)

112005 @ 매날예?(맨날요?)

112005 #2 원 그 때도 못 살아도 애기 몸은 잘 감지더라.(원 그 때도 못 살아도 애기 몸은 잘 감지더라.)

112005 @ 아.(아.)

325) ‘상뻘’은 ‘행주’를 말한다.

326) ‘민작민작’은 미끄럽고 끈적끈적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27) ‘민작허다’는 미끄러우면서 끈적끈적하다는 말이다.

328) ‘게작허다’는 끈적끈적 한 데에 먼지 따위가 많이 붙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12005 #2 저 그거 험 사람은 좋은디 난 그거 안 헷당 우리 손지덜. 베 형겁, 애기가 막 울어도이 술이 별경케 베 형겁으로 막 민 건 몸이 깨끗허는다.(저 그거 할 사람은 좋은데 난 그거 안 헷다가 우리 손지덜. 베 형겁, 애기가 막 울어도 살이 발장게 베 형겁으로 마구 민 건 몸이 깨끗하는데.)

112005 @ 으.(으)

112005 #2 난 애기 아프카 부덴 아까완에 베 형겁으로 안 허난 우리 애들이 흐 쓸 그려와.(난 애기 아프까 봐 아까워서 베 형겁으로 안 하니까 우리 애들이 조금 가려워.)

112005 @ 아, 술.(아, 살.)

112005 #2 으, 술 애기가 울고 뉘고 이디가 별경케 이런 이, 특히나 지집아이, 스나눔 이 가랭이.(으, 살 애기가 울고 되고 여기가 별경케 이런 이, 특히나 계집아이, 사내눔 이 가랭이.)

112005 @ 으.(으)

112005 #2 가랭이를 잘 씻어사 허크라라.(가랭이를 잘 씻어야 하겠더라.)

112005 @ 아.(아.)

112005 #2 난 애기 아프카부덴 가랭이 그추룩 잘 안 씻엇단 우리 큰손지 막 피해 봤주.(난 애기 아프까 봐 가랭이 그렇게 잘 안 씻엇다가 우리 큰손자 아주 피해 봤지.)

112006 @ 아, 그 애기 할 때 애기 옷 입히잖아예. 그건 어떻 미리 만들어 둥니까, 아니면 그 때 뉘사?(아, 그 애기 할 때 애기 옷 입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미리 만들어 둥니까, 아니면 그 때 돼야?)

112006 #2 빌령 입는 사람 한다.(빌려서 입는 사람 많아.)

112006 @ 아.(아.)

112006 #2 애기 낳 잘 키운 사람 거. 복 좋은 사람.(애기 낳고 잘 키운 사람 거. 복 좋은 사람.)

112006 @ 아, 좋은 디 거. 아무 디 거나 입지지 안 허고.(아, 좋은 데 거. 아무 데 거나 입히지 않고.)

112006 #2 어, 에이구. 빌령 입는 사람이 하고 옛날엔이 애기 분이 그렇게 좋아 신디 경 허당도 겨드랭이 이디가 물러, 물르민 베웃 현 거.(어, 에이구. 빌려서 입는 사람이 많고 옛날엔 애기 분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겨드랑이 여기가 물러, 무르면 베웃 한 거.)

112006 @ 으.(으)

112006 #2 베웃 현 거를 막 치점시민 그것이 막 풀어지민 솜보다는 흐쓸 훑어도 것이 흐쓸 복삭허민³²⁹⁾ 물르디 그거.(베웃 낳은 거를 막 찢고 있으면 그것이 마구 풀리면 솜보다는 조금 굵어도 것이 조금 '복삭'하면 무르디 그거.)

112006 @ 으음.(으음)

329) '복삭'하다'는 솜 따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112006 #2 그거 낱 놔두면 흐쫄 보슬저. 허허.(그거 놓아 놔두면 조금 보드라워. 허허.)

112007 @ 음. 그 할망상³³⁰도 험니까 애기 건강하게 잘 크렌?(음. 그 ‘할망상’도 합니까? 아기 건강하게 잘 크라고?)

112007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07 @ 안 해?(안 해?)

112007 #2 애기가 아파사 할망³³¹에 빌고, 아프민 할망에 빌어. 안 비는 사람은 안 빌어도 비는 사람은 할망에 빌어.(아기가 아파야 삼신할머니에 빌고, 아프면 삼신할머니에 빌어. 안 비는 사람은 안 빌어도 비는 사람은 빌어.)

112007 @ 음.(음.)

112007 #2 애긴 아프민 기자 우선 할망에 비는 거베긴 약이 었덴.(아긴 아프면 그저 우선 삼신할머니에 비는 것밖에 약이 없대.)

112008 @ 음. 그 애기 머리는, 머리는 언제 깎아마씨?(음. 그 애기 머리는, 머리는 언제 깎습니까?)

112008 #2 머리케 초파일.(머리 초파일.)

112008 @ 초파일. 어쨌든 애기 낱 돌아오는 초파일에 하는 거라, 머리 미는 거라예?(초파일. 어쨌든 애기 낱고 돌아오는 초파일에 하는 거요, 머리 미는 거지요?)

112008 #2 으.(으.)

112009 @그 뭐 흥역이나 천연두 걸리지 말렌 예방허는 건 그땐 엇엇잖아예?(그 뭐 흥역이나 천연두 걸리지 말라고 예방하는 건 그땐 없엇잖아요?)

112009 #2 아이구, 그땐 엇이난 애기 경 하영 죽어시네게.(아이고, 그땐 없으니 까 아기 그렇게 많이 죽었지.)

112009 @ 게니까예, 그거 걸령예?(그러니까요, 그거 걸려서요?)

112009 #2 아이구, 독허게, 심허게 허는 애기덜은.(아이고, 독하게, 심하게 하는 아기들은.)

112009 @ 으.(으.)

112009 #2 원 그거 해당 보민 아이 닳지 안 현다. 얼마사 아이덜이 못 견디신디. 것이 막 으라가지라. 아썩 흐는 시늬만 행 넘어가 부는 애기덜은 지장 엇고.(원 그거 하다가 보면 아이 닳지 않아. 얼마나 아이들이 못 견뎠는지. 것이 아주 여러 가지야. 조금 하는 시늬만 하고 넘어가 버리는 아기들은 지장 없고.)

112009 @ 으.(으.)

112009 #2 거 보민 아이가 흐쫄 열 오르멍, 땀띠거치 흐쫄 기자 스스 스스허게 올랑 흐뵈 낫도 불그랑허민 브름이나 방지허곡.(거 보면 아이가 조금 열 오르면서, 땀띠같이 조금 그저 작고 대수롭지 않게 올라와서 조금 낫도 불그레하면 바람이나

330) ‘할망상’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신할머니에게 감사하고 기원한다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 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을 말한다.

331) ‘할망’은 ‘할머니’에 대응한다. 여기서 ‘할망’은 ‘삼승할망’으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보는 세 신령인 ‘삼신할머니’를 말한다.

방지하고.)

112009 @ 으.(으.)

112009 #2 저 그추룩 허민 무시겨 돼지고기나 무신 득고기나 그추룩 현 걸 아니 먹주게. 원 고기 종룰 아니 먹어.(저 그렇게 하면서 무엇 돼지고기나 무슨 닭고기나 그렇게 한 걸 아니 먹지. 원 고기 종룰 아니 먹어.)

112009 @ 애기 경 허면?(아기 그렇게 하면?)

112009 #2 으.(으.)

112009 @ 애기만 안 먹는 거 아니고?(아기만 안 먹는 거 아니고?)

112009 #2 아이구, 집 안에 그걸 아니 뎅겨.(아이고, 집 안에 그걸 아니 다녀.)

112009 @ 아.(아.)

112009 #2 고기국도 안 허여. 애기가 경 혈 때 제서가 당허면.(고기국도 안 해.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제사가 당하면.)

112009 @ 어.(어.)

112009 #2 고기는 상에 올려야. 건디, 처, 처. 고기를 굽질 안 허여.(고기는 상에 올려야. 그런데 썬, 썬. 고기를 굽질 앓아.)

112009 @ 아, 무사마씨? 구우민 안 되는 거?(아, 왜요? 구우면 안 되는 거?)

112009 #2 이거 이디 거, 고기 구워 가민 이디 거 막 헌덴 허영.(이거 여기 거, 고기 구워 가면 여기 거 마구 한다고 해서.)

112009 @ 솨은 거, 친 건 괜찮고?(솨은 거, 찢 건 괜찮고?)

112009 #2 으. 그추룩 헤영 심허게 허는 아인 뇨산디 엇나. 막 막 헤 봐도 막 굽어 불고 굽어 가민 딱지 지고 피가 막. 경해도 말젠 좋으믄.(으. 그렇게 해서 심하게 하는 아인 낮인지 없나. 아주 아주 헤 봐도 마구 굽어 버리고 굽어 가면 딱지 지고 피가 마구. 그래도 나중에 좋으면.)

112009 @ 아이고.(아이고.)

112009 #2 건 죽어도 헌덴 헨게.(건 죽어도 한다고 했어.)

112009 @ 으.(으.)

112009 #2 겐디 이제덜은 다 예방 주사.(그런데 이제들은 다 예방 주사.)

112010 @ 예, 주사 맞으니까. 뭐 출산할 때 돼민 뭐 허민 안 똤덴 허는 금기 사항 같은 건 엇수과? 애기 날 때 똤면 집이서 뭐 허민 안 똤다 허는 거?(예, 주사 맞으니까. 뭐 출산할 때 똤면 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금기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112010 #2 아니, 기자 무시겨 애기 어멍 똤 수 시민 그루 음식이나 안 먹어사 깨끗허고.(아니, 그저 무엇 아기 어머니 똤 수 있으면 가루 음식이나 안 먹어야 깨끗하고.)

112010 @ 아. 그루음식 먹지 말렌 헤여?(아, 가루음식 먹지 말라고 해?)

112010 #2 으, 그자 아기 날 덜, 받은덜³³²⁾ 똤젠 헤영. 옛날은 기자 그 애기 날

332) '받은 덜'은 '출산 예정일'을 말한다. 여기서 '덜'은 '달'로 당시에는 출산 일 확실하지 않으므로 '달'로 표현했다.

때 웬 거, 여정일이엔 허는디 그뻐 받은덜.(으, 그저 아기 낳을 달, ‘받은덜’ 되었다고 해서. 옛날은 그저 그 아기 낳을 때 된 거,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그뻐 ‘받은덜’.)

112010 @ 받은덜?(‘받은덜’?)

112010 #2 받은덜. 그 날 그 덜 날 거라 헐 받은덜 뵈젠. 그뻐 여정일도 엇고 그 덜.(‘받은덜’. 그 날 그 달 낳을 거라 해서 ‘받은덜’ 되었다고. 그뻐 예정일도 없고 그 달.)

112010 @ 그 덜, 그 덜에 낳는 거라예?(그 달, 그 달에 낳는 거지요?)

112010 #2 열흘이 늦엇든 일럿든 그자 받은덜.(열흘이 늦엇든 일럿든 그저 ‘받은덜’.)

112010 @ 날짜꺼진 몰라?(날짜까진 몰라?)

112010 #2 몰르주게.(모르지.)

112010 @ 몰라. 조금만 더 허쿠다예.(몰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까.)

혼례

112011 @ 옛날에 구식 결혼식 얘기 쪼끔 헤신디에 결혼식 허젠 허민 어떤 절차덜 있어. 그니까 우리 잔치할 때 삼일 잔치를 허잖아예?(옛날에 구식 결혼식 얘기 쪼끔 했는데 결혼식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잔치할 때 삼일 잔치를 하잖아요?)

112011 #2 으.(으.)

112011 @ 그럼 전 날에는, 첫 번째 날은 뭐 험니까?(그럼 전 날에는, 첫 번째 날은 뭐 험니까?)

112011 #2 첫 번째 날은 저 거시기 돼지 무시거 췌글락헌 거 하나 잡앙.(첫 번째 날은 저 거시기 돼지 무엇 자그마한 거 하나 잡아서.)

112011 @ 으.(으.)

112011 #2 친족덜이영 잡앙 부지 아정오는 사름은 안 오고.(친족들과 잡아서 부조 가져오는 사름은 안 오고.)

112011 @ 아, 첫째 날은?(아, 첫째 날은?)

112011 #2 으. 그거 수웨 담아근에, 꼬챙이라고 꼬챙이에 큰 베설도 혼 점 죽은 베설도 혼 점, 대창이영 헐 거영 꿩영 어른은 쪼끔 낮게 췌 거. 큰 베설 췌 거, 아이는 췌만헌 거. 게민 뒷날 잔치날사 저 새서방도 오고 새각시도 가꼭 허는 날사 주로 췌 구덕게.(으. 그거 순대 담아서, 꼬챙이라고 꼬챙이에 큰 창자도 한 점 작은 창자도 한 점, 대창과 한 거와 꿩어서 어른은 쪼끔 낮게 췌 거. 큰 창자 췌 거, 아이는 자그마한 거. 그럼 뒷날 잔치날에야 저 새서방도 오고 새색시도 가고 하는 날에야 주로 췌 바구덕.)

112011 @ 췌 구덕.(췌 바구니.)

112011 #2 췌게.(췌.)

112011 @ 아.(아.)

112011 #2 쌀, 저 보리 철에 보리쌀도 짓고.(쌀, 저 보리 철에 보리쌀도 있고.)

112011 @ 으.(으.)

112011 #2 그 곤썰이엔 현 게 그 산두 현 거.(그 흰쌀이라고 한 게 그 산도 한 거.)

112011 @ 예 예.(예 예.)

112011 #2 이제추룩 깨끗도 안 현 거. 아주 그거 허는 딴 사둔부찌³³³에나 벅 딴 친족이나.(이제처럼 깨끗하지도 않은 거. 아주 그거 하는 텐 ‘사둔부찌’에나 가까운 친족이나.)

112011 @ 으.(으.)

112011 #2 게고 보리쌀이나 허나 좁쌀 해도 두 뉘, 석 뉘. 흔 말 허는 사람은 막 생각허는 거.(그리고 보리쌀이나 하거나 좁쌀 해도 두 뉘, 석 뉘. 한 말 하는 사람은 아주 생각하는 거.)

112011 @ 음.(음.)

112011 #2 무신 경 허단 쪼끔 있어 가사 돈이 좀 나오랏주. 다 쌀로만 헛어. 게고 우리도 요자기꺼지도 사둔칩이 다 쌀로만 아져 가신디.(무슨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어 가야 돈이 좀 나왔지. 다 쌀로만 헛어. 그리고 우리도 요사이까지도 사둔집에 다 쌀로만 가지고 갔는데.)

112011 @ 아, 기과? 아까 사둔부찌렌 얘기 해신디 사둔부찌가 뭐과?(아, 그렇습니까? 아까 ‘사둔부찌’라고 얘기 했는데 ‘사둔부찌’가 뭘니까?)

112011 #2 사둔허고 사둔 친족.(사둔하고 사둔 친족.)

112011 @ 아,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예. 그 우리, 우리 딸이랑 저 집이 아들이 결혼허면 둘이 사둔 뉘는 거잖아예?(아,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우리 딸과 저 집에 아들이 결혼하면 둘이 사둔 되는 거잖아요?)

112011 #2 으.(으.)

112011 @ 사둔 뉘신디 거기 동생들끼리도 또 결혼을 하게 뉘.(사둔 뉘는데 거기 동생들끼리도 또 결혼을 하게 뉘어.)

112011 #2 아니, 우리 집 딸이랑 그 집 아덜광 결혼해신디.(아니, 우리 집 딸이랑 그 집 아들과 결혼했는데.)

112011 @ 으. 여기 동생이랑 여기 동생이랑 또 결혼을 허게 뉘.(으. 여기 동생이랑 여기 동생이랑 또 결혼을 하게 뉘어.)

112011 #2 어떻 험 결혼해, 시집은 사람이 또 결혼을 해여?(어떻게 해서 결혼해, 시집은 사람이 또 결혼을 해?)

112011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11 #2 얘기 냅?(아기 냅고?)

112011 @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딸이.(아니 아니, 여기 여기 딸이.)

112011 #2 으.(으.)

333) ‘사둔부찌’는 사둔의 친족들을 말한다.

112011 @ 여기 자식이 하셔예.(여기 자식이 많아요.)
112011 #2 으.(으.)
112011 @ 이 집에예. 이 집에 자식이 하서.(이 집에요. 이 집에 자식이 많아요.)
112011 #2 으.(으.)
112011 @ 거남 이 집 딸이랑 이 집 아들이랑 결혼헐.(그러니까 이 집 딸이랑 이 집 아들이랑 결혼했어.)
112011 #2 으.(으.)
112011 @ 이제 거꾸로 이 집 딸이랑 이 집 아들이랑 결혼?(이제 거꾸로 이 집 딸이랑 이 집 아들이랑 결혼?)
112011 #2 안 허여, 안 허여.(안 해, 해.)
112011 @ 안 해?(안 해?)
112011 #2 으.(으.)
112011 @ 그럼 접사돈 같은 거 엇수과? 겹사돈 같은 거?(그럼 겹사돈 같은 거 없습니까?)
112011 #2 그제 아니고 이 집이 딸광 이 집이 아들이 결혼을 허민 이 딸네 집 이 큰일을 할 때 아덜 집이 식구덜이 다 사돈부찌주게.(그제 아니고 이 집의 딸과 이 집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이 딸네 집에 큰일을 할 때 아들 집의 식구들이 다 ‘사돈부찌’지.)
112011 @ 아, 사돈부찌, 그걸 사돈부찌렌 허는 거라예?(아, ‘사돈부찌’, 그걸 ‘사돈부찌’라고 하는 거예요?)
112011 #2 으, 또 아덜 집이 식구, 친족덜이 사돈부찌고 당 아덜네 집은 당사돈.(으, 또 아들 집의 식구, 친족들이 ‘사돈부찌’고 당 아덜네 집은 당사돈.)
112011 @ 예, 당사돈.(예, 당사돈.)
112011 #2 당사돈이고 그 친족덜은 사돈부찌.(당사돈이고 그 친족들은 ‘사돈부찌’.)
112012 @ 사돈부찌예. 옛날에는 다 중매였잖아예. 중매는 누가 서는 것과? 친척들이?(‘사돈부찌’요. 옛날에는 다 중매였잖아요. 중매는 누가 서는 것과? 친척들이?)
112012 #2 잘 사 주젠 안 허여. 중매 사는 사름도 사름을 골렝 헤여. 복 존 사름. 남저, 여질 빌게 돼민 시집오랑 잘 살고.(잘 서 주려고 안 해. 중매 서는 사람도 사름을 골라서 해. 복 좋은 사람. 남자, 여질 빌리게 되면 시집와서 잘 살고.)
112012 @ 으.(으.)
112012 #2 애기나 아덜이나 낳고 허는 사름 빌영 중매허여.(아기나 아들이나 낳고 하는 사름 빌려서 중매해.)
112012 @ 음.(음.)
112012 #2 훌어명도 안 허여.(훌어미도 안 해.)
112012 @ 안 돼지예?(안 되지요?)
112012 #2 으. 당췌. 훌어명도 잔치허는 던 아주 신랑 밥도 못 거리고 신부 밥

도 못 거리고.(으. 당최. 홀어미도 잔치하는 텐 아주 신랑 밥도 못 뜨고 신부 밥도 못 뜨고.)

112012 @으.(으.)

112012 #2 기자 어지렁헌³³⁴ 곳인 거나 허여.(그저 하찮은 곳은 거나 해.)

112012 @ 아.(아.)

112012 #2 중매 서는 사람 막 사름 빵 헤여. 애기도 잘 낳고 시집오랑 잘 살고.(중매 서는 사람 아주 사람 보고 해. 아기도 잘 낳고 시집와서 잘 살고.)

112012 @ 아, 그럼, 그럼 만약에 우리 집이 딸을 시집보내고 싶다.(아, 그럼, 그럼 만약에 우리 집의 딸을 시집보내고 싶다.)

112012 #2 어.(어.)

112012 @ 그럼 내가, 어뎡이라예.(그럼 내가, 어머니예요.)

112012 #2 으.(으.)

112012 @ 어뎡이 누구 여기 잘 사난 그 분보고 강 우리 딸 중매 서 줘서 행 부탁을 합니까?(어머니가 누구 여기 잘 사니까 그 분보고 가서 우리 딸 중매 서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까?)

112012 #2 아니.(아니.)

112012 @ 그럼?(그럼?)

112012 #2 신랑집이서가 누구네 집이 딸을 구해, 구허여 오고 시프다 허면은.(신랑집이서가 누구네 집의 딸을 구해, 구해 오고 싶다 하면.)

112012 @ 으.(으.)

112012 #2 그 집이 잘 통할 사름.(그 집에 잘 통할 사람.)

112012 @ 아.(아.)

112012 #2 강 말이라도 부칠 사름, 또 애기도 나고 살림살이도 헐 만헌 복 존 사름. 강 말이라도 곶아 텅기당, 말 사름 웨엄 직허다 헌 사름을 신랑 집이서가 빌 주게.(가서 말이라도 붙일 사람, 또 아기도 낳고 살림살이도 할 만한 복 좋은 사람. 가서 말이라도 해 다니다가, 말 사람 됨 직하다 한 사람을 신랑 집에서 빌리지.)

112012 @ 신부 집이서 비는 건 엇어?(신부 집에서 비는 건 없어?)

11201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12 @ 신랑집이서예?(신랑집에서요?)

112012 #2 으.(으.)

112012 @ 우리 저 집이 딸 데려오고 싶은디 강 중매 섭서.(우리 저 집의 딸 데려오고 싶은데 가서 중매 서십시오.)

112012 #2 으, 저 새각시 곶아 봐 줘서, 곶아 봐 줘서. 아이고 곶아 보민 웨카이 허민, 게도 곶아 봐 줘서 허영 허민 곶으민 아이고 당채 안 웅텐 헤라 허영 못도 허고.(으, 저 새색시 말해 봐 주십시오. 말해 봐 주십시오. 아이고 말해 보면 될까 하면, 그래도 말해 봐 주십시오 해서 하면 말하면 아이고 당채 안 된다고 하더라

334) '어지렁헌다'는 '하찮다'의 의미로 쓰였다.

해서 못하기도 하도.)

112012 @ 음.(음.)

112012 #2 웬덴 헤라 영 허곡 허민 이제 웬덴 헤영 그 사름그라 확실하게 웬덴 허민 이제 신랑 아방이 가는 거지. 그 이제 중매헌 사름허고.(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젠 된다고 해서 그 사람보고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이젠 신랑 아버지가 가는 거지. 그 이제 중매한 사람하고.)

112012 @ 으.(으.)

112012 #2 뭇을 허레 가느냐, 스주 빌레³³⁵). 그 새각시 난 날 난 시.(뭇을 하러 가느냐, 사주 받으러. 그 새색시 난 날 난 시.)

112012 @ 으.(으.)

112012 #2 그거 강 빌어 오민 신랑 아방이 강 택일을 허는 거야.(그거 가서 빌려 오면 신랑 아버지가 가서 택일을 하는 거야.)

112012 @ 아.(아.)

112012 #2 택일헤영 아저가민 자상헌 신부 아방은 솔제기 어디 강 이 날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알아도 보고. 우리 아버지 님은 사름은 그자 좋덴 허난 좋았구나 헤근에 그 잔칠 허곡 허는 거라.(택일해서 가져가면 자상한 신부 아버지는 살짝 어디 가서 이 날이 좋은가 안 좋은가 알아도 보고. 우리 아버지 님은 사름은 그저 좋다고 하니까 좋았구나 해서 그 잔칠 하고 하는 거야.)

112012 @ 어쨌든 그런 거 보는 거는 신랑 집이서가 보는 건데 어쨌든 신부 집이서도 걱정 뉘난 솔제기 뿡 오는 거?(어쨌든 그런 거 보는 거는 신랑 집에서가 보는 건데 어쨌든 신부 집에서도 걱정 되니까 살짝 보고 오는 거?)

112012 #2 으.(으.)

112012 @ 그게 맞는지 아닌지?(그게 맞는지 아닌지?)

112012 #2 으. 경헌디 옛날은 그 자락도 안 허는디 요즘은 택일도 육진 다 여자 집이서 웬덴 헌게.(으. 그런데 옛날은 그 정도도 안 하는데 요즘은 택일도 육진 다 여자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

112013 @ 예 예. 막편지라는 게 뭐과?(예 예. 막 편지라는 게 뭘니까?)

112013 #2 막, 막펜진³³⁶) 저 마지막 사돈침이 가 오는 거. 잔치 딱 근당헤영³³⁷).(막, ‘막펜지’는 저 마지막 사돈집에 가 오는 거. 잔치 딱 가까워서.)

112013 @ 음.(음.)

112013 #2 이제 옛날엔 신랑침이서가이 막 으라 번 출입헌다. 새각시 경 에럽게 구헤영 경 줄 듯 헤렌 허민 스주 빌고. 케민 저 역할 허는 사름이 막 공들어. 경허민 스주 빌레 어느 때 드령옵니까? 스주 빌레 가는 날도 뿡 가. 곳인 날 아니로.(이제 옛날엔 신랑 집에서가 아주 여러 번 출입한다. 새색시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그

335) ‘스주 빌다’는 결혼 상대자의 사주를 받는 것을 말한다.

336) ‘막펜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 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337) ‘근당헸다’는 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는 것을 말한다.

렇게 줄 듯 하다고 하면 사주 받고. 그럼 저 역할 하는 사람이 아주 공들어. 그러면 사주 받으러 어느 때 데려옵니까? 사주 받으러 가는 날도 보고 가. 곳은 날 아니로.)

112013 @ 음.(음.)

112013 #2 경 강 스주 빌영 오민, 이제 택일 허민 스주 빌레 간 날은 신부침이 서가 냉정허게, 이제난 차도 잇주 그뻐 차도 엇어이. 게난 빈 입에 그냥 오고.(그렇게 가서 사주 받아서 오면, 이제 택일 하면 사주 받으러 간 날은 신부 집에서가 냉정하게, 이제니까 차도 있지 그뻐 차도 없어. 그러니까 빈 입에 그냥 오고.)

112013 @ 으.(으.)

112013 #2 택일을 헤영 아정간 날은 이제 잔치가 되는 걸로 밥을 해 줘. 사돈 가지민 밥해 주고.(택일을 해서 가져간 날은 이제 잔치가 되는 걸로 밥을 해 줘. 사돈 갔으면 밥해 주고.)

112013 @ 으.(으.)

112013 #2 밥해 주난 이제거치 뭐 돈이 경 가는 게 시카, 새서방도 옷 행 입어 오고, 새각시도 옷 행 입영 가꼭 허는 거는 현디, 어땡 헤영 출려점수젠.(밥해 주니까 이제같이 뭐 돈이 그렇게 가는 게 있을까, 새서방도 옷 해서 입어서 오고, 새색시도 옷 해서 입어서 가고 하는 거는 했는데, 어떻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서.)

112013 @ 으.(으.)

112013 #2 이 날은 널모리 당했는디 사돈님 집이서 어땡 준비가 돼영 출려점수젠 그거 들어 보레 가는 거 막펜지 옛날에.(이 날은 널모레 당했는데 사돈님 집에서 어떻게 준비 돼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서 그거 들어 보러 가는 거 ‘막펜지’ 옛날에.)

112013 @ 아.(아.)

112013 #2 그거 들어 보레.(그거 들어 보러.)

112013 @ 그제 막펜진 거라?(그제 ‘막펜지’인 거야?)

112013 #2 으, 경 험 가 오꼭 또 잔치 넘어나민 이제 지금거치 신혼여행 아니 가난, 또 뒷날 신랑 아방이 신부침이 덕택에 좋은 일 잘 넘겨졌수텐 경 굴으레 가 오고.(으,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또 잔치 넘으면 이제 지금같이 신혼여행 아니 가니까, 또 뒷날 신랑 아버지가 신부집에 덕택에 좋은 일 잘 넘길 수 있었습시다 하고 그렇게 말하러 갔다 오고.)

112014 @ 음. 이바지는 뭐 험니까, 이바지는?(음. 이바지는 뭐 합니까?)

112014 #2 게메, 게난 육진 이바질 해도 이던 이바질 안 험당.(그러게, 그러니까 육진 이바지를 해도 여긴 이바지를 안 험다가.)

112014 @ 으.(으.)

112014 #2 ㅁ만히 이제 혼 잔치 헤낭 혼 메칠 사노렌 허민 사름 사는 가정 엠에여이 잘 살고 일름내우젠 허민, 문친떡 허곡이 풋 논 시루떡 허곡 이젠 정기 허

던가 뭐 해근에 이제 몽땅 여저 집일 이제 아저가. 아저가면 여저 집이서가 이제 시루떡 반 빗³³⁸)이민 반 빗이엔 허던가 허곡 정기 멧 개 놓곡 이제 새서방 집이서 새각시 떡 해 오랏수텐 경 헨 누누민 그것이 이제 그거곡 여저 집이선 남저 집이 해 가는 사름도 잇고 안 해 가는 사름도 잇고.(가만히 이제 한 잔치 해서 한 며칠 사느라고 하면 사람 사는 가정, 옆에 잘 살고 이름나게 하려고 하면 ‘문친떡’ 하고 팔 넣은 시루떡 하고 이젠 빙떡 하던가 뭐 해서 이제 몽땅 여자 집에를 이제 가져가. 가져가면 여자 집에서가 이제 시루떡 반 ‘빗’이면 반 ‘빗’이라고 하던가 하고 빙떡 몇 개 놓고 이제 새서방 집에서 새색시 떡 해 왔다고 그렇게 해서 나누면 그것이 이제 그거고 여자 집에서는 남자 집에 해 가는 사람도 잇고 안 해 가는 사람도 잇고.)

112014 @ 음, 해 가는 사름도 잇고 안 해 가는 사름도 잇고?(음, 해 가는 사람도 잇고 안 해 가는 사람도 잇고?)

112014 #2 으, 남저 집이선 해 오고.(으, 남자 집에선 해 오고.)

112015 @ 아까 어무니 시집갈 때는 미녕 두 필 행 갔덴 했잖아예?(아까 어머니 시집갈 때는 무명 두 필 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112015 #2 으.(으.)

112015 @ 그제 혼수인 거잖아, 보통 혼수는?(그제 혼수인 거잖아. 보통 혼수는?)

112015 #2 홍세³³⁹주, 홍세.(‘홍세’지, ‘홍세’.)

112015 @ 으. 홍세는 경 헨 가마씨?(으. ‘홍세’는 그렇게 해서 가요?)

112015 #2 그거 행 가고 잘 차리는 사름은 더 놓주게, 더.(그거 해서 가고 잘 차리는 사름은 더 넣지, 더.)

112015 @ 더? 더 뭐 놔?(더? 더 뭐 놔?)

112015 #2 미녕을 더 놔.(무명을 더 놔.)

112015 @ 아, 미녕을 더 놔.(아, 무명을 더 놔.)

112015 #2 어, 미녕 세 필도 놓고 미녕을 더 놔. 막 잘 차리는 사름은. 우린 거 흔 빌 놓는 사름은 옛이난에 우린 거 못 차린 거.(어, 무명 세 필도 놓고 무명을 더 놔. 아주 잘 차리는 사름은. 우리 거 한 필 놓는 사름은 없으니까 우린 거 못 차린 거.)

112015 @ 아. 췌 같은 건 안 행 갑니까?(아, 췌 같은 건 안 하고 갑니까?)

112015 #2 아주 옛날에는 이런 췌, 저 산에 가근에, 이제 그제 잇어서민 배우 걸. 이제 산에 강 나무 해다근에 췌 짤 나무 해당, 아무 나무나 못 허난 그런 톱. (아주 옛날에는 이런 췌, 저 산에 가서, 이제 그제 있으면 배울 걸. 이제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췌 짤 나무 해다가, 아무 나무나 못 하니까 그런 톱.)

112015 @ 으.(으.)

338)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339) ‘홍세’는 혼례를 치를 때 신랑 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함인 ‘홍세함’을 가리킨다.

112015 #2 돌리가 마주사사 스릉 스릉³⁴⁰) 절로 등기민 밀리고 이레 등기민 밀리는 허는 법으로.(둘이 마주서야 ‘스릉 스릉’ 저리로 당기면 밀리고 이리 당기면 밀리는 하는 법으로.)

108034 @ 그 톱이 무슨 톱? 그런 톱을 뭐렌 굴아, 몰라? 두 사람이 허는 거? (그 톱이 무슨 톱? 그런 톱을 뭐라고 말해, 몰라? 두 사람이 하는 거?)

108034 #2 대톱이엔 해서 옛날에 대톱.(대톱이라고 해서 옛날에 대톱.)

108034 @ 대톱.(대톱.)

108034 #2 경 혜영 그 널판데길 만들어서, 이런 까끄는 대패 있어, 대패로 삭삭 삭삭 까까 가지고 옛날에도 목수가 시니까 꺾을 요보다 조금 크게 짜.(그렇게 해서 널빤질 만들어서, 이런 깎는 대패 있어. 대패로 삭삭 삭삭 깎아 가지고 옛날에도 목수가 있으니까 꺾을 요보다 조금 크게 짜.)

108034 @ 음.(음.)

112015 #2 그렇게 헨에, 그런 거 아정 가는 사름이 뭐 난 멧 개 못 봐서.(그렇게 해서, 그런 거 가지고 가는 사름이 뭐 난 멧 개 못 봤어.)

112015 @ 으.(으.)

112015 #2 경 허단 꺾이 저렇게 이제 기성품으로 저렇게 째 시작헌 후젠 잘사는 사름은 두 개, 혼 바리주, 혼 바리.(그렇게 하다가 꺾이 저렇게 이제 기성품으로 저렇게 짜기 시작한 후에 잘사는 사름은 두 개, 한 바리지, 한 바리.)

112015 @ 두 개가 혼 바리?(두 개가 한 바리?)

112015 #2 으.(으.)

112015 @ 꺾이 두 개가 혼 바리?(꺾이 두 개가 한 바리?)

112015 #2 으. 하나 헨 가는 사름도 있고, 혼 바리 행 가는 사름도 있고. 경 혜영 꺾이 행 갖주게.(으. 하나 해서 가는 사름도 있고, 한 바리 해서 가는 사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꺾이 해서 갔지.)

112015 @ 으, 그 후제?(으, 그 후에?)

112015 #2 으.(으.)

112015 @ 그민, 그 후젠 헨 사름덜은 다 꺾이 짜는 집이서 산 가는 거?(그림, 그 후에 해서 사름들은 다 꺾이 짜는 집에서 사서 가는 거?)

112015 #2 으, 꺾이 짜는 집이서 사단, 이젠 조금 그걸 해 가지난 이젠 가구가 난 거여.(으, 꺾이 짜는 집에서 사다가, 이젠 조금 그걸 해 가지니까 이젠 가구가 난 거야.)

112015 @ 가구가 난 거예. 보통 혼수는, 어무니 결혼 할 때 혼수는 미녕?(가구가 난 거요. 보통 혼수는, 어머니 결혼할 때 혼수는 무명?)

112015 #2 미녕게.(무명.)

112016 @ 그림, 예장은 어떻 험니까, 예장?(그림, 예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장?)

112016 #2 게, 예장은게, 아무 가에 딸을 우리 집이 드려 오는 걸로 글을 쓰는

340) ‘스릉스릉’은 톱질하는 소리는 나타낸 말이다.

거주게. 성씨가 무시거고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히고 현 걸 이제 그걸.(그래, 예장은 아무 가에 딸을 우리 집에 데려 오는 거로 글을 쓰는 거지. 성씨가 무엇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고 하는 걸 이제 그걸.)

112016 @ 그럼 글쓰는 사람 빌영 그거는?(그럼 글 쓰는 사람 빌려서 그거는?)

112016 #2 아무나 못 쓰주게.(아무나 못 쓰지.)

112016 @ 못 쓰는 거예.(못 쓰는 거요.)

112016 #2 아무나.(아무나.)

112016 @ 문, 문중에서 잘 쓰는 사람 누군가 빌어사큰게?(문, 문중에서 잘 쓰는 사람 누군가 빌려야겠네.)

112016 #2 경허난 신랑 집에서 널 잔치 거트민 이만 때에 뉘민 방 하나 비워근에 여장 쓰는 사람 이디 딱 드려다 놓고 술 안주 출렁 앓자 농곡 허영, 여장 써 나민 먹을 걸로 허영 그 여장을 쓰는 거주게.(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널 잔치 같으면 이만큼 때에 되면 방 하나 비워서 예장 쓰는 사람 여기 딱 데려다 놓고 술 안주 차려 앓아 놓고 해서, 예장 쓰고 나민 먹을 거로 해서 그 예장을 쓰는 거지.)

112016 @ 으.(으.)

112016 #2 여장 받는 사람도 아무나 글 몰른 사람은 못 허는 거주. 그 여장 신부집이 아정가민 신부 집이서가 여장을 폐와 빵 뜰리민 뜰렀다 맞으민 맞았다 허는 것도. 것도 글 아는 사람이어야.(예장 받는 사람도 아무나 글 모르는 사람은 못 하는 거지. 그 예장 신부 집에 가져가면 신부 집에서가 예장을 펴 보고 뜰리면 뜰렀다 맞으면 맞았다 하는 것도. 것도 글 아는 사람이어야.)

112016 @ 뜰리민, 뜨나면 뜨나게 쓰면 돌려보냅니까, 그 여장을?(뜰리면, 다르면 다르게 쓰면 돌려보냅니까, 그 예장을?)

112016 #2 아니, 뜰리면은 뜰렀젠 허민, 옛날에 막 비우 좋고 존 사람은, 새서방은 그 여장 보기 전이 몰 우이 앓아사주게. 허민 새서방이 뉘양지민 몰 우터레, 필먹이엔 현 건 베투허고 붓.(아니, 뜰리면 뜰렀다고 하면, 옛날에 아주 비위 좋고 좋은 사람은, 새서방은 그 예장 보기 전에 말 위에 앓아야지. 하면 새서방이 되알지면 말 위로, 필먹이라고 하는 건 베투허고 붓.)

112016 @ 음.(음.)

112016 #2 필먹에 것이 앓아 올리라 헤근에 신랑이 아무 지가 뜰렀다 허민 고치는데 경혈 신랑이 멧 개 잇어게.(필먹에 것이 가져 올려라 해서 신랑이 아무 지가 뜰렀다 하면 고치는데 그럴 신랑이 멧 개 잇어.)

112016 @ 음.(음.)

112016 #2 경허민 어떻 그디서가 이거 뜰린 중이나 알렌. 우리가 몰르민 명칭 풀 거난 요거 요거 뜰러시난 경해도 그냥 들여 놓느렌 헤영 허민 그 뉘 새서방을 내리는 거주.(그러면 어떻게 거기서가 이거 뜰린 줄이나 알라고. 우리가 모르면 명칭 팔 거니까 요거 요거 뜰렀으니까 그래도 그냥 들여 놓으라고 해서 하면 그 뉘 새서방을 내리는 거지.)

112016 @ 아.(아.)

112016 #2 새서방 물 우이. 그거 확인하게 돼민.(새서방 말 위에. 그거 확인하게 되면.)

112016 @ 아, 확인하기 전인 안 내리고?(아, 확인하기 전엔 안 내리고?)

112016 #2 으.(으.)

112017 @ 이제 잔치하게 되면 가문잔치³⁴¹를 허잖아예. 가문잔치 허젠 허면 동네 사람들 다 옵니까?(이제 잔치하게 되면 ‘가문잔치’를 하잖아요. ‘가문잔치’ 하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옵니까?)

112017 #2 그 도새기 잡는 날이 가문잔치날이주.(그 돼지 잡는 날이 ‘가문잔치’ 날이지.)

112017 @ 게민 그땐 친척만 오는 거잖아예?(그럼 그땐 친척만 오는 거잖아요?)

112017 #2 그 때 기자 동네 사름도 보던 디 사름은게, 아이구, 그 돛 숲은 국물 게, 그 도새길 숲아난 국물 놋물 낱 끌린 거. 그 돛 숲은 국물, 수웨 숲아난 거 그 뜻뜻헌 거. 아이구, 돛 숲은 국물 혼 사발 얻어먹젠.(그 때 그저 동네 사름도 가까운 데 사름은, 아이고, 그 돼지 삶은 국물, 그 돼지 삶았던 국물 나물 넣고 끓인 거. 그 돼지 삶은 국물, 순대 삶았던 거 그 따뜻한 거. 아이고, 돼지 삶은 국물 한 사발 얻어먹으려고.)

112017 @ 하하.(하하.)

112017 #2 경헨 아시날 그거 먹고 뒷날은 저 신랑, 신부 다 도메³⁴²헤영 보내고 부지, 친족 간덜 그 친족덜은 가문잔치날 쓸 아저와 오명.(그래서 전날 그거 먹고 뒷날은 저 신랑, 신부 다 ‘도메’해서 보내고 부조, 친족 간들 그 친족들은 ‘가문잔치’날 쌀 가지고 오면.)

112017 @ 으.(으.)

112017 #2 빈 차 오지 안 헤영 쓸구덕 아정 와.(빈 채 오지 않고 쌀 바꾸니 가지고 와.)

112017 @ 으.(으.)

112017 #2 경 헨 그 이틀이주 이틀.(그렇게 해서 그 이틀이지, 이틀.)

112017 @ 이틀예?(이틀요?)

112017 #2 으, 이틀인디 이젠 사흘 허단에 이젠 또 하루 헤뵈주.(으, 이틀인데 이젠 사흘 하다가 이젠 또 하루 하고 있지.)

112018 @ 우시는 누가 우시를 허는 거과?(위요는 누가 위요를 하는 겁니까?)

112018 #2 신랑 집이서 잔치 허젠 허민 신랑 쪽에서 허나.(신랑 집에서 잔치하려고 하면 신랑 쪽에서 하나.)

112018 @ 으.(으.)

112018 #2 신랑 쪽이 아니고 아버지 쪽 사름 허나, 어머니 쪽 사름 허나. 경헤

341)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치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342) ‘도메허다’는 일본어 ‘とめる’에 ‘허다’가 결합된 형태로 ‘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도 아버지 쪽 사름은 글도 알고 요망진³⁴³) 사름을 보내여야 그 여장을 강 불합격허민 책임질 사름을 보내야.(신랑 쪽이 아니고 아버지 쪽 사람 하나, 어머니 쪽 사람 하나. 그래도 아버지 쪽 사람은 글도 알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을 보내야 그 예장을 가서 불합격하면 책임질 사람을 보내야.)

112018 @ 아.(아.)

112018 #2 어머니 쪽에 사름은 기자 기본적으로 뒤에 강 먹기만 행 오고.(어머니 쪽에 사람은 그저 기본적으로 뒤에 가서 먹기만 해서 오고.)

112018 @ 아.(아.)

112018 #2 아버지 쪽에 사름은 그 여장 확인힘 새 겁이 나지. 이것이 합격이 될러냐 말러냐. 계난 글도 알고 웨양진 사름을 보내야는 거.(아버지 쪽에 사람은 그 예장 확인하는 새 겁이 나지. 이것이 합격이 될런지 말런지. 그러니까 글도 알고 되알진 사람을 보내야 하는 거.)

112018 @ 계난, 어쨌든 우시 가는 사름은 두 사름인 거마씨?(그러니까, 어쨌든 위요 가는 사름은 두 사름인 거요?)

112018 #2 두 사름.(두 사람.)

112018 @ 어머니 쪽 친척 한 분, 아버지쪽 친척 한 분예.(어머니 쪽 친척 한 분, 아버지 쪽 친척 한 분요.)

112018 #2 어. 둘리.(어. 둘.)

112019 @ 그럼, 대반이나 중방³⁴⁴)은?(그럼, 대반이나 ‘중방’은?)

112019 #2 중방은 무시거라, 중방 말은 엇고, 대반은 누게게 신부, 그 새서방침이도 새서방이 가면은 그디 알아서 그 보통 새서방침이는 우리집이 사위가 오게 웨면은 먼저 큰 사위가 잇이민 큰사월 앓저이.(‘중방’은 무엇이야, ‘중방’ 말은 엇고, 대반은 누구 신부, 그 새서방 집에도 새서방이 가면 거기 알아서 그 보통 새서방 집에는 우리 집에 사위가 오게 되면 먼저 큰사위가 있으면 큰사위를 앓혀.)

112019 @ 으.(으.)

112019 #2 큰사월 앓지고 그렇지 안 허민 딴 사름 어떻 누게 집이 사름만 아니라도게, 저 오라방은 시면은 우실 가사 허고 스춘이나 스춘사위라도 앓지고, 새각시 이제 신랑 집이서 새각시가 오랑 상, 대반을 앓젠 허민 그 새각시보단 손우에이, 손아랜 말고 손우에 어디 동서빨 웨나.(큰사위를 앓히고 그렇지 앓으면 딴 사람 어떻게 누구 집에 사람만 아니라도, 저 오라버니는 있으면 위요를 가야 하고 사촌이나 사촌 사위라도 앓히고, 새색시 이제 신랑 집에서 새색시가 와서 상, 대반을 앓으려고 하면 그 새색시보단 손위, 손아랜 말고 손위 어디 동서빨 되거나.)

112019 @ 으.(으.)

112019 #2 시삼춘빨 웨나 시누이는 할 수 엇이 사름이 엇일 때.(시삼춘빨 되거나 시누이는 할 수 없이 사름이 없을 때.)

343) ‘요망지다’는 사람이 똑똑하고 야무진 것을 말한다.

344) ‘중방’은 결혼 때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2019 @ 엇일 때.(없을 때.)

112019 #2 앓지주 아니 씨. 시삼춘나 동세나. 것도 시집오랑 잘살고 애기도 낳고 복 존 사름이라사, 아무나 홀 어명도 아니고.(앓히지 아니 씨. 시삼춘이나 동서나. 것도 시집와서 잘살고 아기도 낳고 복 좋은 사람이어야, 아무나 홀어미도 아니고.)

112019 @ 맞아마씨, 맞아마씨.(맞아요, 맞아요.)

112019 #2 경 헨 앓는 거주게. 경 헨 원 그거고 거 저 혼 착에 앓지는 건 대반이 아니고 새각시 집이서 새각시 들러리가 가거든.(그렇게 해서 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원 그거고 거 저 한 쪽에 앓히는 건 대반이 아니고 새색시 집에서 새색시 들러리가 가거든.)

112019 @ 으, 들러리예?(으, 들러리요?)

112019 #2 으. 새각시 들러리가 가민 혼 쪽에 앓지고 대반 앓지고 경허는 거.(으. 새색시 들러리가 가면 한 쪽에 앓히고 대반 앓히고 그러는 거.)

112020 @ 부주는 아까 친척덜은 쌀 가져 간덴 헛잖아예?(부조는 아까 친척들은 쌀 가져 가다고 헛잖아요?)

112020 #2 으.(으.)

112020 @ 동네 사름덜도 쌀 부지 험니까? 그뎨?(동네 사름들도 쌀 부조 험니까? 그뎨?)

112020 #2 으, 쌀 부지 허민 구덕 구석에 밥 멧 사발.(으, 쌀 부조 하면 바구니 구석에 밥 멧 사발.)

112020 @ 아.(아.)

112020 #2 쌀 비와 갖고 밥 멧 사발.(쌀 비워 갖고 밥 멧 사발.)

112020 @ 녁영 보내는 거라?(녕어서 보내는 거지?)

112020 #2 답례품 대신 밥 두어 사발, 구덕에 밥 두어 사발.(답례품 대신 밥 두어 사발, 바구니에 밥 두어 사발.)

112020 @ 게니까 잔치 먹으레 갈 때 구덕에 쌀 담양 오면 그거 비와 똥 거기에 밥?(그러니까 잔치 먹으러 갈 때 바구니에 쌀 담아서 오면 그거 비워 두고 거기에 밥?)

112020 #2 으, 구덕 구석더레 밥 두어 사발.(으, 구덕 구석에 밥 두어 사발.)

112020 @ 아. 어머니 암창개³⁴⁵라는 말 들어 봤수과?(아. 어머니 ‘암창개’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112020 #2 으?(으?)

112021 @ 암창개? 그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 난.(‘암창개’?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 놓고.)

112021 #2 으.(으.)

345) ‘암창개’는 혼례날 부득이하게 신랑이 타지에서 오지 못했을 때 신랑 집에서 신랑 없이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며 치루는 혼례를 말한다.

112021 @ 신랑은 군대 강 있어.(신랑은 군대 가 있어.)

112021 #2 으.(으.)

112021 @ 내려오는 날짜로 하기로 해신디 비오고 막 태풍이난 못 내려온 거라 예.(내려오는 날짜로 하기로 했는데 비 오고 아주 태풍이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112021 #2 계난 여저만 드러간, 경 험 흐쓸 허민 저 어디 강 신랑 저 곳사 말따 나 군인 신랑이 올 때 돼도 안 오라 감저. 암창개 가젠 험나. 그런 말 곶아.(그러니까 여자만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 하면 저 어디 가서 신랑 저 아까 말대로 군인 신랑이 올 때 되도 안 오고 있어. ‘암창개’ 가려고 하니. 그런 말 해.)

112021 @ 아, 그런 말 곶아예?(아, 그런 말해요?)

112021 #2 으.(으.)

112021 @ 경험 여자만 잇영 결혼식 어쩔 수 잇이 해야 되는 경우에.(그래서 여자만 있어서 결혼식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112021 #2 으.(으.)

112022 @ 흑시 뭐 이 동네 사혼 같은 거, 죽은 사름끼리 혼례 치러 주거나 그런 거 잇어났수과?(흑시 뭐 이 동네 사혼 같은 거, 죽은 사람끼리 혼례 치러 주거나 그런 거 잇었습니까?)

112022 #2 그런 거 하영 헤여.(그런 거 많이 해.)

112022 @ 하영 헤 마씨.(많이 해요.)

112022 #2 이젠 안 헤여. 이제는 이신 구신도 걸친 못 허는 거 무시거 허레 늬의 구신 빌어 오느니.(이젠 안 해. 이제는 잇는 귀신도 힘에 부쳐서 못 하는 거 무 잇 하러 남의 귀신 빌려 오니.)

112022 @ 음.(음.)

112022 #2 그 때 그거 죽으면서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디 아덜이 죽으면 이제 저디 딸이 하나 죽영 이시면.(그 때 그거 죽으면서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 여기 아들이 죽으면 이제 저기 딸이 하나 죽어 있으면.)

112022 @ 으.(으.)

112022 #2 이제 친척덜이 다 계산을 허는 거주. 이제 부쁜 참에 이걸 헤 붙어야 험 건디, 헤근에 누계네 집이 딸 죽은 것이 이신디 영 생각해 봐근에 죽은 사름도 막 딸령은 안 돼여, 죽은 질에도 스주가 맞아야 돼여.(이제 친척들이 다 계산을 하는 거지. 이제 붙은 참에 이걸 헤 버려야 할 건데, 해서 누구네 집에 딸 죽은 것이 잇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서 죽은 사름도 아주 틀려서는 안 돼, 죽은 질에도 사주가 맞아야 돼.)

112022 @ 아.(아.)

112022 #2 계민 어디 흐쓸 의논해 방이, 겐 험 만허다 허민 그디도 그디 통험 직헌 사름을 이녁 친족이면서도 그 딸 죽은 집이 통험직헌 사름을 보내는 거여. 사실이 영 정 허영 이디 시난 경험 생각이 엇수과?(그럼 어디 조금 의논해 봐서, 그래서 할 만하다 하면 거기도 거기 통험직한 사름을 이녁 친족이면서도 그 딸 죽은 집

에 통합직한 사람을 보내는 거야. 사실이 이러 저거 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까?)

112022 @ 오.(오.)

112022 #2 빌어 가쿠텐 허민, 쟁 주민 그 저 어떻, 허는 것이 그 각시, 그 딸이 묻은 디 강 파당 이녀 아덜 묻은 때 옆터레 왕 ㄱ치 묻는 사름도 싯곡.(빌려 가겠다고 하면, 그래서 주면 그 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각시, 그 딸이 묻은 데 가서 파다가 아들 묻은 때 옆에 와서 같이 묻는 사름도 있고.)

112022 @ 아.(아.)

112022 #2 기자 문세상으로만, 문세상으로만, 나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 혼서 결론식 허는 걸로 경 혜근에 허민 어떻 어명덜은이 큰 이불은 혼 채 혜영 보내여.(그저 문서상으로만, 문서상으로만, 나 글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 혼서 결론식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어머니들은 큰 이불은 한 채 해서 보내.)

112022 @ 오.(오.)

112022 #2 보내면 그 이불은 어떻 허느냐 ㄱ만이 뵈다가 저 그 죽은 사름이 애기 안 나 봐근에 죽은 사름 아냐? 총각이나 죽으면 그 사름 알로 누계가 양제 들면 그 사름 준텐.(보내면 그 이불은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뵈다가 저 그 죽은 사름이 애기 안 낳아 보고 죽은 사름 아니니? 총각이나 죽으면 그 사름 아래로 누가 양자 들면 그 사름 준다고.)

112022 @ 음.(음.)

112022 #2 쟈 그추룩 허는 거라, 혼사는.(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혼사는.)

112022 @ 오, 결혼식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재미있는, 금기 사항 같은 건 있어, 잇수과?(오, 결혼식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뭐 재미있는, 금기 사항 같은 건 있어, 있습니까?)

112022 #2 그러 저런 건 몰르켜, ㄱ사 들은 건 곶은디. 그만 곶주.(그러 저런 건 모르겠어, 아까 들은 건 말했는데 그만 말하지.)

112022 @ 예.(예.)

상례

112024 @ 오늘은 뭐 물어볼 거냐 허면예, 옛날에 어르신덜 돌아가셨을 때랑 제사 지낼 때 어떻 혜나시고 허는 걸 문젠마씨. 계난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거마씨.(오늘은 뭐 물어볼 거냐 하면요, 옛날에 어르신들 돌아가셨을 때랑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었는지 하는 걸 물으려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거예요.)

112024 #2 그때 제사 지내는 거.(그때 제사 지내는 거.)

112024 @ 우선은 돌아가셨을 때부터 물으쿠다예.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영 돌아가셨구나 허는 걸 어떻 허민 알아집니까?(우선은 돌아가셨을 때부터 문졌습시다.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112024 #2 돌아가는 것도 여라 가지주게.(돌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지.)

112024 @ 으.(으.)

112024 #2 막 빠닥빠닥 아파근에 보는 사름이 막 안타까울 정도로 헤여근에 숨이 끈어지는 사름.(아주 파닥파닥 아파서 보는 사름이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해서 숨이 끊어지는 사름.)

112024 @ 으.(으.)

112024 #2 또 그자 잠시카부덴 허단 보민 줌든 듯이 기자 돌아가는 사름. 경허난 것이 여라 가지라.(또 그저 자고 있나 하다가 보면 잠든 듯이 그저 돌아가는 사름. 그러니까 것이 여러 가지야.)

112024 @ 으, 계난 영 줌들어당 예구, 돌아가셨구나 허는 거를 어떻 허민 알아져, 확인하는 건?(으, 그러니까 이렇게 잠들었다가 예구,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확인하는 건?)

112024 #2 확인하는 건 그 사름덜이, 막 죽을 때가 돼 가민 율이 앓은 사름덜이 영 반듯행 누민 영 등 알로 손을 찢러 보민 등이 딱 부떠. 부명 손이 안 들어가고.(확인하는 건 그 사름들이, 막 죽을 때가 돼 가면 옆에 앓은 사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면 이렇게 등 아래로 손을 찢러 보면 등이 딱 붙어. 붙어서 손이 안 들어가고.)

112024 @ 아.(아.)

112024 #2 안 죽은 사름은 손을 찢러지고.(안 죽은 사름은 손을 찢을 수 있고.)

112024 @ 예.(예.)

112024 #2 또 요 손콥에가 물이 다 올라근에 물에 커진 손 모양으로 손콥이 헤영해 가.(또 요 손톱에 물이 다 올라서 물에 잠근 손 모양으로 손톱이 하애져 가.)

112024 @ 돌아가시면?(돌아가시면?)

112024 #2 돌아가젠 허민.(돌아가려고 하면.)

112024 @ 아.(아.)

112024 #2 경혜영 영 지켜 앓앗당 누가 이웃집 사름이, 요즘은 병원에 간 잇단에 글로 돌아감주만은 옛날엔 돌아가젠 허민 아무 디 권당이엔 허나 아무덧 어른 금시도 아니 살켄, 이거 목숨 산 때 강 봐야 허켄 강 영 우선 손을 만져 봐.(그래서 이렇게 지켜 앓았다가 누가 이웃집 사름이, 요즘은 병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고 있지만 옛날엔 돌아가려고 하면 아무 데 권당이라고 하거나 아무 데 어른 금시도 아니 살쨌다고, 이거 목숨 살아 있을 때 가서 봐야 하쨌다고 가서 이렇게 우선 손을 만져 봐.)

112024 @ 으, 손을 만져 뵙?(으, 손을 만져 봐서?)

112024 #2 만져 보민 그 자식덜 보고 손콥에 물 올랐져, 오래 안 가켜 허고. 영 보레 간 어른이 등으로 영 뵘득허게 누우민 손을 대여 봐. 대 보민 오래 안 가켜, 준비허라 허곡. 경도 손도 보민 물 안 올랑 우리 손콥 닳고 영 등에 손 들어가민 곧 죽을 거기치 와닥와닥 헤도 저들지 말라. 이삼일 전딘다.(만져 보면 그 자식들

보고 손톱에 물 올랐어, 오래 안 가겠어 하고. 이렇게 보러 간 어른이 등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누우면 손을 대 봐. 대 보면 오래 안 가겠어, 준비해라 하고. 그렇게도 손도 보면 물 안 올라서 우리 손톱 같고 이렇게 등에 손 들어가면 곧 죽을 거같이 '와닥와닥' 해도 근심하지 말라. 이삼일 견딘다.)

112024 @ 아.(아.)

112024 #2 으, 그렇게.(으, 그렇게.)

112024 @ 아, 손 안 들어가도 이삼일 견딘다 헤여?(아, 손 안 들어가도 이삼일 견딘다 해?)

112024 #2 손을 들어가면.(손을 들어가면.)

112024 @ 들어가면?(들어가면?)

112024 #2 으, 저디 상제덜 보고, 자식덜 보고 저들지 말라. 이삼일은 견딘다.(으, 저기 상제들 보고, 자식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이삼일 견딘다.)

112024 @ 으.(으.)

112024 #2 게고 손도 곱닥헛저.(그리고 손도 곁왔어.)

112024 @ 으.(으.)

112024 #2 겨고 손에 물이 올르민, 손도 보난 물 올르고. 말도 곧고 영 헤 배도 오래, 오래 안 간다. 그 정도주.(그리고 손에 물이 오르면, 손도 보니까 물 올르고. 말도 하고 이렇게 헤 배도 오래, 오래 안 가. 그 정도지.)

112024 @ 아, 그민 영 돌아가셨구나는 영 손 찢러 봐근에 아는 거라?(아, 그럼 이렇게 돌아가셨구나는 이렇게 손 찢러 봐서 아는 거야?)

112024 #2 아니. 게난 영 대 보민 숨소리가, 게난 곧주게. 막 숨소리가 할강할강 허멍 막 저 돌아가는 어른. 쏹쏹 자는 듯허멍 돌아가는 어른. 영 ㄱ만이 잇어 보민 영 우리 기계가 가단 툃 허듯이.(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대 보면 숨소리가, 그러니까 말하지. 아주 숨소리가 헐떡헐떡 하면서 돌아가는 어른. 새근새근 자는 듯하면서 돌아가는 어른. 이렇게 가만히 잇어 보면 이렇게 우리 기계가 가다가 툃 하듯이.)

112024 @ 으.(으.)

112024 #2 알아져, 알아져 그자. 돌아가민 피가 멈추난 건지 그자 금시 얼굴이 파랑해, 파랑해.(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그저. 돌아가면 피가 멈추니까 그런지 금시 얼굴이 파래, 파래.)

112024 @ 음.(음.)

112024 #2 경헤 가는 거주.(그래 가는 거지.)

112024 @ 음. 그민 영 돌아가셨구나 헤서예.(음. 그럼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헤서요.)

112024 #2 으.(으.)

112024 @ 그 다음엔 어떻 차례가 어떻 됩니까?(그 다음엔 어떻게 차례가 어떻게 됩니까?)

112024 #2 그 다음에 차례가 그 옛날로 허면 케케, 아주 옛날로.(그 다음에 차

레가 그 옛날로 하면 케케, 아주 옛날로.)

112024 @ 예, 옛날, 옛날로.(예, 옛날, 옛날로.)

112024 #2 옛날로 허민 돌아가셨구나 허민 하이구, 뭐 전화가 시카 이젠 누구 하나 보내여근에 친족 집이 강 굴으민 그 친족덜이 다 모여 오랑.(옛날로 하면 돌아가셨구나 하면 아이고, 뭐 전화가 있을까 이젠 누구 하나 보내서 친족 집에 가서 말하면 그 친족들이 다 모여 와.)

112024 @ 으.(으.)

112024 #2 친족과 친족질에 야 아무가이 어른 돌아갔저. 또 지네끼리게, 내가 알민 우리 아으덜신디 알루듯. 다 찌레끼리 알루면 오면은 저 웨방 있는 자식은 못 보면 사름으로 굴으레 가야지.(친족과 친족뻘에 야 아무가의 어른 돌아갔어. 또 자기네끼리, 내가 알면 우리 아이들에게 알리듯. 다 끼리끼리 알리면 오면 저 외방 있는 자식은 못 보면 사람으로 말하러 가야지.)

112024 @ 으.(으.)

112024 #2 사름으로 강 데리고 와야지. 뭇이 뭐 전화도 엇고. 사름으로 강 데려 오면은 그때는 챗차는 무슨 사름을 빌어 오느냐, 요즘 그 장의사 허는디 저 수에웃 입지고 무꿀 사름을 빌어와.(사람으로 가서 데리고 와야지. 뭇이 뭐 전화도 없고. 사람이 가서 데려 오면 그때는 첫째는 무슨 사람을 빌려 오느냐, 요즘 그 장의사 하는데 저 수의 입히고 묶을 사람을 빌려와.)

112024 @ 예. 그민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름을 빌어 오는 거라?(예. 그럼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람을 빌려 오는 거요?)

112024 #2 으. 그 사람을 빌어 오민 이제 자식덜이 모다들어근에 이제 모욕을 시켜.(으. 그 사람을 빌려 오면 이제 자식들이 모아들어서 이제 모욕을 시켜.)

112024 @ 음.(음.)

112024 #2 모욕 여기서. 날이 안 맞으면은 ㄱ만이 놔두고 날이 맞아야 것도.(모욕 여기서. 날이 안 맞으면 가만히 놔두고 날이 맞아야 것도.)

112024 @ 음.(음.)

112024 #2 모욕을 시키고 수에웃 입정 그 사름이 그 배로 탄탄 무끄지게.(모욕을 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그 사람이 그 배로 단단 묶지.)

112024 @ 음.(음.)

112024 #2 무경 또 무경 가만이 이불 더깁, 훗이불 더끄곡 행 놔뒤근에 이젠 또 뭇을 허느냐. 이젠 또 목수를 빌어 와야.(묶어서 또 묶어서 가만히 이불 덮어서, 훗이불 덮고 해서 놔두고 이젠 또 뭇을 허느냐. 이젠 또 목수를 빌려 와야.)

112024 @ 음.(음.)

112024 #2 관을 짜지.(관을 짜지.)

112024 @ 아.(아.)

112024 #2 목수를 빌어 와야 이제 관을 짜고.(목수를 빌려 와야 이제 관을 짜고.)

112024 @ 계민 관 짜는 것도 돌아가신 후제사 허는 것과? 돌아가실 때쯤 되면?(그럼 관 짜는 것도 돌아가신 후에야 하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쯤 되면?)

112024 #2 아이구, 아이구 후제사주게.(아이고, 아이고 이후지.)

112024 @ 아.(아.)

112024 #2 관 짜면서.(관 짜면서.)

112024 @ 예.(예.)

112024 #2 택일 하면서, 어느 날 물을 거. 이제는 무조건 삼일장 해 볼주만은 어느 날 물을 걸 택일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덜이 관 짜 가면은 그와 거치 영 지 쟁이, 상제 지프는 지쟁이 있지. 그 나무도 어디 강 잘라 와야.(택일 하면서, 어느 날 물을 거. 이제는 무조건 삼일 초상 해 버리지만 어느 날 물을 걸 택일 하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관 짜 가면 그와 같이 이렇게 지팡이, 상제 짚는 지팡이 있지. 그 나무도 어디 가서 잘라 와야.)

112024 @ 아.(아.)

112024 #2 친족덜이.(친족들이)

112024 @ 예.(예.)

112024 #2 째신도 만들어야.(째신도 만들어야.)

112024 @ 째신은 돌아가신 분 신길 거? 아니면은?(째신은 돌아가신 분 신길 거?)

112024 #2 상주덜이 신지. 째신도 만들어야.(상주들이 신지. 째신도 만들어야.)

112024 @ 예.(예.)

112024 #2 또 여저덜은 상주 옷, 수에옷 말고 자식덜 입을 옷도 허잖아. 난리라, 난리.(또 여자들은 상주 옷, 수의 말고 자식들 입을 옷도 하잖아. 난리야, 난리.)

112024 @ 어.(어.)

112024 #2 그러면 친족이 있는 사람은 친족이 많이 허지만은 친족이 없는 사람은 다 사람 빌어다가도 허고. 해 줍서, 해 줍서, 또.(그러면 친족이 있는 사람은 친족이 많이 하지만 친족이 없는 사람은 다 사람을 빌려다가 하고.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또.)

112024 @ 동네 사람들.(동네 사람들.)

112024 #2 으. 떡도 어디 강 맞춰근에 쌀 해서 물 담갔다가 재우 이제 아주 케 케묵은 때는 그 민속촌에 보든 방아 있지이, 빙빙 도는 거. 그것에 갈아다가 떡을 허고. 쪼금 나니까 방앗간에서 그를 곱고 방앗간 안 생긴 때 거 맷돌에서 곱았어, 맷돌에서. 사람 거 그냥 이 동네에서 영장이 나면은 온 주위에 사람이 다 오라야 돼여. 일이 하므로.(으. 떡도 어디 가서 맞춰서 쌀 해서 물 담갔다가 겨우 이제 케 케묵은 때는 그 민속촌에 보면 방아 있지, 빙빙 도는 거. 그것에 갈아다가 떡을 하고. 쪼금 나니까 방앗간에서 가를 곱고 방앗간 안 생겼을 때 거 맷돌에서 곱았어, 맷돌에서. 사람 거 그냥 이 동네에서 영장이 나면 온 주위에 사람이 다 와야 돼. 일이 많으므로.)

112025 @ 케민 그 복 부르기엔 허는 거는 어떤 걸 복 부르기엔 험니까? 복 부르는 거, 지붕에 올라강?(그럼 그 복 부르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복 부르기라고 합니까? 복 부르는 거, 지붕에 올라가서?)

112025 #2 어, 그거는 이제 관에 담은 후제 다 무껍 낱, 다 무꺼 놔근에.(어, 그거는 이제 관에 담은 후에 다 묶어 놓고, 다 묶어 놓고.)

112025 @ 자식덜이 왕 목욕시키고.(자식들이 와서 목욕시키고.)

112025 #2 으, 목욕시키고 거 빌어, 사름 빌어사 그거 무꺼서.(으, 목욕시키고 거 빌려, 사람 빌려야 그거 묶어서.)

112025 @ 옷 입형예?(옷 입혀서요?)

112025 #2 으, 수에옷 경 곧장 무꺼 놔사 이제 거 죽은 어른 이런 혼적삼³⁴⁶을 허나. 또 아무나 썩지근헤영 못 허여이. 그 적삼을 허나.(으, 수의 그렇게 곧장 묶어 놔야 이제 거 죽은 어른 이런 ‘혼적삼’을 하거나. 또 아무나 썩혀서 못 해. 그 적삼을 하나.)

112025 @ 적삼은 원래 입어난 적삼?(적삼은 원래 입었던 적삼?)

112025 #2 허영 놔두는.(해서 놔두는.)

112025 @ 으.(으.)

112025 #2 입어난 것도 좋아. 혼적삼이라고.(입어난 것도 좋아. ‘혼적삼’이라고.)

112025 @ 혼적삼.(‘혼적삼’.)

112025 #2 혼 불르는 거난 혼적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집이 이렇게 노프지도 안허고. 사다리 놔 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혼 부르는 거니까 ‘혼적삼’.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집이 이렇게 높지도 았고. 사다리 놔 가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112025 @ 으.(으.)

112025 #2 낮이는 켜찬헌데 아주 야밤이는 직성 엇인 사름은 썩지근허지.(낮에는 썩었는데 아주 야밤에는 강한 마음이 없는 사름은 썩혀하지.)

112025 @ 으.(으.)

112025 #2 그래도 거 그디 강 혼 불러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사다리를 뒤로 앓다 놔. 뒤으로 내려오라 가지고.(그래도 거 거기 가서 혼 불러 가지고 내려올 때는 그 사다리를 뒤로 가져다 놔. 뒤로 내려와 가지고.)

112025 @ 아, 앞으로 올라강 뒤로, 뒤로 내려와?(아, 앞으로 올라가서 뒤로, 뒤로 내려와?)

112025 #2 으, 내려오면은 그 적삼을 누가 마트느냐? 그 돌아간 어른에 큰메누리.(으, 내려오면 그 적삼을 누가 맡느냐? 그 돌아간 어른의 큰머누리.)

112025 @ 예.(예.)

112025 #2 큰메누리가 이런 저 차롱착인가, 차롱착 하나에 상에 놓곡 요디 강영 사면은 그 차롱착더레 적삼을 놓면 그때는 구들에 영장 있어부니까.(큰머누리가

346) ‘혼적삼’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혼을 부를 때 사용하는 적삼을 가리킨다.

이런 저 채롱인가, 채롱 하나에 상에 놓고 여기 사서 이렇게 서면 그 채롱에 적삼을 놓으면 그때는 구들에 송장 있으니까.)

112025 @ 어.(어.)

112025 #2 이딜 앓다 놓지게. 딱 마루에 이디 앓다 놓민 상은 싱거 이제. 상 우터레 앓다 놔근에 그때는 아고, 아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여길 가져다 놓지. 딱 마루에 여기 가져다 놓으면 상은 차려 이제. 상 위에 가져다 놓고 그때는 아이고, 아이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12025 @ 아, 혼 불령 와 가지고?(아, 혼 불러서 와 가지고?)

112025 #2 으, 혼 불름 전엔 껍 소리도 못 허여.(으, 혼 부르기 전엔 껍 소리도 못 해.)

112025 @ 아.(아.)

112025 #2 혼 불름 전에 저 어명이 죽었다 허면, 혼 불르기 전에 어디 웨판 자식이 오면은 것도 막 늑어근에 혼 구십 땡 나민 허지만은 혼 칠, 육칠십에라도 죽으면 자식덜이 오면이 어명이 죽었다고 허면은 울주, 울어지잖아. 혼 불르기 전인 조용허라, 조용허라.(혼 부르기 전에 저 어머니가 죽었다 하면, 혼 부르기 전에 어디 외판 자식이 오면 것도 아주 늑어서 한 구십 돼서 나면 하지만 한 칠, 육칠십에라도 죽으면 자식들이 오면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면 울지, 울잖아. 혼 부르기 전엔 조용해라, 조용해라.)

112025 @ 아, 울지 말라고.(아, 울지 말라고.)

112025 #2 조용허라, 조용허라, 안 운다 헛당 혼 불러다 놓민 뉘싸젓당 갈라젓당 울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조용해라, 조용해라, 안 운다고 했다가 혼 불러다 놓으면 뒤집어졌다 쓰러졌다 울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112025 @ 아.(아.)

112025 #2 경 혼 불러당 여기 놋당 이제 멧 시에 입관. 입관이 거 관에 담는 거.(그렇게 혼 불러다가 여기 놋다가 이제 멧 시에 입관. 입관이 거 관에 담는 거.)

112025 @ 게민 복 부르기 하는 거는 장날 다 받아 놓고 헤영 부르는 거?(그럼 복 부르기 하는 거는 장삿날 다 받아 놓고 해서 부르는 거?)

112025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12025 @ 아니.(아니.)

112025 #2 무조건 복 불러당 놔뒤사 장날을 받으려 다닐 거주.(무조건 복 불러다가 놔뒤야 장삿날을 받으려 다닐 거지.)

112025 @ 예.(예.)

112025 #2 복 불러당 놔뒤사 장날을.(복 불러다가 놔뒤야 장삿날을.)

112025 @ 게민 복 불러왕 이제 입관허는 거?(그럼 복 불러와서 이제 입관하는 거?)

112025 #2 복 불러왕.(복 불러와서.)

112025 @ 으.(으.)

112025 #2 이제 그것도 복 불러다 놓면 지관신디 가면 입관은 멧 시에 허라. 장례식은 어느 날, 어느 날 멧 시에, 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늘, 오늘이 팔일이라도 오전 열두 시에 허느냐, 새로 혼 시에 허느냐, 이 땅 소굽에 들어가는 거를 뭐 시간 허고. 이제 입관, 입관이라고 허는 건 관에 담는 거.(이제 그것도 복 불러다 놓으면 지관에게 가면 입관은 멧 시에 해라. 장례식은 어느 날, 어느 날 멧 시에, 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오늘, 오늘이 팔일이라도 오전 열두 시에 하느냐, 새로 한 시에 하느냐,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거를 뭐 시간 하고. 이제 입관, 입관이라고 하는 건 관에 담는 거.)

112025 @ 으.(으.)

112025 #2 입관 해지면은 이제 택일 해다근에 멧 시에 입관 해지민 그때는 상주덜이 다 모욕허근에 해근에 다 만들어 논 옷 입곡.(입관 하면 이제 택일 해다가 멧 시에 입관 하면 그때는 상주들이 다 목욕해서, 해서 다 만들어 놓은 옷 입고.)

112025 @ 으.(으.)

112032 #2 이제 제사를 허는 거지. 성복제라고.(이제 제사를 하는 거지. 성복제라고.)

112032 @ 으.(으.)

112032 #2 성복제라고 제사를 허면은.(성복제라고 제사를 하면.)

112032 @ 성복제 이땅 물어보고예. 그 장지 마련은 어떻 험니까?(성복제 이따가 물어보고요. 그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2 장지 마련은 성복제 해서 이디 상제덜은 잇는디 그 장지 보는 하르방을 데려다가.(장지 마련은 성복제 해서 여기 상제들은 잇는데 그 장지 보는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112026 @ 예.(예.)

112026 #2 일가도 흥나 가고 상제도, 상제도 흥나는 여기 지켜야고 여라 개민 상제도 ㄹ치 돌아가고 그 들판에 가서 장지 보는 하르방허고 요디가 쓸 만허다, 요디가 쓸 만허다 허영 이제 쓸 만헌 디 강 지적해근은 영 뭐 코지를.(일가도 하나 가고 상제도, 상제도 하나는 여기 지켜야 하고 여러 개민 상제도 같이 데려가고 그 들판에 가서 장지 보는 할아버지하고 여기가 쓸 만하다, 여기가 쓸 만하다 해서 이제 쓸 만한 데 가서 지적해서 이렇게 뭐 꼬지를.)

112026 @ 꽃아?(꽃아?)

112026 #2 코지를 꽃아 두고 오면은 이제 아무 디 강 터 봤다.(꼬지를 꽃아 두고 오면 이제 아무데 가서 터 봤다.)

112026 @ 음.(음.)

112026 #2 이제 게민 영장 앞날은 또 그 터 본 디 아는 사름허고 이제 그뻐 장 의사 엇인 때난 사름덜 빌영 강 그 영장허는 아시날은 땅을 파는 거주게. 땅 팻당 뒷날은 영장.(이제 그럼 장사 앞날은 또 그 터 본 데 아는 사름하고 이제 그뻐 장 의사 없을 때니까 사름들 빌려서 가서 그 장사하는 전날은 땅을 파는 거지. 땅 팻다

가 뒷날은 장사.)

112026 @ 음. 계민 장지 보레 사람 부르는 것도 막 날 잡고 나서?(음. 그럼 장지 보러 사람 부르는 것도 날 잡고 나서?)

112026 #2 장지 보레 가는 거는 날을 안 잡고 여기서.(장지 보러 가는 거는 날을 안 잡고 여기서.)

112026 @ 어른덜이?(어른들이?)

112026 #2 으, 저 어느 날 영장허라 허민 그 장지는 자유대로 영장 아시날꺼지만 허민 되는 거.(으, 저 어느 날 장사하라 하면 그 장지는 자유대로 장사 전날까지만 하면 되는 거.)

112026 @ 음.(음.)

112026 #2 장지 보레 가는 건 날 안 잡앙. 영장날만 잡아 주는 거주게.(장지 보러 가는 건 날 안 잡고. 장삿날만 잡아 주는 거지.)

112026 @ 계민 영장날 잡는 거는 아메도 집안 어른덜이 모영 의논을 허는 것과? 달력 보멍?(그럼 장삿날 잡는 거는 아무래도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을 허는 겁니까? 달력 보면서?)

112026 #2 저디 그런 보는 사름이 잇지.(저기 그런 보는 사름이 잇지.)

112026 @ 아, 보는 사름 불령.(아, 보는 사름 불려서.)

112026 #2 동네 하르방신디 가지. 가서 그, 그날도 또. 그 사름이 날 잡고 터 보는 사름이면 날 잡고 그 사름은 데령 가곡.(동네 할아버지에게 가지. 가서 그, 그날도 또. 그 사름이 날 잡고 터 보는 사름이면 날 잡고 그 사름은 데려서 가고.)

112026 @ 음.(음.)

112026 #2 날만 잡는 사름이든 그 사름 날 잡곡 또 터만 보는 사름 또 강 데려야 돼여.(날만 잡는 사름이면 그 사름 날 잡고 또 터만 보는 사름 또 가서 데려야 돼.)

112026 @ 음.(음.)

112026 #2 일이 시끄러와. 아이고, 옛날에 뭐 썸지근행 못 살켜.(일이 시끄러워. 아이고, 옛날에 뭐 썸뜩해서 못 살겠어.)

112026 @ 하하.(하하.)

112026 #2 우리 그런 세상만 부모덜이 다 돌아가니까.(우리 그런 세상만 부모들이 다 돌아가니까.)

112026 @ 그러니까예.(그러니까요.)

112026 #2 우리 친족덜도 많지 안 허고 하고 고생헤 놓난 썸지그랑허여.(우리 친족들도 많지 앓고 고생하니까 썸뜩해.)

112026 @ 썸지그랑허여, 그 생각허면?(썸뜩해, 그 생각하면?)

112026 #2 으.(으.)

112026 @ 어떻 일 출려져신고?(어떻게 일 차렸는지?)

112026 #2 으.(으.)

112027 @ 예. 겐 관이랑, 관 만드는 건 어떻게 거라, 관 준비는?(예. 그래서 관 이랑, 관 만드는 건 어떻게 거야, 관 준비는?)

112027 #2 관 준비는 글썸, 혼을 불러다 놓면은 관 짜는 목수를 또 빌어 와야 돼. 또 빌어 오고 널판대기도.(관 준비는 글썸, 혼을 불러다 놓으면 관 짜는 목수를 또 빌려 와야 돼. 또 빌려 오고 널판대기도.)

112027 @ 그 널판대기가 횡대?(그 널판대기가 횡대?)

112027 #2 집이 어르신이 시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널판대기를 행 놔둬.(집에 어르신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널판대기를 해서 놔둬.)

112027 @ 예.(예.)

112027 #2 널판대기를 행 놔두는디.(널판대기를 해서 놔두는데.)

112027 @ 널판대기는 관 만들 때 쓸 널판대기?(널판대기는 관 만들 때 쓸 널판대기?)

112027 #2 으. 관 만드는 널판대기.(으. 관 만드는 널판대기.)

112027 @ 예.(예.)

112027 #2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 보면 목수 빌자, 널판대기를 어디 강 사코 허민 널판대기 행 푼는 사람이 있어.(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살다 보면 목수 빌리라, 널판대기를 어디 가서 살까 하면 널판대기 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

112027 @ 아.(아.)

112027 #2 산판에 막 거 실헌 사람은 산에 가서 그 둥그런 큰 나무를 그차다가 톱도 기계톱이가? 이렇게 돌리가 사서 이렇게 허는 톱으로 오려 놔서 관 판대기 혼 벌에 얼마.(산판에 아주 거 실한 사람은 산에 가서 그 둥그런 큰 나무를 잘라다가 톱도 기계톱이? 이렇게 돌이 서서 이렇게 하는 톱으로 오려 놔서 관 판대기 한 벌에 얼마.)

112027 @ 으.(으.)

112027 #2 그거 허영 허민 아, 누구네 집이 가서 관을 사 오라. 겐 관을 사 오고. 목수 빌어 오고. 겐 여기서 복잡허민, 이거 우리 집 거트민 요쪽에 나가서 그 관 판대기를 짜는데, 이제 동네에 영장이 나민 일을 안 허여. 다 와, 오민.(그거 해서 하면 아, 누구네 집에 가서 관을 사 와라. 그래서 관을 사 오고. 목수 빌려 오고. 그래서 여기서 복잡하면, 이거 우리 집 같으면 요쪽에 나가서 그 관 판대기를 짜는데, 이제 동네에 장사가 나면 일을 안 해. 다 와, 오면.)

112027 @ 으.(으.)

112027 #2 우리 하르방³⁴⁷만이헌 하르방덜 영 뒷손 지고 와서 관 판대기 만드는 거 영 보는데 쓸이 엇어 가지고, 목수 때라고.(우리 할아버지만한 할아버지들 이렇게 뒷손 지고 와서 관 판대기 만드는 거 이렇게 보는데 쓸이 없어 가지고, 목수 때라고.)

112027 @ 으.(으.)

347) '하르방'은 '할아버지'를 말하나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가리킨다.

112027 #2 계도 반찬이라도 다르게 해야 할 건디. 계란 것도 친족이 이신 사름은 친족이 해다 줘.(그래도 반찬이라도 다르게 해야 할 건데. 그러니까 것도 친족이 있는 사람은 친족이 해다 줘.)

112027 @ 음.(음.)

112027 #2 목수 때 해다 주켤.(목수 때 해다 주겠다고.)

112027 @ 밥 얘기 허는 거 아니, 밥.(밥 얘기 하는 거 아니, 밥.)

112027 #2 어, 밥. 밥이 찰이 끈찰이 어렵지이. 그추록 해노난 경허영 밥 해당 맥이곡. 밥 경허영 관 짜 똥 가불면 이제 택일 보는 사름은 몇 시에 성복, 입관허라 해불면 입관만 해지면, 그 관에만 담아지면 제사를 허는 거주.(어, 밥. 밥이 찰이 흰 찰이 어렵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밥 해다가 먹이고. 밥 그렇게 관 짜 두고 가면 이제 택일 보는 사름은 몇 시에 성복, 입관해라 하면 입관만 하면, 그 관에만 담으면 제사를 하는 거지.)

112027 @ 으.(으.)

112027 #2 고운 옷 입고.(고운 옷 입고.)

112027 @ 횡대는 뭐과, 횡대는?(횡대는 뭇니까, 횡대는?)

112027 #2 횡대가 무시거라?(횡대가 무엇이야?)

112027 @ 관에 헐 때 판 까는 거 횡대렌 허는 거 엇수과?(관에 할 때 판 까는 거 횡대라고 하는 거 없습니까?)

112027 #2 여기서 그 말이 엇인디.(여기서 그 말이 없는데.)

112027 @ 아, 예, 예. 계민 이제 제 지내는 거예?(아, 예, 예. 그럼 이제 제 지내는 거요?)

112027 #2 으.(으.)

112028 @ 계민 수의랑 상복은 어떻 마련할 거라?(그럼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할 거요?)

112028 #2 수의?(수의?)

112028 @ 옷, 옷.(옷, 옷.)

112028 #2 계, 수의는.(계, 수의는.)

112028 @ 수의렌 헛수과? 여기 옷 뭐렌 해? 돌아가신 분 입는 옷?(수의라고 했습니까? 여기 옷 뭐라고 해? 돌아가신 분 입는 옷?)

112028 #2 계메 저디 푸는 사름은 수의렌 허고 우리 옛날 우리말은 호상옷³⁴⁸이엔 헛어.(그러게 저기 파는 사름은 수의라고 하고 우리 옛날 우리말은 ‘호상옷’이라고 했어.)

112028 @ 예, 호상옷.(예, ‘호상옷’.)

112028 #2 호상옷.(‘호상옷’.)

112028 @ 상제가 입는 옷은?(상제가 입는 옷은?)

112028 #2 상제가 입는 건 상복.(상제가 입는 건 상복.)

348) ‘호상옷’은 ‘수의’의 제주어다.

112028 @ 상복예. 그건 어떻 마련해?(상복요. 그건 어떻게 마련해?)

112028 #2 계, 호상옷은 자기가 여유 있는 할망덜은 옛날 거 짠 베로 갖다가 마련행 놔둔 거 입히고.(계, 호상옷은 자기가 여유 있는 할머니들은 옛날 거 짠 베로 갖다가 마련해서 놔둔 거 입히고.)

112028 @ 음.(음.)

112028 #2 못 마련헌 사름덜은 자식덜이 만들어야 돼고.(못 마련한 사람들은 자식들이 만들어야 되고.)

112028 @ 으.(으.)

112028 #2 상복은 그때 저디 강 베 사다근에 만들주. 베 여유 잇영 능력 잇는 사름은, 우리는 못 사니까 데드롱³⁴⁹⁾ 사다 헛어, 데드롱. 상복으로.(상복은 그때 저기 가서 배 사다가 만들지. 배 여유 없어서 능력 없는 사름은, 우리는 못 사니까 ‘데드롱’ 사다 헛어, ‘데드롱’. 상복으로.)

112028 @ 데드롱이 뭐?(‘데드롱’이 뭐?)

112028 #2 광목 천 닻은 거주게.(광목 천 닻은 거지.)

112028 @ 광목 천 닻은 거?(광목 천 닻은 거?)

112028 #2 으, 흰 거, 흰 거.(으, 흰 거, 흰 거.)

112028 @ 으.(으.)

112028 #2 빨강헌 베가 보기도 좋고 만들기도 좋주만은 비싸 가지고. 광목 천 닻은 거 우린. 형제간이 막 구남매나 돼고.(빨간 베가 보기도 좋고 만들기도 좋지만 비싸 가지고. 광목 천 닻은 거 우린. 형제간이 아주 구남매나 되고.)

112028 @ 예.(예.)

112028 #2 우리가 큰메누리고 나가 여유가 잇어난 우린 그렇게 헤영 헛어.(우리가 큰며느리고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우린 그렇게 해서 헛어.)

112028 @ 예.(예.)

112028 #2 입는 사름은 별경게 베로 입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입는 사름은 별경게 베로 입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

112028 @ 예.(예.)

112028 #2 그렇게 해서 관에 담은 입관 헌 후에 이제 그것을 입어서 성복제 허면 온 천지가 노랑게 상제덜 알아지곡.(그렇게 해서 관에 담은 입관 헌 후에 이제 그것을 입어서 성복제 하면 온 천지가 노랑게 상제들 알 수 있고.)

112028 @ 으.(으.)

112028 #2 계민 성복제 지낸 후에 오일장을 허느냐, 삼일장을 허느냐, 사일장을 허느냐 허면은 그 장 아시날은 일포³⁵⁰⁾라고 해서 손님 받는 날.(그럼 성복제 지낸 후에 오일 장사를 하느냐, 삼일 장사를 하느냐, 사일 장사를 하느냐 하면 그 장삿날 전날은 ‘일포’라고 해서 손님 받는 날.)

349) ‘데드롱’은 천 종류의 하나다.

350) 일포’는 장사를 지내기 전에 문상객을 받는 날을 말한다. ‘일포날’이라고도 한다.

112028 @ 음. 그민 그거 이제 호상옷이라고 해서 상복도 행, 그 천 사 오민 동네 사름덜이 만들 거 아니라?(음. 그럼 그거 이제 수의라고 해서 상복도 해서, 그 천 사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야?)

112028 #2 으. 것도 아무나 경 옷을 열 불이고 다섯 불이고 사름마다 재주가 있어? 옷 돌르는 사름이 따로 있어.(으. 것도 아무나 그렇게 옷을 열 벌이고 다섯 벌이고 사람마다 재주가 있어? 옷 마르는 사름이 따로 있어.)

112028 @ 동네에?(동네에?)

112028 #2 으, 말르는 사름을 빌어 와야 돼여.(으, 마르는 사름을 빌려 와야 돼.)

112028 @ 아, 옷 마는 사름을?(아, 옷 마르는 사름을?)

112028 #2 으, 아무개 사름 돌아오라, 아무개 사름 돌아오라.(으, 아무개 사름 데려와라, 아무개 사름 데려와라.)

112028 @ 음.(음.)

112028 #2 겐 몰라만 놓면, 우리도 그런 때 몰라만 놓면 굿든 좋든 다 손으로 꿰멍 다 멘들주.(그래서 말라만 놓으면, 우리도 그런 때 말라만 놓으면 굿든 좋든 다 손으로 꿰면서 다 만들지.)

112028 @ 손으로 꿰멍? 미싱 안 허여? 그때 미싱 엇어난?(손으로 꿰면서? 재봉틀 안 해?)

112028 #2 아니, 그때 옛날에, 난 미싱 시난 미싱으로 드러 헛주만은 손으로 하여 허주게.(아니, 그때 옛날에, 난 재봉틀 있으니까 재봉틀로 거꾸 했지만 손으로 많이 하지.)

112028 @ 계난 돌르는 게 기술이구나?(그러니까 마르는 게 기술이구나?)

112028 #2 돌르는 게 기술이주게.(마르는 게 기술이지.)

112028 @ 아.(아.)

112028 #2 아니, 혼 사름, 열 사름 옷을 몰라야 헐 건데 탁 천 내놓민 누게가 잘사, 잘못사 그차질티 믈음 조영 아무나 몰라저게.(아니, 한 사름, 열 사름 옷을 말라야 할 건데 탁 천 내놓으면 누가 잘, 잘못 자를지 마음 줄여서 아무나 말 수 있겠어.)

112028 @ 음.(음.)

112028 #2 사름 빌어와야지, 바느질, 싹 바느질 허는 사름, 싹 바느질 허는 사름 빌어와야지. 요즘 양제점허고 그런 사름그라 옛날은 바농질와치라고.(사름 빌려와야지. 바느질 샅 바느질 하는 사름, 샅 바느질 하는 사름 빌려와야지. 요즘 양제점하고 그런 사람에게 옛날은 ‘바농질와치’라고.)

112028 @ 예, 바농질와치 맞수다. 바농질와치.(예, ‘바농질와치’ 맞수다. 바느질 아치.)

112028 #2 으, 바농질와치.(으, 바느질아치.)

112028 @ 예.(예.)

112028 #2 이제는 이거라, 저거라 해도 그때는 바농질와치 강 빌어오라, 빌어오라.(이제는 이거야, 저거야 해도 그때는 바농질와치 가서 빌려와라, 빌려와라.)

112028 @ 음.(음.)

112028 #2 글후제 영장혜 분 거베끼 곶을 말이 엇주.(그 이후에 장사한 거밖에 할 말이 없지.)

112029 @ 아까예, 영 지프는 거, 상제덜 지프는 그건 뭐렌 험니까?(아까요, 이렇게 짚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112029 #2 방장대.(상장.)

112029 @ 방장대.(상장.)

112029 #2 원 옛날부터 건 방장대.(원 옛날부터 건 상장.)

112029 @ 예.(예.)

112029 #2 건 변함없이.(건 변함없이.)

112029 @ 방장대도 어디 강 행 와살 거 아니? 그건 어땡 마련했어?(상장도 어디 가서 해 와야 할 거 아니? 그건 어떻게 마련했어?)

112029 #2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이렇게 마작 있는 왕대 나무.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그걸 잘라 오고.(아버지가 돌아가면 이렇게 마디 있는 왕대 나무. 아버지가 돌아가면 그걸 잘라 오고.)

112029 @ 음.(음.)

112029 #2 친족덜 비스름에, 누게 아덜 친구나 누게 이신 사름은 어디 들판에 나가서 잘라 오고.(친족들 비스름에, 누구 아들 친구나 누구 있는 사름은 어디 들판에 나가서 잘라 오고.)

112029 @ 음.(음.)

112029 #2 어머니가 돌아가면은 지넌 몰라. 머귀낭으로 가시가 막 다닥다닥 부튼 나무가 잇잖아. 그 나무로 잘라 오는데 이유는 뭐냐.(어머니가 돌아가면 너넌 몰라. 머귀나무로 가시가 아주 다닥다닥 붙은 나무가 잇잖아. 그 나무로 잘라 오는데 이유는 뭐냐.)

112029 @ 으.(으.)

112029 #2 아버지는 썸이 드물어 가지고 이 막작과 이 막작 사이베끼 썸이 엇고.(아버지는 정이 드물어 가지고 이 마디와 이 마디 사이밖에 정이 없고.)

112029 @ 하하.(하하.)

112029 #2 어머니는 그 가시 수정에 즈셈이 많다고 그 나무를.(어머니는 그 가시 수정에 잔정이 많다고 그 나무를.)

112029 @ 아, 게민 꼭 그 나무를 해야 되는 거?(아, 그럼 꼭 그 나무를 해야 되는 거?)

112029 #2 으, 원 나 세상 알앙보난 그 나문디 지금도 그 나무.(으, 원 내가 세상 알아보니까 그 나무인데 지금도 그 나무.)

112029 @ 지금도 그 나무?(지금도 그 나무?)

112029 #2 으. 겐디 장의사덜이 영 보면 그 나무를. 경 어디 영장 마튼 후제야
헤져? 많이 해당 놔뒤, 장의사덜. 해당 놔뒤야 영장 나민 탁 갖당 허지.(으. 그런데
장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나무를. 그렇게 어디 영장 말은 후에야 할 수 있어? 많
이 해다 놔뒤, 장의사들. 해다가 놔뒤야 장사 나면 탁 가져다 하지.)

112029 @ 아.(아.)

112029 #2 장의사덜이 많이 해당 놔뒤.(장의사들이 많이 해다가 놔뒤.)

112029 @ 거, 것도 잊지만, 방장대도 잊지만 영 절하젠 허민 집으로 영 돌돌돌
돌 말아 논 거, 건 뭐과.(거, 것도 있지만, 상장도 있지만 이렇게 절하려고 하면 짚
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놓은 거, 건 뭐입니까?)

112029 #2 어. 건 이제는 나륙쪽으로 허지만은 옛날엔 산뒤쪽이라고.(어. 건 이
제는 벗짚으로 하지만 옛날은 밭벗짚이라고.)

112029 @ 음.(음.)

112029 #2 거는 일름이 북심.(거는 이름이 짚동.)

112029 @ 북심.(짚동.)

112029 #2 원 그것도 변함엇어. 옛날 우리 킨 보난 북심 지금도 북심라. 거 헤
근에 그 막작 멧 막작 헤근에 허주게.(원 그것도 변함엇어. 옛날 우리 커서 보니까
짚동 지금도 짚동이야. 거 해서 그 마다 멧 마디 해서 하지.)

112029 @ 음.(음.)

112029 #2 겨난 사름 죽으면 건 드르에 강 헤질 일이나 능력 엇는 이웃집 하르
방덜은 그거 만들어 주고 신 삼아 주는 거.(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건 들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능력 엇는 이웃집 할아버지들은 그거 만들어 주고 신 삼아 주는
거.)

112029 @ 음.(음.)

112029 #2 동네 어른덜.(동네 어른들.)

112029 @ 케민 그 북심도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구나, 어른덜이?(그럼 그 짚동
도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구나, 어른들이?)

112029 #2 으, 아이고 젊은 사름덜은 헐 저르도 엇고 안 허지게. 저 하르방만이
헌 하르방.(으, 아이고 젊은 사람들은 할 겨를도 없고 안 하지. 저 할아버지만큼 한
할아버지.)

112029 @ 아.(아.)

112029 #2 건 북심.(건 짚동.)

112029 @ 그 북심은 무사 만드는 것과, 무사 영 밑에 놓는 것과?(그 짚동은 왜
만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밑에 놓는 겁니까?)

112029 #2 원 그 이유를 몰르크라. 그거 원 그거, 북심도 그거 딱 상주만 아덜
허고, 손지가 아덜 엇영 대표 가는 손지나 헤주고. 사위도 엇고.(원 그 이유를 모르
겠어. 그거 원 그거, 짚동도 그거 딱 상주만 아들하고, 손자가 아들 없어서 대표 가
는 손자나 해 주고. 사위도 없고.)

112029 @ 어.(어.)

112029 #2 사위도 없어.(사위도 없어.)

112029 @ 아덜만.(아들만.)

112029 #2 으, 아덜만 해 주는 거.(으, 아들만 해 주는 거.)

112029 @ 하나만 만드는 거 아니?(하나만 만드는 거 아니?)

112029 #2 아들이 네 개면 네 개.(아들이 네 개면 네 개.)

112029 @ 아, 네 개면 네 개.(아, 네 개면 네 개.)

112029 #2 다섯 개면 다섯 개, 하나면 하나.(다섯 개면 다섯 개, 하나면 하나.)

112029 @ 아, 그것도 여러 개 만드는구나.(아, 그것도 여러 개 만드는구나.)

112029 #2 이디이, 우리 아덜 다섯 개에 이디 헤나난 방장대 다섯 개, 사위 네 개난 사위는 방장대를 안 허고 저 왕대, 왕대 나무 말고 ㄹ는 대나무.(여기, 우리 아들 다섯 개에 여기 하나까 상장 다섯 개, 사위 네 개니까 사위는 상장 안 허고 저 왕대, 왕대 말고 가는 대나무.)

112029 @ 음.(음.)

112029 #2 사위는 그거. 그거난 사위 방장대, 아덜 거, 아덜 북심, 이 또 옷 아홉 사름 거 벗어 놓고 허민 방이 수빱.(사위는 그거. 그거니까 사위 상장, 아들 거, 아들 짚동, 이 또 옷 아홉 사름 거 벗어 놓고 하면 방이 가득.)

112029 @ 하하.(하하.)

112029 #2 침, 어느 때면 이삼 년을 넘어 이거 저 이디 북심, 방장대 수정 그때는 음력으로 초하루도 삭망.(침, 어느 때면 이삼 년을 넘어서 이거 저 여기 짚동, 상장 수정 그때는 음력으로 초하루도 삭망.)

112029 @ 아.(아.)

112029 #2 보름도 삭망 허민 그자 삭망 행 먹어지민 그 사름덜 팍팍 벗어불민 광광 해뵈 확확 데껴뵈 다 지네 갈 디 가불민 방에 들어강 보민 엉망이라이.(보름도 삭망 하면 그저 삭망 해서 먹으면 그 사람들 팍팍 벗어버리면 광광 해두고 던져두고 다 자기네 갈 데 가버리며 방에 들어가서 보면 엉망이야.)

112029 @ 아.(아.)

112029 #2 그거 허고 또 방엔 그대로느냐게, 상계 이추록 안 허영 큰 제사상계 싱그민게 그 상 아랜 죽은 어른 신이라 담배 재떨이라. 하이구 계민 또 하루 세끼 밥.(그거 하고 또 방에는 그대로니, 상 이렇게 안 하고 큰 제사상 차리면 그 상 아랜 죽은 어른 신이며 담배 재떨이며. 아이구, 그럼 또 하루 세끼 밥.)

112029 @ 상식 행 올리고.(상식 해서 올리고.)

112029 #2 경허단 츄츄 츄츄 헨에 삼시 허고 초하루, 보름 허단 이젠 소상만 헨에 이젠.(그러다가 차차 차차 해서 삼시 하고 초하루, 보름 하다가 이젠 소상만 해서 이제.)

112029 @ 음.(음.)

112029 #2 저 소상 안 허영 대상만 헤 가단 이젠 보름은 안 헨에 초하루만 헤

가단 이젠 말젠 초하루도 안 허고 막 쉬운 대로 츠츠헤 가는 게 이때가 돼서.(저 소상 안 하고 대상만 해 가다가 이젠 보름은 안 하고 초하루만 하다가 이젠 나중엔 초하루도 안 하고 아주 쉬운 대로 차차 해 가는 게 이때가 됐어.)

112027 @ 게민, 아까 물을 때 관 놓잖아예. 관 놓을 때 판때기도 밑에 깔고 판대기 덮지 안 험니까?(그럼, 아까 물을 때 관 놓잖아요. 관 놓을 때 판때기도 밑에 깔고 판대기 덮지 안 험니까?)

112027 #2 판때기 깔진 안 허고.(판때기 깔진 않고.)

112027 @ 우이 덮어?(위에 덮어?)

112027 #2 으.(으.)

112027 @ 그 판때기 뭐렌 골아?(그 판때기 뭐라고 해?)

112027 #2 개판.(횡대.)

112027 @ 아, 개판.(아, 횡대.)

112027 #2 아랜 막 맨짝허게 고양 이디 불른 방거치 관 판대기 놀 디 청소를 허는데 땅이 안 좋양 사슬사슬 땅이 허면은.(아랜 아주 미끈하게 고이 여기 바른 방 같이 관 판때기 놓을 데 청소를 하는데 땅이 안 좋아서 가슬가슬 땅이 하면.)

112027 @ 음.(음.)

112027 #2 좋은 흙 가근에 파다근에.(좋은 흙 가서 파다가.)

112027 @ 음.(음.)

112027 #2 그디 파 낱 그레 담양 막 다져 가지고 맨작허게 헤근에 관만. 그것도 기술이, 기계로 안 해도 관 들어가면 쪼그만이 틈도 엇고 뭐 들어가도 안 허고 딱 맞게 들어가는 디 만들양 관 들여놓민 위이 이추록 현 거 아저단 그 관 기러기에 저, 그건 숫자 맞지 안 해도 좋아.(거기 파 놓고 그리 답아서 아주 다져 가지고 매 끈하게 해서 관만. 그것도 기술이, 기계로 안 해도 관 들어가면 조금만 틈도 없고 뭐 들어가도 앓고 딱 맞게 들어가는 데 만들어서 관 들여놓으면 위에 이렇게 한 거 가져다가 그 관 길이로 저, 그건 숫자 맞지 앓아도 좋아.)

112027 @ 음.(음.)

112027 #2 영영 놓는디 널이 넓으면 멧 개 안 허고 좁으면 이디 딱 맞추왕 일 번, 이 번 허명 맞추왕 해 낱 딱 딱 맞게 헤근에 그레 허는 게 개판.(이렇게 이렇게 놓는데 널이 넓으면 멧 개 안 하고 좁으면 여기 딱 맞춰서 일 번, 이 번 하면서 맞춰서 해 놓고 딱 딱 맞게 해서 그리 하는 게 횡대.)

112027 @ 개판. 그 개판도 관 만들 때 ㄴ치 만드는 거여수과?(횡대. 그 횡대도 관 만들 때 같이 만드는 겁니까?)

112027 #2 개판도게 여유가 이시민 개판도 허영 놔뒤 집이, 어른이.(횡대도 여유가 있으면 횡대도 해서 놔뒤 집에, 어른이.)

112027 @ 아.(아.)

112027 #2 여유 엇이민 죽은 후제. 그 개판 푸는 사람도 있어.(여유 없으면 죽은 후에. 그 횡대 파는 사람도 있어.)

112027 @ 으. 계란 그 개판이랑 관 만들 때 무슨 낭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있
수과?(으. 그러니까 그 횡대랑 관 만들 때 무슨 나무로 해야 된다 그것도 있습니
까?)

112027 #2 으.(으.)

112027 @ 무슨 낭으로 해?(무슨 나무로 해?)

112027 #2 잘사는 사람은 좋은 낭으로.(잘사는 사람은 좋은 나무로.)

112027 @ 좋은 나무가 어떤 낭이라?(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야?)

112027 #2 잘사는 사람은 개판도 옛날에 켈 일등 잘사는 사람은 오동나무로 해
나고.(잘사는 사람은 횡대도 옛날에 켈 일등 잘사는 사람은 오동나무로 했었어.)

112027 @ 음.(음.)

112027 #2 그 다음엔 이제 츠츠츠 헨 못 살아가는 사람은 소낭도 하고. 또 관은
대충 소나무.(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 해서 못 살아가는 사람은 소나무도 하고. 또
관은 대충 소나무.)

112027 @ 아, 소나무.(아, 소나무.)

112027 #2 관은 그런 소나무 아니면 그런 너른 낭이 엇지. 경 넓게 못 허지게.
(관은 그런 소나무 아니면 그런 넓은 나무가 없지. 그렇게 넓게 못 하지.)

112027 @ 넓은 게 필요하니까?(넓은 게 필요하니까?)

112027 #2 관은 대충 다 소나무고 그 우에 더프는 건 아주 치레하는 사람은 오
동나무로도 하고 또 그러지 안 허면 저밤낭이라고 그런 낭으로도 하고.(관은 대충
다 소나무고 그 위에 덮는 건 아주 치레하는 사람은 오동나무로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구실жат밤나무라고 그런 나무로도 하고.)

112027 @ 저밤낭?(구실жат밤나무?)

112027 #2 으. 이제 소낭으로도 하고 그건 자기가 능력에 맞춰.(으. 이제 소나무
로도 하고 그건 자기가 능력에 맞춰서.)

112030 @ 예, 관도 마련했고 이제 북심도 마련했고. 두건이랑 복치멘마쌈?(예,
관도 마련했고 이제 짚동도 마련했고. 두건이랑 복치마는요?)

112030 #2 게 두건은 상제도 쓰고 일가 친족도 쓰꼭 허는 거난 두건은 옷 만들
때 ㄱ치 만들주게.(두건은 상제도 쓰고 일가 친족도 쓰고 하는 거니까 두건은 옷 만
들 때 같이 만들지.)

112030 @ 으, 옷 만들 때.(으, 옷 만들 때.)

112030 #2 만드는 식만 좀 틀려. 상주 거 허고 복친 거 허고.(만드는 식만 좀
틀려. 상주 거 하고 복친 거 하고.)

112030 @ 으.(으.)

112030 #2 식은 조금 틀린데 옷 만들 때 만들어야 관에 담아근에 쳇 번 제.(식
은 조금 틀린데 옷 만들 때 만들어야 관에 담아서 쳇 번 제.)

112030 @ 복치메도 ㄱ치 만들고.(복치마도 같이 만들고.)

112030 #2 복치메나 우에 거나 다 ㄱ찌.(복치마나 위에 거나 다 같이.)

112030 @ 계민 그 두건이나 복치메들은 친척들 몇 촌까지 영 놔 줘니까?(그럼 그 두건이나 복치메들은 친척들 몇 촌까지 이렇게 나눠 줘니까?)

112030 #2 건 본인의 능력에 맞춰. 이시민 먼 친척도 다 주고 엇으른 가까운 친척만 주고. 어떤 시대는 수건을 주는데 메느리는 배수건을 주고.(건 본인의 능력에 맞춰서. 있으면 먼 친척도 다 주고 없으면 가까운 친척만 주고. 어떤 시대는 수건을 주는데 며느리는 배수건을 주고.)

112030 @ 으.(으.)

112030 #2 딸은 광목 수건을 줬어.(딸은 광목 수건을 줬었어.)

112030 @ 하하. 아, 생각남수다 그거는.(하하. 아, 생각나네요, 그거는.)

112030 #2 어. 참, 저 수건도 경혜영계 그때, 그때 관에 담은 후에 성복제 할 때는 상주 옷 입어가면 두건도 주고 수건도 주꼭 다 찰려 입어야 제를 지내는 거난. 두건도 일가 친족 두건 다 쓰고.(어. 참, 저 수건도 그래서 그때, 그때 관에 담은 후에 성복제 할 때는 상주 옷 입어가면 두건도 주고 수건도 주고 다 차려 입어야 제를 지내는 거니까. 두건도 일가 친족 두건 다 쓰고.)

112030 @ 아, 계민 그 능력에 맞게 나눠주는 거는 돌아가시면은 누구 누구 누구 줘야겠다 다 영 수정을 세 보는 거구나. 그거 만들젠 허민.(아, 그럼 그 능력에 맞게 나눠주는 거는 돌아가시면 누구 누구 누구 줘야겠다 다 이렇게 수를 세어 보는 거구나. 그거 만들려고 하면.)

112030 #2 하이고, 세곡말곡계.(아이고, 세고말고.)

112030 @ 하하.(하하.)

112030 #2 세곡말곡.(세고말고.)

112030 @ 음.(음.)

112030 #2 경혜영 멧 개썸 수건 할 거 그트민 베가 혼 질이면 수건이 멧 개 난다.(그래서 멧 개썸 수건 할 거 같으면 베가 한 질이면 수건이 멧 개 나온다.)

112030 @ 예.(예.)

112030 #2 베 멧 빌만 사 오라.(베 멧 빌만 사 와라.)

112030 @ 음.(음.)

112030 #2 또 이제 그 광목도 하나면 얼만이가 돼민, 광목도 얼만이만 사 오라. 여기서 저 사례 가는 사람은 거기 가도 멧 자 멧 자 알곡 우선 젊영, 경 황당한 사람은 못 가주. 허민 이디 할머니 또 친족 할망덜이 잇주. 옛 할망덜 앓아뉘서 또 이디 무끄는 거 띠허고 요디 끼우는 것도 잇주, 요디.(또 이제 그 광목도 하나면 어느만큼이 되면, 광목도 어느 만큼만 사 와라. 여기서 저 사례 가는 사람은 거기 가도 멧 자 멧 자 알고 우선 젊어서, 그렇게 황당한 사람은 못 가지. 그럼 여기 할머니 또 친족 할머니들이 있지. 옛 할머니들 앓아 있으면서 또 여기 묶는 거 띠하고 여기 끼우는 것도 있어, 여기.)

112030 @ 이거 뭐, 남자 어른덜예?(이거 뭐, 남자 어른들요?)

112030 #2 행경이라고.(행전이라고.)

112030 @ 행경.(행전)

112030 #2 딱 사름이 죽으면 행경이 몇 개 해야겠다.(딱 사람이 죽으면 행전이 몇 개 해야겠다.)

112030 @ 으.(으.)

112030 #2 친족, 브딘 친족은 행경허고 허리띠허고 주주게.(친족, 가까운 친족은 행전하고 허리띠하고 주지.)

112030 @ 아, 두건만 주는 게 아니고?(아, 두건만 주는 게 아니고?)

112030 #2 두건은 아무나 주고.(두건은 아무나 주고.)

112030 @ 아무나 주고.(아무나 주고.)

112030 #2 이 허리띠 넓주룽헌 허리띠허고 요, 요디 무끄는 건 막 브디게 이디 제 지낼 때 잔 허는 사름.(이 허리띠 넓은 허리띠하고 여, 여기 묶는 건 아주 가까운 여기 제 지낼 때 잔 하는 사람.)

112030 @ 몇 촌까지라, 그런 사람은?(몇 촌까지야, 그런 사람은?)

112030 #2 그건이 보통 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시아주방 아덜네.(그건 보통 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시아주버니 아덜네.)

112030 @ 아.(아.)

112030 #2 이제 경헨 주난.(이제 그렇게 주니까.)

112030 @ 조캐들.(조카들.)

112030 #2 어. 딱 영장이 나면은 이디 앓은, 할망덜은 왕 이디 앓주게.(어. 딱 장사가 나면 여기 앓은, 할머니들은 와서 여기 앓아.)

112030 @ 으.(으.)

112030 #2 앓은 할망덜이 두건, 행경은 몇 배, 띠는 몇 배 해살 거여. 그것도 다 경헤근에.(앓는 할머니들이 두건, 행전은 몇 배, 띠는 몇 배 해야 할 거야. 그것도 다 그렇게 해서.)

112030 @ 아.(아.)

112030 #2 옷 말라 가민 띠도 몇 개여, 행경 몇 개여, 수건 몇 개, 두건 뭐 쉰 개여 욱십 개여 막 헤가는 거주.(옷 말라 가면 띠도 몇 개야, 행전 몇 개야, 수건 몇 개, 두건 뭐 쉰 개야, 욱십 개야 하는 거지.)

112030 @ 게민 잘사는 사름덜은 경 몇 촌까지 두건덜을 헤낫수과?(그럼 잘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촌까지 두건들을 했었습니까?)

112030 #2 그때 잘사는 사름덜은이 상제 친목도 막 옛날은 쥐나고 이젠 경허당 글후제 또 시대가 바짜전에 이제. 막 어려운 시대 헤가단 좋은 시대 나난 이제 원 촌수 엇이 다 주더라고.(그때 잘사는 사람들은 상제 친목도 아주 옛날은 쫓었고 이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아주 어려운 시대 하다가 좋은 시대 되니까 이젠 원 촌수 없이 다 주더라고.)

112030 @ 아, 동네 사름도 주고?(아, 동네 사람도 주고?)

112030 #2 아니, 동네 사름은 안 주고 우리 친족에.(아니, 동네 사름은 안 주고

우리 친족에.)

112030 @ 친족에 촌수 엇이.(친족에 촌수 없이.)

112030 #2 으. 멀어도. 전인 멀민 안 주단 멀어도.(으. 멀어도. 전엔 멀면 안 주다가 멀어도.)

112030 @ 음.(음.)

112030 #2 아주 밥 기리울 땐 먼 사름은 안 주고. 계난 밥 먹어져가난 먼 사름 보던 사름 엇이 우리가 고썬디 우리 고씨덜 조문 온 사름은 다 주더라고.(아주 밥이 그리울 땐 먼 사름은 안 주고.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먼 사름, 가까운 사름 없이 우리가 고씨인데 우리 고씨들 조문 온 사름은 다 주더라고.)

112030 @ 음.(음.)

112030 #2 계난 나도.(그러니까 나도.)

112030 @ 밥 먹어져 가난 현 건 잘살아져 가난?(밥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한 건 잘살아져 가니까?)

112030 #2 으. 그때 밥 기릴 때는 막 그걸 따졌는디.(으. 그때 밥 그리울 때는 아주 그걸 따졌는데.)

112030 @ 예.(예.)

112030 #2 경해서.(그래서.)

112030 @ 경 나눠줬던 거. 복치메도 경 나눠줍니까? 몇 촌까지 복치메는?(그렇게 나눠 줬던 거. 복치마도 그렇게 나눠줍니까? 몇 촌까지 복치마는?)

112030 #2 복치메는 단 상제.(복치마는 단 상제.)

112030 @ 단 상제.(단 상제.)

112030 #2 베로 막 잘사는 사름은 해도 잘 못 사는 사름은 우리 베로 해근에 메누리허곡 딸이 입으면은 손지는 광목으로 해 주고.(베로 아주 잘사는 사름은 해도 잘 못사는 사름은 우리 베로 해서 며느리하고 딸이 입으면 손지는 광목으로 해 주고.)

112030 @ 으.(으.)

112030 #2 복치메는 어디 가서 딸이 가서 죽어볼면은 딸 대표로 온 사름이나 해 주주. 복치메는 아무 상 엇이 안 해 줘.(복치마는 어디 가서 딸이 가서 죽어버리면 딸 대표로 온 사름이나 해 주지. 복치마는 이유 없이 안 해 줘.)

112030 @ 아.(아.)

112030 #2 그 우이 입는 이런 것도 아무 상 엇이 안 주고.(그 위에 입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안 주고.)

112030 @ 예.(예.)

112030 #2 그땐 아무 상 엇이 안 주는 거. 이걸 입으면은 입은 값을 해난 때문 에.(그땐 이유 없이 안 주는 거. 이걸 입으면 입은 값을 하는 때문에.)

112030 @ 그게 상제인 거예?(그게 상제인 거요?)

112030 #2 으, 경 현 때문 부담 정.(으, 그런 때문 부담 돼서.)

112030 @ 아, 부담 경?(아, 부담 돼서?)

112030 #2 으, 입은 사람도 말젠 허고 준 사람도 아이고, 그거 입으면 안 된다.
(으, 입은 사람도 말려고 하고 준 사람도 아이고, 그거 입으면 안 된다.)

112030 @ 옛날에 경 여자덜인 경우에는 광목으로 행 몸빼처럼도 입지 안 헛수
과?(옛날에 그렇게 여자들인 경우에는 광목으로 해서 일 바지처럼도 입지 않았습니
까?)

112030 #2 지금 입주, 지금.(지금 입주, 지금.)

112030 @ 지금 입는 형태.(지금 입는 형태.)

112030 #2 지금은 그자 몸빼가 복이라.(지금은 그저 일 바지가 복이야.)

112030 @ 아.(아.)

112030 #2 우리도 시집이 가도 이 수건은 안 쥐도 이 몸빼로.(우리도 시집이 가
도 이 수건은 안 쥐도 이 일 바지로.)

112030 @ 게민 그 몸빼라는 게 옛날서부터 몸빼가 아니라서?(그럼 그 일 바지
라는 게 옛날에서부터 일 바지가 아니었어?)

112030 #2 아니, 아니. 요즘, 요즘가 불과 몇 년.(아니, 아니. 요즘, 요즘이. 불과
몇 년.)

112030 @ 음.(음.)

112030 #2 그때 맨, 예전에 상제가 치마를 입으난에 이 치마 가랭이로 속이 뒀
허난 상제만 사단 입었어이.(그때 맨, 예전에 상제가 치마를 입으니까 이 치마 가랑
이로 속이 뒀 하니까 상제만 사다가 입었어.)

112030 @ 음.(음.)

112030 #2 치메 속에 보기 좋게. 사단 입단에 손지도 주꼭 조케도 주꼭 친족이
영 흐끔 흐끔 주단에 이제 그것이 다 널러져벤. 이젠 그것이 복.(치마 속에 보기 좋
게. 사다가 입다가 손자도 주고 조카도 주고 친족이 이렇게 조금 주다가 이제 그
것이 다 흔해졌어. 이젠 그것이 복.)

112030 @ 음. 이젠 복치메 안 해?(음. 이젠 복치마 안 해?)

112030 #2 아니, 복치메는 허는디 친족 간 수건, 베수건 그걸로.(아니, 복치마는
하는데 친족 간 수건, 베수건 그걸로.)

112030 @ 음, 베수건 대신?(음, 베수건 대신?)

112030 #2 으.(으.)

112031 @ 그 상 나면 팔, 핏죽을 허잖아예?(그 상 나면 팔, 팔죽을 하잖아요?)

112031 #2 으.(으.)

112031 @ 핏죽은 언제 누게가 행 오는 것과?(팔죽은 언제 누가 해서 오는 겁니
까?)

112031 #2 사둔게.(사돈)

112031 @ 사돈이? 언제 행 와?(사돈이? 언제 해서 와?)

112031 #2 그건 이 무꿀 때.(그건 이 뭉을 때.)

112031 @ 음.(음.)

112031 #2 관에 담음 전에.(관에 담기 전에.)

112031 @ 계민 돌아가시자마자자인게?(그럼 돌아가시자마자이네?)

112031 #2 으.(으.)

112031 @ 목욕시키고 나서 이제 옷 입히고, 호상옷 입히고.(목욕시키고 나서 이제 옷 입히고, 수의 입히고.)

112031 #2 계난 그 팻죽은 어떠허연 먹느냐. 계난 그 팻죽은이 저 옛날에 의미를 말허면, 죽으면 밥할 저르가 엇어.(그러니까 그 팻죽은 어떻게 해서 먹느냐. 그러니까 그 팻죽은 저 옛날에 의미를 말허면, 죽으면 밥할 겨를이 없어.)

112031 @ 으.(으.)

112031 #2 계난 죽으로 먹나 해서 죽엇젠 허면 그 혼 불를 때에 관 짜는 날 죽을 썬 오라사 관 짜는 사름덜도 먹곡. 여기 영장 나민 이 방 소박 앗앙 옷을 허주게.(그러니까 죽으로 먹는다 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혼 부를 때에 관 짜는 날 죽을 썬서 와야 관 짜는 사람들도 먹고. 여기 장사 나면 이 방 가득 앗아서 옷을 하지.)

112031 @ 음.(음.)

112031 #2 바느질허는 사름덜도 먹곡 허민 그 관 짜는 사름덜도 먹곡 허주게. 겐 관에 담은 후엔 안 먹어.(바느질하는 사람들도 먹고 하면 그 관 짜는 사람들도 먹고 하지. 그래서 관에 담은 후엔 안 먹어.)

112031 @ 음.(음.)

112031 #2 관에 담음 전에만 먹어사.(관에 담기 전에만 먹어야.)

112031 @ 음.(음.)

112031 #2 계난 메누리 어명도 썬 오고 딸 시어명도 썬 오고.(그러니까 며느리 어머니도 썬 오고 딸 시어머니도 썬 오고.)

112031 @ 아, 어느 사돈이 썬 오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아, 어느 사돈이 썬 오는 거 정해져 있는 거 아니?)

112031 #2 아니주게.(아니지.)

112031 @ 어쨌든 사돈이?(어쨌든 사돈이?)

112031 #2 사돈만.(사돈만.)

112031 @ 사돈만.(사돈만.)

112031 #2 할 수 엇이 사돈도 하나도 엇고 죽이 너무 혼 통도 엇이민 썬썬할 경우에는 그자 일가에서도 혼 허벅 썬다근에 허고. 계난 사름이 엇으민 집이서 팻죽을 못 썬도 썬만 놓이라도 썬.(할 수 없이 사돈도 하나도 없고 죽이 너무 한 통도 없으면 썬썬할 경우에는 그자 일가에서도 한 허벅 썬다가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집에서 팻죽을 못 썬도 썬만 놓어서라도 썬.)

112031 @ 음.(음.)

112031 #2 그 옛날에는이. 저 관에 담음 시에는 밥을 안 먹어낫주게. 겐디 이젠.(그 옛날에는. 저 관에 담기 전에는 밥을 안 먹엇엇어. 그런데 이젠.)

112031 @ 밥 먹으면 안 되는 거?(밥 먹으면 안 되는 거?)

112031 #2 옛날에 안 먹단에 이젠 예산 먹어붙어. 예산 밥도 먹고 죽도 먹고 다 먹어붙어.(옛날에 안 먹다가 이젠 예사롭게 먹어. 예사롭게 밥도 먹고 죽도 먹고 다 먹어.)

112031 @ 계민 밥은 무사 먹지 말렌 헛 것과, 옛날에?(그럼 밥은 왜 먹지 말라고 헛 것과, 옛날에?)

112031 #2 급허연게.(급해서.)

112031 @ 아, 급허영.(아, 급해서.)

112031 #2 계난에.(그러니까.)

112031 @ 차령 먹을 뉘 새가 엇영?(차려서 먹을 뉘 틈이 없어서?)

112031 #2 상주가 그 죽으면, 그 무끄면 관에 담음 새에 이 두루막도 입는데 이 헛 착만 입어근에 헛 착은 영, 곰만 메영.(상주가 그 죽으면, 그 묶으면 관에 담는 새에 이 두루마기도 입는데 이 한 쪽만 입어서 한 쪽은 이렇게, 고름만 매고.)

112031 @ 하하.(하하.)

112031 #2 의미를 말허면 두 착 켈 시간이 엇다 이거라.(의미를 말하면 두 착 켈 시간이 엇다 이거야.)

112031 @ 아.(아.)

112031 #2 이 두 팔 켈 시간이 엇어. 겐 상젠 이렇게 이렇게 허고. 베 헤영 가지고 저 천 헤영 가지고 사우도 말고 아덜만 무끄면 관에 담은 새에 두건만이 헛 천을 머리에 둘러. 둘러는데 그 두건도 만들 새가 엇다 해서 이렇게 둘러서 끄네기로 무껴.(이 두 팔 켈 시간이 엇어. 그래서 상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베 해서 저 천 해 가지고 사위도 말고 아들만 묶으면 관에 담은 새에 두건만큼 한 천을 머리에 둘러. 두르는데 그 두건도 만들 틈이 엇다 해서 이렇게 두르고 끈으로 묶어.)

112031 @ 아.(아.)

112031 #2 이 옷도 헛 착만 입곡. 왜 밥도 먹을 새도 엇이 죽으로 먹곡. 의미가 그거.(이 옷도 한 쪽만 입고. 왜 밥도 먹을 틈이 엇이 죽으로 먹고. 의미가 그거.)

112031 @ 아.(아.)

112031 #2 바빠 가지고.(바빠 가지고.)

112031 @ 바빠서. 일 준비허젠 허난.(바빠서. 일 준비하려고 하니까.)

112031 #2 으, 겨난 이 풀도 헛 착베긴 못 끼우는 거라. 헛 착만 영 영. 그 베를 이렇게 머리에 들렀다가 관에 담아서 이제 제 허젠 허민 확 벗겨근에 바놓으로 두건 만들아근에 상제 썩와.(으, 그러니까 이 팔도 한 쪽밖에 못 끼우는 거야. 한 쪽만 이렇게 이렇게. 그 베를 이렇게 머리에 들렀다가 관에 담아서 이제 제 하려고 하면 확 벗겨서 바늘로 두건 만들어서 상제 썩워.)

112031 @ 으.(으.)

112031 #2 옛날에 경.(옛날에 그렇게.)

112031 @ 계민 풋죽은 사돈이 어디에 담양 와났수과?(그럼 팔죽은 사돈이 어디

에 담고 왔습니까?)

112031 #2 어?(어?)

112031 @ 어디에 담양 와난? 들렁 올 때는?(어디에 담고 왔어요? 들고 올 때는?)

112031 #2 허벅.(허벅.)

112031 @ 허벅예.(허벅요.)

112031 #2 허벅, 허벅.(허벅, 허벅.)

112031 @ 하하.(하하.)

112031 #2 허벅에 알아 맞춰 할할하게 헤영 쭈영 오민 허주만은 먹을 만이 쭈영 허벅에 담양 오민 비와져? 물 질멍 코쟁이로 숙대기멍 헤사 비와근에. 허벅에. 지금은 뭐 통에 담양 허민 뭐.(허벅에 알아 맞춰서 ‘할할’하게 해서 쭈서 오면 하지만 먹을 만큼 쭈서 허벅에 담아서 오면 비워져? 물 길면서 뽀족한 것으로 쭈시면서 해야 비워서. 허벅에. 지금은 뭐 통에 담아서 하면 뭐.)

112031 @ 예.(예.)

112031 #2 저디 강 풋죽 딱 맞추민 칠만 원 받으민 무신 통에 딱 담양 아저다 주주.(저기 가서 팔죽 딱 맞추면 칠만 원 받으면 무슨 통에 딱 담아서 가져다 주지.)

112031 @ 이젠 맞춰 풋죽 가정 와?(이젠 맞춰서 팔죽 가져 와?)

112031 #2 살기 얼마이 편허니, 풋죽 다 맞춰서. 안 쭈.(살기 얼마나 편하니, 팔죽 다 맞추고 있어. 안 쭈.)

112031 @ 하하하.(하하하.)

112031 #2 옛날 허벅에.(옛날 허벅에.)

112031 @ 게민 허벅에 혼 허벅이민 똤는 거라?(그럼 허벅에 한 허벅이면 되는 거야?)

112031 #2 어떤 사돈은 잘 헛젠 헛 말 듣젠 허벅을 두 개 담아서.(어떤 사돈은 잘 했다는 말 들으려고 허벅을 두 개 담아서.)

112031 @ 으.(으.)

112031 #2 여기서 ㄱ트민 아멩헤도 저 표선이나 어디 성읍리 쭈이나 멀면은.(여기서 같으면 아무래도 저 표선이나 어디 성읍리 쭈이나 멀면.)

112031 @ 음.(음)

112031 #2 큰 소에다가 혼 착에 혼 허벅씩 시꺼아저근에 소 이껍 와.(큰 소에다가 한 짝에 한 허벅씩 실어서 소를 끌고 와.)

112031 @ 하하.(하하.)

112031 #2 두 허벅은 헤서. 그렇게 허는디.(두 허벅은 헤서. 그렇게 하는데.)

112031 @ 으.(으.)

112031 #2 멀면, 또 웨만헌 딴 혼 허벅 지영도 오곡 가까운 디선, 부자로 잘사는 사돈은 혼 허벅 갖고는 부족헌다 허영 허곡 또 혼 허벅이라도 뜬 사돈 헛 온 거

행 겹쳐 먹으면 부족도 안 허영. 또 흔 허벅으로도 먹고.(멀면, 또 웬만한 덴 한 허벅 지고도 오고 가까운 데선, 부자로 잘사는 사돈은 한 허벅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하고 또 한 허벅이라도 다른 사돈이 해 온 거 해서 겹쳐서 먹으면 부족도 안 해. 또 한 허벅으로도 먹고.)

112031 @ 으.(으.)

112031 #2 막 잘 헛젠 말 듣젠 허민 두 허벅.(아주 잘 했다는 말 들으려고 하면 두 허벅.)

112031 @ 두 허벅, 잘 헛젠 허민 두 허벅예?(두 허벅, 잘 했다고 하면 두 허벅요?)

112031 #2 으, 으.(으, 으.)

112032 @ 그 이제는 성복제 물어보쿠다예, 성복제.(그 이제는 성복제 물어보겠습니다, 성복제.)

112032 #2 으.(으.)

112032 @ 그민 이제 옷 입형 입관행. 입관행.(그럼 이제 옷 입혀서 입관해서. 입관해서.)

112032 #2 입관혜영 옷을 입주.(입관해서 옷을 입지.)

112032 @ 입관혜영 옷을 입어?(입관해서 옷을 입어?)

112032 #2 으.(으.)

112032 @ 젠 이제 제 지내는 게 성복제과, 성복제 곶아 줍서.(그래서 이제 제 지내는 게 성복제입니까, 성복제 말해 주세요.)

112032 #2 성복제는 옛날 어른덜 말이 성복제에 상에 못 올린 건 삼 년에 아무 것도 못 올린덴. 암만 어려워도 성복제에 기본은 다 해.(성복제는 옛날 어른들 말이 성복제에 상에 못 올린 건 삼 년에 아무 것도 못 올린다고. 암만 어려워도 성복제에 기본은 다 해.)

112032 @ 아.(아.)

112032 #2 떡도 성복제에 못 헌 건 대소상 때도 잘 살아저도 못 헌덴.(떡도 성복제에 못 한 건 대소상 때도 잘 살아도 못 한다고.)

112032 @ 아.(아.)

112032 #2 아맹해도 죽영 해도 기본은 다 해.(아무리 적게 해도 기본은 다 해.)

112032 @ 계민 종류별로 다 해야 되는 거?(그럼 종류별로 다 해야 되는 거?)

112032 #2 어. 다 해야 돼여.(어. 다 해야 돼.)

112032 @ 떡 어떤 떡을 헛수과?(떡 어떤 떡을 헛습니까?)

112032 #2 게, 솔편.(게, 솔편.)

112032 @ 으.(으.)

112032 #2 동글랑 그, 솔편은 들 반착.(동그란 그, 솔편은 달 반쪽.)

112032 @ 예.(예.)

112032 #2 젠 동글랑헌 거영. 네모난.(그래서 동그란 거와. 네모난.)

112032 @ 시리는?(시루는?)
112032 #2 시리도 만들어야주게.(시루도 만들어야지.)
112032 @ 시리도 만들고예?(시루도 만들고요?)
112032 #2 으.(으.)
112032 @ 솔편.(솔편.)
112032 #2 절편.(절편.)
112032 @ 절편.(절편.)
112032 #2 또 네 귀 나온 건 인절미.(또 네 귀 나온 건 인절미.)
112032 @ 인절미.(인절미.)
112032 #2 또 벨떡 그 위에 놓는 건 우짖.(또 벨떡 그 위에 놓는 건 ‘우짖’.)
112032 @ 우짖.(‘우짖’.)
112032 #2 우에다 놓는 거라고 우짖.(위에다 놓는 거라고 ‘우짖’.)
112032 @ 옛날에도 시리렌 불러났수과, 곱아났수과?(옛날에도 ‘시리’라고 불렀습니까, 말했습니까?)
112032 #2 으, 옛날에나 이제나 원 시리.(으, 옛날에나 이제나 원 ‘시리’.)
112032 @ 시리. 켜 맨 밑에 시리 놓고 그 다음?(‘시리’. 그래서 맨 밑에 시루 놓고 그 다음?)
112032 #2 그 다음은 저 인절미.(그 다음은 저 인절미.)
112032 @ 인절미 놓고.(인절미 놓고.)
112032 #2 두 번찬 절편.(두 번째 절편.)
112032 @ 으.(으.)
112032 #2 세 번찬 들 반착 솔편.(세 번째 달 반쪽 솔편.)
112032 @ 으.(으.)
112032 #2 맨 우에는 그 우짖이라고 벨떡.(맨 위에는 그 웃기떡이라고 벨떡.)
112032 @ 켜 다섯 개를 올리는 거?(그렇게 다섯 개를 올리는 거?)
112032 #2 으.(으.)
112032 @ 솔편을 들 반착이렌 곱은 거?(솔편을 달 반쪽이라고 말한 거?)
112032 #2 으.(으.)
112032 @ 들 반찬이렌 곱은 거예?(달 반쪽이라고 말한 거요?)
112032 #2 계난 또 그디, 그디 옛날식으로 허민 아주 옛날엔 우짖이라고 길쭉하게 요만이 떡 요만은 허게 허영 그거는 저 튀겨. 그건 기름에 튀기고 또 약래라고 해서 저 그 길쭉한 건 중래.(그러니까 또 거기, 거기 옛날식으로 하면 아주 옛날엔 웃기떡이라고 길쭉하게 요만큼 요만큼은 하게 해서 그거는 저 튀겨. 그건 기름에 튀기고 또 약래라고 해서 저 그 길쭉한 건 중래.)
112032 @ 으. 이름이 중래고.(으. 이름이 중래고.)
112032 #2 또 약래 또 이만이 현 거. 계민 말이 아이고, 잘 출렛어라. 중래 약래 허고 과질 절상허고. 요새 푸는 과질.(또 약래 또 이만큼 한 거. 그럼 말이 아이고,

잘 차렸더라. 중궤 약궤 하고 과줄 올리고. 요새 꺾는 과줄.)

112032 @ 예.(예.)

112032 #2 그건 옛날이나 이제나 이만이 헛 거 막 좋은 것덜이 잇주게. 게난 옛날은 아무나 못 허여. 게민 아이고, 그 집이 중궤, 약궤 허고 과질 절상허고 잘 출려서라.(그건 옛날이나 이제나 이만큼 한 거 막 좋은 것들이 있지. 그러니까 옛날은 아무나 못 해. 그럼 아이고, 그 집에 중궤, 약궤 하고 과줄 올리고 잘 차렸더라.)

112032 @ 으.(으.)

112032 #2 옛날엔 경 곱아낫주.(옛날에 그렇게 말했었어.)

112032 @ 으.(으.)

112032 #2 경허영 그거 다 저 막 잘, 저 성복제는이 일포도 허기 전이난 막 바쁘주게.(그래서 그거 다 저 아주 잘, 저 성복제는 ‘일포’도 하기 전이니까 아주 바쁘지.)

112032 @ 예.(예.)

112032 #2 바쁘곡 허민 잘 허진 못허여. 경해도 서눔은 다 헤사.(바쁘고 하면 잘 하진 못해. 그래도 시눔은 다 해야.)

112032 @ 아.(아.)

112032 #2 서눔은 다 헤사 흥뽀 숨 쉬여정 대소상 헐 때엔 잘 출리고저 해도 성복제에 안 허민 못 헐 거난.(시눔은 다 해야 조금 숨 쉴 수 있어서 대소상 할 때엔 잘 차리고자 해도 성복제에 안 하면 못할 거니까.)

112032 @ 음.(음.)

112032 #2 허는 서눔은 다 헛주.(하는 시눔은 다 헛지.)

112032 @ 게민 과일은 어떤 과일들?(그럼 과일은 어떤 과일들?)

112032 #2 과일은게 저 철에 딱랑게. 요즘처럼 과일이 좋아?(과일은 저 철에 따라서. 요즘처럼 과일이 좋아?)

112032 @ 예.(예.)

112032 #2 게난에 그 과일은 저 지금 막 보기에 좋젠 저 하영 올림주.(그러니까 그 과일은 저 지금 아주 보기에 좋으라고 저 많이 올리고 있지.)

112032 @ 으.(으.)

112032 #2 보통 세 개 올려도 좋아. 세 개 올려도 좋곡.(보통 세 개 올려도 좋아. 세 개 올려도 좋고.)

112032 @ 으.(으.)

112032 #2 이제 하영 보기 좋게, 일포날은게 손님덜 왕 절허젠 허민 보기 좋게 올리난 털어지난 영 이썬시개로 궤명 막 높이 높이 올리는 건디 그거는 그자 세 개만 올려도 좋난, 세 가지 올려도 좋고.(이제 많이 보기 좋게, ‘일포’는 손님들 와서 절하려고 하면 보기 좋게 올리니까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썬시개로 궤서 아주 높이 높이 올리는 건데 그거는 그저 세 개만 올려도 좋으니까, 세 가지 올려도 좋고.)

112032 @ 음.(음.)

112032 #2 배하고 사과하고. 건 옛날부터 배 사과는 잇는 거니까. 또 귤은 아주 옛날에는 이런 나쓰미깡³⁵¹. 것도 귤이난 그런 것도.(배하고 사과하고. 건 옛날부터 배, 사과는 잇는 거니까. 또 귤은 아주 옛날에는 이런 하귤. 것도 귤이니까 그런 것도.)

112032 @ 집에 싱거 잇는 거?(집에 심어 잇는 거?)

112032 #2 으.(으.)

112032 @ 집에 싱거진 그런 것들예.(집에 심긴 그런 것들요.)

112032 #2 지금이야 맛 존 것덜 벨아벨 거 나도 그때 나쓰미깡.(지금에야 맛 좋은 것들 별의별 거 나와도 그때 하귤.)

112032 @ 으.(으.)

112032 #2 그거하고 아주 나 알양 보난 배 사관 잇는 거니까. 능력 잇어도 그자 그건 기본적으로 서너 개씩이라도 사단 놔주.(그거하고 아주 내가 알고 보니까 배 사과는 잇는 거니까. 능력 없어도 그저 그건 기본적으로 서너 개씩이라도 사다가 놓고 잇지.)

112032 @ 으, 적은?(으, 적은?)

112032 #2 적은 집안에 딸란게. 적을 짝 맞겐 안 올리는 거 다행.(적은 집안에 따라서. 적을 짝 맞게는 안 올리는 거 같아.)

112032 @ 음.(음.)

112032 #2 세 고지 못 허민 다섯 고지.(세 꼬치 못 하면 다섯 꼬치.)

112032 @ 음.(음.)

112032 #2 계난 나가 영 슬퍼보난 세 고지 올리는 집도 잇고 다섯 고지 올리는 집도 서. 그렇게 허고 이 생선도 세 개 못 올리민 하나주, 두 갠 안 올리더라고.(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 꼬치 올리는 집도 잇고 다섯 꼬치 올리는 집도 잇어. 그렇게 하고 이 생선도 세 개 못 올리면 하나지, 두 갠 안 올리더라고.)

112032 @ 음. 계민 세 고지는 종류별로 세 고지 험니까? 돛고기 적도 허고?(음. 그럼 세 꼬치는 종류별로 세 꼬치 험니까? 돼지고기 적도 하고?)

112032 #2 으, 돛고기 허고 두 가지, 두 가지만예.(으, 돼지고기 하고 두 가지, 두 가지니까.)

112032 @ 여기 바닷게기는 안 헤낫수과, 바닷게기 적이나 뭐.(여기 바닷고기는 안 했었습니까, 바닷고기 적이나 뭐.)

112032 #2 바닷게기.(바닷고기.)

112032 @ 저기 문, 문어, 물꾸럭이나?(저기 문, 문어, 문어나?)

112032 #2 아니 그것도 허주, 요즘. 처음에는 안 헤신디 요즘은 다 허여. 전에는 안 헤신디.(아니 그것도 해, 요즘. 처음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다 해. 전에는 안 했는데.)

112032 @ 전에는 안 허연예. 그럼 소고기랑 돛고기?(전에는 안 했어. 그럼 소고

351) '나쓰미깡'은 일본어 'なつみかん'으로 '하귤'을 말한다.

기와 돼지고기?)

112032 #2 으. 저 전에는 그런 거 적 혈 줄을 알아서계?(으. 저 전에는 그런 거 적 할 줄 알았어?)

112032 @ 음.(음.)

112032 #2 그런 문어, 옷드르³⁵²⁾ 사름 문어 흥나 꼴도 못 보고 못 헨디 기본적 기자 소허고 돼지는 케케묵은 옛날부터 이시난 그거.(그런 문어, ‘옷드르’ 사름 문어 하나 꼴도 못 보고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저 소하고 돼지는 케케묵은 옛날부터 있으니까 그거.)

112032 @ 음.(음.)

112032 #2 게고 묵도 영 보니까 다섯 고지 올리는 사름, 세 고지 올리는 사름 허더라고 짝 골르게.(그리고 묵도 이렇게 보니까 다섯 꼬치 올리는 사름, 세 꼬치 올리는 사름 하더라고 짝 곱게.)

112032 @ 묵은 어떤 묵 올려놔수과?(묵은 어떤 묵 올렸었습니까?)

112032 #2 아주 옛날엔 아주 못 살 땐 여기서 밀 갈아놔주게, 밀.(아주 옛날엔 아주 못 살 땐 여기서 밀 갈았었어, 밀.)

112032 @ 으.(으.)

112032 #2 밀 갈양 ㄹ루 내왕 허단 ㅁ물게 ㅁ물. 여기서 ㅁ물은 옛날부터 허난 ㅁ물가루 내왕 썬어. 청묵ㄹ치.(밀 갈아서 가루 내서 하다가 메밀 메밀. 여기서 메밀은 옛날부터 하니까 메밀가루 내서 썬. 청묵같이.)

112032 @ 으.(으.)

112032 #2 허단 요즘은 두부가 주장으로 허고.(하다가 요즘은 두부가 중심으로 하고.)

112032 @ 으.(으.)

112032 #2 이제도 공 들영 허는 사름은 썬.(이제도 공 들여서 하는 사름은 썬.)

112032 @ ㄹ루로 행 썬던 거예, 청묵 했던 거 아니고예, 삼춘은? ㄹ루로, ㅁ물 ㄹ루로?(가루로 해서 썬던 거요, 청묵 했던 거 아니고요, 삼춘은? 가루로, 메밀가루로?)

112032 #2 저 청묵은 ㅁ물쌀로 허는데 썬는 거는 ㄹ루로 허는 거.(저 청묵은 메밀쌀로 하는데 썬는 거는 가루로 하는 거.)

112032 @ 으, ㄹ루로.(으, 가루로.)

112032 #2 청묵광 묵 썬이 틀려.(청묵과 묵 썬기가 틀려.)

112032 @ 예, 틀려. 어떤 거 해놔수과, 삼춘은?(예, 틀려. 어떤 거 했었습니까, 삼춘은?)

112032 #2 난 썬주.(난 썬지.)

112032 @ 썬서.(썬서.)

112032 #2 난 청묵은 못 허연, 잘.(난 청묵은 못 했어, 잘.)

352) ‘옷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12032 @ 하하. 이제 성복제 끝났수다. 성복제 끝나면 그 다음 뭐 할 거?(하하. 이제 성복제 끝났습니다. 성복제 끝나면 그 다음 뭐 할 거?)

112033 #2 그 다음은계 일포.(그 다음은 ‘일포’.)

112033 @ 일포.(‘일포’.)

112033 #2 묻으러 가는 아시날.(묻으러 가는 전날.)

112033 @ 으.(으.)

112033 #2 그날은 아주 대궐로 잘 출려근에, 그날 잘 출리젠 허난 성복제에 허는 서눔을 다 헛주.(그날은 아주 대궐로 잘 차려서, 그날 잘 차리려고 하니까 성복제에 하는 시눔을 다 했지.)

112033 @ 으.(으.)

112033 #2 그날은 잘 출령 옷도 잘 입고, 상에, 상에도 막 잘 출리고 허는 거주.(그날은 잘 차려서 옷도 잘 입고, 상에, 상에도 아주 잘 차리고 하는 거지.)

112033 @ 그날, 그날 손님을 받는 거라?(그날, 그날 손님을 받는 거야?)

112033 #2 으.(으.)

112033 @ 손님덜 받젠 허난 잘 출리는 거?(손님들 받으려고 하니까 잘 차리는 거?)

112033 #2 으.(으.)

112033 @ 예.(예.)

112033 #2 음식, 먹을 음식 만들고.(음식, 먹을 음식 만들고.)

112034 @ 케민 부주, 부주는 어떻 헤낫수과?(그럼 부조, 부조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12034 #2 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 말로 허민 옛날은 돈 부지가 벨로 엇엇어.(아주 옛날은, 아주 옛날 말로 하민 옛날은 돈 부조가 별로 없엇어.)

112034 @ 음.(음.)

112034 #2 흐썰만 친족이 걸어진 사름은 제물떡이라고 네 귀 반뜩 차룽에. 전기³⁵³도 그 차룽에 지정 오는 사름, 철에 딸랑 겨울엔.(조금만 친족이 걸어진 사름은 제물떡이라고 네 귀 반뜩 채룽에. 빙떡도 그 채룽에 지져서 오는 사름. 철에 따라서 겨울엔.)

112034 @ 음. 여기 전기렌 곁앗수다, 전기예?(음. 여기 ‘전기’라고 말하네요. ‘전기’요?)

112034 #2 빙떡이 아니 전기.(빙떡이 아니 ‘전기’.)

112034 @ 전기.(‘전기’)

112034 #2 또 여름에 나면 그 밀 헤서 뿐 좋아. 시벌경허게 상웨떡³⁵⁴이라고 헤서 제물떡 행 오고.(또 여름에 나면 그 밀 헤서 모양 좋아. 시빨겉게 ‘상웨떡’이라

353) ‘전기’는 메밀가루 반죽을 기름을 두른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얇게 펴 놓고 가운데에 양념한 무채 소를 넣고 말아서 지진 떡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정기, 빙, 빙떡’이라고도 한다.

354)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고 해서 제물떡 해서 오고.)

112034 @ 으.(으.)

112034 #2 또 므물가루 해서 무수 담양 만두도 허고, 이 제물떡으로 허고.(또 메밀가루 해서 무 담아서 만두도 하고, 이 제물떡으로 하고.)

112034 @ 아.(아.)

112034 #2 이 사돈이나 좀 무시거 헛 사람은 쓸 두 돼이. 부지 쓸이 두 돼.(이 사돈이나 좀 무엇 한 사람은 쌀 두 되. 부조 쌀이 두 되.)

112034 @ 아, 아.(아, 아.)

112034 #2 이런 보리쌀이라도 두 돼, 조 철 나민 좁쌀이라도 두 돼. 사돈은 두 돼 못 허여. 사돈은 너 돼.(이런 보리쌀이라도 두 되, 조 철 되면 좁쌀이라도 두 되. 사돈은 두 되 못 해.)

112034 @ 헛 말?(한 말?)

112034 #2 으, 헛 말 허고. 경헛 돈 부지가 마침 헛 밧디나 엇어신디 츄츄츄 해 가난에 그것이 엇어졌주, 부지.(으, 한 말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부조가 마침 한 군 데도 없었는데 차차차 해 가니까 그것이 없어졌지, 부조.)

112034 @ 음.(음.)

112034 #2 남저덜토 부지 허는 사람이 절반이라. 왜냐 오십 명, 오십 명을 가부 시끼³⁵⁵에서 돼지 헛 마리를 상 잡양 치전이라고.(남자들도 부조 하는 사람이 절반 이야. 왜냐 오십 명, 오십 명을 계에서 돼지 한 마리를 사서 잡아서 치전이라고.)

112034 @ 음.(음.)

112034 #2 도새기 헛 마리 잡은 걸 오십 명이 아정 가는 거여.(돼지 한 마리 잡은 걸 오십 명이 가지고 가는 거야.)

112034 @ 음.(음.)

112034 #2 아정 가근에 헛 마리 다는 못 올리지게. 그레 치전, 치전이라고 해서 헛 다리 올려뵈.(가지고 가서 한 마리 다는 못 올리지. 거기에 치전, 치전이라고 해서 한 다리 올려뵈서.)

112034 @ 그 도새기 올리는 걸 치전이렌 헛?(그 돼지 올리는 걸 치전이라고 했어?)

112034 #2 으.(으.)

112034 @ 도새기 헛 가져가는 거?(돼지 해서 가져가는 거?)

112034 #2 어.(어.)

112034 @ 아, 아.(아, 아.)

112034 #2 이디 치전, 치전꾼이라고 해, 여긴 조문객을.(여기 치전, 치전꾼이라고 해, 여긴 조문객을.)

112034 @ 예.(예.)

112034 #2 그거 행 가는.(그거 해서 가는.)

355) '가부시끼'는 일본어 'かぶしき'로, 여기서 '가부시끼'는 '계'의 의미로 쓰였다.

112034 @ 예.(예.)

112034 #2 그거 흔 마리,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치전꾼 마흔 사름 왁져. 마흔 다섯 사름 왁져. 경 곧고.(그거 한 마리, 우리가 들으면 아이고, 치전꾼 마흔 사람 오고 있어. 마흔다섯 사람 오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112034 @ 아.(아.)

112034 #2 또 그렇게 널리 안 험 사름은, 흔 다섯 사름 행 득 하나. 득 치전.(또 그렇게 널리 안 하는 사람은, 한 다섯 사람 해서 닭 하나. 닭 치전.)

112034 @ 아.(아.)

112034 #2 득 하나 잡안에 깨끗이 해근에 또 아정 강 올리고. 그게 부주라.(닭 하나 잡아서 깨끗이 해서 또 가지고 가서 올리고. 그게 부조야.)

112034 @ 아, 그게 부주라.(아, 그게 부조야.)

112034 #2 계난 요즘은 상 나나민 부주가 멧 천, 멧 천 허는디 부주가 엇엇단 츠츠 그놈의 식이 달라전 츠츠 부주가 잇어가니까 이 시대가 돌아온 거주.(그러니까 요즘은 상 나면 부조가 멧 천, 멧 천 하는데 부조가 없었다가 차차 그놈의 식이 달라져서 차차 부조가 있어서 이 시대가 돌아온 거지.)

112034 @ 계민 예, 그, 그 상웨떡이영 전기영 행 온 것도 상에 올리고 헛수과?(그럼 예, 그, 그 '상웨떡'과 빙떡과 해서 온 것도 상에 올리고 했습니까?)

112034 #2 여기 친족 중에 브딘 여저 친족이 하나 앓았다가 구덕 아저오라근에 주민 그 사름은 아이고, 아이고 허민 이 차롱착 해근에 딱 하나 앓앙 이 상에 제물 떡 올리는 이만이 험 큰 쟁반을 낳.(여기 친족 중에 가까운 여자 친족이 하나 앓았다가 바구니 가져와서 주면 그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 이 채롱 해서 딱 하나 가져서 이 상에 제물떡 올리는 이만큼 한 큰 쟁반을 놓고.)

112034 @ 음.(음.)

112034 #2 그레 하나 앓아 놓고. 또 앓아오민 하나 앓아 놓민 이만이 험 거 아니라.(그리 하나 가져 놓고. 또 가져오면 하나 가져서 놓으면 이만큼 할 거 아니야.)

112034 @ 으.(으.)

112034 #2 계민 먼저 올렸단 건 비와똥.(그럼 먼저 올렸던 것은 비워두고.)

112034 @ 비와똥.(비워두고.)

112034 #2 정반 죽게 골르게 허영 또 올리고 올리고.(쟁반 적게 고르게 해서 또 올리고 올리고.)

112034 @ 아, 가져오는 대로 올리고.(아, 가져오는 대로 올리고.)

112034 #2 으.(으.)

112034 @ 계민 막 하영 가정왕 하나씩만 올리고 나머지는 손님덜 주는 거?(그럼 아주 많이 가져와서 하나씩만 올리고 나머지는 손님들 주는 거?)

112034 #2 으, 그자 그걸, 그걸 기자 갈랑 먹는 거지.(으, 그저 그걸, 그걸 그저 나눠서 먹는 거지.)

112034 @ 갈랑 먹는 거예?(나눠서 먹는 거요?)

112034 #2 으.(으.)

112034 @ 예, 예.(예, 예.)

112034 #2 이제거치 수고헌 사름 답례품이 잇느냐 무시거 허느냐, 기자 입에 부
뜬 말은 제물떡 들어온 거.(이제같이 수고한 사람 답례품이 잇느냐 무엇 하느냐, 그
저 입에 붙은 말은 제물떡 들어온 거.)

112034 @ 음.(음.)

112034 #2 떡 넘기명 마, 이거 제물떡 들어온 거.(떡 넘기면서 마, 이거 제물떡
들어온 거.)

112034 @ 음.(음.)

112034 #2 경허고 아이고, 그 제물떡 들어온 거 이레 앓아눕서게 우리 먹쿠다.
(그리고 아이고, 그 제물떡 들어온 거 이리 꺼내세요, 우리 먹겠어요.)

112034 @ 으.(으.)

112034 #2 그자 원 말이, 일름이 제물떡 들어온 거.(그저 원 말이, 이름이 제물
떡 들어온 거.)

112034 @ 음, 계민 조문덜은 막 하영 와났수과?(음, 그럼 조문들은 아주 많이
왔었습니까?)

112034 #2 지금거치 막 조문 하영 안 텡건.(지금같이 조문 많이 안 다녔어.)

112034 @ 음.(음.)

112034 #2 지금거치 조문 하영 안 텡겨. 텡기기는 텡기는데.(지금같이 조문 많
이 안 다녔어. 다니기는 다니는데.)

112034 @ 예. 계민 그렇게 제물로 가정 텡기단 돈으로 부줄 현 게 언제서부터
돈으로 부줄 헤졌수과?(예. 그럼 그렇게 제물로 가지고 다니다가 돈으로 부조를 한
게 언제서부터 돈으로 부줄 했습니까?)

112034 #2 돈으로 부주헌 거 현 삼십 년. 우리,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백 현, 살
아시민 백 현 다섯 설은 웨여실 거라.(돈으로 부조한 거 한 삼십 년. 우리, 우리 시
어머니가 지금 백 한, 살았으면 백 한 다섯 살은 되었을 거야.)

112034 @ 음.(음.)

112034 #2 현 육십넛에 돌아갓는다.(한 육십넛에 돌아갓는데.)

112034 @ 음.(음.)

112034 #2 그때 당시가.(그때 당시가.)

112034 @ 사십년 전에?(사십년 전요?)

112034 #2 친족은 다 떡을 허드라고. 떡을 주고 놈은 오명 돈 이천 원, 삼천
원.(친족은 다 떡을 하더라고. 떡을 주고 놈은 오면서 돈 이천 원, 삼천 원.)

112034 @ 아, 그때 처음 부주 시작헿던 그때?(아, 그때 처음 부조 시작헿던 그
때?)

112034 #2 으, 그때 언만 안 현 때라.(으, 그때 얼마 안 한 때야.)

112034 @ 아, 한 사십 년 전에.(아, 한 사십 년 전에.)

112034 #2 아메도 약 혼 오십 년 쉰 거 다텐다.(아무래도 약 한 오십 년 된 거 같아.)

112034 @ 아, 부주를 시작하게 된 지가?(아, 부조를 시작하게 된 지가?)

112034 #2 으, 나 짐작으로.(으, 내 짐작으로.)

112033 @ 예. 그 일포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해, 일포 끝났?(예. 그 일포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해, '일포' 끝나서?)

112033 #2 일포 끝나면 손님덜 가 불면은 이제, 손님덜도 가 불고 친족도 먼 친족덜은 가 불민 아주 형제간이나 다텐 친족덜허고 자식덜만 남아근에 그 하나 족으 나 부주도 들어온 것도 정산허고 췌기가 부족허영 엇으면 엇는 대로 또 상에 올렸던 거, 그거는 암만 부족해도 내려와 불지 못 허난 거 내려와근에 갈르고.(‘일포’ 끝나면 손님들 가 버리면 이제, 손님들도 가 버리고 친족도 먼 친족들은 가 버리면 아주 형제간이나 같은 친족들하고 자식들만 남아서 그 많으나 적으나 부조도 들어온 것도 정산하고 고기가 부족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상에 올렸던 거, 그거는 암만 부족해도 내려 버리지 못 하니까 거 내려서 나누고.)

112033 @ 으.(으.)

112033 #2 경허영 그날 밤 새민 어떻행 아침 뒤면은 딸이 아침밥을 출려오지 게.(그렇게 그날 밤 새면 어떻게 아침 되면 딸이 아침밥을 차려오지.)

112033 @ 누구 먹을 아침밥을? 상제덜 먹을 거?(누구 먹을 아침밥을? 상제들 먹을 거?)

112036 #2 장의사가 엇이난에게, 상준 또 일포날 해가 요만이 뒤 가민 수복친³⁵⁶이라고 나ㄴ트민 우리ㄴ트민 시아주방 아덜네 스춘 시아주방 아덜네 ㄴ튼 사람이 이 ㄴ을을 다 돌면서 넬랑 수고해 줍서.(장의사가 없으니까, 상준 또 ‘일포’ 해가 이만큼 뒤 가면 ‘수복친’이라고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시아주버니 아덜네, 사춘 시아주버니 아덜네 같은 사람이 이 마을을 다 돌면서 내일은 수고해 주세요.)

112036 @ 으.(으.)

112036 #2 오라 줍센게.(와 주시라고.)

112036 @ 아. 상여 들렌?(아, 상여 들라고?)

112036 #2 영장.(송장.)

112036 @ 영장 묻으러 갈 때.(송장 묻으러 갈 때.)

112036 #2 어. 넬랑 오라 줍서. 지금은 장의사가 오민 사람 열 사람, 혼 다섯 명 이민 영장을 치뤄주만은.(어. 넬은 와 주세요. 지금은 장의사가 오면 사람 열 사람, 한 다섯 명이면 장사를 치루지만.)

112036 @ 으.(으.)

112036 #2 이 ㄴ을을 다 돌아.(이 마을을 다 돌아.)

112036 @ 아.(아.)

356) ‘수복친’은 장사가 났을 때 망인이나 상주와 촌수가 가까워 상복이나 두건을 쓴 친척을 말한다.

112040 #2 다 돌아갈 이제 빌어 오면은 뒷날 아침인 딸 상제가 아침밥을 차려 오고.(다 돌아서 이제 빌려 오면 뒷날 아침엔 딸 상제가 아침밥을 차려 오고.)

112040 @ 으.(으.)

112040 #2 또 다른 상젠 점심을 차려 가고 또 다른 상젠 피력³⁵⁷⁾을 차려 가고.(또 다른 상젠 점심을 차려 가고 또 다른 상젠 ‘피력’을 차려 가고.)

112040 @ 피력이 뭐과?(‘피력’이 뭐니까?)

112040 #2 여기, 요새 말로 간식이라이.(여기, 요새 말로 간식이야.)

112040 @ 아.(아.)

112040 #2 점심 다음.(점심 다음.)

112040 @ 아, 점심 다음.(아, 점심 다음.)

112040 #2 올 때.(올 때.)

112040 @ 으, 으.(으, 으.)

112040 #2 아주 케케묵은 옛날은 조반 먹어근에 영장 메영 곧 밧디 가민 또 간식을, 건 피력이 아니고 건 비역부찌³⁵⁸⁾라고 해서 간식을 쥐 낫는디 그거는 우리가 안 후에는 아주 아주 옛날식인³⁾라 잊어지고.(아주 케케묵은 옛날은 조반 먹고 송장 메서 곧 밧에 가면 또 간식을, 건 ‘피력’이 아니고 건 ‘비역부찌’라고 해서 간식을 줬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후에는 아주 아주 옛날식이어서 잊어지고.)

112040 @ 으.(으.)

112040 #2 경헨 상제 세 사름이 영장날 음식을 말아. 아침 차려 오는 사름 점심 차려 오는 사름, 저녁 차려 오는 사름. 게난 그 일포도 솔벤 절벤 인절미 저 허는디 이 집이서 안 허여. 말아 가.(그렇게 상제 세 사람이 장삿날 음식을 말아. 아침 차려 오는 사름, 점심 차려 오는 사름, 저녁 차려 오는 사름. 그러니까 ‘일포’도 솔편 절편 인절미 저 하는데 이 집에서 안 해. 말아 가.)

112040 @ 누게가, 딸들이?(누가, 딸들이?)

112040 #2 딸이 말아 가야지. 이 집이서 그걸. 떡으로만 행사해 놓난 분가헌 사름도 떡으로 혼 차룽.(딸이 말아 가야지. 이 집에서 그걸. 떡으로만 행사해 놓으니까 분가헌 사름도 떡으로 한 채룽.)

112040 @ 아.(아.)

112040 #2 관 짠 목수도 떡으로 혼 차룽.(관 짠 목수도 떡으로 한 채룽.)

112040 @ 음.(음.)

112040 #2 저 날 잡은 할, 하르방도 떡으로 혼 차룽. 영장 무꾼 사름도 떡으로 혼 차룽 허민 혼 사름이 윈 혼 일곱 말치씩은 떡을 해 올라고 허민 이디서 떡을 어떻게 허여.(저 날 잡은 할, 할아버지도 떡으로 한 채룽. 송장 묵은 사름도 떡으로 한 채룽 하면 한 사람이 윈 한 일곱 말치씩은 떡을 해 오려고 하면 여기서 떡을 어떻게 해.)

357) ‘피력’은 장례를 치루고 나서 장지에서 친족과 상두꾼에게 접대하는 음식을 말한다.

358) ‘비역부찌’는 장례 때 장지에서 친족과 상두꾼에게 나누워 주는 간식을 말한다.

112040 @ 으.(으.)

112040 #2 딸이 그 떡 맡아가고 밥해 오꼭 해야지.(딸이 그 떡 맡아서 밥해 오고 해야지.)

112040 @ 그럼 그거 관 짠 사름이나안테 돈으로 안 주고 다 떡으로?(그럼 그거 관 짠 사람에게 돈으로 안 주고 다 떡으로?)

112040 #2 돈이 어디 서게. 계난 저디 꼴으레 가 온 사름도 떡, 저디 방장대 그 차 온 사름도 떡, 고기 썬 도감도 떡.(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저기 말하러 왔든 사름도 떡, 저기 상장 잘라 온 사름도 떡, 고기 썬 도감도 떡.)

112040 @ 음.(음.)

112040 #2 계난 떡이 막 하영 현 사름은 떡이 혼 스오십 빗³⁵⁹은 나가.(그러니까 떡이 아주 많이 한 사름은 떡이 한 사오십 빗은 나가.)

112040 @ 음.(음.)

112040 #2 경허젠 허민 시리떡이영 말할 수 엇어. 계난 큰딸이면은 솔벤허고 조반을 맡아 가.(그러려고 하면 시루떡과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큰딸이면 솔편하고 조반을 맡아.)

112040 @ 음.(음.)

112040 #2 계민 솔벤은 일포 해 오고 조반은 영장날 아침이. 겨난 그디서도 난 리여.(그럼 솔편은 ‘일포’ 해서 오고 조반은 장삿날 아침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난 리야.)

112040 @ 음.(음.)

112040 #2 그 딸 집이서도. 머리 풀영. 옛날 상주 똥 오랏저 허는 말이 아이고, 아무가 아이 머리 풀언, 머리 풀엇저. 머리 풀엇저.(그 딸 집에서. 머리 풀어서. 옛날 상주 돼서 왔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무가 아이 머리 풀엇어, 머리 풀엇어, 머리 풀엇어.)

112040 @ 으.(으.)

112040 #2 며칠 살아야주게. 떡 출려다 주저, 밥 출려다 주저. 경 밥 출려 오민 아츰이 그 고기 언만,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고기, 그거 아침밥에 데욱고지³⁶⁰라고 길죽헌 고지 꿩기 멧 점 꿩영 그거 아침밥 먹는데 찜 상주덜이 그렇게 많이 오라 놓난. 나도 지금 영장 출려간 때엔 늬의 거 빌지 말젠 이만큼 현 낭푼 여남은 개 사 놓난, 낭푼 허나에 열 사름씩 먹으난 열 개민 스십 명 먹주게.(며칠 살아야지. 떡 차려다 주랴, 밥 차려다 주랴. 그렇게 밥 차려 오면 아침에 그 고기 얼마,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고기, 그거 아침밥에 ‘데욱고지’라고 길죽헌 꼬치 고기 멧 점 꿩어서 그거 아침밥 먹는데 찜 상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나도 지금 장사 차릴 때엔 낭의 거 빌리지 않으려고 이만큼 한 양푼 여남은 개 사다 놓으니까, 양푼 허나에 열 사름씩 먹으니까 열 개민 사십 명 먹지.)

359)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360) ‘데욱고지’는 삶은 돼지고기를 가늘고 길게 썰어 꽂은 꼬치를 말한다.

112040 @ 음.(음.)

112040 #2 이놈의 세상 탁 가 부난.(이놈의 세상 탁 가 버리니까.)

112040 @ 하하하. 못 써 먹언.(하하하. 못 썼어.)

112040 #2 저디 그대로 둔 잇주게.(저기 그대로 모두 있어.)

112040 @ 하하하.(하하하.)

112040 #2 저 점심 말아간 상제는 이디서 영장 묻으레 간 사름이나 그디서 친족 친목 밥 출령 다 오라놓민 점심 츠령 온 사름이나 여기서 온 사름이나 혼 백, 우리도 할 때 백오십 명도 뤼고 했주.(저 점심 말아간 상제는 여기서 송장 묻으러 간 사람이나 거기서 친족 친목 밥 차려서 다 오면 점심 차려서 온 사람이나 여기서 온 사람이나 한 백, 우리도 할 때 백오십 명도 되고 했지.)

112040 @ 어이구.(어이구.)

112040 #2 백삼십 명도 뤼고 허난.(백삼십 명도 되고 하니까.)

112040 @ 아이구, 아이구.(아이고, 아이고.)

112040 #2 피력, 그 간식, 그 오후에 가는 거 말이 간단허지 막 것도 하영 들어.(‘피력’, 그 간식, 그 오후에 가는 거 말이 간단하지 아주 것도 많이 들어.)

112040 @ 피력으로 뭘 했던 거라마씨?(‘피력’으로 뭘 했던 거예요?)

112040 #2 처, 처음에는 그 우리 막 옛날에 무시거 엇인 때는 저 믱물꺾루로 해가지고 요만씩 돌레떡³⁶¹이라고.(처, 처음에는 그 우리 아주 옛날에 무엇 없을 때는 저 메밀가루로 해가지고 요만큼씩 ‘돌레떡’이라고.)

112040 @ 돌레떡예.(‘돌레떡’요.)

112040 #2 이만이 커. 이만이 행 산 일허는 사름은 두 개.(이만큼 커. 이만큼 해서 산 일하는 사름은 두 개.)

112040 @ 으.(으.)

112040 #2 우리 거트민 흐나 주멍 믱물꺾루로 이만씩 멘들젠 허민 경 행 그걸로 허고 또 잘허는 사름은 쓸꺾루 해가지고 등절비³⁶²라고 막 두둑허게 이만이 행 막 두둑허게 경허단에 이제 츠츠 살아져 가난 이제는 그거는 낭비라고 그 돈 들이면은 가정 오라도 쓸모 있는 거, 이제 찹기름도 주고.(우리 같으면 하나 주면서 메밀가루로 이만큼씩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고 또 잘하는 사름은 쌀가루 해가지고 ‘등절비’라고 아주 두둑허게 이만큼 해서 아주 두둑허게 그러다가 이제 차차 살아져 가니까 이제는 그거는 낭비라고 그 돈 들이면 가져 와도 쓸모 있는 거, 이제 찹기름도 주고.)

112040 @ 으.(으.)

112040 #2 쓸모 있는 걸로 주주게. 요즘은 경 험서, 이제.(쓸모 있는 걸로 주지.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112040 @ 신식으로 막 바뀐예?(신식으로 아주 바뀌었어요?)

361)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362) ‘등절비’는 메밀가루나 쌀가루로 반달 모양을 만들어 찌거나 삶아낸 후 팔고물을 묻힌 떡을 말한다.

112040 #2 으. 이젠 요샌 또 커피도 주곡. 요새덜은.(으. 이젠 요샌 또 커피도 주고. 요새는.)

112035 @ 게민 토신제는 언제 지내는 것과?(그럼 토신제는 언제 지내는 겁니까?)

112035 #2 산제주, 산제.(산제지, 산제.)

112035 @ 산제. 게민 산 다 해난 다음에? 아니면 아침에 여기서?(산제. 그럼 산소 다 한 다음에? 아니면 아침에 여기서?)

112035 #2 산제는 지낼라고 허면은 제 허는 사람은 어디 강 터를 보면은.(산제는 지내려고 하면 제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터를 보면.)

112035 @ 으.(으.)

112035 #2 상제는 산제는 못 출려.(상제는 산제는 못 차려.)

112035 @ 으?(으?)

112035 #2 상제는 산제를 못 출리니까.(상제는 산제를 못 차리니까.)

112035 @ 산젠 누가 출리는 거라.(산젠 누가 차리는 거야.)

112035 #2 어디 먼 친족이 생각행 출려 주민 허고.(어디 먼 친족이 생각해서 차려 주면 하고.)

112035 @ 예.(예.)

112035 #2 안 출려 주민 출령 돈 얼마이 매끼는 디가 있어.(안 차려 주면 차려서 돈 얼마에 맡기는 데가 있어.)

112035 @ 아, 동네에서 것도?(아, 동네에서 것도?)

112035 #2 어디 그런 거 지적행 허는 디가 있어.(어디 그런 거 지적해서 하는 데가 있어.)

112035 @ 아.(아.)

112035 #2 그 어른신디 강 산제 말앙 해 줘서 허민 막 돈 하영 들어.(그 어른에게 가서 산제 맡아서 해 주세요 하면 아주 돈 많이 들어.)

112035 @ 아.(아.)

112035 #2 경혜영 산제 매겨근에 산제 허는 거주게.(그래서 산제 맡겨서 산제 하는 거지.)

112035 @ 예.(예.)

112035 #2 경헨 산제 허는 거주.(그렇게 산제 하는 거지.)

112035 @ 게민 산제는 산에 올라강 묻기 전에 허는 거 아니예?(그럼 산제는 산에 올라가서 묻기 전에 하는 거 아니요?)

112035 #2 으. 그 물을 자리에 강.(으. 그 물을 자리에 가서.)

112035 @ 물을 자리에 강.(물을 자리에 가서.)

112035 #2 묻기 전에.(묻기 전에.)

112035 @ 묻기 전에.(묻기 전에.)

112035 #2 으.(으.)

112035 @ 예, 예.(예, 예.)

112035 #2 산제 경 말양 허는 사름 잇고 누게 막 생각허는 사름은, 산제를 무사 안 해 주는고 허민.(산제 그렇게 말아서 하는 사람 잇고 누가 아주 생각하는 사람은, 산제를 왜 안 해 주는가 하면.)

112035 @ 예.(예.)

112035 #2 힘이 들어서 안 허는 것이 아니고 먹음이 조여서 이것이 무서운 일이라.(힘이 들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줄여서 이것이 무서운 일이야.)

112035 @ 웨 귀신 부트카 부덴? 무사?(왜 귀신 붙을까 봐? 왜?)

112035 #2 산제나 이런 집 짓는 딴 토신제고 산에 가는 건 산젠디.(산제나 이런 집 짓는 데는 토신제고 산소에 가는 건 산제인데.)

112035 @ 으.(으.)

112035 #2 이제 그런 것을 잘못허다가.(이제 그런 것을 잘못하다가.)

112035 @ 으.(으.)

112035 #2 죄나 받아질런가 허영 마음이 췌안치 못허여.(죄나 받아질런가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112035 @ 아.(아.)

112035 #2 계난 막 정성을 잘헤야. 그거를 말으면 벨 사름이라도 메칠 밖에도 안 나뎡기곡 이 밖에 갔다가도 굶은 거나 봐지카 부덴.(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잘헤야. 그거를 말으면 벨 사름이라도 며칠 밖에도 안 나다니고 이 밖에 갔다가도 굶은 거 봐질까 봐.)

112035 @ 아.(아.)

112035 #2 어디 부정했던 사름이나 굶은 거나 봐지카 부덴 밖에도 안 가고 굶은 것도 안 문직고 경헤영 몸을 막 조심헤영 চল리는 거난, 자기가 죄를 받아지카 부덴이.(어디 부정했던 사름이나 굶은 거나 봐질까 봐 밖에도 안 가고 굶은 것도 안 만지고 그렇게 해서 몸을 아주 조심해서 차리는 거니까, 자기가 죄를 받을까 봐.)

112035 @ 으.(으.)

112035 #2 이, 소위 어른덜 말씀이 그런 거 잘못허민 죄 돌아온다.(이, 소위 어른들 말씀이 그런 거 잘못하면 죄 돌아온다.)

112035 @ 계난 막 멍심헿 চল리는 거구나.(그러니까 아주 명심해서 차리는 거구나.)

112035 #2 막 멍심허난 경허난 이 친족만 해도 막 생각 안 헿 사름은 안 헤줘.(아주 명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족만 해도 아주 생각 안 하는 사름은 안 해 줘.)

112035 @ 아.(아.)

112035 #2 안 해 주민 앓싸리³⁶³ 돈에 매경 헤 붙어.(안 해 주면 아예 돈에 맡겨서 해 버려.)

112035 @ 아.(아.)

363) '앓싸리'는 일본어 'あっさり'로 '간단히, 선선히'의 의미다.

112035 #2 매끼는 디.(맡기는 데.)

112035 @ 계민 상여를 들렁 갈 때 영장 들렁 가젠 허민 동네 사름덜 전날 다 부탁해영 낫잖아예.(그럼 상여를 들고 갈 때 송장 들고 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 전날 다 부탁해서 낫잖아요.)

112036 #2 어.(어.)

112036 @ 거 들렁 가는 사름을 뭐렌 불러낫수과, 영장꾼?(거 들고 가는 사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장꾼?)

112036 #2 상뒤.(상두꾼.)

112036 @ 으, 상뒤.(으, 상두꾼.)

112036 #2 으.(으.)

112037 @ 상뒤 불렁. 브딘 디민 몰라도 먼 디 가젠 허민 그거 어쨌든 다 들렁 가야될 거 아니, 계속.(상두꾼 불려서. 가까운 데면 몰라도 먼 데 가려고 하면 그거 어쨌든 다 들고 가야될 거 아니, 계속.)

112037 #2 상뒤가 멧으로 나뉘어사주게.(상두꾼이 멧으로 나뉘어야지.)

112037 @ 예.(예.)

112037 #2 흔 번 메는 디 멧 사름.(한 번 메는 데 멧 사름.)

112037 @ 으.(으.)

112037 #2 계민 남은 사름이 멧 사름.(그럼 남은 사름은 멧 사름.)

112037 @ 으.(으.)

112037 #2 아무 디 가면은 곶아 메여. 곶아 메곡 또 너미 길이 멀면 또 메엿단 사름도 쉬영 가민 또 메곡. 또 못 사는 사름은 안 허는디 잘사는 사름은 다포³⁶⁴)도 헛주게.(아무 데 가면 갈아 메. 갈아 메고 또 너무 길이 멀면 또 뻗던 사름도 쉬고 가면 또 메고. 또 못 사는 사름은 안 하는데 잘사는 사름은 ‘다포’도 헛지.)

112037 @ 다포?(‘다포’?)

112037 #2 천 해 가지고 길쪽이 저레 내놔근에 영 메영 가명 막 소리허멍덜. 소리는 멘 사름은 안 헌디 소리는 그추룩 해 부난 소리허는 사름이 따로 있어.(천 해 가지고 길쪽하게 저기 내놓고 이렇게 메고 가면서 아주 소리하면서들. 소리는 멘 사름은 안 하는데 소리는 그렇게 해 버리니까 소리하는 사름이 따로 있어.)

112037 @ 음.(음.)

112037 #2 아무나 못 허여. 그건 아무나.(아무나 못 해. 그건 아무나.)

112037 @ 그 소리허는 사름덜예?(그 소리하는 사름들요?)

112037 #2 으.(으.)

112037 @ 앞장서근에 그 소리를 허멍 가는 거라.(앞장서서 그 소리를 하면서 가는 거야.)

112037 #2 으. 우리 그 텔레비도 보민 그런 소리 잇지이.(으. 우리 그 텔레비전도 보면 그런 소리 잇지.)

364) ‘다포’는 상여에 천을 길게 늘어뜨려 치장한 것을 말한다.

112037 @ 예.(예.)

112037 #2 그런 소리 아무나 헤져게?(그런 소리 아무나 할 수 있어?)

112037 @ 아.(아.)

112037 #2 그 선 소리라고.(그 선 소리라고.)

112037 @ 선 소리.(선 소리.)

112037 #2 으, 그런 선 소리라고 허여. 경헨 그 상뒤덜이 다 그거 곶아 메영 가는 거주게.(으, 그런 선 소리라고 해. 그렇게 그 상뒤꾼들이 다 그거 같아 메서 가는 거지.)

112037 @ 계민 가당 어디 가민 영 바꾸고?(그럼 가다가 어디 가면 이렇게 바꾸고?)

112037 #2 어디쯤 가민 아무 디 가민 곶아 메야 헌텐 허멍 다 왕 곶아 메라, 곶아 메라.(어디쯤 가면 아무 데 가면 같아 메야 한다고 하면서 다 와서 같아 메라, 같아 메라.)

112037 @ 곶아 메라 헤 그런 곶?(같아 메라 헤 그런 곶?)

112037 #2 으.(으.)

112037 @ 곶아 메라.(같아 메라.)

112037 #2 메는 거난 이곶. 이 상여 끈 베 꼬아근에 널 영장 곶 거민 일포날은 또 할 일이 많아. 쟤가 뭐 헤다근에 막 줄을 헤근에 벨 멩글아야지.(메는 거니까 이 곶. 이 상여 끈 바 꼬아서 널 송장 곶 거면 ‘일포’는 또 할 일이 많아. 쟤가 뭐 헤다가 아주 줄을 해서 바를 만들어야지.)

112037 @ 으.(으.)

112037 #2 상열 엮어야지 거 메영 가젠 허민. 계민 상여 나무에 똑 요만이 헌 거 술진 거, 이 만이 헌 것이 돌아 메민 탁 이거, 이거.(상여를 엮어야지 거 메서 가려고 하면. 그럼 상여 나무에 똑 요만큼 한 거 살진 거, 이만큼 한 것이 달아 메면 탁 이거, 이거.)

112037 @ 으.(으.)

112037 #2 독지 아과근에 이만이 술지민 못 허주게. 겐 이추록 메영 흥탕흥탕. 영장에 따라 어떤 영장은이 살살 가볍게 가는 것도 있고 것도 구신이라. 어떤 영장은 탁 움직이지 못허여 베연.(죽지 아과서 이만큼 살지민 못 하지. 그래서 이렇게 메서 ‘흥탕흥탕’ 송장에 따라 어떤 송장은 살살 가볍게 가는 것도 있고 것도 귀신이 야. 어떤 송장은 탁 움직이지 못해, 무거워서.)

112037 @ 영장이 무거웁?(송장이 무거워서?)

112037 #2 으.(으.)

112037 @ 아.(아.)

112037 #2 경허민 상제덜이 막 익숙헌 사름은 경허는 거 닻으민, 아바지민, 아이고 아버님 늣 못 전디게 말앙 제기 올라옵서, 제기 올라옵서, 경허명도 곤고.(그러면 상제들이 아주 익숙헌 사름은 그러는 거 같으면, 아버지면, 아이고 아버님 다

른 사람 못 견디게 말고 재게 올라오세요, 재게 올라오세요, 그렇게도 말하고.)
 112037 @ 으.(으.)
 112037 #2 다 옛날에 경 험게. 나 보난에, 나 두린 때.(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 내가 보니까, 내가 어린 때.)
 112037 @ 아.(아.)
 112037 #2 혼 열 멧 설에.(한 열 몇 살에.)
 112037 @ 으. 저 두린 때 보난 저 어린 때 기억이 영장 올라가젠 허면 영 가는 길에 집들 이시민.(으. 저 어린 때 보니까 저 어린 때 기억이 상여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길에 집들 있으면.)
 112037 #2 으.(으.)
 112037 @ 그 집에 삼촌이 나왕 쪼그만 허게 제 지내는 형태로 음식이 영 상 출려십디다.(그 집에 삼촌이 나와서 쪼그맣게 제 지내는 형태로 음식이 이렇게 상 차려십디다.)
 112037 #2 건 친족이라사.(건 친족이라야.)
 112037 @ 친족이라사?(친족이라야?)
 112037 #2 으, 늡은 탁 문 더경 본 채 만 채 허고.(으, 남은 탁 문 닫아서 본 채 만 채 하고.)
 112037 @ 예.(예.)
 112037 #2 친족은 저 요만이 험 돛자린가 췌자리³⁶⁵ 허나 앳다 낡 이디 술이영 혼 잔 앳다 놔근에.(친족은 저 요만큼 한 돛자린가 ‘췌자리’ 하나 가져다 놓고 여기 술이랑 한 잔 가져다 놓고.)
 112037 @ 어.(어.)
 112037 #2 상예를 내려놔 가지고 상제덜이 다 절도 허고.(상여를 내려놔 상제들이 다 절도 하고.)
 112037 @ 어.(어.)
 112037 #2 경험 가는디 친족 집이는 그추록 안 허영 딱 메영 사뭇서 그냥 기자 이디서 잔 곴아근에 넘어가는 거.(그래서 가는데 친족 집에는 그렇게 안 하고 딱 메고 서 있으면서 그냥 그저 여기서 잔 곴아서 넘어가는 거.)
 112037 @ 게민 맥이는 거라, 가는 사름을?(그럼 떡이는 거야, 가는 사름을?)
 112037 #2 경허민 그 무신 그 술이라도 막 급허게 그 사름, 다른 사름은 못 얻어먹어어. 앳이 있는 사름이 대장이라.(그러면 그 무슨 그 술이라도 아주 급하게 그 사름, 다른 사름은 못 얻어먹어. 앳에 있는 사름이 대장이야.)
 112037 @ 으.(으.)
 112037 #2 확 술이라도 혼 잔 앳당 췌게 그 앳이.(확 술이라도 한 잔 가져다 쥐 그 앳에.)
 112037 @ 하하하.(하하하.)

365) ‘췌자리’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돛자리를 말한다.

112037 #2 모세기므루라고 해서.(‘모세기므루’라고 해서.)

112037 @ 모세기므루?(‘모세기므루’?)

112037 #2 으, 상여가 영 길쭉허지이?(으, 상여가 이렇게 길쭉하지?)

112037 @ 예.(예.)

112037 #2 요만이 길쭉허면.(요만큼 길쭉하면.)

112037 @ 예.(예.)

112037 #2 뒤에 건 아무것도 아닌디 옴로 사름이 서이가 메지, 서이.(뒤에 건 아무것도 아닌데 옴로 사름이 셋이 메지, 셋.)

112037 @ 예.(예.)

112037 #2 서이가 메민 건 모세기므루.(셋이 메면 건 ‘모세기므루’.)

112037 @ 아, 이 앞이 세 사름이 메는 걸 모세기므루렌 허는 거?(아, 이 앞이 세 사름이 메는 걸 ‘모세기므루’렌 하는 거?)

112037 #2 어. 게민 날 ㄱ튼 할망은이 이추룩 경 헛다근에 누게 조케나 허민 아 이고 나 죽건 모세기므루 메 도라. 그추룩 곱아낫저.(어. 그럼 나 같은 할머니는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누구 조카나 하면 아이고, 내가 죽으면 ‘모세기므루’ 메 줘라. 그렇게 말했었어.)

112037 @ 아, 이 풀랑지 가는 사름은 벨로 중요헌 사름 아닌게. 이 앞이 사름이 중요헌 거?(아, 이 꼬리에 가는 사름은 별로 중요한 사름 아니네. 이 앞에 사름이 중요한 거?)

112037 #2 으, 앞이 사름이.(으, 앞에 사름이.)

112037 @ 아.(아.)

112037 #2 겨난이 영장 가는 것도 곱게 모성 가는 거 곱게 모성 가는 거, 앞이 사름에 따라서. 앞이 사름이 슬슬슬 거주민 허곡 가당 비우깁 허민이 흥창.(그러니까 상여 가는 것도 곱게 모셔서 가는 거 곱게 모셔서 가는 거, 앞에 사름에 따라서. 앞에 사름이 살살살 거주면 하고 가다가 비위깁 하면 흥청.)

112037 @ 으.(으.)

112037 #2 이 베를 영 행 멧단 것이 흥창, 옆더레 흥창 헤불면 상여가 흥창, 흥창. 그추룩 허곡 비우깁 뒤틀리민. 그 사름이 슬슬 거주민 해도.(이 바를 이렇게 해서 뺏다가 것이 흥청, 옆으로 흥청 해버리면 상여가 흥청, 흥청. 그렇게 하고 비위깁 뒤틀리면. 그 사름이 살살 거주면 해도.)

112037 @ 경 행 상여 올라갏수다, 장지까지예?(그렇게 해서 상여 올라갏어요. 장지까지요?)

112037 #2 으.(으.)

112037 @ 이제 상여 내령 그 다음 할 일은 뭐라, 장지까지 강?(이제 상여 내려서 그 다음 할 일은 뭐요, 장지까지 가서?)

112037 #2 장지에 가면은 이제 상여 뜯어근에 상여는 저만치 치와 텡 관만 이제 장막 안에 요만치 앓다 낡.(장지에 가면 이제 상여 뜯어서 상여는 저만치 치워

두고 관만 이제 장막 안에 요만치 가져다 놓고.)

112037 @ 으.(으.)

112037 #2 앓다 낡 그 앞이 이젠 저 그건 제로 안 출리고 그자 사과영 모든, 전 기영 대충 출렁 이 앞이 낡.(가져다 놓고 그 앞에 이젠 저 그건 제로 안 차리고 그 저 사과와 모든, 빙떡과 대충 차려서 그 앞에 놔서.)

112035 @ 그 산제를 이때 출리는 거 아니?(그 산제를 이때 차리는 거 아니?)

112035 #2 어?(어?)

112035 @ 산제가 이때 아니?(산제가 이때 아니?)

112035 #2 아니, 산젠 앞날 출려베사주 그날 안 어지려.(아니, 산젠 앞날 차려야 지 그날 안 어지려.)

112035 @ 아.(아.)

112035 #2 앞날이나 또 앞날이나.(앞날이나 또 앞날이나.)

112035 @ 아, 그럼 잡아서 일포 혈 때 산에서는 산제 해부는 거라?(아, 그럼 집에서 '일포' 할 때 산소에서는 산제 해 버리는 거요?)

112035 #2 으.(으.)

112035 @ 아.(아.)

112035 #2 영장 가기 전에.(장사 지내러 가기 전에.)

112035 @ 영장 가기 전에.(장사 지내러 가기 전에.)

112035 #2 가기 전에 해불민 영영 관 앓다 낡 관 앞이 영헨 적갈도 놔근에 그 자 상제덜은 아이고, 아이고도 허곡 그자 현디 그때 왜 거기 강 놓느냐, 저디 상주덜은 관 들어갈 디 만드는데 시간을 맞아야지.(가기 전에 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관 가져다 놓고 관 앞에 이렇게 적갈도 놓고 그저 상제들은 아이고, 아이고도 하고 그저 했는데 그때 왜 거기 가서 놓느냐, 저기 상주들은 관 들어갈 데 만드는데 시간을 맞춰야지.)

112035 @ 예.(예.)

112035 #2 스시, 오시에 하관 허렌 허민 열두 시 이제 미시에 하관 허렌 허민 새로 두 시, 경허난 하관 시를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고 잇당 하관 시가 그자 열두 시에 하관을 혈 때 돼 가민 열헌 시 반만 돼민 이제 제물을. 이제 하관제, 초제 막 으라가지 따로따로 행 갖당 하관제를 출리지. 이디 떡 고기 과일 채소 뭐 음료수 다 놔근에 그뻐 상제덜이 친족덜이영 다 왕 하관제 보라, 하관제 보라 영 허명.(사시, 오시에 하관 하라고 하면 열두 시 이제 미시에 하관 하라고 하면 새로 두 시, 그러니까 하관 시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하관 시가 그저 열두 시에 하관을 혈 때 돼 가면 열한 시 반만 되면 이제 제물을. 이제 하관제, 초제 아주 여러 가지 따로따로 해서 가져다가 하관제를 차리지. 여기 떡 고기 과일 채소 뭐 음료수 다 놓고 그뻐 상제들이 친족들과 다 와서 하관제 보라, 하관제 보라 이렇게 하면서.)

112035 @ 으.(으.)

112038 #2 하관계 해영 하관계만 끝나면, 딱 열두 시 돼민 기자 친족덜 힘 잇는 사름덜 기자 누게 누게 확 관 들렁 가근에 탁 그 안에 강 들어 낱 봉분을 쌓는 거 주게.(하관계 해서 하관계만 끝나면, 딱 열두 시 되면 그저 친족들 힘 잇는 사람들 그저 누구 누구 확 관 들고 가서 탁 그 안에 가서 들어 놓고 봉분을 쌓는 거지.)

112038 @ 으.(으.)

112038 #2 이제 봉분 쌀 때도록은 이디 7만이 잇당 봉분만 열추 그자 쌓 가민 썼던 음식덜은 따로 어드레 챙겨 돼근에 또 따로따로 행 가난 또 음식을 내놓 또 그 제를 허는 거주.(이제 봉분 쌓을 때도록은 여기 가만히 있다가 봉분만 열추 그저 쌓아 가면 썼던 음식들은 따로 어디 챙겨 두고 또 따로따로 해서 갔던 또 음식을 내놓고 또 그 제를 하는 거지.)

112038 @ 으.(으.)

112038 #2 초제라고. 그건 초제.(초제라고, 그건 초제.)

112038 @ 초제. 봉분 다 쌓아 낱?(초제, 봉분 다 쌓아 놓고?)

112038 #2 어.(어.)

112038 @ 계민 봉분은 어떻 만드는 기술자가 잇는 거라, 봉분 만드는 기술자가?(그럼 봉분은 어떻게 만드는 기술자가 잇는 거요, 봉분 만드는 기술자가?)

112038 #2 그 장의사 엇인 때는 우리 영 상주 안에서 기술자가 잇더라.(그 장의사 없을 때는 우리 이렇게 상주 안에서 기술자가 잇더라.)

112038 @ 음.(음.)

112038 #2 그 기술자가 돌아보멍 요건 나온다, 요건 들어간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봉분 누게 싸서 허민 거 아무 사름 쌓주. 그 기술자를 말허는 거주.(그 기술자가 돌아보면서 요건 나온다, 요건 들어간다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봉분 누가 쌓았어 하면, 거 아무 사람 쌓았지. 그 기술자를 말하는 거지.)

112038 @ 으.(으.)

112038 #2 경허영 다른 사름은 심부름만 허고 기술자가 봉분 다 싸와근에 거자 봉분 쌓앙 손 털 때 돼 가민 빨리빨리 상제덜은 오라근에 난리주. 이젠 초제를 한다. 또 점심 상젠 봉분만 다 쌓민 앗앙 먹으니까 점심 이젠 막 출려 간다.(그래서 다른 사름은 심부름만 하고 기술자가 봉분 다 쌓아서 거의 봉분 쌓아와서 손 털 때 돼 가면 빨리빨리 상제들은 와서 난리지. 이젠 초제를 한다, 또 점심 상젠 봉분만 다 쌓으면 앗아서 먹으니까 점심 이젠 차려 간다.)

112038 @ 예.(예.)

112038 #2 그건 이제 사돈집이서 출린 거난 출렁 온 사름이 출릴 거난 우리 상주 집인 초제만 해살 거주.(그건 이제 사돈집에서 차린 거니까 차려서 온 사름이 차릴 거니까 우리 상주 집엔 초제만 해야 할 거지.)

112038 @ 예.(예.)

112038 #2 계민 이제 초제 해 간다, 점심 먹어 간다 허민, 이젠 점심 다 먹으면 헐 거난 점심 다 먹어 가민 그 간식은 열더레 다 앗다 봐.(그럼 이제 초제 해 간다,

점심 먹어 간다 하면, 이젠 점심 다 먹으면 할 거니까 점심 다 먹어 가면 그 간식은 옆으로 다 가져다 놔.)

112038 @ 으.(으.)

112038 #2 앓다 놓고 이제 상주들 친족들은 초제 해근에 이제 옛날은 그 초제를 해서 그대로 집이 오면은 저 사진도 옛날 엮는 때에는 지방이라고 요만이 글 쓴 거 하나만 이제 아저 오라근에 저디 지방판³⁶⁶)이라고.(가져다 놓고 이제 상주들 친족들은 초제 해서 이제 옛날은 그 초제를 해서 그대로 집에 오면 저 사진도 옛날 없을 때에는 지방이라고 요만큼 글 쓴 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와서 저기 지방판이라고.)

112038 @ 으.(으.)

112038 #2 이 만이 현 지방판에.(이만한 지방판에.)

112038 @ 예, 지방 부치는 거.(예, 지방 붙이는 거.)

112038 #2 탁 상 싱경 아이고, 아이고 저디서 허는디.(탁 상 차려서 아이고, 아이고 저기서 하는데.)

112038 @ 그거 지방판이렌 불러?(그거 지방판이라고 불러?)

112038 #2 지방판, 저 지방 부찌는 거.(지방판, 저 지방 붙이는 거.)

112038 @ 으.(으.)

112038 #2 경허디 이제 또 흐쓸 잊어가난 사진이 나오더라고.(그런데 이제 또 조금 있어가니까 사진이 나오더라고.)

112038 @ 으.(으.)

112038 #2 계난 사진 윽더레 지방을 툭 부찌근에 가정 오더라고. 경허단 이젠 또 어떤 시대가 나느냐. 행 오민 뒷날 아침엔 집이 오라근에 재우제를 허여. 산에선 초제.(그러니까 사진 옆으로 지방을 툭 붙여서 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젠 또 어떤 시대가 나느냐. 해서 오면 뒷날 아침엔 집에 와서 재우를 해. 산소에선 초우.)

112038 @ 으.(으.)

112038 #2 또, 또 뒷날은 삼우제를 헤여.(또, 또 뒷날은 삼우를 해.)

112038 @ 초제, 재우제, 삼우제.(초우, 재우, 삼우.)

112038 #2 삼우제.(삼우.)

112038 @ 아.(아.)

112038 #2 삼우제를 허난 언마나 시끄러울 거니. 경허단 아이 이젠 산에서 축을 썬 간디 초제, 재우제, 삼우제를 다.(삼우를 하니까 얼마나 시끄러울 거니. 그러다가 아이 이젠 산소에서 축을 써서 갔는데 초우, 재우, 삼우를 다.)

112038 @ 하하하.(하하하.)

112038 #2 하하.(하하.)

112038 @ 아, 시대가 바뀐점구나.(아,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112038 #2 으.(으.)

366) '지방판'은 제사나 명절 때 지방을 써서 붙이는 도구를 말한다.

112038 @ 하하.(하하.)

112038 #2 계난 이제 뭐 저 사진허고 지방은 아정 오는데 아정 오랑 쪽 들어 놔 불고.(그러니까 이제 뭐 저 사진하고 지방은 가져서 오는데 가지고 와서 쪽 들어 놔 버리고.)

112038 @ 으.(으.)

112038 #2 뭐 상을 싱그카. 어떤 사름덜은 옷도 벗엉 그디서 팍팍 슬아 불고. (뭐 상을 차릴까. 어떤 사람들은 옷도 벗어서 거기서 팍팍 살라 버리고.)

112038 @ 으.(으.)

112039 #2 어떤 사름덜은 아정 오랑. 또 전인 아정 오랑 가만이 놔뒀당이 일 년 이 돌아오면 그 옷을 입엉 대상허는 식으로 허단에 이젠 일 년 돌아오민 제로 해 불어.(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또 전엔 가지고 와서 가만히 놔뒀다가 일 년이 돌아오면 그 옷을 입고 대상하는 식으로 하다가 이젠 일 년 돌아오면 제로 해 버 려.)

112039 @ 음. 그 웨 영 문을 때 보민 그 묻는 거 보지 말아야 웨는 사름덜 잇 지 안 허과?(음. 그 왜 이렇게 문을 때 보면 그 묻는 거 보지 말아야 되는 사름덜 잇지 않습니까?)

112039 #2 으.(으.)

112039 @ 그거 뭐렌 곶아?(그거 뭐라고 말해?)

112039 #2 그거는 지관신디 날 보레 가면은.(그거는 지관에게 날 보러 가면.)

112039 @ 으.(으.)

112039 #2 이제 날 보레 간 사름이 큰아덜은 멧 설, 죽은아덜은 멧 설, 손자 멧 설, 딸은 멧 설, 이 자식덜 나이를 딱 간 그 지관 앞이 놓면.(이제 날 보러 간 사 람 이 큰아들은 몇 살, 작은아들은 몇 살, 손자 몇 살, 딸은 몇 살, 이 자식들 나이를 딱 가서 그 지관 앞에 놓으면.)

112039 @ 으.(으.)

112039 #2 지관이 영 봐근에 하관헐 때뿐이 아니고 입관헐 때.(지관이 이렇게 봐서 하관할 때뿐이 아니고 입관할 때.)

112039 @ 으.(으.)

112039 #2 이제도 멧 설 허고 멧 설랑 보지 말라.(이제도 멧 살 하고 멧 살은 보지 말라.)

112039 @ 그거는 보지 말렌 현 건 상제덜에 해당허는 거?(그거는 보지 말라고 한 건 상제들이 해당하는 거?)

112039 #2 상제덜이 보지 말렌.(상제들이 보지 말라고.)

112039 @ 아.(아.)

112039 #2 또 하관헐 때도.(또 하관할 때도.)

112039 @ 으.(으.)

112039 #2 무신 생, 무신 생 멧 설랑 보지 말라.(무슨 생, 무슨 생, 멧 설은 보

지 말라.)

112039 @ 아.(아.)

112039 #2 그 지관이 다 경 해 주는 거.(그 지관이 다 그렇게 해 주는 거.)

112039 @ 그걸 부르는 이름, 그걸 호충이엔 허는 말이 있어났수과? 그런 말은 엇어난?(그걸 부르는 이름, 그걸 호충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말은 없었어요?)

112039 #2 난 호충 말은 안 들어신디.(난 호충 말은 안 들었는데.)

112039 @ 예, 예.(예, 예.)

112039 #2 게난 그건 상제, 아무 상제 걸렸저. 그 상젠 걸리난 보지 말라.(그러니까 그건 상제, 아무 상제 걸렸어. 그 상젠 걸리니까 보지 말라.)

112041 @ 예. 경허고 영장 때 막 수고헌 사름덜안테 음식 주잖아예?(예. 그리고 장사 때 아주 수고한 사람들에게 음식 주잖아요?)

112041 #2 어.(어.)

112041 @ 아까 떡으로 줬덴 헛잖아예?(아까 떡으로 줬다고 했잖아요?)

112041 #2 어.(어.)

112041 @ 그 떡을 부르는 이름은 엇수과, 무슨 떡이렌 불렀수과?(그 떡을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까, 무슨 떡이라고 불렀습니까?)

112041 #2 공정³⁶⁷.(‘공정’.)

112041 @ 공정 예, 맞수다. 맞수다.(‘공정’ 예, 맞습니다.)

112041 #2 공정.(‘공정’.)

112041 @ 예. 게민 이제는 갖다 왕 삼우제까지 다 지냈수다. 게민 이제 끝난 거?(예. 그럼 이제는 갖다 와서 삼우까지 다 지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

112041 #2 아니, 그디 아주 옛날은 집이 오랑 이틀 아침을 헤신디.(아니, 거기 아주 옛날은 집에 와서 이틀 아침을 했는데.)

112041 @ 으.(으.)

112041 #2 이젠 원 안 허난. 아주 옛날엔 이틀 아침을 헛어.(이젠 원 안 하니까. 아주 옛날엔 이틀 아침을 헛어.)

112041 @ 음.(음.)

112043 #2 경 영장행 와도 죽은 일 아니라. 게고 또 석 달이 뉘면은 삭망, 초하루 허는 거 말고.(그렇게 장사하고 와도 작은 일 아니야. 그리고 또 석 달이 되면 삭망, 초하루 하는 거 말고.)

112043 @ 음.(음.)

112043 #2 또 석 달이 뉘면은 졸국이렌 헤영 또 잇주.(또 석 달이 되면 졸국이라고 해서 또 있지.)

112043 @ 졸국?(졸국?)

112043 #2 졸국. 게난 것도 아침이 허는 거난 또 어디 강 들어보민 삭망에 ㄴ찌

367) ‘공정’은 장사를 지낼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 따위의 음식을 말한다.

걸리지 안 허영 헤지켄 허민 삭망에 ㄴ찌 헤 불고.(졸곡. 그러니까 것도 아침에 하는 거니까 또 어디 가서 들어보면 삭망에 같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삭망에 같이 해 버리고.)

112043 @ 예.(예.)

112043 #2 축을 헤 불고 걸령 못 허민 졸곡 트로 헤사.(축을 헤 버리고 걸려서 못 하면 졸곡 따로 해야.)

112043 @ 아.(아.)

112043 #2 겐 얼마나 옛날 삶이 퀘로와시니?(그래서 얼마나 옛날 삶이 괴로웠니?)

112043 @ 아.(아.)

112043 #2 게난 졸곡 끝나사 이제 영장헌 절차가 다 뵈 거주.(그러니까 졸곡 끝나야 이제 장사한 절차가 다 뵈 거지.)

112043 @ 게민 졸국도 날 봐사 허는 거구나?(그럼 졸국도 날 봐야 하는 거구나?)

112043 #2 으, 졸국은 날 봐 오라사.(으, 졸국은 날 보고 와야.)

112043 @ 게민 삭망에 걸리민 완전 좋은 거다예.(그럼 삭망에 걸리면 완전 좋은 거네요.)

112043 #2 졸국이, 석 덜 뵈 가민 상제가 강 날을 봐 오주게.(졸국이, 석 달 뵈 가면 상제가 가서 날을 보고 오지.)

112043 @ 예.(예.)

112043 #2 혼두 덜만, 혼 덜 뵈도 거주. 강 미룻.(한두 덜만, 한 달 뵈도 가지. 가서 미리.)

112043 @ 예.(예.)

112043 #2 강 보아 오민 아이구 졸국은 삭망에 ㄴ찌 허렌 허난 좋고. 삭망에 못 행 트로 헤사켜 허민 트로 허고.(가서 보고 오면 아이고, 졸국은 삭망에 같이 하고 하니가 좋고. 삭망에 못해서 따로 해야겠어 하면 따로 하고.)

112043 @ 게민 삭망 때도 예전에 초하루랑 보름이영 지내낫잖아예?(그럼 삭망 때도 예전에 초하루와 보름 지냈었잖아요?)

112043 #2 으.(으.)

112043 @ 요새는 삭망제 험니까?(요새는 삭망제 험니까?)

112043 #2 요새, 요샌 안 험서.(요새, 요샌 안 하고 있어.)

112043 @ 게민 옛날, 옛날 삼촌이 어렸을 때 삭망제랑 글후제 삭망제랑 막 트 난 거 잇수과?(그럼 옛날, 옛날 삼촌이 어렸을 때 삭망제와 그 이후에 삭망제와 아주 다른 거 있습니까?)

112043 #2 우리 어머니 멧 년에 돌아갔어. 그때도 우리 저 혼 덜에 두 번 허고 상식허곡 헤낫주.(우리 어머니 멧 년에 돌아갔어. 그때도 우리 저 한 달에 두 번 하고 상식 하고 했었어.)

112043 @ 음.(음.)

112043 #2 어머니 돌아간 때가 스십 년 됐신가?(어머니 돌아간 때가 사십 년 됐는가?)

112043 #1 안 됐수다.(안 됐습니다.)

112043 #2 어?(어?)

112043 @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시어머니 돌아가신 거?)

112043 #2 혼.(한.)

112043 @ 그때도 다 상식허고예?(그때도 다 상식하고요?)

112043 #2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지 안 헤시민 백 멧 설이라.(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지 않았으면 백 멧 살이야.)

112043 #1 백두 설.(백두 살.)

112043 #2 으, 백세 설?(으, 백세 살?)

112043 @ 백두 설.(백두 살.)

112043 #2 백두 설.(백두 살.)

112043 #1 어.(어.)

112043 @ 게민 삼십팔 년정도 됐수다예?(그럼 삼십팔 년 정도 됐네요?)

112043 #1 으.(으.)

112043 #2 예순 넷에 돌아가난.(예순 넷에 돌아가니까.)

112043 #1 넷에.(넷에.)

112043 @ 예. 게민 삼십팔 년 정도 됐신디 그때는?(예. 그럼 삼십팔 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112043 #2 그때도 다 헛주게.(그때도 다 했지.)

112043 @ 다 헛던 거.(다 했던 거.)

112042 #2 삭망 허고 상식 허고.(삭망 하고 상식 하고.)

112042 @ 상식 허민 삼시 세끼를 올렸던 거 아니?(상식 하면 삼시 세끼를 올렸던 거 아니?)

112042 #2 으.(으.)

112042 @ 게민 아침에는 밧디 가기 전이 올려신디 점심에는 어떻?(그럼 아침에는 밧에 가기 전에 올렸는데 점심에는 어떻게?)

112042 #1 점심에 왕 올렸주.(점심에 와서 올렸지.)

112042 #2 밧디 갓당 스몫 겁이 나주게. 돌아오명 무신 생각나느냐?(밧에 갔다가 사몫 겁이 나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나느냐?)

112042 #1 요즘사 사는 건.(요즘에야 사는 건.)

112042 #2 요샌 요 오도바이라도 탐저. 걸영 올 때난 돌아오명이 살아신 어무니 ㄱ트민 아이구, 나 제기 오젠 현 게 영 허단 보난 늦엇수다, 영 허주만은 구신이란 경도 못 곤고.(요샌 요 오토바이라도 타지. 걸어서 올 때니까 달려오면서 살아있는 어머니 같으면 아이고, 나 재게 오려고 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렇

게 하지만 귀신이니까 그렇게도 못 말하고.)
 112042 @ 하하.(하하.)
 112042 #2 가슴만 탕탕.(가슴만 탕탕.)
 112042 @ 때 놓치카 부덴.(때 놓칠까 봐.)
 112042 #2 으.(으.)
 112042 @ 놓치카 부덴.(놓칠까 봐.)
 112042 #2 경허난 것도이 구신이라. 죽으면 구신이 되는 거라. 가슴만 탕탕.(그러니까 것도 귀신이야.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야. 가슴만 탕탕.)
 112044 @ 으. 게민 소상, 대상은 언제까지 헤져신고예, 소상, 대상?(으. 그럼 소상, 대상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소상, 대상?)
 112044 #2 게메, 그때에 우리 어머니는 소상, 대상을 허고.(그러게, 그때에 우리 어머니는 소상, 대상을 하고.)
 112044 @ 예.(예.)
 112044 #2 어, 오 년, 아버지가 오 년 잇단 돌아가시냐, 예순아홉에 돌아가난.(어, 오 년, 아버지가 오 년 있다가 돌아갔는가, 예순아홉에 돌아갔으니까.)
 112044 @ 음. 시어머니보단 시아버지가.(음.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112044 #2 말썰.(나중에.)
 112044 @ 말썰.(나중에.)
 112044 #2 아바지 돌아가난에 저.(아버지 돌아가니까 저.)
 112044 #1 대상 안 헛주.(대상 안 했지.)
 112044 #2 대상 안 헛어? 소상 안 헛주.(대상 안 했어? 소상 안 했지.)
 112044 @ 아니, 소상이 먼저과, 대상이 먼저과?(아니, 소상이 먼저입니까, 대상이 먼저입니까?)
 112044 #2 소상이 먼저 허는 거주.(소상이 먼저 하는 거지.)
 112044 @ 소상이 먼저.(소상이 먼저.)
 112044 #2 소상 안 허고.(소상 안 하고.)
 112044 @ 예.(예.)
 112044 #1 소상 허고 대상 안 헛주.(소상 하고 대상 안 했지.)
 112044 #2 그때 상식 안 헛주게.(그때 상식 안 했지.)
 112044 @ 소상 허면 상식 안 해?(소상 하면 상식 안 해?)
 112044 #2 소상도 안 허고 그때 상식 안 헨에 ㄱ만 잇단에 저 거시기 대상만 헛주게.(소상도 안 하고 그때 상식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저 거시기 대상만 했지.)
 112044 @ 게민 다음에 대상만 헤분 거라?(그럼 다음에 대상만 한 거야?)
 112044 #2 으, 대상만 헛주게.(으, 대상만 했지.)
 112044 @ 예. 이제는 영장헤불민 다음에 식게헤 불잖아예?(예. 이제는 장사하면 다음에 제사해 버리잖아요?)
 112044 #2 으게. 그자 전에는 영장헐라면은 삼 년이면 두 돌이라이. 혼 돌이면

소상, 두 둘은 대상인데 대상 전에는 구신이 못 가.(으. 그제 전에는 장사하려면 삼 년이면 두 둘이야. 한 둘이면 소상, 두 둘은 대상인데 대상 전에는 귀신이 못 가.)

112044 @ 으.(으.)

112044 #2 산 인양[일양]으로 이 멧질 때가 돌아와도 차례식으로 그자 해 불고 허당 제라허게 소상 넘꼭 대상 넘꼭. 또 대상 넘으면 담제.(살아 있는 사람 모양으로 이 멧질 때가 돌아와도 차례식으로 그제 해 버리고 하다가 정식으로 소상 넘고 대상 넘고. 또 대상 넘으면 담제.)

112044 @ 으.(으.)

112044 #2 담제꺼지 넘어사 제라헌 구신이 웬에 제사허고 멧질은 허는데 지금 이이 죽으면 그자 무조건 멧질 돌아오민 멧질 해 불고 제 돌아오민 제 해 불고 그런 거 없어.(담제까지 넘어야 정식으로 귀신이 돼서 제사하고 멧질은 하는데 지금 죽으면 그제 무조건 멧질 돌아오면 멧질 해 버리고 제 돌아오면 제 해 버리고 그런 거 없어.)

112045 @ 예. 그 토롱이렌 현 거 알아지쿠과?(예. 그 토롱이라고 한 거 알겠습니까?)

112045 #2 토롱 알주게.(토롱 알지.)

112045 @ 토롱이 뭐과?(토롱이 뭐니까?)

112045 #2 토롱은 영장을 나면은 날이 엇영 못 물어.(토롱은 장사를 나면 날이 없어서 못 물어.)

112045 @ 음.(음.)

112045 #2 원 언만사 걸릴 지 날이 엇영 못 묻으면 구들에 몇 날 메틀 몇 달 놔둘 순 엇주게. 경허민 어디 그 어떤 사름덜은 장지 브딘 디 강이 깨끗허게, 무신 짐승 아니 파게게. 경허고 저 어디 서이 사름덜은 어디 울타리에 다 현텐 헤라만은 이디 사름덜은 보통 어디 혈 만 현 디 가근에 짐승이나 아니 멧기게.(원 얼마나 걸릴 지 날이 없어서 못 묻으면 구들에 몇 날 며칠 몇 달 놔둘 순 없지. 그러면 어디 그 어떤 사람들은 장지 가까운 데 가서 깨끗허게, 무슨 짐승 안 파게. 그리고 저 어디 서쪽 사람들은 어디 울타리에 다 한다고 하더라만 여기 사람들은 보통 어디 할 만 한 데 가서 짐승이나 안 다니게.)

112045 @ 음.(음.)

112045 #2 헛다근에 영장날 아침은 토롱 허민 구들엔 무시거 영장 엇어도 상싱경 일포만 헤근에이.(헛다가 장삿날 아침은 토롱 하면 구들엔 무엇 송장 없어도 상 차려서 '일포'만 해서.)

112045 @ 으.(으.)

112045 #2 영장날 아침은 그자 밥 먹영 강 그 토롱에 영장 아저당 묻는 거.(장삿날 아침은 그제 밥 먹고 가서 그 토롱에 영장 가져다가 묻는 거.)

112045 @ 그럼 토롱 허게 돼민 산제 같은 거 지내는 건 토롱 혈 때는 안 허잖아예?(그럼 토롱 하게 되면 산제 같은 거 지내는 건 토롱 할 때는 안 하잖아요?)

112045 #2 안 허주게. 건 임시 머치는 거.(안 하지. 건 임시 맡기는 거.)

112045 @ 예.(예.)

112045 #2 산젠 뭐 오래 살 디만 강 허는 거주.(산젠 뭐 오래 살 데만 가서 하는 거지.)

112045 @ 예. 게민 토통 허는 터는 보는 것도 아니고예?(예. 그럼 토통 하는 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112045 #2 으, 자기 생각에 어디가 좋암 직허다 허민.(으, 자기 생각에 어디가 좋을 것 같다 하면.)

112046 @ 게민 옛날에 묻엇당 집이 안 좋은 일 이시민 묘를 옮기기도 허잖아 예?(그럼 옛날에 묻엇다가 집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묘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112046 #2 천리.(이장.)

112046 @ 천리.(이장.)

112046 #2 으.(으.)

112046 @ 천리는 무사 허는 것과?(이장은 왜 하는 겁니까?)

112046 #2 게 곳사 곧듯게.(그래 아까 말하듯.)

112046 @ 곳사 곧듯 하하.(아까 말하듯 하하.)

112046 #2 하하. 곳사 곧듯 사름이, 아이고 그디 사름이 의지할 디 못 웬 디 묻엇는디 이제 천리 해야겠다. 또 어떤 디 미신 믿는 사름은 어떤 디 강 들으민 아이고 아무 산담은 그 산을 천리 해야켜.(하하. 아까 말하듯 사름이, 아이고 거기 사름이 의지할 데 못 된 데 묻엇는데 이제 이장 해야겠다. 또 어떤 데 미신 믿는 사름은 어떤 데 가서 들으면 아이고 아무 사성은 그 산소를 이장 해야겠어.)

112046 @ 으.(으.)

112046 #2 그 산 그대로 놔뒀은 안 웨켜.(그 산소 그대로 놔뒀서는 안 되겠어.)

112046 @ 음.(음.)

112046 #2 그자 그런 경우. 요즘은 혼디 파당 놔 부난 요즘 말은 헐 말이 엇지. 요즘은 다섯이고 열이고 다 팡 화장시키명 혼디 앓당 놔 부난.(그저 그런 경우, 요즘은 같이 파다가 놔 버리니까 요즘 말은 할 말이 없지. 요즘은 다섯이고 열이고 다 파서 화장시키면서 같이 가져다가 놔 버리니까.)

112046 @ 음.(음.)

112046 #2 옛날엔 어디 강 막 서꺼 가민.(옛날에 어디 가서 아주 어지러워 가면.)

112046 @ 으.(으.)

112046 #2 방방곡곡 나상 듣주게. 들으민 아이고, 아무 산담은, 그 산을 아맹해도 천리해야켜 허민 경헨 허는 사름도 싯곡.(방방곡곡 나서서 듣지. 들으면 아이고, 아무 사성은 아무래도 이장해야겠어 하면 그래서 하는 사람도 있고.)

112046 @ 으.(으.)

112046 #2 기자 못 살고, 부모나 어린 때에 죽어근에 아무 것도 몰른 때에 앓당

아무 디나 묻은 거 후에 장성혜영 잘 살아지곡 허민 아이고, 그디 사름 의지할 곳이 못 뵈 디 물어졌저 허영 좋은 터를 허영 묻는 사름도 잇곡. 경헨 천리허주.(그저 못 살고, 부모나 어린 때 죽어서 아무 것도 모른 때에 가져다가 아무 데나 묻은 거 후에 장성해서 잘 살고 하면 아이고, 거기 사름 의지할 곳이 못 되는 데 묻었어 해서 좋은 터를 해서 묻는 사름도 있고. 그래서 이장하지.)

112047 @ 케민, 이제 복은 언제 벗는 것과, 복? 이제 대상 다 끝나야 복 벗는 거?(그럼, 이제 복은 언제 벗는 겁니까, 복? 이제 대상 다 끝나야 복 벗는 거?)

112047 #2 으.(으.)

112047 @ 아.(아.)

112047 #2 머리창³⁶⁸)도 처음은 죽으면 베 멘드는 삼, 모시. 베 멘드는 이제 그런 것도 하주. 아주 옛날엔 그것을 베 멘드는 거를 해다가 상제에 영 머리에 두건도 둘러민 걸로 무끄고 여저 상제도 그거 험벅 허영 그걸로 이거 무끄고 허단 성복제 할 땐 그거 다 클러근에 흰 험벅으로 드렸당.(‘머리창’도 처음은 죽으면 베 만드는 삼, 모시. 베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많지. 아주 옛날엔 그것을 베 만드는 거를 해다가 상제에 이렇게 머리에 두건도 두르면 걸로 묶고 여자 상제도 그거 형겼 해서 그걸로 이거 묶고 하다가 성복제 할 땐 그거 다 풀어서 흰 형겼으로 드렸다가.)

112047 @ 아, 그것도 바꾸는 거라?(아, 그것도 바꾸는 거요?)

112047 #2 험벅으로 드렸당 저 소상허고 대상날 처낙은 그 북심이영 방장대영 슬아분 때 머리창에. 우린 일허불카 부덴 저 켜 걸쇄에.(형겼으로 드렸다가 저 소상하고 대상 저녁은 그 짚동과 상장 살라버린 때 ‘머리창’에. 우린 잃어버릴까 봐 저 켜 걸쇄에.)

112047 @ 예.(예.)

112047 #2 켜 걸쇄에 저디 헛당.(켄 걸쇄에 저기 헛다가.)

112047 @ 일허불카 부덴.(잃어버릴까 봐.)

112047 #2 으, 저걸 막 조심해야 돼여.(으, 저걸 아주 조심해야 돼.)

112047 @ 아, 일허불민 안 돼여?(아, 잃어버리면 안 돼?)

112047 #2 일허불민, 예를 들영 일허불민 시어멍 데껴베져다 영 허주게.(잃어버리면, 예를 들어 잃어버리면 시어머니 던져버렸다 이렇게 하지.)

112047 @ 하하.(하하.)

112047 #2 저 해녀덜은 이거 드렸다근에 급혈 적엔 강 물에 들지 안 허여. 경허민 아이구, 우리 시아방 물에 강 등가벳저.(저 해녀들은 이거 드렸다가 급할 때에 가서 물에 들지 았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물에 가서 담가버렸어.)

112047 @ 음.(음.)

112047 #2 경헨 거 머리창 멩심헛당 대상날 처낙은 앗양 강 그 북심이영 다 ㄱ 치 슬아 불고. 이디 저 대상 녀므민 담제 새엔 실을 드려 실.(그래서 거 ‘머리창’ 멩심헛다가 대상 저녁은 가지고 가서 그 짚동과 다 같이 살라 버리고. 여기 저 대상

368) ‘머리창’은 부모나 시부모 상이 났을 때 여자들이 머리에 넣어 땀을 닦는 긴 형겼 오리를 말한다.

넘으면 담제 새엔 실을 드려 실.)

112047 @ 음.(음.)

112047 #2 실 몇 곱 줄라메여. 경헛단 그 실은 담제날 저녁 술아 불고. 그레나 신디 뭐 이제 그거 험서?(실 몇 곱 줄라매. 그랬다가 그 실은 담젯날 저녁 살라 버리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그거 하니?)

112047 @ 게민 영장 나면 옛날에는 삼 년이께, 대상꺼지 허젠 허민예?(그럼 장사 나면 옛날에는 삼 년이잖아요, 대상까지 하려고 하면요?)

112047 #2 으.(으.)

112048 @ 그 사이에 뭐는 허지 말라 허는 그런 금기가 잇어났수과?(그 사이에 뭐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금기가 있었습니까?)

112048 #2 게메 삼 년 새엔 다른 건 뚜렷하게 몰르고. 이 집이 구들에 저 상을 못 싱경 곳을 못 허여.(그러게 삼 년 새엔 다른 건 뚜렷하게 모르고. 이 집에 구들에 저 상을 못 차려서 곳을 못 해.)

112048 @ 아, 곳?(아, 곳?)

112048 #2 으, 곳을 못 허고. 게고 상제도 어디 나그네신디라도 가젠 허민이 이 머리창 드렸단 건, 이 마지못행 집이 아이나 죽으면 아니 갈 수 엇이 가젠 허민 머리창 드렸단 것도 클러 똥 가야 똤여.(으, 곳을 못 하고. 그리고 상제도 어디 무당에게라도 가려고 하면 이 ‘머리창’ 드렸던 건, 이 마지못해서 집에 아이나 죽으면 아니 갈 수 없이 가려고 하면 ‘머리창’ 드렸던 것도 풀어 두고 가야 똤.)

112048 @ 아.(아.)

112048 #2 나 알아지는 건 삼 년 새에 못 허는 거 무시거 못 허는 거 잇주. 곳도 못 허고 못 허는 것이 셔.(내가 아는 건 삼 년 사이에 못 하는 거 무엇 못 하는 거 있지. 곳도 못 하고 못 하는 것이 있어.)

112048 @ 으.(으.)

112048 #2 정성스러운 건 못 허여.(정성스러운 건 못 해.)

제례

112049 @ 예. 이제 식계 물어보쿠다.(예. 이제 제사 물어보겠습니다.)

112049 #2 으.(으.)

112049 @ 식계허젠 허민 뭐 준비해났수과?(제사하려고 하면 뭐 준비했었습니까?)

112049 #2 그거게 그거, 그거.(그거 그거, 그거.)

112049 @ 그거 뭐?(그거 뭐?)

112049 #2 그자 제사상에 올리는 기본계.(그저 제사상에 올리는 기본.)

112049 @ 예.(예.)

112049 #2 떡허고 과일, 적, 목, 채소.(떡하고 과일, 적, 목, 채소.)

112049 @ 그럼 메칠날 식계 잇다 허민 먼저 뭐 준비해야 똤 거 아니?(그럼 며

칠날 제사 있다고 하면 먼저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

112049 #2 계메, 그거 그날 강 왓각 사오는 사람도 잇주만은 그자 이녁 튼내지는 건, 썩지 안 헐 건.(그러게, 그거 그날 가서 왓각 사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제 자기 생각나는 건, 썩지 않을 건.)

112049 @ 음.(음.)

112049 #2 서서히 준비해다 놔베사.(서서히 준비해 놔야.)

112049 @ 마음이.(마음이)

112049 #2 밤이 잠자리가 펜안허곡.(밤에 잠자리가 편안하고.)

112049 @ 하하.(하하.)

112049 #2 준비해다 놓지 못허민 오줌 마렵고.(준비해 놓지 못하면 오줌 마렵고.)

112049 @ 즈들아정?(걱정해서?)

112049 #2 으. 계난 우리 제사허는 건 대소상 헐 때나 제사헐 때나 그거 참.(으. 그러니까 우리 제사하는 건 대소상 할 때나 제사할 때나 그거 참.)

112052 @ 음, 계민 제물 올렸던 게 생선은 뭐 올려놔수과?(음, 그럼 제물 올렸던 게 생선은 뭐 올렸었습니까?)

112052 #2 생선은 시대에 따라.(생선은 시대에 따라.)

112052 @ 예.(예.)

112052 #2 아이고, 아주 옛날엔 생선이 어디 셔. 나 알앙보난 우럭 ㄱ튼 것도 허곡.(아이고, 아주 옛날엔 생선이 어디 있어. 나 알아보니까 우럭 같은 것도 하고.)

112052 @ 예.(예.)

112052 #2 요 바당에 요 쪼만한 어랭이도 허곡 다 허단.(요 바다에 요 쪼그만 황놀래기도 하고 다 하다가.)

112052 @ 어랭이도 헤놔수과?(황놀래기도 했었습니까?)

112052 #2 잘 살아져 가난 츠츠 벤자리 ㄱ튼 거 원 굴림 엇이 이 제숙³⁶⁹⁾ 허단에 츠츠 헤가단 뭐 이제라 가난 당일바리³⁷⁰⁾ 아니민 뭐 무시거여 뭐여 허명덜 경험신게.(잘 살아 가니까 차차차 벤자리 같은 거 원 가림 없이 이 ‘제숙’ 해다가 차차 뭐 이제야 가니까 ‘당일바리’ 아니면 뭐 무엇이야 뭐야 하면서들 그렇게 하고 있네.)

112052 @ 지금은 오토미 험니까? 여긴 뭐렌 굴아?(지금은 옥돔 험니까? 여긴 뭐라고 말해?)

112052 #2 옥돔.(옥돔.)

112052 @ 옥돔이렌 불러?(옥돔이라고 불러?)

112052 #2 옥돔이엔도 허고 저 솔라니엔도 허곡 생선이엔도 허곡 그냥 굴아지는냥.(옥돔이라고도 하고 저 ‘솔라니’라고도 하고 생선이라고도 하고 그냥 말하는

369) ‘제숙’은 제상(祭床)에 올리는 고기나 생선류를 말한다.

370) ‘당일바리’는 그날 잡은 생선을 말한다.

대로.)

112052 @ 골아지는 냥. 이제는 주로 그거 허는 것파?(말하는 대로. 이제는 주로 그거 하는 겁니까?)

112052 #2 그거 그 당일바리엔 현 거 그날 강 잡아온 거게. 파닥파닥한 거.(그거 그 '당일바리'라고 하는 거 그날 가서 잡아온 거. 파닥파닥한 거.)

112052 @ 게민 옥돔 아니라도.(그럼 옥돔 아니여도.)

112052 #2 그거주게. 그 옥돔이 그날 강 나까 온 거.(그거지. 그 옥돔이 그날 가서 낚아 온 거.)

112052 @ 아.(아.)

112052 #2 그거 지금으로 이디 혼 오만 오천 원 옥만 원이라이.(그거 지금으로 여기 한 오만 오천 원 옥만 원이야.)

112052 @ 으.(으.)

112052 #2 키로에. 저 배 안 탄 거.(킬로에. 저 배 안 가른 거.)

112052 @ 예.(예.)

112052 #2 경허난 허곡 서귀포 가면은 웨국에서이. 그거는 배 탄 물리운 것도 혼 삼스만 원이민 사게.(그러니까 하고 서귀포 가면 외국에서. 그거는 배 갈라서 말린 것도 한 삼사만 원이민 사.)

112052 @ 예.(예.)

112052 #2 게민 이녀 형편에 따라.(그럼 자기 형편에 따라.)

112052 @ 예.(예.)

112052 #2 거이 잘헤지는 사름은 여기 오륙만 원짜리 옥돔 안 허민 제사 안 할 걸로 알아도 서귀포 강 그거 사는 사름도 많더라.(거 잘하는 사름은 여기 오륙만 원짜리 옥돔 안 하면 제사 안 할 거로 알아도 서귀포 가서 그거 사는 사름도 많더라.)

112052 @ 예. 그지, 요즘은 다 폐쌍 물린 거.(예, 그죠, 요즘은 다 배를 갈라서 말린 거.)

112052 #2 어. 고기 적도이.(어. 고기 적도.)

112052 @ 예.(예.)

112052 #2 요즘은 적 지레기가 이거라이.(요즘은 적 길이가 이거야.)

112052 @ 예.(예.)

112052 #2 현디 옛날은 요거라.(한데 옛날은 요거야.)

112052 @ 아이고.(아이고.)

112052 #2 이거, 이거.(이거, 이거.)

112052 @ 영 족아?(이렇게 작아?)

112052 #2 그 바다에 보말 잇지이.(그 바다에 고등 잇지.)

112052 @ 예.(예.)

112052 #2 말이 보말적이라. 똑 이거, 이거. 이거난이 적 하영 안 들어.(말이 고등적이야. 똑 이거, 이거. 이거니까 적 많이 안 들어.)

112052 @ 으.(으.)

112052 #2 이거 허민 무시거 요거 녀 점.(이거 하면 무엇 요거 녀 점.)

112052 @ 무사 고기 구허기 힘들어 부난? 비싸 부난?(왜 고기 구하기 힘들어 버리니까, 비싸 버리니까?)

112052 #2 아, 옛날엔 돼지가 그처럼 시냐게? 집이 질루는 거 저 옛날에 말로 저 화장실이 아닌 돛통에 질루는 거 추석 때 돌아와 가민 아이고 어디 멧질 계속 햄젠 해근에 가근에 부떠근에 그거 킬로도 아니, 근으로 해근에 요만치 그거 갈라 오민 어느 거 이만씩 적 할 거 잇어게. 요만씩이나 허주.(아, 옛날엔 돼지가 그렇게 있니? 집에 기르는 거 저 옛날에 말로 저 화장실이 아닌 돼지우리에 기르는 거 추석 때 돌아와 가면 아이고 어디 멧질 ‘제숙’ 한다고 해서 가서 붙어서 그거 킬로도 아니, 근으로 해서 요만치 그거 갈라오면 어느 거 이만큼씩 적 할 게 있어. 요만큼씩 하지.)

112052 @ 으.(으.)

112052 #2 겐 돼지도 혼전헛어?(그래서 돼지도 혼전헛어?)

112052 @ 겐 돼지고기영 쇠고기영 적 현 거?(그래서 돼지고기와 소고기와 적한 거?)

112052 #2 으, 경헛 못 허는 사름도 싣고 허는 사름도 싣고.(으, 그렇게 못 하는 사름도 있고 하는 사름도 있고.)

112052 @ 음.(음.)

112052 #2 옛날엔이 산디쫄로 허여도 떡은 기본으로 다 허는디.(옛날엔 발벼쫄로 해도 떡은 기본으로 다 하는데.)

112052 @ 으.(으.)

112052 #2 적은 이제처럼 변화허게 안 허여. 적은 저 요만씩 현 적 녀 점씩 세 고지 사라에 올르민 뿐 좋느냐? 그처럼 행 적이. 이제 적이 이만씩 해놓난 세 고지 만 올려도 사라가 듨씩햄주.(적은 이제처럼 변화허게 안 해. 적은 저 요만큼씩 한 적 네 점씩 세 꼬치 접시에 올리면 본 좋니? 그렇게 해서 적이. 이제 적이 이만큼씩 하니까 세 꼬치만 올려도 접시가 푸짐하지.)

112056 @ 아, 기라예. 게민 적은 그거 헛고 떡 헛고, 누물은?(아, 그렇쫄. 그럼 적은 그거 헛고 떡 헛고, 누물은?)

112056 #2 이제사 이제 무신 잡채여 시금치영 뭐 베라허게 해도 옛날 나 킨 본 뎨 집에서 콩누물은 놔.(이제야 이제 무슨 잡채며 시금치와 뭐 별나게 해도 옛날 내가 커서 본 뎨 집에서 콩나물은 놔.)

112056 @ 으.(으.)

112056 #2 고사린 원 옛날부터 세상, 기본이 그거.(고사린 원 옛날부터 세상, 기본이 그거.)

112056 @ 으.(으.)

112056 #2 또 묵메물³⁷¹이라고 그거. 원 그처럼 그거 채소 그거여.(또 ‘묵메물’

이라고 그거. 원 그렇게 그거 채소 그거야.)

112056 @ 계민, 콩누물은 집에서 질렀던 거?(그럼, 콩나물은 집에서 키웠던 거?)

112056 #2 으, 길러.(으, 키워.)

112056 @ 며칠이던 그 콩누물은 큼니까?(며칠이면 그 콩나물은 큼니까?)

112056 #2 사름에 딸랑. 잘허는 사름은 콩 물에 담갔당 건져근에 그 시루 고망 아래 많이 잇지이?(사람에 따라. 잘하는 사람은 콩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그 시루 구멍 아래 많이 잇지?)

112056 @ 으.(으.)

112056 #2 고망 우터렌 콩 썰지 못허게 무신 검질이영 살살 놔근에 그렌 물 부른 콩 특허게 슬허게 낱 저 여름에는 덤지 안 허게 시원헌 디 낱 물만 주멍 키우고 겨울에는 저 방안에 딱뜻헌 디 놔도 경 잘 키와.(구멍 위에 콩 쓸지 못허게 무슨 검불과 살살 놔서 그리 물 부른 콩 특허게 살짝 놓고 저 여름에는 덤지 않게 시원헌 데 놓고 물만 주면서 키우고 겨울에는 저 방안에 딱뜻헌 데 놔도 그렇게 잘 키워.)

112056 @ 으.(으.)

112056 #2 경 콩누물은 집에서 키와.(그렇게 콩나물은 집에서 키워.)

112056 @ 계민 식게허젠 허민 집에서 콩누물 헤시큰게.(그럼 제사하려고 하면 집에서 콩나물 했겠네요.)

112056 #2 하이고, 흔 보름 전이서부터 헤 놔사지게.(아이고, 한 보름 전에서부터 해 놓아야지.)

112054 @ 하하. 계민 떡은 아까 다섯 개 종류?(하하. 그럼 떡은 아까 다섯 개 종류?)

112054 #2 어게.(어.)

112054 @ 무슨 떡이었지.(무슨 떡이었지.)

112054 #2 친떡³⁷².(‘친떡’)

112054 @ 친떡. 친떡이렌 해, 시리떡이렌 해? 뭘 하영 곶앗수과?(‘친떡’. ‘친떡’이라고 해, ‘시리떡’이라고 해? 뭘 많이 말했습니까?)

112054 #2 우리 저 제사에 쓰는 떡은 제편³⁷³이라이.(우리 저 제사에 쓰는 떡은 백설기야.)

112054 @ 제편.(백설기)

112054 #2 그 친떡은 어떤 거냐, 팻 낱 무친 떡이 친떡이고이.(그 ‘친떡’은 어떤 거냐, 팻 놓고 문힌 떡이 ‘친떡’이고.)

112054 @ 아.(아.)

112054 #2 또 제편은 이추룩 팻 엇이. 저 떡광 떡 사이를 갈르지 못 허니까.(또 백설기는 이렇게 팻 없이. 저 떡과 떡 사이를 가르지 못 하니까.)

371) ‘묵메물’은 메밀묵을 가늘게 채 썰어서 나물처럼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372) ‘친떡’은 팻 등의 고물을 문힌 시루떡을 말한다. ‘침떡’, ‘시리떡’이라고도 한다.

373) ‘제편’은 시루떡을 말한다.

112054 @ 예.(예.)

112054 #2 옛날 할머니들은 나 낀 보낸 덩기단 보민 대나무썩 잊지이?(옛날 할머니들은 내가 커서 보니까 다니다 보면 댓잎 잊지?)

112054 @ 예.(예.)

112054 #2 대나무썩을 좀 훑은 걸로 깨끗이 양껏 다 그차 두고 떡 흔 도리³⁷⁴ 놔 가지고 대나무썩 흔 도리 수뻑 더끄꼭 또 그루 흔 도리 놔 대나무썩 더끄꼭 헤영 쳐 내민 떡 영 행 비여더근에 대나무썩 떼 내고.(댓잎을 좀 굵은 걸로 깨끗이 양 끝 다 잘라 두고 떡 한 층 놔 가지고 댓잎 한 층 가득 덮고 또 가루 한 층 넣고 댓잎 덮고 해서 찌 내면 떡 이렇게 해서 베어서 댓잎 떼어 내고.)

112054 @ 으.(으.)

112054 #2 경허명 행 그것이 제펜이라. 그것이 제사에 쓰곡.(그러면서 해서 그것이 백설기야. 그것이 제사에 쓰고.)

112054 @ 으.(으.)

112054 #2 풋 논 것은, 풋은 구신 다올리는 거라. 그건 제사에 안 써.(팔 넣은 것은, 팔은 귀신 쫓는 거야. 그건 제사에 안 써.)

112054 @ 예.(예.)

112054 #2 우리가 삼 년 대상 안 넘을 때는 산 일양으로 풋 논 친떡을, 제물떡을 하는데 삼 년 넘은 제사는 그 풋 논 걸 안 써.(우리가 삼 년 대상 안 넘을 때는 살아 있는 사람 모양으로 팔 넣은 ‘친떡’을, 제물떡을 하는데 삼 년 넘은 제사는 그 팔 넣은 걸 안 써.)

112054 @ 아, 삼 년 전에는 귀신 아니구나?(아, 삼 년 전에는 귀신 아니구나?)

112054 #2 어, 산 일양.(어, 살아 있는 사람 모양.)

112054 @ 아.(아.)

112054 #2 계난 지금 어떤 사람은 뭇도 모르고 산 사람 먹기 좋게 허민 먹기 좋주 해도 아는 사람은 절대 풋 논 떡 안 쓴다. 여기서덜.(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뭇도 모르고 산 사람 먹기 좋게 하면 먹기 좋지 해도 아는 사람은 절대 팔 넣은 떡 안 쓴다. 여기에서들.)

112054 @ 음.(음.)

112054 #2 겐디 영 방에간에도 영 강 보민 잘 먹젠 이 그런 맛있는 친떡을 허고 제사에 쓸 건 흰 친떡은 멧 빗³⁷⁵만 따로 한다.(그런데 이렇게 방앗간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잘 먹으려고 그런 맛있는 ‘친떡’을 하고 제사에 쓸 건 흰 ‘친떡’은 멧 ‘빗’만 따로 한다.)

112054 @ 음.(음.)

112054 #2 제펜.(백설기.)

112054 @ 제펜.(백설기.)

374) ‘도리’는 돌레를 돌게 겹을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여기서는 시루떡의 한 층을 가리키고 있다.

375)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날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112054 #2 제펜, 인절미, 절편, 솔벤, 우짜.(백설기, 인절미, 절편, 솔편, 웃기떡.)
 112054 @ 음, 겐 다섯 개 올렸던 거?(음, 그렇게 다섯 개 올렸던 거?)
 112054 #2 다섯 가지.(다섯 가지.)
 112054 @ 순서가 그렇게 뵈 거라예?(순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112054 #2 으.(으.)
 112054 @ 제펜.(백설기.)
 112054 #2 인절미.(인절미.)
 112054 @ 인절미.(인절미.)
 112054 #2, @ 절편, 솔벤, 우짜.(절편, 솔편, 웃기떡.)
 112055 @ 겐 다섯 개 올렸던 거, 떡은예. 과일은 아까 세 종류?(그래서 다섯 개 올렸던 거, 떡은요. 과일은 아까 세 종류?)
 112055#2 음.(음.)
 112055@ 사과, 배.(사과, 배.)
 112055#2 어, 요즘은게, 옛날에 경헛주, 요즘은 뭐 이신 대로 뭐.(어, 요즘은, 옛날에 그랬지, 요즘은 뭐 있는 대로 뭐.)
 112055@ 으.(으.)
 112055#2 바나나도 올리꼭 수박도 사단 올리고 요새 안 올리는 거 시냐? 상다리가 무너지게 올림주.(바나나도 올리고 수박도 사다가 올리고 요새 안 올리는 거 있나? 상다리가 무너지게 올리고 있지.)
 112056 @ 채소는 두 개? 아까 고사리랑 콩나물이랑?(채소는 두 개? 아까 고사리와 콩나물과?)
 112056 #2 세 개라. 그 그것도 채소에 들어가. 목을 고지에 끼우는 거 말앙 요추록 즐게 썰영 그릇 하나에는 그 목을 낵 목메물.(세 개야. 그 그것도 채소에 들어가. 목을 꼬치에 끼우는 거 말고 요처럼 잘게 썰어서 그릇 하나에는 그 목을 낵고 '목메물'.)
 112056 @ 음. 기민 그것도 채소로 보는 것파?(음. 그럼 그것도 채소로 보는 겁니까?)
 112056 #2 으, 목메물.(으, '목메물'.)
 112056 @ 무수 썰영은 안 헤낫수과? 빙떡 속에 낵는 거추록 채 썰영 그거는 낵물로 안 헤난?(무 썰어서는 안 했습니까? 빙떡 속에 낵는 것처럼 채 썰어서 그거는 낵물로 안 했어?)
 112056 #2 그거는 허면은 그것만은 따로 안 허여. 콩나물에 서트던가.(그거는 하면 그것만은 따로 안 해. 콩나물을 쉼던지.)
 112056 @ 아, 예, 예. 호박 썰영은 낵물로 안 헤난?(아, 예, 예. 호박 썰어서는 낵물로 안 했어?)
 112056 #2 호박도 헤낫어.(호박도 했었어.)
 112056 @ 헤낫어예?(했었지요?)

112056 #2 호박도 해나면, 호박도 호박만은 따로 안 올려. 저 고사리나. 저, 저 고사리는 절대 다른 거 안 허고.(호박도 하면, 호박도 호박만은 따로 안 올려. 저 고사리나. 저, 저 고사리는 절대 다른 거 안 하고.)

112056 @ 콩늬물?(콩나물?)

112056 #2 콩늬물이나 멧 점 언지주. 호박도 메물 허여.(콩나물이나 멧 점 없지. 호박도 '메물' 해.)

112056 @ 으, 경 채소도 세 가지를 허는 거라예?(으, 그렇게 채소도 세 가지를 하는 거지요?)

112056 #2 으.(으.)

112058 @ 계민 밥은 누게가 거리는 것과? 밥 뜨는 거?(그럼 밥은 누가 뜨는 겁니까? 밥 뜨는 거?)

112058 #2 밥 뜨는 건 보통 제사하는 사람이 뜨지.(밥 뜨는 건 보통 제사하는 사람이 뜨지.)

112058 @ 안주인이 뜨는 거라예?(안주인이 뜨는 거지요?)

112058 #2 으, 으.(으, 으.)

112058 @ 거 메 거린텐 험니까?(거 메 뜬다고 험니까?)

112058 #2 으, 메 거린텐.(으, 메 뜬다고.)

112058 @ 예.(예.)

112058 #2 아이고, 메 거리라, 메 거리라. 메 거린텐 허주.(아이고, 메 떠라, 메 떠라. 메 뜬다고 하지.)

112058 @ 쟁은?(쟁은?)

112058 #2 쟁은게.(쟁은.)

112058 @ 쟁은 뭐로 끓이는 거라?(쟁은 뭐로 끓이는 거야?)

112058 #2 쟁은 막 치레하는 사람은 요즘 옥돔도 상 험주만은 바닷고기도 허고 소고기도 허고 이녁 허고 싶은 거 허주게.(쟁은 아주 치레하는 사람은 요즘 옥돔도 사서 하고 있지만 바닷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112058 @ 주로 뭐 해낫수과, 삼춘은?(주로 뭐 했었습니까, 삼춘은?)

112058 #2 우리는 뭐 허여 우린. 우리도 철에 따라 제사가 여름이라 부난 난 바닷고기도 하영 허고 저 소고기도 할 때도 잇고 그자.(우리는 뭐 해 우린. 우리도 철에 따라 제사가 여름이여 버리니까 난 바닷고기도 많이 하고 저 소고기도 할 때도 잇고 그저.)

112058 @ 기민 옛날에 삼춘이 말앙 할 때에 메나 쟁은 삼춘이 거리는 거였고 지금 메누리가 허난 메누리가 거려?(그럼 옛날에 삼춘이 말아서 할 때에 메나 쟁은 삼춘이 뜨는 거였고 지금 며느리가 하니까 며느리가 떠?)

112058 #2 나 할 때도게 메누리도 오라시민 메누리도 거리렌 허곡 동세도 거리렌 해낫주게.(내가 할 때도 며느리도 왔으면 며느리도 뜨라고 하고 동서도 뜨라고 했었지.)

112059 @ 예, 거리렌 헤난예. 헌관이 뭐과, 헌관? 제사 지낼 때 헌관, 초헌관?
(예, 뜨라고 했었지요. 헌관이 뭘니까, 헌관? 제사 지낼 때 헌관, 초헌관?)

112059 #2 으.(으.)

112059 @ 뭐 허는 사름을 경 불런?(뭐 하는 사름을 그렇게 불렀어?)

112059 #2 저, 그 절허는 사름이 기본적 삼헌 세 사름이주게.(저, 그 절하는 사
람이 기본적 삼헌 세 사름이지.)

112059 @ 음.(음.)

112059 #2 세 사름이난 쥘 큰 사름은 초헌.(세 사름이니까 쥘 큰 사름은 초헌.)

112059 @ 음.(음.)

112059 #2 저 두 번차 사름은 아헌.(저 두 번째 사름은 아헌.)

112059 @ 음.(음.)

112059 #2 세 번찬 삼헌.(세 번째 삼헌.)

112059 @ 아. 초헌, 아헌, 삼헌.(아. 초헌, 아헌, 삼헌.)

112059 #2 으. 게난 헌관은 그 삼헌 베끼디 사름일 거여.(으. 그러니까 헌관은
그 삼헌 밖에 사름일 거야.)

112059 @ 그 사름을 삼헌이렌 헐 거마씨. 그 사름덜이 술 올리고 제 올리고.(그
사름을 삼헌이라고 할 거예요. 그 사름들은 술 올리고 제 올리고.)

112059 #2 으, 이 세 사름은 저 절만 허고 그 사름 양쪽에 사듬서 이레 수저도
놓고 잔도 깔고. 영 이레 제관신더레 잔도 앓다 드리고 허는 거주.(으, 이 세 사름
은 저 절만 하고 그 사름 양쪽에 서 있으면서 이쪽에 수저도 놓고 잔도 깔고. 이렇
게 이리 제관에게 잔도 가져다 드리고 하는 거지.)

112059 @ 으.(으.)

112059 #2 그 집서.(그 집사.)

112059 @ 집서. 집서헌덴 허지예, 집서예?(집사. 집사한다고 하지요, 집사요?)

112059 #2 으.(으.)

112060 @ 파제는 몇 시에 헤낫수과, 파지?(파제는 몇 시에 했었습니까, 파제?)

112060 #2 파제는 옛날엔, 옛날에는 열두 시가 쏙 돼여근에. 오죽해사 옛날에는
뚝 울어사 제 헛젠 헌디.(파제는 옛날엔, 옛날에는 열두 시가 쏙 되어서. 오죽해야
옛날에는 닭 울어야 제 했다고 했는데.)

112060 @ 하하.(하하.)

112060 #2 흔 시 나사 헤나신디 츄츄 헤 가난에 열두 시가 자정이라고 헨에 열
두 시에 파지 헤낫주게.(한 시 되어야 했었는데 차차 헤 가니까 열두 시가 자정이라
고 해서 열두 시에 파제 했었지.)

112060 @ 음.(음.)

112060 #2 헤난디 지금 또 당일 제로 아시날 저녁 지내 부난 곶아지크라?(했었
는데 지금 또 당일 제사로 전날 저녁 지내 버리니까 말할 수 있겠어?)

112060 @ 하하.(하하.)

112060 #2 옛날에는 옛날에는 파지가 제라허게 허는 사름은 열두 시가.(옛날에는 옛날에는 파제가 정식으로 하는 사름은 열두 시가.)

112060 @ 넘어사.(넘어야.)

112060 #2 으, 으 허단 열두 시에 헤낫주게.(으, 으 하다가 열두 시에 했었지.)

112060 @ 예. 전날 허니까예?(예. 전날 하나까요?)

112060 #2 으.(으.)

112061 @ 문전제³⁷⁶ 헤낫수과?('문전제' 했었습니까?)

112061 #2 문전제 험주게.(‘문전제’ 하고 있지.)

112061 @ 음.(음.)

112061 #2 제 허젠 허민 문전제 간소허게 그냥 영 현 웨상 헤근에 밥허고 국허고 기본, 그자 과일도 세 가지민 하나씩 세 개.(제 하려고 하면 ‘문전제’는 간소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외상 해서 밥하고 국하고 기본, 그저 과일도 세 가지면 하나씩 세 개.)

112061 @ 음.(음.)

112061 #2 채소도 고사리나 콩나물이나 묵이나 혼 그릇에.(채소도 고사리나 콩나물이나 묵이나 한 그릇에.)

112061 @ 음.(음.)

112061 #2 떡도 예를 들면 그 제편을 혼디.(떡도 예를 들면 그 백설기를 같이.)

112061 @ 음.(음.)

112061 #2 그 죽은 떡은 기자 하나씩.(그 작은 떡은 그저 하나씩.)

112061 @ 음.(음.)

112061 #2 경혜여근에 문전제 헤뒤사 큰제 허지게.(그래서 ‘문전제’ 해 뒤야 큰제 할 수 있게.)

112062 @ 그 제사할 때 보면 술잔 하나에 음식덜 차린 것을 툷아 놓잖아예?(그 제사할 때 보면 술잔 하나에 음식들 차린 것을 뜯어서 넣잖아요?)

112062 #2 으.(으.)

112062 @ 거 뭐렌 곶아?(거 뭐라고 말해?)

112062 #2 승냥.(승냥.)

112062 @ 승냥?(승냥?)

112062 #2 어.(어.)

112062 @ 승냥 말고 웨 코시헌텐 험니까? 음식덜 조금씩 다 툷아 놓는 거?(승냥 말고 왜 제반한다고 합니까? 음식들 조금씩 다 뜯어 넣는 거?)

112062 #2 그게, 그게 승냥 보시러게.(그게, 그게 승냥 보시기에.)

112062 @ 아, 승냥 보시에?(아, 승냥 보시기에?)

112062 #2 게난 제를 거저 헤가민.(그러니까 제를 거의 하면.)

112062 @ 예.(예.)

376) ‘문전제’는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112062 #2 국그릇이 으섯 개면 송늡을 으섯 개를 거려 가면은 그 제가 거자 헤 가면 그걸 내려와되근에 국그릇 놔난 자리에 송늡을 낵.(국그릇이 여섯 개면 송늡을 여섯 개를 뜨면 그 제가 거의 하면 그걸 내려서 국그릇 낵던 자리에 송늡을 낵고.)

112062 @ 예.(예.)

112062 #2 또 과일이든 밥이든 국이든 그 송늡 보시러레 다 헤여 낵.(또 과일이든 밥이든 국이든 그 송늡 보시기에 다 해 낵고.)

112062 @ 톤아 낵는 거?(뜯어 낵는 거?)

112062 #2 으, 겐 밖에 앳당 비와뵤주게.(으, 그래서 밖에 가져다가 비워버리지.)

112062 @ 밖에? 지붕에 올려 아니면?(밖에? 지붕에 올려 아니면?)

112062 #2 게메 지붕에게.(그레 지붕에.)

112062 @ 무사 경 올리는 것과? 먹으렌?(왜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먹으라고?)

112062 #2 경허민 뒷날은 가마귀가 오랑 먹어 갈 거주.(그러면 뒷날은 까마귀가 와서 먹고 갈 거주.)

112062 @ 하하.(하하.)

112062 #2 경허난 이젠 지붕이 이추룩 현 딘 높으고 쓰레트 지붕이고 헤 놓난 우리도 아들 강, 어디 강 비와뵤신디, 앳당 비와 부난 나 몰르크라.(그러니까 이젠 지붕이 이렇게 한 덴 높고 슬레이트 지붕이고 헤 놓으니까 우리도 아들 가서, 어디 가서 비우고 있는지, 가져다가 비워 버리니까 난 모르겠어.)

112062 @ 음. 경 식게헤 나민 막 음복도 허고 험니까?(음. 그렇게 제사하고 나면 음복도 하고 험니까?)

#2 음복 허주게. 음복, 요즘 젊은 사름덜은 잘 아니 먹나만은 여산 음복험 걸로 알앙 음복허주게.(음복 하지. 음복, 요즘 젊은 사름들은 잘 안 먹지만 음복할 거로 알아서 음복하지.)

112063 @ 옛날 식게는 몇 대까지 헤낵수과?(옛날 제사는 몇 대까지 했었습니까?)

112063 #2 멧 대?(멧 대?)

112063 @ 으, 지제는 멧 대 뵤민 지제허는 거라?(으, 제사를 안 하는 거는 멧 대 되면 제사를 안 하는 거야?)

112063 #2 저 막 케케묵은 때엔 고고조³⁷⁷꺼장 헤나신디 보통 나도 고조꺼장은 헤낵주게, 고조.(저 아주 케케묵은 때엔 ‘고고조’까지 했었는데 보통 나도 고조까지는 했었어, 고조.)

112063 @ 아, 고조까지 허민 멧 번을 식게험 거라?(아, 고조까지 하면 멧 번을 제사한 거야?)

112063 #2 으섯 번.(여섯 번.)

112063 @ 여섯 번.(여섯 번.)

377) ‘고고조’는 ‘고조(할아버지)’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112063 #2 부모 살면 당조 증조 고조, 고고조 허민 스대를 제를 헤나신디 그건 막 툇아진 케케묵은 집이나.(부모 살면 조부모 증조 고조, ‘고고조’ 하면 사대를 제를 했었는데 그건 아주 까다로운 케케묵은 집이나.)

112063 @ 하하하.(하하하.)

112063 #2 으, 경허고 보통은 고조.(으, 그렇고 보통은 고조.)

112063 @ 예.(예.)

112063 #2 겐디 우리도 고조꺼장은, 나도 고조꺼장은 헤낫주게.(그런데 우리도 고조까지는, 나도 고조까지는 했었어.)

112063 @ 겐 지금은, 지금은?(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112063 #2 지금은 우리는 제 못허난 우리 아덜로 계산으로 증조.(지금은 우리는 제 못하니까 우리 아들로 계산으로 증조.)

112063 @ 예, 예.(예, 예.)

112063 #2 게난 우리가 살아 부난 겐 당조허고 증조허고 네 번 허여.(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버리니까 겐 조부모하고 증조하고 네 번 해.)

112063 @ 당조허고 증조허고 네 번예?(조부모하고 증조하고 네 번요?)

112063 #2 으.(으.)

112064 @ 식게허젠 허민 뭐 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이 잇수과?(제사하려고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사항이 잇습니까?)

112064 #2 무시거 식게 이시민 이녁 부정헌 디나 안 가는 거베깁.(무엇 제사 잇으면 이녁 부정헌 데나 안 가는 거밖에.)

112064 @ 부정헌 디 안 가는 거예?(부정헌 데 안 가는 거요?)

112064 #2 으. 어디 넬 모리 제사가 돌아오랏다, 동네에 영장 낫다, 아이고 못 갈로구나.(으, 어디 넬 모레 제사가 돌아왔다, 동네에 장사 낫다, 아이고 못 가겠구나.)

112064 @ 음.(음.)

112064 #2 그거주게.(그거지.)

112064 @ 그거지예.(그거지요.)

112064 #2 게민, 동네에 영장 나민 영장헤 도렌 상뒤 빌레 오라시민 막 미안헤도 우리 제사 당허난 핑계 닐아도 우리 못 가켜, 경 곱아.(그럼, 동네에 장사 나면 장사해 주라고 상두꾼 빌리 왔으면 아주 미안헤도 우리 제사 당하니까 핑계 닐아도 우리 못 가겠어, 그렇게 말해.)

13.민간요법

113010 @ 다래끼 낫을 때?(다래끼 낫을 때?)

113010 #2 난 아무 것도 모르난 보리 방울 헤근예.(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보리

방울 해서.)

113010 @ 으.(으.)

113010 #2 그 우이 꼭대기 짹 나는 딜로 말고 뿌리 나는 딜로.(그 위에 꼭대기 짹 나는 데로 말고 뿌리 나는 데로.)

113010 @ 어.(어.)

113010 #2 그 다래끼를 영 꼭 꼭 열네 번 침 쥐, 열네 번.(그 다래끼를 이렇게 꼭 꼭 열네 번 침 쥐, 열네 번.)

113010 @ 으.(으.)

113010 #2 일곱 번씩 두 번.(일곱 번씩 두 번.)

113010 @ 으.(으.)

113010 #2 그거, 그거 해난 거베끼 엇어.(그거, 그거 했던 거밖에 없어.)

113010 @ 하하. 아, 기과?(하하. 아, 그렇습니까?)

113010 #2 어. 뭐 유식헌 사름덜은 뭐 발창에 글도 쓴텐 현디.(어. 뭐 유식한 사 람들은 뭐 발창에 글도 쓴다고 하는데.)

113010 @ 으.(으.)

113010 #2 난 그건 몰르고.(난 그건 모르고.)

113004 @ 그런 건 안 허고. 그럼 버즘, 버즘 낫을 땐?(그런 건 안 하고. 그럼 버짐, 버짐 낫을 땐?)

113004 #2 아이고, 버즘 낫을 땐, 버즘도 무신 버즘 잇어 저 도리버즘³⁷⁸ 잇고 무신 버즘 잇주게.(아이고, 버짐 낫을 땐, 버짐도 무슨 버짐 잇어 저 ‘도리버즘’도 잇고 무슨 버짐 잇지.)

113004 @ 버즘 종류 아까 뭐? 도리버즘?(버짐 종류 아까 뭐? ‘도리버즘’?)

113004 #2 으.(으.)

113004 @ 도리버즘 잇고 또?(‘도리버즘’ 잇고 또?)

113004 #2 기자 버즘 잇고.(그냥 버짐 잇고.)

113004 @ 아, 도리버즘 잇고.(아, ‘도리버즘’ 잇고.)

113004 #2 그대로 버즘도 잇고 허난.(그대로 버짐도 잇고 하니까.)

113004 @ 음. 그민, 도리버즘은 어떻 해난? 도리버즘이 어떤 거?(음. 그럼, ‘도 리버짐’은 어떻게 했었어? ‘도리버즘’ 어떻게 했었어? ‘도리버즘’이 어떤 거?)

113004 #2 동글랑허게 그뭇 벗어정 동글랑허여 츄츄츄츄 이 너비가 커져 가는 거.(동그랗게 금 벗어져서 동그래서 차차차차 이 너비가 커져 가는 거.)

113004 @ 아. 그리고 그냥 버즘은 그냥 버즘이고?(아. 그리고 그냥 버짐은 그냥 버짐이고?)

113004 #2 으.(으.)

113004 @ 게민 어떻 험니까?(그럼 어떻게 합니까?)

113004 #2 도리버즘 낫을 땐 나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돌벙이 험벽에 싸근에 그

378) ‘도리버짐’은 타원형의 반점이 생기는 버짐의 한 종류를 말한다.

버즘더레 막 민잘민잘³⁷⁹⁾ 민잘현³⁸⁰⁾ 풀 나오게 막 닝겨 가민 이따근에 혼 이틀 잇 당 씻어 불민 아이덜 좋아난 적 잇어. 거베깬.(‘도리버즘’ 닳을 땐 내가 옛날말로 저 집 없는 달팽이 형겅에 싸서 그 버짐에 아주 ‘민잘민잘’ ‘민잘’한 풀 나오게 마구 문 질러 가면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씻어 버리면 아이들 좋았던 적 잇어. 거밖에.)

113004 @ 아, 하하.(아, 하하.)

113004 #2 경도 허고 저 거시기도 신문도 저 혼두 장썸 헤영 몰아 가지고 접시에 헤영 톱 세왕 꼭대기로 불을 부치면 츠츠츠츠 카 오라 가민 문 카근에 확 불을 영 허민 노랑헌 기름이 접시 창³⁸¹⁾에 쯤 잇어.(그렇게도 하고 저 거시기도 신문도 저 한두 장썸 해서 말아 가지고 접시에 해서 톱 세워서 꼭대기로 불을 붙이면 차차 차차 타 와 가면 모두 타서 확 불을 이렇게 하면 노란 기름이 접시 바닥에 쯤 잇어.)

113004 @ 음.(음.)

113004 #2 것도 블라나고 윈 것베끼 몰라.(것도 발랐었고 윈 것밖에 몰라.)

113012 @ 아, 이빨 아플 땐 어떻 헤낫수과, 이빨 아플 땐?(아, 이빨 아플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빨 아플 땐?)

113012 #2 백분도 물어 보고.(백반도 물어 보고.)

113012 @ 백분?(백반?)

113012 #2 으, 겐 니 다 삭고.(으, 그래서 이 다 삭고.)

113012 @ 이빨 삭아불어 백분 물영?(이빨 삭아버려 백반 물어서?)

113012 #2 삭주게. 이빨 물민. 겨고게 윈 니빨 아프민 빠젠베깬 윈 고안을 못 헤 봤주게.(삭지. 이빨 물면. 그리고 윈 이빨 아프면 빼려고밖에 윈 고안을 못 헤 봤지.)

113011 @ 으. 눈 충혈 땀을 땐, 눈 빨강해전? 그냥 내불어?(으. 눈 충혈 땀을 땐, 눈 빨개졌어? 그냥 내버려?)

113011 #2 그자 그런대로 살암시민 좋앗주 뭐 그거 경.(그냥 그런대로 살고 있으면 좋았지 뭐 그거 그렇게.)

113013 @ 혀에 뭐 닳을 때?(혀에 뭐 닳을 때?)

113013 #2 경 헤 보진 안 헛어.(그렇게 헤 보진 았았어.)

113014 @ 천연두 같은 거 닳을 때 뭐 방법 잇수과? 홍역이나 천연두나?(천연두 같은 거 닳을 때 뭐 방법 있습니까? 홍역이나 천연두나?)

113014 #2 홍역도 우리 아이덜은 그자 살썸살썸 헤 불고.(홍역도 우리 아이들은 그자 살썸살썸 해 버리고.)

113005 @ 으. 게른 머리에, 머리에 백선, 이발충?(으. 그럼 머리에, 머리에 백선, 기계충?)

113001 #2 게메 늬들은 이발충이엔 현 거 낭 막 저들어도 우린 그런 거 안 헤

379) ‘민잘민잘’은 물컹한 것이 톱 따위를 잘 빠져나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80) ‘민잘허다’는 물컹한 것이 톱 따위를 잘 빠져나간다는 말이다.

381) ‘창’은 물건의 맨 아래 바닥을 말한다.

보난.(그러게 남들은 기계총이라고 한 거 나서 아주 걱정해도 우린 그런 거 안 해 보니까.)

113001 @ 아, 안 해 봤구나.(아, 안 해 봤구나.)

113001 #2 막 저들아.(아주 걱정해.)

113001 @ 그지예.(그렇죠.)

113001 #2 이발총 낫젠 허멍.(기계총 나오려고 하면.)

113001 @ 음.(음.)

113001 #2 다른 건 몰르고 이발총 낫젠 막 저들아.(다른 건 모르고 기계총 낫다고 아주 걱정해.)

113003 @ 으. 비듬 했을 땐? 비듬은, 그냥 내붙어?(으. 비듬 했을 땐? 비듬은, 그냥 내버려?)

113003 #2 비듬 무시거로 약을 해여.(비듬 무엇으로 약을 해.)

113003 @ 하하.(하하.)

113003 #2 우리 하르방은 빨래 비누로 감으난 돌아낫젠 헨게.(우리 할아버지는 빨래 비누로 감으니까 달아났다고 하더라.)

113003 @ 하하. 머리, 머리 감을 때 빨래 비누로 머리 감아.(하하. 머리, 머리 감을 때 빨래 비누로 머리 감아.)

113003 #2 으.(으.)

113006 @ 여드름, 기미, 주근깨 그냥 내붙었지예?(여드름, 기미, 주근깨 그냥 내버렸지요?)

113006 #2 그런 거 벗어나서게. 해 보질 안 허난.(그런 거 없었어. 해 보질 않으니까.)

113009 @ 사마귀? 손에 막 사마귀 같은 거 낫을 때.(사마귀? 손에 마구 사마귀 같은 거 낫을 때.)

113009 #2 그 사마귀가 나낫는다.(그 사마귀가 낫었는데.)

113009 @ 으.(으.)

113009 #2 언제 어떻 해신디 벗어나 벤게. 어느 때 어떻 해 분 처레 몰라.(언제 어떻게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 어느 때 어떻게 해 버린 줄 몰라.)

113009 @ 음.(음.)

113009 #2 나낫어.(낫았어.)

113009 @ 나낫어예?(낫았지요?)

113009 #2 으. 그것이 나이가 몇 살에 뉘면 자연으로 어느 때 벗어나 분 처레 모르게 벗어나 분 거 닳아.(으. 그것이 나이가 몇 살에 되면 자연으로 어느 때 없어져 버린 줄 모르게 없어져 버린 거 같아.)

113017 @ 볼거리 해낫수과?(볼거리 했었습니까?)

113017 #2 볼거리가 뭐라?(볼거리가 뭐야?)

113018 @ 목거리, 목 아팡? 목에 막 부엉 하는 거.(목거리 목 아파서? 목에 막

부어서 하는 거.)

113018 #2 몰라.(몰라.)

113022 @ 모르고. 종기 낫을 때 어떻 헛수과?(모르고. 종기 낫을 때 어떻게 했 습니까?)

113022 #2 아이고, 종기 난 땀 고안을 못 허민 고름 들어 불민 চে엇주게.(아이 고, 종기 낫을 땀 고안을 못 하면 고름 들어 버리면 찢지.)

113022 @ 집이 있는 칼로?(집에 있는 칼로?)

113022 #2 야부³⁸²⁾ 이사가, 의원이 잇엇어. 체는 의사.(돌팔이 의사가, 의원이 잇엇어. 짜는 의사.)

113022 @ 야부 하하하.(돌팔이 의사 하하하.)

113022 #2 그땀 허가고 무시거고, 의원이 침 주곡 스몹 체곡 허난.(그땀 허가고 무엇이고, 의원이 침 주고 사몹 짜고 하니까.)

113022 @ 어.(어.)

113022 #2 그런 녀덱헌 판쉬라고 체는 것이 잇주게.(그런 녀적한 바소라고 짜는 것이 있지.)

113022 @ 으.(으.)

113022 #2 চে엇주게, চে엇어.(찢지, 찢어.)

113022 @ 그냥 야부 의사안티 가 가지고예?(그냥 돌팔이 의사에게 가 가지고 요?)

113022 #2 으.(으.)

113024 @ 그 손 알렸을 때?(그 손 아렸을 때?)

113024 #2 아이고, 손 알릴 때.(아이고, 손 아릴 때.)

113024 @ 아이, 아파. 갑자기 생각허난.(아이, 아파. 갑자기 생각하니까.)

113024 #2 난 허단 허단 약도 버천 손도 다 병신땀 부난에 말힐 수가 엇인디. (난 하다 하다 약도 부쳐서 손도 다 병신땀 버리니까 말힐 수가 없는데.)

113024 @ 어무니 어디?(어머니 어디?)

113024 #2 아이고, 나 꿔우지 안 허켜.(아이고, 나 보여주지 않겠어.)

113024 @ 꿔우지 안 허여?(보여주지 않아?)

113024 #2 으.(으.)

113024 @손 알렸을 때? 그냥 방법이 엇어?(손 아렸을 때? 그냥 방법이 엇어?)

113024 #2 방법이 늑은 이거 해도 좋나, 저거 해도 좋나 해도 난 안 좋으멍 다 그췌록 안 췌게.(방법이 낑은 이거 해도 좋아, 저거 해도 좋아 해도 난 안 좋으면서 다 그렇게 안 췌어.)

113024 @ 으.(으.)

113024 #2 벨거 다 헤 봐도.(벨거 다 헤 봐도.)

113025 @ 두드레기 나민? 두드레기나 땀띠 나면?(두드레기 나면? 두드레기나

382) '야부'는 일본어 '야부'로 '야부 이사'는 '돌팔이 의사'를 말한다.

땀띠 나면?)

113025 #2 그것사 무신 약 잇어게? 두드레기 난 것사게. 기자 두드레기 낫젠 헤 근에 몸이나 감아 불고 어떻 헤 가민.(그거야 무슨 약 잇어? 두드레기 난 거야. 그 저 두드레기 낫다고 해서 몸이나 감아 버리고 어떻게 해 가면.)

113025 @ 으.(으.)

113025 #2 모욕이나 해블민 좋앗주.(모욕이나 하면 좋았지.)

113027 @ 애기덜 키울 때 경기 허민 어떻 헛수과?(아기들 키울 때 경기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13027 #2 침 맞치고 또 옷밤인가 무시거 그것덜만 사례 땡겨주게.(침 맞추고 또 올빼미인가 무엇 그것들만 사례 다녔지.)

113027 @ 옷밤?(올빼미?)

113027 #2 매여 무신 밤에 그 어느 엉덕 아래 사는 거, 거라 매엔사 헨신지 그거 옷밤이주, 옷밤.(매 무슨 밤에 그 어느 언덕 아래 사는 거, 거보고 매라고 했는지 그거 올빼미지, 올빼미.)

113027 @ 아.(아.)

113027 #2 그것만 사례 땡기고 무신 쟁땡주여 무시거여 행 땡이곡 침 맞치고.(그것만 사례 다니고 무슨 ‘쟁땡주’며 무엇이며 해서 먹이고 침 맞추고.)

113027 @ 쟁땡주?(‘쟁땡주’)

113027 #2 으. 애기 먹이는 거.(으. 아기 먹이는 거.)

113027 @ 그게 뭐라?(그게 뭐야?)

113027 #2 애기 먹이는 것이 잇어. 쟁땡주라고.(아기 먹이는 것이 잇어. ‘쟁땡주’라고.)

113027 @ 약으로 나온 것과?(약으로 나온 겁니까?)

113027 #2 으. 애기덜 땡이는 거.(으. 아기들 먹이는 거.)

113028 @ 으. 화상 했을 땡? 화상 했을 때 땡장 발랐수과?(으. 화상 했을 땡? 화상 했을 때 땡장 발랐습니까?)

113028 #2 술도 불르고.(술도 바르고.)

113028 @ 으.(으.)

113028 #2 옛날엔 술베끼, 간장이영 술이영 불라나신디 원 불르는 것이 엇어 가지고, 이젠 무신 알로에도 최고여, 이것도 최고여, 저것도 최고여.(옛날엔 술밖에, 간장과 술과 발랐었는데 원 바르는 것이 없어 가지고, 이젠 무슨 알로에도 최고여, 이것도 최고여, 저것도 최고여.)

113029 @ 동상일 때는?(동상일 때는?)

113029 #2 동상인 땡 요즘사 경 허라만은 나가 옛날 동상해나신디 이 발이 겁덕 혼엇이 벗어졌어.(동상인 땡 요즘에야 그렇게 하라만 내가 옛날 동상했었는데 이 발이 껍데기 한없이 벗겨졌어.)

113029 @ 아.(아.)

113029 #2 우리 어머니 그것 먹어신가 데껴 베신가. 차두 해 가지고 콩을 흔 사발쫂 차두에 낵.(우리 어머니 그것 먹었는가 던져 버렸는가. 자루 해 가지고 콩을 한 사발쫂 자루에 놓고.)

113029 @ 으.(으.)

113029 #2 발 이디 디물어낵 이디 무건디 그 발에 영 부떠난 콩을 윈 먹어나신디 어떻헤신디.(발 여기 집어낵고 여기 묶었는데 그 발에 이렇게 붙었던 콩을 윈 먹었었는지 어떠했는지.)

113029 @ 하하하.(하하하.)

113029 #2 그추룩 동상은 나가 걸려나신디 윈 경헌디 이젠 엇어져베서.(그처럼 동상은 내가 걸렸었는데 윈 그런데 이젠 없어졌어.)

113029 @ 엇어져베서예?(없어졌어요?)

113029 #2 으.(으.)

113030 @ 감기 걸리민 어떻 헤낵수과, 감기 걸리민?(감기 걸리면 어떻게 했었습니까, 감기 걸리면?)

113030 #2 감기 걸리민 무시거라 옛날에사게 무신 옛날엔 땡우지는 하니까 땡우지나 딸령 먹곡.(감기 걸리면 무엇이야 옛날에야 무슨 옛날엔 유자는 많으니까 유자나 달여서 먹고.)

113030 @ 뭐, 뭐 땡오지?(뭐, 뭐 ‘땡오지’?)

113030 #2 땡우지.(‘땡우지’.)

113030 @ 아, 땡유자. 아까 뭐레 곶앗수과 다시 한 번.(아, 유자.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 번.)

113030 #2 땡우지엔 허주 땡우지.(‘땡우지’라고 하지 유자.)

113030 @ 땡우지, 으.(유자, 으.)

113030 #2 경 허멍 게나 제나 흡지 말게 사노렌 허민 좋앗주, 이제난 병원에 확 감주만은.(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저러나 흡지 말도록 사느라 하면 좋앗지, 이제니까 병원에 확 가지만.)

113031 @ 기침힐 때도 마찬가지로 땡유지 딸령 먹언?(기침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자 달여서 먹었어?)

113031 #2 으, 기침힐 때도 마찬가지로라도 힐 만이 헤져사 좋아, 좋지 안헨게.(으, 기침할 때도 마찬가지로라도 할 만큼 해야 좋아, 좋지 않더라.)

113033 @ 으. 코피 나는 거나 그런 건 그냥 내불엇지예?(으. 코피 나는 거나 그런 건 그냥 내버렸지요?)

113033 #2 으. 내불엇어.(으. 내버렸어.)

113035 @ 이 허벅다리에 여기 허벅다리에 핏줄, 핏줄 막 부어오를 때, 그런 거 잇어난?(이 허벅다리에 여기 허벅다리에 핏줄, 핏줄 아주 부어오를 때, 그런 거 잇었어?)

113035 #2 몰라.(몰라.)

113036 @ 설사허민?(설사하면?)

113036 #2 설사허민 무신 약이 서계. 배 창자 거 다 나와 불민 좋주게.(설사하면 무슨 약이 있어. 배 창자 거 다 나와 버리면 좋지.)

113036 @ 하하하.(하하하.)

113036 #2 ㄱ만이 놔두민게.(가만히 놔두면.)

113036 @ 예, 어무니 맞수다.(예, 어머니 맞습니다.)

113036 #2 으.(으.)

113039 @ 저기 체했을 땐 어떻 헤낫수과?(저기 체했을 땐 어떻게 했었습니까?)

113039 #2 게난 나도 그걸 몰라 가지고 체했을 때 막 여기 사름은 따주게, 따는 걸 난 몰랑.(그러니까 나도 그걸 몰라 가지고 체했을 때 마구 여기 사름은 따지, 따는 걸 난 몰라.)

113039 @ 으.(으.)

113039 #2 애기 업영 그걸 뇨류레만 뎡겻주게. 그 손보는 할망신디.(애기 업고서 그걸 내리러만 다녔었지. 그 손보는 할머니에게.)

113039 @ 음, 손보는 할망. 게민 여기 할머니가 따 주는 거, 가민?(음, 손보는 할머니. 그럼 여기 할머니가 따 주는 거, 가면?)

113039 #2 아니 이디만 썰어, 이디만.(아니 여기만 썰어, 여기만.)

113039 @ 아, 썰어.(아, 썰어.)

113039 #2 어.(어.)

113039 @ 어무니가 체헐, 애기가 체헐?(어머니가 체했어, 애기가 체했어?)

113039 #2 애기.(아기.)

113040 @ 애기. 베엿을 땐, 손 베연?(아기. 베엿을 땐, 손 베었어?)

113040 #2 베엿을 때 어떻 헤게, ㄱ만이 체멩 내불민 좋주게.(베엿을 때 어떻게 해, 가만히 쳐매서 내버리면 좋지.)

113041 @ 흐흐흐. 모기 물린 땐? 그냥 내불어?(흐흐흐. 모기 물린 땐? 그냥 내버려?)

113041 #2 아이고, 난 모기 물린 때 메누리 몰르게 허젠 재기 좋게 허젠.(아이고, 난 모기 물린 때 며느리 몰르게 하려고 재기 좋게 하려고.)

113041 @ 으.(으.)

113041 #2 저 킬라 브르난 아인 다 죽어가고 애기 들멍.(저 (에프)킬라 바르니까 아인 다 죽어가고 아기 돌보면서.)

113041 @ 아, 손지 들 때? 하하.(아, 손자 돌볼 때? 하하.)

113041 #2 아이구, 메누리 알카 부덴 스뫓 겁나게.(아이고, 며느리 알까 봐 사뫓 겁났어.)

113041 @ 손지 볼 때 에프킬라 발라 불언?(손자 볼 때 에프킬라 발라 버렸어?)

113041 #2 어. 겐 애기가 스뫓 다 죽어지켄 허멍.(어. 그래서 애기가 사뫓 다 죽겠다고 하면서.)

113042 @ 하하하. 뱀 물린 때, 일허당 뱀 물린 때?(하하하. 뱀 물린 때, 일하다가 뱀 물린 때?)

113042 #2 뱀 물린 댄 나가 물어 봐신디, 뱀 물린 댄, 도새기 똥.(뱀 물린 댄 내가 물려 봤는데, 뱀 물린 댄, 돼지 똥.)

113042 @ 아아.(아아.)

113042 #2 도새기 똥 쳐메곡 즐르곡.(돼지 똥 쳐매고 동여매고.)

113042 @ 오오.(오오.)

113042 #2 발 물리민 이디 즐르곡, 손 물리민 이디 즐르곡 헤사주게, 우터레 올라가지 기영 올라가지 못허게.(발 물리면 여기 동여매고, 손 물리면 여기 동여매고 해야지, 위에 올라가지 기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113042 @ 아하, 도새기 똥 헨. 삼춘 물려난?(아하, 돼지 똥 했어. 삼춘 물렸어?)

113042 #2 으. 도새기허고 뱀이가 상극인 생이라.(으. 돼지하고 뱀이 상극인 모양이야.)

113042 @ 아하.(아하.)

113042 #2 겐디 아주 붓어, 붓곡 즐르민 아프곡 해도 경 험시난 어떻 안 헤연 살아전.(그런데 아주 부어, 붓고 동여매면 아프고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해사 살 수 있었어.)

113043 @ 벌 쏘이민?(벌 쏘이면?)

113043 #2 벌 쏘이민 무신 약이 셔. 그자 ㄱ만이 내불민, 붓을 만이 붓어져서 민.(벌 쏘이면 무슨 약이 있어. 그저 가만히 내버리면, 부을 만큼 부으면.)

113043 @ 뭐 오줌 싸고 안 험니까?(뭐 오줌 싸고 안 험니까?)

113043 #2 그런 것사 허주만은 것도 약이라?(그런 거야 하지만 것도 약이야?)

113043 @ 아니, 어쨌든.(아니, 어쨌든.)

113043 #2 기자 뱀 물리민 예염더레 강 오줌 싸민, 멘도롱헌 오줌 싸명 블라낫 주게. 게도 막 좋지 안 허여.(그저 뱀 물리면 옆으로 가서 오줌 싸면, 따뜻한 오줌 싸면서 발랐었지. 그래도 아주 좋지 않아.)

113044 @ 옷올른덴 험니까, 옷올른덴 험니까 옷, 옷? 막 풀 옷올른덴 험니까?(옷올른다고 험니까, 옷올른다고 험니까 옷, 옷? 아주 풀 옷올른다고 험니까?)

113044 #2 으, 윈 자기가 안 허어나난 그런 거.(으, 윈 자기가 안 했었으니까 그런 거.)

113047 @ 으, 그 허리 빠였을 때, 발목 빠였을 때?(으, 그 허리 빠였을 때, 발목 빠였을 때?)

113047 #2 빠서게 빠지 안 허영 그대로 오그라만 지곡 발목도 빠어보지 안허고 게.(빠였어, 빠지 않아서 그대로 오그릴 수 있고 발목도 빠어 보지 않았고.)

113049 @ 귀에 물 들어가낫수과, 귀에? 물질허당?(귀에 물 들어갔었습니까, 귀에? 물질하다가?)

113049 #2 물 들어가도 나오라불민 좋아. 물 튼튼했다근에 무시거로 것지민 고로록 허게 나와 불민.(물 들어가도 나오면 좋아. 물 튼튼했다가 무엇으로 건드리면 ‘고로록’ 하게 나와 버리면.)

113049 @ 뭐, 뭐 것지민?(뭐, 뭐 건드리면?)

113049 #2 무신 종이라도 빙빙 몰양 것지민 고로록 허게 소리 나명 나와 베.(무슨 종이라도 빙빙 말아서 만지면 ‘고로록’ 하게 소리 나면서 나와 버려.)

113049 @ 나와 불어예, 예.(나와 버려요, 예.)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역사학	연구 책임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도련1동 표선면 표선리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선흘1리
김선희	제주대학교 강사	고전문학(제주무속)	구좌읍 송당리
김승연	박사과정 수료	한국학(제주무속)	성산읍 고성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표선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남원리
최연미	돈을양지책뜨르	국문학	서귀포시 보목동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동광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고산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림읍 월령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	국어국문학	연구보조

2017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6

발행인 박찬식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